

발 간 등 록 번 호

11-1290472-000153-01

ISBN-979-11-5598-0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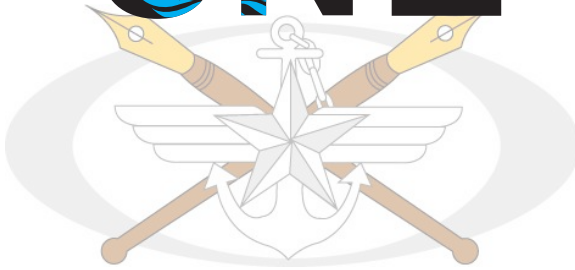
# 6·25 전쟁과 UN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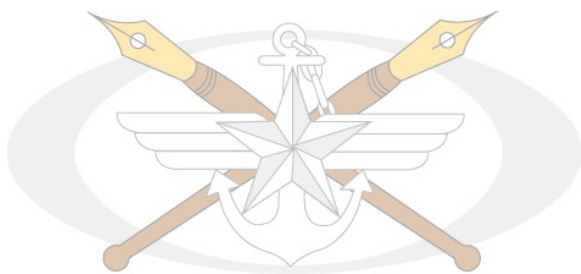
손규석 · 조성훈 · 김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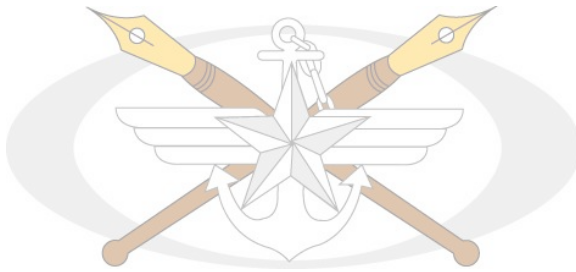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6·25 전쟁과

# UN군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슈엔군 장병과  
의료 및 물자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원국 국민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 발 간 사

금년은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더불어 한국이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지도 70년이 되었습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비롯해 전쟁 극복, 전후 안전보장 등에 밀접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유엔(국제연합)과의 관계는 창설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하여 파견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이 선거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48 대 6으로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6·25전쟁은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under one banner)’ 수행한 첫 전쟁입니다.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남침 전쟁에 대해, 유엔은 현장 정신에 나타난 것처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합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독립 국가는 93개국, 유엔 회원국은 61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 구 소련과 중국 등 일부 공산권을 제외하고 유엔 비회원국까지 포함하는 절대 다수인 60개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하였습니다.

6대륙 21개국에서 연인원 194만 명이 참전해서, 미군 36,000여 명, 영국군 1,108명, 터키군 891명 등 모두 4만여 명의 유엔군이 전사하였습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들은 그들의 고향, 친구, 가족을 떠나 당시 제대로 알지도 못한 낯선 나라인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값진 희생을 했습니다.

전후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통한 정전 체제를 유지·관리해 왔으며, 유엔이 직접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 등 위협에 대해 정전협정의 준수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군 참전 혹은 의료와 물자 지원을 한 여러 나라의 도움과 희생으로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병력, 의료, 물자 등을 지원했던 ‘우방국’에 대해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유엔의 날’을 국경일로 기념했고, 최근에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여 이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적과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곳곳에 기념비를 세웠고,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그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 13대 경제강국으로 발전한 나라로서 이에 부합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덧붙여 한국은 유엔이 세우고 지켜준 나라로 유엔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유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도 함께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책은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물론 6·25전쟁 시 우리를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도와준 유엔과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했습니다. 6·25전쟁에서의 유엔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현재 유엔의 지향 방향인 ‘강한 유엔, 더 좋은 세계 (Strong UN, Better World)’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연구원과 감수를 맡아주신 온창일·정토용·김계동 교수를 비롯해 합동군사대 김유석 중령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김 철 수

## ●●● 머 리 말 ●●●

평화, 개발, 인권 등 3대 핵심 목표를 추구하는 유엔은 오늘날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핵심 기구로 손꼽힌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정부 수립, 전쟁 극복, 전후 안전보장 등을 위해 유엔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에서 벗어난 국제사회는 전쟁 재발을 억제하여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45년 10월 24일 51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국제연합(UN: The United Nations)이 창설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대전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카이로, 테헤란, 알타 회담, 포츠담 등 수차례의 국제회의에서 연합국은 전후 한반도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연합국 측의 정책에 따라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 양국의 군대가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각각 남북을 분할 점령하여 독립이 달성될 때까지 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제의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장관이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 모여 신탁통치안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정부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양국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단일 독립국가 수립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인 냉전이 본격화 되어 한반도에서 통일된 독립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해졌고, 이 문제는 유엔으로 넘겨졌다.

한반도 문제를 이관 받은 유엔은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단일 독립국가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소련의 거부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유엔은 남한지역만의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였다.

이후 유엔은 남북한에 각각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북한의 남침 위협이 높아지자,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엔은 통일 정부의 수립은 물론이고 북한의 불법 남침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엔은 1947년부터 진행된 유엔 한국위원단(UNCOK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을 창설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지원하였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 무력남침으로 인해 시작된 6·25전쟁에서 결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북한의 침략으로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자, 유엔은 미국의 주도적 역할 아래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결정하였고,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을 주축으로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과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5개국 그리고 물자를 지원한 39개국 등 60개 국가들은 휴전이 조인될 때까지 유엔의 깃발 아래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전재민 구호와 복구를 위해 헌신하였다.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가 어떠하였는가는 유엔의 창설 이후 6·25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엔이 채택한 한국 문제와 관련한 각종 결의문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유엔은 해당 기간 중에 한국 문제의 해결 방향을 거듭 모색한 끝에 총회에서 17회, 소총회에서 3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8회, 경제사회이사회에서 9회 등 총 47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sup>1)</sup>

---

1) 정일형, 『한국문제유엔결의문집』(국제연합협회, 1954), 1쪽.



유엔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대제재선언,’ 제네바정치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안전보장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시에 유엔은 국제기구 및 비정부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후 복구에 크게 기여하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조치,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정전체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서 북한에 인도적 조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참전국을 비롯한 의료, 물자 등의 지원에 힘입어 전후 60여 년 동안 세계 13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고, 민주화도 크게 진전되었다. 1991년 유엔가입 후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여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교과서적인 본보기가 되었다.<sup>2)</sup>

이 책에서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여러 연구 성과와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6·25전쟁과 유엔군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1945년 창설된 유엔이 전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전후 한반도 안전보장과 평화 등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참전 16개국을 주로 다루되 의료지원국과 물자 지원국의 기여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광복 이후 국제 사회, 특히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South Korea : From Aid Recipient to Doner”, Embassy of the U.S. Seoul Korea(김색일 : 2015.7.13.).

# 목 차

## 발 간 사

## 머 리 말

### 제1장 유엔 창설과 한국

제1절 유엔 창설과 한국 문제 .....	1
제2절 유엔한국위원단 활동과 전쟁예방 노력 .....	12

### 제2장 북한의 남침과 유엔의 참전

제1절 북한의 남침과 유엔의 조치 .....	23
제2절 유엔군 구성과 지휘체계 .....	40

### 제3장 유엔 참전국의 파병과 작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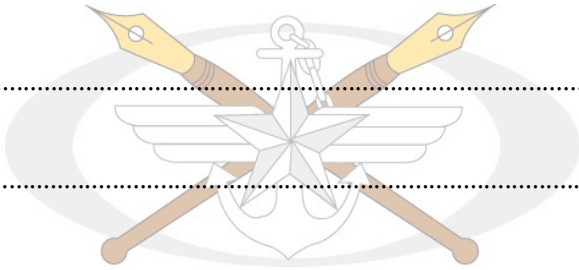
제1절 개 요 .....	59
제2절 남북아메리카지역 참전국 .....	65
제3절 유럽지역 참전국 .....	165
제4절 아시아지역 참전국 .....	268
제5절 오세아니아지역 참전국 .....	297
제6절 아프리카지역 참전국 .....	338

### 제4장 유엔의 의료 및 물자 지원 활동

제1절 의료지원국의 활동 .....	365
제2절 유엔 전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 .....	400

## 제5장 전후 유엔의 역할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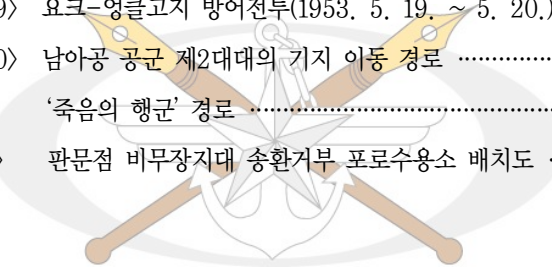
제1절 유엔군의 전후 활동 .....	433
제2절 전후 처리와 유엔의 역할 .....	481
<b>맺음말</b> .....	499
<b>참고문헌</b> .....	512
<b>찾아보기</b> .....	525



## 상황도 목차

〈상황도 3-1〉	미군 주요 전투 .....	68
〈상황도 3-2〉	미 스미스부대의 오산 부근 전투(1950. 7. 5.) .....	78
〈상황도 3-3〉	인천상륙작전(1950. 9. 15. ~ 9. 16.) .....	91
〈상황도 3-4〉	MIG-15기의 작전지역 .....	116
〈상황도 3-5〉	캐나다군 주요 전투 .....	126
〈상황도 3-6〉	PPCLI 제2대대의 가평 전투 .....	130
〈상황도 3-7〉	355고지(고왕산) 및 227고지 전투(1951. 11. 23. ~ 11. 25.)	141
〈상황도 3-8〉	400고지 기습공격(1952. 6. 21.) .....	155
〈상황도 3-9〉	불모고지 전투(1953. 3. 23. ~ 3. 25.) .....	160
〈상황도 3-10〉	영국군 주요 전투 .....	168
〈상황도 3-11〉	영국군 제27여단의 박천지구 전투(1950. 11. 4. ~ 11. 6.)	176
〈상황도 3-12〉	영국 글로스터대대의 적성 전투(1951. 4. 22. ~ 4. 25.)	181
〈상황도 3-13〉	화살머리고지(291고지) 전투(1952. 10. 6. ~ 10. 10.)	203
〈상황도 3-14〉	터키군 주요 전투 .....	209
〈상황도 3-15〉	터키여단의 신립리 전투(1950. 11. 28. ~ 11. 29.)	212
〈상황도 3-16〉	대우산 전투(1951. 7. 15. ~ 8. 6.) .....	230
〈상황도 3-17〉	금굴산 전투(1951. 4. 22. ~ 4. 25.) .....	243
〈상황도 3-18〉	жат골 방어 전투(1953. 2. 26 ~ 4. 21.) .....	248
〈상황도 3-19〉	381고지 전투(1951. 1. 29. ~ 1. 30.) .....	256
〈상황도 3-20〉	울동 전투(1951. 4. 22. ~ 4. 23.) .....	272
〈상황도 3-21〉	아스날 및 에리고지 전초전(1952. 6. 2. ~ 6. 22.)	276
〈상황도 3-22〉	태국대대 연천지역 방어(1951. 7. 31. ~ 9. 7.)	287

〈상황도 3-23〉 태국대대의 포크잡고지 전투(1952. 11. 1. ~ 11. 11.)	… 289
〈상황도 3-24〉 박천지구 전투(1950. 11. 4. ~ 11. 6.)	… 305
〈상황도 3-25〉 가평 죽둔리 전투(1951. 4. 23. ~ 4. 24.)	… 309
〈상황도 3-26〉 호주 공군 제77대대의 작전기지 이동 경로	… 317
〈상황도 3-27〉 뉴질랜드 포병연대의 코만도작전(1951. 10. 3. ~ 10. 8.)	… 329
〈상황도 3-28〉 뉴질랜드 프리깃함 작전해역	… 333
〈상황도 3-29〉 요크-영클고지 방어전투(1953. 5. 19. ~ 5. 20.)	… 347
〈상황도 3-30〉 남아공 공군 제2대대의 기지 이동 경로	… 357
〈상황도 5-1〉 ‘죽음의 행군’ 경로	… 451
〈상황도 5-2〉 판문점 비무장지대 송환거부 포로수용소 배치도	… 454



## 표 목차

〈표 1-1〉	유엔 창설 당시 원 회원국 현황(1945년 12월 27일 현재) ……	4
〈표 2-1〉	6·25전쟁 발발 시 남·북한 군사력 비교 ……	24
〈표 2-2〉	유엔군사령부 지휘체계 ……	51
〈표 2-3〉	6·25전쟁 기간 유엔군사령관 현황 ……	52
〈표 3-1〉	유엔군 참전일지 ……	63
〈표 3-2〉	미국 육군 전투부대 참전 현황 ……	67
〈표 3-3〉	6·25전쟁 기간 미 제8군사령관 현황 ……	69
〈표 3-4〉	6·25전쟁 기간 미국 해군 참전 주요 지휘관 현황 ……	71
〈표 3-5〉	6·25전쟁 기간 미국 공군 참전 주요 지휘관 현황 ……	74
〈표 3-6〉	미국 인명피해 현황 ……	121
〈표 3-7〉	캐나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127
〈표 3-8〉	캐나다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	128
〈표 3-9〉	캐나다군 참전 현황 ……	149
〈표 3-10〉	캐나다군 인명피해 현황 ……	149
〈표 3-11〉	콜롬비아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	152
〈표 3-12〉	콜롬비아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153
〈표 3-13〉	콜롬비아군 참전 현황 ……	163
〈표 3-14〉	콜롬비아군 인명피해 현황 ……	164
〈표 3-15〉	영국 지상군 참전 사단 및 여단 지휘관 ……	169
〈표 3-16〉	영국 지상군 참전 대대 및 지휘관 ……	170
〈표 3-17〉	영국 해군 함대 참전 함정 ……	171
〈표 3-18〉	영국 해군 함대사령관 ……	172
〈표 3-19〉	영국군 참전 현황 ……	191
〈표 3-20〉	영국군 인명피해 현황 ……	191

〈표 3-21〉 프랑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195
〈표 3-22〉 프랑스군 참전 현황 .....	205
〈표 3-23〉 프랑스군 인명피해 현황 .....	205
〈표 3-24〉 터키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208
〈표 3-25〉 터키군 참전 현황 .....	221
〈표 3-26〉 터키군 인명피해 현황 .....	221
〈표 3-27〉 네덜란드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224
〈표 3-28〉 네덜란드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	225
〈표 3-29〉 네덜란드군 참전 현황 .....	236
〈표 3-30〉 네덜란드군 인명피해 현황 .....	236
〈표 3-31〉 벨기에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241
〈표 3-32〉 벨기에군 참전 현황 .....	250
〈표 3-33〉 벨기에군 인명피해 현황 .....	250
〈표 3-34〉 룩셈부르크군 인명피해 현황 .....	251
〈표 3-35〉 그리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254
〈표 3-36〉 그리스 공군 제13수송편대 지휘관 .....	255
〈표 3-37〉 그리스군 참전 현황 .....	267
〈표 3-38〉 그리스군 인명피해 현황 .....	267
〈표 3-39〉 필리핀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270
〈표 3-40〉 필리핀군 참전 현황 .....	280
〈표 3-41〉 필리핀군 인명피해 현황 .....	281
〈표 3-42〉 태국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284
〈표 3-43〉 태국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	284
〈표 3-44〉 태국 공군 참전기간 및 지휘관 .....	285

〈표 3-45〉 태국군 참전 현황 .....	295
〈표 3-46〉 태국군 인명피해 현황 .....	296
〈표 3-47〉 호주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300
〈표 3-48〉 호주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	301
〈표 3-49〉 호주 공군 제77전투비행대대 지휘관 .....	302
〈표 3-50〉 호주군 참전 현황 .....	319
〈표 3-51〉 호주군 인명피해 현황 .....	320
〈표 3-52〉 뉴질랜드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323
〈표 3-53〉 뉴질랜드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	323
〈표 3-54〉 뉴질랜드군 참전 현황 .....	337
〈표 3-55〉 뉴질랜드군 인명피해 현황 .....	337
〈표 3-56〉 에티오피아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341
〈표 3-57〉 에티오피아군 참전 현황 .....	350
〈표 3-58〉 에티오피아군 인명피해 현황 .....	350
〈표 3-59〉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353
〈표 3-60〉 남아프리카공화국군 참전 현황 .....	360
〈표 3-61〉 남아프리카공화국군 인명피해 현황 .....	361
〈표 4-1〉 스웨덴 적십자병원 주요 활동 연표 .....	370
〈표 4-2〉 인도 제60야전병원 주요 활동 연표 .....	374
〈표 4-3〉 병원선 유틀란디아호 주요 활동 .....	383
〈표 4-4〉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주요 활동 연표 .....	390
〈표 4-5〉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 주요 활동 연표 .....	397
〈표 4-6〉 유엔의 물자지원 관련 결의와 주요 내용 .....	401
〈표 4-7〉 유엔군사령부의 긴급 물자지원 요청 현황(1951. 2. 7.) .....	402



〈표 4-8〉 유엔 회원국의 물자지원 제의 현황(1951. 2. 7) .....	408
〈표 4-9〉 한국재건단의 재건 계획 .....	412
〈표 4-10〉 유엔을 통한 물자지원국 현황(1950. 7. ~ 1958. 12.) .....	417
〈표 4-11〉 국제기구의 물자 및 전문가 지원 현황(1951. 1. 30) .....	420
〈표 4-12〉 유네스코의 주요 지원 활동 .....	427
〈표 5-1〉 송환희망포로 송환 현황 .....	452
〈표 5-2〉 송환거부 공산포로 처리 결과 .....	459
〈표 5-3〉 정전관리기구 편성표 .....	471
〈표 5-4〉 본회의(제1-460차) 개최 .....	473
〈표 5-5〉 북한군 정전협정 주요 위반사건 .....	478
〈표 6-1〉 유엔군 전사자 현황 .....	502
〈표 6-2〉 UN 평화유지활동 참여현황(2014. 7. 현재) .....	510

## 제 1 장

# 유엔 창설과 한국

제1절 유엔 창설과 한국 문제

제2절 유엔한국위원단 활동과  
전쟁예방 노력



## 제1장 유엔 창설과 한국

### 제1절 유엔 창설과 한국 문제



#### 1. 유엔 창설과 역할

오늘날 유엔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강대국 간 경쟁, 이념적 대결의 유산 등으로 한계가 있지만, 세계평화와 안전·인권·환경 등 세계정치를 이해하는데 핵심 국제기구이다.<sup>3)</sup> 유엔은 세계대전이 계속되고 있는 중 또 다른 세계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앞장서서 연합국 간에 전후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창설되었다.

1941년 8월의 대서양헌장(미국과 영국의 공동선언), 1942년 1월 1일 연합국 공동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s)<sup>4)</sup>을 거쳐, 1943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소·영·중에 의한 모스크바 외무부장관회의, 1944년 워

3) Thomas G. Weiss · David P. Forsythe, Roger A. Coate, Koelly-Kate Pease, *The United Nations and Changing World Politics*(Westview Press, 2014), p.xiii.

4) 유엔(United Nations)이라는 이름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만들었으며, 이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린다 파슬로(김형준·이진영 등 역), 『유엔리포트』, 21세기북스, 2014, 20쪽).

싱턴 D.C.의 덤바턴 오크스회의(Dumbarton Oaks Conference)를 통해 국제기구 설립의 일반 원칙이 정해졌다. 이어 1945년 2월, 미·영·소의 얄타회담에서 유엔헌장이 완성되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후 국제질서를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였다. 이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참전이 결정되었고, 그 대가로 소련은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빼앗긴 남부 사할린 복구, 중국 따론편(大連)의 국제화와 우월적 이익 보장, 외몽고 현상 유지, 쿠릴열도 획득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소련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러한 합의 배경에는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등 4개국 중심으로 유엔을 통해 새로운 전후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sup>5)</sup>

1945년 4월 25일부터 2달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와 재향군인회 빌딩에서 열린 유엔 창설회의에서 유엔헌장이 채택되고 참가국 50개국이 6월 26일 서명함으로써 원 회원국이 되었다.<sup>6)</sup> 유럽과 아시아에서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탈리아·일본 등 3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국가만이 평화 애호국으로 인정받아 초청되었다.

그러나 유엔의 창설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은 유엔의 창설을 논의하면서 처음부터 대립하였다. 소련은 소비에트연방을 구성하는 15개 공화국을 각각 개별 가입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미국은 당시 미 연방을 구성한 48개 주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문제는 결국 얄타회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소련이 최초의 요구를 변경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그 결과 소련, 백러시아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원가입국이 되었다.

5) 유나영, 「윌츠의 세 가지 이미지와 한반도 분단의 원인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55-2, 2015, 13쪽; 온창일, 『안보외교론』 1(지문당, 2012), 148-150쪽.

6) 「대한민국을 낳은 국제회의-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 『조선일보』 2015.9.2.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남아공연방의 서명 장면(1945.6.26, 유엔 미디어)

유엔 창설을 위한 최초의 만남인 샌프란시스코 회의에는 50개국 대표가 참가하였다. 이때 프랑스는 회의를 주최하는 5개 주요 국가에 가담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사퇴하였다. 드골은 4대국(Big Four)이 주도하는데에 불만을 가졌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공식적으로 미·소·영·중이 주최했고, 4개국은 덤바턴 오크스 예비회담에서 준비한 유엔헌장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sup>7)</sup>

이후 1945년 10월 24일 5대 강국을 포함한 29개국이 유엔현장의 비준서를 채택하여, 유엔은 탄생하였다. 한때 한국에서도 이날을 ‘유엔의 날’로 기념하였다. 그후 12월 27일 폴란드를 포함한 51개 회원국이 모두 비준을 완료하였다.<sup>8)</sup>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와 남아공화국은 창설 당시 회원국으로서 나중에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51개 회원국 가운데 소련, 체코, 폴란드 등 공산권이 10개국에 불과했고,

7) 박홍규 편저, 『UN』(서울: 형성사, 1991), 75-76쪽; William L. Newman, *After Victory: Churchill, Roosevelt, Stalin and the Making of the Peace*(New York : Harper & Row), 1967, pp.183-184.

8) 남북한은 1991년에 각각 160번째와 161번째로 유엔에 가입하였고 2014년 10월 현재 유엔회원국 수는 193개 국가임.

나머지 대부분은 자유진영 국가였다. 이 점은 6·25전쟁이나 전후 북한과 공산권을 견제하는 데 유리한 점이였다. 유엔본부가 뉴욕에 설치된 점도 도움이 되었다. 1945년 12월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유엔본부를 미국에 설치하자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유엔은 이를 수용하였다. 록펠러 2세(John D. Rockefeller, Jr)가 그 부지를 구입해서 기증하여, 유엔본부는 뉴욕에서 문을 열었다.

〈표 1-1〉 유엔 창설 당시 원 회원국 현황(1945년 12월 27일 현재)

번호	국가 명
안보리 이사국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자유중국)
일반 회원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벨로루시(현 벨라루스),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그리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라이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우크라이나, 남아공연방,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유고연방

※ 국가 순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에 영문 알파벳 순서임

유엔의 창설 목적은 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헌장(UN Charter)에 잘 나타나 있다. 유엔 헌장은 전문을 비롯해 목적과 원칙, 회원국의 지위, 주요 기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와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 국제 경제협력 등 총 19장 111조로 구성됐다.

유엔 헌장 제1장 목적과 원칙, 제1조 유엔의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

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이처럼 유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이다. 유엔활동의 대부분은 이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은 유엔이 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기능의 일차적 책임을 부여하였다. 인권보호도 중요하다. 바로 헌장 제1조에 유엔의 주요 목적의 하나가 국제적 협력을 통한 인권 존중, 기본권의 존중에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유엔의 인권보호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창설 목적을 위해 유엔에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sup>9)</sup> 등 세 개의 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 6개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제7조 1항). 이러한 핵심 기관들은 모두 창설 당시인 1945년에 설치된 것으로, 이 가운데 총회, 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 등이 정부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구이다. 이들 기관은 다양한 유엔 산하 전문 기관 및 국제기구, 비정부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영·중·소·프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 지리적 배분에 따라 선출된 10개 비상임이사국(1965년까지는 6개국)으로 구성된다(제23조). 이 가운데 상임이사국은 대부분의 실질적인 결정에 대하여 각각 거부권을 갖는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은 상당히 막강하다. 왜냐하면 유엔의 모든 가입국이 안보리가 평화유지에 관한 ‘중요한 책임’을 지며 ‘가입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결정을 수락하며 이행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제24조 1항, 제25, 49조).

안보리는 유엔헌장 아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prime responsibility)을 진다. 이런 까닭에 국제 분쟁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무력개입 승인, 무기 금수·금융 제재·여행 금지 및 외교관계 단절을 비롯한 다양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시에 안보리는 테러에 대한 국제적 협조, 군비계획의 작성,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사항 이행, 지역 분쟁에 대한 지역적 강제 행동의 허가, 전략지구 감독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안보리는 총회와 공동으로 유엔회원국의 가입승인·제명·권리정지 및 사무총장 임명 등도 관장하고 있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

9)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는 한때 아프리카 및 태평양에 있는 11개 지역을 통치했지만 1994년 10월 마지막 신탁통치 지역인 팔라우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사명을 다하고 해산되었다.

도록 조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28조 제1항)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열릴 수 있다. 현장에는 이사국의 외무부장관 등에 의한 임시회의도 규정되어 있다(제28조 2항). 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나라도 토의 참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의안을 제의한 경우에는 이사국의 요청이 있어야 그것이 표결된다. 그 경우 비이사국은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제31, 32조).

안보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장 상 전원 일치 내지 거부권이 정해진 유일한 기관인 점이다. 곧 이사회의 결정은 15개국 가운데 9표(최초에는 7표)의 찬성을 획득하면 통과될 수 있지만, 절차 사항을 제외하고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통과될 수 없다. 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정시에 분쟁당사국은 기권하여야 한다(제27조 3항).<sup>10)</sup>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간의 권한 배분 문제에 있어서 경제사회이사회나 신탁통치이사회 등이 ‘총회의 권위 하에서 활동’(제60조, 85조 2항)하는 반면에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 규정된 이유는 동일 문제를 2개 기관이 동시에 취급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세계의 평화 유지와 관련된 임무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의 권위는 총회의 논의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sup>11)</sup>

안전보장이사회는 부여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산하 기관과 보조기관, 부속위원회 등을 두고 임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참모위원회를 비롯한 제재위원회, 신규 가입국 심사위원회, 국제재판소, 원자력위원회, 군축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안보리 산하에는 6·25전쟁 관련 위원회 또는 기관으로 유엔군통합사령부(United Nations Unified Command in Korea)와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10) 거부권은 1970년까지 주로 소련에 의해 행사되었으나, 그후에는 서방 측 3개 이사국, 특히 미국에 의해 주로 중동문제와 남아프리카 문제를 둘러싸고 행사되어 왔다. 기권도 거부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동의로 간주되어 왔으며 반대만이 거부권으로 인정된다. 투표 불참이나 결석도 동의로 간주되고 있다(박홍규 편저, 『UN』, 89쪽).

11) 박홍순·조한승·정우탁 편, 『유엔과 세계평화』(오름, 2013), 38-39쪽.

Commission in Korea),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n Korea) 등이 설치되었다.<sup>12)</sup>

## 2.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

유엔이 대한민국과 공식적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 미국과 소련 간에 한반도에서 단일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협상이 실패하고 한국 문제가 제2차 유엔 총회에 제기된 1947년 9월 17일부터였다. 즉 광복 이후 미·소 간 합의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통일 정부 수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전후처리회담에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중국 등의 열강들은 한국이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쳐 자유로운 독립국가 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뒤늦게 대일전(對日戰)에 참전한 소련도 카이로선언에 동의하였다.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회담(Yalta Conference)에서 미국과 소련은 한국에 대해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일정 기간 신탁통치를 하기로 구체화하였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였고, 소련, 영국, 중국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미국의 일반명령 제1호에 따라 38도선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일본의 항복을 접수하게 되었다.

소련이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한 후, 소련군은 두만강을 건너 이미 8월 11일 북한 웅기에 상륙하였고 8월 24일 평양, 25일 개성, 28일에는 해주, 김화, 화천, 양양까지 전개하여 38도선 이북 전 지역을 점령하

12) 박홍규 편저, 『UN』, 88-90쪽.

였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 대장이 지휘하는 제1극동방면군 소속의 제25군으로서 이들은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북한 전역에 걸친 군정체제를 완료하였으며, 군정 실시기관으로 로마넨코(A. A. Romanenko) 소장이 사령관인 민정관리총국을 설치하였다.

한편 미국은 오키나와 주둔 제24군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선발대는 소련군보다 20일이 지난 1945년 9월 4일 김포비행장을 통해 한국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로부터 4일 후인 8일 인천에 상륙한 제7사단은 서울·경기·충청 지역에, 9월 말에 도착한 제40사단은 경상도에, 마지막으로 10월 16일에 도착한 제6사단은 전라도 지방에 각각 배치되었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미 극동군사령관은 1945년 9월 7일, 남한 내에서 군정을 실시한다고 선포하였고, 하지(John R. Hodge) 제24군단장은 9월 12일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제7사단장을 군정장관에 임명하였다.<sup>13)</sup>

미·소 양국은 카이로선언의 ‘적당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신탁통치안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무부장관은 카이로선언을 이행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정부 수립과 5개년 신탁통치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의 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처음부터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계열만 협의대상으로 하자는 소련 측 주장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참여 시키려는 미국 측의 주장이 맞서 난항을 거듭하다가 회담을 시작한지 50일 만인 1946년 5월 8일을 기해 무기 휴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1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국방군사연구소, 1995), 8-11쪽.

이미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의 세력경쟁이 본격화되었다. 1946년 3월 5일 전 영국 수상 처칠이 미국을 방문 중 소련이 동유럽에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고 연설하였다.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에 원조를 선언하였다.

이후 수차에 걸친 미국의 회담재개 요청을 거부해 오던 소련은 1947년 3월 미국이 외교정책의 중점을 소련의 팽창정책에 정면 대응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 회담 재개에 동의하였고, 그 결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7년 5월 21일 서울에서 다시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시작부터 제1차 회담과 같은 양상이 되풀이 되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협의대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8월 26일 마영·중·소 4개국 회담으로 한국 문제를 이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한반도 문제가 3국 외무부장관 회의 결정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4개국 회담으로 이관하는 것은 3국 외무부장관회의 결정을 위반한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10월 18일 미국 대표단이 유엔에서 한국 문제 토의가 끝날 때까지 공동위원회의 업무의 중지를 제의하자 소련 측이 대표단을 철수시킴으로써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었다.

미국 정부는 모스크바협정 노선을 포기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이미 1947년 초부터 트루먼 행정부는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포기하고, 남한으로부터 철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 2월, 민정합동위원회(JCAC)에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한다면 유엔에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는 국제공조를 통한 '다자적 해결'을 통해 소련과 타협하지 않고도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철군 후 남한의 안전보장 확보도 가능한 방안이었다.

1947년 9월 17일 미국 정부는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 제2차 총회에 제기하였다. 유엔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소련과 협조하여 모스크바협정에 따라 한국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소련과의 더 이상의 공동노력은 시간의 낭비일 뿐이며, 이러한 공동노력을 위해 한국 국민들의 독립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 이유를 밝혔다.<sup>14)</sup>

미국 안에 맞서, 소련 측은 한국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문제이므로 유엔은 관할권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1947년 9월 26일 제2차 미·소공동 위원회 결렬 직후 “조선인민이 자유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조선에서 미소 양국군대를 동시 철거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1947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1948년 초에 미소 양국 군대를 동시에 철거하자는 안으로 다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을 통한 총선거로서 통일정부를 만들고 그 통일정부 스스로 치안군을 편성한 후 그 치안군이 전 한국의 치안을 보장하기를 기다려 미소 양군을 철퇴시키자고 제안하여, 1947년 11월 14일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 문제는 미국과 소련의 영역을 벗어나 유엔으로 이관됨으로써 유엔이라는 범세계적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14) 국방부, 『국방사』 1, 전사편찬위원회, 1984, 123-124쪽.

## 제2절 유엔한국위원단 활동과 전쟁예방 노력

### 1.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 및 대한민국 수립

유엔은 한국 문제에 대해 1947년부터 개입하였다. 한반도 문제를 이관 받은 유엔은 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한 후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유엔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소련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a legitimate government)로 인정하고 유엔한국위원단을 설치하여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임무를 승계토록 하였다.

유엔에서 선(先) 정부수립 후(後) 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크게 대립하였다. 1947년 9월 23일 한국 문제를 의제로 채택한 유엔 총회는 정치위원회로 하여금 이 의제에 대해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미국은 10월 16일 유엔에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결의안의 요지는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유엔의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며, 이러한 정부가 수립된 후에 모든 외국군이 철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소련은 유엔이 한국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모든 외국군들은 한반도로부터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1947년 10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유엔 정치위원회에서도

미국이 ‘선 정부수립 후 외국군 철수’를 주장한 반면 소련은 ‘선 외국군 철수 후 정부수립’안을 내세웠다. 또한 미국은 남북대표의 선출을 위해 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소련은 유엔 토의에 남북한 대표를 동시에 초청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양측의 주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때 유엔 총회는 한국 국민의 독립에 대한 요청이 긴급하고 정당함은 물론 점령군의 조기 철수의 당위성도 인정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에 독립 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소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7년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와 총선거에 관한 아래와 같은 요지의 결의문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하였다(총회 결의 제112호 II).<sup>15)</sup> 이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는 ‘유엔 관리 하에 정부수립’이라는 방침 아래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 총회결의 제112호 II

- ① 정부수립문제의 토의에 참가하도록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한국국민의 대표들을 초청하여야 한다.
- ② 공정한 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한국 전역에 걸쳐 여행, 감시, 혐의할 권한이 부여되는 9개국(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대표로 구성된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UNTCOK :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 설치한다.
- ③ 한국 국민의 대표자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1948년 3월 1일 이전에 동 위원단의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보통선거 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실시한다.
- ④ 선거 후 이들의 대표자들이 가급적 조속히 국회를 조직하여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위원단에 통보한다.
- ⑤ 정부는 남북한 군정당국으로부터 정부의 제 권한을 이양 받고, 자체의 국방군을 조직하여 가급적 조속히(가능하면 90일 이내) 점령군이 철수하도록 관계국들과 협의한다.
- ⑥ 위원단은 사태발전에 따라 유엔 소총회와 협의할 수 있다.

15)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23쪽.



이처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쉽게 통과시켰으나, 소련은 점령군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철수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결의안에 반대하였다. 한반도에서 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데에 소련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미국과 소련은 전쟁 중의 동맹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져갔다. 전후 냉전은 국가 간의 이상적인 협력체제인 유엔을 동서 양 진영의 권력정치로 대체해 버리고 말았다.<sup>16)</sup>

유엔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여 파견함으로써 한국 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본격화하였다. 위원단은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48년 1월 8일, 공산진영의 우크라이나공화국을 제외한 8개국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12일부터 덕수궁 석조전에서 동 위원회를 열고 인도 대표 메논(K.P.S Menon)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13일에는 한국인 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결의하고, 19일에는 3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감시단을 설치하고 남북을 통한 전한국의 총선거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사령관이 소련 점령 아래있는 북한에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원단은 남한에서만 총회의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총회와 협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1947년 11월 14일의 총회결의에 설정된 계획은 실시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전 한국을 통한 선거 감시에 임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 감시에 임하여야 한다”

16) 린다 파슬로(김형준·이진영 등 역), 『유엔리포트』, 20쪽.

는 미국의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 결의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시위원단 중 캐나다와 시리아, 호주는 남한만의 선거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으나, 결국 유엔 소총회의 결의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sup>17)</sup> 1948년 2월 28일, 재경 유엔위원단은 5월 9일 이전 선거시행을 발표하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모습(1948.3, 유엔 미디어)

1948년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 총 13,272개 투표구 중에서 폭동이 일어난 제주도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위원단은 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전체 한국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주민을 가진 한국 내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자유의지의 정당한 표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제헌국회법 제정한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유엔한국위원단은 남한에 국회 구성과 정부 수립 후에 한국을 떠났다.

17)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서울대출판부, 2000), 143쪽.

이에 맞서 소련은 그동안 주장해온 점령군의 철수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 지역 소련군을 1949년 12월말까지 철군시킬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아울러 미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소련의 동시 철군 제안의 음모를 폭로하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 남북한 간에 평화교섭이 달성될 때까지 미군의 계속 주둔 결의안을 채택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동 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철수 연기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1948년 10월 30일 유엔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 총회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 국가의 반대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통치력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동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총회 결의 제195 III).<sup>18)</sup> 이 때문에 유엔은 대한민국의 산모라고까지 평가되었다. 당시 정일형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구 한말 헤이그회의에 나섰던 이준 열사와 같은 각오로 한국 문제가 유엔 총회에 상정이 안되면 고국 땅을 밟지 않을 결심이었다고 회고하였다.<sup>19)</sup>

이러한 승인은 우리 국민에게 독립국가라는 자긍심과 ‘실지회복’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점령군이 가급적 조속히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미국이 자국군의 철수 일정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하게 되자, 소련은 이 결의가 채택된 직후인 1948년 12월 16일에 한반도에서 소련군의 철수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하고, 미군의 조기철수를 다시 한 번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도 우리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주한미군 조기철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구체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18)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82-83쪽.

19) 『동아일보』 1949.12.12, 1966.8.4.

## 2. 유엔한국위원단의 활동과 전쟁예방 노력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도, 양대 진영의 대립이 날로 심각해져 갔다. 이 가운데 1948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총회에서는 12월 12일 소련과 그 블록 국가의 반대를 일축하고 한국 정부를 48 대 6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승인하는 동시에 ‘유엔신한국위원단’을 설치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은 남한에서 미군의 철군을 가능하게 할 조건과 위원단이 남한 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남한 전복활동을 억제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미군의 철군 후 유엔을 남한 방어의 최소한의 기제로서 간주하였다.<sup>20)</sup>

한국신위원단은 7개국으로 결성되었다. 이전 ‘임시한국위원단’ 가운데 캐나다와 우크라이나만 제외되었고 나머지 국가는 동일하였다. 신위원단의 사명은 1949년 1월 31일자 신한위 공보 제1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았다. 1) 한국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에 규정된 조항에 준하여 모든 한국의 국방군을 통일하도록 조력한다. 2) 남북한의 물자교류, 3) 대표정부의 발전을 위한 감시와 협의 4) 점령군의 실지철폐를 감시하며, 또는 이미 실현되어 있을 때에 철폐사실을 확증할 것 등이었다.<sup>21)</sup>

대한민국은 유엔에 의하여 창립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직면했던 많은 문제의 해결방법을 유엔에 기대하였다. 1949년 2월 12일 유엔신한국위원단 ‘환영국민대회’가 서울운동장에서 이시영 부대통령 및 정부 요인 다수와 십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유엔 총회의 한국 정부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2004, 42-43쪽.

21) 『남북통일의 구체적 방안』 1949.3, 『안재홍 선집』 2, 423-424쪽.

승인에 대해 ‘당당한 대한민국, 빛나는 승인’이라며 함께 경축하였다.

한편 유엔 결의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주한미군의 마지막 연대전투단이 유엔한국위원단 제3분과위원회의 감시 아래 1949년 6월 29일 철수를 완료함으로써 한국에는 7월 1일부로 500명 규모로 편성된 주한 미 군사고문단만 남게 되었다.<sup>22)</sup> 주한미군이 철수하자 북한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38도선에서 무장도발을 빈도와 규모 면에서 점점 확대하였고, 이러한 긴장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1949년 9월 제4차 유엔 총회가 개시되자, 한국 통일에 관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대유엔 외교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제4차 유엔 총회는 1949년 10월 21일자 결의 제293호(IV)로써 ① 유엔위원단을 존속 및 강화시킬 것 ② 동 위원단이 한국에서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지 모르는 사태의 진전을 감시, 보고하고, 한국의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및 기타의 우호관계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대의제(代議制) 정부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 한국에 걸쳐 감시와 협의를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결정하였다.<sup>23)</sup>

이 결의에 따라 호주,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및 터키로 새로 구성된 1949년 11월 유엔 제4차 총회의 결의로 3번째 한국위원단을 구성하였다. 대표단도 중국,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프랑스, 엘살바도르, 터키 등이었다.

1950년 2월 13일 유엔신한국위원단은 덕수궁에서 개회식을 개최하였다. 그들의 새로운 역할은 “한국 내에 군사충돌을 유도 혹은 매개시킬 사태를 감시 또는 보고”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 정부도 1950년 5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유엔한국위원단의 감독 아래 총선거를

22)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2, 85-99쪽.

23)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84쪽.

실시하여 13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이 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총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군사적 통합과 유엔한국위원단의 철수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들은 유엔한국위원단을 미국의 침략도구라고 비난하였다.<sup>24)</sup>

유엔한국위원단은 전쟁 직전까지도 한국통일과 남북교역장벽 제거방안을 계속 강구하였다. 위원단은 유엔에 제출한 활동보고서를 통해, 1~2차에 걸친 유엔결의 내용의 목적이 완전히 수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반도 분할에 기인한 경제적, 사회적 및 우호적 교류에 대한 장애요인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미국 점령군의 철수는 감시 및 입증할 수 있었으나 소련 점령군의 철수는 감시 또는 입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당시 정세는 대한민국의 안녕, 복지를 위협할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38도선에서의 충돌사건이 증가하자 유엔사무총장에게 소련을 통한 외교적 탐색을 건의하였다. 또한 1950년 6월 초에는 남한의 해방을 요구하는 북한의 라디오 방송 빈도가 증가하자, 경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시반을 증가시켜 북한의 군사도발에 주목하였다.<sup>25)</sup>

1949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일’ 기념행사에서 임병직 외무부장관은 “국제연합은 장래의 전쟁을 방지하는 인류의 희망인 동시에 영구적 평화 상태를 작성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sup>26)</sup> 기대하였다. 그러나 위원단의 노력에 대한 소련의 반대가 계속되는 한, 총회가 인정하는 원칙에 입각하는 통일 달성에 효과적인 진전을 볼 수 없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진정한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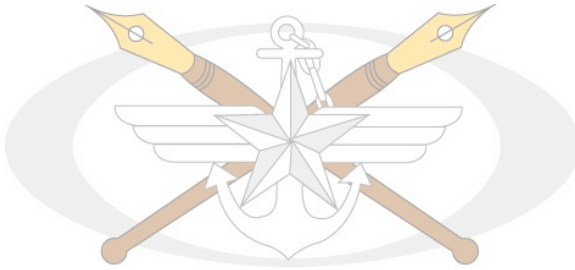
24) 「남반부의 노동당 전체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한 박헌영 동지의 방송연설」, 1950년 6월 말경,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 전투명령』, 2001, 126쪽.

25)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 상, 54쪽.

26)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이범석 국무총리·임병직 외무부장관의 축사 내용」, 『동아일보』 1949. 10. 24.

일의 길은 조선인민 자체의 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민의 길”을 강조하였으며, 이전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였듯이 신한국위원단의 활동을 부인하였다.

유엔 총회는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할 무렵인 1950년 10월 7일 신한국위원단의 보고서에 따라 총회 결의 376(V)으로 통일된 한반도의 건설과 구호 및 재건업무를 수행할 기구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을 창설하였다.



## 제 2 장

# 북한의 남침과 유엔의 참전

제1절 북한의 남침과 유엔의 조치

제2절 유엔군 구성과 지휘체계







## 제2장 북한의 남침과 유엔의 참전

### 제1절 북한의 남침과 유엔의 조치

#### 1. 북한의 남침



유엔의 감시 아래 통일정부 수립이 추진되었으나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고 남북한에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서로 다른 정권이 수립되어 크게 대립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38도선에서 도발과 유격대 남파 등으로 무력 통일을 도모하면서 불안한 정세를 조성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정권 수립 직후부터 국토완정론(國土完整論)을 제기했고, 소련군이 철군한 후 얼마 되지 않은 1949년 3월과 8월 김일성은 이미 스탈린(I. V. Stalin)에게 남침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무렵 김일을 중국에 보내 마오쩌둥에게 중국내전에 참가했던 조선인 부대를 북한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은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이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하는 동시에 전쟁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남침을 위한 준

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김일성은 1949년 10월 중국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이 공산 정권을 수립하자,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는데, 애치슨(Dean Acheson) 미 국무장관이 1950년 1월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애치슨라인을 선포하는 정세가 전개되자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대해, 김일성은 1950년 1월 17일 슈티코프 소련대사에게 남한 침략 가능성을 개진할 수 있도록 스탈린과 면담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김일성과 박헌영 외상은 1950년 3월 30일에서 4월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세 차례의 면담을 갖고 남침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때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동의를 전제로 남침계획을 승인하였다. 김일성은 귀국길에 베이징으로 직접 가서 5월 15일 마오쩌둥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렇게 북한 김일성의 남침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

이미 북한은 <표 2-1>과 같이 소련으로부터는 장비를, 중국으로부터는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조선병사’를 지원받아 10개 보병사단(야포 2,492문)과 1개 전차여단(전차 242대), 해군 3개 위수사령부(함정 110척), 공군 1개 비행사단(항공기 226대) 등 총 18만 8천여 명의 병력과 막강한 장비를 갖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군에 비해 병력은 거의 2배, 장비는 수치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세한 것이었다.

<표 2-1> 6·25전쟁 발발 시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구분	병력(명)	전차(대)	야포(문)	함정(척)	항공기(대)
국군	103,827	0	1,051	36	22
북한군	188,297	242	2,492	110	226

출처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6-7쪽.

전쟁 준비가 완료되자 북한은 1950년 5월 말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극비리에 구체적인 3단계의 공격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군은 제1단계로 한국군 방어선을 돌파하여 서울을 포위 점령함으로써 한국군 주력부대를 섬멸하고, 이어서 제2단계로 일제히 남진을 계속하여 한국군의 예비대를 격멸하며, 제3단계로 미군이 참전하기 이전에 속속속결로 부산까지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계획에 따라 북한군은 인민유격대를 사전에 남파하여 배합전선의 형성에 대비하는 한편, 군단급 부대 훈련을 가장하여 공격부대를 1950년 6월 23일까지 38도선 북쪽 10~15km 지역에 위치한 공격대기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정찰명령과 공격명령을 내렸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주한미군 철수 반대와 지속적인 군원(軍援)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군사력과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1949년 1월 15일을 기해 미 제24군단의 주력을 철수한 데 이어 6월 29일에는 500명으로 편성된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만을 남겨둔 채 잔류하고 있던 7,500명 규모의 1개 연대전투단마저 완전히 철수시켰다. 미군 철군은 남북한 사이에 힘의 균형을 상실시켜, 김일성이 전쟁도발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남침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날 무렵인 1950년 5월 10일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은 외신기자들과의 회담석상에서 “북괴군은 그 병력을 38도선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북괴의 침략이 임박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5~6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의 원조만이 북괴의 침략을 방위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sup>

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92쪽.

그러나 미국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도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하였고, 소련이 남한을 북한에 복속시키려는 계획이 없으며 북한의 소비에트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소련 언론을 보아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북한에서 군사력 증가 대신에 비군사 부문의 생산을 강조하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북의 침략이 없을 것으로 평가하였다.<sup>2)</sup>

이러한 와중에서도 한국군은 1950년 3월에 마련된 자체 방어계획에 따라 북한군에 비해 열세인 군사력만으로 주저항선의 방어진지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군의 방어진지 구축은 적의 곡사화기에 대응하여 아군의 병력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중심 방어력도 부족하였다. 특히 주요 지역에서 북한군의 전차를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여 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은 남한의 무력도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랑비가 내리고 안개가 낀 악천후를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한 공격계획대로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야포와 박격포의 포격과 함께 일제히 기습남침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그날 저녁까지 모든 전선에서 20~40km씩 진격하였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지 5년도 안되어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 목표가 되었다.<sup>3)</sup>

## 2. 북한군 침략과 유엔 조치

### 가. 침략행위 중지 결의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일 김일성은 “이승만 도당과 괴뢰군대는 오늘

2) OIR Report No.4800.17, “Soviet Affairs” 1950.4, 정용욱·이길상편, 『해방 후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 13(다락방, 1995), p.39.

3) John M. Taylor, *General Maxwell Taylor*(New York: Doubleday, 1989), p.172.

이른 새벽 38도선 전역에 걸쳐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불의의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고 북한 내각비상회의에서 보고하면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6일에는 북한 인민이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인민을 반대하여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했다”고 방송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쟁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튿날인 27일 조선로동당, 북조선민주당, 북조선천도교청우당 도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이승만은 북한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전쟁을 도발했다”고 역설하였다.<sup>4)</sup>

그러나 김일성의 주장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속지 않았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의 지적대로 그들은 유엔이 신속히 나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sup>5)</sup> 1950년 6월 25일(미 동부시간)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과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한국시간과 뉴욕시간에 14시간의 차가 있으므로 전쟁 발생 후 24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유엔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컸던 것이 한국으로서는 다행이었다. 한국이 유엔회원국이 아니라, 참관국에 불과하였기<sup>6)</sup> 때문에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 없었다면, 유엔의 개입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북한군의 남침으로 일순간에 무너지자 무초(John J. Muccio) 주한 미국 대사는 이 사실을 미 국무부에 보고하였고, 이승만 대통령도 북한의 남침을 자력으로 격퇴할 수 없음을 우려하고 장면(張勉) 주미 대사에게 직접 미국 정부에 원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4)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자」 1950.6.25., 김일성, 『우리당의 통일정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60-63쪽; 조성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군사편찬연구소, 2014), 126-127쪽.

5) 이승만 대통령, 「유엔 기념일을 당하여」 1950.10.24, 국가기록원.

6) 『한국외교와 외교관: 이시영』(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2015), 52쪽.

에치슨 미 국무부장관은 북한의 남침이 유엔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direct challenge)이라면서,<sup>7)</sup> 거의 즉각적으로(almost immediate) 유엔 결의를 도출하였다. 그는 유엔을 통한 해결에 우선해서, 북한의 침략이 미국만의 문제인 것을 피하려 하였다. 한국은 유엔 후원 아래 독립된 국가이고, 미국은 친구이고 원조자라는 인식이었다.<sup>8)</sup>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사실을 주말에 고향 미주리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알릴 때 에치슨 장관이 한국에 대한 개입을 유엔에 의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트루먼 대통령도 유엔 안보리에 보낼 결의안을 구두로 승인하였다. 이후 유엔은 유엔군의 복진승인, 중공군 개입시 침략자 규정, 휴전 후 재침시 제재 결의, 전후 복구원조 등 한국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 나갔다. 국무부 유엔담당 희필슨 차관은 취침 중인 유엔 사무총장을 전화로 깨워 한국 사태에 대해 긴급제소건을 당일로 안보리에 상정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sup>9)</sup>

미국의 요청과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에 따라, 트리그브 리(Trygve H. Lie)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 지 하루 만인 6월 25일 14시(뉴욕 현지 시간, 한국 시간 6월 26일 04시)에 긴급 안보리를 개최하였다. 안보리 개최는 사무총장의 보고에 기초한다. 전쟁 첫 소식을 보고받고 이를 유엔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결의 및 개입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5년 동안 런던의 노르웨이 망명 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역임하였다.<sup>10)</sup>

7) "Acheson Stresses Korea 'Challenge'", *New York Times* June 30, 1950.

8) DS, "Special Guidance on Korea, Nos. 3 and 4" June 26, Box 233/RG 330, 군사편찬연구소, HD 1871.

9) 허동현, 『장면』(분도출판사, 1999), 96쪽.

10) 노르웨이 한국 참전용사협회, 『NORMASH: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한 한국』, 노르웨이대사관, 2013, 16-19쪽.



장면 주미 한국대사와 트리그브 리 유엔사무총장  
(1950.6. 유엔안보리 회의, 국가기록원)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자,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한국위원단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엔은 침략에 직면한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유엔한국위원단은 당시 한국에 주재하고 있었으므로 유엔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었다.

이어서 미국 대표 그로스(Ernest A. Gross)가 무초 대사의 보고를 기초로 한반도 상황을 설명한 후 결의안 초안을 낭독하였다. 또한 이런 중대 사태의 피해 당사국인 한국 대표를 참석시켜 직접 호소도 듣자고 제의하였다. 이때 유고슬라비아 대표가 북한 대표도 참석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유고의 제안은 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거부되었다.

그 결과 장면 대사만이 한국의 입장을 호소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장 대사는 미리 준비해 온 “북한의 우리에게 대한 침략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한국 정부 수립에 유엔이 큰 공헌을 하였으므로 평화유지에 기본적인 책임



을 지닌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라는 요지의 성명문을 낭독하였다.<sup>11)</sup>

이후 미국의 제안을 영국이 약간 수정한 유엔안보리결의안(제82호, S/1501)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을 비롯하여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마침 중국의 대표권 문제로 그 해 1월부터 유엔의 모든 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고 있었던 말리크(Jacob Malik) 소련 대표가 불참했고, 유고슬라비아는 기권하였다. 유고연방이 기권했던 까닭은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국과 가장 가까운 연합국이었고 전후에도 소련의 위협,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긴장이 반영된 고민 속에 나온 것이었다.<sup>12)</sup>

이와 관련하여 유엔현장에는 안보리에서의 결의안에 대한 가결을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포함한 7개 이사국(당시 기준)의 찬성투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제27조 3항), 이를 근거로 소련은 당시 안보리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상임이사국의 반대표가 없었고 소련은 이사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했음에도 임의로 결석했으므로 결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지지를 받음으로써 상임이사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가 소집 요건에 이르면 결의는 성립한다는 관행이 수립되었다.<sup>13)</sup> 한편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미국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주 소련 미국 대사를 통하여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sup>14)</sup>

11) 한표욱, 『한미외교요람기』(중앙일보사, 1984), 96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68쪽.

12)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62.

13) 그 후에도 거부권의 본질이나 5대국 일치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미국측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홍규 편저, 『UN』, 160쪽.

1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70쪽.

Korea and might lead to open military conflict there;

Noting with grave concern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Determines that this action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I. Call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Calls upon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thirty-eighth parallel.

II. Request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 (a) to communicate its fully considered recommendations on the situation with the least possible delay;
- (b) to observe the withdrawal of the North Korean forces to the thirty-eighth parallel; and
- (c) to keep the Security Council informed o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III. Calls upon all members to render every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i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and to refrain from giving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 공산 침략행위 정지요청에 관한 결의문

안전보장이사회는……이러한 행동이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1.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들의 군대를 즉각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며

2. 유엔한국위원단에 대해

가. 충분히 검토된 사태에 대한 보고를 가능한 한 지체 없이 보낼 것

나. 북한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를 감시할 것

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동 결의안의 집행에 대하여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3. 모든 회원국은 유엔이 이 결의안을 집행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고, 북한 당국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촉구한다.

‘6·25결의’는 6·25전쟁에 있어 유엔이 집단 안전보장 조치를 통해 침략을 제재하고 평화를 달성하려고 시도한 첫 번째 결의안으로서 향후 이어지는 조치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결의안의 초점은 북한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을 중지하고 전쟁 전의 38도선 이북으로 그들의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하는 데 있었다.

## 나. 유엔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결의와 회원국 지지

북한의 남침 행위에 대해 유엔은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6·25 유엔결의’를 무시하고 남진을 계속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군 공격의 격퇴 및 한국에서의 국제적 평화안전회복에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공여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한 제2차 결의(제83호)를 통과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6·25 유엔결의’를 수행하기 위한 해·공군의

지원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권고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정부와 국회의 지원 요청은 물론 유엔 한국위원단도 ‘6·25 유엔결의’ 후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과의 접촉 노력이 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침략을 중지하고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으므로 유엔의 결의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중요한 작전이 사실상 며칠 안에 끝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대로 휴전과 북한군의 철수문제가 실현성이 없게 될지도 모를 위험이 있다”며, 한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 474차 회의는 6월 27일 14시(뉴욕 시간, 한국 시간 28일 04시)에 열렸다. 회의에서는 먼저 미국의 오스틴(Warren R. Austin) 대표가 한국사태의 진전 상황과 미국이 취한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불법 남침행위를 비난하면서 ‘6·25결의’와 같은 아무런 효과 없는 결의문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15)</sup> 이어서 장면 주미대사도 ‘안보리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이번에는 유고 대표가 북한 대표의 초청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내놓아 또 한 번 파란을 일으켰으나 그의 제안은 무산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8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27일 01시 45분(현지 시간, 한국 시간 28일 13시 45분)에 “유엔은 대한민국이 무력침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권고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7표, 반대 1표(유고), 기권 2표(인도, 이집트)로 가결하였고, 이때도 소련은 불참하였다. 찬성 7개국은 자유중국, 쿠바, 에콰도르,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이었다.

15)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상), 105쪽.



첫 군사행동을 결의한 표결 장면(1950.6.27.)

‘6·27 결의’의 핵심은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대한민국에 지원하도록 요청한 데 있었다. ‘6·27 결의’의 채택은 ‘6·25 결의’와 더불어 유엔이 창설된 이후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여 평화를 회복하려는 최초의 집단안전보장 조치로서 향후 6·25전쟁의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평화중재(peace-making)와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해 오던 유엔이 유엔헌장 제7조에 기초하여 최초로 평화강제(peace-enforcing) 활동에 나선으로써 전쟁 당사자의 일방으로 6·25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트루먼 미 대통령은 1950년 10월 24일 유엔헌장 발효일을 맞아 유엔의 역할에 대한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침해는 UN 원칙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고 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압도적 다수 국가의 반대에 봉착하였다. 대부분의 UN회원국은 무력 침범에 대하여 안보리 결정을 지지하였던 것이다.”고 평가하였다.<sup>16)</sup>

미국은 6·25결의 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련 주재 미국 대사를 통하여 소련 정부에 각서를 전달하고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남한

16) 『경향신문』 1950.10.26.

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 제안도 예상대로 이사회 결의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은 파병 요청 및 유엔회원국들의 참전을 제의하였다. 유엔 회원국 59개국 중 52개국이 한국에서의 평화회복을 위한 결의를 지지하여 군사적 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트루먼 행정부와 동맹국에 도전하였다.

이어서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차 결의를 통해, 유엔군 창설과 한국작전에 참가한 유엔군의 사령관 임명을 미국에 요구하는 동시에 유엔군이 유엔기를 게양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안보리는 한국에서 미군사령관 아래 연합군 창설을 권고하였고,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워커(Walton H. Walker)를 8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1952년 4월 초 미 육사 졸업식 연설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에서 우리는 무력에 의한 침략을 군사력으로 대항하는 길 이외에 취할 방도가 없었다. 만일 우리가 침략을 정면으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국제연합헌장은 휴지화되었을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침략의 성공을 용허하였다라면 공산주의자에 의한 전 아시아의 정복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국제연합이 실패하고 아시아가 상실되었다면 전 세계의 자유는 무너지기 시작하였을 것이다.”<sup>17)</sup>라고 말하였다.

미국을 제외한 유엔회원국 중 ‘6·27결의’에 의거 제일 먼저 군사지원을 제의한 나라는 영국에 의해 지도되고 있는 영연방국가들이었다. 먼저 ‘6·27결의’에 이어 곧바로 영국이 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및 프리깃함 5척으로 구성된 해군기동부대의 파견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29일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구축함 1척과 프리깃함 1척으로 구성된 해군과, 일본에 주둔 중인 무스탕 전투기 1개 대대의 파견을 제의하였으며, 네덜란드도 수라바야

17)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군사편찬연구소, 2008, 53쪽.

에 기지를 둔 구축함 1척의 지원을 제의하였다. 이때 영연방 국가들과 함께 대만도 33,000명의 지상군 파견을 제의하였다. 이를 심사한 미 합참본부는 다른 국가의 파견제이는 승인하였으나 타이완의 파견제이는 정치적 문제, 그들의 전투력 약화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후 다른 회원국들의 추가제이가 더 나오지 않자 트리그브 리 유엔 사무총장은 7월 14일 유엔의 ‘6·25결의’와 ‘6·27결의’에 지지를 표시한 53개국에 “나는 통합군사령부가 추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므로 귀 정부가 전투부대, 특히 지상군부대를 포함한 지원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서신을 발송하였다.<sup>18)</sup>

#### 다. 전쟁 경과와 유엔 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1950년 10월 1일 한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에 도착하였다. 유엔의 원래 목표는 북한군의 38도선 이북으로 격퇴였기 때문에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였다. 유엔군의 38도선 이북으로 진격에 대해 미 군부는 물론 국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국무부 고문 케난(George F. Kennan)과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니츠(Paul H. Nitze) 등은 38도선을 넘는 것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무부 차관보인 러스크(David Dean Rusk)는 38도선을 넘어야 한다고 애치슨 국무장관을 설득하였다. 그는 “후퇴하는 북한군이 38도선 이북에서 군을 재편하여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유엔군은 38선 이남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38선은 영구경계선이 아니며, 남북이 분단된 채로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을 거쳐, 트루

18)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122쪽.

먼 미 대통령은 소련이나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 조건 아래 38도선 이북에서 유엔군 작전에 대한 지침이 된 NSC 81/1을 승인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비롯해 한국인들은 이왕 전화를 입게 되었으니, 유엔군이 38도선 이남만 수복해서는 장래에 북한으로 하여금 재침략의 기회를 준다며 차라리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기대하였다.

미국 정부는 북진작전을 준비함과 동시에 군사작전의 결과에 따라 수반될 북한지역 점령과 통일문제는 정치목표로 규정하고 군사목표와 분리하여 유엔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유엔에 제의할 결의안을 준비하였다. 말리크(Yakov A. Malik) 소련 대표가 1950년 8월 1일부터 안보리에 복귀했기 때문에, 서방 측은 총회로 방향을 돌렸다.<sup>19)</sup> 즉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이유로 유엔기구의 사명이 마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총회를 통합으로써 공산주의자의 파괴와 침략을 유효 적절히 방지하여 유엔 본래의 이상을 수행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의안의 골자는 유엔군이 북한을 점령한 후에 구호와 부흥, 정치적 통일, 안전보장을 다룰 유엔 전문기구의 설치였다. 이 결의안은 9월 30일 영국, 필리핀 등 8개국의 공동 발의로 제5차 유엔 총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즉각적인 휴전, 외국군의 즉각 철수 등을 포함하는 대안을 총회에 제출하였고, 중공도 유엔군이 북진하면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나, 한국군이 38도선을 넘는 데는 간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20)</sup> 이와 같이 한국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하는 결의안의 총회 표결을 앞두고 공산 측의 반발과 압력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한편 유엔군 측 내에서도 유엔의 임무와 관련하여 미국과 다른 참전국들 간의 합의에 이견이 있었다. 가령 영국은 유엔이 6·25전쟁에 개입한 목적

19) 강성학, 『평화의 신과 유엔사무총장』(고려대출판부, 2013), 114쪽.

20) James F. Schnabel, *Police and Direction*(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72), p.197.



은 침략을 격퇴하는 것이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만일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엔 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기존의 유엔 결의문에 이미 북한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새로운 결의문 채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의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해 결국 결의문 채택에 동의하였다.<sup>21)</sup>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이 제출한 결의한 초안을 심의한 결과 영국이 제의한 안전만 총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는 10월 7일 당시 60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47표, 반대 5표, 기권 7표, 불참 1표로서 가결되었다. 이때 총회는 총회의 결의 목적은 통일, 독립, 민주 한국 정부를 수립함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통일 실현을 위한 유엔의 후원 아래 선거 실시, 한국의 경제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통일부흥위원단 설치, 경제재건 대책 수립 등 절차와 방안을 권고하였다. 이는 후일 '10·7 통한(統韓)결의'라고 불리는 유엔의 결의로, 유엔이 군사적 승리 후 유엔의 주도 아래 한국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미 합참본부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 결의안을 통보하면서 이는 38도선 북쪽에서 군사작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유엔군 측은 38도선 돌파와 관련된 군사적 목표인 북한군의 격멸과 정치적 목표인 한국통일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결정과 유엔의 결의를 모두 확보함으로써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와 관련된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완료하였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유엔군은 이번 기회에 북한군을 완전 격멸하고,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방침 아래 38도선을 돌파하였다. 북한군을 추격한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한 데 이어 한중국경선으로 진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은 목전으로 다가오는 듯하였다. 이때 유엔은 북한지

21) 박홍순, 『한국전쟁과 유엔의 개입(1950)』,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리북, 2004), 31쪽.

역을 통치하겠다고 결의하였다. 1950년 10월 12일 유엔 총회 임시위원회에서 북한 점령지역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이 통치하고, UNCURK가 도착하기까지는 유엔군사령부가 통치하도록 결의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 지역 관할권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sup>22)</sup>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적인 대규모의 중공군이 참전함으로써 전황은 급속히 역전되었고, 오히려 유엔군이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6·25전쟁은 사실상 유엔군과 중공군간의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되어 새로운 단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50년 8월 1일부터 소련이 안보리에 복귀한 이후에는 소련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의 결의문 채택노력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거듭함으로써 안보리의 결의문 채택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사실상 안보리 기능의 마비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유엔집단안보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1950년 11월 3일 총회에서 ‘평화단결결의(The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377)’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유엔 총회 권한을 강화한 조치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무력사용을 거부한다고 해도, 총회가 집단안보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sup>23)</sup>

유엔은 ‘평화단결결의’에 따라, 1951년 2월 1일 중공의 6·25전쟁 개입에 대하여 이를 침략자(aggressor)로 규탄하고 한반도에서 중공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미국은 다시 “중공이 즉시 정전할 것과 전쟁물자 공급을 중단하며 유엔이 침략자의 격퇴를 위하여 계속 협조하며 참전할 것”을 제안하여(제498호) 44 대 1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엔의 집단안보 발동의 대상은 북한군뿐만 아니라 중공군으로까지 확대되었

22) 김계동, 「대한민국 관할권, 어디까지인가」, 『경향신문』 2015.10.28; Charles K. Armstrong, “The UN-US-ROK Occupation of North Korea, October~December 1950”, 유영익·이재진 편, 『한국과 6·25전쟁』(연세대출판부, 2002), pp.415-416.

23) 하영선·김영호·김명섭 편,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성신여대출판부, 2005, 246-247쪽.

다. 같은 해 5월에는 유엔은 중공과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제500호) 등으로 휴전 시까지 유엔 주도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 제2절 유엔군 구성과 지휘체계

### 1. 유엔군 사령부 창설과 미국의 역할

한국군이 1950년 7월 초 한강방어선에서 지연전을 펼치는 동안 유엔의 ‘한국 군사원조 결의’(6·27결의)에 따라 미국의 육·해·공군이 참전하였고, 이어 영국의 해군, 오스트레일리아의 해·공군, 뉴질랜드 해군도 참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유엔회원국들도 참전을 준비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휘·통제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 유엔은 군사작전을 지휘할 참모나 군사력이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리브그 리 유엔사무총장은 한국지원협조위원회(Committee on Coordination of Assistance for Korea)를 설치하여 모든 지원의 협조는 물론 다른 회원국들의 지원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현지 지휘관으로부터도 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은 1950년 7월 3일 전쟁 수행의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는 미국이 유엔군을 지휘하되 한국지원협조위원회를 통하여 시행하자는 결의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미국 정부와 현지 지휘관 사이에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작전지휘 상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미국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sup>24)</sup>

1950년 7월 4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국무부로부터 국제군 편성 지침을 담고 있는 결의안 초안을 접수하였다. 이 초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에서 작전하는 모든 군대는 미국이 지명하는 장교가 지휘하는 통합군사령부 하에서 유엔기를 사용하며 활동하고, 작전에 관한 주기적인 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통보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합군 운용 개념은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널리 채택했던 방식이었다.<sup>25)</sup>

이를 검토한 미 합참은 이들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즉, “유엔군의 지휘구조는 미국이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에서의 작전을 통제하고, 유엔과 현지 사령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배제하며, 정책적인 결정사항은 작전사령관이 아닌 미국 정부가 결정하도록 형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다.<sup>26)</sup> 합참이 작성한 “유엔군의 지휘 구조는 미국이 유엔을 대신하여 6·25전쟁의 전반적인 작전을 통제하고, 유엔과 현지 사령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배제한다.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 사항도 현지 작전사령관이 아닌 미국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1950년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회원국들의 군사 행동에 통일성과 집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작성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대한 결의안(84호, S/1588)을 채택하였다.

2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235-236쪽.

25)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56.

26) Roy E. Appleman,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June-November 1950)(Washington D.C., G.P.O., 1986), pp. 42-43;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The Contributions of 45 Member Countries*(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2013), p.41.

① 한국을 증원하는 모든 회원국의 군사 및 기타 원조는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군사령부(a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로 하여금 관장토록 한다. ② 통합사령관의 임명을 미국에 요청한다. ③ 작전 중 참전국의 국기 및 유엔기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UN Document, S/1588). 이로써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을 지휘하는 통합군사령부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안보리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침략자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트루먼(Harry S. Truman) 미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파견한 군대를 그들의 통일된 지휘 체계 속에 둘 수 있게 되었다.

유엔으로부터 6·25전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합참을 자신의 군사집행 대행기구로 지정하였고, 콜린스(J. Lawton Collins) 육군참모총장이 한국에서의 작전 임무에 관한 합참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sup>27)</sup> 따라서 미 합참은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으로부터의 전투 및 지원부대 파견 제의는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를 거쳐 합참으로 조회되었고, 합참은 이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여 파견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미 합참은 1950년 7월 8일, 초대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을 추천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며, 7월 12일 맥아더 장군에게 “미국의 작전 임무는 국제정치상 어디까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원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미 합참의 작전 방침에 따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워커(Walton H.

27) James F. 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p.101-102.

Walker) 미 제8군사령관에게 “12일부로 주한 미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 워커 장군은 7월 13일 도쿄에서 대구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설치하고 미 지상군은 물론 6·25전쟁에 참전하는 유엔 지상군 부대를 통합 지휘하게 되었다. 이로써 유엔 안보리-미국 대통령(미 합참)-유엔군사령부(미 극동군사령부)라는 6·25전쟁에 대한 유엔군의 지휘 체계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소규모지만 이미 군사력을 투입한 바 있는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된 것을 계기로 합법적이고 본격적으로 유엔군을 활용한 6·25전쟁 지휘에 돌입하였다.

## 2. 유엔의 파병 호소와 회원국의 호응

유엔군을 결성함에 있어 난해한 문제는 미국과 전쟁에 참전한 유엔회원국 간의 관계였다. 유엔군 부대는 지구상에 산재한 각기 다른 국가로부터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미국의 지도력 하에 효율적인 전투부대로 단결시켜야 하는 정치 및 군사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공헌한 국가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였다. 영국은 그들이 제공하는 해군을 미군 지휘 아래 둘 것이라 발표하였고,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도 이에 동조하였다.

트루먼 미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이 제의한 모든 원조를 미국이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표명하였다. 미국 지도부는 유엔 회원국의 제의에 있어 군사적인 효율을 기하기 위해 최소한의 표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표준을 결정하고 적용하는 임무를 합참에 위임하였다.

1950년 6월 29일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무력침공을 격퇴시키기 위한 원조 제공을 요청하는 전문을 유엔 회원국에게 발송하

었다. 그러나 대다수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그들에게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7월 7일 미 합참은 회원국으로부터 지상군 부대의 획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7월 14일 유엔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에 지지를 표시한 53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호소하였다.

- ① 나는 미국 정부가 1950년 7월 7일자 결의로 통합군사령부에 부여된 책임에 따라 안보리 결의에 천명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원 협조에 관한 일반 계획을 각국 정부와 직접 협의 하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 ② 나는 통합군사령부가 추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므로 귀 정부가 전투 부대로, 특히 지상군 부대를 포함한 그러한 지원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나는 감사할 것이다.
- ③ 지원의 제의는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군사지원의 경우에, 일반적인 조건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되, 구체적인 준비는 그 정부와 통합군사령부 간의 협정에 위임한다.<sup>28)</sup>

미 합참은 유엔 결의의 정신과 의도에 가능한 한 많은 국가가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대의 최소 규모와 이들을 위해 소요되는 지원 규모에 관해 조언을 구하였다. 또한 다른 회원국들이 군사력 제공을 제의하였을 때 취해야 할 대응 조치, 즉 제의된 부대의 능력, 신속한 운용 가능성, 보급 및 수송의 적절성과 같은 군사적 고려 사항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해 맥아더 사령관은 지상군 부대는 자체의 지원포병을 구비한 증

28)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pp.63-64.

강된 대대 전력의 약 1,0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부대로 구성하고, 미국제 탄약을 사용할 수 있는 화기를 장비할 것과 이들이 미군 연대나 사단에 배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투 시 연락을 유지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원을 포함할 것, 근무 지원 부대는 그들이 운용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클 것 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해군과 공군의 구성 요소도 지상군과 같은 기준을 강조하였다.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외국군부대는 60일분의 보급품을 휴대할 것과 이후 식량이나 피복은 미국으로부터 보급을 받되, 이들 물품에 대해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맥아더 사령관의 이러한 견해는 미 합참이 유엔 회원국의 제의를 심사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합참은 8월 7일 국무부의 원조 표준 제공요청에 응하면서 맥아더 사령관의 기준을 두 가지 면에서 수정하였다. 첫째, 부대 편성의 규모를 1,000명 선에서 1개 중대 규모로 축소하였는데, 이는 규모가 작은 많은 국가들이 상징적으로라도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미국이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회원국이 그들 부대에 계속 지원을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의 보급 계통에 통합된다는 것이었다.<sup>29)</sup> 이에 따라 리지웨이와 밴 플리트 은 1951년 봄에 대대급을 파견한 국가들은 최소한 연대 전투단이나 여단 정도로 그들의 병력을 증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30)</sup>

한편 1950년 7월 중순 이후 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유엔회원국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몇 개월 동안 24건 이상의 부대 파병 또는 다른 형태의 군사 지원에 관한 제의를 평가하도록 요청 받았다. 이들 제의 중 몇 개국만이 실제로 군사적 가치를 지닌 군대를 파견하였다.

29)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pp.64-66.

30) 육군본부(역), 『휴전전략과 싸우는 전선』, 55쪽.



영국은 지상군 부대의 파병을 제외한 최초의 국가로 보병 3개 대대로 구성된 1개 여단과 1개 기갑연대, 지원포병 및 기타 부대 등 7,000명 규모의 부대를 제의하였다. 그리고 8월 20일 홍콩 주둔군 중 2개 대대로 편성된 1개 여단을 즉각 파견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8월 초 캐나다도 3개 보병대대로 편성된 1개 여단의 파병을 제의한데 이어 1개 장거리 공중수송대대를 파견하였다. 호주 정부는 일본 점령군 중 1,000명의 1개 보병대대 파병을 발표하였고, 뉴질랜드도 1,000명으로 구성된 포병대대를 제의하였다.<sup>31)</sup>

영국과 영연방국가에 이어 터키와 태국, 필리핀, 그리스가 부대파병을 제의하였다. 터키는 4,500명 규모의 연대전투단의 파병을 통보하였고, 아시아국가인 태국이 4,000명 규모의 전투단을, 필리핀이 17대의 셔먼전차와 5,000명 규모의 1개 연대전투단 파병을 제의하였다.

그리스는 6대의 C-147수송기와 3,800명의 1개 산악보병여단의 파병을 발표하였고, 프랑스는 1척의 초계정을 유엔의 관리 하에 둔데 이어 1개 보병대대의 파병을 통보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대대 규모의 부대를 파병하였고, 룩셈부르크는 5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편성하여 벨기에 대대에 통합하였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연방공화국에는 전투기 대대의 파견을 요청한 결과, 항공기 없이 조종사와 지상 근무 요원이 파병되었다.

한편 미 합참은 비전투부대의 제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덴마크는 의사와 간호원을 갖춘 병원선의 파견을,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야전병원과 부대수송용 선박을 각각 제의하였다. 그리고 중립국인 인도도 야전병원부대 파견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유엔 사무총장의 지원 요청에 따른 회원국들의 응답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콜롬비아를 제외하곤 1950년 9월 중순

31)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p.68.

이전에 이루어졌다. 1950년 콜롬비아는 프리깃함 1척을 제의한데 이어 2개월 후 1개 보병대대의 파병에 동의하였다. 11월에는 에티오피아가 1,069명으로 이루어진 보병부대의 파병을 제의하였다.<sup>32)</sup>

결과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지원요청에 미국 외에 15개국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 군사력을 제공하였다. 이들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으로서 1개 소대를 파견한 룩셈부르크와 공군부대만을 제공한 남아공을 제외하곤 대대 규모 이상의 지상군을 제공하였다.

대부분의 부대는 1950년말 이전에 한국에 도착하였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부대와 일부 캐나다부대가 1951년 초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부대는 1951년 6월에 도착한 콜롬비아부대였다. 이들 부대 중 영국과 호주군은 즉각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도착하였으나, 대부분의 부대는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예비훈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sup>33)</sup>

### 3. 유엔군사령부 창설과 지휘 체계

#### 가. 미 합참의 기본 지침

트리그브 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군 창설이 결의된 1950년 7월 7일에

32)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pp.70-71.

33)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pp.71-72.

유엔주재 미국 대사에게 유엔기를 직접 전달하였다. 이어서 14일 콜린스 미 육군참모총장은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유엔기를 전달하였으며, 다시 이 유엔기는 7월 17일 제8군사령부에 전달되었다. 이에 앞서 미 합참은 유엔군사령관에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였다. 다음날인 7월 8일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임명을 공표하고,<sup>34)</sup> 7월 10일에는 정식으로 임명하는 지시서를 발송하였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유엔기 전달(1950.7.14.)

1950년 7월 12일 미 육군부는 맥아더 사령관에게 상세한 지침을 내려 “미국의 작전 임무는 국제정치상 어디까지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강조하였다.<sup>35)</sup> 이는 한국을 원조하는 군사력이

34) Stanley Meisler, *United Nations, A History*(New York: Grove Press, 1995), p.63.

미군 외에 ‘유엔의 진정한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합참의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미 합참은 작전통제가 워싱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2주일에 한 번씩 유엔군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이 보고서는 국무부가 아니라 합참의 감독 아래 준비되었다. 그리고 보고서는 국방부를 거쳐 국무부로 보내져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단에게 제출되었다.<sup>36)</sup>

한편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 장군은 7월 12일 미 제8군에 한국의 지상군 작전책임을 부여하였고, 사령관인 워커 중장은 한국으로 이동하여 주한 미 제8군사령부(EUSAK)를 설치하였다. 처음에 기존 극동군사령부를 통해 유엔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맥아더 사령관은 1950년 7월 25일 8시 50분(한국 시간)에 정식으로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를 설치하고, 공식적으로 사령관 임무를 시작하였다.<sup>37)</sup>

그러나 사령부 조직으로서 유엔군사령부는 취약하였기 때문에 미 극동군사령부 참모진이 거의 그대로 보직되어 미 극동군사령부가 이중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GHQ UNC/FEC).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은 미 극동군사령부의 각 구성군인 미 제8군사령부(지상군), 미 극동해군사령부, 미 극동공군사령부를 통하여 유엔 지상군·해군·공군의 작전을 통제하였다. 이때 유엔군사령부의 각 구성군 사령관은 지상군의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과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 Turner Joy) 중장, 그리고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이었다.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미국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상(서울: 삼아인쇄공사, 1990), 111쪽.

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280-282쪽.

37)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p. 57; Robert Frank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s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s Air Force, 1983), p.39.

### 나. 유엔군 지휘 체계

1950년 7월 7일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서 유엔은 미국 책임 아래 통합군사령부가 모든 회원국의 군사력과 기타 지원을 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서의 유엔군의 작전에 관한 유엔의 권한을 대행함을 의미하였고, 유엔군의 모든 군사작전은 미국의 통수 및 지휘 계통에 의해 수행되게 되었다.<sup>38)</sup>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임무 수행기구로 합참을 지명하고 유엔군사령부에 전략 지시를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합동참모본부는 유엔의 한국작전수행에 관한 전략을 책임지는 한편, 대통령 정책자문기관인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를 통해 미국의 군사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전구사령부인 미 극동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국에서 지상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미 8군사령부에 대한 전쟁 지도와 통제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합참은 유엔이 미국에 위임한 한국에서의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임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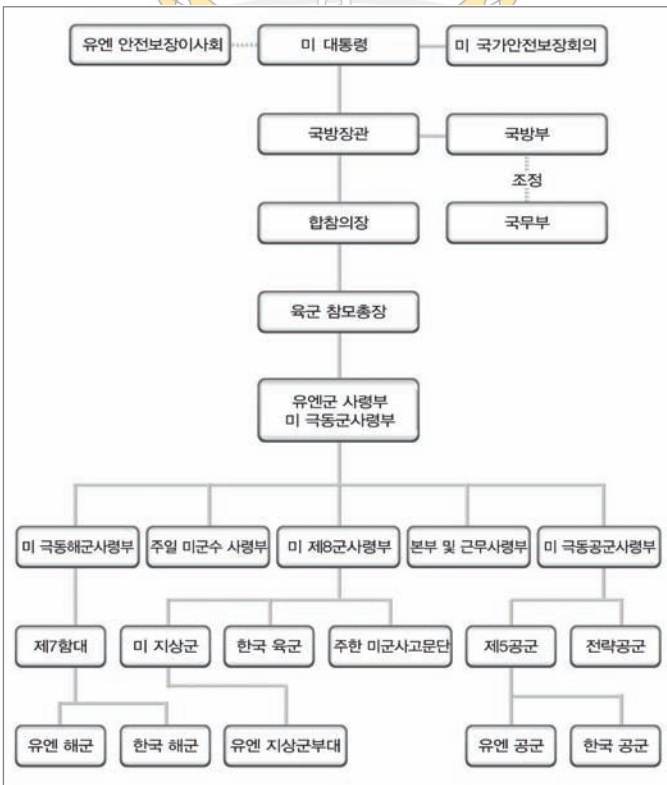
한편 한국에서 실제 작전을 수행할 통합군사령부로 미 극동군사령부가 지명되어 유엔군사령부의 임무마저 겸하게 되었다. 미 극동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음에도 작전 지휘는 전쟁 기간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이는 유엔이 별도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극동에 있는 미국의 통합군사령부인 극동군사령부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으로부터 한국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전구사령관에 이르기까지의 전쟁 지휘 체계가 단순화됨으로써, 국제연합군이 단일 군대보다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였다.<sup>39)</sup>

38)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The History and Lesson of Korea*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9), p.34.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283쪽.

미 극동군사령관은 미국의 전쟁지도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군사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전략적 지시를 직접 받아 작전을 지휘하였다. 맥아더의 유엔군사령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유엔의 집행기관 역할을 하게 될 트루먼 대통령이 그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맥아더는 전쟁 이후 한국에 전개된 미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그가 사령관으로 있는 미 극동군사령부의 극동 육군을 비롯하여 극동 해군과 극동 공군 등에 대한 통합군사령관으로서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작전지휘권이 있었다.

〈표 2-2〉 유엔군사령부 지휘체계



이처럼 한국 전선에서 유엔군의 지휘 체계는 <표 2-2>와 같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미 합동참모본부의 전략 지시 → 유엔군사령부 → 미 제8군사령부 → 한국군 및 유엔군 부대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전쟁 목적 상 실질적인 전쟁 수행 체계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보좌를 받는 가운데 국방부와 합참에서 유엔군사령부에 전략 지시를 내려 전쟁을 지도하는 수행 체계였다. 대신 유엔군사령부는 2주 간격으로 미 합참과 국방부, 그리고 국무부를 경유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군의 작전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sup>40)</sup> 유엔은 자체적으로 또는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결의안이나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군의 전쟁 수행을 지도하였다. 그런 점에서 유엔군 측의 전쟁 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는 미국이었으며, 따라서 유엔의 전쟁 지도도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2-3> 6 · 25전쟁 기간 유엔군사령관 현황

계급	성 명	참전기간	비 고
원수	맥아더	1950. 7. 7.~1951. 4. 11.	
중장	리지웨이 (Matthew B. Ridgway)	1951. 4. 11.~1952. 5. 12.	대장 진급(1951. 5. 11)
대장	클라크	1952. 5. 12.~1953. 10. 7.	

한국에서 지상전투를 책임지고 있던 미 제8군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이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 이전부터 일본에서 점령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제8군 사령관이었다. 미 제8군이 1950년 7월 13일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그는 한반도에서 미 육군의 작전에 대한 모든 지휘권

40)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 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2), pp. 55-5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1, 88-89쪽.

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전선에 참전하는 유엔지상군 부대들을 통합 지휘하게 되었다.



유엔 본부를 방문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1952.5.5, 유엔 미디어)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빼앗기고 한국군이 후퇴를 거듭하여 대전 이남까지 물러서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유엔군이 전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1950년 7월 14일부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7일 맥아더 사령관은 워커 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였다.<sup>41)</sup> 이로써 전투에서 지휘통제가 일원화되어 효과적인 연합작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은 정규군 외에 무기와 보급품을 산등성이까지 날랐던 지게부대(A-frame army)로 알려진 약 10만 명의 노무단을 유엔군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부의 한국군에 대한 지휘는 제8군과 한국 육군본부가 상하관계라는 위치 때문에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

41) 유병현, 『유병현회고록』(조갑제닷컴, 2013), 71-72쪽; James F. Schnabel,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p. 102.



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워커 사령관은 작전을 실시함에 있어 한국 육군본부에 명령하기 보다는 요청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군과 조화를 이루며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sup>42)</sup>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에서 핵심적인 군사적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6개국의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을 하나의 효과적인 전투력으로 결합시켜 연합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들 국가의 군대들은 자국의 사정, 한국으로의 이동거리 등이 각각 상이하여 여러 단계를 걸쳐 한국에 도착함으로써 부대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때 일부 영연방국가에서 파견된 군은 기초적인 군사훈련은 물론 장비도 잘 갖추고 있어 한국에 도착과 동시에 전투에 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의 곤란이나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어 협조도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0년 9월에 필리핀 대대가 도착하였을 때는 새로운 부대의 장비와 훈련을 소개하는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대구에 유엔군수용소를 설치하여 터키, 태국, 인도,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스, 에티오피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군대들을 화기 조작성은 물론 현지 적응 훈련을 시켜 전투 준비를 지원해 주었다. 전투 준비가 완료된 부대는 대대급은 미군 연대에, 여단은 미군 사단에, 영연방부대는 사단으로 통합시켜 미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 이들을 지원 받은 미군 지휘관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방어나 공격 임무에 적절히 운용하였다.

한국의 지형이 산악 지형이고 또 겨울은 몹시 추워서 일부 유엔군 부대들은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부대 중 터키와 그리스군은 한국의 기후와 지형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적응할 수 있었던 반면, 태국, 인도와 같이 평지와 더운 지방에서 온 회원국 부대들은 기후와 산악 지형에 적응하는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284쪽.

데 무척 고생하였다.

또한 필리핀이나 그리스와 같이 대부분의 유엔군은 본국에서도 미군 장교들이 훈련을 시켜 온 관계로 미국 화기와 장비 및 전술교리에 익숙하였지만, 일부 국가의 군대들은 미군의 장비 조작과 훈련에 있어 일정한 기간과 시련 그리고 시행착오를 경험한 뒤 익숙해졌다. 이외에도 유엔군은 언어상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장교를 운용하였지만 지휘 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국제적인 다국적군을 형성함에 있어 개별 국가들의 풍속과 전통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다. 종교적인 차이는 물론 국가마다 식성이 달라 보급 문제 특히 급양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당시 회교 국가인 터키군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힌두교 국가인 인도군은 쇠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군인들은 미군보다 더 많은 빵과 감자를 좋아했으며, 태국군은 쌀과 매운 고추장의 보급을 원하고 있었다.

이때 한국으로 파견되는 부대의 규모도 문제가 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각 국가별로 최소한의 독립 작전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비와 지원 포병대를 갖춘 1,000여 명 정도의 파병을 원하였으나, 미국,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대급 이하를 파견하였다. 이들 부대들은 자체 포병은 물론 행정 및 군수지원 부대가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미군이 전담하게 되었다.



## 제 3 장

# 유엔 참전국의 파병과 작전활동

제1절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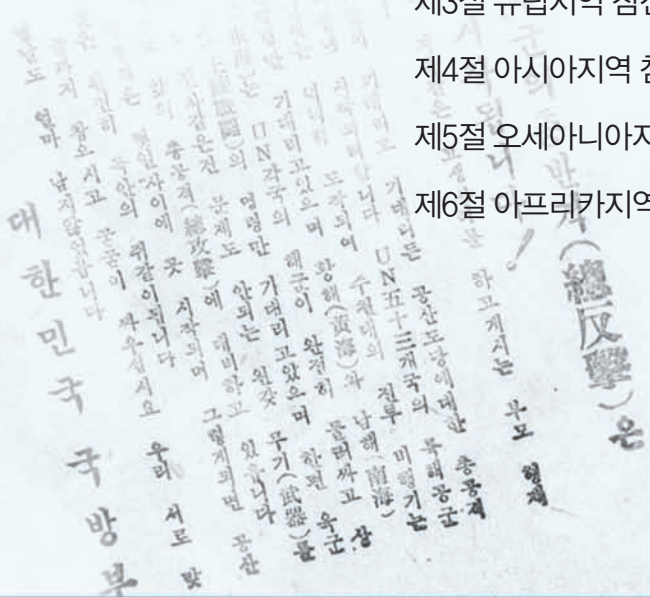
제2절 남북아메리카지역 참전국

제3절 유럽지역 참전국

제4절 아시아지역 참전국

제5절 오세아니아지역 참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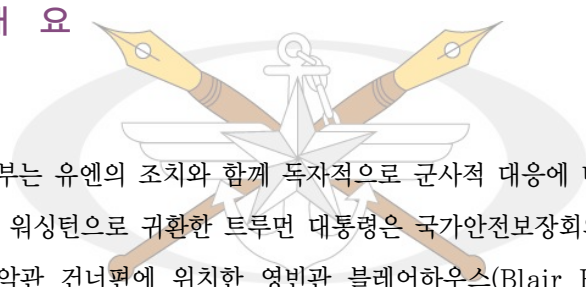
제6절 아프리카지역 참전국





## 제3장 유엔 참전국의 파병과 작전활동

### 제1절 개 요



미국 정부는 유엔의 조치와 함께 독자적으로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 6월 25일 저녁 워싱턴으로 귀환한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들과 백악관 건너편에 위치한 영빈관 블레어하우스(Blair House)에서 6·25전쟁에 대한 대응책을 최초로 논의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직접적인 대북 군사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주한 미국인들의 철수를 돕기 위해 38도선 이남에서 미 해·공군의 사용을 승인하였고, 한국군에 대한 무기 및 탄약 제공, 그리고 대만해협에 제7함대 파견만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6·25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침을 계속하자 미국은 1950년 6월 26일 정오경(미국 현지 시간) 트루먼 대통령 주도하에 국무, 국방, 각 군 장관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수뇌부들이 블레어 하우스에 모여 군사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두 번째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 남침과 유사한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였듯이 이를 허용하면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뿐만 아

나라 유엔 창설과 원칙마저도 위태롭게 된다고 판단하여 일련의 군사조치를 최초로 승인하였다.

이런 군사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급속히 악화되어 6월 27일에는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서울이 곧 실함될 것”이라는 보고와 한국 정부 및 국회로부터 긴급 지원요청을 접하게 되었다. 미국은 계속되는 경악스런 상황보고를 평가해 보며 북한이 ‘6·25 유엔결의’를 따를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이날(27일, 미국 현지 시간) 세 번째로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극동의 해·공군에 내려진 자국민 철수를 보호하는 수준인 해·공군의 제한적 운용조치를 철회하였다. 또한 38도선 이남의 북한군 부대와 전차, 그리고 포병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한국군에게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극동군사령관에게 통보하였다.<sup>1)</sup> 이 조치에 이어 다음날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행위 종결을 요구한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무시함으로써 나는 극동의 해·공군부대에 한국군의 엄호와 지원을 하도록 명령하였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6·25결의’에 근거하여 2단계 군사조치인 해·공군의 참전을 결정하였고, 이는 극동군사령관에 의해 즉시 시행에 옮겨졌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유엔의 ‘6·27결의’에 의거 정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로써 29일에는 맥아더 장군이 직접 한국군의 한강 방어전선을 시찰하였다. 그는 30일 지상군 투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전선시찰 보고서를 미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이날 미 국방부가 지상군의 파견을 맥아더 장군에게 일임하여 미국은 명실 공히 제한된 육·해·공군의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군사 지도부는 물론이고 6·25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전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79쪽.

선을 시찰한 맥아더 장군도 북한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맥아더 장군은 1개 연대전투단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한강방어선)에 즉시 증원하고 조기반격을 위하여 일본에서 2개 사단규모를 증파할 계획임을 미 국방부에 보고하여 승인받았다.<sup>2)</sup>

미국 이외 국가들의 참전은 주로 미국과 유엔사무총장 간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 전쟁 초기부터 미국은 좀 더 많은 유엔회원국이 미국 측에 동참해 6·25전쟁에 참가하여 이 전쟁이 단순히 미국 대 소련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유세계 대 공산세계’ 간 전쟁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미국 정부는 1950년 8월 초 필리핀, 태국,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파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것은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좀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6·25전쟁에 동참시킨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갖는 결정이었다.

유엔회원국 대부분은 북한의 대한민국 침략이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데는 공감하였으나, 각 국가별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일부 국가들은 ‘유엔의 집단행동에 의한 평화유지’에는 지지를 보냈지만, 병력의 파견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피하였다. 어떤 국가는 참전할 뜻을 밝혔지만 너무 적은 수의 병력을 파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기각되기도 하였다.

미국을 제외한 유엔회원국 중 유엔결의에 따라 제일 먼저 군사지원을 약속한 나라는 영연방국가들이었다. 영국은 해군 기동부대 파견을 통보해 왔고, 호주는 해·공군의 파견 의사를 밝혔다. 네덜란드도 구축함 지원을 약속하였고, 타이완도 지상군 파견의사를 전해왔다. 그러나 타이완의 파견 제의는 정치적 문제, 타이완의 전투력 약화 등을 이유로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상), 1990, 101쪽.





2006년 유엔기념공원에 건립된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영국 · 프랑스 · 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서 근본적으로 소련의 유럽 지배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미국의 확고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함께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미국의 인접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이었던 캐나다는 초기부터 북한의 남침 배후에는 소련의 팽창욕구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엔의 공동노력으로 이를 강력히 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해 두고자 참전을 결정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중국의 공산화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점증하는 공산주의 팽창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은 미래에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팽창을 막는 유력한 예방책이라고 판단하였다.

터키와 그리스는 다르다넬스 해협과 발칸반도에서 소련과 그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 나라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유엔의 집단행동에 동참함으로써 강한 결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고, 훗날 자신들의 나라에 좀 더 많은 미국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필리핀과 태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호주와 뉴질랜드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인도차이나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공산세력이 팽창하고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 활동이 급증하는 것이 이들 나라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의 콜롬비아는 유엔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참전하였다.<sup>3)</sup>

이처럼 6·25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대부분 유엔 회원국은 그들 국가 주변에서 점증하는 공산주의 위협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한국에 대한 침략을 미래에 있을지 모를 공산주의자들의 자국에 대한 공격이나 전복활동의 한 시발점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각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6·25전쟁에는 미국을 비롯해 총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병하였다.

〈표 3-1〉 유엔군 참전일지

국가수	국가명	군별	한국도착일	지상군 전투참가일
1	미국	공군·해군 육군	1950. 6. 27. 1950. 7. 1.	1950. 7. 5.
2	영국	해군 육군	1950. 7. 1. 1950. 8. 28.	1950. 9. 4.
3	오스트레일리아	공군·해군 육군	1950. 7. 1. 1950. 9. 28.	1950. 10. 5.

3)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22~24쪽.

국가수	국가명	군별	한국도착일	지상군 전투참가일
4	네덜란드	해군 육군	1950. 7. 19. 1950. 11. 23.	1950. 12. 3.
5	캐나다	공군(수송대) 해군 육군	1950. 7. 28. 1950. 7. 30. 1950. 12. 18.	1951. 2. 15.
6	뉴질랜드	해군 육군	1950. 7. 30. 1950. 12. 31.	1951. 1. 28.
7	프랑스	해군 육군	1950. 7. 1950. 11. 29.	1950. 12. 13.
8	필리핀	육군	1950. 9. 19.	1950. 10. 1.
9	터키	육군	1950. 10. 17.	1950. 11. 12.
10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1950. 11. 5.	1950. 11. 19.
11	태국	공군(수송대) 해군 육군	1951. 6. 18. 1950. 11. 7. 1950. 11. 7.	1950. 11. 22.
12	그리스	공군 육군	1950. 12. 1. 1950. 12. 9.	1951. 1. 5.
13	벨기에	육군	1951. 1. 31..	1951. 3. 6.
14	룩셈부르크	육군	1951. 1. 31.	1951. 3. 13.
15	에티오피아	육군	1951. 5. 6.	1951. 7. 11.
16	콜롬비아	해군 육군	1951. 5. 8. 1951. 6. 15.	1951. 8. 1.

※ 비고

- 가. 참전국 순서는 전투부대파견국(한국도착일자)
- 나. 한국도착일과 지상군 전투참가일은 『한국전쟁사』의 각국 참전기록을 정리한 것임.
- 다. 해군의 한국 도착일은 한국해역에서 작전을 개시한 날짜임.
- 라. 지상군 전투참가일은 한국에 도착하여 현지적응훈련 후 전선에 투입된 날짜임.

## 제2절 남북아메리카지역 참전국

### 1.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미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북한군의 전면 남침 소식을 접한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1950년 6월 25일(워싱턴 현지시간)에 개최된 안보리에서 트리그브 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침략에 직면한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4)</sup> 그리고 이어진 표결에서 북한은 침략을 중지하고 38도선 이북으로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이와 같이 일련의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미국 수뇌부는 미군의 한국전 투입을 결정하였다. 6월 25일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한의 남침과 유사한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였듯이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경우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창설원칙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일련의 군사적 조치를 처음으로 승인하였다.<sup>5)</sup>

4) Office of the Historian Bureau of Public Affair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Korea(Washington D.C.: U.S. GPO, 1983), p.211.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서울 : 신오성기획인쇄사, 2002), 297쪽.



1975년 10월 3일 파주 임진각 내에 건립된  
미국군 참전기념비

이에 따라 극동군사령부는 6월 26일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비전투 미국인들을 일본으로 철수시켰다. 그리고 27일에는 전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치(John H. Church)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한국에 파견하였다.<sup>6)</sup> 이러한 계속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미국은 6월 27일에 제2차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여 해·공군에 내려진 ‘자국민의 철수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의 제한적 운용 조치’를 철회하고 38도선 이남의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한국군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결정하였다.<sup>7)</sup> 6월 30일에는 맥아더 사령관의 전선시찰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미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6월 26일(워싱턴 현지 시간) 미 해군과 공군이 한국에서 작전에 들어간데 이어 7월 1일 미 지상군도 한국에 도착하여 7월 5일부터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sup>8)</sup>

이와 같이 미국은 해·공군의 38도선 이남지역 작전 참가와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작전을 확대하고 지상군 참전 순으로 참전부대와 작전지역을 확대

6)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Washington, D.C.: U.S. GPO, 1986), p.43.

7) Office of the Historian Bureau of Public Affair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Korea, pp.181–182.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308쪽.

하면서 한국을 지원하게 되었다. 미 지상군은 1950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37개월 동안 제1·제9·제10군단 등의 3개 군단과 제1기병사단, 제2·제3·제7·제24·제25·제40·제45보병사단, 제1해병사단 등의 9개 사단, 그리고 제5보병연대 및 제187공수연대의 2개 연대전투단을 한국전선에 투입하였다. 제2, 제3군수지원사령부 및 한국병참지구사령부(KCOMZ) 등 지원부대들도 한국에 전개시켜 미군 전투 병력은 월평균 208,000명을 유지하였으며, 기간 중 최대 병력 규모는 302,483명이었다.<sup>9)</sup>

〈표 3-2〉 미국 육군 전투부대 참전 현황

구분	야전군	군단	사 단			연대 전투단	보병 연대	포병 대대	기갑 대대
			소계	정규사단	주방위사단				
부대수	1	3	8	6	2	2	28	54	8

대표적인 전투로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오산 전투를 비롯하여 대전 전투, 낙동강선 방어전투, 인천상륙작전, 서울 및 평양탈환작전,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지평리 전투, 병커고지 전투, 불모고지 전투, 그리고 저격능선 전투 등이 있다. 또한 미 지상군은 기간 중 알바니(Albany) 작전을 비롯하여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 코만도(Commando) 작전, 킬러(Killer) 작전, 파일드라이버(Pile driver)작전 등을 실시하였다. 이들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한 미 지상군은 78명의 명예훈장 수상자를 배출하였는데, 이들 중 장교가 18명이고 사병이 60명이었다.<sup>10)</sup>

미 지상군은 6·25전쟁이 발발한 후 약 10일간의 전투를 제외하고 거의

9) HQ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and Eighth United States Army (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apter III, Figure 2b",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HD00303.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394-396쪽.

모든 전투 및 작전에 참가하였는데, 미군의 주도로 수행된 주요 전투 및 작전은 약 140여 개에 달하고 소규모 전투까지 포함하면 약 200여 개에 이르렀다.<sup>11)</sup>

〈상황도 3-1〉 미군 주요 전투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473-474쪽.

유엔군사령부의 지휘 및 통제 하에 있는 미 제8군사령부의 주요 지휘관은 워커 중장을 비롯하여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 테일러(Maxwell D. Taylor) 대장 등 제8군사령관과 콜터(John B. Coulter) 제1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제9군단장, 그리고 알몬드(Edward M. Almond) 제10군단장 등이었고, 작전기간 중 미 제8군사령부의 지휘관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6·25전쟁 기간 미 제8군사령관 현황**

구분	계급	성명	참전기간	비고
제8군사령관	중장	Walton H. Walker	1950.7.13.~1950.12.23.	1951.1.2. 대장 추서
	중장	Matthew B. Ridgway	1950.12.26.~1951.4.14.	1951.5.11. 대장 진급
	중장	James A. Van Fleet	1951.4.14.~1953.2.10.	1951.8.1. 대장 진급
	중장	Maxwell D. Taylor	1953.2.11.~1955.3.1.	1953.6.23. 대장 진급
제1군단장	중장	John B. Coulter	1950.8.2.~1950.9.10.	
	중장	Frank W. Milburn	1950.9.11.~1951.7.18.	
	중장	John W. O'Daniel	1951.7.19.~1952.6.28.	
	중장	John W. Kendal	1952.6.29.~1953.4.10.	1952.9.16. 중장 진급
	중장	Bruce C. Clarke	1953.4.11.~1953.10.13.	
제9군단장	소장	Frank W. Milburn	1950.8.10.~1950.9.11.	
	소장	John B. Coulter	1950.9.12.~1951.1.31.	
	소장	Bryan E. Moore	1951.1.31.~1951.2.24.	1951.2.23. 헬기사고사
	중장	William H. Hoge	1951.3.5.~1951.12.23.	1951.6.3. 중장 진급
	소장	Willard G. Wyman	1951.12.24.~1952.7.30.	
	중장	Reuben E. Jenkins	1952.8.9.~1953.8.9.	1952.11.8. 중장 진급
제10군단장	중장	Edward M. Almond	1950.8.26.~1951.7.15.	1951.2.12. 중장 진급
	소장	Cloves E. Byers	1951.7.15.~1951.12.5.	
	중장	Williston B. Palmer	1951.12.5.~1952.8.11.	
	중장	Issac D. White	1952.8.15.~1953.8.15.	1952.11.7. 중장 진급



한편 1950년 6월 27일 해군과 공군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미 해군은 일본에 위치한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제7함대를 두었다. 이날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harles T. Joy) 제독은 극동해군이 한국의 전장에서 수행할 임무에 관한 작전명령 제5-50호를 하달하는 한편 주노(Juneau)함과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제96.5기동전대(TG 96.5)를 편성하여 한국지원전대로 지정하였다. 이 전대는 한국해역을 초계하며 적의 상륙을 저지 및 격퇴하고, 아군에 대한 함포지원과 철수작전 수행은 물론 군수물자 수송함선의 호송임무를 부여받았다.<sup>12)</sup>

미 해군은 7월 4일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한반도 해역에 대한 해상봉쇄에 들어갔다. 7월 5일 극동해군은 별도의 동·서해안 지원전대를 편성하고 동해작전은 히긴스(John M. Higgins) 해군소장이 지휘하는 미 해군의 제96.5기동전대, 서해작전은 앤드류스(William G. Andrews) 해군소장이 지휘하는 영연방부대인 제96.7기동전대에게 맡겼다. 이때 해상봉쇄작전의 북방한계선은 소련과 중공 해역을 피해 서해에서는 북위 39도 30분, 동해에서는 북위 41도 51분으로 설정되었다.<sup>13)</sup>

미 해군은 7월 2일 주문진 근해에서 북한 해군과 최초의 해전을 실시하였는데, 이 해전은 북한 해군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전이였다. 미 극동해군이 주도하는 미 해군은 전쟁기간 동안 500여 마일에 이르는 북한의 전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였다.<sup>14)</sup> 이후 미 해군은 공중폭격, 함포사격, 상륙병력수송 그리고 미 본토로부터 인원과 물자수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유엔군 측이 전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 해군을 비롯한 유엔해군의 작전을 지휘 및 통제하는 기구는 미 극동

12) Malcolm W. Cagle &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Annapolis, M.D.: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57), pp.34-35.

13) 해군본부,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76쪽.

14)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122-123쪽.

해군사령부로 예하에 제7함대와 제90 및 제95기동함대를 편성하고 있었다. 미 극동해군의 주요 지휘관은 극동해군사령관 터너 조이 중장과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중장, 제90기동함대사령관 도일(J. H. Doyle) 소장과 제95기동함대사령관 히긴스 소장 등이었고, 작전기간 중 미 극동해군 지휘관은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6·25전쟁 기간 미국 해군 참전 주요 지휘관 현황

구분	계급	성명	참전기간
극동해군 사령관	중장	Charles T. Joy	1950.6.27.~1952.6.4.
	중장	Robert P. Briscoe	1952.6.4.~1954.4.2.
제7함대 사령관	중장	Arthur D. Struble	1950.6.27.~1951.3.28.
	중장	Harold M. Martin	1951.3.28.~1952.3.3.
	중장	Robert P. Briscoe	1952.3.3.~1953.5.20.
	중장	Joseph J. Clark	1952.5.20.~1953.7.27.
제90기동 함대사령관	소장	J. H. Doyle	1950.6.27.~1950.9.27.
	소장	L. A. Thackrey	1950.9.27.~1950.10.11.
	소장	J. H. Doyle	1950.10.11.~1951.1.24.
	소장	I. N. Kiland	1951.1.24.~1951.9.3.
	소장	T. B. Hill	1951.9.3.~1951.10.8.
	소장	C. F. Espe	1951.10.8.~1952.6.5.
	소장	F. X. McInerney	1952.6.5.~1953.11.21.
제95기동 함대사령관	소장	J. M. Higgins	1950.6.27.~1950.7.25.
	소장	C. C. Hartman	1950.7.25.~1950.9.12.
	소장	A. E. Smith	1950.9.12.~1951.2.19.
	소장	W. Andrews	1951.2.19.~1951.4.3.
	소장	A. E. Smith	1951.4.3.~1951.6.20.
	소장	G. C. Dyer	1951.6.20.~1952.5.31.
	소장	J. E. Gingrich	1952.5.31.~1953.2.12.
소장	C. E. Olsen	1953.2.12.~1953.7.27.	

전쟁기간 중 미 해군은 항공모함 36척을 비롯하여 전함 4척, 순양함 13척, 구축함 121척, 호위구축함 12척, 기함 4척, 유조함 13척, 프리깃함 8척, 상륙선거함(LSD) 6척, 중형 상륙함(LSM) 2척, 상륙로켓함(LSMR) 8척, 상륙함(LST) 29척, 잠수함 14척, 공격수송함 36척, 소해함 66척을 각종 해상전투 및 작전에 투입하였다.<sup>15)</sup> 그 대표적인 작전이 고도로 숙련된 전투력을 보여준 인천상륙작전과 흥남철수작전이었으며, 그 외에도 영흥만 소해작전과 동해안 전략도서 확보작전, 체로키 스트라이크(Cherokee Strike) 작전 등과 같은 해상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였다.

미 공군은 미 극동공군이 주축이 되어 6·25전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 극동공군의 전력은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 E. Stratemeyer) 사령관이 “일본 본토, 오키나와 및 필리핀 군도의 한정된 영공방어 이외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말할 정도로 전술항공작전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sup>16)</sup> 한국전선에 출격할 비행장 확보와 기지 확장이 시급한 미 극동공군은 이따스계 기지 등 한국과 가까운 기지로 부대 이동을 실시하였다.

부대이동을 완료한 미 극동공군은 제5공군과 전략폭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의 작전수행능력을 고갈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미 지상군이 6·25전쟁에 참전하자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지상군과의 관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7월 8일 요코다 기지에 극동공군폭격사령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7월 10일 천안-평택 부근 북한군 병력과 전차, 수송차량 등을 공격하도록 폭격사령부 예하 제19폭격전대의 B-29 중폭격기 10대를 투입하였다. 이후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사령부에 북한 지역 수송차단목표와 전략목

15)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295-302쪽.

16) Robert F. Futrell, Lawson S. Moseley, Albert F. Simpso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N.Y.: Van Rees Press, 1983), p.58.

표를 공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5공군에는 한국에서의 전술항공작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다.<sup>17)</sup>

미 극동공군은 6월 27일 김포기지 상공에서 북한 전투기와 최초의 공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공군의 YAK전투기가 공수작전을 수행하던 미 공군 수송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출현하였으나, 수송기를 엄호하던 5대의 F-82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sup>18)</sup> 이후 미 공군을 비롯한 유엔공군은 제공권을 장악하고 유엔지상군이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지원작전을 실시하였다. 공산군을 전장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전장으로 통하는 모든 교통로를 차단하는 후방차단작전과 함께 근접항공지원으로 지상군작전에 대한 화력지원을 제공하였다. 전쟁기간 동안 미 극동공군은 스트랭글(Strangle) 작전과 세이췌레이트(Saturate) 작전, 수력발전소 폭격작전, 평양 대공습 작전, 저수지폭격작전 등과 같은 주요 공중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여 전쟁의 초기단계부터 마지막까지 공산군 측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sup>19)</sup>

미 공군을 비롯한 유엔공군의 작전을 지휘 및 통제하는 기구는 미 극동공군사령부로 예하에 일본 주둔 제5공군과 오키나와 제13공군, 필리핀의 제20공군을 편성하고 있었다.<sup>20)</sup> 또한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와 극동공군 수송사령부 겸 제315항공사단을 두고 최대 20개 비행단과 77개 비행대에 대한 작전을 통제하였다.<sup>21)</sup> 미 극동공군의 주요 지휘관은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 중장과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Earle E. Partridge) 중장, 극동공군 폭격사령관 오도넬(Emmett O'Donnell, Jr.) 소장, 그리고 극동공군수송사령관 튜너(William H. Tunner) 소장 등이었고, 작전기간

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2006, 762-763쪽.

18) Robert F. Futrell, Lawson S. Moseley, Albert F. Simpso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13.

19)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5-21쪽.

20) 공군본부, 『UN공군사』(상), 1975, 36쪽.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군사관계사 1871~2002』, 473쪽.

중 미 극동공군 지휘관은 다음 <표 3-5>와 같다.<sup>22)</sup>

<표 3-5> 6·25전쟁 기간 미국 공군 참전 주요 지휘관 현황

구분	계급	성명	참전기간	비고
극동공군 사령관	중장	George E. Stratemeyer	1949.4.26.~1951.5.21.	
	중장	Earle E. Partridge	1951.5.21.~1951.6.10.	
	중장	Otto P. Weyland	1951.6.10.~1954.3.31.	
제5공군 사령관	중장	Earle E. Partridge	1950.6.27.~1951.5.21.	
	소장	E. J. Timberlake	1951.5.21.~1951.6.1.	
	소장	Frank F. Everest	1951.6.1.~1952.5.30.	'51.12.20. 중장진급
	소장	Glenn O. Barcus	1952.5.30.~1953.5.31.	'52.6.10. 중장진급
	중장	Samuel E. Anderson	1953.5.31.~1954.6.	
극동공군 폭격사령관	소장	Emmett O'Donnell, Jr.	1950.7.8.~1951.1.10.	
	준장	James E. Briggs	1951.1.10.~1951.5.23.	
	준장	Robert H. Terrill	1951.5.23.~1951.9.30.	
	준장	Joe W. Kelly	1951.9.30.~1952.3.15.	
	준장	Wiley D. Ganey	1952.3.15.~1952.10.5.	
	준장	William P. Fisher	1952.10.5.~1953.6.15.	
극동공군 수송사령관	준장	Richard H. Carmichael	1953.6.15.~	
	소장	William H. Tunner	1950.8.26.~1951.2.8.	
	준장	John P. Henebry	1951.2.8.~1952.2.26.	
	대령	Cecil H. Childre	1952.2.26.~1952.4.10.	대리
	소장	Chester E. McCarty	1952.4.10.~	

22)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06쪽.

## 나. 미 지상군의 작전활동

### 1) 죽미령 전투(1950. 7. 5.)

죽미령 전투는 1950년 7월 5일 6·25전쟁에 최초로 투입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Smith)가 오산 북방의 죽미령에서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및 제4보병사단을 상대로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제1대대 B중대와 C중대, 그리고 제52포병대대 A포대를 주축으로 편성되었다. 스미스(Charles B. Smith) 중령이 이끄는 이 부대는 장교 17명을 포함한 406명의 병력과 75mm 무반동총 2정, 4.2인치 박격포 2문, 60mm 박격포 4문, 2.36인치 로켓포 6문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스미스 부대와 함께 출동명령을 받은 제52포병대대는 장교 9명과 사병 125명 등 134명으로 편성되었고 105mm 야포 6문과 0.5인치 기관총 4정, 2.36인치 로켓포 4문, 차량 7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sup>23)</sup>

7월 1일 11시 수영비행장에 도착한 대대는 다음날 대전에 도착하여 처치장군으로부터 전황설명을 듣고 7월 3일 아침에 열차편으로 이동하여 평택과 안성 부근에 각각 1개 중대를 배치하고 지휘소는 평택의 국도변에 위치시켰다. 다음날 오전에 스미스 중령은 평택과 안성에 배치한 병력을 평택에 집결시키고 포병대대장과 함께 오산 북쪽에 대한 지형정찰을 실시한 후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대대를 죽미령으로 이동시켰다.

대대는 철수하는 국군과 피난민 대열을 뚫고 새벽 03시경에 스미스 중령이 사전 정찰한 죽미령의 각 진지에 도착하였다. 대대가 배치된 죽미령은 오산 북쪽의 무명고지와 117고지, 그리고 92고지가 횡으로 연결된 능선상의 고개로 경부국도와 철도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었다.<sup>24)</sup>

23)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61.

2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208쪽.



1950년 7월 2일 대전에 도착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스미스 중령은 117고지의 우단을 전투지경선으로 서쪽에 B중대, 동쪽에 C중대를 배치하였다. 2문의 4.2인치 박격포는 B중대가 배치된 117고지 후방 370m 지점에 진지를 선정하고 대대를 일반지원토록 지시하였다. 또한 2정의 75mm 무반동총과 2.36인치 로켓포는 적 전차의 접근이 예상되는 1번 도로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52포병대대는 1.8km 후방 지역에 진지를 편성하였다.<sup>25)</sup>

7월 5일 07시 비가 오는 와중에도 스미스 중령은 북한군 전차 8대가 남진하고 있는 모습을 관측하고 있었다. 선두전차가 전방 1,800m 지점에 도달한 09시 16분에 그는 포병대대에 포격을 요청하였다. 대대는 참전 이래 최초로 북한군 전차를 향해 포격을 가했으나, 전차는 화망을 뚫고 유유히 남하하였다.

북한군 전차가 600m 지점까지 접근하자 대대는 75mm 무반동총을 사격하며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적 전차는 주포와 기관총을 발사하며 고지 정상으로 다가와 진지돌파를 기도하였다. 적 전차가 진내로 진입할 무렵 커너(Ollie D. Connor) 소위가 지휘하는 2.36인치 로켓포조가 10여 m의 거리

25)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68.

에서 전차궤도와 후미를 공격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08시 30분경 진지를 돌파한 북한군 전차는 죽미령 정상을 넘어섰다.<sup>26)</sup>

이때 직접조준사격을 목적으로 도로변에 추진 배치된 1문의 105mm 곡사포가 6발의 대전차고폭탄을 쏘아 고개를 내려가는 선두전차 2대를 차례로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죽미령 고개의 적 전차 2대는 파괴되어 기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후속하던 전차들은 파괴된 전차를 길옆으로 밀어내고 신속하게 후방진출을 기도하였다.<sup>27)</sup>

4대를 1개 집단으로 편성한 적 전차 2개 집단이 보병진지를 통과한 후 모두 33대의 전차가 고지를 통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병과 포병진지 간에 가설된 전화선이 절단되어 통신이 두절되었다. 따라서 전방의 보병진지에서는 전개되는 상황을 후방의 포병진지에 알릴 수 없었다. 결국 포병진지 부근까지 침입한 적의 선두전차가 전차포와 기관총을 난사하며 지나간 후 10시 15분에 본대인 전차대열이 혼란에 빠진 포대를 유린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한편 제105전차사단 예하의 제107전차연대로 알려진 전차제대가 보병과 포병진지를 통과한 직후 소강상태가 유지되자, 스미스 중령은 보병제대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등 전선을 재정비하였다. 1시간이 경과한 10시경 수원에서 남하한 북한군 주력부대의 긴 대열이 목격되었다. 이들은 북한군 제4사단 제16연대 및 제18연대 주력이었다.<sup>28)</sup>

스미스 중령은 적의 접근을 기다렸다가 차량대형이 900m까지 접근하자 사격명령을 하달하였고, 곧이어 박격포와 기관총 및 소화기 사격이 개시되었다. 기습공격을 받은 북한군은 일시 혼란상황에 빠졌으나, 잠시 후 재정비를 완료하고 전차제대를 선두로 포위공격을 기도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대는 방어정면이 축소되고 탄약마저 소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신두절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2006, 3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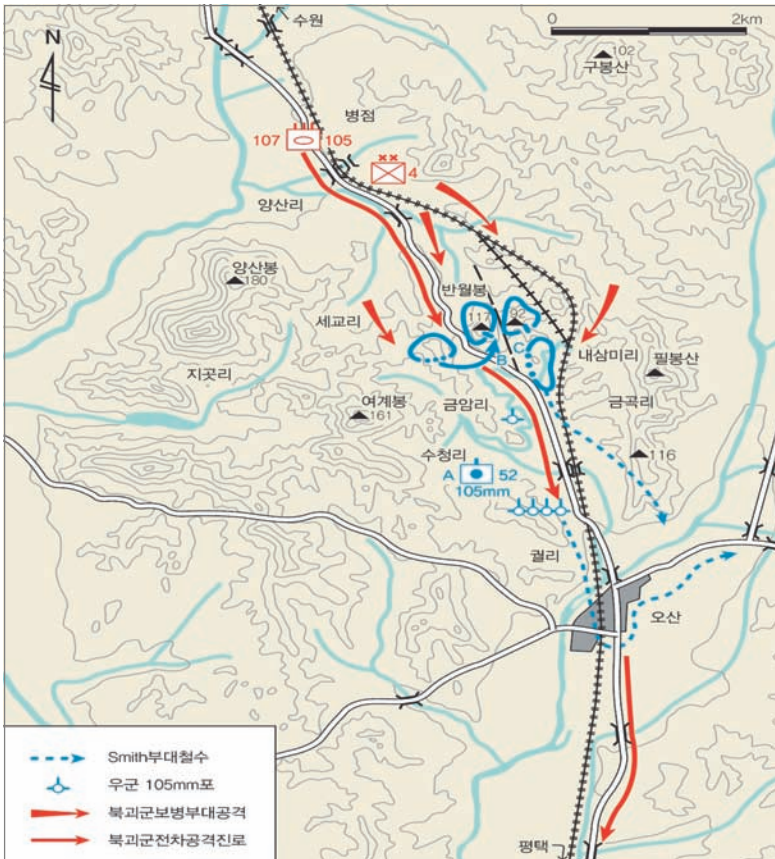
2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69.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353쪽.



로 포병의 화력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기상 악화로 항공지원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대대장은 14시 30분경 철수를 명령하였다.<sup>29)</sup>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철수과정에서도 적의 추격으로 병력이 분산되고 모든 공용 화기를 유기하는 등 많은 인원과 장비 손실을 입고 안성을 경유하여 7월 6일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상황도 3-2〉 미 스미스부대의 오산 부근 전투(1950. 7. 5.)



29)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74.

오산전투는 극동군사령관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한 지연전이었고, 미 제24사단장 딘 장군의 입장에서는 경계부대전투였지만, 스미스 중령 입장에서는 북한군 공격을 저지시키기 위한 치열한 방어 전투였다. 미군과 북한군이 최초로 격돌한 이 전투에서 북한군은 미 지상군의 참전을 확인하게 되었고, 미군은 북한군 전력을 과소평가하였음을 인식하고 적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 2) 낙동강 방어전투

유엔군의 파병결정에 따라 미 제24사단의 선두부대가 평택에 도착하면서 1950년 7월 4일을 기해 미군은 한국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열세였던 한·미 연합군은 북한군의 지속적인 압력에 밀려 지연전을 실시하며 8월 1일 낙동강선인 마산-왜관-영덕을 연하는 선까지 물러나게 되었다.

지연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한·미 연합군은 남한 국토의 90%를 상실하였으나, 유엔군사령부 창설과 한국군의 지휘권 이양, 한국군 재편성 및 전력의 회복, 유엔군 도착과 같은 유엔군의 전쟁수행을 위한 작전지휘체제와 작전기반을 갖추었다. 이에 반해 북한군은 계속된 공세로 인한 많은 병력 손실로 전투력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었고,<sup>30)</sup> 병참선도 300여 km로 신장된 데다 유엔공군에 의한 보급로 차단으로 전력이 저하되고 있었다.

북한군 공세작전이 거의 한계점에 이를 무렵 유엔군은 한국군 5개 사단과 미군 3개 사단을 마산-남지-왜관-낙정리-영덕에 이르는 240km에 달하는 낙동강선에 배치하였다. 이때 미군은 미 제8군 예하의 제25사단과 제24

30) 1950년 8월 5일까지 유엔군의 총 손실은 약 76,000명인데 반해 북한군은 부산교두보 전투에서 70,000명이 넘는 병력손실을 보았다.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263.

사단, 제1기병사단으로 왜관으로부터 마산까지 112km에 달하는 사수개념의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 선은 더 이상 물리칠 수 없는 최후 방어선이었고, 반격작전을 위한 교두보였다. 이 선은 일명 ‘부산교두보(Pusan Perimeter)’ 또는 ‘워커라인(Walker Line)’이라 불리었다.<sup>31)</sup>

한편 북한군은 8월 5일부터 낙동강 도하작전을 개시하여 8월과 9월 2차에 걸친 이른바 ‘8월 공세’와 ‘9월 공세’를 통해 낙동강방어선의 돌파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결국 함안-창녕-왜관-영천-포항 선까지 진출하는데 그쳐 포위망을 압축하여 일격에 부산을 점령하고 전쟁을 종료하려던 기도가 좌절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창녕-영산 지구와 마산 지구, 그리고 왜관-다부동 지구에서 북한군 돌파를 결사적으로 저지하여 낙동강 방어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 가) 마산 지구 전투(1950. 8. 7. ~ 8. 14.)

미 제24사단이 금강선에서 북한군 제3 및 제4사단과 지연을 실시하고 있을 무렵 북한군 제6사단은 호남지역으로 우회하여 빠른 속도로 남진, 목포와 여수 등을 점령하였다. 진격을 계속한 북한군 제6사단은 7월말 경 부산에서 불과 50km 거리에 위치한 마산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 제8군의 좌측방을 돌파한 후 진주-마산-부산 축선으로 진출하여 부산을 점령할 목적으로 마산 방면에 공격력을 집중하고 있었다.<sup>32)</sup> 이때 북한군 제6사단은 1개 모터싸이클연대와 T-34전차 25대, 포 36문을 보유하고, 남한 점령지역에서 강제동원한 청년 2,500여 명을 충원하여 병력이 7,500명에 달하였다.<sup>33)</sup>

3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253.

32) 북한군 제6사단장인 방호산 소장은 “우리가 마산을 점령하면 적의 숨통을 조르는 것이다.”라고 마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5, 253쪽.

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74쪽.

한편 미 제25보병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은 8월 1일 15시에 미 제8군사령부로부터 마산방면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sup>34)</sup> 제25사단은 8월 3일 야간에 이동을 완료한 후 낙동강 돌출부 남쪽의 남지에서 마산에 이르는 방어선을 담당하였다. 사단은 8월 4일까지 제35연대를 중암리에, 제24연대를 함안 부근에, 제27연대를 진동리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선두부대들은 이미 사단의 후방지역인 함안 남서쪽 서북산 일대로 침투하고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역공격을 실시하여 이 지역에 집중되는 적의 위협을 제거함은 물론 적의 예비대를 이 지역으로 유도하여 대구전선에 대한 압력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목적으로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한 이후 최초로 사단급 공격작전을 준비하였다.<sup>35)</sup> 그리고 제25사단의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제27연대와 제5연대전투단을 교대시킨데 이어 제1해병여단, 제89중전차(M4A3)대대, 해병 제1전차대대를 배속시켜 제25사단장의 이름을 따서 「킨특수임무부대(Task Force Kean)」를 편성하였다.<sup>36)</sup>

「킨특수임무부대」는 진주를 탈환하기 위하여 마산에서 진주에 이르는 3개 도로를 중심으로 8월 7일 06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쪽 제35연대는 이날 항공기 지원을 받아 부계리 부근에서 북한군 1개 대대규모를 격퇴하고 계획대로 무촌리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남쪽 제5연대전투단과 제5해병연대는 진동 부근 야반산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로가 차단되면서 처음으로 공격에 실패하였다.<sup>37)</sup>

제5연대전투단, 제5해병연대, 제24연대의 공격부대들은 악전고투 끝에 공격개시 3일째인 8월 9일 정오 무렵에 진동 부근의 적을 격퇴하고 공격

34)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248.

3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326쪽.

36)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267.

3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272.

발판을 마련하였다. 공격을 재개한 제5해병연대는 8월 11일 고성 부근에서 항공지원을 받아 북한군 제83모터사이클연대를 격멸하는 등 진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12일 사천으로 진출하였다.<sup>38)</sup>

그러나 중앙의 제5연대전투단은 8월 11일 제3대대만 진주고개에서 제35연대와 합류하였고, 주력은 8월 10일 봉암리 일대에서 후방으로 침투한 북한군의 야간기습을 받아 혼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지휘 혼선을 빚은 제5연대전투단 주력은 후방으로 침투한 적으로부터 11일 저녁 야간이동 중에 다시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 공격에서 미 제555야포대대는 2개 고사포대와 8문의 105mm 곡사포를 상실하였고, 제90야포대대도 155mm 곡사포 6문을 잃었다. 이로 인해 봉암리 계곡을 ‘피의 계곡’ 또는 ‘포병의 무덤’으로 불리게 되었다. 제5연대전투단은 제8군 명령에 따라 8월 12일 저녁 반격작전을 중지하고 서북산 일대로 철수하여 진주탈환작전은 일탈되었다.<sup>39)</sup>

「킨특수임무부대」는 미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초로 실시한 공격작전에서 병력 4,000~5,000명과 전차 13대를 파괴시켜 북한군 제6사단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으나, 진주를 탈환하고 대구 정면에 집중된 적을 분산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sup>40)</sup> 그러나 미 제25사단은 마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차후 공격작전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나) 창녕-영산전투(1950. 8. 5. ~ 8. 19.)

창녕-영산 전투는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미 제24사단과 제2사단이 북한군 제2, 제4, 제9사단과 33일에 걸쳐 전개한 공방전이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대구-부산간 퇴로를 차단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98쪽.

39)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276.

4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331쪽.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투입된 북한군 3개 사단을 재기불능상태로 만들어 북한군의 전투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8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미 제24사단과 증원부대는 낙동강 돌출부로 도하한 북한군 제4사단을 영산 지역에서 격퇴하고 방어진지를 회복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창녕-영산 지역의 낙동강은 동으로 굽어져 남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10km 거리에 있는 영산 맞은편에서 서쪽으로 굽어 넓은 반원형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를 낙동강 돌출부(Naktong Bulge)라 불렀다.<sup>41)</sup> 이 지역은 강폭이 300~400m에 이르고 수심도 2~4m인 낙동강이 방어선의 3/4을 둘러싸고 많은 곳에서 물굽이를 형성하여 방어하는 자에게 유리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서남부전선으로 급파된 미 제24사단은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점에서부터 북쪽으로 낙동강을 따라 현풍까지 약 60km의 넓은 방어정면을 담당하였다. 사단장 처치(John H. Church) 소장은 제34연대를 영산에, 제21연대를 창녕에, 그리고 배속된 한국군 제17연대를 현풍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 제24사단의 전투력은 계속된 지연전으로 극도로 소진되어 단지 40%만 유지하고 있어서 낙동강 돌출부를 담당한 제34연대 제3대대는 사단의 방어정면에 해당하는 10km를 방어하게 되었다.<sup>42)</sup>

한편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북한군 제6사단이 진주를 점령하자 예하의 제4사단에 낙동강을 신속히 도하하여 영산과 밀양을 점령하고 부산-대구간 도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sup>43)</sup> 이에 따라 북한군 제4사단은 8월 3일 합천 동남쪽의 초곡리까지 진출하여 도하준비를 완료하였다.

41) 국방부, 『한국전쟁사』 3, 222쪽.

42) 당시 사단 예하의 각 연대는 2개 대대로 편성되었는데, 대대병력도 50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사단포병은 105mm포 17문과 155mm포 12문을 보유하였다.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291.

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13쪽.

1950년 8월 5일 자정이 지날 무렵 북한군 제4사단은 미 제24사단 제21연대와 제34연대의 전투지경선 부근인 부곡리와 제34연대의 오항 지역으로 도하공격을 개시하여 낙동강 돌출부 전투가 시작되었다.<sup>44)</sup> 제34연대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클로버그지를 빼앗겼으나, 역습을 통해 고지를 탈환하고 낙동강 진지를 확보하여 영산으로 통하는 도로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쌍방은 10일 동안 유엔군의 낙동강방어선 유지에 분수령이 되는 클로버그지(165고지)와 어봉리 능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몇 차례 역습에 실패하자 제24사단장은 8월 10일 증원부대인 제2사단 제9연대, 제34연대, 제19연대, 제21연대 제1대대 등으로 「힐특수임무부대(Task Force Hill)」를 편성하고 제9연대장 힐(John G. Hill) 대령에게 지휘권을 부여하였다.<sup>45)</sup> 이와 같이 미 제24사단이 총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북한군 제4사단도 오항과 박진나루터에 수중교를 가설하고, 야간을 이용하여 대규모 병력과 전차, 박격포, 야포 등을 도하시켰다.

8월 11일 아침 북한군은 「힐특수임무부대」가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선제기습공격을 가해왔다. 공격개시선에 대기하고 있던 「힐특수임무부대」는 오히려 혼란상황에 빠져들었고, 이로써 아군의 공격계획은 무산되었다.<sup>46)</sup> 그리고 주저항선을 돌파한 북한군 2개 대대규모가 영산-밀양 도로를 따라 사단지휘소가 있는 밀양으로 진출을 기도하였다.

이때 유엔군은 전 전선에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예비대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미 제8군사령관은 예비대 투입의 우선권을 낙동강 돌출부지역에 두어 예비인 제27연대에 이어 미 제2사단 제23연대를 영산 일대에 투입, 적의 공세를 저지하도록 하였다. 제27연대와 제23연대가 내륙진출을 기도하는 북한군을 격멸하고 영산지역 위기를 타개하자, 8월

44)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293.

45)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301.

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56쪽.

14일 「힐특수임무부대」도 돌출부지역으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오히려 근접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돌출부지역에서 제24사단의 공격작전이 거듭 실패함에 따라 이 지역의 위기가 낙동강방어선 유지의 최대 고비라 판단하고 최강 전력인 미 해병여단 투입을 결정하면서 공격을 독려했다. 이에 미 제24사단장은 어봉리 능선과 클로버그지 일대를 집중 포격한 후 해병여단에게는 어봉리 능선을, 그리고 제9연대에게는 클로버그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sup>47)</sup>

이에 맞서 북한군은 이 지역으로 전차 4대를 증원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제9연대는 8월 17일 강력한 포병화력의 지원에 힘입어 클로버그지를 점령하였으나 해병여단은 북한군의 저항이 완강하여 8월 18일 저녁 무렵에 제9연대의 측방지원과 근접항공지원을 받아 북한군을 격퇴하고 어봉리 능선을 탈환하였다. 유엔군의 강력한 공격과 항공폭격 및 포병화력에 결정적 피해를 입은 북한군 제4사단은 18일 저녁 어둠을 이용하여 100여 명씩 무리를 지어 낙동강을 건너 철수하였고, 이로써 낙동강 돌출부지역 전투는 일단락되었다.<sup>48)</sup>

이 전투에서 아군은 축차적인 부대투입과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지역을 탈환하여 낙동강방어선의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반면에 북한군 제4사단은 다시는 낙동강전선에 투입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낙동강방어선 돌파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sup>49)</sup>

4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310.

4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325쪽.

49) 이 전투에서 포획한 포로진술에 따르면, 3개 소총연대의 병력은 각각 300~400명에 불과하였으며, 8월 19일 보도가 전투말기의 북한군 제4사단 총병력이 3,500명 정도였다고 말할 정도로 전투 중 많은 인명손실이 있었다.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318.



#### 다) 왜관-다부동-대구 북방 전투(1950. 8. 1. ~ 9. 14.)

왜관-다부동-대구 북방 전투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 인천상륙 작전 직전까지 미 제1기병사단이 대구점령을 기도하는 북한군 4개 사단과 펼친 방어전투이다. 미 제1기병사단은 8월 초에 왜관 일대에서 북한군 제3·제10사단과 그리고 9월 초에는 북한군 제1·제3·제13사단과 격돌하였다. 특히 9월 2일부터 전개된 다부동-대구 북방 전투에서 미 제1기병사단은 북한군 제13사단과 치열한 교전을 실시하였다.

북한군은 8월 공세에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방어선 돌파를 위해 재정비에 주력하였다. 북한군은 9월 2일 제2군단의 제3공격집단에 편성된 제1·제3·제13사단으로 미 제1기병사단과 한국군 제1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왜관-다부동-대구 축선으로 공격한다는 9월 공세계획을 수립하였다.<sup>50)</sup> 이에 8월 10일 왜관 전투에서 북한군 제3사단을 격퇴시킨 미 제1기병사단은 유엔군의 전선조정 에 따라 제5기병연대를 왜관 남쪽에, 제7기병연대를 유학산 일대에, 제8기병연대를 다부동에 각각 배치하여 이들 공격에 대비하였다.

8월 31일 밤 북한군 제1군단이 낙동강 돌출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자 워커 사령관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1기병사단장 게이(Hobart R. Gay) 소장에게 북서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적을 유인하도록 명령하였다.<sup>51)</sup> 그러나 사단장은 사단 참모와 연대장들의 건의에 따라 다부동-대구 도로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집결지로 알려진 제7기병연대 전방의 수암산(519고지)을 공격목표로 선정하였다. 제7기병연대는 9월 2일 아침 근접항공지원과 사단포병의 지원 아래 수암산을 공격하였으나 기동공

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19-220쪽.

5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411.

간이 협소하여 공격에 실패하였다. 사단은 3일과 4일에도 연이어 공격을 반복하였으나 공격목표인 수암산을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다.

9월 2일 저녁 북한군이 전차를 선두로 다부동 지역의 제8기병연대를 공격하여 사단의 우전방이 돌파되었고, 전술적 요충인 가산마저 피탈되었다. 또한 중앙의 제7기병연대도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464고지를 장악한 북한군에게 포위되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5일 제1기병사단에 야간을 이용하여 칠곡 부근 신방어진지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고,<sup>52)</sup> 사단은 다부동의 제8기병연대, 수암산의 제7기병연대, 그리고 303고지의 제5기병연대 순으로 진지를 이탈하였다. 이로 인해 유엔군은 적에게 왜관-대구의 진출로를 열어 주어 대구의 위기는 심각하게 고조되었고, 낙동강방어선 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락하였다.



1950년 8월 21일 다부동 불령앨리에서 전개된 전차전에서 파괴된 북한군 전차

이 과정에서 제7기병연대는 신방어진지의 일부인 465고지를 적이 장악하고 있어 악전고투 끝에 이 지역을 돌파하였으나, 사단명령에 따라 9월 7일 제1대대는 제5기병연대에 배속되고 연대주력은 대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사단예비가 되었다. 또한 제5기병연대도 9월 7일 왜관 북쪽 303고지에서 새

5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415.

로운 방어진지로 철수하였으나, 신방어진지상의 345고지를 적에게 빼앗기고 왜관 남동쪽 창평동 일대 203고지-174고지 부근만 확보하였다. 제5기병연대는 13일 자정 무렵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이 고지마저 빼앗겼으나, 14일에 실시된 역습을 통해 고지 주인이 7차례나 뒤바뀌는 쟁탈전 끝에 174고지만 다시 탈환하였다.<sup>53)</sup>

이 무렵 우전방 제8기병연대가 다부동 남쪽 570고지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인 11일 북한군 일부가 대구가 내려다보이는 칠곡 북동쪽 314고지를 점령하여 고립될 위기에 직면하였다.<sup>54)</sup>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제7기병연대 제3대대가 12일 역습을 개시하여 재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이 역습과정에서 많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였고, 북한군 또한 700여 명의 손실을 입었다.

9월 12일 제7기병연대가 314고지를 탈환한 것을 계기로 유엔군은 낙동강방어선의 위태로운 고비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대구를 점령한 후 포항-경주 축선을 통하여 부산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 제2군단 공격을 무산시켰다.

### 3) 인천상륙작전(1950. 9. 15. ~ 9. 16.)

인천상륙작전은 북한군의 8월 및 9월 공세를 낙동강 방어선에서 저지한 한국군과 유엔군이 유엔 해군 제7합동상륙기동부대의 261척 함정을 동원하여 미 제10군단을 인천에 상륙시킨 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제7합동상륙기동부대의 제90공격부대(TF-90)는 인천을 방어하는 북한군 인천경비여단과 제18사단, 제31사단을 격파하고 공격 당일 월미도와 인천 시가를, 다음날에는 인천 해안교두보를 확보하여 서울로 진격할 발판을 구축한 다음 작전 지휘권을 미 제10군단장에게 인계하였다.

5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356쪽.

54)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431.

극동군 및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낙동강선에서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정면에서 반격을 가하고, 이와 병행하여 해병연대전투단과 육군부대가 돌격부대로 인천에 상륙한 후 내륙으로 진출, 서울을 포위하여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sup>55)</sup> 맥아더 장군은 전선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적의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천상륙계획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합동전략기획단은 ‘크로마이트(Chromite)’라는 작전명을 갖고 인천상륙계획과 군산상륙계획, 그리고 주문진상륙계획 등 3개의 계획을 작성하였다.<sup>56)</sup>

인천상륙계획을 발전시키는 동안에도 상륙지역 선정에 대한 논란은 끊임 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해군측은 인천지역의 조수간만의 차와 수로, 해안조건이 상륙작전에 많은 제한요소가 되고 있어 반대하자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Lawton J. Collins) 장군은 대안으로 군산을 상륙지역으로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맥아더 사령관은 시종 일관 서울 조기탈환이라는 전략적, 정치적, 심리적 이유를 들어 인천상륙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 합참은 8월 28일 인천상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한편 상륙작전 개시일도 9월 15일로 확정하였다.<sup>57)</sup> 육군부의 승인 하에 미 제1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 제2특수공병여단과 한국군 제1해병연대, 제17연대를 주축으로 상륙부대인 미 제10군단을 편성하였다. 이어 미 극동군사령부 참모장인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을 제10군단장으로 임명하였다.

미 극동해군도 미 해군 함정을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함정을 포함 총 260여 척으로 7개 기동

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100쪽.

56)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489.

5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495.

부대로 구성된 제7합동기동부대를 편성하고 상륙작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sup>58)</sup> 한국 해군에서도 4척의 초계함(PC)과 7척의 소해정(YMS) 등 다수의 함정을 참가시켜 작전의 일익을 담당토록 조치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은 13개 사단을 부산교두보 확보를 위해 낙동강전선에 집중하고 있었다. 서울을 비롯한 후방지역에는 지역 경비부대와 병참선 경비부대, 그리고 일부 신편부대들이 산재해 있었다. 특히 인천지역에는 월미도에 제226독립연대 제3대대 소속 400여 명과 제918해안포연대의 예하부대가 해안을 방어하고 있었고, 인천 시가지에는 신편된 제9사단 예하 제87연대가 인천을 방어하고 있었다.<sup>59)</sup>

1950년 9월초 상륙기동부대는 부산에서 한국 해병대와 미 제5해병연대를, 일본 요코하마에서 미 제7보병사단을, 그리고 고베에서 미 제1해병사단을 탑재하고 9월 10일 인천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sup>60)</sup> 이때 극동공군은 상륙지역을 엄폐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군산에 이르는 해안지역을 광범위하게 포격하였고, 9월 12일 밤에는 미 육군 엘리 대령이 지휘하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 혼성부대가 군산에 양동작전을 감행하였다.

한편 9월 4일부터 경인지구를 고립시키기 위해 인천 반경 50km 이내 도로와 교량, 터널 등을 폭격한 유엔군사령부는 12일부터 인천의 관문인 월미도를 제압하기 위한 폭격을 개시하였다. 이 작전은 해병대 항공기들이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이어 D-Day 아침에 다시 폭격하는 것과 서해안의 군산과 평양 부근을 기만 폭격하는 것이었다. 월미도는 유엔군 주요 상륙목표 중의 하나이자 작전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북한군 독립육전연대 예하의 2개 중대가 민간인을 강제 동원하여 지하호를 구축하

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107쪽.

5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402쪽.

60)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501.

고, 2문의 대공화기 등으로 무장한 채 방어하고 있었다.<sup>61)</sup>

〈상황도 3-3〉 인천상륙작전(1950. 9. 15. ~ 9. 16.)



9월 13일 13시 제77기동함대 소속 항공모함 4척과 6척의 구축함, 그리고 5척의 순양함은 일시에 함포사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모든 병력을 해안으로 배치하였고, 울미도와 인천항의 북한군 포대가 스완슨(Swanson)호와 콜레트(Collett)호, 걸크(Gurke)호에 대응사격을 가해왔다.<sup>62)</sup> 유엔 해군 구축함들은 약 1시간에 걸쳐 5인치 포탄 1,000발을 포격하였고, 이어 순양함들이 포격에 가세하였다. 다음날인 9월 14일에도 항공 및 함포사격은

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2001, 228쪽.

6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503.

계속되어 구축함과 순양함이 월미도에 전면적인 함포사격을 총집중하였다.

1950년 9월 15일 05시 45분 구축함의 첫 포탄이 월미도에 작렬하였고, 06시 15분 3척의 로켓포함들이 1,000여 발의 5인치 포탄을 집중하였다. 로켓포함이 월미도의 녹색해안을 강타하는 동안 상륙주정 7척으로 구성된 제1파가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였다. 이들은 06시 33분에 월미도에 상륙하여 최초 목표인 105고지를 공격하였다. 08시에 상륙대대장 태플리트(Robert D. Taplett) 중령은 “현재 월미도 확보”라는 보고를 통해 작전의 성공을 알렸다.<sup>63)</sup>



초토화된 월미도를 수색하는 미 해병 장병들

이어 10시를 전후하여 상륙부대는 소월미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소월미도에는 대공포와 자동화기로 장비된 약 1개 소대의 적이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공격부대는 콜세어기 8대가 네이팜탄과 기총사격으로 공격하는 사이 방파제를 따라 전진하여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적을 11시 15분에 제압하였다.

한편 오후 만조가 되자 LST와 기타 수송함정들이 다시 물위에 뜨고 화력

6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127쪽.

지원함들도 배치를 완료하였다. 17시 30분 확정된 H시가 전 함대에 전달되었다. 14시 30분 화력 지원함들이 불을 뿜는 가운데 상륙명령이 내려졌다. 미 제5해병연대와 한국 해병 제3대대 등을 태운 상륙주정 약 200척과 중형 상륙정 70척, 대형상륙정 12척, LVT 18대, 수륙양용차 164대, 그리고 수륙양용트럭 85대가 공격개시선으로 이동하였다.

공격을 개시한 상륙부대는 미 제5해병연대 주력과 한국 해병 제1연대가 북쪽 적색해안으로, 미 제1해병연대가 남쪽 청색해안으로 상륙하였다. 이후 상륙부대들은 시가전을 벌여 북한군을 소탕한 후 9월 16일 저녁 무렵 인천 외곽을 연결하는 해안교두보를 확보하여 인천상륙작전은 성공리에 종료되었다.<sup>64)</sup>

인천상륙작전 성공은 협소한 수로와 10.3m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 상륙해안의 악조건 등 전술적 제약과 통상 5~6개월이 소요되는 작전준비를 불과 1개월 내에 완료해야 했던 시간제약 등의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였다. 이 작전은 완전한 기습작전으로 남침한 북한군 전력을 일시에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전 이후 그때까지 수세 일변도였던 유엔군 입장을 공세적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4) 장진호 전투(1950. 11. 27. ~ 12. 11.)

장진호 전투는 미 제8군이 서부전선에서 중공군 제13병단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이 서부전선 부대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장진호 북방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단의 공격을 받고 7개 사단규모 중공군이 포위망을 형성한 장진호 계곡을 벗어나기 위해 2주일에 걸쳐 전개한 철수작전이다.

64)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509.



유엔군은 중공군 제1차 공세 이후 소강상태가 지속되자 중공군이 조직적인 공격을 실시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계획에 따라 1950년 11월 24일 일명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때 동부전선의 공격을 담당하던 미 제10군단은 좌측에 미 제1해병사단을, 중앙에 미 제7보병사단을 배치하였다. 제1해병사단은 예하의 제7연대가 고토리에서 장진호 남단 하갈우리로 진격해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제5해병연대는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고토리로 기동하였다.

이때 유엔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 공격계획을 수정해 장진호로 진출한 후 서쪽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적의 전략 및 전술적 요충인 강계를 공격하여 미 제8군 공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sup>65)</sup> 따라서 미 제10군단은 유담리에서 서쪽으로 선회하여 강계 남쪽의 무평리를 공격하게 되었다.



미군에게 생포된 중공군 포로들

반면 제1차 공세를 통해 청천강 북안으로 진출한 중공군과 북한군은 결정적인 반격으로 전환하여 청천강과 장진호, 청진 지역에서 유엔군을 섬멸한 후 남으로 전과를 확대하면서 제2전선부대와 연계, 38도선 이북지역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sup>66)</sup> 이에 따라 중공군사령부는 제27군과 제20군 1개 사단 등 4개 사단이 미 제

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394쪽.

66)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174쪽.

7사단 2개 연대를 포위 섬멸하고, 제20군 3개 사단과 제42군 제126사단이 유담리 서쪽에 도달한 미 제1해병사단의 2개 연대를 포위하여 섬멸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명령에 따라 공격에 나선 미 제1해병사단은 적정도 불분명한데다 작전지역이 산간 오지로 기동공간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해발 1,300m 고산준령에 둘러싸여 지세가 험한 장진호 일대는 기온이 섭씨 영하 27도까지 내려가고 사방이 백설로 덮여 있어 매우 열악한 작전환경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은 제7해병연대가 유담리(柳潭里)를 확보하면 제5연대가 초월공격으로 무평리(武坪里)를 공격하고, 예비인 제1해병연대는 사단의 유일한 보급로인 장진호-함흥간 계곡통로를 경비하도록 계획하였다.<sup>67)</sup>

이 계획에 의거 제7해병연대는 11월 25일 접적 없이 무평리 공격의 발판이 되는 유담리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공격선봉에 나선 제5해병연대는 11월 27일 08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연대 공격은 얼마 되지 않아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좌절되었고, 제5해병연대와 제7해병연대는 방어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sup>68)</sup> 이날 밤 해병연대들을 포위한 중공군은 공격을 개시하였고, 해병연대들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악전고투하였다. 중공군의 포위망이 압축되고 있을 무렵 군단 철수명령이 하달되자 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11월 30일 유담리로 진출한 제5해병연대 및 제7해병연대와 사단에 배속되어 풍류리로 진출중인 미 제7사단 페이스트크수임무부대(Task Force Faith)에 대해 하갈우리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중공군 제9병단은 4개 사단으로 편성된 제26군을 장진호 북쪽에 예비로 확보한 가운데 제27군 4개 사단은 하갈우리 일대 해병사단 주력을 포

67)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p.89.

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 전투』, 89쪽.

위 공격하도록 하고, 제20군 4개 사단은 우회 기동으로 제27군보다 남쪽으로 진출하여 하갈우리-함흥간 도로를 분할 차단하고 일부는 함흥을 공격하게 하였다.<sup>69)</sup> 따라서 적의 강력한 포위망을 돌파하고 함흥으로 철수해야 하는 해병사단의 장진호 철수작전은 처음부터 고전이 예상되었다.

12월 1일 유담리에서 철수를 개시한 제5해병연대와 제7해병연대는 중공군의 교량파괴와 매복공격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12월 4일 하갈우리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풍류리에서 철수한 페이스특수임무부대는 중공군 기습을 받아 다수의 인적 및 물적 손실을 입고 얼어붙은 장진호를 경유하여 12월 3일 하갈우리로 철수하였다. 이때 부상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사단장은 철수작전에 장애요소인 부상자들을 후송시키기 위해 서둘러 간이활주로 공사를 완료한 다음 4,300명의 부상자를 후송시켰다.<sup>70)</sup> 장병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이번 철수작전은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적을 격멸하는 새로운 공격작전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사단 주력부대가 12월 6일 철수작전을 개시하자 중공군은 계곡통로의 좌우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사단 철수를 차단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였다. 사단도 이에 맞서 강력한 항공지원과 포병화력으로 중공군을 격퇴하고 12월 7일 중간목표인 고토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중공군 수중에 있는 철수로 상의 요충인 황초령을 통과해야 하는 점과 그 남쪽에 있는 중공군이 파괴시킨 수문교 복구가 이번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최대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 이에 사단장은 예비인 제1연대에 남쪽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황초령을 확보하게 하고, 군단으로부터 교량자재를 공수 받아 조립교 6개를 만들었다.<sup>71)</sup>

6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231쪽.

70) 당시 간이비행장의 공사 진척은 약 40%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활주로도 폭 50피트에 길이가 2,900피트에 불과하였다.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p.138.

먼저 황초령을 확보한 제1연대 제1대대가 남쪽에서 12월 8일 02시에 출발한 데 이어 08시에는 사단 주력이 북쪽에서 진흥리를 목표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제1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과 영하 34도의 혹한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12월 9일 아침에 항공폭격과 포병의 화력지원에 힘입어 주력부대가 통과하기 수분 전에 간신히 황초령 일대를 점령하였다.

첫 관문을 통과한 해병사단은 제7해병연대를 공격선봉에 내세워 수문교를 확보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사단의 강력한 화력은 물론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7해병연대는 비교적 쉽게 최대 난관인 수문교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고, 이어 공병대대가 작업개시 3시간 만에 임시가교를 설치하였다. 통로가 연결되자 주력부대들은 밤새도록 이 교량을 통해 진흥리로 이동하였다. 12월 11일 13시 최종 후미에서 사단 주력 철수를 엄호하던 제1연대 제1대대가 진흥리로 복귀하여 장진호 철수작전은 일단락되었다.

이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중공군에 포위된 상황에서도 강력한 화력지원과 장병들의 강인한 공격정신으로 적진을 돌파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사상자 2,621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들 중 1,534명이 동상환자였다. 반면 중공군 제9병단도 결정적인 피해를 입어 4개월 동안 함흥 일대에서 부대를 정비한 후에야 다시 전선에 투입될 수 있었다.<sup>71)</sup>

##### 5) 병커고지 전투(1951. 5. 16. ~ 5. 19.)

병커고지 전투는 중공군 제2차 춘계공세 당시인 1951년 5월 16일부터

7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233쪽.

72) 중공군은 장진호 부근 전투에서 전투손실 뿐 아니라 막대한 비전투손실이 발생하였다. 중국의 공간사는 당시의 상황을 “부대는 연일 추위와 굶주림에 체력이 허약해지고, 전투부대는 동상으로 인해 전투인원이 40% 이상이나 감원됨으로써 전투력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193쪽.

19일까지 미 제2사단 제38연대가 흥천 북방의 778고지인 일명 ‘병커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12군의 침공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38연대는 병커고지 일대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중공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격퇴하고 고지 동쪽 속사리와 강릉선까지 돌파구를 형성한 중공군의 흥천 방면 진출을 저지하여 중공군 작전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

공산군은 1951년 4월말 경 유엔군 전선 중에서 한국군이 담당하던 중동부 전선이 돌출되자 대규모의 한국군을 섬멸하여 4월 공세의 참패에 대한 책임을 조기에 수습함은 물론 미군을 고립시켜 작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1951년 5월 16일 총공세를 개시하였다.<sup>73)</sup> 이때 조공을 담당하던 중공군 제3병단은 제15군 예하의 1개 사단을 투입하여 평촌리-상걸리를 돌파한 후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2사단 간의 연결을 차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리 일대에 형성된 공산군의 돌파구는 흥천 북쪽을 방어중인 미 제2사단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51년 5월 17일 중공군 제15군 예하 제45사단은 미 제2사단의 강력한 포병사격에도 불구하고 전초진지를 점령한 후 총공세를 개시하였고, 09시 경에는 지역 내 중요 감제고지인 가리산마저 장악하였다. 사단은 가리산을 탈환하기 위해 배속된 프랑스대대와 네덜란드대대로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때부터 사단은 일일가용 탄약보급률의 5배인 30,000여 발의 포격을 실시하여 중공군 진출을 저지하였다.<sup>74)</sup>

반면 중공군은 돌파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야간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선두는 21시 30분경 제38연대 제3대대 K중대가 방

73) 중공군 지휘부는 1951년 4월 26일 “유엔군의 유생역량을 계속 섬멸하면서 보다 많은 한국군의 섬멸을 통해 미군을 고립, 분산시켜 소멸할 수 있는 유리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병력을 동부전선으로 보내 한국군을 공격 섬멸”하는 작전목표를 중앙군사위에 하달하였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02쪽.

74)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p.454.

어중인 벙커(Bunker)고지로 명명된 800고지 정상으로 돌진해왔다. 당시 이 고지는 미 제8군 방어계획상의 예상돌파구 좌견부에 해당하는 중요지형이었다. 따라서 미 제2사단은 지난 2주 동안 벙커고지 일대에 2만 개 모래주머니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 진지는 야포의 직격탄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지 전방에는 철조망과 대인지뢰 및 조명지뢰 등 강력한 장애물지대도 구축하고 있었다.<sup>75)</sup>

아군의 집중포격으로 1차 공격에 실패하고 물러난 중공군은 대규모 부대를 증원받아 2차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K중대는 중공군과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적을 주진지로 유인한 후 진내사격을 요청하였고, 포병부대는 진지 25m 상공에서 자동 폭발하는 가변 시한포탄을 집중 사격하였다. 이러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중공군의 집요한 공격에 밀려 K중대는 부득이 고지 하단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K중대도 한 치의 양보 없이 예비소대로 역습을 개시하였고, 소대는 포복으로 적의 집중사격을 뚫고 들어가 백병전을 전개하여 고지를 재탈환하였다.<sup>76)</sup>

중공군은 증원 병력을 보충받아 전열을 다시 정비한 후 5월 18일 자정 무렵에 재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중대는 준비된 모래주머니로 출구를 폐쇄하여 지상은 중공군이 점령한 반면 지하는 중대가 확보하고 있는 형세가 되었다. 이때 K중대장은 최후 방어사격과 진내사격을 요청하였고, 대기하고 있던 5개 포병대대가 가변 시한포탄을 사격하자 벙커고지 일대는 포성과 포연으로 뒤덮였다.

포격은 다음날인 5월 19일 04시까지 수차에 걸쳐 반복되었고, 5개 포병대대는 이날 야간에만 10,000여 발의 가변 신탄관을 쏟아 부었다. 날이 밝자 중공군은 벙커고지 공격을 단념한 듯 800여 구의 시체를 유기한 채 철

75)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535쪽.

7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569쪽.

수하여 혈전의 벙커고지 전투는 종료되었다.<sup>77)</sup> 이 전투에서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3대대 K중대는 현리와 대관령 일대까지 중심 깊게 형성된 돌파구의 좌전부에 해당하는 벙커고지를 고수하여 중공군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였고 유엔군이 전선 붕괴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6) 피의 능선 전투(1951. 8. 18. ~ 9. 7.)

피의 능선 전투는 캔사스-와이오밍 선으로 진출한 유엔군이 주저항선 전방의 전초진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 미 제2사단과 한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1951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차에 걸쳐 양구 북방 983고지-940고지-773고지를 연하는 능선을 공격하여 북한군 제12사단과 제27사단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군과 한국군은 1개 연대규모 이상, 북한군은 1개 사단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의 능선(Bloody Ridge)’이라 불려졌다.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후 쌍방 간에 설전만 계속되고 이렇다 할 진전이 없자 미 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은 휴전회담을 지원함과 아울러 펀치볼 일대를 담당한 미 제10군단의 처져있는 방어선을 밀어 올리기 위해 미 제10군단장에게 하계공세를 지시하였다.<sup>78)</sup> ‘포복작전(Operation Creeper)’이라 명명된 이 작전의 일환으로 미 제2사단은 한국군 제5사단 제36연대를 증원받아 사단의 후방지역까지 감제 관측할 수 있는 ‘피의 능선’을 점령중인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이때 북한군도 피의 능선 일대가 중요지형임을 감안하여 제2군단 예하의 제12사단 제1연대와 제27사단 제14연대를 배치하였다. 제27사단은 유엔군

77)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p.461.

7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84.

반격에 타격을 크게 입지 않아 비교적 양호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제12사단은 미 제1해병사단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으나 재편성 후 새로이 투입되어 사기와 전투력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군은 휴전협상 기간 동안 이 일대 진지와 교통호를 유개화하는 한편 진전에는 4,000~5,000개의 지뢰를 매설하는 등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있었다.<sup>79)</sup>

이런 상황에서 미 제2사단은 8월 15일과 16일 양일간 항공폭격으로 적진을 강타한 후 8월 18일 06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사단에 배속되어 공격 선봉에 나선 한국군 제36연대는 18일부터 6일간의 악전고투 끝에 8월 22일 자정 무렵 피의 능선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8월 23일 북한군이 역습을 개시하여 피의 능선에서는 다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계속된 북한군의 공격으로 제36연대의 방어선이 축소되자 사단장은 미 제9연대를 증원부대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한미 연합부대도 8월 26일 적의 강력한 역습을 받고 철수하여 피의 능선은 다시 북한군 수중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피의 능선에서 휴식중인 미 제2사단 병사들

79) 국방부, 『한국전쟁사』 6, 574쪽.



미 제2사단은 그간의 전투경과를 분석하고 부대를 재정비한 후 8월 30일 제9연대로 공격을 재개하였다.<sup>80)</sup> 그러나 방어거점을 구축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피해자만 속출할 뿐 공격은 지지부진하였다. 이때 미 제10군단의 공격계획에 따라 8월 31일 사단의 좌인접 한국군 제7사단과 우인접 제38연대가 병진공격을 개시하면서부터 제9연대 상황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공격 활로를 찾은 제9연대는 9월 3일 773고지를 탈환한 데 이어 다음날 940고지를, 그리고 5일에는 983고지를 다시 탈취하여 피의 능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때 피의 능선 주봉인 940고지와 983고지는 축방이 노출되자 포위를 우려한 북한군이 북쪽 단장의 능선으로 철수함으로써 무혈점령할 수 있었다.<sup>81)</sup>

이로써 18일간의 피의 능선 공방전은 일단락되었으나 이 전투에서의 손실은 고지 명칭에서 드러나듯 엄청났다. 아군의 손실은 전사상자를 포함하여 2,722명으로 1개 연대규모였고, 이 중 미군의 손실이 한국군의 손실보다 더 컸다. 반면 적의 손실은 15,0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sup>82)</sup>

피의 능선 전투는 전선이 교착된 3개월 동안 북한군이 준비한 강력한 방어진지에 대한 공격인 데다 적도 한 치의 땅도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로 인명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항하여 피아 전의의 대결장이 되어 많은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 7) 단장의 능선 전투(1951. 9. 13. ~ 10. 13.)

단장의 능선 전투는 유엔군이 중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 미 제2사단과 배속된 프랑스대대가

80)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85.

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양구전투』, 126쪽.

8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86.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양구 북방의 894고지-931고지-851고지에 배치된 북한군 제6사단과 제12사단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한 공격 전투이다.

미 제2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를 종료한 지 열흘도 채 안된 상태에서 군단의 ‘밀어 올리기 작전’에 따라 피의 능선 바로 북쪽의 894고지-931고지-850고지-851고지가 종으로 연결되는 일명 ‘단장의 능선’을 공격하였다. 북한군은 피의 능선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동안 예비사단을 투입하여 단장의 능선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였고 주봉인 931고지를 포함한 문등리 계곡에 제6사단을, 북쪽의 851고지와 사태리 계곡에 제13사단을 각각 배치하였다.



단장의 능선 주봉인 931고지

공격 임무를 부여받은 미 제2사단은 먼저 측방공격으로 단장의 능선 중간에 위치한 850고지를 점령하여 적을 남북으로 분리시킨 후 목표를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23연대는 9월 13일 80여 문의 포가 동원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06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sup>83)</sup> 그러나 첫날 공격에서 제3대대 L중대는 중대장 이하 30여 명이 850고지에서 백병

전 끝에 장렬하게 전사하는 등 공격이 부진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이 작전 역시 피의 능선 전투의 재판이라 판단하고 제9연대를 남쪽 894고지로 투입하였다. 이후 제23연대는 예하 대대를 교대로 투입하면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거점을 구축한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매번 공격에 실패하였다. 2주간의 일진일퇴를 거듭한 전투에서 9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사단장은 제23연대장의 건의에 따라 9월 27일부로 일단 작전을 중단하고 문제점 분석과 새로운 방안을 수립하는데 착수하였다.<sup>84)</sup>

사단장은 이번 작전의 패인을 축차적 부대투입과 화력부대 운용 미숙으로 결론짓고, 10월 2일 단장의 능선 공격계획을 하달하였다. 즉, 10월 5일 제23연대가 남쪽의 931고지를 탈환하면 제2전투공병대대는 이번 작전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고방산리-이목정-새건배 간의 도로를 전차 기동이 용이하도록 확장하도록 하였다. 이 도로를 따라 제72전차대대가 문동리로 진출해 적 후방을 공격하고, 이와 동시에 제23연대가 북쪽의 851고지를 점령하면 제38연대는 제23연대를 초월하여 전과를 확대하도록 지시하였다.<sup>85)</sup>

이 계획에 제23연대는 10월 5일 1차 공격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군이 상용전술로 사용하는 야간공격을 개시하였다. 21시 30분에 사단 및 군단포병 300여 명이 적진을 강타하는 동안 접적 이동을 완료한 제2대대와 제3대대는 남쪽에서, 배속된 프랑스대대는 북쪽에서 931고지를 포위 공격하였다. 이 기습적인 야간공격이 주효하여 10월 6일 정오 무렵 연대는 북한군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하던 이 고지를 탈취하였다.<sup>86)</sup> 이때 연

83)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89.

8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64쪽.

85) 러프너(Clark L. Ruffner) 소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제2사단장 영(Robert N. Young) 소장은 1951년 10월 2일 '터치다운(Touchdown)'이란 암호명으로 예하 연대에 작전을 하달하였다.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92.

8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66쪽.

대의 좌인점으로 진출한 제38연대도 문등리 계곡통로를 강제할 수 있는 고지들을 확보하였고, 사단공병대대도 7일부터 건솔리-새건배 간 도로확장에 착수하였다.

한편 이 무렵 공산군도 피의 능선과 단장의 능선에서 미 제2사단과 혈전을 벌인 북한군이 큰 피해를 입자 중공군 제68군 예하의 제204사단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sup>87)</sup> 이런 상황에서 10월 10일 제72전차대대가 문등리 일대로 진출하여 적 후방을 교란하자 제23연대 주력과 프랑스대대는 최종목표인 851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10월 13일 동이 틀 무렵 851고지를 점령하여 단장의 능선 전투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단장의 능선 전투는 피의 능선 전투와 함께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유엔군의 1951년도 하계 및 추계공세 전투 중 가장 격렬하게 치러진 전투로 기록되었다. 이 전투에서 미 제2사단은 3,700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고, 북한군 제6, 제12, 제13사단과 중공군 제204사단은 약 21,000의 인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sup>88)</sup>

#### 8) 삼각고지 전투(1952. 10. 14. ~ 10. 25.)

삼각고지 전투는 미 제9군단 예하의 미 제7사단과 한국군 제2사단이 195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김화 북방 7km 지점에 위치한 삼각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15군과 전개한 공방전이다.

휴전협상이 개시된 이후 줄곧 전력증강에 주력해 온 중공군은 1952년 여름부터 공격작전을 펴기 시작하였고, 가을에 접어들어서는 작전 주도권을

87) 평터화이는 1951년 10월 7일 오랜 전투로 피로가 극에 달한 북한군 제5군단의 방어임무를 대체하기 위해 제68군 예하 제204사단과 제202사단 1개 연대 등 4개 연대를 단장의 능선 일대에 투입하였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85-186쪽.

8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96.

장악하고 유엔군 전초진지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벤 플리트 대장은 적을 수세로 몰아넣고 다시 아군이 작전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제한된 공격작전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 작전을 아군이 공격작전을 감행할 능력이 있다는 ‘힘의 과시’라는 의미에서 ‘쇼다운(Showdown)작전’이라고 명명하였으며, 휴전협상이 결렬된 10월 8일에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았다.<sup>89)</sup>

이 계획에 따라 미 제7사단은 오성산에 거점을 둔 중공군 제15군 예하 제45사단의 전초진지인 삼각고지를 공격하였다. 사단의 목표인 삼각고지는 오성산에서 김화로 뻗어 내린 능선 상에 위치한 역삼각형 형태의 고지군으로, 남쪽의 제1봉인 598고지를 중심으로 동북쪽 800m 지점의 제2봉(Jane Russell Hill), 서북쪽 900m 지점에 제3봉(Pike's Peak) 등 3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었다.<sup>90)</sup>

사단장 스미스(Wayne C. Smith) 소장으로부터 삼각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미 제31연대장 모세스(Lloyd R. Moses) 대령은 최초에는 1개 대대만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적의 강력한 저항을 예상하고 2개 대대로 병진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952년 10월 14일 새벽 사단은 연대 공격에 앞서 포병의 준비사격과 근접항공지원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때 삼각고지 일대는 1톤가량 포탄이 떨어져 섬광과 포성으로 지각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지원사격이 끝나자 제1대대는 제인러셀고지를, 제3대대는 598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무수한 수류탄을 투척하고 폭뢰를 터뜨리면서 저항함은 물론 아군의 지원화력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저항하였다.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지선까지 진출했던 공격제대들은

8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11.

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 전투』, 116-119쪽.

원래 위치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단은 다음날 제32연대 제1대대를 제31연대에 배속시켜 제31연대 제2대대와 병진으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공격제대들은 악전고투 끝에 598고지만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sup>91)</sup>



75mm 무반동총을 사격 중인 병사들

이날 늦게 그간의 공격에서 큰 피해를 입은 제31연대를 대신하여 제32연대가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 이때 제32연대는 공격부대 화력지원은 물론 적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598고지 부근에 중포병과 박격포를 추진 배치하였다. 10월 16일 제32연대는 배속된 제17연대 제2대대와 제32연대 제2대대로 공격을 재개하여 피크봉과 제인리셀고지를 탈환하였다. 이날 중공군은 야간에 역습을 기도하였으나, 연대는 이들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고지에서 물러난 중공군은 재편성을 완료한 후 10월 18일을 기해 피크봉에 대한 역습을 개시하여 이때부터 쌍방은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는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되었으며, 결국 연대는 중공군 역습을 격퇴하고 삼각고지를 장악하였다. 10월 20일 이후 전투는 다소 소

9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15.

강상태가 유지되었으나, 23일 저녁 무렵 중공군이 삼각고지에서 제32연대를 축출하려는 듯 1시간 동안 집중포격을 실시한 후 피크봉과 제인리셀고지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연대가 악전고투 끝에 이들을 물리친 후 미 제7사단은 10월 25일 군단명령에 따라 작전지역을 한국군 제2사단에 인계하여 사단의 삼각고지 전투는 종료되었다.<sup>92)</sup>

미 제9군단의 소다운작전 계획에 전개된 저격능선 전투와 삼각고지 전투는 미 제8군이 1952년에 마지막으로 시도한 공격작전으로 당초 미 제7사단과 한국군 제2사단에서 1개 대대씩을 투입하면 5일 만에 작전을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작전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로 2개 사단 거의 전병력을 투입한 6·25전쟁 중 최대 규모 혈전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결국 군단은 삼각고지 탈취를 단념하게 되었다. 미 제7사단은 12일간의 전투에서 2,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전투를 통해 유사한 지형에서의 예행연습, 목표탈취 후의 행동, 공격 기세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부대교대 등 많은 전훈을 얻을 수 있었다.

#### 다. 미 해군의 주요 활동

##### 1) 1950년의 작전상황

일본 해역에서 활동하던 미 극동해군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26일 미국인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구축함 2척을 인천으로 파견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극동 해군과 공군에 대해 한국군의 엄호와 지원을 명령하여 극동해군은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극동해군은 순양함 1척과 구축함 4척으로 한국지원전대(TG96.5)를 편성

9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399쪽.

하고 통영-울진간 해안과 인근 도서의 방어, 삼척-강릉간 해역의 경비임무를 부여하였다.<sup>93)</sup> 6월 28일 한국해역으로 출동한 쥘노(Juneau)호는 23시경 동해 묵호 해안에 집결중인 적을 발견하고 참전 이래 최초로 400여 발의 포격을 실시하였다. 이어 7월 2일 주문진 해상에서 북한군 어뢰정 및 포함과 교전을 벌여 어뢰정 3척과 포함 2척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렸다.<sup>94)</sup> 7월 25일 한국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지휘해온 한국기동전대는 해군전력 증강에 따라 호송단대와 서해지원단대, 그리고 2개의 동해지원단대로 개편되었다.<sup>95)</sup>

1950년 8월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제7합동기동부대가 편성되어 260여 척의 함정이 동원되었고, 이 중 180여 척이 공격부대인 제90기동부대에 할당되었다.<sup>96)</sup> 9월 초 계획에 따라 일본의 사세보항 등에서 상륙군과 물자를 탑재한 함정들은 9월 10일 인천을 향해 이동을 시작하였고 13일부터 3일에 걸쳐 실시된 월미도에 대한 함포사격이 끝남과 동시에 상륙군이 상륙을 개시하여 인천상륙작전은 시작되었다. 9월 16일 미 해병사단의 해두보 확보에 이어 후속부대 상륙이 이어지고 각종 보급품 양륙도 실시되었다. 인천 외해에 정박하고 있던 함정들은 상륙군이 경인가도를 따라 진격을 개시하자 함포사격으로 이들을 지원하였다.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시작하자 맥아더 사령관은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지시하였다.<sup>97)</sup> 그러나 원산항 일대에 부설된 기뢰가 작전의 성패요인으로 부각되어 제7합동기동부대는 10월 10일부터 21척의 소해정을 동원하여 기뢰제거작전을 실시하였다. 광범위하게 부설된 기뢰로 인

93)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 C.,: U. S. GPO, 1962), p.51.

94) 국방부, 『한국전쟁사』 1. 905쪽.

95)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125.

96)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685-686쪽.

97) ‘테일보드(Tailboard)’라 명명된 이 작전에서 원산에 상륙한 미 제10군단은 서쪽으로 진격하여 제8군과 연계한 후 남쪽에서 퇴각하는 북한군을 섬멸할 계획이었다.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220.



해 소해정 4척이 작전 중에 침몰하였고, 상륙군도 1주일 이상 해상에 체류하다 26일 접적 없이 원산에 상륙하였다.

미 해군은 청천강까지 진출한 지상군의 군수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진남포항에서 기뢰제거작전을 실시하여 212발의 기뢰를 소해하고 상륙함정 통행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중공군 개입으로 미 제8군이 12월 초 평양에서 철수를 결정하자, 미 해군은 구축함 4척 등 가용한 선박을 동원하여 진남포에서 12월 5일까지 부상병과 포로, 군수물자와 피난민 등을 남으로 후송하였다.

한편 12월 3일 원산항 해상철수에 이어 10일부터 흥남에서 미 제10군단 철수작전이 단행되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7척, 전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7척, 로켓포함 3척으로 화력지원부대를 편성하고 125척의 수송선을 동원하여 15일부터 철수작전을 실시하였다. 작전은 12월 24일 오전에 마지막 제대가 흥남항을 빠져 나간 후 14시 30분에 흥남항을 폭파시키며 종료되었다. 이 작전에서 미 해군은 병력 105,000명과 피난민 91,000명, 화물 35,000톤, 차량장비 17,500대 등을 해상 철수시켰다.<sup>98)</sup>

## 2) 1951년의 작전 상황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격퇴시킨 지상군이 1951년 1월말 다시 반격으로 전환하자 해상작전 역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봉쇄 및 호송작전에 주력하였다. 제95기동부대는 1월 30일 제90기동부대에서 상륙작전용 함정을 지원받아 간성-고성 일대를 집중 포격하며 위장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sup>99)</sup> 2월 38도선 북쪽의 전략도서 확보에 중점을 둔 미 해군은 서해상의 초도와 백령도, 영흥만 내 도서들을 점령하였다. 미 해군은 북한의 주요 항구에 대한 봉

98)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693쪽.

99)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323.

쇄작전에 돌입하여 2월 16일 원산항을 봉쇄한데 이어 3월 8일에는 성진까지 확대하였고 적의 후방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회령간 철도와 도로, 교량 등을 포격하였다.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시되어 해군은 개성과 서해안 일대에 대한 함재기 폭격 및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는 개성 일대 등이 공산군 지배하에 있지 않음을 과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작전으로 유엔군 측은 후일 군사분계선 획정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7월말에 실시된 해주만 일대에 대한 봉쇄작전은 임시휴전선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타협되지 않던 도서 등 일부지역을 유엔군 관할 하에 두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sup>100)</sup>

미 해군은 8월 31일 동해안 장전 일대에서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는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 정면에 집중된 적의 전력을 분산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sup>101)</sup> 그리고 9월 들어 미 해군은 공군의 후방차단작전과 협조하여 철도수송망 파괴 작전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해안봉쇄 및 기습 상륙지원, 함포사격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미 해군은 휴전회담기간을 이용하여 적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며 아군의 포격 및 폭격을 모면하려 하자 사정거리가 긴 16인치포를 장착한 함정들을 동원하여 적의 병력집결지를 포격하면서 지상 작전을 지원하였다.

### 3) 1952년의 작전 상황

1952년에 접어들면서 미 해군은 전략도서 확보와 적 후방지역 교란작전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미 극동해군사령부는 1월 6일 미 해군에 38도선 이북의 모든 도서에 대한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sup>102)</sup> 이에 제95기동부

100)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31쪽.

101)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699쪽.

102)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425.

대가 각 도서의 경비부대를 지원하게 되었고, 적의 도서공격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2월 19일 북한군 1개 대대가 성진 근해 양도를 기습 공격하였는데, 당시 양도는 한국해병이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적은 동해봉쇄전대 소속 미 해군함정의 지원을 받은 한국해병에 의해 격퇴되었다. 이날 적은 15척의 선박으로 원산 근해 소도를 공격하였으나, 미 함정에 의해 10척이 피격되는 피해를 입고 도주하였고 전략도서 탈환작전은 실패하였다.

이후 적은 해안포대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해안포 사격을 개시하였는데, 미 함정의 일부가 피격되자 미 해군은 적 해안포대 위치파악 및 파괴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병참선 차단과 어둠을 이용하여 운행되는 열차파괴 작전에 참여하여 7월 중 열차 28량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sup>103)</sup>

한편 해군은 10월초 적의 병력 증원을 차단하고 진지 안에 고착된 적을 밖으로 유인하여 격멸할 목적으로 동해안의 고저에서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고저 근해에는 전함 아이오와(Iowa)호를 비롯한 100척 이상의 함정이 집결하였고, 10월 15일 일부 함정으로 고저해안을 포격한 후 상륙군인 제8기병연대가 상륙을 실시하였다. 기만작전 일환으로 실시된 이 작전은 별 성과 없이 10월 16일 종료되었다.<sup>104)</sup> 이와 같이 미 해군은 1952년 1년간의 해상작전 과정에서 42척의 함정이 적의 해안포격에 피해를 입었고, 예인함 1척이 흥남에서 기뢰폭발로 침몰하는 등 다수의 함정이 기뢰피해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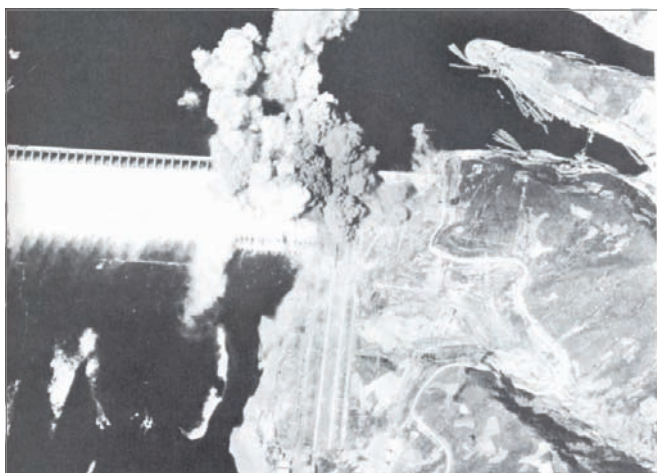
#### 4) 1953년의 작전 상황

1953년 공산군의 해안포격이 현저히 증가하여 미 순양함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호와 브레머튼(Bremerton)호 등 5척의 구축함이 피격

103)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33쪽.

104)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444.

되고 전·사상자도 10여 명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공산군이 고지쟁탈전을 방불케 하는 전초진지 공격을 감행하자 미 제8군사령관은 극동해군에 함대 및 함재기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제7함대사령관이 6월 6일 제77 및 제95기동부대에 전선지원을 명령하자 유엔해군의 모든 항공모함과 포함이 동해안 전선 부근 해역에 집결하였다.



미 함재기의 수플발전소 폭격장면

미 함대는 6월 14일과 15일 한국군이 실시하고 있는 351고지탈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함 뉴저지(New Jersey)호와 순양함 세인트 폴(Saint Paul)호의 호위 하에 4척의 항공모를 동원하여 포격을 실시하였다. 함포사격으로 공산군은 참호 44개소가 완파되고 20개소가 대파되었으며, 2개소의 동굴진지가 폐쇄되었다. 또한 교통호 600m와 13개소의 포진지가 완파되었다.<sup>105)</sup>

유엔해군 봉쇄작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공산군은 휴전이 임박해지자

105)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35쪽.

해안포의 포격횟수를 증가시켰다. 이에 미 해군은 5월 5일 호도반도에 대한 포격으로 적의 포대와 탄약고, 동굴진지를 파괴하였고, 7월 11일과 12일에도 164회에 걸친 포격으로 호도반도의 적 포진지를 무력화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미 해군은 원산항 부근 각 도서에 배치된 경비 병력의 철수를 개시한데 이어 장비의 철수와 시설을 파괴하였다. 이들을 엄호한 순양함 브레머튼호와 구축함 커닝햄(Cunningham)호가 8월 1일 오후 원산해역을 빠져 나옴에 따라 해상작전은 종료되었다.

#### 라. 미 공군의 주요 활동

##### 1) 1950년의 작전 상황

6·25전쟁 발발 이전 미 극동공군은 총 1,172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전투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이 가능한 항공기는 350대에 불과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극동공군은 미국인 철수지원을 위해 이다쁘게 기지의 미 제8전폭비행단에 공중 및 해상수송 작전을 엄호하도록 지시하였다.<sup>106)</sup> 6월 26일 정오경 북한 야크전투기 5대가 김포공항을 기습하자, 수송 작전을 엄호하던 극동공군의 F-82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그중 3대를 격추시켰다. 이 첫 번째 교전은 전쟁초기부터 적의 제공권 장악을 거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sup>107)</sup>

이후 극동공군은 미국의 결의에 따라 27일부터 남진한 북한군을 공격한데 이어 29일부터는 작전지역을 북쪽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날 이다쁘게 기지에 전방사령부를 설치한 미 제5공군은 기지의 위치상 근접지원시간이 15~20분에 불과하자 이를 해결하기

10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 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s Air Force, 1983), p.8.

10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71쪽.

위해 대구와 포항, 수영기지의 보수와 확장을 서둘렀다.<sup>108)</sup>

미 제5공군은 7월 7일부터 3일에 걸쳐 평택-서울 도로상에서 북한군 전차 44대와 차량 197대를 파괴하였고, 10일에도 평택 부근에서 북한군 차량 117대와 전차 38대, 자주포 7문 등을 파괴하고 다수의 병력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미 제5공군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맥아더 사령관은 근접지원에 주력하도록 극동공군에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5공군은 근접항공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일일평균 400회를 출격하는 등 7월말까지 8,600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sup>109)</sup>

8월 초 낙동강을 중심으로 방어선이 형성되면서 북한군이 왜관지역에 병력을 집중시켜 대구 정면에 위기가 고조되었다. 전략폭격사령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8월 16일 정오경 B-29폭격기 98대를 동원하여 왜관 서북쪽 약목 일대에 960톤의 폭탄을 투하하는 융단폭격을 실시하였다.<sup>110)</sup> 이어 9월초 제5공군은 진주-마산 축선에서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여 미 제25사단의 낙동강선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에 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은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이 사단을 구하였다.”고 제5공군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sup>111)</sup>

유엔군이 반격으로 전환하면서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자 극동공군은 근접항공지원과 항공수송을 담당하였다. 9월 11일 극동공군은 개전 이래 최대인 683회 출격으로 낙동강전선의 미 제8군을 근접항공지원하고, 서울-원산과 서울-평양간 철도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미 제5공군은 9월 25일까지 제8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에서 약 6,500명의 적을 사살하였다. 1950년 10월초 유엔군 북진에 맞춰 제5공군은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을

10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109.

109)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38쪽.

11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139.

111)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38쪽.

실시하였고, 전투수송사령부는 182대 수송기를 동원하여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숙천-순천 공수투하작전을 지원하였다.

〈상황도 3-4〉 MIG-15기의 작전지역



그러나 10월 하순 중공군 참전으로 미 공군의 항공작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압록강변을 비행하던 유엔기가 적의 대공포 공격을 받았고, 적기의 기습공격을 받아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 11월과 12월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의 일명 ‘미그회랑’에서는 북한지역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중전이 전개되었다.<sup>112)</sup> 11월 8일 미 제51전투요격비행단 소속 F-81기가 신의주로 출격 중 미그 15기와 첫 공중전을 벌여 미그기 1대를 격추하

112) Dept. of the Air Force,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 - 30 June 1952*(Historical Division Air University, 1953), p.28.

고 1대에 피해를 주었다.

미 제5공군은 12월초 F-81기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미그 15기를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기종인 F-84E기와 F-86A기로 기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12월 17일 F-86A기는 미그 15기와의 공중전에서 4대를 격추시키며 우수성을 입증하였다.<sup>113)</sup>

## 2) 1951년의 작전 상황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미 제5공군은 일부만 진해와 수원기지에 잔류시키고 주력은 일본으로 철수시켜 항공작전에 어려움을 겪었다.<sup>114)</sup> 이런 상황에서 1월 23일 미 공군의 F-84E기 33대는 미그 15기 25대와 개전 이래 최대 공중전을 펼쳐 3대를 격추시키고 3대에 피해를 주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2월 24일 제314공수비행단은 미 제24사단과 제1기병사단에 66대분의 보급품을 공수 투하하였고, 3월 23일에는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문산 지역 공수투하작전을 지원하였다.

한편 미 제5공군은 제4전투요격비행단의 일부와 2개 요격비행대대를 대구와 수원기지에 전진 배치하였다. 이로써 미그회랑에서 적기의 기세는 둔화되었고, 제5공군이 제공권을 다시 장악하였다. 공산군은 춘계공세에서 항공기를 적극 운용한다는 방침 아래 북한 내 비행장 복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폭격사령부는 북한 비행장을 공격목표로 1일 평균 12대의 폭격기를 동원하여 폭격하였다.

중공군의 춘계공세가 시작되자 제5공군은 주야간 공지합동작전을 실시하여 4월과 5월에 적기 26대, 각종 포387문, 교량 25개소, 전차 32대, 기관차

113)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40쪽.

114) Dept. of the Air Force,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 - 30 June 1952*, p.49.



54량, 화차 1,194량, 차량 3,581대를 파괴하고 21,50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특히 제5공군은 7월말까지 지속된 제1차 스트랭글(Strangle) 작전을 통해 평양 일대 군사목표를 폭격하여 휴전회담의 진전을 촉구하였다.<sup>115)</sup>

전선이 교착되고 휴전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극동공군은 가용한 모든 항공기를 동원하여 8월 18일부터 3개월에 걸쳐 제2차 스트랭글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은 북한 내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며 공산군은 대공화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유엔군 폭격에 대응하였고, 이로 인해 유엔기의 피해가 속출하자 극동공군은 적의 대공포 파괴에 주력하였다.<sup>116)</sup>

### 3) 1952년의 작전 상황

1952년에도 극동공군의 후방차단작전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복구능력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미 제5공군은 일정 지점의 특정 철로를 집중적으로 폭격하는 새츄레이트(Saturate) 작전을 3월 3일부터 단행하였다. 이때 전폭기들은 북한 내 주요 철도를 목표로 1일 평균 300회 출격에 600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와 같이 1951년 8월 18일부터 1952년 6월 30일까지 지속된 철도차단작전에서 극동공군은 87,552회를 출격하여 19,000개소의 철도차단과 34,211대의 차량, 276량의 기관차, 3,820량의 화물차를 폭격하였다.<sup>1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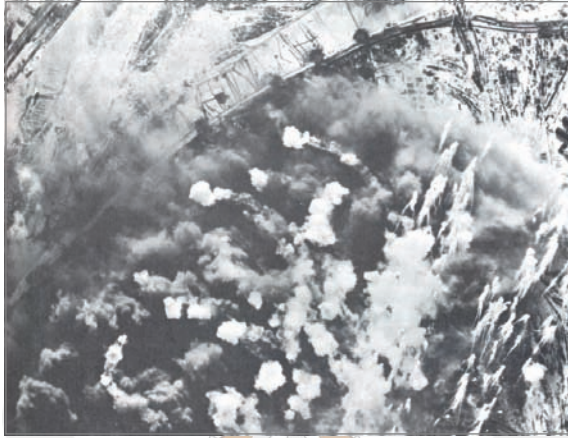
후반기에 접어들어 극동공군은 북한 내 군사전략목표를 폭격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공산군을 휴전협상에 응하게 하기 위해 항공압박(Air

115)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738쪽.

116)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43쪽.

117) Dept. of the Air Force,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 - 30 June 1952*, p.158.

Pressure)작전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제5공군은 6월 23일 500대 이상의 항공기로 수풍 등 북한 발전소를 공격하였고, 7월과 8월에는 평양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실시하였다.<sup>118)</sup>



미 B-29폭격기의 평양폭격 장면

수세에 몰렸던 공산군은 8월부터 공중전을 도모하였고, 9월 4일 청천강 상공에서 개전 이래 가장 치열한 공중전이 전개되었다. 미 공군의 F-86기 39대는 미그기 73대와 17회의 공중전을 펼쳐 미그기 13대를 격추시켰고, 9일에는 적 군관학교를 공격하던 중 미그기 175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처럼 9월에 전개된 공중전에서 미 공군은 F-86기 6대와 F-84기 3대를 잃은 반면 미그 15기 63대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렸다.<sup>119)</sup> 이밖에도 미 제5공군은 지상군의 쇼다운(Showdown)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2,217회에 걸쳐 미 제7사단과 한국군 제2사단에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다.

118) Dept. of the Air Force,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July 1952 - 27 July 1953*, p.98.

119)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748쪽.

#### 4) 1953년의 작전 상황

극동공군은 휴전 초기 실현을 위한 압박 작전의 일환으로 수풍발전소 폭격을 결정하였다. 미 제5공군은 2월 15일 저녁에 34대의 F-86기를 동원하여 수풍발전소를 폭격, 발전 체제를 완전 파괴하였다. 이어 제5공군은 평원선 이남의 적 병참선을 집중적으로 폭격하여 71개소 교량을 파괴하고 94개소 도로를 차단하였다.

극동공군은 공산군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주요 저수지를 폭격하기로 결정하고 5월 15일과 16일 자산저수지를 폭격한데 이어 권가와 구성저수지 등을 폭격하였다. 이러한 폭격은 저수지 물의 범람으로 병참선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이후 적이 다른 저수지의 물을 먼저 방류하여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sup>120)</sup>

공산군은 정전협정의 체결이 임박해오자 보다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를 단행하였고, 5월부터 개시된 공세는 7월말까지 이어졌다. 이에 미 공군은 적의 최종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가용 전력의 43%를 근접항공지원에 할당하는 한편 북한공군의 재건을 저지하기 위해 평양, 신안주 등 북한 내 비행장을 집중적으로 폭격하였다.

미 공군 항공작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되었으며, 전쟁기간 중 후방차단과 근접항공지원, 전략폭격, 항공수송 및 항공정찰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하였다.

#### 마. 참전의 결과와 의의

1950년 7월 1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최초로 한국전선에 투입된 이래

120) Dept. of the Air Force,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July 1952 - 27 July 1953*, p.130.

미국의 병력 파견은 점점 증가되어 1년이 경과한 1951년 6월 30일에는 253,250명을 기록하였다. 1952년 6월 30일에는 12,000명이 늘어나 265,864명에 달하였고, 휴전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에는 302,483명을 기록하였다.<sup>121)</sup> 이처럼 미국은 6·25전쟁기간 중 연인원 1,789,000명이 참전하였으며, 이들 중 33,686명이 전사하고 92,13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8,176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는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sup>122)</sup>

〈표 3-6〉 미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 병	계
사망(a+b+c+d)	27,728	492	1,198	4,268	33,686
전사(a)	19,754	364	198	3,321	23,637
부상 중 사망(b)	1,904	28	16	536	2,484
실종 중 사망(c)	3,317	97	960	385	4,759
포로	사망(d)	2,753	3	24	2,806
	귀환	...	...	...	4,418
	거부	...	...	...	21
	소계	5,356	286	926	677
비전투손실 (Non-battle Deaths)	...	...	...	...	2,830
부상자	...	...	...	...	92,134

미군의 참전은 전쟁 발발 6일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미군은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최근거리에 주둔하고 있던 미 극동군 예하의 주일 미군을 파병한 후 단계적으로 미 본토 및 해외기지의 육·해·공군을 투입하여 한국을 지원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야기된 한반도 전쟁 상황을 유엔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쟁지도부의 신속한 참전결정과 대규모

121)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122)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286쪽.

파병으로 개전 초기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출하였다.<sup>123)</sup>



1991년 6월 25일 뉴욕 맨해튼 배터리파크 내에  
건립된 뉴욕 한국전 참전비

전쟁 수행과정에서 미군은 유엔군이 수행한 역할의 대부분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전쟁을 운용하였다. 전체 유엔군 중 미 지상군 비율이 50.3%이고, 해군과 공군 비율은 각각 85.9%와 93.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sup>124)</sup> 결과적으로 미국은 참전을 결정하면서 설정한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란 목표를 달성하였고, ‘국제평화의 유지와 안전’이라는 유엔의 목적과 목표에 기여하였다.

1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114쪽.

124) James I.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N. Y.,: Greenwood Press, 1991), pp.507-508.

## 2. 캐나다(Canada)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캐나다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1950년 6월 북한군의 대한민국 침공 소식을 접한 캐나다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당시 캐나다는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이 북한군의 남침을 응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sup>125)</sup> 6월 30일 의회는 “집단안보의 효율성을 과시하기 위한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적극 지지한다.”라며 한국에 대한 파병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에 로랭(Louis St. Laurent) 수상은 “유엔결의의 이행에 참여하는 것은 평화회복을 위한 유엔의 집단안보활동 중의 일부를 담당하기 위함이다.”라는 연설로 파병 의의를 설명하였다.<sup>126)</sup>

그러나 파병에 따른 여러 문제점으로 파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캐나다 정부는 먼저 해군과 공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캐나다 육군이 평화시 병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데 반해 해군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파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해방어에도 부담이 덜한 상황이었다.<sup>127)</sup> 이런 결정에 따라 캐나다 해군은 유럽순방을 준비하고 있던 구축함 중 3척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1950년 7월 5일 밴쿠버섬의 해군기지를 출항한 아다바스칸(Athabaskan)

125) Lt. Col., *Herbert Fairlie Wood, Strange Battleground : The Operations in Korea and Their Effects on the Defence Policy of Canada*(Ottawa: Queen's Printer and Controller of Stationery, 1966). p.12.

126) Directorate of History and Heritage(DHH),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and the Korean War*(Ottawa: Art Global, 2002), pp.14-15.

127) Thor Thorgrimsson & E. C. Russell, *Canadian Naval Operations in Korean Waters 1950-1955*(Ottawa: The Naval Historical Section, Canadian Forces Headquarters,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1965), p.3.

호와 캐유가(Cayuga)호 그리고 시옥스(Sioux)호는 태평양을 건너 7월 30일 한국해역에 진입하여 미 극동해군사령부에 배속되었다. 캐나다 해군은 이날부터 1955년 9월 본국으로 귀향할 때까지 8척의 구축함이 미 병력수송선 엄호를 시작으로 해상초계, 해상봉쇄, 해안포격, 상륙작전지원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sup>128)</sup>

캐나다 영공의 방어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캐나다 공군은 함정 파견에 이은 항공수송대를 파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 7월 21일 공군 당국은 제426항공수송대대를 미국 워싱턴의 맥코드(McChord) 공군기지로 보내 병력 및 보급물자를 일본으로 수송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공중전 경험이 있는 조종사 22명을 선발하여 미 공군에 파견하였다.<sup>129)</sup>

한편 해군과 공군을 차례로 파병한 캐나다는 7월 20일 미국으로부터 1개 여단규모의 파병을 요청받고 수차에 걸쳐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캐나다의 육군병력은 20,300명 수준에 보병도 3개 연대에 불과하였다. 그마저도 각 연대의 실 보유병력은 1개 대대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압력과 여론에 직면한 캐나다 정부는 8월 7일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고 다음날부터 한국에 파견할 가칭 ‘캐나다 육군특별부대’ 지원병을 모집하였다.<sup>130)</sup> 캐나다 육군은 이들 지원병들을 근간으로 하여 미국의 포트 루이스(Fort Lewis) 기지에서 11월 25일 로킹햄(J. M. Rockingham) 준장을 여단장으로 ‘캐나다 제25여단’<sup>131)</sup>을 창설하였다.<sup>132)</sup>

128) Thor Thorgrimsson & E. C. Russell, *Canadian Naval Operations in Korean Waters 1950-1955*, p.5;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50쪽.

129)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43쪽.

130) Lt. Col. Herbert Fairlie Wood, *Strange Battleground : The Operations in Korea and Their Effects on the Defence Policy of Canada*, pp.23-25.

131) 캐나다 육군당국은 제25여단의 주력인 3개 보병대대의 요원을 전투경험이 풍부한 퇴역장병 중에서 선발한 후 오랜 전통을 지닌 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The Royal Canadian Regiment, Royal 22 Regiment의 3개 연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대대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교육을 담당할 해당 연대의 제2대대로 명명한 후 제25여단에 배속시켰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53쪽.

132) Lt. Col. Herbert Fairlie Wood, *Strange Battleground : The Operations in Korea and Their Effects on the Defence Policy of Canada*, pp.32-33.

그러나 이 무렵 한국 전국은 급변의 시기였다.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이 평양을 탈취한 다음 한·중국경까지 진격하면서 조기에 전쟁이 종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파병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 기존의 1개 여단 중 1개 대대만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결정에 따라 제1차 파견부대로 지정된 제25여단 PPCLI(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연대의 제2대대는 11월 25일 시애틀(Seattle)항을 출발하여 12월 18일 부산에 상륙하였다.<sup>133)</sup>



1983년 12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에 건립된  
캐나다 전투기념비

제2대대는 12월 27일 숙영 및 훈련지인 밀양으로 이동하여 현지적응 및 훈련에 주력하고 밀양-부산간 중간지점인 토곡산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약 40일 간의 훈련을 마친 제2대대는 1951년 2월 9일 미 제9군단 산하의 영국군 제27여단에 배속된 후 2월 17일 본대에 합류하였다.<sup>134)</sup>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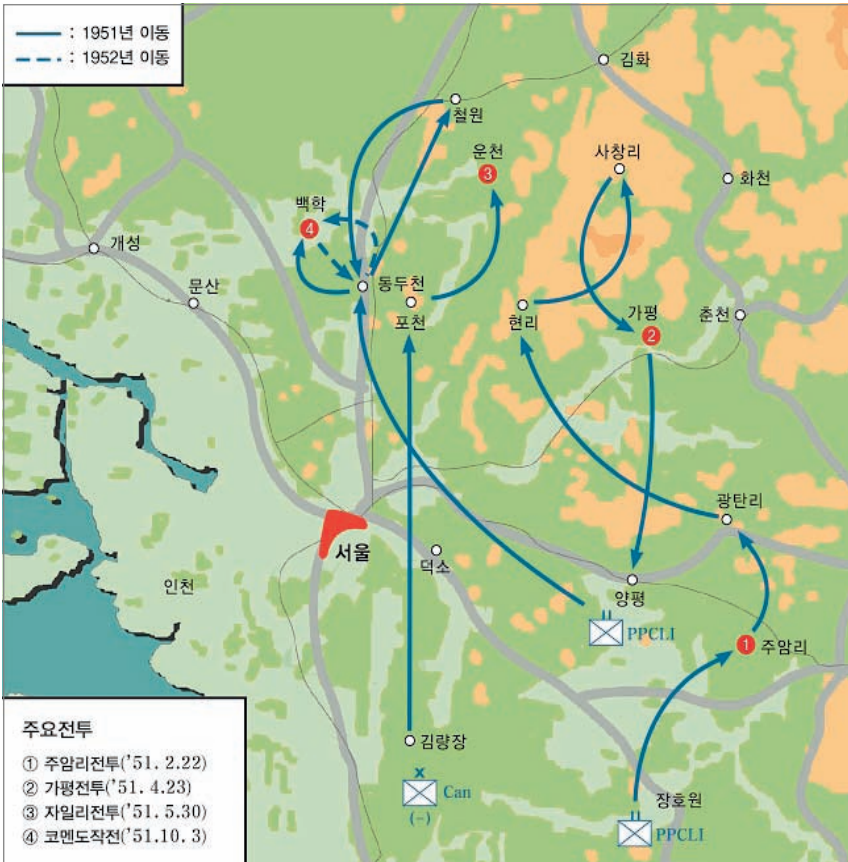
133) DHH,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and the Korean War*, p.46.

134) Lt. Col. Herbert Fairlie Wood, *Strange Battleground : The Operations in Korea and Their Effects on the Defence Policy of Canada*, pp.60-61



연방 제27여단에 합류한 캐나다군은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된 유엔군 북진작전에 참가해 알바니(Albany)-벤튼(Benton)-캔사스(Kansas)선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어 캐나다군은 4월에 가평전투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캐나다군은 한반도 중앙부를 돌파하기 위해 총공세를 실시한 중공군을 백병전으로 물리치고 가평을 사수해 중공군의 4월 공세를 저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상황도 3-5〉 캐나다군 주요 전투



1951년 5월 6일 캐나다 제25여단의 본대가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7월 28일 영연방 제1사단이 창설되자 영연방 제28 및 제29여단과 더불어 사단의 주축 부대로 활동하였다.<sup>135)</sup> 전쟁기간 중 캐나다 지상군은 여러 차례 전투와 작전에 참가하였는데, 대표적인 전투로는 자일리 전투, 코만도 작전(Operation Commando), 고왕산 전투, 나부리 전투 등이 있다.<sup>136)</sup>

이 기간 중 캐나다 지상군을 이끌었던 주요 지휘관은 제25보병여단장 로킹햄(J. M. Rockingham) 준장을 비롯하여 그 후임인 보거트(M. P. Bogert) 준장과 알라드(J. V. Allard) 준장 그리고 클리프트(F. A. Clift) 준장이 있다. 또한 PPCLI 제2대대장을 비롯한 각 대대장은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캐나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 대 명	지휘관			
	계급	성명	참전기간	
제25보병여단	준장	J.M Rockingham	1951.5.~1952.4.	
	준장	M.P. Bogert	1952.4.~1953.4.	
	준장	J.V. Allard	1953.4.~1954.6.	
	준장	F.A. Clift	1954.6.~1954.12.	
파트리카공주 캐나다 경보병연대 (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PPCLI)	제2대대	중령	J.R. Stone	1950.12.~1951.11.
		중령	N.G. Wilson Smith	
	제1대대	중령	J.R. Cameron	1951.10.~1952.11.
		중령	G.C. Corbould	
		중령	H.F. Wood	
		중령	C.E.C. MacNeill	
제3대대	중령	M.F. MacLachlan	1952.10.~1953.10.	
	중령	R.A. Keane		
	중령	G.C. Corbould		
왕립 캐나다연대 (The Royal Canadian Regiment, RCR)	제2대대	중령	P.R. Bingham	1952.4.~1953.3.
		중령	K.L. Campbell	
	제3대대	중령	J.A. Dextraze	1951.5.~1952.4.
제2대대	중령	J.A.A.G. Vallée		
	제1대대	중령	L.F. Trudeau	1952.4.~1953.4.
제3대대		중령	H. Tellier	
	중령	J.L.G. Poulin	1953.4.~1954.4.	

135) Lt. Col. Herbert Fairlie Wood, *Strange Battleground : The Operations in Korea and Their Effects on the Defence Policy of Canada*, pp.117~118.

136)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253~273쪽.

한편 1950년 7월 30일부터 미 극동해군에 배속되어 작전활동을 전개한 캐나다 해군의 참전 함정 및 지휘관은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캐나다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구분	함정명	작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명
구축함 (8척)	Cayuga	1950.7.~1951.3.	대령	J.V. Brock
		1951.7.~1952.6.	중령	J. Plomer
		1954.1.~1954.11.	중령	W.P. Hayes
	Athabaskan	1950.7.~1951.5.	중령	R.P. Welland
		1951.9.~1952.6.	중령	D.G. King
		1954.11.~1953.11.	중령	J.C. Reed
	Sioux	1950.7.~1951.1.	중령	P.D. Taylor
		1951.4.~1952.2.	중령	P.D. Taylor
		1954.12.~1955.9.	중령	A.H. Rankin
	Crusader	1952.6.~1953.6.	중령	J.H.G. Bovey
		1953.11.~1954.8.	중령	W.H. Willson
	Haida	1952.11.~1953.6.	중령	Dunn Lantier
		1954.2.~1954.9.	대령	J.A. Charles
	Huron	1951.3.~1951.8.	중령	E.T.G Madgwick
		1953.6.~1954.2.	중령	R.C. Chenoweth
		1954.10.~1954.12.	중령	J.C. Pratt
	Iroquois	1952.6.~1952.11.	중령	W.M. Landymore
		1953.6.~1954.1.	대령	W.M. Landymore
		1954.8.~1954.12.	중령	M.F. Oliver
	Nootka	1951.1.~1951.7.	중령	A.B.F. Fraser-Harris
1952.2.~1952.11.		중령	R.M. Steele	

나. 캐나다 지상군의 주요 전투

1) 가평 전투(1951. 4. 23. ~ 4. 25.)

가평 전투는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 당시 사창리 지역 한국군 제6사단

전선으로 돌파한 중공군 제20군이 가평 방면으로 돌파구를 확대하자 뉴질랜드 포병연대의 지원 아래 영연방 제27여단 예하의 캐나다군 대대와 호주군 대대 그리고 영국군 미들섹스대대 등 3개 대대가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가평천 일대에 저지진지를 편성하여 중공군의 침공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1951년 4월 19일 군단예비가 된 영연방 제27여단은 한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전선에 남은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 이외 각 대대를 가평에 설치된 CP 부근 개활지에 배치하였다. 이 무렵 전황은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과 제10군단이 춘천과 가평으로 진출하여 중공군 제39군 및 제40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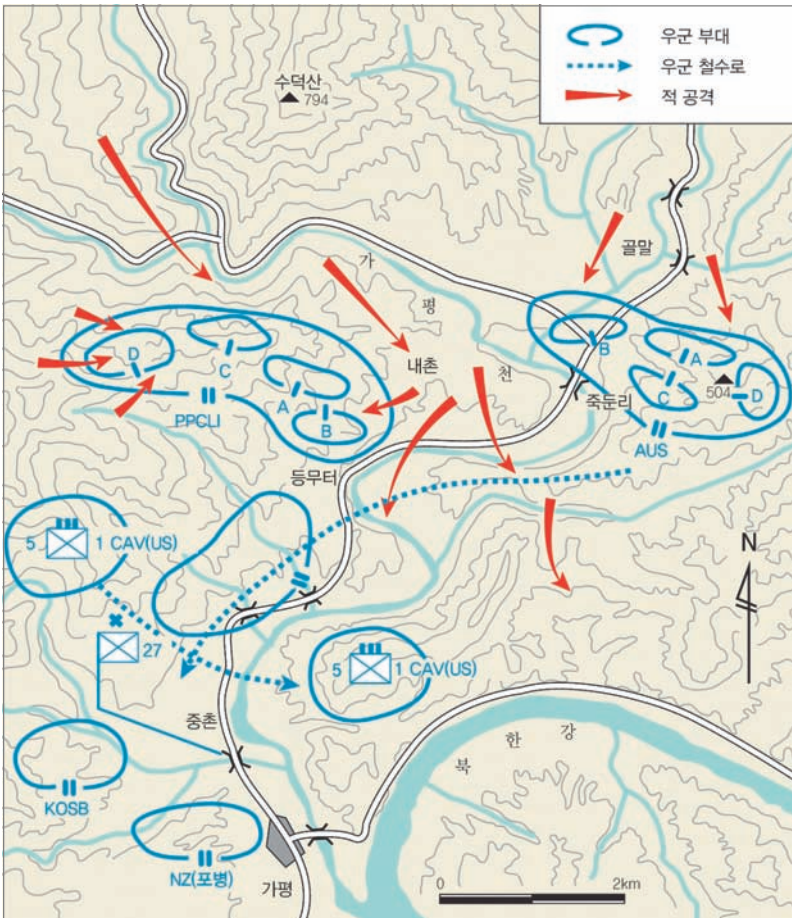
유엔군의 반격이 개시된 이래 북으로 퇴각을 거듭하던 공산군은 4월로 접어들자 북한군 제3군단과 중공군 제39, 제40, 제64군 등 새로운 부대를 전선에 투입하여 대규모 공세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 기도가 점점 노골화됨에 따라 미 제8군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중서부의 현 전선을 방어에 보다 유리한 와이오밍선까지 진출시켜 적의 기도를 분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사창리 서쪽에서 영연방 제27여단의 전선을 인계한 한국군 제6사단은 4월 21일 와이오밍선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공격이 개시되자 전황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적의 저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력해졌고, 급기야 4월 23일 새벽에는 중공군 제40군 예하의 제118사단이 사창리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sup>137)</sup> 이에 사단은 사창리 전방에서 적을 분쇄하기 위해 공격을 시도하

137) 중공군 제40군은 김화 동남지구에 위치하여 한국군 제6사단을 섬멸하여 돌파구를 마련한 후 유엔군의 동부와 서부전선의 연결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118사단과 제120사단을 사창리, 지암리 일대에 투입하였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규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478, 481쪽.

였으나, 중과부적으로 가평까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날 정오 무렵 전열에서 이탈한 한국군 제6사단의 일부 병력이 가평천 계곡을 따라 여단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하였다. 아울러 한국군을 지원하던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도 여단 지역으로 철수하고 있었다.

〈상황도 3-6〉 PPCLI 제2대대의 가평 전투



이처럼 전황이 급변하고 있을 무렵 영연방 제27여단장 버크(Burke) 준장은 “뉴질랜드 포병연대를 즉시 되돌려 한국군 제6사단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예하의 각 대대를 전방에 전개시켜 한국군 제6사단의 철수로를 확보하고 철수를 엄호하라”는 군단의 명령을 받았다.<sup>138)</sup> 여단장은 뉴질랜드 포병대를 가평 북쪽 10km의 794고지(수덕산) 부근으로 급파하면서 영국 미들섹스대대를 794고지로 이동시켜 뉴질랜드 포병대를 엄호토록 조치하였다.

이어 미 제72전차대대 A중대가 배속된 호주군 대대를 가평 북쪽 6km의 504고지(죽둔리 동쪽)에, 캐나다 PPCLI대대를 그 좌측의 가평천 건너 맞은편 677고지(내촌 2km 남쪽)에, 그리고 새로 도착하여 영국 아길(A&SH)대대와 교대를 끝낸 KOSB(King's Own Scottish Borders)대대를 가평 서쪽에 예비대로 배치하였다.

그럼에도 전방의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여단장은 794고지 일대에 배치한 영국 미들섹스대대와 뉴질랜드 포병대를 여단 지역으로 철수시킨 후 미들섹스대대를 등무터와 상마장리 중간지점에 배치하여 전방 일선대대의 간격으로 침투하는 적을 저지토록 하였다. 또한 뉴질랜드 포병대를 그 후방 중천 부근에 배치하여 여단 모두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sup>139)</sup>

이에 따라 여단의 전방은 우측의 호주대대가 죽둔리에서 동북으로 뻗은 골짜기 일대를, 좌측의 캐나다대대가 산세가 험한 677고지 일대에서 동서로 흐르는 3km에 달하는 가평천 골짜기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방어지역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형이었으므로, 이들은 고지를 점령하는 즉시 급히 호를 구축하고 화기를 배치하면서 방어준비에 착수하였다.

4월 23일 22시경 여단 전방의 우측전선을 방어하고 있던 호주대대 정면에 중공군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한국군 제6사단의 방어선

138)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p.141.

139)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63-264쪽.

을 돌파한 중공군 제118사단 제354연대 제3대대로 호주군의 방어진지를 탐색한 후 자정을 넘어 01시경 공격을 개시하였다.<sup>140)</sup> 호주군은 중공군이 유효사거리 내로 들어오자 모든 화기를 집중하여 격퇴시켰으나 호주군을 지원하던 미 제72전차대대의 1개 소대가 오판으로 후방으로 철수하여 전차 위협에서 벗어난 중공군은 신속하게 호주대대 진지로 들어닥쳤다. 호주대대장병들은 결사적인 저항으로 적을 격퇴하였으나, 심야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인해 피아간의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캐나다 PPCLI 제2대대 참전기념 비석

사단 제5연대를 배속받아 곧바로 가평으로 급파하였다.<sup>142)</sup> 18시경 제5연대가 여단에 도착하자 여단장은 이들 병력을 양분하여 여단 좌일선의 캐나다대대 후방과 영국 미들섹스대대 후방에 각각 배치하여 예상되는 적정에 대비하였다.

중공군은 가평에 이르는 도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하고 끊임없는 공격으로 대대를 위협하였다. 전황을 인식한 여단장 버크 준장은 4월 24일 17시를 기해 호주대대에게 철수를 명령하였고,<sup>141)</sup> 호주대대장 퍼거슨(I. B. Ferguson) 중령은 명령에 따라 중대별로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때 영연방 제27여단의 전황보고를 검토한 군단은 예비대인 제1기병

14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481-482쪽.

141)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p.147.

142)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p.149.

한편 가평천 건너 좌일선 캐나다대대 진지는 격전을 전개하고 있는 호주 대대와는 달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캐나다 PPCLI대대장 스톤(I. R. Stone) 중령은 전날 677고지 정면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대대를 우측으로부터 A중대와 C중대 그리고 D중대 순으로 배치하면서 B중대를 전초격으로 D중대 전면의 돌출부에 배치하였다. 또한 4월 24일 04시에는 대대 CP까지 내촌 우측의 산능선 뒤편으로 옮겨 만반에 준비를 갖추었다.<sup>143)</sup>

이런 가운데 4월 24일 07시경 1개 분대규모의 중공군이 대대 후방으로 침투하여 탐색활동을 벌이는 것이 탐지되었다. 대대장은 이들을 격퇴시킨 후 돌출부에 배치한 B중대를 대대 CP 바로 오른쪽 숲이 우거진 산언덕에 재배치하였다. 이곳은 반월형의 가평천 연변개활지에 대한 감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중공군이 이곳을 통해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날 저녁 중공군 제118사단 제354연대는 공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어둠이 깔린 20시경 적의 박격포탄이 대대진지에 집중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2정의 기관총이 대대진지를 향해 불을 뿜었다. 또 다른 기관총 1정이 B중대 진지에 공격신호인 예광탄을 집중하였다. 15분이 경과할 무렵 증강된 중대규모 중공군이 중대 정면의 제6소대 진지로 접근하며 공격을 가해왔다. 이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던 B중대원들은 기관총을 비롯한 소화기 사격을 집중하는 한편 대대의 박격포 사격으로 격퇴하였다.<sup>144)</sup>

그러나 중공군은 23시경에 또 다시 박격포 포격을 집중하면서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여 B중대 진지를 공격해왔다. 증강된 병력과 기관총 및 박격포 지원을 동반한 중공군의 두 번째 공격은 예상보다 강력하였다. 어둠 속에서 이에 맞선 B중대는 중공군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악전고투하였으나, 최전면의 제6소대 진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제6소대원들은 소

143)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anuary 1951*, pp.406–407.

144) DHH,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and the Korean War*, p.74.



대장의 지시에 따라 재빨리 B중대 주진지로 철수하여 재편성을 실시한 후 곧바로 역습을 감행하여 치열한 백병전으로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군은 B중대 진지에 집요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 주력을 B중대 후방으로 우회시켜 일부 병력으로 대대본부와 박격포진지를 기습하였다. 또한 일부 병력은 가평천 좌안을 따라 B중대 후방 2km지점에 위치한 영국 미들섹스대대를 돌파하여 가평으로의 남하를 시도하였다.

이를 간파한 대대장 스톤 중령은 즉각 B중대장에게 진지를 고수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대대의 81mm 박격포와 50mm 기관총반에게 대대지역으로 침투중인 중공군을 집중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sup>145)</sup> 이에 따라 대대의 중화기가 개활지의 적에게 집중되자 적은 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물러나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한 결과 51구의 적 시체가 목격되었다.

기동이 용이한 가평천 골짜기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가평으로 진격하려던 기도가 실패한 중공군은 4월 25일 새벽을 기해 산세가 험한 667고지의 D중대 진지를 공격하며 전면포위를 시도하였다.<sup>146)</sup> 적은 D중대의 최좌단인 제10소대와 제12소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어 D중대의 주진지로 공격을 전환하였다. 날이 밝으며 박격포와 기관총 지원 아래 공격을 재개한 중공군은 수적으로 열세한 제10소대와 제12소대 진지를 빼앗은 후 그 여세를 몰아 D중대의 주진지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D중대장 밀스(J. G. W. Mills) 대위가 요청한 여단의 VT탄이 집중되자 중공군은 북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sup>147)</sup> 이후에도 중공군은 2차에 걸친 공격을 가해왔으나 번번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물러났으며, 4월 25일 이후로는 공격을 체념한 듯 별다른 공격징후를 보이지 않

145)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67쪽.

146) DHH,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and the Korean War*, p.75.

147)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p.149.

았다. 여단 전역이 점차로 평온을 회복하자 여단장은 미 제5기병연대의 일부 병력을 호주대대가 배치되었던 우일선의 진지로 이동시켜 보강하면서 예하 대대의 전열을 정비토록 조치하였다.

3일간의 격렬한 전투는 결국 영연방 제27여단의 승리로 일단락되었으며, 이 전투는 6·25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엔군부대에게 가장 모범적인 전투의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승리에 기여한 캐나다 PPCLI대대와 호주대대에게 대통령부대표장을 수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여단의 좌일선 방어를 담당한 캐나다대대는 10명이 전사하고 23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sup>148)</sup>

## 2) 자일리 전투(1951. 5. 30.)

가평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캐나다의 PPCLI대대가 1951년 5월 1일 덕소리 부근에서 영연방 제28여단 통제 하에 차기 작전을 준비하던 중 캐나다 제25보병여단의 주력이 전선에 투입되어 캐나다 지상군은 별도의 전투 여단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0년 11월 25일 PPCLI대대를 먼저 파견한 캐나다정부는 중공군의 침략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1951년 2월 21일 여단주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sup>149)</sup> 따라서 제25여단은 계획된 훈련을 마무리하고 4월 19일부터 3일에 걸쳐 마린 애더(Marine Adder)호를 비롯한 3척의 미 선박편으로 시애틀항을 출발하여 5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로킹햄(J. M. Rockingham) 준장이 지휘하는 제25보병여단의 주요 부대는 Royal Canadian Regiment 제2대대, Royal 22eR Regiment 제2대대, Lord Strathcona's Horse C중대, Royal Canadian Horse

148) DHH,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and the Korean War*, p.76.

149) Lt. Col. Herbert F. Wood, *Strange Battleground*, p.89.

Artillery 제2연대, Royal Canadian Engineers 제57중대였다. 이들 부대는 부산에 도착 즉시 수영 부근 수용소로 이동하여 각종 차량 및 장비 등의 수령과 점검을 실시하고 현지훈련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여단은 5월 15일 미 제8군으로부터 가급적 신속하게 미 제1군단 지역인 김량장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sup>150)</sup> 이에 따라 여단은 이날 밤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개시하였다. 이처럼 미 제8군이 캐나다여단을 급히 이동시킨 이유는 곧 실시예정인 유엔군의 반격작전에 참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을 서부전선에 배치한 것은 영국군 제29여단과 영연방 제28여단이 이 전선에 이미 배치되어 있어 향후 영연방군의 통합사단 창설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캐나다여단이 이동을 개시한 다음날인 5월 16일에 중공군은 제2차 춘계공세를 단행하여 전선의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미 제8군은 군 예비로 서울지구에 주둔하던 미 제3사단을 비롯한 소규모부대를 급거 전용하는 등 위기에 대처하였다. 캐나다여단은 5월 18일 목적지인 김량장에 진출할 무렵 제8군으로부터 작전명령을 받고 서울 동남쪽 한강변 일대에 집결하여 미 제1군단의 예비가 되었다.

이후 여단은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의 복진작전이 단행되면서 5월 24일 토페카(Topeka)선으로 진격중인 터키여단과 교대하라는 군단의 작전명령을 받고 포천 부근 비석거리에서 임무를 교대하였다. 이로써 여단은 미 제1군단의 우익사단으로 포천-영평-운천선으로 진격중인 미 제25사단과 함께 5월 25일 09시 30분 진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공격 정면에는 중공군 제15군이 있었다.<sup>151)</sup>

150) Lt. Col. Herbert F. Wood, *Strange Battleground*, p.94.

151) 제2차 춘계공세 당시 중공군 제15군은 제29, 제44, 제45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40쪽.

한편 여단장 로킹험 준장은 이 최초의 진격작전을 ‘Initiate’라 칭하는 한편 Royal Canadian Regiment(RCR) 제2대대와 Royal 22e Regiment(R22eR) 제2대대를 선두공격부대로 하여 진격토록 하고 본부대와 여단에 배속된 필리핀 제10대대는 기동이 용이한 포천 골짜기를 따라 북진토록 지시하였다. 북진에 나선 여단의 선두공격부대는 진격 도중 경미한 중공군의 저항을 격퇴하고 5월 28일에 캔사스선을 통과하여 38도선 상의 작은 고지를 점령하였다.<sup>152)</sup>

5월 29일 ‘Followup’ 작전에 따라 R22eR대대를 우일선으로, 그리고 필리핀 제10대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진격을 계속한 여단은 별다른 저항 없이 운천 인근까지 진출하였으나, 운천 동북쪽의 467고지(각흘봉)에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격이 중단되었다. 여단장은 R22eR대대 전진을 위해서는 부대의 기동을 관측할 수 있는 467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예비대인 RCR대대장 킨(R. A. Keane) 중령에게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sup>153)</sup>

이에 킨 중령은 A중대와 B중대 그리고 C중대를 운천-자일리(自逸里) 간의 도로에서 각흘봉 좌측으로 우회시켜 자일리로 향하게 하고, D중대는 각흘봉을 직접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 5월 30일 10시에 각 중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도내지고개의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A중대는 도로를 따라 곧장 자일리로, 그리고 B중대와 C중대는 A중대의 좌우 양쪽을 엄호하기 위해 중간목표인 162고지와 269고지로 진출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1시간 후에 목표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D중대가 험한 산등선을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중공군의 강력한 자동화기사격에 직면하여 처음부터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공군의 저항은

152) 캐나다여단의 진격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된 배경은 중공군이 제1차 및 제2차 춘계공세에서 그들의 기도가 완전히 좌절되자, 유엔군의 반격을 훨씬 앞질러 38도선 이북으로 퇴각한 것과 미 제25사단의 전차부대로 편성된 ‘돌빈(Dolvin)특별부대’가 선두에서 정진한 데 있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72쪽.

153) Lt. Col. Herbert F. Wood, *Strange Battleground*, p.100.

시간이 경과할수록 강력해졌고, 11시 30분경에는 D중대 정면뿐만 아니라 전 대대로 확대되었다.



캐나다 PPCLI 제2대대 정찰대의 모습

이 무렵 이미 자일리까지 진출한 A중대는 자일리 북쪽으로부터 급거 증원된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치열한 기관총과 박격포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화포와 전차까지 동원한 중공군은 A중대장 매들랜즈(R. D. Medlands) 소령의 요청에 따른 여단의 강력한 집중포격에도 불구하고 A중대의 좌측으로 우회하여 압박을 계속하였다.<sup>154)</sup> 그리고 잠시 후에는 A중대 우측에서도 적이 나타나 중대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좌우로부터 압박하는 중공군의 포위망 속에서 대혼란에 빠진 A중대는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전투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A중대 우측의 269고지를 무난히 점령한 C중대는 한 무리의 중공군이 자일리 저수지 동쪽에서 주공격목표인 각흘봉으로 쇄도하는 것을 목

154)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74쪽.

격하였다. 이에 C중대의 제7소대와 제8소대는 모든 화기를 집중하여 이들에게 강력한 사격을 가했으나, 사거리가 멀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A중대 좌측의 162고지를 점령한 B중대 역시 A중대 상황을 거리와 시계의 제한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 각흘봉을 공격중인 D중대는 선두공격대인 제11소대가 중공군의 기관총사격을 피해 공격방향을 목표정면에서 좌측방으로 전환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공격이 진행되었고, 12시 30분경에는 각흘봉의 서단 봉우리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중대는 300m 동쪽 주봉으로 연결된 중간 골짜기로 진출한 다음 주봉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정상에 위치한 중공군의 기관총이 큰 위협이 되었으므로 제11소대장은 이를 파괴하기 위해 박격포 사격을 2차례나 요청하여 공격하였으나, 결국 제압에 실패하였다.

이처럼 중대 공격이 여의치 않은데다 자일리의 A중대마저 중공군에게 포위되는 등 위협이 커져가자 여단장 로킹험 준장은 모든 공격중대 공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였다.<sup>155)</sup> 이때 여단은 좌우 인접부대 진격속도보다 훨씬 앞서 진격하였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무리한 공격을 감행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따라 14시 30분경 각 공격중대는 포병과 전차의 엄호사격을 받으며 철수를 개시하였다. 공격중대 중 B중대와 C중대, 그리고 D중대는 별 어려움 없이 철수할 수 있었으나, 완전포위 직전상태에 있던 A중대는 이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포함한 많은 장비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캐나다여단 PPCLI 제2대대는 한국에 도착한 이래 처음으로 경험한 이 전투에서 전사 6명과 부상 25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sup>156)</sup> 1951년 5월 30일 자일리 전투에서 물러선 여단은 다음날 미 제25사단의 배속 해제로 미 제3사단 작전지휘 하에 들어갔다.

155) Lt. Col. Herbert F. Wood, *Strange Battleground*, p.104.

156) Lt. Col. Herbert F. Wood, *Strange Battleground*, p.105.

## 3) 고왕산 전투(1951. 11. 23. ~ 11. 26.)

캐나다 제25여단은 1951년 10월 하순 방어정면 강제고지인 166고지, 156고지 일대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설치하고, 여단을 위협하는 중공군을 구축하기 위해 10월 23일 ‘후추가루단지 작전(Operation Pepperpot)’을 실시하였다.<sup>157)</sup> 중공군은 이를 계기로 포격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11월 4일 마량산을 다시 탈취한 후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한 듯 남쪽의 전술적 요충인 고왕산(355고지) 일대를 넘보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 제1군단은 고왕산을 계속 확보할 목적으로 영연방 제1사단의 방어정면을 축소하기 위해 사단간 전투지경선을 일부 조정하여 고왕산을 미 제3사단 작전지역에 포함시켰다.<sup>158)</sup> 이에 따라 캐나다 제25여단은 11월 22일 R22eR대대를 고왕산과 인접한 227고지 중간에 배치해 미 제3사단과 연결하였다. R22eR대대 D중대가 구축한 방어진지는 227고지에서 고왕산으로 연결되는 안부지역으로 지형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3일 전에 빼앗긴 좌인점 227고지에서 강제되고 있어 방어에 매우 불리하였다.

이런 와중에 이날 초저녁부터 중공군의 야포 및 박격포 사격이 우인점 미 제2사단이 방어중인 고왕산 일대에 집중되었고, 23일 새벽에는 그 화력이 D중대 지역으로 집중되었다.<sup>159)</sup> 날이 밝으면서 중공군의 화력은 둔화되었으나, 간헐적인 포격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어둠이 깔리자 중공군은 고왕산을 집중 포격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공격으로 미 제7연대 제2대대는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고왕산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D중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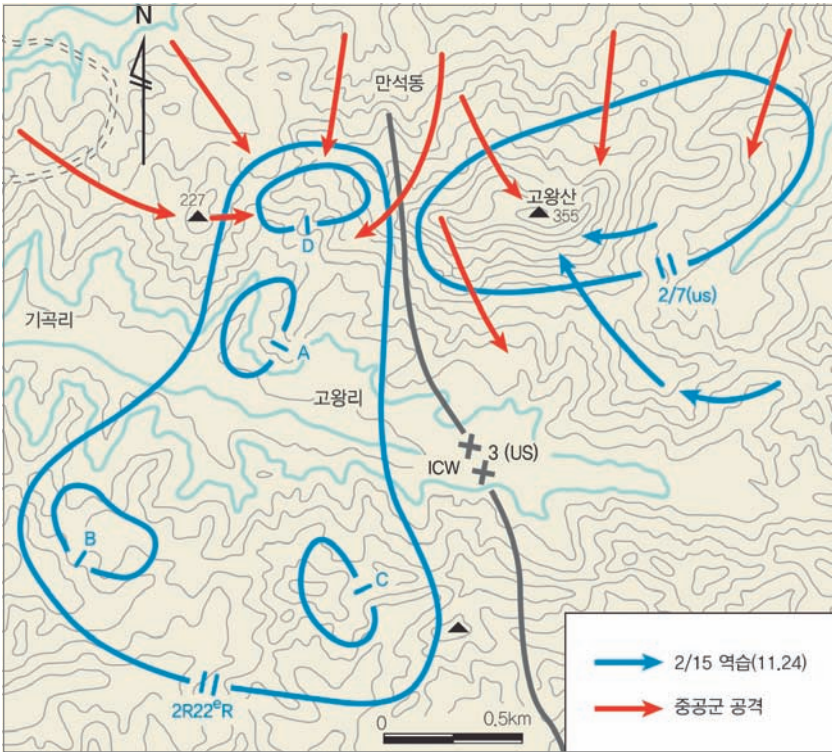
157) Lt. Col. Herbert F. Wood, *Strange Battleground*, p.148.

158) Lt. Col. Herbert F. Wood, *Strange Battleground*, p.153.

159) 이날 공격을 주도한 중공군은 제19병단 제64군 예하의 제190사단 568연대였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569쪽.

좌우측에서 중공군으로부터 협공을 받게 되어 진지고수가 불투명하였으나, 여단장은 D중대에 끝까지 안부진지를 고수하도록 명령하였다.<sup>160)</sup>

〈상황도 3-7〉 355고지(고왕산) 및 227고지 전투(1951. 11. 23. ~ 11. 25.)



고왕산으로 진출한 중공군은 우려했던 대로 19시 30분에 여단의 탄막사격을 뚫고 D중대를 공격하였으나, 중대 최후저지사격에 걸려 다수의 시체만 유기한 채 철수하였다. 1차 공격에 실패한 중공군은 21시 30분경 227고지에서 2개 중대규모로 2차 공격을 개시하였다. 박격포를 비롯한 대대의 모든

160)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94쪽.



중화기가 작렬하며 중공군의 공격이 둔화되는 듯하였으나 10월 24일 02시경 D중대 좌측의 소대진지가 붕괴되어 중공군의 일부가 진내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급박해진 중대장은 대대의 81mm 박격포를 포함한 3개 포병연대와 전차 및 4.2인치 박격포 등의 진내사격을 요청하여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날이 밝으면서 중공군의 공격 기세는 현저히 둔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증원 병력이 227고지로 속속 집결하고 있어 머지않아 적의 대규모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무렵 우측의 미 제7연대는 역습을 개시하여 고전 끝에 고왕산을 재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11월 24일 어둠이 깃들자 중공군 1개 대대규모는 3개 방향에서 D중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은 여단의 포병 화력지원에도 불구하고 진내로 접근하였다. 중대는 수류탄과 백병전으로 응수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측방 진지 일부가 중공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D중대는 자정 무렵 특공대를 조직하여 역습을 개시하였다. 이때 적이 중대 역습에 앞서 경기관총 1정만 남기고 주력이 철수하여 특공대는 쌍방의 포격으로 폐허가 된 진지를 재탈환하였다.<sup>161)</sup>

대대는 4일 동안 중공군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일진일퇴 공방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사 11명과 부상 13명의 손실을 보았으나 4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D중대가 끝까지 227고지를 사수하여 유엔군은 군사분계선 설정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용맹성은 영연방사단의 귀감이 되어 최우수중대로 선정되었다.

#### 4) 나부리 전투(1953. 5. 2.)

1953년 4월 26일부터 중공군은 영연방 제1사단 정면에 대한 포격과 정

161) Lt. Col. Herbert F. Wood, *Strange Battleground*, p.158.

찰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영연방 제1사단 전선 좌측의 후크고지, 특히 355고지 일대에 집중하던 적의 포격은 중앙에 위치한 캐나다 여단 정면 RCR 제3대대 C중대 진지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영연방 제1사단이 1951년 10월 제임스타운 선으로 진출한 이래로 중공군은 사단 주요 거점인 사미천 서쪽 후크고지와 임진강 서쪽 고왕산을 탈취하기 위해 수차례 걸쳐 공격을 개시해왔다. 중공군의 포격이 캐나다 제25여단이 방어중인 나부리 일대에 집중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 지역은 중공군 전초진지인 166고지에서 감제 관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개활지로 이루어져 있어 적이 공격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다.

1953년 5월 2일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RCR대대 정찰대와 매복대는 예정대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메이넬(Maynell) 소위와 사병 15명으로 편성된 A중대 전투정찰대는 20시 30분경 진지를 출발하여 전투지경선 부근에 설치된 철조망지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우측의 PPCLI 제3대대와 의 전투지경선인 계곡으로 진입하였다. 이때 중대정찰대는 사전에 침투한 중공군 정찰대의 기습사격을 받아 메이넬 소위가 전사하고 퇴로가 차단되는 등 적중에 고립되었다. 더욱이 구조요청을 받은 C중대 대기정찰대가 A중대 정찰대를 증원하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에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분산되어 대대는 혼란상황에 직면하였다.<sup>162)</sup>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공격계획을 세운 중공군은 병력을 5개 제대로 분할하여 캐나다 여단의 탄막지대와 주진지 사이에 축차적으로 투입시켜 지원화력을 무력화시켰고 정찰대를 기습 공격하였다.<sup>163)</sup> 본격적인 공격준비를 완료한 중공군은 5월 2일 자정을 기해 공격준비사격을 C중대 진지에 집중한 후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은 수류탄을 투척하며 C중대의 교통호로

162)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16쪽.

163) Lt. Col. Herbert F. Wood, *Strange Battleground*, p.234.

뛰어들어 진지를 파괴하였고, 곧이어 피아간에 처절한 진내전투가 벌어졌다.

상황이 불리해진 C중대 요청으로 VT탄 진내사격이 개시되자 중공군의 공격 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다. 이때 여단은 적의 증원과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미천 북쪽 적 전초진지인 166고지 일대를 무차별 포격하였다. 그러나 C중대 지역에서는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근접전투가 이어졌다. 제7소대가 제8소대 진지로 철수하자 중공군은 교통호를 따라 제8소대 진지로 쇄도하였으나 여기서 증원이 차단되어 고립되었고, 제8소대가 모든 화기를 동원하여 집중사격을 가하자 중공군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sup>164)</sup>

캐나다 여단은 나부리 일대 진지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2시간 동안 중공군의 기습공격에 휘말려 전사 30명, 부상 41명, 실종 11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날 중공군은 평시와는 달리 5개 제대를 축차적으로 투입하는 새로운 공격전술을 구사하였고, 여단은 휴전을 목전에 둔 이 전투에서 악전고투하였으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 다. 캐나다 해군의 주요 활동

##### 1) 초기작전

지상군 파견에 앞서 구축함을 먼저 파견하기로 한 캐나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아다바스칸(Athabaskan)호와 캐유가(Cayuga)호 그리고 시옥스(Sioux)호 등 3척으로 구성된 구축함대는 7월 5일 밴쿠버 섬의 에스퀴몰트(Esquamalt) 해군기지를 출발하였다. 진주만을 경유한 구축함대는 7월 30일 일본의 사세보항에 입항하여 미 극동해군사령부에 배속되어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다.<sup>165)</sup> 구축함대는 주로 부산-일본을 왕래하는 수송선단의

164)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18-319쪽.

165) Thor Thorgrimsson & E. C. Russell, *Canadian Naval Operations in Korean Waters 1950-1955*, pp.4-5.

엄호와 서해안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인천상륙작전에서 상륙부대를 군수 지원하는 수송선단의 엄호임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서해안에서 해안봉쇄임무를 수행하던 구축함대는 중공군 개입으로 유엔군이 철수를 개시하자 진남포철수작전 엄호임무를 실시하였다. 캐나다 구축함을 비롯한 6척의 구축함으로 편성된 혼성함대는 캐나다 캐유가(Cayuga)호 함장인 브록(J. V. Brock) 대령의 지휘 하에 12월 4일 어둠을 틈타 진남포항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 해역은 수로가 협소하고 암초가 도처에 산재해 있었다. 이로 인해 2척의 구축함이 암초에 걸려 좌초되어 다음날 새벽 4척의 구축함만이 진남포항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sup>166)</sup>

진남포항에 상륙한 상륙전대가 구축함의 엄호를 받으며 부상자와 보급물자를 탑재하는 동안 상당수의 민간선박들은 피난민을 승선시켰다. 17시경 탑재를 완료한 상륙전대와 민간선박들이 외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구축함대는 40분간에 걸쳐 항만시설과 주변의 군사시설을 포격하여 완전 파괴하였다. 외항에서 대기 중인 상륙전대와 합류하여 남하하여 진남포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sup>167)</sup>

캐나다 구축함대는 4인치 주포를 장착하고 있는 관계로 함포지원보다는 주로 해안초계나 항모엄호임무를 담당하였다. 1951년 9월 4일 캐유가호는 초도의 미 첩보부대로부터 석도-초도 일대 적 사격표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파괴에 착수하였다. 캐유가호는 포격에 앞서 침투한 유격대가 탄착을 관측해주자 정확한 포격으로 목표물들을 파괴할 수 있었다.

이후 구축함대 활동은 휴전회담 진행과정과 연계되어 이루어졌다. 회담 지연으로 인해 유엔군이 확보중인 전략도서에 대한 적의 기습공격이 우려되었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상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때 적이

166) Thor Thorgrimsson & E. C. Russell, *Canadian Naval Operations in Korean Waters 1950-1955*, pp.30-32.

167)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27쪽.

결사적으로 탈취하려던 속도와 석도의 방어임무는 캐나다 함대가 담당하고 있었다. 캐나다 구축함대는 전략도서에서 가까운 적의 해안포대와 공격기지를 조기에 파괴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공군과 합동작전을 실시하였다.

## 2) 후기작전

1952년에 접어들어 캐나다 함대가 소속된 서해지원전대는 적의 도서공격을 방어하는 한편 도서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상초계활동을 강화하였다. 캐나다 구축함대는 연평단대를 편성하여 해주만 일대 도서를 방어하였고, 백령도와 연평도 등 전략도서 근해에서 초계활동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누트카(Nootka)호는 9월 22일 진강포 부근에서 북한의 기뢰부설정을 추격하여 나포하는 전과를 올렸다.<sup>168)</sup>

캐나다 구축함대는 1952년 9월말부터 동해상 해상활동에 참여하였다. 10월 2일 구축함 이로쿠아(Iroquois)호는 성진항 부근에서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목표인 동해안 철도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복귀과정에서 적의 해안포격으로 2명이 전사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캐나다 해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이래 최초이자 마지막 인명피해였다.<sup>169)</sup> 크루세이더(Crusader)호와 하이다(Haida)호가 성진과 청진 일대에서 군수물자 수송열차를 파괴하였다. 1953년에도 캐나다 해군의 활동은 계속되었고, 동해안의 크루세이더호는 한국 해병대 엄호작전과 군용열차 파괴작전을 실시하였다.<sup>170)</sup>

168) Thor Thorgrimsson & E. C. Russell, *Canadian Naval Operations in Korean Waters 1950-1955*, p.109.

169) Thor Thorgrimsson & E. C. Russell, *Canadian Naval Operations in Korean Waters 1950-1955*, p.110.

170) 유엔해군의 열차파괴작전에서 크루세이더호를 비롯한 18척의 유엔해군 구축함이 파괴한 공산군측 열차는 28대에 달하였다. DHH,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and the Korean War*, p.128.



한국 해역에서 활동한 캐나다 구축함 하이다(Haida)호

이와 같이 캐나다 구축함대는 전쟁기간 동안 3척의 구축함으로 동·서해안에서 해안초계와 항공모함 엄호, 군용열차 파괴작전 등을 수행하며 유엔 해군의 해상작전을 지원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1955년 3월 작전해역을 한국해군에게 인계할 때까지 백령도 근해에서 공산측 휴전협정 위반 감시활동을 수행하였다. 캐나다 함대는 1955년 9월 7일 시웁스호가 마지막으로 귀국하며 6·25전쟁에서의 해군작전을 종료하였다.<sup>171)</sup>

#### 라. 캐나다 공군의 주요 활동

1950년 7월초 캐나다 정부는 해군에 이어 공군 수송대대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6대의 수송기로 편성된 제426수송대대는 7월 26일 미국 워싱턴 근교 맥코드(McChord) 기지로 이동하여 작전에 착수하였다. 이때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일명 "Hawk작전"으로 병력과 물자를 맥코드 기지

171) Thor Thorgrimsson & E. C. Russell, *Canadian Naval Operations in Korean Waters 1950-1955*, p.133. 캐나다 해군은 전쟁기간 동안 3,621명의 장병을 한국해역에 파견하였다.

와 일본 하네다 기지를 왕복하며 공수하는 작전이었다.<sup>172)</sup> 제426수송대대는 8월 중순까지 12명의 조종사가 6대의 수송기로 월 3,000시간 이상을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하였다. 대대가 비행한 항로는 맥코드 기지-앵커리지-알류산 열도-하네다 기지로 기상변화가 심한 장거리 항로였다.

1950년 9월 유엔군의 북진으로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어 대대 임무도 월 15회로 축소되었고, 작전기지도 맥코드에서 캐나다의 도발(Dorval) 공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물동량이 점점 감소되어 1952년 중반 무렵에는 월평균 8회 정도로 축소되었다. 제426수송대대 공수작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까지 지속되다가 1954년 6월 9일 비행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대대는 작전기간 중 599회의 왕복 비행을 통해 34,000비행시간을 기록하였으며, 13,000명의 병력과 3백만kg의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였다.<sup>173)</sup>

한편 캐나다 공군은 22명의 전투조종사를 파견하여 유엔공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캐나다 공군은 자국 조종사의 전투경험 축적을 위해 한국에서 작전 중인 미 제51전투요격기여단에 1~2명을 윤번제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50회 출격 후 또는 6개월 복무를 마친 후 교대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미그(MIG)회랑에서 공중전을 실시하여 적기를 격추하는 전과를 올렸는데, 1952년 8월 5일 라프랑스(Claude A. Lafrance) 중위는 자신의 50번째 출격에서 미그기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압록강까지 추격하였다.<sup>174)</sup>

#### 마. 참전의 결과와 의의

캐나다군은 지상군 파견에 앞서 해군과 공군을 먼저 파병하였다. 전쟁기간 동안 캐나다군 병력파견은 약 5,000~6,0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172)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41쪽.

173) DHH,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and the Korean War*, p.129.

174) DHH,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and the Korean War*, p.138.

1951년 6월 30일에는 5,403명을 기록하였다. 1년이 경과한 1952년 6월 30일에는 5,155명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에는 약 1,000명이 늘어난 6,146명이었다.<sup>175)</sup> 또한 캐나다는 6·25전쟁기간 동안 1개 보병여단과 구축함 3척을 파견하는 등 연인원 26,791명이 참전하였다.<sup>176)</sup>

〈표 3-9〉 캐나다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지상군	해군	공군
26,791명	보병여단 : 1 병력 : 6,146명	구축함 : 3척	수송기대대 : 1

캐나다군은 PPCLI연대 제2대대가 1950년 12월 18일 한국전선에 투입된 이래 나부리 전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전투와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516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1,2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이 실종되고 32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sup>177)</sup>

〈표 3-10〉 캐나다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516명	1,212명	1명	32명	1,761명

1951년 11월 4일 캐나다군은 677고지 방어전투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PPCLI연대 제2대대와 RAR연대 제3대대가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하는 등 참전기간 전공으로 수많은 부대표창 및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17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176)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34쪽.

177)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35



### 3. 콜롬비아(Colombia)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콜롬비아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콜롬비아는 정치적 갈등으로 국가기관이 붕괴되고, 사회적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반정부 게릴라 집단의 반란이 최고조에 달하였다.<sup>17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정부는 유엔 요청에 따라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였다.

콜롬비아는 북한군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전쟁으로 유엔현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간주하였다. 즉 전쟁 발발로 인해 한국은 냉전의 첫 번째 실질적 전장이 되었고, 북한 남침이 동서진영 간 전면전 발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 동맹국으로서 자유우방을 지원하겠다는 인도주의적 측면과 세계평화와 자유를 수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겠다는 대외명분을 강조하면서 참전을 결정하였다.<sup>179)</sup>

178) 1946년에 실시된 콜롬비아의 대통령선거는 보수당과 급진자유파간의 갈등을 격화시켰다. 16년 만에 이루어진 보수당의 정권복귀는 부와 권력이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어 야기된 민중의 상대적인 차별과 박탈감을 증폭시켰고, 더욱이 급진자유파 대선 후보인 민중지도자 호르헤 가이탄(Jorge E. Gaitan)이 암살되자 폭력으로 표출되었다. 대규모로 확산된 폭력사태에 권력기반이 불안정한 보수당은 사병조직으로 전락한 경찰과 군부를 앞세워 자유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등 비올렌시아 과정에 개입하였다. 콜롬비아는 1946년부터 1953년 사이에 있었던 비올렌시아(La Violencia)로 24만 명이 정치적 암살을 당하는 등 120만 2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Guillermo Garces Conteras, *Los Grandes Problemas de America Latina*(Mexico: CELA, 1965), pp.54-55. 차경미,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전쟁』(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31-33쪽 재인용.

179) *El Tiempo*(1950. 7. 9), p.1; *Vanguardia Liberal*(1950. 6. 27), p.3, 차경미,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전쟁』, 101쪽 재인용.



강원도 화천군 산양리에 건립된 콜롬비아군 산양리지구 전적비

콜롬비아 정부는 유엔 결의를 접한 후 파병을 적극 검토한 결과, 먼저 해군함정 파견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미 콜롬비아대사를 통해 미 합동참모본부와 함정 파견을 위한 세부절차와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콜롬비아 정부는 190명의 승무원과 함께 프리깃함 1척을 가능한 한 신속히 유엔 해군작전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9월 18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sup>180)</sup>

그러나 지상군 파견 결정은 자국의 경제 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참전에 따르는 무장·훈련·보급 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오랫동안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10월 하순에 미국 정부로부터 파병과 관련한 모든 지원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11월 14일 지상군 1개 대대규모의 참전을 선언하였다.<sup>181)</sup>

콜롬비아 해군은 지상군에 앞서 해군 함정을 먼저 파견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1척의 프리깃함을 파견하였다. 1950년 11월 1일 189명의 승무원

180)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52쪽.

181) 국가보훈처, 『6·25전쟁 콜롬비아군 참전사』, 2008, 76쪽.

이 탑승한 파딜라(Almirante Padilla)호는 카르타지나(Cartagena)항을 떠나 진주만에서 미 해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 1951년 5월 8일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하여 제95기동부대에 배속되었다.<sup>182)</sup> 3일 후 파딜라호는 다시 서해안 봉쇄전대에 편입되어 5월 14일 속도와 석도간 항로 순찰을 시작으로 보급선단 호위, 해안순찰, 함포사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콜롬비아 해군은 토노(Capitan Tono)호와 브리온(Almirante Brion)호가 1953년 9월 본국으로 복귀할 때까지 한반도의 동·서해안에서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해군 작전에 기여하였다. 전쟁기간 중 참전한 콜롬비아 해군함정과 지휘관은 다음 <표 3-11>과 같다.

<표 3-11> 콜롬비아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함정명	참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명
Almirante Padilla	1951. 5.~1952. 2.	소령	Julio Cesar Reyes Canal
Capitan Tono	1952. 4.~1953. 1.	소령	Hernado Beron Victoria
Almirante Brion	1953. 6.~1954. 4.	소령	Carlos Prieto Silva

한편 콜롬비아 육군은 본격적인 참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11월 하순 보고타 인근에 임시훈련소를 설치하고 창설부대 기간요원과 신병모집에 주력하였다. 12월 29일 고메스(Laureano Gomez) 대통령은 법령 제3927호를 통해 한국 파병을 목적으로 한 ‘바따온 콜롬비아(Batallon Colombia)’라 불리는 보병대대를 창설하였다.<sup>183)</sup> 콜롬비아대대는 수도경비대장인 뿌요(Jaime Polania Puyo) 중령을 대대장으로 3개 소총중대와 1개 중화기

182)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0.  
 183) 차경미,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전쟁』, 109쪽.

중대, 본부중대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병력은 1,086명이었다.

뿌요 중령 지휘 하에 12주에 걸쳐 훈련을 완료한 콜롬비아대대는 1951년 5월 12일 보고타의 볼리바르 광장에서 무기인도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고메스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 밖에 없다”라는 연설로 파병군을 격려하였다.<sup>184)</sup> 5월 21일 미 수송선에 탑승하여 한국으로 향한 콜롬비아대대는 6월 15일 부산항에 도착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 고위 장성과 부산시민들로부터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중 마지막 참전군이었던 콜롬비아대대는 동래의 유엔군수용대로 이동하여 6주간에 걸친 현지적응 및 전술훈련을 실시하였다. 7월 30일 강원도 화천군 산양리로 이동하여 미 제24사단 제21연대에 배속되었고 8월 6일 흑운토령 전투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전투를 본격화하였다. 10월에 접어들어 미 제9군단의 금성진격작전에 참여한 대대는 이후 미주리선 및 제임스타운선 작전 등에서 회고개 전투, 초서리 전투, 400고지 전투, 180고지 전투, 불모고지 전투 등을 수행하며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sup>185)</sup> 전쟁기간 중 참전한 콜롬비아대대 주요 지휘관은 다음 <표 3-12>와 같다.

<표 3-12> 콜롬비아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구 분	참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 명
콜롬비아대대(제1차)	1951.6.15.~1952.7.4.	중령	Jaime Polania Puyo
콜롬비아대대(제2차)	1952.7.4.~1953.6.25.	중령	Alberto Ruiz Novoa
콜롬비아대대(제3차)	1953.6.25.~1954.10.29.	중령	Carios Ortiz Torres

184)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1.

185) 국가보훈처, 『6·25전쟁 콜롬비아군 참전사』, 26쪽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406-420쪽.

## 나. 콜롬비아 지상군의 주요 전투

### 1) 김화 400고지 전투(1952. 6. 21. ~ 8. 17.)

미 제24사단 제21연대에 배속되어 금성진격전에 참여한 콜롬비아대대는 회고개 전투를 수행하며 적 8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대대장이 중상을 입는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sup>186)</sup> 이 전투에서 대대는 비록 전투경험도 부족하고 수적으로 열세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중공군을 물리치고 회고개를 확보하여 미 제9군단이 금성 남방으로 진출하는데 기여하였다.

콜롬비아대대는 미 제24사단이 일본으로 복귀함에 따라 1952년 1월 28일 미 제7사단 제31연대에 배속되었다.<sup>187)</sup> 이후 대대는 1952년 5월 10일에 김화 북쪽 탐동 부근 미 제31연대 제1대대 주진지를 인수하여 미주리(Missouri)선상의 진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대대는 미주리선 방어와 전초진지인 325고지, 400고지, 454고지 일대에 대한 정찰활동에 주력하였다.<sup>188)</sup> 콜롬비아대대는 3개 소충중대가 돌아가며 매일 1개 소대의 정찰대를 출동시켜 연대 정면의 적정을 파악하고 적의 전진진지를 기습 공격하였다.

따라서 중공군은 이들 고지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대대 정찰대가 진출하면 각종 구경의 곡사포로 집중포격을 가해왔다. 특히 400고지는 1개 소대규모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견고한 방어시설이 구축된 강력한 방어 거점이었다. 이로 인해 대대 정찰활동이 제한됨은 물론 적지 않은 인명손실까지 주고 있어 대대로서는 400고지가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이 무렵 소대규모 이상의 야간정찰과 기습공격은 예비대가 전담한다는 방침에 따라 콜롬비아대대는 6월 21일 04시 방어정면 적의 전진진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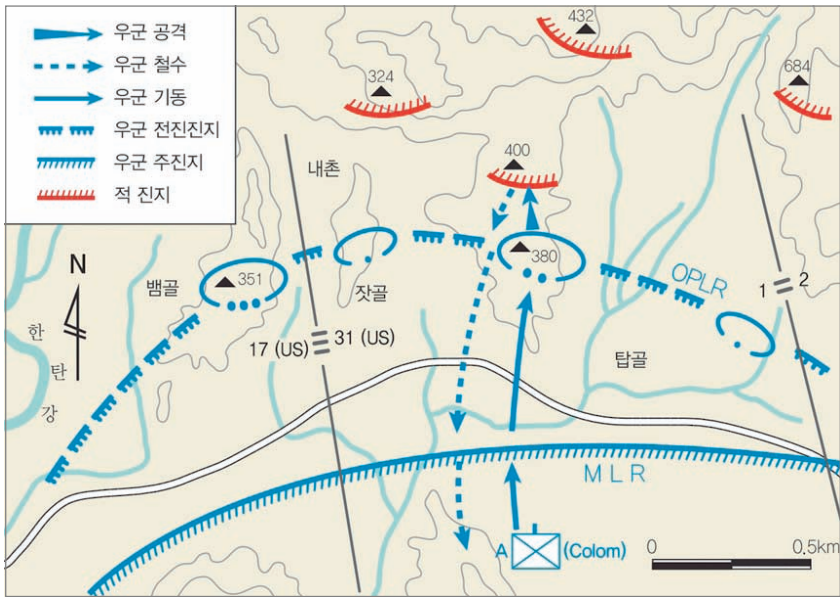
186)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63쪽.

187)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1.

188)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70쪽.

400고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04시 A중대 제3소대는 제31연대 제1대대의 주저항선 진지를 통과하여 가파른 고지를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소대는 한 달 전에 이곳을 방어한 바 있어 지형에 익숙한 이점을 십분 발휘하여 25분 만에 적진 50m 전방까지 접근하였다.

〈상황도 3-8〉 400고지 기습공격(1952. 6. 21.)



베르날(Mario Bernal) 소위가 이끄는 제3소대는 진지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자 적 병커를 향해 일제히 수류탄과 자동화기사격을 집중하며 돌격을 개시하였다. 기습공격에 허를 찢린 중공군은 뒤늦게 교통호 밖으로 나왔지만 기선을 장악한 소대 돌격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지 속에서 저항하던 적의 일부도 진지가 폭파되면서 함께 폭사하였다. 콜롬비아 병사들에게 기선을 제압당한 중공군 병커는 모조리 폭파되었고, 목표고지를 점령

한 제3소대원들은 그곳에 콜롬비아 국기를 게양하였다.

05시 30분 기습공격 성공을 확인한 소대장은 적의 역습을 방지하기 위해 400고지 후방 432고지에 대한 전차 및 포병의 지원 포격을 요청한 후 대대 전진진지로 복귀하였다. 콜롬비아군은 이 기습공격에서 중공군 병커 11개를 모두 파괴하는 한편 적 28명을 사살하고 2명을 포로로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이 전투에서 2명이 전사하고 15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sup>189)</sup> 이 전투는 콜롬비아대대가 김화 부근 미주리 선상에서 실시한 가장 성공적인 전투로 평가되었다.

이후 콜롬비아대대는 새로 부임한 루이즈(Alberto Ruiz Novoa) 중령의 직접 지휘 하에 정면 400고지와 서북쪽 324고지에 대한 정찰에 나섰다. 8월 17일 저녁 무렵 대대는 포로를 생포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에 따라 소대규모로 편성된 2개 정찰대를 325고지와 400고지로 파견하였다. 각 정찰대는 기도비닉을 유지하며 목표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적은 콜롬비아군 정찰대가 목표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대대 정찰계획을 사전에 탐지한 듯 포위대형으로 매복하였고, 박격포와 증기관총으로 화망을 구성한 채 집중사격을 실시하였다. 기습을 당한 정찰대는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고, 장교 2명과 사병 94명이 전사하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sup>190)</sup> 충격적인 상황에 빠져있던 콜롬비아대대는 8월 20일 와수리로 철수하여 부대 재정비와 교육훈련에 주력하면서 차기작전에 대비하였다.

## 2) 180고지 전투(1953. 3. 10.)

콜롬비아대대는 1953년 2월 27일 사단 명령에 따라 미 제7사단 제31연

189)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411쪽.

190)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74쪽.

대 예비가 되어 연천 서북방 대광리 서쪽의 마거리로 이동한 다음 에티오피아대대와 진지를 교대하였다. 이때 연대 정면에는 중공군 제47군 예하 제141사단과 제23군 예하 제67사단이 위치하고 있어 피아간 정찰대가 빈번하게 격돌하는 상황이었다.<sup>191)</sup> 특히 포크참과 불모고지 지역에서는 적의 활동이 증가되고 있었다.

콜롬비아대대는 불모고지와 포크참에 대한 역습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연습을 실시하면서 적의 거점을 기습하는 등 적의 움직임에 대처하였다. 대대는 이 과정에서 'Barbular'라 명명된 기습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은 제31연대와 좌인접 제32연대 전투지경선 부근에 있는 무명고지(180고지)에 강력한 전초진지를 구축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Barbular 작전'은 연대 주저항선을 감제관측하고 있는 눈앞의 걸림돌 같은 180고지를 기습 공격하여 적의 병커와 화기진지를 파괴하고 적을 역곡천 서쪽으로 격퇴하는 것이었다.<sup>192)</sup>

미 제31연대장은 콜롬비아대대에게 이 임무를 부여하였다. 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C중대를 공격중대로 선정한 후 수립된 기습계획에 따라 수차에 걸쳐 예행연습을 실시하였다. 3월 9일 주저항선을 방어하고 있는 제31연대 제1대대 후방으로 C중대를 이동시켰고 C중대는 기습을 달성하기 위해 3월 10일 06시에 공격준비사격 없이 2개 제대로 이동하여 25분 만에 덕현동 북쪽 180고지 돌격지점까지 접근하였다.

06시 25분 돌격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중대장 로페즈(Hernando A. Lopez) 대위가 공격개시를 알리는 3발의 조명탄을 쏘아 올리자 돌격소대인 제1소대와 제2소대는 각각 돌격목표인 A봉우리와 B봉우리를 향해 돌진하여 수류탄과 기관총사격을 집중하였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중공군 일

19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93.

192)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83쪽.



부는 엄체호 밖으로 뛰어나왔으나 오히려 피해만 입게 되자 엄체호와 교통호 속으로 다시 숨어들었다.

중대가 기습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점점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공군도 진지 속에서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이로써 무명고지 일대는 순식간에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육박전이 전개되었다. 30여 분간 혈전 끝에 중공군이 철수를 시작하자 중대장은 적의 역습을 우려하여 대기하고 있던 구호소대를 긴급히 출동시켜 부상자를 후송시키고 돌격소대도 철수시켰다.

이 무렵 고지에서 물러난 중공군은 후방 220고지 일대에서 재편성을 한 후 역습을 개시하였다. 이에 중대는 포병화력으로 적의 진출을 강력히 저지하였으나, 적의 일부가 아군의 치열한 탄막사격을 뚫고 180고지로 진출하여 철수를 준비하던 중대를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고지 정상에서는 일시 혼란이 있었으나, 돌격중대는 적을 격퇴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구호소대를 엄호하면서 주저항선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선제기습공격으로 180고지에 구축된 적의 엄체호와 화기진지를 모두 파괴하고 150여 명 이상의 적을 사살하였으나, 대대도 전사 19명과 부상 44명, 실종 8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sup>193)</sup>

### 3) 불모고지 전투(1953. 3. 22. ~ 3. 25.)

불모고지 전투는 연천 북방 천덕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미 제7사단 제31연대와 배속된 콜롬비아대대가 1953년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주저항선 전방의 전초진지 중 하나인 불모고지에서 중공군 제47군 예하 제141사단 제423연대의 역습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193)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85쪽.

콜롬비아대대는 C중대 기습작전인 ‘Barbula작전’을 실시한지 이틀 만인 1953년 3월 12일 불모(Old Baldy)고지 전초가 포함된 미 제31연대 중앙 지역을 인수하였다.<sup>194)</sup> 이때 콜롬비아대대가 인수한 불모고지는 역곡천 남쪽에 위치한 275m 높이의 감제고지로 주변 일대를 감제 관측할 수 있어 1952년 6월부터 피아간에 치열한 각축이 전개되고 있었다.

대대 맞은편과 그 서쪽에는 중공군 제47군 예하의 제141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콜롬비아대대가 진지를 교대하는 틈을 타 박격포와 야포 사격을 가해왔다. 연일 계속된 중공군 포격은 사격량과 횟수가 점점 증가되었다. 적의 포격으로 진지가 파괴되자 전초에 배치된 A중대는 50여 명의 노무자를 동원하여 진지보수에 매진하였으나 파괴된 진지를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sup>195)</sup>

이 무렵 미 제31연대장은 적의 포격이 날로 증강되고 전방지역에서 적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자 불모고지와 포크참고지에 대한 특별경계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콜롬비아 대대장은 불모고지 방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A중대를 B중대와 교대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전초를 방어 중인 A중대가 Barbula작전을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불모고지에서도 계속된 적의 포격을 받아 몹시 지쳐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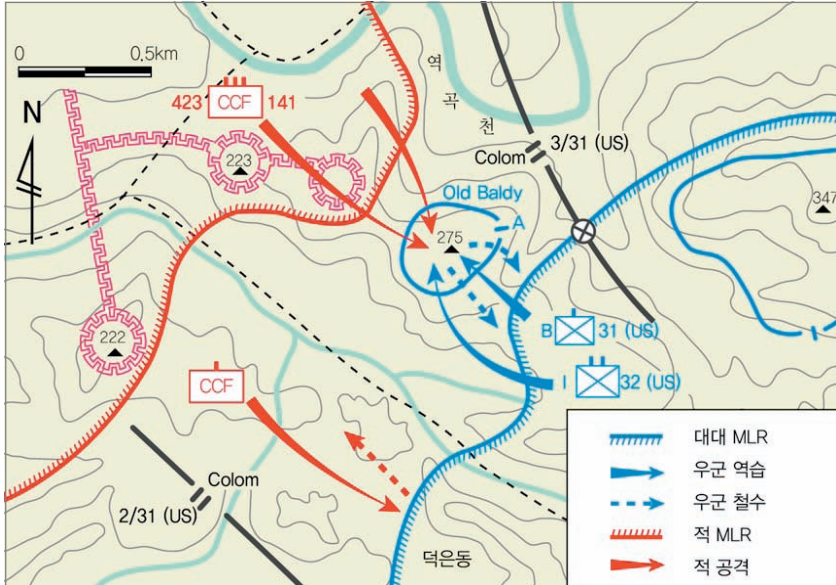
콜롬비아대대는 중공군이 부대교대간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3월 23일 저녁 무렵부터 부대교대를 시작하였다. 기도 비닉을 유지한 채 교대를 시작한 콜롬비아대대는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21시경부터 중공군의 포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중공군의 통상적인 사격으로 간주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각종 구경의 곡사포와 박격포탄이 불모고지에 집중되었다.<sup>196)</sup>

19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93.

195)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86쪽.

19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93.

〈상황도 3-9〉 불모고지 전투(1953. 3. 23. ~ 3. 25.)



이로 인해 불모고지는 삼시간에 포연과 화염에 휩싸였고, 전초와 대대 간에는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교대중인 A중대와 미 제31연대 B중대가 순식간에 뒤섞여 지휘체계마저 마비되는 혼란상황에 빠져들었다. 이때는 미 제31연대장이 콜롬비아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B중대가 중대장 패트슨(Jack M. Patteson) 중위의 인솔 하에 고지에 접근한 시점이었다.

이와 같은 혼란을 틈타 중공군은 1개 대대규모 병력으로 파상공격을 가해왔다. 이들은 중공군 제47군 예하 제141사단 제423연대의 1개 혼성대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허를 찔린 A중대와 미 제31연대 B중대는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하였고, 오직 참호와 병커에 갇힌 채 마지막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sup>197)</sup>

197)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86-387쪽.

잠시 후 전의를 잃었던 콜롬비아 장병들은 사생결단을 각오한 듯 벙커 밖으로 나와 수류탄과 총검으로 중공군을 몰아붙이며 전초회복에 나섰다. 그러나 사기가 오른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부득이 전초중대는 불모고지를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동남쪽 능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다.<sup>198)</sup> 이날 밤 미 제31연대장은 연대 B중대와 불모고지에서 철수한 콜롬비아 장병들을 수습하여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였다.



불모고지에서 철조망을 설치중인 병사들

3월 24일 아침에 미 제7사단은 예비연대인 미 제32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제73전차대대 지원 아래 탈환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전개된 탈환작전마저도 실패하였다. 사단이 재공격을 위해 유사한 지형에서 예행훈련을 실시하는 등 준비하고 있던 3월 30일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은 휴전을 앞두고 인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모고지를 탈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로써 불모고지에 대한 탈환작전은 중단되었고, 고지는 중공군 수중에 남게 되었다.<sup>199)</sup>

19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95.

19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95.

이 전투에서 콜롬비아대대는 미군과 함께 3일간 전투에서 600여 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대대도 전사 95명, 부상 97명, 실종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다. 콜롬비아 해군의 주요 활동

진주만에서 미 해군과 합동훈련을 마친 콜롬비아 프리깃함 파딜라(Almirante Padilla)호는 1951년 5월 8일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하여 미 극동해군에 배속되었다.<sup>200)</sup> 3일 후 영국함대가 주축이 된 서해안봉쇄전대에 다시 배속되어 5월 14일 서해로 이동한 파딜라호는 초도-석도간 해상초계작전을 시작으로 한국해역에서의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1951년 5월 20일 파딜라호는 동해안봉쇄전대로 배속이 전환되면서 이때부터 주로 동해안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파딜라호에게 부여된 임무는 보급선단 엄호 및 해안초계 그리고 함포지원사격이었다. 6월초 동해로 출동한 파딜라호는 원산-성진 간에서 유엔해군 함정들과 함께 함포사격에 참여하였으나, 사정거리가 짧은 75mm함포를 장착한 관계로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파딜라호는 10월 하순 청진 부근에서 적의 해안포대를 집중 사격하여 사격술을 과시하였다.<sup>201)</sup>

1952년 2월 12일 두 번째 참전함인 토노(Capitan Tono)호는 파딜라호의 임무를 인수한 후 합동작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sup>202)</sup> 이어 4월 19일 미 호위전대에 배속된 토노호는 5월 하순 동해로 출동하여 원산항과 성진항 부근에서 소해작전을 펼치고 있던 유엔 소해함 엄호임무와 수송선단 호위임무를 담당하였다. 토노호는 11월 4일 부산에 입항하여 그동안의 해상작전에

200)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0.

201)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416쪽.

202)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1.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sup>203)</sup>

토노호는 11월에 세 번째 참전 함정인 브리온(Almirante Brion)호에게 임무를 인계하였다. 그러나 브리온호는 선체가 낡은데다가 이동 중에 고장까지 발생하여 도착과 동시에 대대적인 선박수리에 들어갔고 1953년 6월에 작전에 복귀하였다. 브리온호는 6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동해에서 보급품수송선단에 대한 엄호임무를 수행하였다.<sup>204)</sup>

이와 같이 콜롬비아 해군은 참전기간 동안 최소한 1척의 프리깃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였다. 동해에서 보급품수송선단 호위, 해안초계활동, 대지함포사격 및 소해정 엄호와 같은 주로 소형함정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유엔군 해상작전에 기여하였다.

#### 라. 참전의 결과와 의의

참전기간 동안 콜롬비아군의 병력파견은 약 1,0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1951년 6월 30일에는 1,050명을 그리고 1년 후인 1952년 6월 30일에는 1,007명을 기록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의 병력현황은 1,068명이었다.<sup>205)</sup> 1개 보병대대와 1척의 프리깃함을 파견한 콜롬비아는 기간 중 연인원 5,100명을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sup>206)</sup>

〈표 3-13〉 콜롬비아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지 상 군	해 군
5,100명	보병대대 : 1 병력 : 1,068명	프리깃함 1척

203)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96쪽.

204)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417쪽.

20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206)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86쪽.

콜롬비아군은 불모고지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13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44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8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sup>207)</sup>

〈표 3-14〉 콜롬비아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213명	448명	-	28명	689명

대대는 미국대통령 부대표창 1회를 비롯하여 총 54건의 각종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과 콜롬비아 무공훈장 등 462건의 훈장을 수여받았다.

콜롬비아는 남미 유엔회원국 중 유일하게 6·25전쟁에 병력을 파견하여 유엔의 집단안보활동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엔창설 회원국인 콜롬비아 정부와 의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유엔안보리의 북한응징 결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미국의 협조와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였다. 한편 콜롬비아의 한국에 대한 병력 파견은 콜롬비아군의 현대화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실전 경험을 토대로 습득된 지식은 콜롬비아군의 전략 강화에 기초가 되었다.

207)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4.

## 제3절 유럽지역 참전국

### 1. 영국(United Kingdom)군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영국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북한의 남침소식을 접한 영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전투부대를 파견하고, 영연방국가를 비롯한 우방국에 대해 유엔군 창설에 협조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1950년 6월 27일(현지시각) 유엔안보리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제안에 지지를 표명한 영국은 다음날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극동함대의 일부 함정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sup>208)</sup> 이에 따라 영국 해군은 6월 29일 경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3척 그리고 프리깃함 3척 등 총 8척으로 편성된 함대를 파견하여 미 극동해군사령부 통제 하에 한국 해역에서의 해상 작전에 참가하였다.<sup>209)</sup>

그러나 병력의 여유문제를 포함한 제반 사정으로 지상군 파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영국은 국내 언론의 비난과 미국의 요청 등 여론과 압력에 따라 7월 26일 제29보병여단 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발표하였다.<sup>210)</sup>

208)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Washington: U.S. GP O, 1962), 해군본부 역,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72쪽.

209) 미 극동해군사령부에 파견된 함정은 경항공모함 HMS Triumph호, 순양함 HMS Belfast호와 HMS Jamaica호, 구축함 HMS Consort호와 HMS Cossack호, 프리깃함 HMS Alacrity호와 HMS Black-Swan호, HMS Hart호이다.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 A Distant Obligation* (LHMSO,1990), p.52.

210)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 A Distant Obligation*, pp.103-104.



8월 20일 긴급조치로 파병준비에 착수한 제29여단에 우선하여 홍콩에 주둔중인 2개 보병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당시 한반도 전선 상황의 심각성과 이동거리상의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제40보병사단은 제27여단본부와 예하 아길대대 및 미들섹스대대를 선발한 후 8월 25일 항공모함 유니콘(Unicorn)호와 순양함 세일론(Ceylon)호에 승선시켜 한국에 파견하였다. 제27여단은 여단장인 코드(B. A. Coad) 준장의 지휘 하에 8월 28일 부산에 상륙하였다.<sup>211)</sup>

영국은 이들 외에도 본국에 대기하고 있던 제41해병독립특공대에서 225명을 선발하여 증강된 중대규모의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파견하였다. 이들은 일본에 있는 미 극동해군에 배속되어 미 해병대와 연합으로 공산군의 병참선과 해안선에 대한 기습공격작전 등을 수행하였다.<sup>212)</sup> 또한 본국에서 파병을 준비하고 있던 제29여단도 10월초 전투편성이 완료되어 여단장 브로디(T. Brodie) 준장 지휘 하에 제대별로 영국을 출발하였다. 여단은 선발대가 11월 3일 부산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부대 이동을 완료하였다.<sup>213)</sup>

1951년 7월 28일 영국 지상군은 영연방국가로부터 파병된 부대들을 통합 지휘할 목적으로 영연방 제1사단을 창설하였다. 영국 카젤스(A. J. H. Cassels) 소장을 사단장으로 한 영연방사단은 영국군 제28여단과<sup>214)</sup>

211) 국방군사연구소, 『UN군 지원사』, 1998, 161-162쪽.

212) 영국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실시된 군산지역 양동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장진호전투, 흥남철수작전, 동해안의 공산군 병참선 교란작전 등을 수행한 후 1951년 12월 23일 원산항에 정박 중인 북한군 선박을 기습 공격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310쪽.

213)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393쪽.

214) 1951년 4월 25일 버크(Burke)준장의 후임으로 테일러(G. Taylor) 준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제27여단은 명칭을 제28여단으로 개칭하였다. 이것은 단지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구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439쪽.

제29여단(벨기에·룩셈부르크군 배속), 캐나다군 제25여단이 주축이 되었으며, 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군 포병과 영국·캐나다군의 전차대대 및 공병대대가 배속되었다. 하나의 단위부대 창설을 위해 여러 나라 부대가 참여한 전사상 유례가 없는 이러한 조치는 영연방국가 부대들이 군사작전의 절차와 지휘체계, 탄약 등 보급문제까지 모두 영국식인 점을 고려하여 미 제8군과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졌다.<sup>215)</sup>



전통군복 차림으로 부산에 상륙하는 영국군

영국 지상군은 낙동강방어선 전투를 시작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반도 남북을 오르내리며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들의 대표적인 전투는 낙동강방어선 전투, 성주 전투, 사리원 전투, 정주·박천 전투, 고양 전투, 설마리 전투, 가평 전투, 고왕산 전투, 후크고지 전투 등이었다. 특히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된 제29여단 글로스터(Gloucester)연대 제1대대의 설마리 전투는 6·25전쟁사에서 고립방어 전투의 대표 전례로 기록되고 있다.

215)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p.212.

〈상황도 3-10〉 영국군 주요 전투



전쟁 기간 중 영국 지상군을 이끌었던 주요 지휘관은 영연방 제1사단장 카셀스(A. J. H. Cassels) 소장을 비롯하여 그 후임인 웨스트(M. M. A. R. West) 소장과 머레이(H. Murray) 소장이 있다. 각 여단장으로는 제27보병여단장 코드(B. A. Coad) 준장과 제28보병여단장 테일러(G. Taylor) 준장 그리고 제29여단장 브로디(T. Brodie) 준장 등이 파병 여단의 초대 여단장으로 활동하였다.

〈표 3-15〉 영국 지상군 참전 사단 및 여단 지휘관

부 대 명	지 휘 관			비 고
	계급	성명	재임기간	
영연방 제1사단	소장	A.J.H. Cassels	1951.7.~1952.9.	• 1951.7.28. 경기도 양주 덕정에서 창설
	소장	M.M. A·R·West	1952.9.~1953.10.	
	소장	H. Murray	1953.10.~미상	
영 제27보병여단	준장	B.A. Coad	1950.8.~1951.3.	• 1951.4.26. 영연방 제28여단으로 개칭
	준장	B.A. Burke	1951.3.~1951.4.	
영연방 제28보병여단	준장	G. Taylor	1951.4.~1951.10.	• 1952. 6~1954. 12. 호주군 이 여단장을 역임
	준장	J.F.M. Macdonald	1951.11.~1952.6.	
영 제29보병여단	준장	T. Brodie	1950.11.~1951.10.	
	준장	A.H.G. Ricketts	1951.10.~1952.12.	
	준장	D.A.Kendrew	1952.12.~1953.11.	
	준장	R.N.H.C. Bray	1953.11.~미상	

미들섹스연대 제1대대와 글로체스터연대 제1대대, 그리고 퓨질리어연대 제1대대 등 영국 지상군 주요 대대장은 다음 〈표 3-16〉과 같다.

〈표 3-16〉 영국 지상군 참전 대대 및 지휘관

부 대 명	지 휘 관			비 고
	계급	성명	재임기간	
Middlesex연대 제1대대	중령	A.M. Man	1950.8.~1951.5.	제27여단 배속
Argyll and Southerland Highlanders연대 제1대대	중령	C.L. Neilson	1950.8.~1951.4.	제27여단 배속
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연대 제1대대	중령	K.O.N. Foster	1950.11.~1951.4.	제29여단 배속
	중령	M.C. Speer	1951.4.~미상	
Gloucester연대 제1대대	중령	J.P. Carne	1950.11.~1951.10.	제29여단 배속
		D.B.A. Grist	1951.4.~미상	
Royal Ulster Rifles연대 제1대대	중령	R.J.H. Carson	1950.11.~1951.10.	제29여단 배속
King's Own Scottish Borderers연대 제1대대	중령	J.F.M. Macdonald	1951.4.~1951.10.	제28여단 배속
		D.H. Tadman	1951.10.~미상	
King's Shropshire Light Infantry연대 제1대대	중령	V.W. Barlow	1951.5.~1952.9.	제28여단 배속
Royal Norfolk연대 제1대대	중령	H.R. Orlebar	1951.10.~1952.11.	제28여단 배속
Leicestershire연대 제1대대	중령	G.E.P. Hutchins	1951.10.~1952.6.	제28여단 배속
Welch연대 제1대대	중령	H.H. Deane	1951.11.~1952.11.	제29여단 배속
Black Watch연대 제1대대	중령	D. McN.C. Rose	1952.6.~1953.7.	제29여단 배속
Royal Fusiliers연대 제1대대	중령	G.R. Stevens	1952.8.~1953.8.	
Durham Light Infantry연대 제1대대	중령	P.J. Jeffreys	1952.9.~1953.9.	제28여단 배속
King's Liverpool연대 제1대대	중령	A.J. Snodgrass	1952.9.~1953.10.	제29여단 배속
Duke of Wellington연대 제1대대	중령	F.R.St.P. Bunbury	1952.10.~1953.11.	제29여단 배속
Royal Scots연대 제1대대	중령	M.E. Melvill	1953.7.~미상	
Essex연대 제1대대	중령	P.S.C. Smith	1953.8.~미상	
Royal Warwickshire연대 제1대대	중령	R.C. Macdonald	1953.9.~미상	
King's Own Royal연대 제1대대	중령	W.P. Scott	1953.10.~미상	
North Staffordshire연대 제1대대	중령	A.D. Bird	1953.11.~미상	

한편 영국 해군의 참전은 홍콩에 주둔하던 극동함대가 미 극동해군 작전 지휘 하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영국 함대는 전쟁 전 기간 동안 15척 수준을 유지하며 한반도 서해상에서 작전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과를 올린 영국 함대는 서해안지원분대(TF-96.53)에서 서해지원전대(TG-95.1)로 승격되어 서해안지역 전략도서 방어에 주력하였다.<sup>216)</sup>

1951년 6월에 접어들어 영국 함대는 동해안 원산 및 성진항에서 미국 함대와 함께 북한 주요 도시 및 시설에 대한 함포사격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국 해군은 지상군에 대한 함포사격 지원과 함재기들을 동원한 북한군 해안포 진지에 대한 폭격 활동을 전개하였다.<sup>217)</sup>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영국 함대는 서해안 도서로부터 철수작전에 돌입하였다.

협정체결 다음날인 7월 28일 영국 함대는 3척의 함정을 투입하여 5일간에 걸쳐 도서방어 지휘본부로 이용하던 속도의 철수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55년 3월 한국 해군이 서해안 작전 지휘권을 전담함에 따라 영국 함대는 전면적으로 철수하였다.<sup>218)</sup>

〈표 3-17〉 영국 해군 함대 참전 함정

구 분	함 정 명	합계
항공모함	Triumph, Ocean, Theseus, Glory, Unicorn	5척
순양함	Belfast, Jamaica, Ceylon, Kenya, Newcastle, Birmingham	6척
구축함	Cossack, Consort, Comus, Concord, Constance, Cockade, Charty	7척
프리깃함	Mounts Bay, Morecample, Black Swan, Whitesand Bay, Cardigan Bay, St. Brides Bay, Alarcrity, Modeste, Hart, Opossum, Sparrow, Crane, Amethyst	13척
기타	Maine(병월선), Tyne(보급선), Ladybird(본부선), 보조선(18척)	21척

216)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512쪽.

217)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60-188쪽.

218)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537-538쪽.

전쟁기간 중 한국해역에 투입되어 동·서해안에서 작전활동을 실시한 함정은 항공모함 트라이엄프(Triumph)호를 비롯해 순양함 벨파스트(Belfast)호와 구축함 코작(Cossack)호 그리고 프리깃함 블랙스완(Black-Swan)호 등이었다.

영국 해군 함대를 지휘한 주요 지휘관은 함대사령관 앤드류스(W. G. Andrewes) 중장을 비롯해 후임인 스콧 몽크리프(A. K. Scott-Moncrieff) 소장과 클리포드(E. G. A. Clifford) 소장이었다.

〈표 3-18〉 영국 해군 함대사령관

계급	성명	재임기간	비고
소장	W. G. Andrewes	1950. 6. 30.~1951. 4. 10.	1951.1.1. 중장 승진
소장	A. K. Scott-Moncrieff	1951. 4. 10.~1952. 9. 23.	
소장	E. G. A. Clifford	1952. 9. 23.~1953. 7.	

#### 나. 영국 지상군의 주요 전투

##### 1) 정주-박천 전투(1950. 10. 29. ~ 11. 5.)

정주-박천 전투는 미 제1군단이 청천강을 도하하여 신의주와 수봉발전소를 목표로 진격전을 전개할 당시 신의주 방면으로 전진한 영연방 제27여단이 1950년 10월 29일과 30일에 정주 지역에서 북한군 제17기갑사단 소속의 보·전 협동부대를 격퇴하고 정주를 탈환한 후 1950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공군 제40군 예하 제120사단의 남하를 저지한 공방전이다.

1950년 10월 8일 서울을 탈환하고 38도선으로 진출한 유엔군의 북진에 따라 영연방 제27여단은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북진작전에 참가하였다. 10월 17일 사리원을 점령한 여단은 10월 21일 배속이 변경되어 미 제24사단과 함께 청천강을 도하하여 박천으로 이동하였다.



1950년 10월 15일 북진작전을 토의중인 영국군 지휘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10월 17일 작전명령 제4호를 통해 전쟁 종결을 위한 한·중국경선으로의 진격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다.<sup>219)</sup> 이에 따라 영연방 제27여단도 정주-선천-신의주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따라 진격에 나섰다. 10월 23일 미들섹스대대를 선두로 청천강을 도하한 여단은 대령강을 도하하기 위해 박천 남쪽 구진에 집결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대령강 대안에 대병력으로 견고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여단의 도하를 저지하려 하였다. 이에 여단장 코드(B. A. Coad) 준장은 호주대대에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호주대대장 그린(Charles Green) 중령은 야간 도하와 여명 공격계획을 여단장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날 23시를 기해 은밀하게 강을 건넌 호주대대 A중대와 B중대는 적이 점령한 고지 하단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C중대의 1개 소대도 도하하여 도로 양측에 잠복하였다.<sup>220)</sup>

10월 24일 04시 북한군의 T-34 전차와 2대의 지프차가 C중대의 소대가 매복한 지점을 통과하였다. 이때 소대원들이 일제히 총격을 가하자 기습

219)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670.

220)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 p.255.



에 놀란 적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도주에 나섰으나 소대 집중사격에 거의 사살되었다. 잠시 후 또 다른 전차가 A중대와 B중대 잠복지점에 나타나 피아간에 치열한 총격전이 전개되었다. 북한군의 저항은 예상 밖으로 완강하여 2일간이나 지속되었고, 호주대대 손실도 적지 않았다. 여단장 코드 준장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0월 26일 새벽에 아길대대를 투입하는 한편 미 공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서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고 다음날 아침 미들섹스대대를 선두로 대령강을 도하하였다.<sup>221)</sup>

10월 27일 여단이 선두로 하여 정주를 향해 진격한 미들섹스대대는 효성령에서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2km 진격에 그쳤으나, 이 전투에서 전차 3대와 76.2mm 자주포 2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다음날인 10월 28일 여단 진격은 아길대대가 선봉이 되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10월 29일에는 호주대대가 아길대대를 초월하여 진격하였다. 그러나 정주 동쪽 6km 지점 소로리에는 전차 6대를 포함한 북한군이 집결하고 있었다.

진격을 멈춘 여단은 미 공군기의 네이팜탄과 로켓탄 공격이 끝나자 호주대대가 공격을 개시하였다. 호주대대장 그린 중령은 D중대에 정면공격을 명령하는 한편 A중대에게 적의 측면을 공격토록 지시하였다. 북한군의 저항은 완강하여 2시간이나 지속되었으나, 아군의 강력한 화력지원에 도주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21시에 적이 전차를 앞세우고 역습을 가해와 자정 무렵까지 공방전이 이어졌다.

북한군은 날이 밝으며 동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여단의 선두부대인 아길대대는 10월 30일 적의 저항 없이 정주에 입성하여 여단 최종목표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호주대대는 T-34전차 3대와 다수의 화기를 파괴하고 50여 명의 적을 사살하였으나, 대대도 9명이 전사하고 30명이 부상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21)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414쪽.

한편 유엔군이 한·중국경을 향해 북진을 계속하고 있던 10월 중순부터 압록강을 도하하여 잠복해 있던 중공군 제13병단 이하 5개 군이 대반격을 감행하여 전황은 급변하기 시작하였다.<sup>222)</sup>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청천강 남안으로 전면철수를 단행하였다. 이때 영연방 제27여단은 박천 부근을 점령하여 대령장 양안을 확보한 후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정주에 머물고 있던 여단장 코드 준장은 미 제24사단장 처치(John B. Church) 소장의 명령에 따라 10월 31일 새벽에 미들섹스대대를 태천으로 급파하고 나머지 2개 대대를 지휘하여 11월 1일 박천으로 철수하였다.<sup>223)</sup> 이어 여단장은 아길대대를 태천으로 보내 미들섹스대대를 지원하게 하는 한편 호주대대로 대령장 도하지점을 확보하였다.

태천으로 급파된 미들섹스대대와 아길대대는 중공군에 밀려 철수에 나선 미 제24사단의 철수엄호임무를 부여받고 2일간 중공군과 대적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 양 대대는 11월 3일 중공군의 추격을 받으며 박천지구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영연방 제27여단은 청천강 북쪽 박천 지구에서 중공군과 첫 방어전을 펼치게 되었다.

여단은 구진 일대 도하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대령장 서쪽에 아길대대와 호주대대를, 북쪽 박천에는 미들섹스대대를 배치하여 반월형 진지를 편성하였다. 배속된 미 제61포병대대 C포대는 대령장 동안에서 지원태세를 갖추게 하였고 이때 여단 우측에는 미 제24사단 제19연대가 구룡강 일대에 배치되었다.

11월 4일 저녁 무렵 우인점의 미 제19연대를 공격했던 중공군 제40군 예

222) 1950년 10월 26일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에게 “반드시 한국군 제1, 제6, 제8사단 등 3개 사단의 섬멸을 목표로 하고, 수 개의 크고 작은 전투로 이를 완수한 후 미군과 영국군을 타격하라”고 제1차 공세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37-38쪽.

223)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1, p.261.

하 제120사단 제358연대가 다음날 07시 30분경 제19연대와 여단 사이에 생긴 8km의 배치공간으로 침투하여 미 제61포병대대 C포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박천전투가 시작되었다.<sup>224)</sup> 이때 중공군은 여단 후방지역인 추도리에 있는 교량을 점령하여 여단 철수를 차단하려 하였다.<sup>225)</sup>

〈상황도 3-11〉 영국군 제27여단의 박천지구 전투(1950. 11. 4. ~ 11. 6.)



22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60쪽.  
 225)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713.

미 제61포병대대는 즉시 보병전투로 전환하여 전면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고군분투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로 방어진지가 돌파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여단장 코드 준장은 아길대대장 넬슨 중령에게 C포대 구출을 지시하였다. 넬슨 중령은 예비인 A중대를 즉각 투입하여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여단장은 대령장 도하지점을 방어하고 있던 호주대대에게 역습명령을 하달하였고, 호주대대는 1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C포대 진지를 탈환하였다.

이 무렵 여단장은 항공관측자로부터 “사단규모 중공군이 박천을 우회하여 여단을 포위하려 한다”는 통보를 받고 미 제1군단장에게 여단 철수를 건의하여 승인받았다.<sup>226)</sup> 이날 호주대대가 근접항공지원을 받으며 온종일 중공군과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여단 주력은 청천강 북쪽 맹중리 부근으로 철수하였고, 저녁 무렵에는 호주대대도 합류하였다.

11월 5일 밤 여단은 추격해 온 중공군이 공격을 재개함에 따라 4시간 동안의 혈전 끝에 적의 파상공격을 저지하였다. 중공군은 동이 트기 시작하자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며 박천전투는 일단락되었다. 영연방 제27여단은 이 전투를 통해 청천강 북쪽 교두보 지역을 고수하였고 유엔군의 차기공세를 위한 발판마련에 기여하였다.

## 2) 교양 신둔리 전투(1951. 1. 2. ~ 1. 3.)

1950년 11월 18일 전 부대의 한국 상륙을 완료한 영국군 제29여단은 개성에 집결한 후 미 제187공수전투단에 배속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때 여단이 부여받은 임무는 개성-시변리간 유엔군 주보급로 상에서 북한군 잔적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이후 숙천으로 북상한 여단은 중공군의 공세로 인한 유엔군 철수작전에서 엄호임무를 담당하였다.

226)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714.

12월 13일 여단은 서울 구파발 동북쪽 고양군 신둔리로 철수하여 미 제1군단에 배속됨과 동시에 서울로 연결된 주보급로의 경비임무 수행과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 이 무렵 미 제1군단은 중공군의 대공세를 예상하고 문산 일대에 미 제25사단을, 고랑포-적성 정면에 한국군 제1사단을 배치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1950년 12월 31일 중공군은 제3차 공세를 단행하였다. 일명 ‘신정공세’로 알려진 이 공세는 임진강 동안에서 북한강 서안에 이르는 지역의 일선에 배치된 한국군 4개 사단, 즉 제1, 제6, 제2, 제5사단을 섬멸하는 것이 목표였다.<sup>227)</sup> 이날 17시를 기해 중공군 6개 군과 북한군 제2군단은 전 전선에 걸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 제50군은 미 제1군단 우측인 고랑포 일대에서 임진강을 도하하여 제39군과 합세하며 한국군 제1사단을 공격하였다. 제40군과 제42군은 미 제9군단 예하 한국군 제6사단과 미 제24사단을 목표로 남하하였다.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서부전선의 제1군단과 제9군단에게 미 제25사단과 영 제29여단의 엄호 아래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여단은 전방에서 철수하는 한국군 제1사단을 엄호하기 위해 서울-의정부를 연결하는 서울 교외선에 좌로부터 얼스터대대, 글로스터대대, 퓨질리어대대를 배치하는 한편 배속된 태국대대에게는 예비로 신둔리 여단본부를 경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영국군 제29여단이 방어진지를 구축한 다음날인 1월 3일 04시경 한국군을 추격해 온 중공군 제50군 예하 제149사단 제446연대는 여단 좌전방 얼스터대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이로써 제29여단은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얼스터대대는 적의 최초 공격을 모든 화기를 집중하여 저지하였으나, 이어진 파상공격에 진지 일부

227)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67쪽.

가 돌파되었다. 대대는 후방으로 진출한 중공군이 예비인 D중대진지마저 공격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11시경 D중대 역습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엘스터대대가 악전고투하고 있던 09시경 중공군 일부가 우전방 장항을 방어중인 퓨질리어대대를 공격하였다. 대대는 대대CP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였으나 제7전차대대 C중대 지원 아래 14시경 이들을 격퇴하였다.

한편 미 제8군사령관은 서울 점령을 기도하는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저지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1월 3일 오전 서울교두보선에서 철수를 명령하였다.<sup>228)</sup> 이에 따라 미 제1군단 주력부대들은 철수를 단행하였고, 18시 30분 경부터 영국군 제29여단의 철수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글로스터대대와 퓨질리어대대는 접적 없이 신둔리 후방으로 철수하였으나, 엘스터대대는 은밀히 우회 침투해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다.<sup>229)</sup>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대대 상황이 악화되자 여단장은 제8전차대대로 증강된 본부중대를 증원부대로 투입하였고,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치열한 백병전 끝에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다음날 여단은 서울을 경유해 수원으로 철수하여 군단예비가 되었다.

이 전투에서 엘스터대대는 부대대장과 전차파견대장이 전사하는 등 300여 명의 인원과 전차 10대가 포함된 다수의 장비가 파괴되는 병력손실을 입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고양 일대에서 중공군을 장시간 지연시키며 군단 주력부대들이 안전하게 한강 남쪽으로 철수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sup>230)</sup>

### 3) 적성 전투(1951. 4. 22. ~ 4. 25.)

적성 전투는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 당시 영연방 제29여단과 배속된

228)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191.

22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81-282쪽.

230)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206.

벨기에대대가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임진강 연안에서 중공군 제 65군의 공격을 지연시킨 방어전투이다. 중공군 제63군은 임진강을 도하하여 감악산을 점령하여 영연방 제29여단과 미 제3사단 연결을 차단한 후 동두천 방면으로 진출하여 연천과 철원지역에서 철수하는 유엔군 퇴로를 차단하려 하였다.<sup>231)</sup>

유엔군 공세에 대응하여 중공군은 1951년 4월 22일 일명 ‘4월 공세’인 제1차 춘계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때 영연방 제29여단은 좌측의 적성 일대에 글로스터대대가 감악산을 등지고 배치되었으며, 중앙에는 퓨질리어대대가 강 남안의 장현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우측에는 4월 4일부로 여단에 배속된 벨기에대대가 강 북안의 금굴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다.<sup>232)</sup>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3군은 1951년 4월 22일 22시경 임진강을 도하하여 영연방 제29여단을 공격하였다. 중공군은 이날 저녁 무렵 글로스터대대와 벨기에대대 주진지를 탐색공격한데 이어 21시경에는 전방 3개 대대 모두에게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은 평소와 달리 탐색공격에 이어 곧바로 주력을 투입하여 공격을 가해왔다.

좌측의 글로스터대대는 가여울 도섭장을 통제할 수 있는 148고지에서 적의 도하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인해전술과 파상공격으로 21시경 진지 일각이 와해되었고, 이때 몰려든 적을 맞아 대대는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중앙과 우측에 배치된 퓨질리어대대와 벨기에대대도 진내로 침투하는 적과 격전을 펼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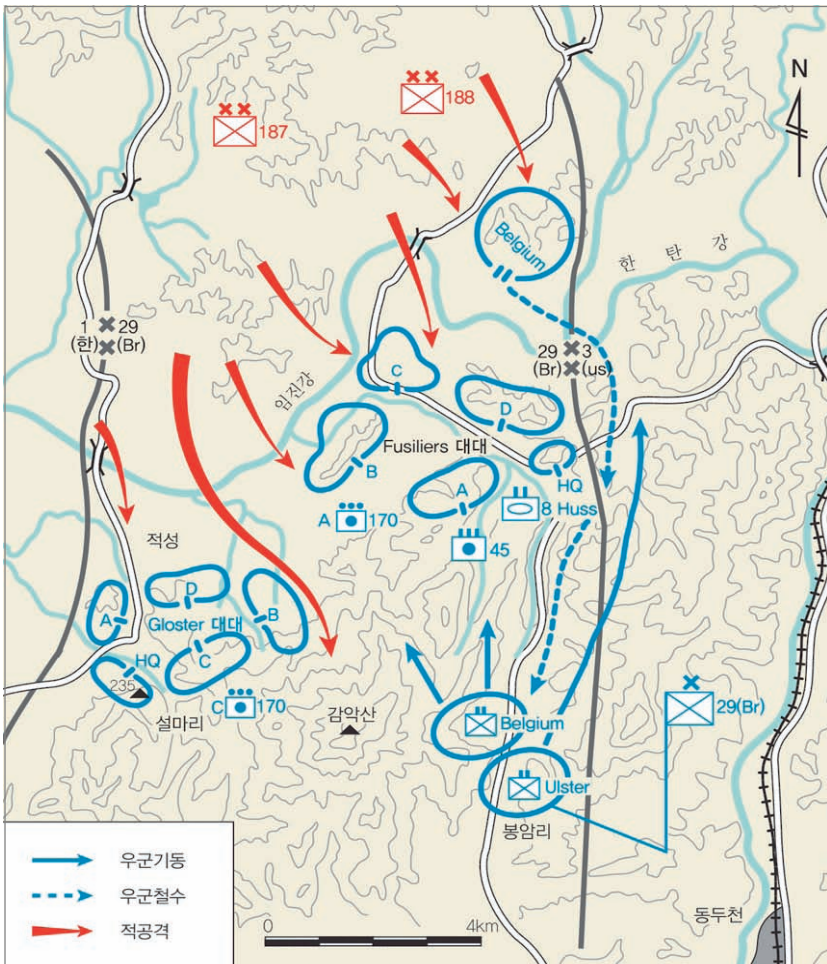
글로스터대대 A중대를 공격하여 발판을 굳힌 중공군 제187사단은 자정 무렵 도하한 후속부대를 투입하여 압도적인 병력으로 3면에서 글로스터대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글로스터대대는 2시간에 걸쳐 결사적으로 저항하였

231)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479쪽.

232)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p.111.

으나, 수적인 열세로 4월 23일 11시 대대장 칸(J. P. Carne) 중령의 명령에 따라 철수를 단행하였다. A중대와 D중대는 설마리의 235고지로, B중대는 그 동쪽의 316고지로 철수하여 재편성에 착수하였다.<sup>233)</sup>

〈상황도 3-12〉 영국 글로스터대대의 적성 전투(1951. 4. 22. ~ 4. 25.)



233)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411.



한편 여단은 4월 23일 온종일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철수를 실시하였다. 글로스터대대가 설마리 일대에 고립되어 적과 교전을 펼치는 가운데 퓨질리어대대는 후방진지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벨기에대대는 동두천을 거쳐 감악산 남쪽 화산리로 이동하고 있었다.

4월 24일 전 지역에서 공격을 재개한 중공군은 특히 글로스터대대에 집중공격을 가하였다. 적은 316고지의 B중대를 기습하였는데, B중대원들은 적의 파상공격에 백병전으로 맞서 저항하였으나 사상자가 속출함에 따라 235고지로 철수하였다. 이때 중대원 중 철수한 인원은 부상병을 포함하여 15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35고지 상황도 마찬가지로 중공군의 치열한 공격으로 교전 중에 있었고, 일대의 근무부대도 적에게 포위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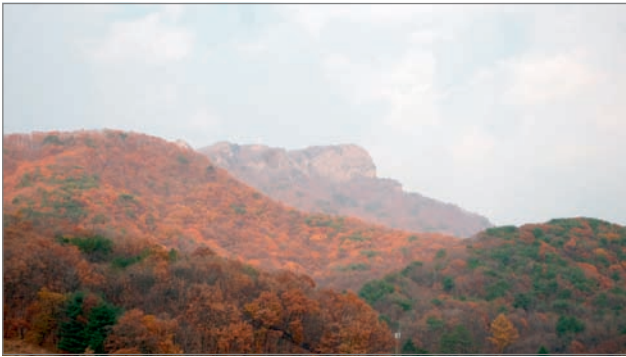
이에 여단장은 4월 24일 07시 30분경 글로스터대대를 구출하기 위해 전차로 증강된 필리핀대대를 투입하여 연결 작전을 시도하였다.<sup>234)</sup> 그러나 선두전차가 적 포탄에 맞아 도로가 차단되어 실패하였다. 이날 오후 벨기에 대대의 지원 아래 실시된 제2차 구출작전마저 실패하였으나 글로스터대대는 여단 구출작전을 기대하고 설마리 고지에 사주방어진지를 구축한 채 수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있었다.<sup>235)</sup>

고립무원 상황 하에서 12시간을 버티던 대대장은 일몰 직전에 전원을 고지정상으로 집결시켰다. 외부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대대장은 고지 정상에서 최후의 일전을 펼치기로 결심하였다. 이 무렵 여단 주력도 감악산으로 진출한 중공군에게 포위될 상황에 처하자 여단장은 여단본부가 있는 봉암리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글로스터대대장에게는 증원부대 투입이 불가함을 통보하면서 대대가 적중을 돌파하여 철수하든지, 아니면 중공군에게 투항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조치하였다.<sup>236)</sup>

234)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p.126.

2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72-78쪽.

236)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p.130.



글로스터대대가 수행한 235고지에서 본 감악산(뒷산)

이때 글로스터대대장인 칸 중령은 막연히 남쪽 계곡만 통과하면 좌인점의 한국군 제1사단으로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4월 25일 10시에 대대장을 비롯하여 군목과 군의관, 의무요원 등은 50여 명의 부상자와 함께 고지에 잔류한 가운데 D중대 엄호를 받으며 하산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쪽으로 철수한 대대주력과 235고지에 잔류한 요원들은 중공군에 포로가 되거나 사살되었고, 대대 철수를 엄호한 후 북쪽으로 철수한 D중대원 39명만 한국군 제1사단에 의해 구출되었다.<sup>237)</sup>

한편 여단 주력부대도 황방리 일대에서 200여 명의 부상자를 전차에 분승한 채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해 봉암리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차의 포탑을 회전시킬 수 없을 정도로 부상자를 탑승시킨 까닭에 전차는 화력지원은 물론 기동성도 발휘할 수 없어 오히려 다수의 부상자들이 희생되었다.

여단이 정오 무렵 군단 명령에 따라 벨기에대대의 엄호 하에 덕정으로 철수를 개시하자 전과확대를 노린 중공군은 추격전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237)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p.426-427.

서 여단은 다수의 인명 및 장비 피해를 입고 덕정과 의정부로 분산 철수하여 의정부에 재집결하였다.



1957년 6월 29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 건립된 영국군 전적비

결과적으로 영연방 제29여단은 적성 전투에서 글로스터대대 D중대를 제외한 전 대대가 포로가 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 병력의 1/3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 희생으로 적성-설마리-동두천으로 돌파하려는 중공군을 3일간이나 저지시켜 군단 주력부대들의 안전한 철수는 물론 서울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 4) 가평 전투(1951. 4. 23. ~ 4. 24.)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에 감행된 중공군 제1차 춘계공세 당시 사창리 한국군 제6사단 전선으로 침공한 중공군 제20군이 가평 방면으로 돌파구를 확대하자 영연방 제27여단이 1951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가평천 일대에 저지진지를 편성하여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미 제9군단이 4월 21일을 기해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김화 방면으로 진격을 개시하자, 다음날인 4월 22일에 중공군은 일명 ‘4월 공세’인 제1차 춘계

공세를 감행하였다. 이 공세에서 조공을 담당한 중공군 제20군 예하 제60사단은 사창리 지역 한국군 제6사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sup>238)</sup> 이런 배경에는 한국군이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기인 산악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받은 한국군 제6사단은 가평 계곡을 따라 철수를 시작하였고, 이들을 지원하던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도 부득이 가평 지역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때 영연방 제27여단은 4월 19일 한국군 제6사단 제19연대에 사창리 지역 전선을 인계하고 군단예비로 가평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4월 23일 저녁 영연방 제27여단장 버크(B. A. Burke) 준장은 미 제9군단장으로부터 “뉴질랜드 포병연대로 한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고, 예하 각 대대를 전방에 배치하여 이들의 철수로를 확보, 엄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sup>239)</sup>

이에 여단장은 캐나다대대를 좌전방 내촌 부근 677고지에, 호주대대를 우전방 죽둔리 일대에 배치하여 북동쪽에서 계곡으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기로 결심하였고 한국 파견근무가 만료된 아길대대는 예비로 가평 부근에 집결시켰다. 여단을 증원하기 위해 배속된 미 제72전차대대 1개 소대는 적의 접근이 용이한 계곡 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죽둔리에, 제2박격포대대 제B중대는 504고지 후방에, 제74공병대대 B중대와 C중대는 가평 북쪽에 배치하였다. 또한 사창리 부근에서 한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고 철수한 뉴질랜드 제16포병대대와 미들섹스대대도 가평 북쪽 가평천변에 배치하였다.<sup>240)</sup>

4월 23일 22시경 한국군 제6사단의 주력을 우회한 중공군은 호주대대

238) 중공군 4월 공세의 주요 목적은 한국군 및 유엔군 수개 사단을 섬멸하여 이들의 계획을 분쇄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주요 공격목표에는 미 제9군단 예하의 한국군 제6사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469쪽.

23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524쪽.

240)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p.141.

방어진지를 탐색한 후 다음날 01시 30분경 신속히 가평을 점령하기 위해 도로와 계곡을 따라 내려왔다. 이를 포착한 호주대대 B중대는 중대 전 화기로 집중사격을 가해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중대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전차소대가 한국군 철수병력을 적으로 오인하여 후방 대대지역으로 후퇴하였다. 전차의 위협에서 벗어난 적은 B중대를 우회하여 대대를 공격하며 피아간 공방전이 밤새 이어졌다.

날이 밝자 적은 가평에 이르는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고지를 확보한 채 끊임없이 파상공격을 가하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시경 여단장은 대대장에게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여단장은 호주대대의 우전방 감제 고지인 504고지와 후방의 미들섹스대대 지역이 적의 포격권에 들어있어 부상자 후송과 재보급에 문제가 되므로 이 지역에 장시간 체류하면 오히려 피해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sup>241)</sup> 이에 따라 대대장은 각 중대에 중대장 재량에 따라 중대별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고, 각 중대는 예비대인 미들섹스대대 진지까지 철수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가평천 서쪽 PPCLI대대는 호주대대와는 달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대장 스톤 중령은 677고지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각 중대를 요지에 배치하고 만반의 방어책을 세워놓고 있었다. 4월 24일 20시경부터 적은 박격포탄을 대대진지에 집중시킨 후 공격신호에 따라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6포병연대가 가평천을 도하하는 적을 집중 포격하고 대대가 전 화력을 집중하자 자정 무렵 중공군은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하였다.

이후 재정비를 완료한 중공군이 4월 25일 02시경 캐나다대대를 재공격 하였으나, D중대 유인작전에 말려 아군의 탄막사격으로 격멸되었다.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여단의 강력한 저지작전과 포병 화력지원에 맞

24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405.

은 인명피해를 입게 된 중공군은 4월 25일 새벽에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를 단행하여 가평전투는 영연방 제27여단 승리로 일단락되었다.<sup>242)</sup> 이 전투 결과 중공군은 유엔군 전선에 대한 분할기도가 좌절되어 그들의 4월 공세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반면에 유엔군은 북한강 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 다. 영국 해군의 주요 활동

##### 1) 초기작전

영국 정부의 극동함대 함정 파견 결정에 따라 1950년 6월 29일 극동함대 사령관은 13,000톤급 경항공모함 트라이엄프(Triumph)호를 비롯하여 6인치포를 장비한 순양함 2척과 구축함 3척, 프리깃함 4척으로 구성된 전대를 일본 사세보항으로 파견하였다. 영국 함대는 일본 영해에 도착과 동시에 미 극동해군사령부 명령으로 2개 조로 분리되었다. 순양함 자메이카(Jamaica)호 조는 지원전대에, 그리고 벨파스트(Belfast)호 조는 미 제77기동타격대에 배속되었다.<sup>243)</sup>

명령에 따라 동해안 미 해군 지원전대로 이동한 자메이카전대는 7월 2일 06시경 미 순양함 쥬노(Juneau)호와 초계를 하던 중 4척의 어뢰정과 2척의 소형 포함이 부상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 함정은 탄약을 만재한 10척의 대형어선단을 호위하고 있었다. 자메이카전대는 쥬노호와 합동으로 적 함정을 포격하여 어뢰정 3척과 포함 2척을 격침시키고 2명을 생포하였다.<sup>244)</sup>

7월 3일 영국 함대는 미 극동해군사령부 작전명령 제8-50호에 따라 서

24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526쪽.

243)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502쪽.

244)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61.

해안 북위 37도선에서 39도 30분까지의 해안봉쇄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해안의 상황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함정들은 동해안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7월 18일 영국 함대는 미 제1기병사단의 포항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38도선 인근 해역에서 경비와 초계임무를 수행하였다.

7월 하순 유엔해군의 전력이 증강되어 영국 함대는 한국지원전대에서 기동분대(TG-96.53)로 변경되었다. 기동분대는 항공모함 트라이엄프호를 주축으로 한 제1기동단대와 순양함 자메이카호를 중심으로 한 제2기동단대, 그리고 순양함 케냐(kenya)호를 주축으로 한 제3기동단대로 편성되었다. 서해안지원분대 사령관에 임명된 앤드류스(W. G. Andrews) 소장은 미 해군을 제외한 모든 유엔해군을 지휘, 통제하게 되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선이 고착된 8월 초 서해안을 담당한 영국 함대는 목포와 인천, 해주 일대에 대한 봉쇄작전을 실시하였다. 이어 하순에는 군산을 봉쇄한데 이어 남해안 여수항을 봉쇄하여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해상경계와 공격기동부대 엄호를 담당하던 영국 함대는 양동작전으로 원산과 삼척, 울진에 대한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부대 엄호를 위한 함포사격을 담당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 종료된 후 미 극동해군사령부는 유엔해군을 재편성하여 영국 함대를 서해지원전대(TG-95.1)로 승격시켰다.<sup>245)</sup>

유엔 지상군의 북진에 따라 지원전대는 함포지원과 도서지방 피난민 구호에 주력하였다. 북진이 한중국경선까지 확대되자 앤드류스 소장은 전황을 낙관하고 대부분의 함정들을 수리 및 휴식을 위해 홍콩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중공군 참전으로 지상군 철수가 시작되자 12월 4일 서해안에 잔류 중인 6척의 함정으로 전대를 구성하여 진남포철수작전에 투입하였다. 전대는

245)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510-512쪽.

진남포로 진입하여 철수작전을 엄호한 후 수송전대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함포사격으로 항만을 파괴하였다.<sup>246)</sup>

1951년 1월초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유엔군이 38도선에서 후퇴함에 따라 미 극동해군은 제8군 철수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해안의 함정은 물론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인천항 철수작전 및 지상군에 대한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때 영국 해군도 이 대열에 합류하여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서해지원전대는 곧이어 단행된 지상군 재반격 시 인천재탈환작전을 지원하였고 유엔군이 확보한 서해안의 각 전략도서를 방어하는데 주력하였다.

## 2) 후기 작전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유엔해군은 38도선 이북의 도서지역을 점령한 유엔 유격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안초계와 전략도서 경비, 적 해안포대 포격 등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미그기에 대한 첩보 수집을 위해 7월 20일 압록강 하구로 북상하여 해상에 추락한 미그기 회수를 시도하였다.<sup>247)</sup> 이어 휴전협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해주항 봉쇄작전을 실시하였다.

11월초 지원전대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압록강 하구 신미도와 가도, 탄도 등을 빼앗긴데 이어 11월말에는 대화도마저 상실하였다. 따라서 지원전대 활동범위는 대동강 하구 남쪽의 석도와 초도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미 극동해군사령관은 휴전회담과 관계가 있는 도서방어 작전에 최우선을 두고 해상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1952년에 접어들어 서해안 해상활동이 소강국면으로 이어지자 지원전대 대부분의 함정들은 동해안으로 이동하여 원산과 성진, 청진 등에서 함포사

246) Thor Thorgrimsson & E. C. Russell, *Canadian Naval Operations in Korean Waters 1950-1955*, pp.30-32;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515-517쪽.

247)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421쪽.



격으로 ‘열차부수기 작전’에 참가하였다.<sup>248)</sup> 이후 서해지원전대의 해상봉쇄 및 해안포격작전은 적이 해안포를 설치하고 사격능력을 강화하면서 점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전대는 9월 23일부로 전대 편성과 임무를 조정하여 항공모함분대와 순양함분대로 구분하였으며, 순양함분대는 도서방어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정전협정 체결로 서해안 도서방어 지휘부로 이용된 초도가 적의 수중에 넘어가자 지원전대는 지휘부를 백령도로 이동하였다. 영국 함정을 중심으로 편성된 서해지원전대는 이후에도 서해의 전략요충인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방어에 주력하였다. 1954년 초 도서방어임무를 미 해군에 인계하고 3월에 귀국하면서 해상작전은 종료되었다.<sup>249)</sup>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건립된 영국군 참전기념물

#### 라. 참전의 결과와 의의

1950년 11월 3일 선발대가 처음으로 한국전선에 투입된 이래로 영국의 병력 파견은 꾸준히 이루어져 1951년 6월 30일에는 파병인원이 8,278명을 기록하였다. 1년이 경과한 1952년 6월 30일에는 13,043명으로 늘어났

248)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532쪽.

249)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88쪽.

고,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에는 14,198명으로 증가하였다.<sup>250)</sup> 또한 영국은 6·25전쟁 기간 중 2개 보병여단과 1개 해병특공대 그리고 항공모함 1척이 포함된 17척의 함정을 파견하는 등 연인원 56,000명을 참전시켰다.<sup>251)</sup>

〈표 3-19〉 영국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지 상 군	해 군
56,000명	보병여단 : 2 해병특공대 : 1 병력 : 14,198명	함정 17척 (항모 1척 포함)

영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전투에서 후크고지 전투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수행한 여러 전투와 작전에서 1,078명이 전사하고 2,76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79명이 실종되고 978명이 포로가 되었다.<sup>252)</sup> 영국군 전사자 중 885명은 현재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다.

〈표 3-20〉 영국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합계
1,078명	2,674명	179명	978명	4,909명

영국군은 지상군이 1954년부터 점진적으로 철수를 개시하여 1957년에 완료하였고, 해군은 1955년 3월에 귀국길에 올랐다. 영국군은 육군과 해군,

250)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251)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14쪽.

252)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16쪽.

그리고 해병대를 파견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 미군과의 공조를 통해 전쟁에 참여하였다. 또한 영국군의 참전은 영연방국가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의 참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 2. 프랑스(France)군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프랑스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1948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프랑스는 한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할 무렵 프랑스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인도차이나전쟁이 격화되어 국방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아 국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월 22일 병력파견을 결정하였다. 제1차 조치로 극동함대에서 활동 중인 구축함 그랑디에르(La Grandiere)호를 유엔군사령부 예하 미 해군함대에 파견하여 한국을 지원하기로 하였다.<sup>253)</sup> 이에 따라 유엔 해군에 합류한 그랑디에르(La Grandiere)호는 1950년 12월에 한국해역을 떠날 때까지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해 각종 해상작전에 참여하였다.

전쟁 초기 자국 상황을 이유로 파병에 미온적이던 프랑스 정부는 국내에

253) 이에 앞서 프랑스는 1950년 7월 19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에 동참하였다.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6.

서의 참전여론이 비등해지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집단안보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상군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8월 25일 순수한 지원병으로 구성된 1개 보병대대가 유엔군사령부 예하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육군은 1950년 9월 18일 현역과 예비역에서 지원한 인원으로 보병 1개 대대와 지원부대인 1개 중대를 편성하였다. ‘유엔군 산하 프랑스 지상군부대(Forces Terrestres Francaises de I. O. N. U.)로 명명된 파병부대는 대대급으로 전투 병력은 장교 39명과 부사관 172명, 병사 180명이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교 10명과 부사관 40명, 병사 350명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1개 중대를 두었다.

보병대대는 제1중대가 식민지 보병 등 외인부대 출신, 제2중대는 기갑병과 수송병 출신, 그리고 제3중대는 공수부대와 헌병대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다.<sup>254)</sup> 이러한 프랑스군 지휘관으로는 몽끌라르(Ralph Monclar) 중령이 임명되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프랑스군으로 종군하고 중장으로 예편하였으나,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대대 규모 부대를 편성하자 스스로 계급을 중령으로 낮춰 지원하였다.<sup>255)</sup>

프랑스대대는 오부르 훈련소에서 파견에 필요한 소정의 특수훈련을 마치고 10월 25일 수송선 아토스(Athos II)호에 승선하여 마르세유항을 출발, 11월 29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대구의 유엔군수용대로 이동하여 부대정비와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프랑스대대는 12월 11일 미 제2사단 제23연대에 배속되어 수원에서 사단에 합류하였다.<sup>256)</sup> 당시 미 제

254) 에드완 베르고 저, 김병일·이해방 공역, 『6.25전란의 프랑스대대』(서울: 동아일보사, 1983), 51쪽.

255) 몽끌라르 중령은 프랑스군의 총지휘관으로서 주로 정책 및 행정 분야를 관장하였으며, 실제 병력 지휘는 대대장 르 미르(Le mire) 소령이 맡았다.

256)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7.

2사단은 군우리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어 재편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후 프랑스대대는 미 제2사단 제23연대와 함께 원주-충주간 주도로 연변으로 진출하여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적의 남침에 대비하였다.



전선행 기차에 오르는 프랑스대대 장병들

프랑스대대는 줄곧 미 제2사단 제23연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는데, 특히 1951년 2월 지평리 전투에서 용맹성과 탁월한 전투력을 발휘하였다. 이외에도 프랑스군은 원주 쌍티널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티본(T-Bone)고지 전투, 화살머리고지 전투, 중가산 전투 등 격전의 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작전임무를 완수하였다.<sup>257)</sup>

프랑스대대는 대대본부와 본부중대, 3개 전투중대와 1개 화기중대로 편성되었다. 또한 전투중대는 각각 3개 소대 및 1개 화기소대를, 화기중대는 75mm 무반동총소대와 기관총 소대, 81mm 박격포소대를 예하에 편제하였다.<sup>258)</sup> 전쟁기간 중 참전한 프랑스 지상군 주요 지휘관은 총지휘관인 몽클라르 중령을 비롯하여 다음 <표 3-21>과 같다.

257)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278~291쪽.

258) 에드완 베르고 저, 김병일 · 이해방 공역, 『6.25전란의 프랑스대대』, 370쪽.

〈표 3-21〉 프랑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직위	지휘관			비고
		계급	성명	참전기간	
프랑스대대	총지휘관	중령	Monclar	1950.11.~1951.11.	미 제2사단 배속
	대대장	중령	Lemire	1950.11.~1951.9.	
		중령	Beaufond	1951.9.~1951.11.	
		중령	Borreil	1951.12.~1952.11.	
		중령	Germiny	1952.12.~1953.10.	

#### 나. 프랑스 지상군의 주요 전투

##### 1) 쌍터널부근 전투(1951. 1. 31. ~ 2. 2.)

쌍터널 부근 전투는 미 제2사단 제23연대에 배속된 프랑스대대가 미 제3대대와 함께 1951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지평리 동쪽에 위치한 쌍터널 부근에서 중공군 제42군 예하 제125사단과 전개한 공방전이다.

유엔군은 1951년 1월 15일부터 전개한 위력수색작전 결과, 수원-여주 이남 지역에는 소규모 중공군부대만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월 25일을 기해 일제히 반격작전을 감행하여 작전 주도권을 만회하였다. 이때 프랑스대대는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중장의 원주탈환 명령에 따라 1951년 1월 10일 쟁탈전에 참여한 이래로 원주 일대에서 정찰작전에 임하고 있었다.<sup>259)</sup>

1월 30일 프랑스대대는 지평리 동쪽에 위치한 쌍터널 부근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된 미 제2사단 제23연대 정찰대와 F중대를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미 제23연대 제3대대와 함께 쌍터널 부근의 초왕리로 이동하였다. 다음날

259)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p.220.

대대는 미 제23연대 포병대대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적이 철수함으로써 대대는 쌓터널을 감제할 뿐만 아니라 지평리로 연결되는 도로를 완전 장악할 수 있는 279고지와 459고지에 사주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대대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방어진지 구축작업에 임하였으나, 얼어붙은 땅으로 인해 야전 삽자루가 부러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sup>260)</sup>

이처럼 대대가 방어진지 구축과 야간정찰활동에 주력하던 2월 1일 04시 50분부터 중공군 제42군 예하 제125사단 제375연대와 제374연대가 프랑스대대와 미 제3대대를 포위 공격하면서 쌓터널 전투가 시작되었다.<sup>261)</sup> 중공군은 동쪽의 미군 중대와 서쪽의 279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프랑스대대 제3중대에 공격을 집중하였다. 전투는 곧이어 남쪽의 제2중대와 453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1중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사격전과 백병전이 이어지며 대대는 제3중대 니콜라이 중위가 전사하고, 본부중대장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인집 미군 제3대대 예하 중대가 탄약부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자 프랑스대대는 운전병과 위생병, 통신병까지 합세하여 이들에게 긴급히 보급품을 지원해 주었다. 얼마 후 이런 상황을 감지한 사단은 6대의 수송기를 동원하여 탄약과 보급품을 공중 투하하였다. 07시경 중공군 제373연대는 프랑스대대 진지에 대하여 전면공격을 개시하여 453고지에서는 처절한 육박전이 전개되었다. 10시 30분부터 대대는 적의 공세에 밀려 진지 일부가 돌파되었고, 일부 고지에서는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정오 무렵 대대는 역습을 통해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였으나 쌓방 간 전투는 더욱 가열되었다.

프랑스 대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포병화력과 전차의 엄

260) 에드완 베르고 저, 김병일·이해방 공역, 『6.25전란의 프랑스대대』, 114쪽.

26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p.248-249.

호 하에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그러던 중 18시를 전후하여 중공군의 공격은 현저히 둔화되어 갔다. 이 무렵 대대를 지원할 미 제23연대 제1대대가 적이 매설한 도로장애물을 제거하고 도착하였고, 19시에는 제2대대 일부 병력도 쌍터널에 도착하면서 전력이 급격히 증강되었다. 2월 2일 미 제23연대의 전 병력은 터널 부근에 합세하여 방어진지를 강화한 후 정찰대를 파견하여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였다.<sup>262)</sup> 대대는 정찰을 통해 한 촌락에 은신해있던 30여 명의 적을 기습 공격하였으며, 분산 퇴각하는 적을 포격지원 아래 격멸하여 쌍터널 전투는 종료되었다.



1974년 10월 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1-2에 건립된 프랑스군 참전기념비(1989년 3월 16일 재건립)

프랑스대대를 포함한 미 제23연대는 이 전투에서 중공군 1,300명을 사살하여 중공군 제373연대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으나,<sup>263)</sup> 대대도 전사 27명, 부상 103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프랑스대대는 중공군에게 많은 인명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재반격작전을 실시중인 유엔군

262) 에드완 베르고 저, 김병일·이해방 공역, 『6.25전란의 프랑스대대』, 129쪽.

263)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p.249.



전의를 고양시켰다. 대대는 후일 이 전투 공로로 미 대통령 부대표창과 프랑스 육군 부대표창의 영예를 안았다.<sup>264)</sup>

## 2) 지평리 전투(1951. 2. 13. ~ 2. 15.)

지평리 전투는 중공군 2월 공세 당시인 1951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미 제2사단 제23연대가 배속된 프랑스대대와 함께 원주 북방 지평리에서 중공군 제39군 예하 3개 사단의 집중공격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23연대와 프랑스대대는 좌우 인접부대가 중공군 압력에 밀려 철수함에 따라 중공군 제39군에게 포위되자 병력을 전면방어태세로 배치하였다. 고립된 상태에서 4일간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막아낸 후 미 제5기병연대와 의 전선이 연결되면서 전투를 종료하였다.

중공군 신정공세에 밀려 오산-장호원 선으로 철수한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은 1951년 1월 25일 한강선을 목표로 재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이에 미 제10군단장은 이들의 동측방을 엄호하기 위해 쌍터널 전투에서 승리한 미 제2사단 제23연대와 프랑스대대를 중심으로 한 미 제23전투연대단을 2월 3일부터 지평리에 배치하였다.<sup>265)</sup>

당시 홍천-여주 축선 상에서 병참선의 중심지인 지평리는 유엔군 입장에서 인접지역 전체 도로망을 통제하고 한강선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미 제10군단의 좌측방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진지이자 남한강 서쪽 광주지역의 적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sup>266)</sup>

264)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507쪽.

265)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p.251. 미 제23전투연대단은 제23연대와 프랑스대대 외에도 제37야포대대, 제1특공중대, 제503야포대대 B포대, 제82대공자동화기 고사포대대 B포대, 제2공병대대 B중대로 편성되었다.

266) Hq, X Corps, "Battle of Chipye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Inclosure No. 1, p.1,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연대장 프리먼(Paul L. Freeman) 대령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동쪽에 제3대대, 남쪽에 제2대대, 북쪽에 제1대대, 그리고 서쪽에 프랑스대대를 배치하여 사주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프랑스대대가 점령한 지역은 북서쪽 갈지산과 서쪽 248고지로부터 감제되고 있었다.<sup>267)</sup>

한편 2월 공세를 준비하던 중공군은 전투력이 약한 황성지구의 한국군을 선공하여 와해시킨 다음 지평리 지구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 제39군 예하 제115, 제116사단과 제42군 예하 제126사단 및 제125사단 제375연대가 지평리의 미군을 견제하게 되었다. 이들 부대는 2월 공세 개시일인 2월 11일에 남한산에서 지평리로 이동을 완료하였다.<sup>268)</sup>

이날 17시를 기해 개시된 2월 공세로 황성지구 유엔군 방어선이 급속하게 와해되자, 중공군 사령관 평더화이는 “한국군 제8사단은 대부분 섬멸되었고... 일부가 정면에서 지평리의 적을 포착하고, 주력은 측후로 침투하여 적이 철수할 때를 틈타 섬멸하라”고 지시하였다. 부사령관 덩화는 이 지시에 따라 제40군 제119사단에게 제39군 주력 및 제42군 제126사단과 함께 2월 13일 저녁 지평리 미 제23연대를 포위 섬멸하라고 명령하였다.<sup>269)</sup>

중공군은 2월 12일 저녁 지평리로 연결되는 도로를 차단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지평리를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이때 연대장 프리먼 대령은 지평리를 방문한 군단장에게 철수를 건의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리지웨이 제8군 사령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평리를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sup>270)</sup> 이에 따라 제23연대장은 지평리 사수를 결심하고 4개 대대를 연결하는 원형의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2월 13일 17시 30분 중공군은 지평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

267) 에드완 베르고 저, 김병일·이해방 공역, 『6.25전란의 프랑스대대』, 137쪽.

268)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359쪽.

26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366쪽.

270)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p.284.

은 미 제23연대 진지 사방에서 횃불을 들고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였고, 22시 15분부터 포격과 함께 전 방어선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였다. 연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진지주변에 탄막을 구성하였다. 이에 중공군도 300여 발의 포격지원을 받으며 진지돌파를 기도하였다.

2월 14일 02시를 기해 중공군은 피리와 나팔을 불어대며 프랑스대대 우 일선의 전초진지를 공격하였다. 대대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에 대응하였고, 순식간에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수류탄전과 육박전이 펼쳐졌다. 이때 갑자기 적이 후퇴를 시작하여 그것으로 전투는 일단 종료되었다. 그러나 아군 포대는 진지 전방에 5분 간격으로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이후에도 중공군은 수차에 걸쳐 정면 돌파를 기도하였고, 대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진지 방어에 나선 프랑스대대 병사들

2월 15일 날이 밝으며 대대는 공수투하로 탄약과 보급품을 지원받고 헬리콥터로 부상병을 후송하면서 진지를 재편성하였다. 야간공격으로 전환한 중공군은 20시 30분을 기해 연대 방어진지 전면에 대해 박격포 사격의 엄

호를 받으며 공격을 재개하였고, 22시경에는 전투가 절정에 달하였다. 이때부터 3시간 동안 지평리 상공은 쌍방이 쏘아 올린 조명탄과 예광탄, 신호탄으로 불야성을 이룬 가운데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중공군이 주공을 남쪽 미 제2대대 G중대 정면으로 지향하여 G중대는 백병전으로 맞서며 저항하였다. 그러나 적이 중대와 프랑스대대 사이로 공격해오면서 진지를 상실하였는데,<sup>271)</sup> 이는 곧 전체 방어선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G중대는 진지탈환작전을 실시했으나 끝내 실패하자 200m가량 후방에 축차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때 나머지 삼면의 방어진지에서는 박격포 사격과 포병의 조명지원 아래 총력전을 펼치며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특히 서쪽에 위치한 프랑스대대는 인접한 미 제2대대 진지 일부가 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한편 지평리에서 미 제23연대가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미 제9군단 예하 제5기병연대는 지평리 제23연대를 지원하라는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17시에 남한강을 건너 곡수리 방면으로 진출하였다.<sup>272)</sup> 기병연대는 15시를 기해 전차 23대에 L중대원 160명을 탑승시켜 유엔공군의 항공지원 아래 돌파작전을 개시하였다. 결국 연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보병들의 손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17시 15분경 미 제23연대와 연결에 성공하였다.

이로부터 상황은 역전되어 중공군이 지평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하였고 지평리 전투는 종료되었다. 이 전투에서 미 제23연대와 프랑스대대는 중공군에게 4,946명으로 추산되는 인명손실을 가하여 재반격작전을 실시중인 서부전선 부대의 우측방을 공격하려던 중공군 2월 공세를 저지하는데 기여하였다.

271)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512쪽.

272) Hq, X Corps, "Historical Summary of the G-3 Section Activities for the Period 0001 to 2400 Hours 14 Feb 51"(1951. 1. 15), *Supporting Documents to Command Report: G-3 Daily Journal*.

## 3) 화살머리고지 전투(1952. 10. 6. ~ 10. 10.)

1952년 10월 3일 프랑스대대는 미 제23연대 제3대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프랑스대대가 인수한 작전지역 내에는 지형의 모습이 화살촉과 같다고 하여 화살머리고지라 명명된 281고지가 위치하고 있었다. 미 제23연대장 스틸웰(Joseph W. Stillwell) 대령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지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제1중대를 좌전방 281고지 주변에, 제3중대를 중앙 개활지에, 그리고 제2중대를 우전방 278고지 및 그 북쪽 능선으로 연결된 방석동 일대에 배치하여 백마고지에 배치된 한국군 제9사단과 연결하였다. 아울러 공병소대를 281고지 전방에 배치하여 적의 행동을 감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축차적인 지연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10월 3일 대대는 귀순한 중공군으로부터 대규모 공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 내용은 특수훈련을 받은 2개 연대 중공군이 281고지와 한국군이 방어중인 백마고지를 조만간 공격하고 이어 1개 연대가 전과를 확대하기 위해 후속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진술내용은 다른 정보에 의해서도 확인되어 대대는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였다.<sup>27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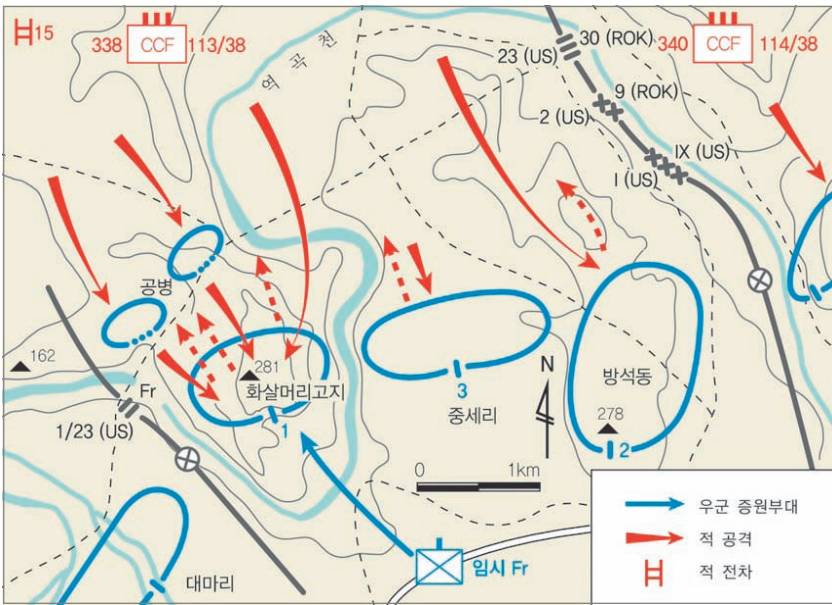
10월 6일 중공군은 평소와 달리 포격의 빈도를 늘려 대대의 방어진지를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대대 진지 내 모든 교통망은 마비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대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조망을 보강하고 장애물을 증설하였다. 이날 17시 20분에 적의 전차 15대가 출현한데 이어 18시 45분에 적은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공격은 우측에 인접한 백마고지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어둠을 이용한 적의 공격에 대응하여 대대는 조명용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며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적의 포격에 대대 야전축성물 대부분이 파괴된

273) 에드완 베르고 저, 김병일·이해방 공역, 『6.25전란의 프랑스대대』, 333쪽.

데다 탄약고의 예비보유량마저 거의 바닥이 나 대대는 탄약을 비롯한 각종 보급품과 포병화력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시가 조금 지날 무렵 전초대대가 수 미상의 강력한 적과 접전중임을 보고하면서 예측을 불허하는 화살머리고지 전투가 시작되었다.

〈상황도 3-13〉 화살머리고지(291고지) 전투(1952. 10. 6. ~ 10. 10.)



전초인 공병소대는 4개 중대규모의 적을 맞아 포병지원과 중박격포사격을 유도하며 적을 저지하였으나, 밤이 깊어가며 적은 파상공격으로 대대 전지역을 위협하였다. 중공군은 주공인 제377연대를 화살머리고지에 집중하였고, 일부는 아군의 포격을 뚫고 진내로 접근하였다. 지칠 줄 모르고 밀어닥치는 중공군에 대항하여 공병소대원들은 처절한 백병전을 전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사상자가 늘어 부득이 281고지로 철수하였다.

잠시 후 적이 주저항선으로 접근하고 전투가 더욱 가열되자 아군은 4개 포병대대가 시간당 6,000발의 포격을 실시하고, 중화기중대도 81mm박격포 탄 800발과 75mm 무반동총 150발을 사격하는 등 엄청난 화력을 화살머리고지에 쏟아 부었다.<sup>274)</sup> 이로 인해 적의 파상공격은 23시경 저지되었고, 이 틈을 이용하여 대대는 병력과 중화기를 증원하여 281고지에 배치된 제1중대 방어력을 보강하였다.

대대는 10월 7일 01시 40분과 03시에 중공군의 2회에 걸친 공격을 격퇴하였고, 날이 밝자 중공군이 철수하며 전선은 잠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다음날 저녁에 다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대대 우측 방 한국군 제9사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에 배치된 제2중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중대가 포병화력 엄호 하에 치열한 격전을 벌여 이들을 격퇴하였다. 물러난 중공군은 재편성을 실시한 후 자정이 지날 무렵 공격 방향을 전환하여 중앙의 제3중대를 공격하였다. 이에 대대는 총력전으로 맞서 이 공격마저 격퇴하여 화살머리고지 전투는 프랑스대대의 승리로 종료되었다.

중공군이 물러난 후 정찰대가 진전을 정찰한 결과, 600여 구의 시체가 도처에 널려 있었고, 소화기 112정과 중화기 67정, 다수의 개인장구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대대도 전사 48명, 부상 130명의 손실이 발생하였다.<sup>275)</sup> 이 전투에서 프랑스대대는 많은 인명손실을 입으면서도 끝까지 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중공군에게 큰 타격을 주어 전의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인접 한국군 제9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여 백마고지를 방어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274) 에드완 베르고 저, 김병일·이해방 공역, 『6.25전란의 프랑스대대』, 345쪽.

275)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544-545쪽.

### 다. 참전의 결과와 의의

참전기간 동안 프랑스군의 병력파견은 약 1,0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1951년 6월 30일에는 738명을 그리고 1년 후인 1952년 6월 30일에는 1,185명을 기록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1일 병력현황은 1,119명이었다.<sup>276)</sup> 1개 보병대대와 1척의 구축함을 파견한 프랑스는 기간 중 연인원 3,421명을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sup>277)</sup>

〈표 3-22〉 프랑스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전규모	
	지상군	해군
3,421명	보병대대 : 1 병력 : 1,185명	구축함 : 1척

프랑스군은 지평리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62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1,00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7명이 실종되고 12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sup>278)</sup>

〈표 3-23〉 프랑스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262명	1,008명	7명	12명	1,289명

27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277)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44쪽.

27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4.



반면에 프랑스대대는 1953년 10월 9일 전쟁기간 중 이룩한 전공으로 미 제9군단장으로부터 Legion of Merit 훈장을 수여받았고, 10월 13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는 영광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이 프랑스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표창 2회, 미국대통령 부대표창 2회, 프랑스 국방장관 표창 4회를 수여받았으며, 을지무공훈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무공훈장 12회, 미국 무공훈장 7회 그리고 프랑스 훈장 7회 등 국내·외의 각종 훈장을 수여받았다.

프랑스는 국내외적인 악조건과 일부 참전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였다. 프랑스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협상 원칙을 중시했으나, 6·25전쟁에서는 유엔 결의에 따라 병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었다. 프랑스군이 참전과정에서 보여준 용맹성과 자유수호에 대한 의지는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나아가 자유세계를 결속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군 참전으로 그들의 강인한 국민성과 문화를 더욱 존중하고 프랑스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 3. 터키(Turkey)군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터키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길목에 위치한 터키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일시나마 어려움을 겪었다. 터키는 1945년 2월 22일 대독일 선전을 포고함으로써 중립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친서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소련의 팽창주의와 맞서 왔던 터키는 NATO에 가입하면서 더욱 반공적인 정책을 강화하

는 등 반공국가로 변모하면서 대한민국 우방이 되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국내의 공산주의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터키는 유엔의 대한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하였다. 7월 중순 유엔 사무총장 요청에 따라 자국 안보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5,500명의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였다.<sup>279)</sup> 터키 정부는 7월 18일 군 수뇌부를 포함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1개 여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회도 7월 25일에 파병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sup>280)</sup> 이로써 터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파병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7월 25일 유엔안보리에 통보하였다.

1950년 8월 3일 터키 육군은 보병 제28사단 제241연대와 제2기갑여단 제2포병대대를 주축으로 ‘파한 터키군’이란 전투부대를 편성하였다. 여기에 공병, 수송, 의무, 병기 및 통신부대 등을 제8군단 예하 제4군관구에서 차출하여 지원부대를 편성하여 독립작전을 펼칠 수 있는 여단편성을 완료하였다.<sup>281)</sup> 파한여단장에 제2기갑여단장인 타흐신 야즈즈(Tahsin Yazici) 준장을 임명한 터키 육군은 파한 장병들에 대한 병과별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9월 13일에 완료하였다.

터키 제1여단으로 명명된 터키여단 5,090명은 앙카라의 에티메스굿(Etimesgut)에서 이스켄데룬(Iskendrun)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3개 제대로 나뉘어 9월 25일부터 미 수송선편으로 이스켄데룬(Iskendrun)항을 출발해 제1진이 10월 17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도착 직후 대구에 위치한 유엔군수용대로 이동한 터키여단은 미 제8군 예비인 미 제9군단에 배속되

279) 멘데레스 터키 총리는 이 결정에 대해 “터키의 나토가입에 가교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알리 데니즐리 지음, 이선미 옮김, 『터키인이 본 6·25전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34쪽.

280)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2.

281)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289쪽.

어 대전-대구 간 주보급로 경계임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전쟁에서의 본격적인 작전활동을 개시하였다.<sup>282)</sup>

6·25전쟁 기간 동안 제1·제2·제3의 3개 여단이 1년 단위로 교대로 참전한 터키군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개한 군우리 전투를 비롯하여 평양철수작전과 김량장리 전투 이외에도 수리산 전투, 장승천 전투, 사기막 전투, 네바다전초전 등을 수행하였다.

제1여단장 야즈즈 준장을 비롯하여 장교 259명과 사병 4,809명으로 편성된 터키군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은 다음 <표 3-24>와 같다.

<표 3-24> 터키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직위	지휘관			비 고
		계급	성 명	참전기간	
제1여단	여단장	준장	Tahsin Yazici	1950.9.~1951.12.	
	제1대대장	소령	Imadetin Kuranel	1950.9.~1951.4.	
	제2대대장	소령	Mithat Uluunlu	1950.9.~1951.5.	1951.5.17. 전사
	제3대대장	소령	Lutfu Bilgin	1950.9.~1951.5.	1951.5.23. 전사
	포병대대장	소령	Tahsin Kurtay	1950.9.~1951.8.	
제2여단	여단장	준장	Namc Arguc	1951.8.~1952.9.	
	제1대대장	소령	Tahir Alaybeyii	1951.6.~1952.8.	
	제2대대장	소령	Enver Saltik(Atak)	1951.8.~1952.9.	
	제3대대장	소령	Yekta Koran	1951.8.~1952.9.	
	포병대대장	소령	Kerim Kirtes	1951.6.~1952.8.	
제3여단	여단장	준장	Sirri Acar	1952.7.~1953.9.	
	제1대대장	소령	Fahrettin Ulukan	1952.7.~1953.9.	
	제2대대장	소령	Nizazi Bengisu	1952.7.~1953.9.	
	제3대대장	소령	Turgut Vural	1952.7.~1953.9.	
	포병대대장	소령	Faruk Guventurk	1952.7.~1953.9.	

282)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3.

〈상황도 3-14〉 터키군 주요 전투



나. 지상군의 주요 전투

1) 군우리 전투(1950. 11. 26. ~ 12. 1.)

군우리 전투는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시한 미 제8군이 중공군에 밀려 철수작전을 전개할 당시 터키 제1여단이 군우리-순천간 협곡지대에서 중공군 제38군 예하 제112·제113·제114사단의 집중공격을 받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195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철수작전이다.

1950년 11월 24일 10시를 기해 일명 ‘크리스마스 공세’를 전개한 미 제9군단은 압록강을 향해 진격을 개시하였다. 군단의 우측을 담당한 미 제2사단은 구장동-온정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전황이 급변함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청천강 연안으로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때 제9군단은 제8군 우익을 엄호하면서 군우리-안주 선으로 이동하여 차기공격을 준비하며 터키여단을 계속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sup>283)</sup>

이에 따라 11월 28일을 철수작전을 개시한 미 제9군단 예하 제2사단은 터키여단 및 한국군 제7사단 제3연대와 함께 군우리 지역에서 지연전을 전개하여 청천강 북쪽 철수병력에 대한 엄호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서부전선의 철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군단장은 미 제2사단의 철수를 승인하였다.

한편 터키여단은 11월 20일 장단에서 군우리로 이동하여 미 제9군단 예비로 있었다. 이때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시한 유엔군 중 한국군 제2군단 담당지역인 덕천-영원선이 중공군의 역습으로 돌파되었다. 이에 군단장은 이곳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터키여단에 하달하였다.<sup>284)</sup> 군우리-덕천 간에는 1,000m 이상의 산악지대에 좁고 굴곡이 매우 심한 도로가 동서를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 특히 와원-알일령-용덕리에 이르는 20km 구간은 바위와 가파른 절벽으로 이어져 통행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었다.

11월 26일 18시 명령에 따라 터키여단은 부연대장 도라(Dora) 대령이 지휘하는 ‘도라특수임무부대’를 선두로 와원리로 향해 자정이 넘어 도착하였다. 다음날 덕천으로 향하던 여단은 알일령을 통과할 즈음 덕천진출을 중지하고 용덕리 부근에 저지진지를 구축하라는 수정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여단장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군단이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는 것이 어렵다 판단하고 병력을 와원으로 복귀시켰다.

283) HQS, EUSAK, Command Report, Narration, Dec. 50.

284)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71.

10여 시간의 강행군 끝에 와원리로 돌아온 대대가 휴식을 취하던 중 여단 후미 2개 소대가 중공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소대장들이 전사하고 미 고문관이 포로가 되었다. 이에 여단장은 제2대대에 경계강화를 지시하고 제3대대 제11중대에 피습된 정찰대를 지원토록 하였으나 이미 적이 진출함으로써 실패하였다. 이때 중공군이 도로 외에도 산악지대를 통해 공격함으로써 여단은 좌우 양쪽에서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수차에 걸친 적 공격을 격퇴하면서 제2대대와 제3대대는 목표고지를 점령하였고, 이로써 양 대대는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 28일 14시경 중공군은 제2대대 지역으로 대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제2대대와 제3대대 사이로 집중공격을 가해 진지 일부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도라 대령은 2km 후방에 위치한 여단사령부로 가 상황을 보고하고 방어에 보다 유리한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여단장은 적의 병력을 2개 사단규모로 판단하고 비교적 넓은 공간에 위치한 5km 후방 신립리를 다음 저지진지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1월 28일 15시를 기해 각 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sup>285)</sup>

일몰 무렵 방어진지 편성이 용이한 신립리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한 터키 장병들은 영하 20도의 강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처음 경험한 중공군의 파상공격에 대한 두려움 등이 겹쳐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채 하룻밤을 보냈다. 이때 미 제9군단사령부는 11월 28일 24시부로 터키여단을 미 제2사단으로 배속을 변경하였으나 여단은 미 제2사단과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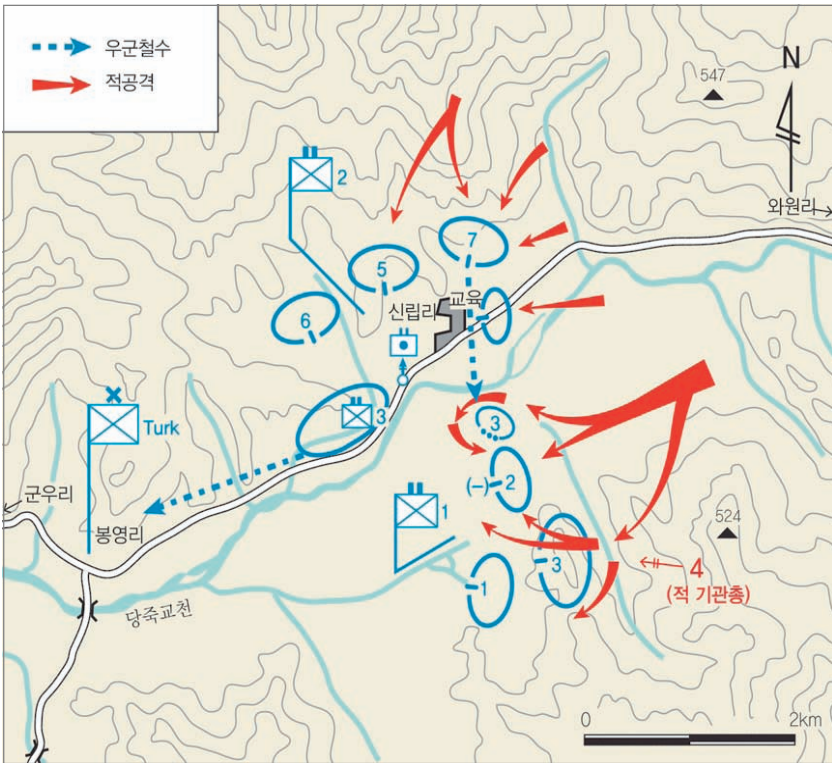
신립리에서 전면방어진지를 구축한 여단은 11월 29일 자정 무렵 양측방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았다.<sup>286)</sup> 적은 신립리의 차량과 탄약 그리고 후방

285) 알리 데니즐리 지음, 이선미 옮김, 『터키인이 본 6·25전쟁』, 45쪽.

286)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108.

에 배치된 포병대대와 박격포중대, 제3대대를 목표로 공격하였다. 기습을 당한 장병들은 무질서하게 봉오리를 향해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신림리 동쪽 전방에 배치된 제2대대와 제3대대도 적의 공격으로 격전을 펼치고 있었다.

〈상황도 3-15〉 터키여단의 신림리 전투(1950. 11. 28. ~ 11. 29.)



여단장은 가능한 모든 병력을 집결시켜 봉오리 동쪽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철수병력을 모아 150명 단위로 중대를 편성하여 동쪽의 야산으로 투입하였다. 이 무렵 미 제2사단 예하 1개 전차소대로 증강된 제3대대가 봉오리

북쪽으로 진출해 진지를 구축하였다.

한편 전방의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맞아 백병전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또한 포위된 부대에서는 착검한 지휘관이 선두에서 돌진하면 부대원들이 후속하면서 적진으로 돌격하여 퇴로를 확보하였다. 이처럼 퇴로를 확보한 전방부대는 11월 29일 오후에서야 여단사령부가 위치한 봉오리로 철수할 수 있었다. 이날 터키여단은 미 제8군의 오른쪽으로 침투한 대규모의 중공군을 맞아 24시간의 격전 끝에 포위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11월 29일 17시경 북쪽을 담당한 미군 대대가 중공군에게 포위되자 여단에 통보도 없이 철수함으로써 여단사령부가 위험에 처하였다.<sup>287)</sup> 이에 여단장은 더 이상 현 진지를 방어할 수 없다 판단하고 예하 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봉오리 서쪽 900m 지점부터 뱀처럼 굽은 도로를 포병 등 일부병력이 빠져나간 후 보병부대가 진입할 무렵 도로 양편에서 적의 기관총과 포탄이 쏟아졌다. 여단은 소규모부대 단위로 분산하여 철수하였으나, 후미에서 철수하던 제1대대는 적의 공격으로 진출하지 못한 채 고지에 머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29일 자정이 지날 무렵 무선교신이 이루어져 여단은 미 포병대대의 지원 포격과 유엔공군의 항공지원으로 철수로를 확보하였다. 여단은 30일 새벽에 군우리 서남쪽 외곽지역에서 미 제2사단 제38연대와 합류한 후 사단집결지로 철수하였다. 이때 여단의 제2대대는 미군 차량으로 안주 방면으로 철수함에 따라 제1대대와 제3대대 잔류인원만 남게 되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된 이들은 미 제2사단의 주력과 함께 이동하였다. 도로와 평행을 이룬 양측방의 능선을 완전 장악한 적은 박격포를

287) HQS, US 2nd Inf. Div. Atry., Periodic Operational Report, No. 98, 1 Dec. 1950: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p.118-119.



집중하고 서행하는 철수대열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퍼부었다. 일명, ‘태형의 계곡’에서 터키군과 미 제2사단 주력은 순식간에 지휘체계가 붕괴되는 등 완전 혼란 상태에 빠져 처참한 상황이 이어졌다. 터키군은 제1대대장 대리가 전사하는 등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고서야 계곡을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12월 1일 아침 무렵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터키 장병들은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착검한 채 적진으로 돌격해 부대의 강한 군기와 응집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7일간의 악몽 같은 군우리 부근 전투에서 터키 제1여단은 총 병력의 15%와 105mm곡사포를 포함한 주요 장비 70%를 잃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터키군의 이러한 분전으로 미 제2사단은 계곡을 통과할 수 있었고,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터키군이 영웅 같은 용맹으로 4일간의 지연작전을 성공시켜 미군이 포위되어 전멸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터키군은 용감하게 싸우며... 미 제8군이 포위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터키군 활약을 치하하였다.<sup>288)</sup>



터키군의 사열장면

288) 알리 데니즐리 지음, 이선미 옮김, 『터키인이 본 6·25전쟁』, 52쪽.

## 2) 김량장 및 151고지 전투(1951. 1. 25. ~ 1. 27.)

김량장 및 151고지 전투는 미 제8군이 단행한 썬더볼트작전에서 미 제1군단에 배속된 터키 제1여단이 1951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량장 일원에서 중공군 제50군 예하 제149사단 제447연대와 제150사단 제448연대와 치른 공격전투이다.

중공군의 제3차 공세인 신정공세에 밀려 37도선까지 물러났던 유엔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1951년 1월 15일부로 공세로 전환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적의 방어선 위치와 규모를 탐색하고 중동부전선에서 적의 압력을 제거하며, 저하된 유엔군의 사기양양을 위해 대규모의 공세적인 위력수색작전을 결정하였다.<sup>289)</sup> 이에 따라 유엔군은 1월 15일 울프하운드 작전에 이어 1월 25일에 축차적 반격작전인 썬더볼트작전(Operation Thunderbolt)을 단행, 한강선에 이르는 수색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때 터키 제1여단은 미 제1군단 예하 제25사단의 우익으로 김량장과 151고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공격개시선인 오산-송전리 선을 점령한 여단은 12km의 넓은 정면을 공격하기 위해 2개 공격 제대로 나누어 제2대대가 김량장을, 제1대대와 제3대대가 신갈 남쪽의 151고지를 공격토록 하였다.<sup>290)</sup>

1월 25일 07시 30분에 김량장을 목표로 공격개시선을 통과한 제2대대는 접적 없이 진격한 끝에 15시에 김량장 서쪽 500m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다음날 09시 제2대대는 미 전차에 분승한 채 시가지를 향해 돌격을 개시하였고, 이때 북쪽 능선 227고지의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았다. 총격전이 계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터키군의 돌격에 맞서 중공군도 사수명령에 따라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일진일퇴 치열한 격전이 전개되었다. 해가 질

289)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240.

290) 국방부, 『한국전쟁사』, 328쪽.

무렵 제2대대는 미 공군기의 근접지원과 인접부대의 지원 포격 아래 시가지 중심부로 돌진하여 치열한 백병전 끝에 김량장을 점령하였다.<sup>291)</sup>

한편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수원과 김량장 중간지점에 위치한 151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1월 25일 06시에 공격에 나선 제3대대는 접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순조롭게 진출하던 중 187고지 부근에서부터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공격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대대는 화력을 집중한 후 고지로 돌격하여 백병전을 펼친 끝에 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1974년 9월 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건립된  
터키군 참전 기념비

다음날 아침 제3대대는 고매리 부근에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북쪽 151고지로 접근하였다. 이에 맞선 중공군은 아침부터 계속된 아군의 집중포격에도 불구하고 기관총과 수류탄을 난사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여 대대의 공격은 빈번히 실패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군우

29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244.

리 전투에서 임의 철수로 인해 당한 치욕을 만회하기 위해 탄막 속을 뚫고 용감하게 전진하였다.

이 무렵 적은 아군의 포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사주방어진지는 박격포 진지까지 구비한 강력한 방어거점이었다. 제3대대는 17시 30분 미 전차의 화력지원 아래 “알라”를 외치며 적진으로 돌격하여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151고지를 점령하였다.<sup>292)</sup>

이번 김량장 및 151고지 전투에서 터키 제1여단은 총검에 의한 백병전으로 474명의 중공군을 격멸하는 전과를 올렸고 그들의 용감성은 유엔군의 귀감이 되었다. 이러한 전황은 외신기자들에 의해 전 세계로 타전되어 실추된 명예도 회복할 수 있었다.

### 3) 장승천 전투(1951. 4. 22. ~ 4. 23.)

장승천 전투는 중공군 제5차 공세 당시인 195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터키 제1여단이 연천 동북방 5km 지점에 위치한 장승천 전방에서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179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김량장 전투를 승리로 이끈 터키 제1여단은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유엔군의 반격작전에 참여하여 1951년 4월초 38도선 북쪽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양양을 연하는 캔사스(Kansas) 선까지 진출하였다. 캔사스 선으로의 진출은 전쟁 전 영토회복은 물론 방위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때 터키여단이 소속된 미 제1군단은 서부전선의 임진강-한탄강 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sup>293)</sup>

한편 정면의 적은 유엔군이 방어선 보강에 주력하는 동안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철의 삼각지대에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키고 있었다. 이에 적의 대공

292) 알리 데니즐리 지음, 이선미 옮김, 『터키인이 본 6·25전쟁』, 60쪽.

293)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4.

세가 임박했음을 감지한 미 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 중장은 중부전선의 캔사스선 방어중심을 깊게 하면서 적의 공세준비를 차단하려 하였다. 이는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철원-김화를 통제할 수 있는 연천-고대산-와수리-화천저수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제선인 와이오밍(Wyoming)선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장승천변에 건립된 터키군 장승천 전투전적비

이 계획에 따라 터키여단은 1951년 4월 5일 와이오밍 선을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여 4월 21일 연천-철원간 도로 우측 장승천 일대에서 방어로 전환하였다. 4월 22일 터키여단 제6중대 정찰대는 중공군 정찰대와 격전을 벌여 적 군관을 생포하였으며, 그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날 밤 20시에 대공세를 감행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sup>294)</sup> 뿐만 아니라 미 제8군사령관도 적의 공세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되자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적의 공세를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1951년 4월 22일 저녁 중공군은 다섯 번째 공세인 ‘춘계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날 저녁부터 계속된 포격은 19시 15분에 급격히 증가되어 40분간

294) 알리 데니즐리 지음, 이선미 옮김, 『터키인이 본 6·25전쟁』, 68쪽.

여단의 전 지역에 집중되었다. 특히 적의 포격은 예비인 제3대대 지역과 와 둔골에 위치한 포병진지에 집중되었다. 중공군은 20시를 전후하여 여단 전 정면에서 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여단의 양측방 전투지경선을 따라 2개 연대 규모를 투입하여 후방진출을 기도하였다.<sup>295)</sup>

터키여단은 수적인 열세는 물론 진지도 미처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공군을 맞아 사력을 다해 저지하였다. 그러나 필리핀대대와와의 전투지경선으로 진출한 중공군 1개 연대가 여단 통신시설을 파괴하였고, 미 제24사단과의 전투지경선으로 공격한 또 다른 1개 연대는 후방 예비대 지역까지 침투하였다. 우전방 제9중대를 비롯한 터키장병들은 피리와 나팔을 불며 진내로 돌입한 적과 뒤엉켜 백병전을 펼쳤으나, 도중에 포병지원이 중단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장승천의 전경

터키여단의 상황을 파악한 미 제25사단장은 자정 직전 여단장대리인 도라 대령에게 한탄강 남쪽의 캔사스 선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sup>296)</sup> 그

295)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p.384-385.

296)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385.

러나 이때는 이미 우측방을 돌파한 중공군 일부가 철수로 상의 요충인 다라미 고개를 방어하던 제1중대 경계소대를 포위 공격함으로써 여단의 철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때 도라 대령으로부터 사수명령을 받은 제3대대는 동요됨이 없이 터키 여단 철수를 엄호하였다. 01시 25분에 시작된 철수는 한탄강 남쪽을 향해 포병대대, 전방대대 순으로 실시되어 1시간 만에 완료되었다. 그러나 앞서 퇴로가 차단되었던 제1대대 제9중대는 포위망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중대장을 포함한 상당수가 부상을 입거나 포로가 되었으며, 중대도 분산 철수하여 복귀하였다.

이 전투에서 여단은 전사 66명, 부상 35명, 실종 105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으나,<sup>297)</sup> 여단도 중공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을 지연시켜 우인접 부대들이 안전하게 축차진지로 철수할 수 있게 되었다.

#### 다. 참전의 결과와 의의

참전기간 동안 터키군의 병력파견은 약 5,0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1951년 6월 30일에는 4,602명을 그리고 1년 후인 1952년 6월 30일에는 4,878명을 기록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의 병력현황은 5,455명이었다.<sup>298)</sup> 1개 보병여단을 파견한 터키는 기간 중 연인원 21,212명을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sup>299)</sup>

터키군은 군우리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966명(전사 692명, 부상사 34명, 비전투 사망사 74명, 실종 166명)이 전

297)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357쪽.

29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299)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86쪽.

사 또는 사망하고, 1,15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44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표 3-25〉 터키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지 상 군
21,212명	보병여단 : 1 / 병력 : 5,455명

이 기간 중 터키군은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표창 1회와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 3회의 영예를 안았으며, 을지무공훈장 10회와 충무무공훈장 22회 그리고 미국 은성훈장 5회와 동성훈장 7회 등 수많은 국내외 훈장을 수여받았다.<sup>300)</sup>

〈표 3-26〉 터키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966명	1,155명	-	244명	2,365명

터키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협상원칙을 중시하였으나, 공산주의의 침략을 단호히 거절하는 자유 수호에 대한 의지는 단호하였다. 터키는 6·25전쟁에 여단급 부대를 파병한 3개국 중의 하나로 그들의 자유 수호 의지는 파병규모에서 명확하게 표출되었다. 터키의 참전은 그들의 강인한 국민성과 아울러 문화를 더욱 존중하고 새로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양국간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300)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387쪽.



#### 4. 네덜란드(Netherlands)군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네덜란드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네덜란드는 서유럽의 집단안보체인 NATO의 회원국이었으나 군사력은 매우 미약하였고, 대부분의 병력마저도 인도네시아에 주둔하고 있었다. 북한의 불법남침에 대응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참전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즉각적인 지상군의 파견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1척의 구축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sup>301)</sup>

인도네시아에 정박하고 있던 구축함 에베르센(Evertsen)호는 작전명령을 받은 즉시 수라바야항을 떠나 작전해역으로 향하였다. 에베르센호는 1950년 7월 16일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를 거쳐 7월 19일 서해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영국 극동함대에 배속되었다. 전통적 해운국가인 네덜란드는 전쟁기간 동안에 6척의 함정을 교대로 파견하여 해상작전을 지원하였다.

한편 전황이 점점 악화되자 유엔사무총장은 1950년 7월 14일 네덜란드 정부에 지상군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군사적 사정으로 지상군 파병이 불가함을 유엔에 통보하였으나, 국내의 여론은 오히려 파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보병 1개 중대와 해병 1개 중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8월 11일 지원병 모집을 공식 발표하였다.<sup>302)</sup> 예상 밖의 많은 인원이 지원하자 네덜란드 정부는 이들 중 636명을 최종

301)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6.

302) 국가보훈처, 『네덜란드군 6·25전쟁 참전사』, 2010, 64쪽.

선발하여 9월 9일 1개 보병대대로 편성된 네덜란드대대를 창설하고 덴 오우덴(M. P. A. den Ouden) 중령을 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헤이그에 위치한 병영에서 파병대대의 훈련에 착수한 네덜란드 정부는 파견에 앞서 2명의 연락단을 유엔군사령부에 보내 작전교육 및 군수행정의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네덜란드대대의 편성은 미국식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장비와 보급도 미군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네덜란드대대는 10월 23일 국회에서 유엔기를 수여받고 다음날 공식환송식과 사열식을 마쳤다.



1950년 10월 14일 파병 직전 시가행진중인 네덜란드대대

1950년 10월 26일 네덜란드대대는 수송선 주더크루스(Zuiderkruis)호를 타고 네덜란드를 출발하여 11월 23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대구에 위치한 유엔군수용대에서 장비 수령과 현지적응훈련을 거친 후 12월 11일 당시 청천강 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고 부대를 정비하고 있던 미 제2사단에 배속되었다.<sup>303)</sup>

이후 대대는 1951년 2월 황성지구 전투에서 대대장 덴 오우덴 중령을 비롯한 17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일한 철수로인 황성교를 확보함으로써

303)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6.

써 유엔군의 수많은 인명과 장비를 보존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고 대대는 원주 325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의 후방진출을 좌절시킴으로써 서울-원주 간의 병참선 확보는 물론 중공군의 2월 공세 저지에 기여하였다. 네덜란드대대는 1951년 5월 가리산 전투와 인제 전투, 7월 대우산 전투, 1952년 2월 별고지 전투, 1953년 7월 묵곡리 전투 등을 수행하였다.

네덜란드대대는 대대장 덴 오우덴 중령을 비롯하여 본부 및 본부중대(117명)와 2개 소총중대(380명), 화기중대(139명)로 편성되었고,<sup>304)</sup> 병력은 장교 34명과 하사관 84명, 그리고 사병 518명 등 636명이었다. 기본 화기를 제외한 네덜란드대대의 보유 무기는 경기관총 17정, 중기관총 9문, 자동소총(BAR) 45정, 3.5인치 로켓포 11문, 60mm 및 80mm 박격포 13문, 57mm 및 75mm 무반동총 13문이었다. 참전기간 중 네덜란드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은 다음 <표 3-27>과 같다.

<표 3-27> 네덜란드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비 고
	계급	성명	참전기간	
네덜란드대대	중령	M.P.A. den Ouden	1950.11.~1951.2.	미 제2사단 배속
	중령	W.D.H. Eekhout	1951.2.~1951.11.	
	중령	G.H. Christen	1951.11.~1952.8.	
	중령	C.M. Schilperoord	1952.8.~1953.8.	
	중령	C. Knulst	1953.8.~1954.7.	
	중령	J. Raaymakers	1954.7.~1954.12.	

전쟁기간 중 3척의 구축함과 3척의 프리깃함을 파견했던 네덜란드 해군의 참전 함정 및 지휘관은 다음 <표 3-28>과 같다.

304) 1951년 5월 C중대가 대대에 합류함으로써 완성된 편제를 갖추게 되었다.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p.96-97.

〈표 3-28〉 네덜란드 해군 참전 합정 및 지휘관

구분	합정명	작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명
구축함 (3척)	Evertsen	1950.7.~1951.4.	소령	D.J. van Doornink
	Van Galen	1951.4.~1952.3.	중령	A.M. Valkenburg
	Piet Hein	1952.3.~1953.1.	중령	A.H.W. von Freytag Drabble
프리깃함 (3척)	Van Nassau	1953.1.~1953.11.	중령	N.W. Slujiter
	Dubois	1953.11.~1954.9.	소령	T. Jellema
	Van Zijil	1954.9.~1955.1.	중령	F.G.H. van Straaten

#### 나. 네덜란드 지상군의 주요 전투

##### 1) 횡성 전투(1951. 2. 12. ~ 2. 13.)

횡성 전투는 중공군의 2월 공세로 인해 전방의 아군부대들이 철수를 단행하자 이들에 대한 엄호임무를 부여받은 네덜란드대대가 중공군의 기습으로 1951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횡성 일원에서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저지하고 재반격으로 전환한 미 제2사단은 1951년 1월 23일 원주를 탈환하였다. 1월 31일 사단예비로 있던 네덜란드대대는 사단의 선봉부대로 나선 제38연대에 배속되어 원주로 진출하였다. 네덜란드대대는 2월 2일 원주 북서쪽 섬강 부근 송호리와 상장포 일대로 진출하여 패잔병소탕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무렵 대대는 라운드업 작전(Operation Round Up)에 참여하라는 사단의 명령에 따라 2월 4일 횡성으로 이동하였다.<sup>305)</sup>

미 제2사단 제38연대는 2월 5일 흥천을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한 한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에 대한 화력을 지원하였다. 이때 미 제38연대에

305)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259.

배속된 네덜란드대대는 횡성 시가지의 북쪽에 있는 후천에 배치되어 한국군 사단의 후방 엄호를 담당하게 되었다.<sup>306)</sup> 대대장 덴 오우덴 중령은 화기중대 1개 기관총반과 무반동총반을 A중대에, 1개 기관총반과 배속된 반궤도차를 B중대에 각각 배속시켜 소총중대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후천 남안에서 흥천으로 통하는 5번 국도의 양쪽 언덕을 점령해 횡성교를 방어하도록 A중대에 지시하였다. B중대는 A중대 우측의 횡성 시가지 북쪽을 점령한 후 A중대와 함께 횡성 서북쪽으로 예상되는 적의 공격을 후천을 이용해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sup>307)</sup>

다음날인 2월 6일 미 제38연대장은 A중대를 B중대 우측의 201고지 부근에 배치하라는 명령과 함께 전차 1개 소대와 대공반궤도차 2개 반을 네덜란드대대에 배속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야간에 A중대를 지시된 신진지로 이동시켜 횡성 동북방의 경계를 강화하였다.

한국군 사단의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2월 11일 17시를 기해 중공군은 자신들의 네 번째 공세인 2월 공세를 단행하였다.<sup>308)</sup> 중공군 제40군과 서부전선에서 흥천지구로 이동한 중공군 제66군이 서북쪽, 북한군 제5군단이 동북쪽에서 아군의 정면과 측면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일부 병력을 연대 후방으로 침투시켜 횡성-삼마치간 초원리와 학담리 등에서 유엔군의 주요 급로를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한 아군의 최전방선이 2월 12일 03시에 돌파되던 이어 3시간 후 미 화력지원단 제2방어선마저 혼란 상태에 빠졌다. 상황을 보고받은 군단장이 전 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자 철수부대들은 적의 집중사격과 도로차단을 돌파해 일명 ‘학살의 계곡’이라 불린 계곡을 빠져나와 네덜란드대대가 방어중인 횡성으로 몰려들었다.

306)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273.

307)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728쪽.

308)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361쪽.

이처럼 악화된 상황에서 네덜란드대대 A중대는 2월 12일 06시 30분경 본래의 위치인 황성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때 전방의 철수부대들은 학담리와 새말 사이에 집결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sup>309)</sup> 보병과 전차 각 1개 소대로 편성된 구원부대가 중공군의 매복기습을 받고 그대로 복귀하자 군단장은 10시경 새말에 집결한 철수부대에게 적의 포위망을 돌파해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철수에 나선 부대들은 황성 인근에 설치된 중공군의 최후저지선 돌파에 실패하고 분산된 채 철수하고 있었다.



1975년 9월 29일 강원도 황성군 우천면 우항리 20번에  
건립된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

이날 15시 30분경부터 적은 네덜란드대대가 배치된 지역에 박격포 공격을 집중하였고, 이로 인해 본부중대는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16시경 미 제187공수여단 G중대와 전차소대로 구성된 구원부대가 한국군 1개 보병대대와 함께 돌진하여 적에게 포위된 4,000여 명의 병력과 합세하였다.

309)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729쪽.

횡성교 부근을 방어하던 A중대 진지에서는 철수대열로 혼잡을 이룬 가운데 적의 일부가 서쪽으로 우회하여 중대를 공격함으로써 총격전이 벌어졌다. 더구나 일몰과 함께 미군과 한국군이 섞여 피아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질서하게 철수를 단행함으로써 방어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시 10분경 1발의 조명탄이 발사됨과 동시에 한국군으로 위장한 중공군이 후방으로 침투해 화기중대를 기습하고 대대본부를 공격하였다. 적의 기습을 받고 교전에 나선 대대본부는 대대장 덴 오우덴 중령이 전사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대대장은 포위상태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중 수류탄 폭발로 전사하였다.<sup>310)</sup> 그러나 전방에 배치된 중대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장병들의 용전으로 21시 30분경 마침내 대대본부는 혼란을 수습하였고, 전사한 대대장을 대신하여 화기중대장이 임시로 대대를 지휘하였다. 그리고 A중대는 한국군과 미군의 철수가 일단락되자, 철수를 단행하여 22시경 횡성 후방의 뒷네물 강변에 도착하였다. B중대도 중공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다음날 01시에 뒷네물강 남쪽에 도착하였다. 대대는 사단의 지시에 따라 화염에 휩싸인 횡성을 뒤로 한 채 2월 13일 04시에 원주비행장에 도착하여 횡성전투를 종료하였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대대장과 군목, 인사장교 등 17명이 전사하고 37명이 부상하였으며, 차량 15대와 다수의 공용 화기를 잃는 피해를 입었다.<sup>311)</sup>

## 2) 대우산 전투(1951. 7. 15. ~ 7. 31.)

대우산 전투는 네덜란드대대가 미 제2사단의 일부로 중동부지역 대암산-도솔산 부근 전선에 투입되어 방어선 전방의 감제고지인 대우산을 점령하기

310)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277.

31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279.

위해 조공부대로서 북한군 제27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그 남쪽의 1120고지(대머리산)을 공격 탈취한 전투이다.

휴전회담으로 전선이 교착된 가운데 미 제2사단은 해안분지 남벽의 대암산과 도솔산 지역의 미 제1해병사단 진지를 인수하여 대우산을 공격 점령하고 연대규모의 정찰 기지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sup>312)</sup> 이에 따라 사단은 제23연대를 우일선, 제38연대를 좌일선에 배치하고 제9연대를 예비로 하였다.

네덜란드대대는 구성포리에서 1개월간 부대를 재정비한 후 미 제38연대에 배속되어 7월 15일 양구 북쪽의 도솔산으로 이동하였다. 다음날 대대는 한국 제1해병연대 제2대대가 담당한 도솔산 지역을 인수하였다. 이곳은 정면의 1120고지와 북한군 제27사단 제32연대가 배치된 대우산에서 관측이 가능하고 방어에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으며, 진지 전방에는 무수한 지뢰와 부비트랩이 매설되어 있었다.

대대는 방어진지를 보강하면서 대우산에 강력한 정찰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정찰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진지 전방에 매설된 지뢰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정찰대들이 종종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어 정찰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대대는 미 공병소대를 지원받아 지뢰매설 지도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찰대들은 3일 동안 대우산 공격의 발판인 1120고지를 정찰하였다. 이 고지는 적의 전초진지로서 중대규모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종 지뢰는 물론 교통호와 유개호도 구축되어 있었다.

이 무렵 미 제38연대장은 네덜란드군 1개 중대와 제38연대 1개 대대의 협조된 공격으로 1120고지를 점령한 후 대우산을 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sup>313)</sup> 사단은 우일선인 제23연대가 해안분지에서 공격을 개시하면 주공인

31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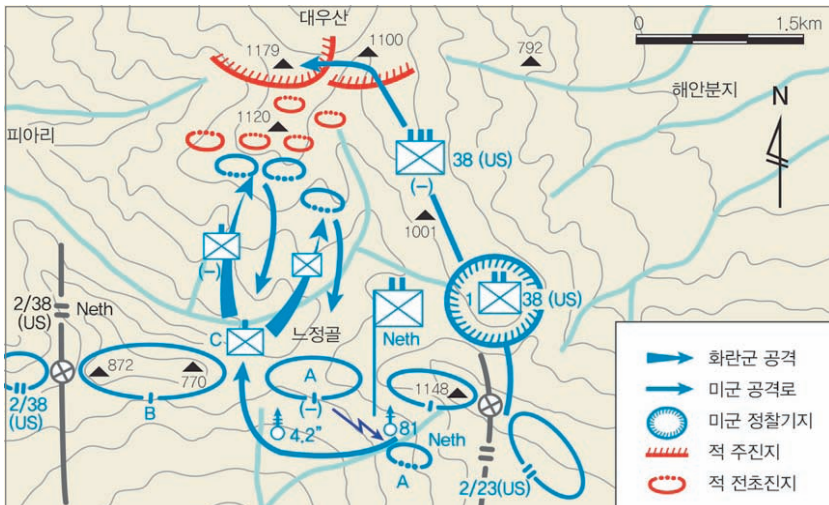
313)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779쪽.



제38연대 제1대대가 중간목표인 1100고지를 확보한 후 최종목표인 대우산을 동측방으로 우회공격하고, 네덜란드대대는 정면공격을 통해 1120고지를 점령하여 화력거점을 구축하고 미군 공격대대를 화력 지원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대대의 공격부대로 나선 C중대는 7월 26일 주저항선 전방의 만정곡으로 이동하였고, 공격준비사격이 끝나는 07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는 짙게 깔린 안개와 우거진 산림을 헤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 돌격선까지 진출하였다. 중대가 돌격을 준비하고 있던 10시 30분경 갑자기 불어 닥친 계곡풍에 안개가 걷히며 중대가 적에게 노출되었다. 적은 C중대를 향해 기관총사격을 집중하였고, 중대도 화력전으로 대항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상자가 증가하고 오히려 적에게 포위될 상황에 직면하자 고지 중간지점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좌전방으로 우회 공격한 일부 병력이 고참병들의 투혼으로 1120고지로 진출해 적의 진지 일부를 탈취했으나, 적의 역습으로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도 3-16〉 대우산 전투(1951. 7. 15. ~ 8. 6.)



C중대는 전사자와 부상자, 그리고 일부 장비를 후송시킨 후 재공격 준비를 완료하고 아군의 항공폭격이 개시되길 기다렸다. 그러나 항공폭격은 취소되고 오히려 중대를 발견한 적이 강력한 화력 엄호 아래 역습을 개시하였다. 중대는 총력을 기울여 적의 역습에 저항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상자가 속출하고 탄약마저 소진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과 접촉을 중단하고 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중대의 오른쪽에서 공격한 미군대대 또한 1120고지 전방에 설치된 적의 지뢰지대에 걸려 공격이 좌절되었다. 대대가 증원 병력을 투입해 중대의 철수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 미 제38연대장은 공격부대에 연막과 야간을 이용해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네덜란드대대는 전사 11명과 부상 31명, 실종 1명, 전의상실 8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귀국을 2주 앞둔 장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sup>314)</sup>

이후 대우산 공격은 미군 1개 대대가 공격을 주도하고 네덜란드대대는 현 위치에서 미군에 대한 화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미군대대는 115톤의 포탄을 집중한 후 공격개시 4일 만인 7월 29일에 대우산을 점령하였다.<sup>315)</sup> 대대는 대우산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관총으로 증강된 소대 규모를 1120고지로 파견하였다. 전선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대대는 1차 참전자의 귀국을 준비하기 위해 8월 6일 사단예비가 되어 소양강변의 관대리로 이동하였다.

### 3) 별고지(Star Hill) 전투(1952. 2. 18.)

별고지 전투는 네덜란드대대가 평강 남방 10km 지점에 위치한 중공군의 전초진지인 별고지(430고지)를 공격하여 포로를 획득하고 방어시설을 파괴

314)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783쪽.

31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82.

하라는 명령을 받고 1952년 2월 18일 각종 가용 지원화력의 엄호 하에 공격을 전개한 전투이다.

1952년 초의 흑한기 동안 은성고지와 바꽃고지 일대에서 정찰작전에 주력한 네덜란드대대는 1952년 2월 5일 미 제2사단 제38연대의 예비로 전환하여 철원 동쪽의 하리동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적을 유인하여 포로를 획득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한 유엔군 ‘Calm Up작전’이 성과 없이 종료되자, 미 제2사단장은 이 틈을 이용해 적이 전초진지를 보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제38연대 예비인 네덜란드대대에 은성고지와 바꽃고지 좌측 중공군 주요 전초진지인 별고지(Star Hill)를 기습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sup>316)</sup>

공격목표로 부여된 별고지는 2개 소대규모 중공군이 배치되어 있었고, 고지 후방에는 중대규모의 증원 병력도 있었다. 이들은 후방 472고지 일대에 구축한 강력한 지원기지에서부터 화력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대대는 3개 포병대대, 4.2인치 중박격포 2개 중대, 전차 2개 중대, 부상자 및 탄약운반을 위한 노무자 70명과 화염방사기, 방탄복까지 지원받아 작전에 대비하였다.

다음날 대대장은 직접 적진을 항공정찰한 후 100m 간격으로 나란히 있는 목표의 지형과 접근로, 적의 방어능력 등을 감안한 기동계획과 화력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공격은 B중대 1개 중대만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sup>317)</sup> 다음날 오전에 모든 대대간부요원을 집합시킨 대대장은 이번 작전의 성패는 접적이동시 노출된 경사지를 신속히 이동하는데 좌우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한편 4대의 우군전투기가 225kg의 폭탄 4개, 네이팜탄 4개, 로켓 16발을 집중하는 동시에 기총소사를 가해 별고지에 있는 5개 병커를 파괴하였다.

316)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7.

317) 국가보훈처, 『네덜란드군 6·25전쟁 참전사』 10, 93쪽.



목표지점으로 이동 중인 네덜란드군

이때 아군 진지로 도망 온 중공군 1명을 생포하여 적에 대한 귀중한 첩보를 입수하였다. 공격중대인 B중대는 2월 18일 04시에 하리동을 차량으로 출발해 미륵동까지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먼저 출발한 엄호소대가 05시에 주저항선을 통과해 30분 후에는 지시된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후속하던 주공인 2개 소대가 06시 15분에 공격개시선인 별고지 산기슭으로 진출해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

06시 45분부터 예정된 공격준비사격이 별고지 일대에 집중되었고, 별고지 정상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사격이 종료된 07시에 B중대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이때 우군 포병의 오폭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공격이 일시 정지되기도 하였다. 이때 우일선 소대는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별고지를 점령하였다.<sup>318)</sup>

그러나 좌전방에서 무명고지를 공격한 소대가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공격이 중단되자, 대대장은 중박격포와 무반동총으로 이들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우일선의 소대도 별고지 우측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공격 개시 30여 분만에 적은 472고지 방면으로 철수하였고, 포병과 전차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중포격을 실시해 많은 적을 사살하였다.

318)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802쪽.

적의 역습을 우려한 대대는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형 벙커 3개와 다량의 포탄 및 지뢰 등을 폭파하고 09시경 화력 엄호를 받으며 주저항선으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5명이 전사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은 네덜란드대대의 별고지 기습공격은 종료되었다.

#### 다. 네덜란드 해군의 주요 활동

네덜란드 정부는 지상군 파견이 여의치 않자 해군 구축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에 정박하고 있던 구축함 에베르센(Evertsen)호를 한국해역으로 급파하였다. 이후 네덜란드 해군은 1척의 함정이 항상 교대로 근무하면서 구축함 3척과 프리깃함 3척 등 6척의 함정이 전쟁기간 중 유엔해군으로 해상초계, 해안봉쇄와 포격, 상륙지원, 지상군 기동 및 화력지원, 대공방위, 항모 및 소형함정 호위엄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sup>319)</sup>

네덜란드 해군함정 중 6·25전쟁에 최초로 참전한 구축함 에베르센호는 1950년 7월 16일 일본의 사세보 해군기지에 도착하였다. 3일 후인 7월 19일 영국의 서해안지원전대 예하의 기동분대에 포함되어 초계정찰 및 해안봉쇄임무를 시작하였다. 7월 25일 영연방함대는 기동전대로 개편되어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적의 병력과 보급물자를 함포사격과 함재기폭격으로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에베르센호는 함대와 함께 인천항으로 향진하여 인천 일원의 주요 시설에 대한 포격을 가하였다.

이후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자, 에베르센호는 제91기동함대에 편입되어 특별정찰과 상륙군 선단의 호송, 초계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51년 이른 봄에 동해안으로 이동하여 적의 보급로에 대한 함포사격 등으로 적의

319)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835쪽.

활동을 차단하는데 공헌하였다.<sup>320)</sup>

1951년 4월 18일 에베르센호의 임무를 인계한 반 가렌(Van Galen)호는 항공모함 호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임무가 변경되어 서해 작전해역에서 적의 해상지원 차단 및 봉쇄임무를 담당한 후 6월에 항모호위로 임무가 환원되어 서해항모분대에 편입되었다. 이후 반 가렌호는 아군 유격부대에 탄약과 보급품을 지원하는 한편 지상군의 측면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11월 18일 반 가렌호는 흥남주변의 주요 군사목표에 대한 포격작전을 실시한 후 서해상에서 여러 도서를 확보하고 유엔군 레이더기지, 조종사구조기지, 유격부대 기지에 대한 보호 및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한국해역을 떠났다. 1952년 3월 2일 반 가렌호와 임무를 교대한 피엣 헤인(Piet Hein)호는 항공모함 호위임무를 수행하고 평양-개성간 해안포대와 보급품집적소에 대한 함포사격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1953년 1월 18일 프리깃함 조안 모리츠 반 나소(Johan Maurits van Nassau)호와 교대될 때까지 도서기지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sup>321)</sup>

조안 모리츠 반 나소호는 서해안지원전대에 소속되어 해안포격과 도서방어 그리고 항모호위임무를 수행하고 12월 5일 프리깃함 두보아(Dubois)호에 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해상초계임무를 계속하였다. 나소호에 이어 한국해역에 파견된 두보아호는 다음해 9월 10일 반 지질(Van Zijl)호에 임무를 인계하였고, 반 지질호는 1955년 1월 24일 한국해역을 떠날 때까지 부임임무를 완수하였다.

이와 같이 유엔군 네덜란드 해군은 1950년 7월 16일부터 1955년 1월 24일까지의 참전기간 동안 구축함 및 프리깃함 6척과 1,350명의 병력이 한국해역에서 활동하였다. 각 함정별 참전인원은 에베르센호 237명,

320)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6.

321)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837쪽.

반 가렌호 247명, 피엣 헤인호 237명, 조안 모리츠 반 나소호 183명, 두보 아호 209명, 반 지질호 209명이고, 기타 임무 28명이었다.

라. 참전의 결과와 의의

참전기간 동안 네덜란드군의 병력파견은 약 700~8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1951년 6월 30일에는 725명을 그리고 1년 후인 1952년 6월 30일에는 565명을 기록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의 병력 현황은 819명이었다.<sup>322)</sup> 1개 보병대대와 1척의 구축함 또는 프리깃함을 파견한 네덜란드는 기간 중 연인원 5,322명을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sup>323)</sup>

〈표 3-29〉 네덜란드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지상군	해 군
5,322명	보병대대 : 1 병력 : 819명	구축함 또는 프리깃함 : 1척

네덜란드군은 황성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20명이 전사하고 64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sup>324)</sup> 부상자 중 292명은 원복을, 262명은 예편하였으며, 91명은 불구가 되었다.

〈표 3-30〉 네덜란드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120명	645명	-	3명	768명

32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323)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28쪽.

32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4.

1953년 10월 1일 네덜란드대대는 그간의 전공으로 인해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받았다. 이에 앞서 대대는 횡성-원주전투에서 세운 전공을 높이 치하하는 미국 대통령의 부대표창을 1951년 8월 9일 밴 플리트 대장으로부터 수여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대대는 6·25전쟁에 참전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표창을 비롯한 3회의 부대표창과 156회의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참전한 모든 네덜란드대대 장병은 유엔 종군기장과 대한민국 6.25종군기장을 수여받았으며, 네덜란드정부의 The Cross for Justice and Freedom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네덜란드는 다른 유엔참전국과는 달리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전을 촉구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국내 외의 군사적인 사정으로 지상군의 파병이 불가한 형편이었으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참전을 촉구하고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파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네덜란드 국민이 보여준 용감성과 자유수호에 대한 의지는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고, 자유세계를 결속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 5. 벨기에·룩셈부르크(Belgium-Luxemburg)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벨기에·룩셈부르크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베네룩스(Benelux)동맹을 통해 영세중립국을 선언했던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1949년에 영세중립국을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이들 국가는 자국의 방위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었고, 군도 창설단계에 있어 병력을 파견할 여력



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 7월 14일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참전요청을 받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7월 22일 지원병을 모집하여 통합된 대대를 편성한 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유엔에 통보하는 한편 모병과 파견에 따른 제반 준비에 착수하였다.<sup>325)</sup>

8월 25일 벨기에 정부가 1개 대대 파견을 공표하고 지원병 모집을 개시하자 현역은 물론 예비역과 레지스탕스 출신 등 여러 계층에서 2,000여 명이 지원하였다. 벨기에 정부는 이들 중 엄격한 파병기준으로 700명을 선발한 후 제1벨기에대대(The 1st Belgium Battalion)를 창설하였다.<sup>326)</sup>

한편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유엔의 참전요청을 받은 룩셈부르크는 소대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참전국 병력이 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 1,000명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sup>327)</sup> 그러나 전체 인구가 20여 만 명에 불과했던 룩셈부르크는 이 기준에서 예외가 되었다. 병력파견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사전에 벨기에와 협의를 거친 룩셈부르크는 벨기에대대에 1개 소대 병력을 포함시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유엔이 받아들이면서 파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룩셈부르크의 파병일정과 준비는 벨기에 상황에 맞춰 진행되었다. 벨기에 대대의 창설과 훈련일정에 맞춰 지원병을 모집한 룩셈부르크는 48명을 엄선하여 소대규모의 ‘참전 룩셈부르크지원군’을 편성하였다. 10월 1일 룩셈부르크소대는 벨기에의 비벌로 병영(Camp Beverlo)으로 이동하여 벨기에대대에 통합되면서 A중대 편제소대가 되었다.<sup>328)</sup>

325)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p.72-73.

326) 지원자 중에는 전 상원의원이자 현재 국방부장관인 몰랑(Henri Moreau de Melen) 예비역 소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72.

327)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1950-1951, The Korean War Part One*, p.65.

328)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4.



1950년 10월 벨기에 집결을 위해 도열한 룩셈부르크소대

편성을 완료한 벨기에대대는 한국의 산악지형과 유사한 곳에서 1개월간 훈련을 실시한 후 11월 8일 레오폴드병영에서 황태자로부터 부대기를 수여 받았다. 11월 11일 브뤼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시가행진을 펼친 대대는 포병학교로 이동하여 포병전술과 전기를 익혔다.<sup>329)</sup>

1950년 12월 18일 벨기에대대는 영국 수송선 카미나(Kamina)호에 승선하여 한국을 향해 앙베르(Anvers)항을 출발하였다. 40여일의 항해 끝에 1951년 1월 31일 부산항에 도착한 벨기에대대는 유엔군수용대에서 6주간 현지적응훈련과 병참선 경계임무를 수행한 후 3월 6일 미 제3사단에 배속되었다.

벨기에대대는 참전 이후 수많은 전투에서 전문적인 전술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들은 참전초기인 1951년 2월 미 제8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왜관지구에서 대유격전을 실시하고 한강선으로 이동하여 미 제3사단 제15연대 제1대대 진지를 인수하였다. 이후 대대는 퇴각하는 적을 포위 격멸하

329)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163쪽.

기 위한 커리지어스작전(Courageous Operation)에 참여하여 의정부-동두천-신산리로 진격하였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국기가 게양된 동래막사

다시 임진강으로 진격한 벨기에대대는 중공군의 4월 공세가 단행되자 임진강 북쪽의 강제고지인 금굴산에서 중공군 공세를 2일에 걸쳐 저지함으로써 영국군이 철수로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sup>330)</sup> 이후에도 벨기에대대는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철원의 학당리와 김화의 잣골 전투 등에 참여하여 많은 전공을 수립하였다.

6·25전쟁에 파견된 벨기에대대는 3개 소총중대와 1개 화기중대, 대대본부 및 본부중대 등 삼각편제로 편성되었으며, 화기중대는 1개 기관총소대와 1개 박격포소대, 1개 대전차소대와 1개 공병소대를 이루고 있었다.<sup>331)</sup> 벨기에대대의 주요 지휘관은 초대 대대장인 크라하이(B. E. M. Crahay) 중령을 비롯하여 비바리오(Vivarario G.) 중령과 보다르(Bodart) 중령, 그리고 룩셈부르크 소대장 와그너(Josep Wagner) 중위 등이었다.

330)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96-198쪽.

331)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73.

〈표 3-31〉 벨기에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비고
	계급	성명	참전기간	
벨기에대대	중령	B. E. M. Crahay	1950.9.~1951.4.	
	소령	Vivarior, G.	1951.4.~1951.7.	대리
	중령	B. E. M. Crahay	1951.7.~1951.9.	
	소령	Vivarior, G.	1951.9.~1951.10.	대리
	중령	B. E. M. Crahay	1951.10.~1951.11.	
	중령	Cools	1951.11.~1952.2.	
	중령	Vivarior, G.	1952.2.~1952.12.	
	중령	Gathy	1952.12.~1953.1.	대리
	중령	Vivarior, G.	1953.1.~1953.2.	
	중령	Gathy	1953.2.~1953.7.	
	소령	Bodart	1953.7.~1953.8.	
	소령	Brichant	1953.8.~1953.9.	대리
	중령	Bodart	1953.9.~1953.12.	
	소령	Brichant	1953.12.~1954.2.	대리
소령	Piriot	1954.2.~1955.8.		

#### 나. 벨기에·룩셈부르크 지상군의 주요 전투

##### 1) 금굴산 전투(1951. 4. 22. ~ 4. 25.)

금굴산 전투는 영연방 제29여단에 배속되어 임진강 북방 금굴산을 방어 하던 벨기에·룩셈부르크대대가 중공군 제1차 춘계공세 당시인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중공군 제188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고수한 방어전투이다.

영국군 제29여단에 배속된 대대는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임박한 4월 19일 얼스터대대의 임진강 북쪽 금굴산 지역을 인수하여 여단의 전초부대가 되었다.<sup>332)</sup> 당시 대대가 인수한 금굴산 지역은 임진강변을 따라 배치된

332)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73.

영국군 제29여단 지역을 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인점에서 임진강 동쪽의 진상리(進詳里) 일대에 배치된 미 제3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할 수 있어 전술적으로 중요한 감제고지였다. 그럼에도 유일한 통로가 임진강과 한탄강에 설치된 교량을 통과해야 함으로 군수지원은 물론 적의 공격에 고립될 위험도 안고 있었다.<sup>333)</sup>



벨기에대대의 감제고지인 금굴산(196고지)의 전경

대대가 금굴산 일대에 거점방어 편성을 완료할 무렵인 4월 22일 자정 무렵 4월 공세를 개시한 중공군 제1파가 대대를 강타하였다.<sup>334)</sup> 대대는 이들을 맞아 혈전을 벌여 금굴산 진지를 고수하였으나 4월 23일 새벽 대대를 우회한 중공군 일부가 철수로 상의 요충인 임진강 남쪽 257고지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임진강에 부설된 두 개의 부교에 의존하고 있던 벨기에대대는 퇴로가 차단되어 적중에서 고립되었다.<sup>335)</sup>

이때 미 제3사단은 벨기에대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전차 2개 소대와 보병 1개 중대를 파견하였으나, 도감포 일대에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전차 1개 소대만 겨우 교량을 통과하여 대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전차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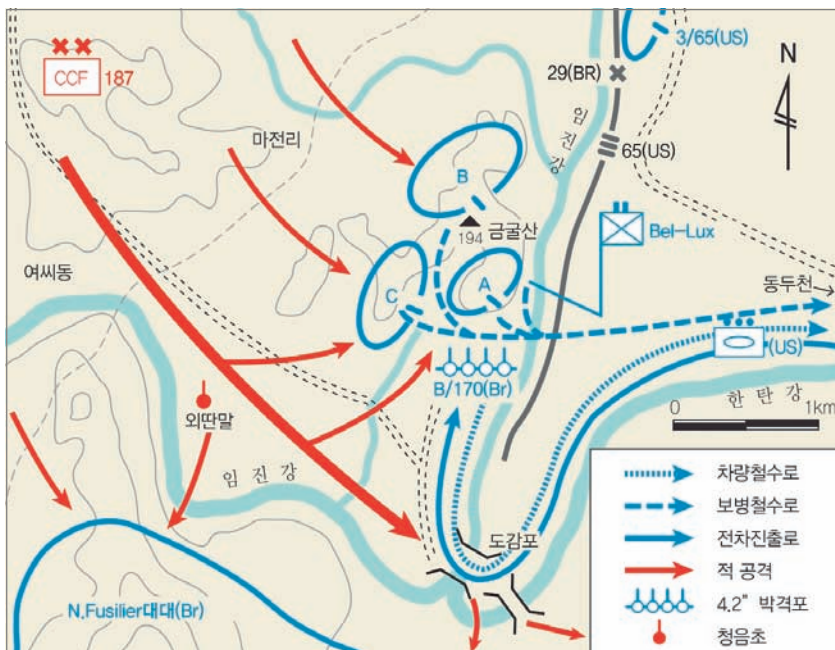
3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57쪽.

334)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p.117.

335)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p.385-386.

으로 대대 전의가 다소 회복되어 역습으로 새벽에 피탈한 진지도 탈환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방어정면은 축소되었다.

〈상황도 3-17〉 금굴산 전투(1951. 4. 22. ~ 4. 25.)



이런 상황에서 대대장은 정오 무렵 여단장에게 장비를 파괴하고 병력만 임진강을 건너 전곡으로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영국 제29여단장은 미 제7연대 제1대대가 벨기에대대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는 257고지를 공격할 계획임을 들어 대대 철수계획에 반대하고, 대신 일몰 전에 철수할 수 있도록 철수준비 명령만 하달하였다.<sup>336)</sup>

이날 여단은 고립무원에 빠진 벨기에대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오전에 전차

3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64-65쪽.

로 증강된 퓨질리어대대를 투입한 데 이어 14시에 지원된 미 제7연대 제1대대로 257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이마저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고지 탈환에 실패하였다. 벨기에대대장은 미군 구출작전마저 실패하자 강력돌파작전을 구상하여 철수준비를 서둘렀고, 이를 간파한 중공군은 15시부터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 대대의 방어정면은 금굴산 거점으로 축소되었다.<sup>337)</sup>

이런 상황에서 17시경 대대는 미 제3사단으로부터 점적단절을 위한 충분한 항공지원이 개시되면 전곡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80대로 이루어진 차량제대는 전차 엄호 하에 교량을 통과하여 전곡으로 철수하고 보병은 임진강을 도하한 후 단애지역을 등판하여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sup>338)</sup>

잠시 후 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격한 폭격기들이 대대 전방과 후방 256고지를 폭격하기 시작하였고, 네이팜탄의 연기가 적의 시계를 차장하자 먼저 차량제대가 출발한 데 이어 보병들도 임진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공군도 대대 철수를 극력 저지하기 위하여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였으나 대대의 강력돌파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벨기에대대 장병들은 민기 어려울 정도의 투혼을 발휘하여 15m나 되는 단애지역을 단숨에 등판한 후 18시 30분경 우인점 미 제65연대 제3대대 지역으로 철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조금 전에 부대대대장이 인솔한 차량제대도 적의 포격에 차량 4대만 손실을 입고 무사히 이 지역을 통과하였다.<sup>339)</sup>

이 전투에서 대대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중공군의 4월 공세를 저지하는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공군 차단선을 강력히 돌파하는데 성공하여 유엔군의 귀감이 되었다.

337)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p.119.

3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67쪽.

3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68쪽.

## 2) 학당리 전투(1951. 10. 11. ~ 10. 13.)

학당리 전투는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철원과 평강 사이의 학당리 388고지에서 전초임무를 수행하던 벨기에·룩셈부르크대대가 1951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공군 제78사단의 2차에 걸친 야간공격을 격퇴한 방어 전투이다.

1951년 8월 미식장비로 재무장한 벨기에대대는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기본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새로운 대대로 변모하였고, 10월 7일 미 제15연대의 예비가 되어 철원 남쪽 울지리로 이동하였다.<sup>340)</sup> 대대가 이곳에 도착할 무렵 제15연대는 제임스타운(Jamestown)선으로 진출하기 위해 철원 서쪽 324고지(악어고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대대는 연대의 작전이 일단락 될 무렵인 10월 10일 철원-평강 중간지점에 위치한 학당리로 이동하여 388고지에 전초진지를 구축하였다.<sup>341)</sup> 이때 388고지는 각종 지뢰와 전술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 주변에는 강력한 탄막지대도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쪽의 발이봉과 동쪽 서방산의 중공군으로부터 감제되고 있어 방어에는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다.

중공군 제78사단은 10월 11일 새벽 대대 방어태세를 시험해 보기라도 하듯 1개 분대규모로 선제공격을 가해 왔으나 격퇴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자정이 지날 무렵부터 82mm 박격포와 76.2mm 곡사포 사격을 집중한 후 1개 중대규모를 투입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 공격 또한 대대의 탄막과 집중 사격에 걸려 무산되었다. 잠시 후 중공군은 1개 대대규모로 증강되어 2차 공격을 기도하였고, 그들 중 일부는 철조망지대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적은 대대의 완강한 저항과 박격포 및 지원포병의 탄막사격에 휘

340)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C484쪽.

341)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74.



말려 오히려 큰 피해만 입고 철수하였다. 동이 틀 무렵 대대 정찰대는 적이 유기한 사체 10구를 확인한 후 2km 북쪽의 발이봉까지 진출하여 적의 관측소를 파괴하고 복귀하였다.<sup>342)</sup> 공격에 실패한 중공군은 눈앞에 걸림돌 같은 존재인 388고지를 기필코 탈취하려는 듯 12일 자정 직전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1975년 9월 26일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건립된 벨기에-룩셈부르크군 참전 기념비

1개 중대규모는 조공으로 정면에서 전방의 C중대를 주공인 1개 중대규모는 우측방으로 우회하여 중앙의 B중대를 포위 공격하였다. 대대의 청음초가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저지한데 이어 외곽경계지역에서도 소화기와 수류탄이 난무하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주저항선에 도착한 적은 전력이 크게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진내로 돌격을 기도하였다. 이 전투에서 쌍방은 4시간 동안 전술적 요충인 388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예측불허의 사투를 벌였으나, 새벽 무렵 중공군이 철수하여 대대 승리로 일단락되었다.<sup>343)</sup>

342)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19쪽.

343)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20쪽;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74.

벨기에대대는 날이 밝자 전장도 정리하기 이전에 도착한 미 제65연대 제2대대에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울지리의 예비진지로 이동하였다. 이 전투에서 벨기에대대는 전초진지인 388고지에서 3일 동안 4차에 걸친 중공군의 집요한 파상공격을 격퇴하여 미 제1군단의 제임스타운선 유지에 크게 공헌하였다.

### 3) 김화 잣골 전투(1953. 2. 26. ~ 4. 21.)

김화 잣골 전투는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김화 서북방 5km 지점 잣골에서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벨기에·룩셈부르크대대가 1953년 2월 26일부터 4월 21일까지 중공군 제70사단의 공격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미 제3사단에 배속된 벨기에대대는 1953년 1월 26일 김화 서쪽 우구동-유곡리 일대로 이동하여 2월 26일 미 제7연대의 우전방 지역인 잣골(栢洞) 부근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sup>344)</sup> 대대가 배치된 잣골은 중공군의 강력한 방어거점인 오성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대대도 강력한 탄막지대와 지뢰지대의 구축은 물론 적의 포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통나무로 각종 진지를 유개화하는 등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 무렵 전방중대들은 주저항선 전방에 분대규모의 강력한 전초진지를 설치하였고, 중공군도 C중대 전초인 카롤(Carol) 진지에서 350m 떨어져 있는 400고지에 소대규모의 전초를 설치하고 중대 활동을 감제하고 있었다.

3월 8일 저녁 무렵 오성산에 배치된 중공군이 대대 지역으로 직사포와 122mm 박격포 사격을 개시하면서 전선의 소강상태는 깨어지지 않고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자정이 지난 01시경 중공군은 전초진지에 산발적인 포격을 개시하였고, 이 포격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되었다. 02시 30분을 전후하여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중앙 B중대 전초인 바바라(Barbara)를 공

344)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27쪽.

격한데 이어 좌전방 A중대의 엘리스(Alice) 전초와 우전방 C중대의 카롤전초를 공격하였다.

〈상황도 3-18〉 잣골 방어 전투(1953. 2. 26. ~ 4. 21.)



이때부터 쌍방간에는 치열한 포격전이 시작되었고, 이 포격전은 04시경 절정에 달하였다. 이 와중에 C중대 전초진지가 피탈되었다.<sup>345)</sup> 대대는 이날 새벽에 카롤전초를 회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포병화력 엄호 하에 역습을 개시하였으나 적이 먼저 철수하여 적이 유기한 사체 25구만 확인하고 전초진지를 확보하였다. 이후에도 중공군은 3월 13일 1개 소대규모로 A중대 엘리스 전초를 기습 공격하였으나, 중대 역습으로 격퇴되었다.

이 전투를 끝으로 전선은 다시 소강상태가 유지되는 듯하였으나 중공군이 4월 8일 01시 30분경 강력한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1개 소대규모로 카롤전초를 기습 공격하여 전초진지 쟁탈전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날 적의 포격에 전초진지의 유개호, 지뢰, 철조망 등이 완전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병 2명도 전사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2차에 걸쳐 카롤전초에서 격전을 치른 C중대를 접적이 경미한 A중대와 교대시켰다.

4월 8일 C중대 진지를 인수한 A중대는 사단지시에 따라 카롤전초의 긴급복구에 주력하여 13일 진지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적은 17일 밤부터 다시 포격을 재개하였고, 이 포격은 18일 밤까지도 산발적으로 지속되었다. 자정 무렵 중공군은 B중대 정면과 카롤전초를 목표로 기습공격을 개시하였고, 이에 대대는 탄막사격으로 대항하였다. 이때 중공군 일부는 B중대 교통호까지 육박하였으나 진내사격과 혼신을 다한 중대의 백병전에 밀려 30여구의 사체를 유기하고 물러났다.<sup>346)</sup>

대대는 이 전투를 끝으로 55일 동안 전초진지를 고수하기 위해 포격전과 일진일퇴 공방전을 펼치면서 사투한 잣골 지역을 미 제7연대에 인계하고 4월 21일 예비 진지인 우구동-유곡리 일대로 이동하며 대대의 잣골 전투는 종료되었다. 이로써 대대기에는 ‘임진’, ‘학당리’에 이어 세 번째로 ‘잣골’이라고 쓰여진 영광의 전투리본이 추가되었다.

345)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30쪽.

346)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33쪽.

다. 참전의 결과와 의의

참전기간 동안 벨기에군의 병력파견은 약 600~9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1951년 6월 30일에는 602명을 그리고 1년 후인 1952년 6월 30일에는 623명을 기록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의 병력현황은 300여 명이 증가한 944명이였다.<sup>347)</sup> 1개 보병대대를 파견한 벨기에는 기간 중 장교 199명과 부사관 516명, 병사 2,873명 등 연인원 3,498명을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sup>348)</sup>

〈표 3-32〉 벨기에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지 상 군
3,498명	보병대대 : 1 / 병력 : 900명

벨기에군은 금굴산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99명이 전사하고 33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명이 실종되고 1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sup>349)</sup> 대대는 한국과 미국대통령의 부대표창을 비롯해 태극 및 을지무공훈장 등 56개의 대한민국 무공훈장과 미국 동성 십자훈장 24개 등을 수여받았다.<sup>350)</sup>

〈표 3-33〉 벨기에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99명	336명	4명	1명	440명

347)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348)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74쪽.

34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4.

350)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45쪽.

한편 벨기에대대와 통합되어 운용된 룩셈부르크는 1개 보병소대를 1951년 1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제1차로, 그리고 1952년 3월 28일부터 1953년 1월 7일까지 제2차로 각각 파견하였다. 이 기간 중 룩셈부르크군은 장교 2명과 부사관 10명, 병사 88명 등 연인원 100명을 파병하였으며, 그중 2명이 전사하고 13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sup>351)</sup> 룩셈부르크소대는 대한민국의 태극무공훈장 1개를 비롯하여 미국의 동성훈장 및 동성십자훈장 7개 등과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받았다.<sup>352)</sup>

〈표 3-34〉 룩셈부르크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2명	13명			15명

유엔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요청에 부응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제 1,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국토가 유린되는 치욕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는 국제기구인 유엔의 집단안보 원칙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북한의 남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이처럼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을 파견한 배경에는 자유를 수호하고 국제질서를 확립하려는 양국 국민들의 결의와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 6. 그리스(Greece)군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그리스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유럽·아프리카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

351)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77쪽.

352)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5.

에 위치하여 빈번한 외세침략의 목표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그리스는 소련을 비롯한 위성국의 지원을 받은 국내공산주의자들의 반란으로 수도 아테네를 제외한 대부분 국토를 내어주는 등 1944년부터 1949년까지 내전을 겪어야 하였다.<sup>353)</sup>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공산반란군을 완전히 격멸하였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리스 정부는 내란을 수습한 지 1년도 채 못된 어려운 상황에도 지원군의 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유엔에 통보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체험한 그리스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었다. 1950년 7월 20일 그리스 정부는 C-47수송기 7대로 편성된 공군부대 파견을 제의한 후 9월 1일에 1개 보병여단 파병을 추가로 통고하였다. 아울러 이들을 통합 지휘할 '파한 그리스군 사령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sup>354)</sup>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사령부를 편성하고 훈련에 착수할 당시 한국전선의 전황은 유엔군이 북진을 단행하는 등 급격히 호전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 정부는 파견병력을 1,000명 규모로 감축해달라는 유엔군사령부 요청에 따라 병력을 대대규모로 축소하였다. 내전에 참전하여 전투경험이 풍부한 장교 50명과 사병 738명으로 대대를 편성하고 장교 3명과 사병 58명의 보충대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공군 1개 수송편대의 파견을 유지하는 한편 '파한 그리스군 사령부'를 대신할 '유엔군사령부 그리스군 연락장교단'을 신설하고 다스칼로폴로스(Ioannis Dascalopoulos) 대령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일명, '스파르타대대(Sparta Battalion)'라 불린 그리스 보병대대는 11월 16일 대대장 알부지스(Dionysios Arbouzis) 중령 지휘 하에 미군 수송선

353)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0.

354)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562쪽.

편으로 피레우스항을 출항, 23일의 항해 끝에 12월 9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sup>355)</sup> 그리스대대는 부산에 도착한 후 곧바로 김해 공군기지 부근에 설치된 유엔군수용대로 이동해 현지적응훈련을 마치고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1951년 1월초부터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리스군의 사열 장면

대대는 이천 부근 381고지 방어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려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공산군의 주요 거점인 임진강 부근 고양대·대노리고지 등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펼쳤다. 6·25전쟁에 참전한 그리스 보병대대는 충주지역 잔적 소탕작전, 이천 381고지 전투, 홍천-춘천-화천 진격전, 연천 313고지 전투, 임진강 부근의 대노리고지 공방전, 철원지구 420고지 전투, 북정령 전투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파한 그리스군 중 공군은 C-47수송기 7대와 장병 67명으로 구성된 제13수송편대를 창설하였다. 이 수송편대는 1950년 12월 1일 일본 이다쓰케 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미 제5공군에 배속되었으며, 이후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사단을 직접 지원하여 전·사상자를 후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55)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1.



한국전선에 파견된 그리스군은 파한 사령관인 다스칼로폴로스(Ioannis Dascalopoulos) 대령 휘하에 3개 보병중대와 본부중대 및 보충중대로 편성되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요 장비는 81mm 박격포 6문과 60mm 박격포 9문, 57mm 무반동총 4문과 3.5인치 로켓포 9문, 2.36인치 로켓포 9문, 50mm 기관포 2문, 30mm 중기관총 13정 등이었다.<sup>356)</sup> 전쟁기간 중 참전한 그리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주요 지휘관은 다음 <표 3-35>와 같다.

<표 3-35> 그리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 휘 관		
	계급	성 명	참전기간
유엔군사령부 연락장교단	소장	Athanasios Daskarolis	1951.1.~1951.10.
	소장	Nenelaos Pandelidis	1951.10.~1952.5.
	소장	Nicolaos Tassonis	1952.5.~1952.11.
	소장	Kon/Nos Kostopoulos	1952.11.~1953.6.
	준장	Georgios Vlassis	1953.6.~1953.12.
	소장	Alexandros Christeas	1953.12.~1954.10.
	대령	Ioannis Gennimatas	1954.11.~1955.5.
	대령	Panagiotis Christopoulos	1955.5.~1954.1.
그리스대대	중령	Arboutzis Dionysios	1950.11.~1951.8.
	중령	Apiliopoulos Kyriakos	1951.8.~1952.4.
	중령	Tamvakas Nicolas	1952.4.~1953.1.
	중령	Georgios Koumanakos	1953.1.~1953.7.
	중령	Prokos Elias	1953.7.~1954.1.
그리스연대	대령	Ioannis Gennimatas	1954.1.~1954.10.
	중령	Christopoulos Panagiotis	1954.10.~1955.5.

356) 국가보훈처, 『아테네의 후예들 : 그리스군 6.25전쟁 참전사』, 2006, 63쪽.

파한 그리스군 중 C-47수송기 7대와 장병 67명으로 편성된 그리스 공군 제13수송편대의 지휘관은 다음 <표 3-36>과 같다.

<표 3-36> 그리스 공군 제13수송편대 지휘관

계급	성 명	참전기간
소령	Chatzakis Ioannis	1950. 11. ~1951. 4.
소령	Demiris Panagiotis	1951. 4. ~1951. 10.
소령	Plionis Georgios	1951. 10. ~1952. 8.
중령	Panayotis Fragoyannis	1952. 8. ~1952. 12.
중령	Kostakos Jaomes	1953. 1. ~1953. 10.
소령	Voutsas Jaomes	1953. 10. ~1954. 12.
소령	Boujouvalas Theodoros	1955. 1. ~1955. 5.

#### 나. 그리스 지상군의 주요 전투

##### 1) 이천 381고지 전투(1951. 1. 29. ~ 1. 30.)

이천 381고지 전투는 중공군 제3차 공세의 반격으로 미 제9군단이 1951년 1월 25일에 단행한 ‘썬더볼트(Thunderbolt) 작전’에 참가한 그리스대대가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천 381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38군 예하 제112사단의 3차에 걸친 공격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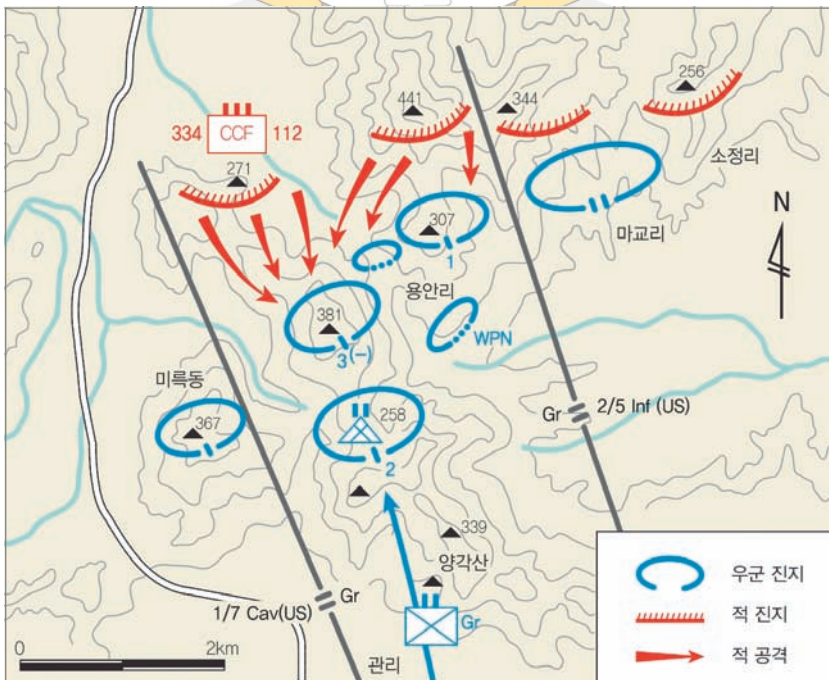
1951년 1월 23일 미 제9군단장은 썬더볼트 작전에 참가한 미 제1기병사단에 대해 “25일 여명을 기해 이천-김량장 북쪽으로 공격하여 한강 남안까지 진격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sup>357)</sup> 사단장 게이(Hobert R. Gay) 소장은 제7연대와 제8연대 병진으로 이천-김량장선 전방의 적을 격파한 후 계속 한강선으로 진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이천 동남쪽 응암리로 이

357)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anuary 1951*, p.242.

동하여 제7기병연대에 배속된 그리스대대는 연대 목표의 중추인 이천-곤지암-경안리 도로축선을 따라 진격하고 도로 양측 고지들을 공략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sup>358)</sup>

1월 25일 07시 30분 연대 선봉으로 공격을 개시한 그리스대대는 이천-곤지암-경안리 도로를 따라 이천을 점령하고 북쪽 정개산까지 진출하는 등 순조로웠다. 다음날 새벽 공격을 재개한 대대는 맹개산(407고지) 부근까지 진출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적의 기습공격에 4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하는 참전 이래 최초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상황도 3-19〉 381고지 전투(1951. 1. 29. ~ 1. 30)



358) 그리스대대는 미 제1기병사단 제7연대 제4대대로 배속되었다.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1.

대대는 사단의 전투지경선 조정에 따라 1월 28일 관리로 축차적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경안리-이천-김량장의 삼각지대 내에 적의 거점과 최후 저항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대는 관리로 이동과 동시에 곤지암 공격 발판인 양각산 북쪽 381고지와 307고지, 258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대대는 좌측의 제1대대가 중공군의 역습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지원하라는 연대 명령에 따라 제2중대를 급파하였다. 중대는 29일 0시 30분경 제1대대의 지휘소가 위치한 367고지 부근에 도달한 후 제1대대와 함께 피탈된 367고지를 공격하여 탈환하였다. 대대장은 제2중대가 복귀하자 연대명령에 따라 각 중대를 곤지암지구로 복진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대대가 배치된 지역은 해발 300~400m 고지군이 형성되어 있고, 협곡과 능선의 급경사, 계천, 적설 등으로 부대기동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381고지는 남쪽 지세가 가파르고 험한 반면 북쪽은 서북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의 경사가 완만하여 적의 공격 시 병력 증원과 보급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무렵 그리스대대 정면에는 중공 제38군 예하 제112사단 제334연대가 307고지 북쪽과 서북쪽의 344고지, 441고지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2개 연대가 제334연대 후방에 위치하여 증원태세를 갖추고 있었다.<sup>359)</sup> 반면 대대는 제1중대를 307고지에, 제3중대는 중앙의 381고지에, 그리고 제2중대는 양각산 북쪽 258고지에 각각 배치하였다.

대대는 제1중대 진지 전방 1km 북쪽에 위치한 441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기습공격 임무를 제1중대에게 부여하였다. 이 고지는 삼각지대 내 최고봉으로 대대진지를 감제할 뿐만 아니라 적의 가장 견고한 진지였다. 따라서 대대장은 제1중대에 대대 자동화기를 증원하고 81mm 박격포소대로 근접 지원

359) Eighth Army, G-3 Journal, Summary, 27 January 51.

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441고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면서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대대는 중공군 제112사단 제334연대 소속의 규모 미상 병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sup>360)</sup> 1월 29일 자정이 조금 지난 0시 20분경 중공군은 제3중대 1개 소대를 공격준비사격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약 10분 후 적은 두 방향에서 381고지를 공격해왔다. 500~600명의 적이 271고지로부터 381고지를 좌측으로 우회하는 동안 또 다른 400~500명이 441고지로부터 381고지 정면으로 접근하였다. 나팔을 불고 괴성을 질러대는 중공군의 파상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었으나, 대대의 집중사격에 부딪쳐 치열한 총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아군 포병의 지원화력이 적을 강타하면서 적의 공세는 중단되었다.

물러난 지 채 20분도 안된 1월 30일 01시에 적은 새로운 부대를 증원받아 재공격을 개시하였다. 381고지 양쪽에서 공격한 적은 사상자가 속출함에도 아랑곳없이 탄막지대를 뚫고 진내로 쇄도하여 고지 정상에서는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제3중대는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완전 고립된 상태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때 아군기가 출현해 조명탄을 투하하면서 제3중대 상황을 파악하게 된 대대장은 제2중대의 1개 분대를 투입하여 제3중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이들이 총검으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381고지 정상에서 제3중대와 합류하자, 사기가 고조된 중대는 총력전을 펼쳐 중공군의 2차 공격을 격퇴하였다.<sup>361)</sup>

고지에서 물러난 중공군은 새로운 증원 병력으로 전열을 정비한 후 02시 20분에 3차 공격을 개시하였다. 순식간에 고지정상으로 진입한 적을 맞아 제3중대는 또 다시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총격과 수류탄 투척, 총검이 난무

360)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2.

361)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578-579쪽.

하는 가운데 아군기가 나타나 조명탄을 투하한 후 폭격과 기총소사로 적을 공격하였다. 이에 적의 공격 기세는 점차 약화되었고, 적은 고지 아래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아군기가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가운데 추격을 실시하였으며, 04시 30분 전투를 종료하였다.

중공군은 381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약 3,000명의 병력을 투입하였으나, 그리스대대의 분전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대는 6·25 전쟁에 참전한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의 중공군과 격전을 펼쳐 적이 유기한 28구의 사체를 확인하였다. 대대도 전사 11명과 부상 14명 및 실종 1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날 대대가 용전분투한 활약상은 높이 평가되어 유엔군의 귀감이 되었고, 외신들도 이들의 활약상을 타전하였다.

## 2) 연천 313고지 전투(1951. 10. 3. ~ 10. 5.)

연천 313고지 전투는 미 제1군단의 코만도작전에 참가한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된 그리스대대가 작전기간 중인 1951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연천 북방의 선벽 부근에서 중공군 제47군 예하의 제139사단 및 제141사단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실시한 공격작전이다.

휴전회담이 개시되자 공산군은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진지를 강화하고 전력증강을 시도하는 등 대규모 공세로의 전환을 기도하였다. 이를 간파한 미 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 대장은 휴전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서울-철원간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해 제임스타운(Jamestown)선을 목표로 한 코만도작전(Operation Commando)을 계획하였다.<sup>362)</sup>

계획대로 제임스타운선을 확보할 경우 후보급로인 제3번 도로와 철원에 이르는 경원철도의 안전이 보장되고, 철의 삼각지대 좌측 방호가 가능

36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98.

하였다. 또한 역곡천 평지를 통제할 수 있어 그 대안의 적 상황에 대한 경계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임진강 서안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예하 총 5개 군단이 참여한 이 작전에서 미 제1기병사단은 임진강을 통제할 수 있는 대광리 서쪽 고지군 등 10km 정면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 사단장으로부터 사단의 우일선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7연대장 길머(Dan Gilmer) 대령은 배속된 그리스대대를 중앙에, 제2대대를 우측에 그리고 제3대대를 좌측에 배치하여 418고지-313고지-334고지-347고지를 아우르는 목표 크레이그(Craig)에 대한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sup>363)</sup> 그러나 공격정면에는 중공군 제47군 예하 제139사단과 제141사단이 전면에, 제140사단이 그 후방에 배치되어 와이오밍선을 통제할 수 있는 고지대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1974년 10월 3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687에 건립된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

363)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618쪽.

10월 1일 연대장으로부터 “313고지와 334고지를 점령하고 그 일대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대장 스피리오폴로스(Kyriokos Spiliopoulos) 중령은 제1중대로 선벽 부근 313고지를 탈취한 후 제3중대로 334고지를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 중대에 이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1중대는 다음날 19시에 은밀히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하였다.

제1중대는 10월 3일 05시를 기해 실시된 1시간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나자 2개 소대 병진으로 313고지 동남 능선으로 돌진하였다. 이때 적의 저항이 예상외로 강력하여 자동화기 사격과 수류탄 투척이 이어지는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결국 후속소대가 합류한 후 중대 전 병력으로 백병전을 펼친 끝에 첫 번째 진지를 돌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오 무렵 증강된 중대규모 적이 10여 정의 중기관총 엄호사격을 받으며 역습을 가해와 2시간 동안 교전이 전개되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대대장은 334고지를 공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제3중대를 증원부대로 투입하였으나, 적의 지중포격에 걸려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14시 30분 연대장 승인 하에 병력을 313고지 아래 기슭으로 철수시켰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참전 이후 하루 전투로는 가장 많은 14명이 전사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sup>364)</sup>

코만도작전 개시 첫날 미 제7기병연대는 목표점령에 실패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대대 우측 제2대대가 313고지 동쪽 418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면, 이때 그리스대대가 313고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10월 4일 정오가 지나도록 제2대대가 418고지를 점령하지 못하자 연대장은 그리스대대 단독으로 313고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대대는 14시에 제2중대를 내세워 항공폭격과 포병화력을 적의 특화점에 집중한 후 공격을 재개하였다. 중공군도 후방 고지로부터 화력지원과 증원

364)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619쪽.



부대를 투입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여 제2중대는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다시 전열을 정비한 제2중대는 15시에 두 번째 돌격을 감행하여 18시경 적의 주진지에 돌입하였으나, 다시 적의 역습에 걸려 철수하게 되었다.<sup>365)</sup> 이날 전투에서 대대는 14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10월 5일 이른 아침부터 유엔공군기와 포병은 313고지에 대해 전례없이 치열한 공격을 가하였다. 탄약과 보급품을 보충하면서 차기공격을 준비한 그리스대대는 제2중대를 선봉으로 마지막 공격에 나섰다. 완강한 적의 저항을 예상했던 제2중대는 의외로 저항이 전무한 가운데 14시경 목표인 313고지를 탈취하였다. 이미 적의 주력은 아군의 공중폭격과 포격으로 많은 인명손실이 발생하자 철수를 단행한 상태였다. 견고하게 구축된 진지와 교통호안에는 150여 구의 시체와 부상자 12명만이 남아있었다. 그리스대대는 3일에 걸쳐 실시된 이 전투에서 105명의 인명손실이 있었고 6·25전쟁에서 겪은 가장 처절한 전투로 기록되었다.<sup>366)</sup>

### 3) 북정령 전투(1953. 7. 16. ~ 7. 26.)

휴전협정을 목전에 두고 중공군이 7월 공세를 단행하자 미 제9군단은 방어중심을 강화하기 위해 미 제3사단을 한국군 수도사단 후방의 제공동으로 이동시켰다. 미 제3사단은 예하 제15연대를 금성 서남쪽에 위치한 진현리와 양지리에 배치하였는데,<sup>367)</sup> 이때 미 제15연대에 배속된 그리스대대도 적근 산 서남쪽 고비목으로 이동하여 7월 15일 김화-금성-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북정령 남쪽 구릉지대로 진출하였다.

36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00.

366) 그리스대대는 313고지 탈취의 공로로 1952년 2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부여받았다.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2.

367)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75.

7월 15일 밤부터 사단 정면 전진진지를 탐색하던 중공군 제68군 제203사단 제608연대는 다음날 야간부터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우인집 미제15연대 제1대대를 공격하였다. 자정 무렵 적의 포격은 연대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포격으로 진지구축을 미처 끝내지 못한 그리스대대는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자정이 지난 0시 40분에 대대규모 적이 제1대대 492고지와 532고지를 공격하여 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04시경 또 다른 1개 대대가 495고지 방향으로부터 대대를 공격하였다. 대대는 축차적으로 병력을 투입하여 파상공격을 펼치는 적과 치열한 진내전을 펼쳐 새벽 무렵에 이를 격퇴하였다. 이어 대대는 15시경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462고지로부터 출격한 2개 중대 규모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전혀 예상 밖의 주간공격을 받은 495고지 제3중대는 포병화력 엄호 하에 약 2시간 30분에 걸친 치열한 혈전을 전개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한편 전선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7월 20일 그리스대대는 작전지역을 한국군 제1기갑연대 제1대대에 인계하고 다음날 새벽에 김화-금성 도로와 진현리-마현리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요충인 북정령 남쪽 고지들을 인수하였다. 대대는 제3중대와 제2중대를 492고지와 532고지에 각각 배치하고, 제1중대는 특전중대가 점령한 595고지 능선에 배치하면서 중공군 제54군 제130사단 제390연대와 마주하게 되었다.<sup>368)</sup>

7월 21일 밤 중공군은 예상대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대대는 23일 새벽에 이를 격퇴하였다. 그러나 24일 저녁에 적은 2개 연대를 투입하여 사단 전선의 돌파를 기도하면서 제2중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으나, 중대의 완강한 저항으로 이마저도 실패하였다.

휴전을 3일 앞둔 7월 25일 22시 30분 중공군은 증강된 대대규모 병력을

368)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676쪽.

선봉으로 포병사격을 집중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주력은 북정령을 거쳐 도로 개활지를 횡단한 다음 492고지와 532고지 진지 사이를 돌파하려 하였고, 또 다른 중대병력은 제3중대진지 정면을 그리고 또 다른 중대는 제2중대의 좌측에 대한 돌파를 기도하였다.

이러한 적의 기도를 간파한 대대장은 지원화력이 적의 후속대열을 저지하는 동안 대대의 모든 화력으로 425고지와 532고지 사이의 적을 집중 사격하였다. 파상적인 공격을 지속하던 적은 7월 26일 01시 공세를 포기하고 물러났으나, 한 시간 후 재공격을 가해왔다. 적은 2개 중대로 제3중대를 집중 공격하는 한편 1개 중대로 제2중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전 화력을 집중하여 30여분 만에 이 공격마저 격퇴하자 적은 북정령 너머로 후퇴하였다.<sup>369)</sup>

그리스대대는 이 전투에서 19명이 전사하고 2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적 105명을 사살하고 27명을 포로로 획득하는 전과를 올려 휴전 직전까지 그들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중공군에게 일침을 가하였다. 특히 대대는 휴전을 앞두고 피해를 줄이려는 미 제15연대장의 철수 종용을 마다하고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sup>370)</sup>

## 다. 그리스 공군의 주요 활동

### 1) 전반기 작전상황

1950년 12월 1일 60시간의 항속 끝에 일본의 이타츠케 공군기지에 도착한 그리스공군 제13수송기편대는 미군 제315전투수송비행사단 제21수송비행대대에 배속되었다. 12월 4일 그리스편대는 미 제21수송비행대대와 함께

369)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2.

370)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678쪽.

함흥 남쪽 연포기지(K-27)로 이동하였다. 편대는 장진호 전투 당시 하갈우리-고토리 일대에서 위기에 처한 미 제1해병사단에 보급품을 수송하고 전사상자를 후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어 편대는 유엔군의 흥남철수작전을 지원한 후 수영기지(K-9)로 이동하였다.

1951년 4월 유엔군 반격에 따라 그리스편대는 미 제374전투비행단의 작전지휘 하에 7월말까지 공수임무를 수행하였다. 대구기지(K-2)로 이동한 그리스편대는 장비 및 보급품과 전사상자를 수송하고, 5월 15일 김포기지(K-14)로 복진하여 미 제21수송비행대대의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때 그리스편대는 기종이 소형인 C-47기로 편성되어 협소한 간이활주로나 연락기용 활주로를 이용하여 물자 및 병력을 수송할 경우가 많았다. 7월 중 그리스편대는 아군의 전략적 요충인 서해 백령도 지원작전을 실시하여 병력과 보급품을 공수하였다.

## 2) 후반기 작전상황

1952년 1월 15일 그리스편대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일본의 아시아기지에서 한국의 여의도기지(K-16)로 전진하였다. 3월에 접어들어 출격횟수가 증가되어 연말까지 총 899회의 실적을 기록하였다.<sup>371)</sup> 이 과정에서 편대는 불행한 사건을 겪어야 했는데, 12월 22일 편대장이 직접 조종한 2-616호기가 부상병 6명을 싣고 수원기지 활주로를 발진하던 순간 이륙중인 공군 F-80형 제트전폭기와 충돌해 기체가 완파되고 편대장을 비롯한 11명이 전사하였다.

1953년에 접어들어 그리스편대는 정상적으로 병력과 장비 및 보급품을 전방으로 공수하였다. 편대는 경우에 따라 지상보급추진이 곤란한 산악지역

371)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698쪽.

이나 폭설로 교통이 두절된 지역은 물론 공산군의 대공포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송임무에 주력하였다. 편대는 2월부터 기상 호전과 그동안의 현지훈련 결과로 실적이 더욱 향상되어 비행사단의 발행지인 ‘Ashiya Breeze’는 편대 활약상을 크게 보도하기도 하였다.

6월 이후 휴전협정 체결이 임박해지면서 공산군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아군의 전사상자도 급증하였고, 편대 활동도 증가되었다. 휴전이 성립된 이후에도 그리스편대는 C-47기 5대로 수송작전을 계속하였다. 참전기간 동안 397명의 연 병력이 참전한 그리스편대는 2,983회의 작전출격으로 13,777시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하였으며, 전사상자 9,240명과 기타 병력 70,568명 그리고 장비 및 보급품 5,036,913kg을 수송하였다.<sup>372)</sup>

그리스편대는 1950년 12월 참전 이래 1953년 3월까지 전공으로 1953년 10월 23일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받았고, 1954년 7월에는 미국 대통령의 부대표창을 받았다.<sup>373)</sup> 그리스편대는 1955년 3월 하순 본국정부 귀국명령에 따라 제1진이 1955년 4월 1일에, 그리고 제2진이 4월 28일에 한국을 떠났다.

#### 라. 참전의 결과와 의의

참전기간 동안 그리스군의 병력파전은 약 1,0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1951년 6월 30일에는 1,027명을 그리고 1년 후인 1952년 6월 30일에는 899명을 기록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의 병력 현황은 1,263명이었다.<sup>374)</sup> 1개 보병대대와 1개의 수송기편대를 파견한 그리스는 기간 중 연인원 4,992명을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sup>375)</sup>

372)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704쪽.

373)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2.

37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375)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86쪽.

〈표 3-37〉 그리스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지상군	공 군
4,992명	보병대대 : 1 병력 : 1,263명	수송기 편대 : 1

그리스군은 이천 381고지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92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54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sup>376)</sup>

〈표 3-38〉 그리스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192명	543명	-	3명	738명

이 기간 중 그리스대대는 대한민국과 미국대통령으로부터 각 2회의 부대표창을 수여받았으며, 대한민국의 을지무공훈장 5회와 충무무공훈장 45회, 미국의 은성훈장 46회와 동성(V)훈장 122회 및 동성(M)훈장 223회 등 수많은 훈장을 국내외로부터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sup>377)</sup>

그리스는 1945년 6월 26일 유엔 창설에 서명한 53개 회원국의 일원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 유지에 참여하였다. 그리스는 한국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유엔의 한국에 대한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1949년 8월 7일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승인하여 양국 우호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되었다. 그리스군의 귀중한 헌신에 힘입어 한국은 전쟁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가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제는 세계평화와 국제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37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4.

377)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706쪽.

## 제4절 아시아지역 참전국

### 1. 필리핀(Philippine)군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필리핀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필리핀은 공산주의자들의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테러와 스페인 및 미국에 의한 통치 영향으로 반공주의와 친서방 정책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필리핀 정부는 북한의 남침에 따른 유엔의 대북한 제재조치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파병의사까지 밝혔다.

한국에서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필리핀은 독립한 지 불과 4년에 지나지 않았고, 공산반군과의 교전으로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유엔이 대한군사원조를 결의하자 전차 18대를 급파하고, 8월 7일에는 1개 보병대대의 파병을 공표하였다.

필리핀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즉시 전투에 투입이 가능한 부대 파병에 합의하였다.<sup>378)</sup> 필리핀의 참전은 “아시아에서 백인들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비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미국은 필리핀군의 파병을 적극 지지하였다.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공산반군 토벌작전에 투입된 부대 중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제10대

378)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02.

대를 파병부대로 선정하였다.<sup>379)</sup>

제10대대장 아주린(Mariano C. Azurin) 중령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여 총원 1,367명으로 모든 병과를 망라한 그리고 독립적인 전투능력을 갖춘 부대로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이 부대를 ‘필리핀한국원정군(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 to Korea, PEF TOK)’으로 명명하였다.<sup>380)</sup> 필리핀 한국원정군은 1950년 9월 2일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파병식을 갖고 9월 15일 미 수송선편으로 마닐라(Manila)항을 출발하여 4일 만인 9월 19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필리핀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 지상군 참전국이 되었다.

한국에 도착한 필리핀군은 밀양으로 이동하여 미 제8군의 예비로 현지적응과 전술훈련을 받았다. 10일간의 현지적응훈련을 마친 필리핀군은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10월 1일 경상남도 진주 남쪽의 사천으로 이동해 비행장 경비임무를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필리핀군은 낙동강방어선에서부터 38도선을 넘어 평양, 군우리까지 진격하였고, 1·4후퇴 당시 서울방어와 1951년 3월 서울 재탈환 작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서부전선의 문산에서부터 중부전선 철의 삼각지대, 동부전선 편치불 지역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모든 전선을 누비며,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군 및 캐나다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sup>381)</sup>

아주린(Mariano C. Azurin) 중령이 지휘하는 필리핀대대는 장교 64명과 사병 1,303명으로 편성되어 독립전투능력을 갖춘 대대전투단으로 3개 소총중대 및 1개 수색중대, 경전차 1개 중대, 105mm 곡사포 1개 포대 그리고 대대본부 및 본부중대로 편성되었다.<sup>382)</sup> 전쟁기간 중 필리핀 지상군 참

379)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71쪽.

380)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02.

381)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295~309쪽.

382)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71쪽.



전부대 및 지휘관은 다음 <표 3-39>와 같다.

<표 3-39> 필리핀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비 고
	계급	성 명	참전기간	
제10대대전투단	중령	Mariano C. Azurin	1950.9.~1950.11.	미 제25사단, 미 제187공수연대, 미 제3사단 배속
	중령	Dionisio S. Ojeda	1950.12.~1951.9.	
제20대대전투단	중령	Salvador Abcede	1951.9.~1952.6.	미 제3,45사단 배속
제19대대전투단	중령	Ramon Z. Aquirre	1952.6.~1953.4.	미 제45사단 배속
제14대대전투단	중령	Nicanor Jimenez	1953.4.~1954.4.	미 제45사단 배속
제2대대전투단	중령	Antonio De Veyra	1954.4.~1955.5.	

나. 필리핀 지상군의 주요 전투

1) 울동 전투(1951. 4. 22. ~ 4. 23.)

울동 전투는 미 제3사단에 배속된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이 중공군의 춘계공세 개시일인 195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연천 북방 울동에서 중공군 제34사단의 공격을 저지, 우인접 부대의 철수를 성공적으로 엄호한 방어 전투이다.

1951년 2월말 새로이 한국전선에 투입된 중공군 제3병단과 제19병단 이하 6개 군은 캔사스선 북방 철의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병력을 전개하고 대공세를 준비하였다. 중공군의 이러한 기도를 간파한 미 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 대장은 진격중인 부대들에게 최대의 타격으로 적의 공격 기도를 사전에 방지하되, 결정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경우 단계적인 철수를 실시하라고 명령하였다.

1951년 4월 21일 오전을 기해 공격개시지점에 진입한 중공군과 북한군은 다음날인 4월 22일 해가 질 무렵에 대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때 중공군 제3병단 소속의 제12군은 연천의 동쪽 방향으로 돌격한 후 제15군과 함께 연천의 미 제3사단을 섬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sup>383)</sup> 따라서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유타-와이오밍선 상으로 진출한 필리핀대대는 적의 주공과 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필리핀대대는 미 제65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4월 22일 전곡을 출발하여 연천 북방의 울동으로 이동하여 제65연대 제1대대의 주저항선을 인수하였다.<sup>384)</sup> 이날 오후 철원-연천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방어진지를 구축한 터키여단은 중공군 포대장을 생포하였다. 그가 심문과정에서 “오늘밤 중공군이 총공세를 개시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자 대대는 개인호와 교통호의 보장은 물론 예상접근로에 대한 화망구성도 재점검하는 등 방어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중공군은 일몰과 함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20시를 전후하여 피리와 호각 등 괴성을 지르며 우측의 터키여단을 먼저 공격하였다.<sup>385)</sup> 적은 아군진지를 향해 파도처럼 몰려들었으나, 터키병사들은 백병전에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주저항선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후방으로 침투한 일단의 적이 통신소를 파괴함으로써 사격지휘통신망이 마비된 터키군은 혼란에 빠졌다. 이를 틈타 중공군 제12군 선두부대가 터키군 진지 정면을 돌파하면서 적의 대병력이 몰려들었다.

이 무렵 임진강 북안의 금굴산에 배치된 벨기에대대도 중공군 제63군 예하 제188사단의 공격을 받고 일대 격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곳이 돌파될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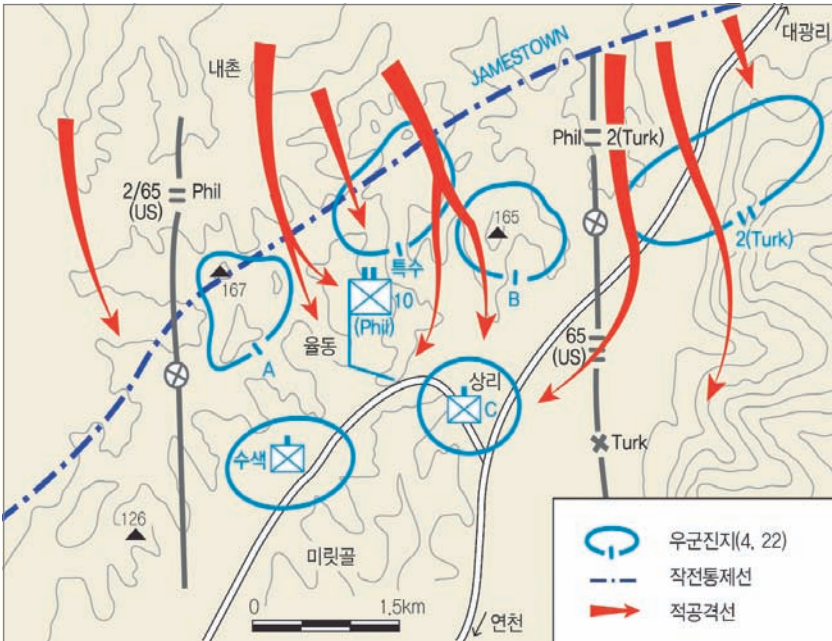
38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478-479쪽.

384)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385.

385) Cesar p.Pobre, *Filipinos in the Korean War*, Dept. of National Defense, Philippine Veterans Affairs Office, 2012, p.179.

우 5km 동쪽의 전곡이 적의 수중에 떨어져 필리핀대대의 퇴로가 차단될 수 있었다.

〈상황도 3-20〉 울동 전투(1951. 4. 22. ~ 4. 23.)



아군의 탄막사격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끊임없이 주저항선으로 접근하였다. 23시경 적의 공격은 필리핀대대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때부터 전방중대들은 자정까지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맞아 예측불허의 일전을 전개하였다. 자정이 지난 무렵 중공군은 좌측의 B중대와 중앙의 특수중대간의 간격을 발견하고 1개 대대를 집중 투입하였다. 5분도 지나지 않아 B중대 우측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돌파구 저지를 위해 중대장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썼으나, 전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03시경 B중대는 중공군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다음 능선으로 철수하여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sup>386)</sup> B중대는 1시간 동안 수차에 걸쳐 역습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중앙의 특수중대도 측방으로 우회한 적에게 일부 진지를 피탈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대대지휘소도 후방으로 침투한 중공군을 맞아 행정요원까지 동원하여 이들과 교전 중에 있어 대대는 혼란상황에 빠져 들었다.<sup>387)</sup>

연대와의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대대는 새벽까지 우전방 B중대 지역만 돌파된 채 중공군의 돌파를 저지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대대는 빼앗긴 우전방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 예비인 C중대로 역습에 나섰다. 이때 미 제3사단 부사단장이 대대지휘소를 방문하여 23일 09시를 기해 캔사스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과 함께 필리핀대대의 진지사수로 터키여단과 미군부대들이 무사히 철수하였다고 치하하였다.<sup>388)</sup>

이에 따라 대대는 역습을 포기하고 철수를 개시하였으나, 지난밤 중공군의 포격으로 통신이 두절된 특수중대는 주력부대의 철수상황을 모른 채 계속 진지를 고수하고 있었다. 게다가 특수중대장은 지난밤에 빼앗긴 진지를 회복하기 위해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오 무렵 특수중대와 통신이 연결된 대대장이 즉각 철수를 종용하였으나 중대장은 전우들의 시체라도 수습한 후에 철수하겠다고 보고한 후 역습을 실시하였다.

이후 빼앗긴 고지로 진출해 여러 구의 전우 사체를 수습한 중대장 압(Yap) 대위는 적의 기관총사격으로 전사하였다.<sup>389)</sup> 특수중대는 부상자와 전사자를 수습한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적중에 고립되었으나, 과감하게 적진을 돌파하여 일몰 무렵 대대 주력과 합류하였다.

386)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p.386.

387)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109쪽.

388) Cesar P. Pobre, *Filipinos in the Korean War*, p.183.

389) Cesar P. Pobre, *Filipinos in the Korean War*, p.185.



울동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1966년 4월 22일 경기도 연천에 건립된 필리핀 참전비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전사 12명, 부상 38명, 실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적 2명을 생포하고 500여 명을 사살 및 부상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대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춘계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의 주력부대를 저지시켜 우인접 부대들이 철수할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음은 물론 그들의 책임감과 용맹성은 유엔군의 귀감이 되었다.

## 2) 아스날 · 에리 고지 전투(1952. 6. 15. ~ 6. 21.)

이 전투는 미 제45사단에 배속되어 티본고지 남단의 아스날 · 에리 고지에서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제19대대전투단이 1952년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고지 탈취를 기도한 중공군 제117사단의 공격을 백병전으로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필리핀의 세 번째 지상군으로 '사냥개(blood-hound)'라는 별칭을 가진 제19대대전투단은 1952년 5월 8일 부산에 상륙한 후 제20대대전투단이 있는 대광리 서북쪽 조밭골에 도착하였다. 당시 전황은 휴전회담이 교착상태

에 빠져 있었고, 쌍방은 회담에서의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지적이지만 유례없는 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산군은 6월 들어 포격을 확대하면서 아군의 주저항선에 대한 수색전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 제45사단은 주저항선 전방에 12개의 강력한 전초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카운터작전을 전개하여 1단계 목표를 점령하였고, 목표 8의 에리 고지와 목표 12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6월 15일 필리핀대대는 미 제179연대 제2대대의 진지를 인수하였는데, 대대 정면에는 중공군의 주저항선에서 반도처럼 뺏어 내린 티본(T-Bone) 능선이 있고, 그 끝에는 1개 소대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섬모양의 에리(Eerie)고지가, 500m 북쪽에는 아스날(Arsenal)고지가 위치하고 있었다.

필리핀대대는 대대 좌측의 L중대 1개 소대를 전방 중앙의 잉클 및 요크 고지에 추진 배치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K중대와 I중대는 미 제180연대의 예하 중대로부터 에리 및 194고지 전초를 인수하였다.<sup>390)</sup> 이에 중공군은 전투경험이 일천한 필리핀대대가 진지를 교대한 취약점을 이용하려는 듯 6월 18일 전초진지를 집중 포격하였다. 이에 대대도 박격포와 지원포병으로 대포병사격을 실시함으로써 포격전이 전개되었다.

대대가 아스날 고지에 L중대를, 에리 고지에 수색중대를 각각 배치하고 경계를 더욱 강화한 가운데 6월 19일 어둠이 내리자 중공군은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고 아스날 고지와 L중대를 공격하였다. 중대는 화력을 집중하여 이 적을 격퇴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적의 포격으로 포병관측장교가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sup>39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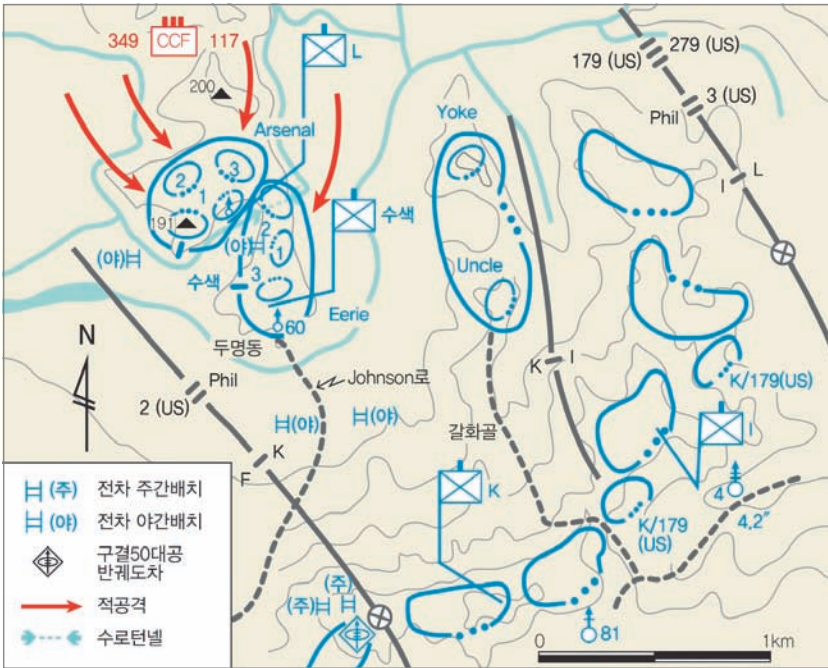
중공군이 물러나면서 전선은 소강상태가 유지되는 듯하였으나, 6월 20일 22시를 전후하여 적의 대구경포탄이 아스날과 에리 전초에 집중되었고, 이

390) Cesar P. Pobre, *Filipinos in the Korean War*, p.275.

391)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146쪽.

포격은 20여 분간 계속되었다. 이때 전초진지에는 분당 70~80발의 포탄이 떨어져 전초중대들은 고개도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전초를 지원하기 위해 발사된 조명탄이 터지면서 1개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전초를 포위 공격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에 대대는 지원화력과 대대의 모든 화력을 전초진지로 집중하였고, 전초중대들도 이에 가세하였다. 이러한 사격은 1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이 포격을 견디지 못한 중공군은 자정 무렵 철수하였다.

〈상황도 3-21〉 아스날 및 에리고지 전초전(1952. 6. 2. ~ 6. 22.)



그러나 전초에서 물러난 중공군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재편성을 실시한 후 재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야군의 전력을 분산시키려는 듯 이번에는 대대의 아스날, 에리 전초와 좌측의 미군 전초인 포크잡 전초에 5,000발의

포탄을 퍼부으면서 일출 직전까지 파상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연대규모로 증강된 중공군은 전차의 엄호 하에 L중대의 아스날, 에리 전초를 공격하였으나, 지원화력과 필리핀대대의 전 화력으로 이들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일부는 탄막사격을 뚫고 진내로 접근하였고, 전초중대들은 이들을 맞아 수류탄과 총검이 난무하는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적의 끈질긴 파상공격은 계속되었고, 전초중대는 소대장들이 전사하는 등 위기상황에 봉착하였으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혈전을 벌였다.<sup>392)</sup> 03시 40분 공격능력을 상실한 중공군은 다수의 사상자를 유기한 채 철수하였다.

6월 21일 필리핀대대를 방문한 미 제45사단장 리프너 소장은 대대가 세운 전공을 치하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도 부대표창을 수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적 전차 2대를 파괴하고 65구의 시체를 확인한 반면 전사 8명, 부상 16명의 손실을 입었다. 이날 4시간여의 격전에서 필리핀 제19대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차의 지원을 받는 2개 연대규모의 중공군을 격퇴하고 전초진지를 고수함으로써 그들의 강인한 책임감과 용맹성을 과시하였다.<sup>393)</sup>

### 3) 백석산-크리스마스고지 전투(1953. 7. 15. ~ 7. 18.)

이 전투는 중공군의 7.13공세로 크리스마스고지를 빼앗긴 미 제45사단 제180연대가 이를 탈환하기 위해 역습을 전개할 때 필리핀 제14대대전투단이 1953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근의 전초진지를 점령한 후 중공군의 역습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중공군의 최후의 공세인 7.13공세에 직면한 한국군 제2군단과 미 제10군단은 백석산-1220고지-선우고지(983고지)를 연하는 북한강 우안지역의 방

392) Cesar P. Pobre, *Filipinos in the Korean War*, p.277.

393) Cesar P. Pobre, *Filipinos in the Korean War*, p.278.



어를 강화하기 위해 미 제45사단을 서쪽으로 이동시켜 한국군 제20사단과 제7사단의 일부 지역을 인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필리핀의 네 번째 부대로 파견되어 제19대대와 임무를 교대한 필리핀 제14대대전투단은 1953년 5월 17일 5월 17일 가칠봉 서쪽의 사태리 계곡으로 진출하여 미 제45사단 제180연대의 진지를 인수함으로써 참전 이후 처음으로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sup>394)</sup>



필리핀 제14대대전투단 본부

이후 제14대대는 전선조정계획에 따라 중공군의 최종공세가 임박한 7월 9일 백석산 부근으로 이동하여 저지진지를 점령하였다.<sup>395)</sup> 1953년 7월 13일 중공군은 7월 공세를 개시하였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파상공격을 펼친 중공군은 한국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하였고, 유엔군은 공군력을 동원하여 적의 공세를 저지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처럼 좌측의 금성돌출부 지역에서 격전이 전개되고 있던 7월 15일 중공군의 일부가 미 제45사단 제180연대가 배치된 크리스마스고지를 공격하였다. 이날 05시에 미 제180연대 K중대가 배치된 크리스마스고지 전초에

394)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152쪽.

395) Cesar P. Pobre, *Filipinos in the Korean War*, p.292.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공격을 가해왔다. K중대는 5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으나, 지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한 적의 공격으로 고지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미 제180연대장은 즉각 I중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개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백석산에서 대기하고 있던 필리핀대대에 2개 중대를 크리스마스고지로 파견하도록 명령하였다. 공격을 개시한 미 I중대는 08시 30분 정상 200m 전방까지 접근한 후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필리핀대대의 B중대가 크리스마스고지에 도착하여 화력지원을 실시하자 I중대는 공격을 재개하여 정오 무렵 크리스마스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sup>396)</sup>

어둠이 깔리자 중공군은 휴전협정이 조인되기 이전에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크리스마스고지 좌측 방을 방어하던 미 제180연대의 G중대를 공격하였다. 다음날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G중대는 필리핀 B중대의 지원을 받아 적을 격퇴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55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철수하였다.

크리스마스고지 전투가 일단락되자 대대는 7월 17일 미 제279연대로 배속이 변경되어 M1고지 바로 남쪽의 전초진지로 이동하였다. 다음날 21시 30분경 대대는 진전으로 접근한 적을 철조망지대로 유인한 후 지원포병의 조명탄이 터짐과 동시에 전 화력을 집중하였다. 쌍방간에 포격전이 펼쳐져 고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대대의 화력을



1974년 10월 2일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에 건립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

396) Cesar P. Pobre, *Filipinos in the Korean War*, p.293.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던 중공군은 병력을 증강하여 22시 30분경 다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이마저도 대대가 화력을 집중하여 격퇴하였다.<sup>397)</sup>

휴전협정이 조인되던 7월 27일 적은 필리핀대대 지역으로 1,000여 발의 포탄을 쏘아대자 대대 또한 즉각 대응하여 2,000여 발을 사격하였다. 그러나 휴전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이 포격에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제14대대는 휴전을 목전에 둔 이 전투에서 한 치의 땅도 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끝까지 전초진지를 고수함으로써 전술적 요지인 크리스마스고지가 군사분계선 남쪽에 남게 되었다.

#### 다. 참전의 결과와 의의

6·25전쟁에 참전한 필리핀군의 병력파견은 약 1,100~1,4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1951년 6월 30일에는 1,143명을 그리고 1년 후인 1952년 6월 30일에는 1,494명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의 병력현황은 1,496명이었다.<sup>398)</sup> 1개 보병대대전투단을 파견한 필리핀은 기간 중 연인원 7,420명을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sup>399)</sup>

〈표 3-40〉 필리핀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지 상 군
7,420명	보병대대 전투단 : 1 병력 : 1,496명

필리핀군은 율동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12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29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6명이 실종되고

397)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156쪽.

39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399)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49쪽.

41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sup>400)</sup> 반면에 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대표창 3회를 비롯하여 을지무공훈장 8회, 충무 23회 등 수많은 국내외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표 3-41〉 필리핀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112명	299명	16명	41명	468명

필리핀의 6·25전쟁 참여는 국내의 정치상황은 물론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필리핀의 파병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아시아에서 백인들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비난과 선전에 효과적인 대응책이었다. 물론 필리핀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리고 필리핀의 국익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이었으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려는 정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결정이었다. 필리핀군은 자유와 평화수호의 십자군으로서 이역만리 한국의 전장에서 용전분투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음은 물론 양국이 새로운 혈맹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친숙한 동맹자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 2. 타일랜드(Thailand)군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타일랜드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타일랜드(이하 태국)는 말레이반도에 인접한 불교국가로서, 종교인 불교

400)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4.

가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회원국에게 대한민국의 지원을 호소하자 태국은 아시아국가 중 가장 먼저 이에 호응하였다. 1950년 6월 30일 태국은 자국산 미곡으로 한국에 식량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유엔에 통고하였다.<sup>401)</sup>

그러나 태국 정부는 7월 14일 “태국 정부가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각서를 접수하였다. 일주일 후 태국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통해 1개 여단규모의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와 국왕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7월 23일 4,000명의 지상군을 파병하겠다는 전문을 유엔에 발송하였다.

전투부대의 파병을 결정한 태국 정부는 황태자 피싯디사퐁 디사쿨(Pisit Dispongsa-Diskul) 소장을 태국 원정군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참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그리고 태국 국방부는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파병을 위한 지원병 모집하였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당시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파병규모를 기존의 1개 여단에서 1개 대대규모로 축소 조정하고 아탄안타(Kriengkai Attananta) 중령을 대대장으로 임명하였다.<sup>402)</sup>

태국 정부는 지상군에 이어 해군부대의 파견도 결정하였다. 1950년 10월 1일 프리깃함 2척과 수송선 1척으로 편성된 태국해군부대에 파한준비명령이 하달되었고,<sup>403)</sup> 부대장으로 임명된 와치차이(Uhichamarp Wathichai) 해군중령에게 지상군 병력의 해상수송임무가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태국함대는 10월 22일 지상군 1개 대대 병력과 적십자 의무요원들을 태우고 방콕항을 출항하였다.

401) 조정구(역), 『태국군 6.25참전사』, 2014(미발간), 51쪽.

402) 1950년 8월 21일 태국 국방부는 보리본 추라차리따(Boriboon Churacharitta) 대령을 파병부대장으로 임명하고 3개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 통신, 공병, 수색대로 구성된 제 21연대전투단을 편성하였다. 조정구(역), 『태국군 6.25참전사』, 73쪽.

403)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1.



1950년 11월 7일 부산항에 상륙하는 태국대대 장병

지상군과 해군을 파견한 데 이어 태국 정부는 1951년 6월 18일 C-47 쌍발수송기 3대로 편성된 수송기편대와 외과의사 2명 및 간호사 3명으로 구성된 항공의무대를 일본 다치가와에 위치한 미 공군 제315비행사단 소속의 제374비행단에 파견하여 항공지원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이로써 태국은 육·해·공군 모두를 파견한 국가가 되었다.

1950년 11월 7일 부산에 상륙한 태국대대는 대구의 유엔군수용대로 이동하여 3주간에 걸친 부대정비와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11월 28일 평양으로 진출한 태국대대는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에 배속되었으나, 중공군의 2차 공세로 개성 북방에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유엔군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후 대대는 상주-문경지구 후보급로 경계 및 대비정규전, 제임스타운(Jamestown)선 진출과 방어전, 철의 삼각지대의 포크칩(Porkchop)고지 전투, 김화 351고지 전투 등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포크칩고지 전투 당시 3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백병전으로 격퇴함으로써 ‘작은 호랑이(The Little Tigers)’라는 애칭을 얻었다.<sup>404)</sup>

404) 국가보훈처,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태국 : 태국군 6·25전쟁 참전사』, 188~189쪽.

6 · 25전쟁에 1개 보병대대를 파견한 태국 지상군 주요 부대와 지휘관은 다음 <표 3-42>와 같다.

<표 3-42> 태국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계급	성명	참전기간
유엔군사령부 연락장교단장 겸 지상군 대표	소장	Pisit Dispongsa-Diskul	미상
	대령	Chan Angsuchote	
	대령	Vitton Hansaves	
	대령	Pralong Virapriya	
	대령	Prayauth Charumani	
태국군대대	중령	Kriengkrai Attanantna	1950.10.~1951.10.
	중령	Prayuth Nuchakanjonkul	1951.7.~1952.8.
	중령	Oang Potikanita	1952.5.~1953.2.
	소령	Boon RangKaratana	1952.12.~1953.9.
	중령	Parti Yolesakrai	1953.5.~1954.6.
	중령	Amunay Somanas	1954.5.~1955.3.

지상군에 이어 프리깃함 2척과 수송선 1척을 파견한 태국 해군의 참전 함정 및 주요 지휘관은 다음의 <표 3-43>과 같다.

<표 3-43> 태국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구분	함정명	작전기간	지휘관		비고
			계급	성명	
프리깃함 (4척)	Prasae	1950.11.~1951.1.	중령	Uthaichalermarp Uthichai	50년 1차
	Bangpakong	1950.11.~1952.2.	중령	Oab Sundrasima	50년 1차
			중령	Juab Hongsakul	51년 2차
	Prasae II	1951.12.~1955.1.	중령	Amorn Sirikaya	51년 3차
			중령	Chedchai Tomya	52년 4차
			중령	Ketch Santhiwechakul	53년 5차
			중령	Adul Thulyanonta	53년 6차
			중령	Charoon Osataroop	51년 3차
			중령	Suvuchien Fungladda	52년 4차
	Tachin	1951.12.~1955.1.	중령	Snornng Nisalaksna	53년 5차
중령			Sa-Ngart Cholor-Yoo	53년 6차	
중령			Prasert Chun-Ngarm	50년 1차	
수송선 (1척)	Sichang	1950.11.~1951.7.	대위	Vichien Sangkorntnakich	51년 2차

그리고 1개 수송기편대와 항공의무대를 파견한 태국 공군의 주요 지휘관은 다음 <표 3-44>와 같다.

<표 3-44> 태국 공군 참전 기간 및 지휘관

기종	참전기간	지 휘 관	
		계급	성 명
C-47수송기 (3대)	1951. 8. 18. ~ 1964. 11. 6.	소령	Pramoth Puthipanta
		소령	Kaiwal Thawornthan
		소령	Surayuth Rungswang
		소령	Jua Eamkanuch
		중령	Sart Walnamra
		중령	Singh Sirikupth
		소령	Jaras Suraswadi
		소령	Chalerm Pungkilpa
		소령	Chumpol Radungkich
		소령	Narong Karthiyachpte
		소령	Pridoo Israngkul-Nr-Ayuthya
		소령	Chitlon Suthat-Na-Ayuthya
		소령	Charoo Sa-Nguanpokai
		소령	Udom Ritthibutr
		대위	Wattana Phongsawasdi
소령	Somboon Rahong		

#### 나. 태국 지상군의 주요 전투

##### 1) 연천 울동지역 방어(1951. 7. 31. ~ 9. 7.)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한 태국대대는 휴전회담이 개시된 직후인 7월 16일부터 미 제1군단 예비로 전환되어 동두천 북쪽의 양원리에서 부대 재정비에 들어갔다. 이어 7월 31일 대대는 울동 부근으로 다시 진출하여 적극적인 전투정찰활동에 주력하였다.



대대가 점령한 지역은 임진강 바로 북쪽에 위치한 말발굽 모양의 산악지대로서 6월과 7월초 두 번에 걸쳐 중공군과 전투를 벌인바 있는 익숙한 지형이었다.<sup>405)</sup> 이 무렵 병력증강과 보급품 비축을 중공군은 아군의 주저항선을 탐지하기 위해 정찰대를 역곡천 남쪽으로 침투시킴으로써 쌍방 정찰대간에 교전이 빈번하였다.

새로 제21연대 제1대대장으로 지휘권을 인수한 누카칸쿨(Prayauth Nuckakanjonkul) 중령은 부대를 재정비한 후 더욱 적극적인 정찰활동에 강조하였다.<sup>406)</sup> 8월 18일 미 제8기병연대로부터 “옷나무골 부근의 적 집결지를 기습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제2중대에서 2개 소대를 차출하였다. 차출된 2개 소대는 이날 오후에 346고지로 진출한 후 2개 중대 규모의 적 집결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70여 명의 적을 살상하고 상당량의 보급품을 노획하였다. 그리고 분산 도주하는 적은 중대장의 요청을 받은 미 포병의 포격으로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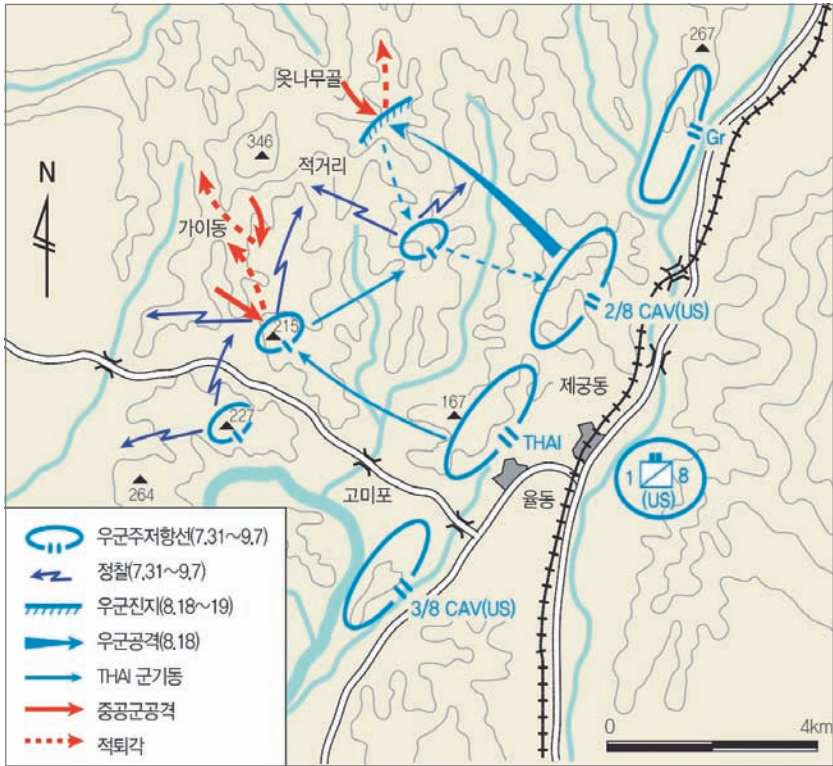
제2중대는 전과를 확대하기 위해 역곡천변의 양지촌으로 진출하였고, 19일 02시경 중대 정찰대는 역곡천변 북쪽의 267고지 부근에서 소대 규모의 적 집결지를 기습하여 2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때 적도 정찰대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양지촌 남쪽으로 100여 발의 포탄을 집중하였으나 정찰대는 이를 피해 철수하였다.

이날 정오 무렵 대대장은 중공군이 아군의 주저항선을 관측하기 위해 지대 내의 최고봉인 346고지로 다시 진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태봉촌에 1개 소대를 남겨놓고 본대는 울동 부근의 진지로 철수시켰다. 대대의 기대와는 달리 이날 중공군이 정찰대를 파견하지 않음에 따라 잔류 소대는 346고지 일대를 정찰한 후 21시경 본대로 복귀하였다.

405)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139쪽.

406) 조정규(역), 『태국군 6.25참전사』, 106쪽.

〈상황도 3-22〉 태국대대 연천지역 방어(1951. 7. 31. ~ 9. 7.)



8월 30일 14시 40분 1개 중대규모의 정찰대가 가이동 부근을 수색하던 중 216고지 부근에서 1개 중대규모의 중공군 정찰대와 맞닥뜨려 교전 끝에 적 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 태국대대는 9월 8일 사단예비가 되어 전곡 서쪽의 장진천변으로 이동할 때까지 울동과 제궁동 일대의 주진지를 방어하였다.<sup>407)</sup> 이때 대대는 삭녕-대광리간 도로변에 정찰진지를 설치하여 역곡천 남쪽에 정찰 기지를 확보하려는 중공군의 기도를 저지함은 물론 아군의 주저항선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407) 조정구(역), 『태국군 6.25참전사』, 114쪽.

## 2) 포크잡고지 전투(1952. 11. 1. ~ 11. 11.)

포크잡고지 전투는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연천 서북방의 주저항선을 방어하던 태국대대가 포크잡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1952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3회에 걸쳐 공격을 감행한 중공군 제113사단 예하의 2개 연대를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1952년 10월 23일 태국대대는 미 제2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포크잡(Porkchop) 고지로 진출하였다. 미 제9연대에 배속된 태국대대는 “여하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크잡 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제1중대에 방어임무를 다시 부여하는 한편 방어태세를 보강하기 위해 장애물 설치, 교통호와 엄체호 보강공사, 유선의 지하매설 등에 주력함은 물론 강력한 화력계획과 역습계획도 준비하였다.<sup>40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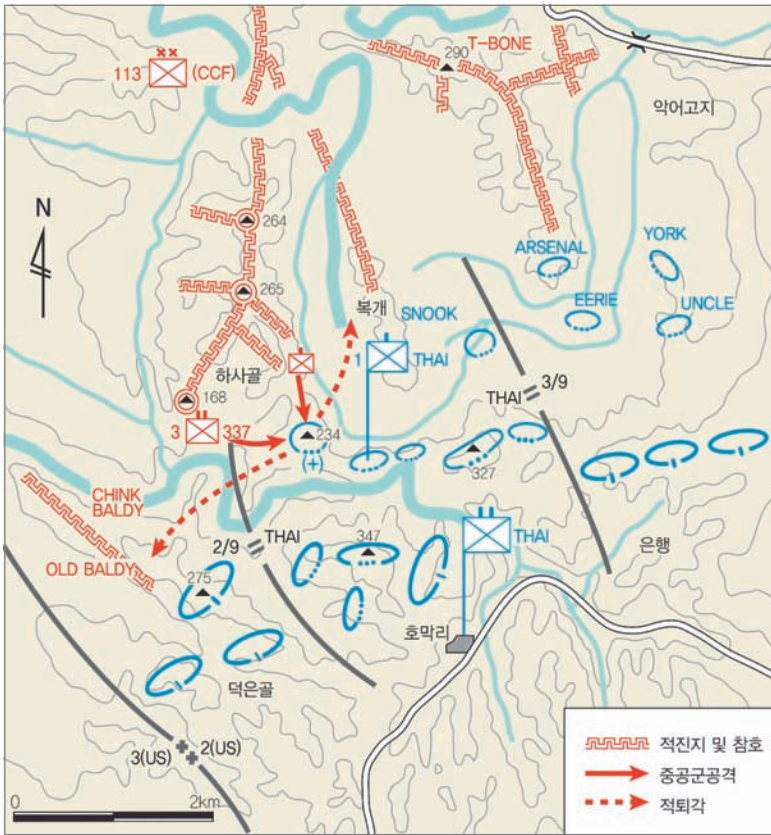
사수명령이 하달된 포크잡 고지는 역곡천 바로 북쪽에 위치한 표고 234m의 고지로 불모고지 및 티본고지와 함께 철원과 연천 그리고 임진강 방어지역으로 향하는 적의 접근로가 형성되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형이었다. 대대의 정면에는 중공군 제113사단 예하의 제337연대가 강력한 포병부대의 지원 하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기호를 노리고 있었다.

1952년 11월 1일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중공군은 포크잡 고지를 집중 포격하였고, 이 포격으로 대대가 애써 준비한 진지 및 교통호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적은 21시경 2개 중대규모를 투입하여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였고, 잠시 후 고지 정상에서는 총검이 난무하는 백병전이 벌어졌다. 제1중대장이 부상을 입는 등 악전고투 끝에 태국군 병사들은 중공군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는 대대가 참전 이래 가장 치열한 전투로서 적의

408)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250쪽.

시체 50여 구가 확인되었으나, 대대도 8명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sup>409)</sup>

〈상황도 3-23〉 태국대대의 포크잡고지 전투(1952. 11. 1. ~ 11. 11.)



적이 물러나자 대대는 방어지지의 보강에 주력하였다. 이때 적도 11월 4일과 6일 소대 및 중대규모의 정찰대를 투입하여 아군의 진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11월 7일 02시경 중공군은 월광을 피하기 위해 연막차장가

409)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251쪽.

지 실시한 후 증강된 1개 대대규모로 포위공격을 가해왔다.<sup>410)</sup> 이 공격은 새벽까지 백병전으로 전개되었으며, 태국군 장병들은 진내사격을 요청하면서 완강히 저항하였다. 동이 틀 무렵 태국군의 특수임무소대가 증원되자 중공군은 분산 철수하였다.<sup>411)</sup> 이어 진지 전방을 수색한 정찰대는 78구의 적 시체를 확인하고 기관총 2정을 포함한 다수의 화기도 노획하였다. 이때 아군은 포크참 고지 일대에 105mm포 3,098발, 155mm포 405발, 4.2인치 박격포 650발, 81mm 박격포 693발을 사격하여 대대를 화력 지원하였다.

2차에 걸쳐 고지 탈취에 실패한 중공군은 11월 10일 23시경 포크참 고지에 포격을 집중한 후 2개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북쪽과 남쪽, 남서쪽 방향에서 포위 공격하였다. 중공군은 대인지뢰와 철조망 등의 장애물에 걸려 다수가 희생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내로 접근하였다. 이때 지원포병은 물론 대대도 모든 화력을 집중시킴으로써 포크참 고지는 순식간에 포연과 화염에 휩싸였다.

중공군은 엄청난 인명손실에도 불구하고 증원부대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며 돌파를 기도하였다. 이에 맞서 태국대대 또한 대대본부의 행정요원까지 동원하여 포크참 고지의 제1중대를 증원하였다. 전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으나, 날이 밝아 유엔 공군기의 공격이 시작되자 중공군이 분산 철수하기 시작함으로써 포크참 고지 전투는 종료되었다.<sup>412)</sup>

이후 쌍방의 포격으로 폐허가 된 포크참 고지를 방문한 미 제1군단장과 미 제2사단장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격전을 펼친 태국대대 장병들의 감투정신을 극히 치하하였다. 이 전투에서 태국대대는 3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백병전으로 격퇴함으로써 미 제8군으로부터 용맹성을 인정받아 ‘작

410)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79.

411) 조정구(역), 『태국군 6.25참전사』, 165쪽.

41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79.

은 호랑이(The Little Tiger)'라는 애칭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공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유엔군에 심어주었다.<sup>413)</sup>

### 3) 김화 351고지 전투(1953. 7. 14. ~ 7. 27.)

김화 351고지 전투는 미 제2사단에 배속된 태국대대가 평강과 김화 중간에 위치한 351고지에 투입되어 1953년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중공군 제46사단 등의 집요한 공격을 사단의 지원화력 하에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공산군은 휴전협정 체결이 임박하자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이 무렵인 7월 12일 태국대대는 김화 서쪽의 우구동으로 이동하여 미 제2사단의 전초부대로서 한탄강 동쪽의 사동 일대에 배치되었다. 이 지역은 한탄강변의 광활한 저지대를 감제 관측할 수 있어 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고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감제고지였으며, 1952년 전반기 동안에 태국대대가 이 일대를 점령한 곳이었다.<sup>414)</sup>

이 지역에서 최고봉인 351고지를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한 대대는 7월 14일 밤에 폭우로 인해 통신이 두절되고, 교통호와 엄체호가 붕괴됨은 물론 지뢰 등 각종 장애물도 유실되었다. 다음날 대대는 미 제2사단 공병대대의 지원 아래 간헐적으로 날아오는 적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방어진지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적은 다음날인 7월 15일 21시 30분경 야포와 박격포탄 100여 발로 351고지를 방어중인 중앙의 제2중대 지역을 집중적으로 포격한 후 2개 소대규모를 투입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이에 맞서 백병전을 펼친 끝에 7월 16일 01시 30분경 적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이날 오후 중공군이 대대의 우측의 미 제9연대 L중대를 기습 공격하자 내촌 부근에 배치되어 있

413) 조정구(역), 『태국군 6.25참전사』, 166쪽.

414)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262쪽.

던 우전방의 제3중대가 측방에서 화력을 지원하였다. 이 화력지원은 미군 L 중대가 기습 공격한 적을 격퇴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7월 17일 오후 대대는 정면에 위치한 적의 방어거점인 서방산 일대에 중공군 2개 사단이 집결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였다.<sup>415)</sup> 이에 따라 경계를 강화한 대대는 18시부터 적의 포격에 놓이게 되었다. 대대는 적의 집결지이면서 포대가 위치한 한탄강 서쪽의 250고지와 325고지에 화력지원을 유도하여 포격을 가하였다.



1974년 10월 1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에 건립된  
태국군 참전 기념비

22시경 325고지에서 적색신호탄 3발이 발사됨과 동시에 중공군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2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한탄강을 도하한 후 개활지를 통해 태국군 제1중대 정면으로 공격해왔다. 대대는 정찰대를 투입하여 이들을 장애물지대로 유인하였고, 동시에 지원포병은 일대에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이때부터 쌍방은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고, 개활지를 통과한 적의 일부는 좌측의 제1중대와 백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sup>416)</sup>

415) 조정구(역), 『태국군 6.25참전사』, 195쪽.

416) 조정구(역), 『태국군 6.25참전사』, 197쪽.

밤새 파상공격으로 돌파를 기도한 중공군의 공격 기세는 날이 밝아 오면서 점차 둔화되었고, 새벽 무렵 분산되어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7월 18일 오전에 대대는 진지 전방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여 적의 유기한 시체 30여구를 확인하였다.<sup>417)</sup>

이 전투를 끝으로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적은 산발적인 포격만 실시할 뿐 더 이상의 공격은 실시하지 않았다. 대대가 휴전을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끝까지 고군분투하여 평강-김화 축선상의 중요 전술적 고지인 351고지를 고수함으로써 오늘날 이 고지는 군사분계선 남쪽에 남게 되었다.

#### 다. 태국 해군의 주요 활동

1950년 10월 22일 프리깃함 2척과 수송선 1척으로 구성된 태국 해군함대는 지상군 1개 대대 병력과 적십자 의무요원들을 싣고 방콕항을 출항하여 16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7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해군전대’<sup>418)</sup>로 불린 태국함대는 프리깃함 프라세(Prasae)호와 방파콩(Bangpakong)호, 수송선 시창(Sichang)호와 덴마크 선적의 허트메르스크(Hertmaersk)호로 편성되었다. 태국함대는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제95기동부대에 배속되어 일본 사세보항을 기지로 삼아 해상작전을 수행하였다.<sup>419)</sup>

1951년 1월 3일 프리깃함 프라세호와 방파콩호 및 미 구축함 잉글리쉬호로 편성된 해군분대는 동해안의 양양 및 장전과 초도리 부근 해상을 초계하며 해안의 철도역과 교량을 비롯한 각종 군사목표에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월 7일 07시 풍랑에 표류하던 프라세호는 동해안에서 좌초되었다. 4월로 접어들어 방파콩호는 미 해군함정과 영흥만 일대에서 초계와 해안목

417)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265쪽.

418) 태국 해군사령관은 해군명령 제235/93호에 의거하여 파병해군함대를 UN과 작전하는 해군전대로 칭하였다. 조정규(역), 『태국군 6.25참전사』, 295쪽.

419)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1.



표에 대한 함포사격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6월 15일 원산항 해상에서 동해안봉쇄전대에 배속된 방파공호는 적의 해안포대에 대한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7월 15일 태국해군은 수송선 시창호의 작전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귀국 조치하였다. 방파공호는 9월에도 동해안에서 초계작전과 함포사격 임무를 수행하였고, 10월 9일 제95-2기동전대에 배속되어 해안봉쇄와 적의 기뢰부설 저지 및 초계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태국 해군은 프라세호의 좌초 이후 미 해군으로부터 이양받은 2척의 프리깃함을 프라세Ⅱ호와 타친호라 각각 명명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방파공호의 임무를 인수토록 하였다. 1952년 1월 동해 초계 및 봉쇄전대에 배속된 프라세Ⅱ호와 타친호는 2월까지 유조선 호송임무를 수행하고, 3월에는 성진 앞바다에서 초계활동을 실시하였다. 이후 이들 함정은 수송선단 호송작전임무에 주력하였다.

태국 해군은 만 4년 4개월에 걸친 참전기간 중 장교 204명과 사병 2,281명이 참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거둔 전공으로 대한민국 충무무공훈장 1회와 미국 은성무공훈장 4회, 유엔참전기장 1,679회 및 대한민국 참전기장 2,026회를 수여받았다.

#### 라. 태국 공군의 주요 활동

1951년 6월 18일 C-47수송기 3대로 편성된 태국공군의 수송기대는 돈무양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6월 23일 일본의 다치카와 미 공군기지에 착륙하여 미 제315비행사단 제374병력수송비행단 제21비행대대에 배속되었다.<sup>420)</sup> 태국 수송기대가 도착한 6월의 전황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긴급보

420) 조정구(역), 『태국군 6.25참전사』, 393쪽.

급품과 환자의 후송 작전이 빈번하였으나, 미 공군이 보유한 C-46수송기는 병상과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를 갖춘 태국공군의 수송기가 이 임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1952년 5월 1일 태국공군은 제1차 교대장병을 파견하여 최초의 파견병력과 임무를 인수하게 하였다.<sup>421)</sup> 이후 태국 공군수송기는 휴전 시까지 일본 내 각 공군기지의 병력 및 보급품 공수임무를 담당하였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태국공군의 C-47수송기 3대는 다치카와 미 공군기지에 잔류하며 주요 항로에서 공수임무를 수행하고 1964년 11월 6일 귀국하였다. 참전기간 동안 태국 공군수송기대는 미국 동성무공훈장 3회와 항공훈장 3회, 유엔 군사령관 및 태국 정부의 각종 표창을 수여받았다.

#### 마. 참전의 결과와 의의

참전기간 동안 태국군의 병력파견은 약 1,2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1951년 6월 30일에는 1,057명을 그리고 1년 후인 1952년 6월 30일에는 2,274명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의 병력현황은 1,294명이었다.<sup>422)</sup> 1개 보병대대와 3척의 프리깃함 및 수송선 1척, 그리고 수송기 1개 편대를 파견한 태국은 기간 중 연인원 6,326명을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sup>423)</sup>

〈표 3-45〉 태국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지상군	해 군	공 군
6,326명	보병대대 : 1 병력 : 2,274	프리깃함 : 3척 수송선 : 1척	수송기편대: 1

421) 조정구(역), 『태국군 6.25참전사』, 405쪽.

42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423)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59쪽.

태국군은 울동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29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1,13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5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sup>424)</sup> 반면에 대대는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 7회와 충무무공훈장 26회, 미국 은성무공훈장 13회와 동성훈장 25회 등 수많은 국내외 훈장을 수여받았다.

〈표 3-46〉 태국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129명	1,139명	5명	-	1,273명

태국은 국민의 상무정신이 투철한 국가로서 외세의 침략에 대해 자위능력과 자주와 독립의식을 배양하였다. 또한 국가의 지도자들도 진정한 국가이익에 대한 통찰을 통해 적절하고도 유연한 외교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6·25전쟁의 발발은 태국에게는 진정으로 유엔의 일원임을 증명하고 반공과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였다.

태국 정부의 병력파견은 국내외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모험이었다. 물론 미국이나 유엔과의 관계를 비롯한 태국의 국익에 근거한 결정이었으나,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표출된 의지였다. 자유와 평화수호의 십자군으로서 이역만리 한국의 전장에서 헌신한 태국군의 희생정신은 한국국민의 가슴 속에 남아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42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4.

## 제5절 오세아니아지역 참전국

### 1.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군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오스트레일리아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1950년 6월 27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안이 결의되자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 정부는 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즉각적인 병력파견에 나섰다. 6월 30일 영연방 극동해군사령부에 파견된 2척의 구축함을 미 극동해군사령부에 파견한데 이어 7월 1일 제77전투비행대대를 미 극동공군사령부로 급파하였다.<sup>425)</sup> 호주 의회 또한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구축함 바탄(Bataan)호와 프리깃함 솔헤븐(Shoalhaven)호는 정박지인 홍콩을 떠나 오키나와로 향하였고, 다음날 일본 이와쿠니(Iwakuni) 기지에 주둔중인 제77전투비행대대(No. 77 RAAF Squadron)가 미 제5공군에 배속되어 작전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와 유엔으로부터 지상군 파병을 요청받은 호주 정부는 7월 26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락한 사실을 발표하였다.<sup>426)</sup>

425)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Canberra: Australian War Memorial, 1954), p.7.

426)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 p.10.



1993년 4월 24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691-1에  
건립된 호주군 참전 기념비(1983년 12월 27일 재건립)

호주 정부는 6주내에 900명 규모의 1개 보병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8월 8일부터 지원병을 모집하였다.<sup>427)</sup> 그리고 이들을 일본에서 주둔임무를 수행중인 제67보병연대에서 선발한 병력이 주축이 된 호주보병연대 제3대대<sup>428)</sup>에 편입시켜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래 호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장병들과 지원병들로 구성된 1개 여단 규모의 파병을 계획하고 모병에 착수하였지만 한반도 상황이 위태롭게 되자 계획을 변경하여 병력을 파견하게 되었다.<sup>429)</sup> 일본에서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던 제76보병대대 소속 지원병들과 본국에서 보충한 일부 병력으로 제3대대를 편성하여 조기에 파견하였다.

9월 17일 마침내 선발대가 부산에 도착한데 이어 9월 27일 그린(C. H. Green) 중령 인솔 하에 960명의 제3대대가 제1진으로 부산에 상륙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대구로 이동하여 영국군 제27여단에 배속되었다. 호주군 제3대대는 9월 30일 성주-왜관지구로 진출하여 영국군 제27여단에 합류하였

427) 이때 지원병에 자원한 수는 호주 정규군의 98%에 달하였으나, 교육 및 훈련시설의 부족으로 제한된 인원만 선발하였다.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 p.12.

428) 제3대대의 공식 부대명칭은 ‘왕립호주연대 제3대대(The 3rd Battalion, The Royal Australian Regiment)’이며, 영문 약칭으로 ‘3RAR’을 사용했다.

429)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 p.11.

는데, 이때부터 영국군 제27여단은 영연방 제27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sup>430)</sup>

호주군 제3대대는 영연방 제27여단과 함께 유엔군의 일원으로 북진작전에 참가하여 10월 10일 개성 북동쪽 화장산에서 북한군과 첫 전투를 실시하였고, 10월 17일 사리원 전투에서는 패주하는 북한군 약 2,000명을 생포하는 대전과를 올렸다.<sup>431)</sup> 이후 호주군 제3대대는 영유리 전투, 박천 전투, 가평 전투 등을 수행하며 뛰어난 전투능력을 과시하였다.

1951년 4월 26일 호주군 제3대대는 배속된 영연방 제27여단이 영연방 제28여단으로 개칭되며 영연방 제28여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었다.<sup>432)</sup> 제3대대는 1951년 10월 3일부터 개시된 미 제1군의 코만도작전에 참여하여 11월 6일 경기도 연천 마량산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였다.

1952년 4월 9일 허치슨(I. Hutchison) 중령이 이끄는 왕립호주연대 제1대대가 한국에 도착한 후 영연방 제28여단에 배속되었다. 이로써 호주 지상군은 2개 대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호주군 달리(T. J. Daly) 준장이 영연방 제28여단을 지휘하게 되었다. 1953년 3월 21일 라르킨(G. F. Larkin) 중령이 지휘하는 호주군 제2대대가 제3진으로 한국에 도착한 후 제1대대와 교대하였다. 제2대대는 정전협정 체결을 목전에 둔 7월 24일부터 후크고지 전투를 수행하고 휴전에 임하였다.

전쟁기간 중 호주 지상군은 여러 차례 전투와 작전에 참가하였는데, 대표적인 전투로는 영유리 전투, 정주-박천 전투, 가평 전투와 마량산 전투 등이었다. 또한 이 기간 중 호주 지상군을 이끈 주요 지휘관은 영연방 제28여단장인 달리(T. J. Daly) 준장과 호주 지상군을 인솔하여 최초로 한국에 상륙한 제2대대장 그린(C. H. Green) 중령과 제1대대장 허치슨(I. Hutchison)

430)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Combat Operations* (anberra: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85), p.23.

431)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pp.32-33.

432)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 p.141.

중령 등이 있으며, 기타 여단장과 대대장은 다음 <표 3-47>과 같다.

<표 3-47> 호주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비 고
	계급	성 명	재임기간	
영연방 제28보병여단	준장	T. J. Daly	1952.6.~1953.3.	• 1952.6.~1954. 12. 호주군에서 여단장을 맡음
	준장	J. G. N. Wilton	1953.3.~1954.4.	
	준장	I. T. Murdoch	1954.4.~1954.12.	
왕립호주연대 제3대대 (3RAR)	중령	C. H. Green	1950.9.~1950.11.	• 1950.9.27. 한국 도착 • 1954.11.9. 부산항에서 철수
	중령	F. S. Walsh	1950.11.	
	중령	I. B. Ferguson	1950.11.~1951.7.	
	중령	F. G. Hassett	1951.7.~1952.7.	
	중령	R. L. Hughers	1952.7.~1953.2.	
왕립호주연대 제1대대 (1RAR)	중령	A. L. MacDonald	1953.2.~1954.2.	• 1952.4.9. 한국 도착 (1차) • 1953.3.21. 제2대대와 임무교대 후 귀국 • 1954.3.30. 한국 도착 (2차) • 1956.3.24. 인천항에서 철수
	중령	I. Hutchison	1952.3.~1952.10.	
왕립호주연대 제2대대 (2RAR)	중령	M. Austin	1952.10.~1953.9.	• 1954.4.2. 철수
	중령	G. F. Larkin	1953.3.~1954.9.	

한편 지상군에 앞서 파병된 호주 해군 2척의 함정은 홍콩주재 영연방 극동해군사령부 산하 96.8기동전대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6월 30일 홍콩을 출발한 호주 해군은 7월 1일 오키나와로 이동하여 미 극동해군사령부에 배속되어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호주 해군은 개전 초기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미국인 소개 선박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군수물자 수송선단 엄호임무를 수행하였다.

7월 7일을 기해 호주 해군은 서해안으로 이동하여 해안봉쇄작전을 수행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해역에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쟁기간 동안 호주 해군은 1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총 9척의 각종 함정을 파견하여 해상초계, 해상봉쇄, 해안포격, 유격대 상륙작전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sup>433)</sup>

전쟁기간 중 호주해군은 항공모함 시드니(Sydney)호를 비롯하여 구축함 바탄(Bataan)호, 프리깃함 솔헤븐(Shoalheaven)호 등을 한국 해역에 파견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때 호주 해군 함정을 이끈 주요 지휘관은 항공모함 시드니호 함장인 해리스(D. H. Harries) 대령을 비롯하여 구축함 바탄호 함장 마르크스(B. M. Marks) 중령, 프리깃함 솔헤븐호 함장 맥도널드(I. H. McDonald) 중령 등이며, 기타 함장은 다음 <표 3-48>과 같다.

〈표 3-48〉 호주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구분	함정명	작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명
항공모함 (1척)	Sydney	1951.8.~1952.6.	대령	D. H. Harries
		1953.10.~1954.6.	대령	G. C Oldham
구축함 (4척)	Bataan	1950.7.~1951.5.	중령	B. M. Marks
		1952.2.~1952.8.	중령	S. Bracegirdle
	Warramunga	1950.8.~1951.8.	대령	O. H. Becher
		1952.2.~1952.7.	중령	J. M. Ramsay
	Anzac	1951.8.~1951.9.	중령	J. Plunkett-Cole
		1952.9.~1953.6.	대령	G. G. O. Gatacre
	Tobruk	1951.8.~1952.6.	중령	R. I. Peek
		1953.6.~1954.2.	중령	I. H. McDonald
프리깃함 (4척)	Shoalhaven	1950.7.~1950.9.	중령	I. H. McDonald
	Murchison	1951.5.~1952.2.	중령	A. N. Dollard
	Condamine	1952.8.~1953.4.	중령	R. C. Savage
	Culgoa	1953.4.~1953.6.	중령	D. A. H. Clarke

433)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4-215쪽.



호주 공군은 정부 결정에 따라 7월 1일 일본에서 주둔군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제77전투비행대대를 한국에서 작전을 개시한 영국 극동공군사령부에 파견하였다. 제77비행대대는 유엔군 수송기와 폭격기 엄호비행, 38도선 이북에 대한 초계임무, 공산군측 항공기와의 공중전,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 지원, 항공폭격 등을 수행하였다. 호주 공군은 제77비행대대 이외에 제36수송편대, 제91혼성비행단, 제391기지대대, 제491정비대대, 제30통신부대, 제30수송부대 등이 참전하였다.<sup>434)</sup> 전쟁기간 중 유엔공군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한 호주 공군 제77전투비행대대 지휘관은 스펜서(L. T. Spence) 중령 등 다음 <표 3-49>와 같다.

<표 3-49> 호주 공군 제77전투비행대대 지휘관

계급	성명	참전기간
중령	L. T. Spence	1950. 7.~1950. 9.
소령	R. C. Cresswell	1950. 11.~1951. 8.
중령	G. H. Steege	1951. 8.~1951. 12.
소령	R. T. Susans	1951. 12.~1952. 5.
중령	J. R. Kinninmont	1952. 7.~1953. 1.
중령	J. W. Hubble	1953. 1.~1953. 6.
중령	A. Hodges	1953. 6.~1953. 11.

#### 나. 호주 지상군의 주요 전투

##### 1) 영유리 전투(1950. 10. 22.)

영유리 전투는 호주 제3대대가 영 제27여단 일부로 영유리 부근에서 북한군 제239연대를 격파하고, 숙천에 공수 낙하한 미 제187공수연대와 연결

434)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pp.707-708.

작전을 이룬 전투이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많은 전과를 달성하였다.

영연방 제27여단과 호주 제3대대는 1950년 10월 20일 정오 무렵 평양에 입성하여 미 제1기병사단으로부터 미 제24사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었고,<sup>435)</sup> 이날부터 숙천-박천-정주를 목표로 진격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에 갑자기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에게 포위된 미 공수연대를 구호하라는 명령을 받으며<sup>436)</sup> 이날 일찍이 대대는 대동강을 도하하여 진격을 시작하였다.

호주 대대장 그린 중령은 여단사령부로부터 미 공수부대가 대대가 점령중인 진지 북쪽 2Km에서 남진중이라는 보고를 입수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대대에게 치열한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대대장은 즉시 1개 중대로 돌파공격을 결심하고 C중대를 지정하였다.<sup>437)</sup>

이에 즉시 데니스(A.P. Denness) 대위의 C중대는 과수원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고 미 전차중대 서면 전차가 이를 엄호하였다. 중대 병사들은 전차에서 뛰어내리자 곧 착검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제9소대만이 뒤에 남아 전차와 함께 중대 공격을 화력으로 지원하였다. 호주병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돌격을 감행하자 이에 당황한 과수원 안 북한군은 화기와 진지를 유기한 채 논으로 패주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뒤에서 측방을 엄호 중이던 전차와 제9소대에 의하여 거의 모두 사살되었다.<sup>438)</sup>

그린 중령은 우측방 고지대를 점령하기 위하여 두 번째 중대를 투입시키고, 곧 이어 세 번째 중대로 이를 증원시킨 다음, 네 번째 중대를 도로 좌측

435)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34.

436)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9-40쪽.

437)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40-41쪽.

438)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37.

방에 투입하여 C중대를 증원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소총중대를 산개시킨 그린 중령은 본부요원들 중에서 1개 소대 병력을 차출하여 북쪽으로 급파하며 남하중인 미 공수부대와와의 연결에 성공하였다.

이토록 상황이 반전되자 적은 퇴로를 잃고 미군과 호주대대 사이에 끼어 독 안에 든 생쥐 꼴이 되었다. 대부분의 적은 우왕좌왕하며 숨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다. 그 중에는 논바닥에 쌓인 노적거리 속에 숨었다가 투항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 백병전에서 호주 제3대대는 북한군 150명을 사살하고 239명을 포획하였고, 대대원은 단 7명만이 부상을 입었다.<sup>439)</sup>

## 2) 박천지구 전투(1950. 11. 4. ~ 1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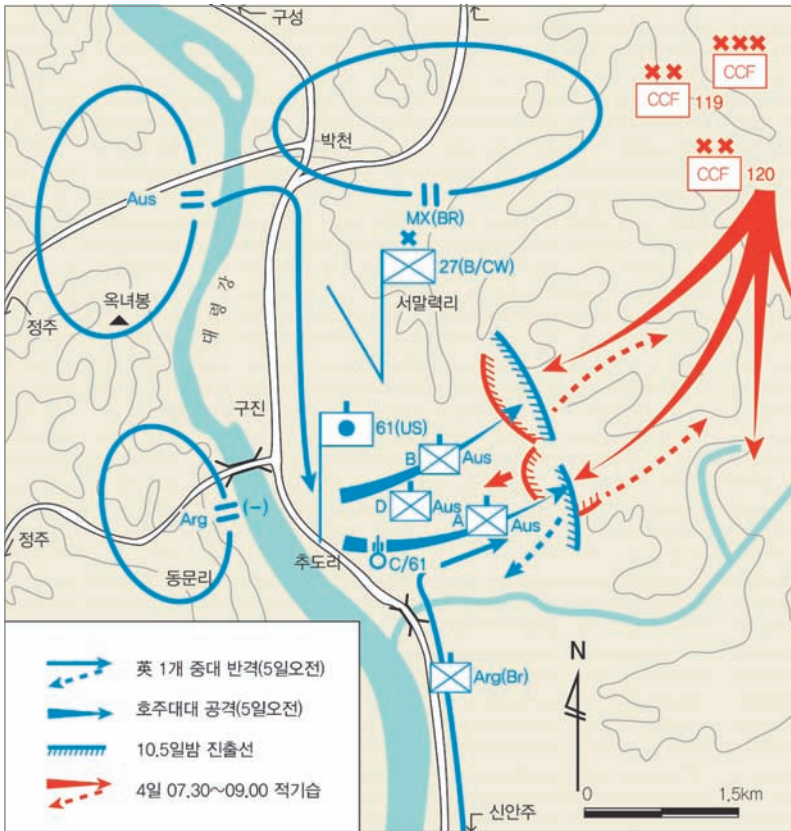
박천지구 전투는 호주 제3대대가 대한민국전에 참전한 이후 중공군과 최초로 치른 전투이다. 호주대대는 이 전투에서 유엔군이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유엔군이 압록강을 향해 진격전을 전개할 무렵 10월 중순부터 중공군이 참전하여 영국군과 호주군도 전면철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호주 제3대대는 영국군 아길대대와 함께 박천으로 철수하였다.

중공군은 11월 3일 사단 우측 정면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구룡강을 도하하여 그 일대를 방어 중인 미 제24사단 정면을 돌파한 다음 서서히 서쪽으로 압력을 가중시키고, 여단 후방으로 우회하여 박천-신안주 간 작전도로를 위협하였다. 오후 늦게 영국군 정찰대가 박천 동북쪽 10Km 지점에서 대규모 중공군이 남진중인 것을 목격하였다. 이날 밤 우측 미 제24사단은 차량 및 중장비를 유기한 채 청천강을 건너 안주로 철수하였고, 그 뒤를 중

439)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38.

공 제40군 예하 2개 대대가 계속 추격하였다.440)

〈상황도 3-24〉 박천지구 전투(1950. 11. 4. ~ 11. 6.)



11월 5일 08시 중공군 일부가 미군 뒤를 추격하고 일부가 서쪽으로 우회하여 추도리(박천 남쪽 3Km)의 미 포병부대 진지를 강타하였다. 중공군이 아군 포병부대 진지를 장악한 것은 곧 박천-신안주 간의 작전도로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코드 준장은 즉시 옥녀봉 일대에서 대령장

440)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49쪽.

도하장을 방어중인 호주대대에 반격을 명령하였다.<sup>441)</sup> 공격개시에 앞서 유엔군 전투기들이 공중폭격을 실시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때에 출격할 전투기들이 호주공군 제77전투비행대대(NO.77 RAFA Squadron) 소속의 무스탕 전투기였다. 따라서 이를 지켜본 호주장병들은 사기가 충천하였다.<sup>442)</sup>

호주대대는 A중대를 우일선, B중대를 좌일선에 배치하여 즉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1시간에 걸친 치열한 격전 끝에 추도리를 재탈환하고 적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 D중대의 지원 아래 진지를 재편성하였다. 이 전투에서 B중대 존스(Jeffery Johnes) 하사는 전사한 소대장을 대신하여 침착하게 소대를 지휘하며 대대장 퍼거슨 중령을 비롯한 대대의 전 장병을 감동시켰다<sup>443)</sup>.

이날 밤 중공군의 반격으로 호주대대는 한때 추도리 남쪽 1,500m까지 철수하였으나 D중대의 과감한 반격으로 마침내 진지를 다시 확보하였으며, 이날 대대는 12명이 전사하고 64명이 부상을 입었다.<sup>444)</sup> 중공군은 많은 시체를 유기하였는데 그중에는 중공군 외에 북한군의 시체도 섞여 있었다. 그 뒤에 대대는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추도리의 D중대를 중심으로 전면 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접근이 예상되는 추도리 외곽 동남쪽으로 정찰대를 파견하는 한편 요소마다 잠복초소를 설치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호주대대는 11월 6일 아침부터 전 장방들이 이곳에 산병호를 파고 포진지를 보장하는 등 진지강화 작업에 착수하고 C중대 정찰대는 추도리 동북쪽 깊숙한 산록까지 진출하여 패주하는 중공군 11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어 대대는 여단 예하 영국군과 함께 대령강 동안 일대에서 계속 진지를 점령하고 박천-신안주 도로를 경비하는 임무를 전담하였고 수 km 전

441)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62.

442)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49-50.

443)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62.

444)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51쪽.

방까지 수색 및 정찰대를 파견하여 접적을 시도하였다.

### 3) 가평 죽둔리 전투(1951. 4. 23.)

죽둔리 전투는 호주 제3대대가 가평 7km 북쪽에 위치한 죽둔리에서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를 맞아 중공군과 치른 전투이다. 호주대대는 경춘가도를 차단하려던 중공군의 기도를 좌절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유엔군은 1951년 4월 22일 중공군 춘계공세에 봉착하였고, 김화 남방의 광덕산-북주산 일대에서 중공군의 집중 공격을 받은 한국군 제6사단은 가평계곡을 따라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군단 예비부대로 가평에 위치한 영 제 27여단과 호주대대는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sup>445)</sup>

여단장 버크(Burke) 준장은 죽둔리를 중심으로 가평천 동북지역에 호주 제3대대를, 서북지역에 캐나다대대를 각각 배치하여 저지진지를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호주대대 각 중대는 대대장 명령에 따라 행동을 개시하여 오후 6시경 각 진지점령을 완료하였다.<sup>446)</sup> 날이 어두워지면서부터 동북쪽에서 폐를 지어 밀려들기 시작한 한국군들로 대대지역은 대혼란을 빚게 되었다.

이날 밤 10시 중공군은 선두부대가 대대정면 최북단 도로상의 미 전차소대를 공격하고 주력이 죽둔리 쪽을 공격하였다. 이날 야간 죽둔리 남쪽까지 침투하여 교차로 일대를 차단한 중공군은 다음날인 4월 24일 새벽에 가평천 건널목을 차단하고 계속 남하를 시도하였다.<sup>447)</sup>

퍼거슨 대대장은 여단장에게 여단 예비인 미들섹스대대로부터 1개 중대 증원을 요청하였으나,<sup>448)</sup> 증원 병력이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중공군이 도로 서쪽을 완전히 장악한 후였다. 이리하여 호주군 야전구호소(R. A. P)마

445)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72쪽.

446)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p.136-137.

447)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75쪽.

448)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138.

저 중공군 공격을 받았다. 대대장은 군의관 비어드(D. D. Beard) 대위에게 가평 동북쪽 2Km 지점의 논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날이 밝자 일선 중대에 대한 적의 공격은 더욱 치열해졌고 D, A 및 B 3개 중대 정면에서는 후퇴가 무상한 공방전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게다가 전날 밤부터 대대본부와 일선 중대들과의 통신이 두절되어 대대장은 C중대 중계로 겨우 A, B중대와의 교신이 가능할 뿐이었다. 새벽 6시 무렵 대대본부도 미들섹스대대가 있는 여단 예비대대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D중대는 가장 고지대 방어를 맡아 전날 밤 한차례 광풍을 제압하였으나 날이 새자 이 일대 감제고지인 504고지를 노리는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정오가 지나도 504고지를 탈취하려는 중공군 공격은 계속되었다. 워드(Ward) 중위는 전혀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가운데 12소대를 504고지 부근으로 철수시켰다.<sup>449)</sup>

이를 모르고 중공군은 오후 3시 대규모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에 D중대는 뉴질랜드 포병에게 집중포격을 요청하는 한편 중대의 모든 가용화기를 총동원하여 집중사격을 실시하였다. 그때서야 아군의 기도를 알게 된 중공군은 많은 시체를 유기한 채 허둥지둥 사방으로 분산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출격한 미 전투기들은 제10소대를 적으로 오인하고 네이팜탄 공격을 가하여 제10소대원 2명이 전사하고 수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중공군이 정면공격을 재개하여 또 한 차례의 불꽃 튀기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 후에도 새벽 5시까지 적은 두 차례나 중대 거점을 강습하였으나 그때마다 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패주하였다.

날이 점차 밝아지면서 적의 집요한 공격은 또다시 반복되었다. 오다우드 소령은 제3소대장 멀리 중위에게 반격을 명령했다. 멀리 중위는 2개 특공조와 1개 화력 지원반을 급편하여 06시경 역습을 개시하였다.<sup>450)</sup>

449)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139.

〈상황도 3-25〉 가평 죽둔리 전투(1951. 4. 23. ~ 4. 24.)



한편 전날 밤 제일 먼저 적과 격돌한 좌일선 B중대는 사창리-가평 도로가 중공군에 의해 차단되자 고립위기에 처했으며, 대대와의 교신이 두절되고 도로우측 고지대와의 연결마저 어렵게 되었다.

새벽 4시경 172고지 기관총 반장 라리(R.N. Rarry) 하사는 50명으로 추산되는 적이 그의 고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20분 사이 무려 세 번이나 결정적인 최후저지사격을 반복하자 중공군은 치명상을 입고 분산 도주하였다. 날이 밝자 이들은 진전에서 21구의 중공군 유기사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B중대장 라우린(Laughlin) 대위는 대대장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고 07시에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하며 적의 포위를 뚫고

450)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143.



C중대 지역으로 집결하였다.<sup>451)</sup> 대대예비인 C중대는 A, D중대의 단가반을 증원하는 한편 탄약과 장비를 보충하는데 병력을 지원하였다.

호주대대는 적이 가평천 도하장을 차단하고 있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반격을 개시하였으나 진출이 저지되었다. 대대는 이날 저녁 5시 30분경 철수 명령을 하달하고 이에 따라 일선 중대들은 죽둔리 동쪽 능선을 동남쪽으로 우회하여 몽고메리 소대 엄호를 받으며 철수하였다.<sup>452)</sup>

이리하여 호주 제3대대는 1951년 4월 23일 밤부터 24일 밤에 이르기까지 만 24시간 동안 노도와 같이 밀어 닦친 중공군 남진을 죽둔리 일대에서 저지하며 가평-청평 도로를 장악하여 경춘도로를 차단하려는 적의 기도를 완전히 분쇄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전사 31명, 부상 58명, 포로 3명이라는 병력 손실이 발생하였다.<sup>453)</sup>

#### 4) 마량산 전투(1951. 10. 3. ~ 10. 8.)

마량산 전투는 휴전선 설정이 논의되던 유엔군의 코만도(Commando) 작전 기간 중, 호주 제3대대가 전곡 부근 방어선에서 10km 북쪽 마량산을 공격하여 점령한 작전이었다. 이 대대는 3일간 계속된 공격작전에서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을 차례로 격파하고 마량산을 점령하였다.

미 제1군단장(John W. O'Daniel)은 1951년 10월 철원-김화의 주요 보급로를 확보한다는 코만도 작전계획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영연방 제28여단장은 임진강 서안-사미천 동안 사이 마량산(317고지) 일대 고지를 탈환하는 명령을 하달하였다.<sup>454)</sup> 여단 예하 각 대대는 1951년 10월 3일 새벽 우일선에 호주 제3대대를, 중앙일선과 좌일선에 영국군 각 1개 대대를

451)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148.

452)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81쪽.

453)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82쪽.

454)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181.

전개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sup>455)</sup>

우일선의 호주대대는 이른 아침 중공군의 저항없이 199고지를 점령한 후 계속하여 사단의 좌일선 공격대대로서 마량산(317고지)를 공격하였다. 마량산은 마치 피라미드처럼 높이 솟아 있고 동남방이 가파른 절벽인데다 서쪽이 평탄하여 적진의 후방과 연결되어 있었다. 중공군은 8부 능선 주위에 무수한 유개호와 산병호를 구축하고 있었다.<sup>456)</sup>



호주군의 중공군 포획

헤셋(Hasset) 중령은 A중대로 하여금 317고지 동남쪽 하단에서 양동공격을 하여 적의 주의를 그 방향으로 유인하고, 그 사이에 B중대가 동쪽으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마량산 산기슭과 중간능선까지 진출하게 하였다. 뒤를 바짝 뒤따르던 D중대가 B중대를 초월하여 목표고지를 돌파하기로 결정하고 C중대를 대대에비로 확보하였다.

A중대가 5일 새벽 3시 30분 동남쪽 능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자 선봉의 B중대가 동쪽으로부터 고지 동쪽능선을 향해 진격하고, 주공인 D중대(Basil Hardiman)가 제10소대를 선두로 그 뒤를 따랐다. 최종 목표고지까지는 두 개의 중간 목표가 있었는데 제1목표 고지는 199고지 북쪽 1.5Km이며, 제2목표인 발디 고지는 그로부터 마량산 쪽으로 500m 거리에 있었다. 10여 분의 공격준비사격 이후 기관총과 전차포 엄호를 받으며 제11소대(L. G. Clack 중위)가 제1목표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고, 이어 제12소대가 이를

455)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186.

456)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87쪽.

초월하여 제2목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sup>457)</sup>

제11소대는 일제히 착검하고 제12소대와 기관총반 엄호를 받으며 돌격하였고, 제12소대를 저지한 적의 기관총 진지를 급습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6시에 D중대는 제1목표를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공격에서 중대는 적 30명을 노획하고 68구의 유기시체를 확인하였으나, 중대도 3명이 전사하고 13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sup>458)</sup>

호주대대는 중간목표 2개를 모두 탈취하고 최종목표인 마량산만을 눈앞에 남겨놓았다. 대대장은 대대예비인 C중대에게 D중대를 초월하여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예상외로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C중대는 이날 18시에 최종목표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sup>459)</sup> 이어 호주대대장 헤셋 중령은 대대 지휘소를 마량산으로 추진하고 B중대의 힌지(Hinge)고지에 대한 공격을 직접 지휘하였다. 야포, 전차포, 박격포의 집중표격으로 힌지 고지는 대지옥의 불바다가 되었다. B중대는 일선 2개 소대가 좌우로 산개하여 전진하고 그 뒤를 예비소대와 중대본부가 따랐다. 공격소대들은 공격을 개시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적의 반격에 대비하였다.

호주대대 B중대가 8일 05시 힌지 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자 영국군 대대의 1개 중대가 217고지를 공격하여 거의 적의 저항을 받지 않고 점령하였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20명이 전사하고 89명이 부상을 입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200여 명의 중공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sup>460)</sup>

### 다. 호주 해군의 주요 활동

전쟁발발 전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호주 구축함 바탄(Bataan)호와 프리

457)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189.

458)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90쪽.

459)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p.198-199.

460)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92쪽.

깃함 솔헤븐(Shoalhaven)호는 1950년 7월 1일 오키나와에 도착한 즉시 미 극동해군의 기동부대(TF 96)에 배속되었다.<sup>461)</sup> 호주 함정들은 일본 사세보와 부산을 왕복하는 수송선 호송임무를 수행하였다. 개전 초에 참전한 2척의 함정 중 솔헤븐호가 9월 6일에 본국으로 귀항하고 구축함 워라먼가(Warramunga)호가 임무를 인수하였다.<sup>462)</sup>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한 워라먼가호는 서해안기동단대(TE 95.11)에 배속되어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영국의 항공모함 트라이엄프(Triumph)호를 엄호하고 해안포격에도 가세하였다. 9월 하순부터 호주 구축함들은 군산과 인천 해안에서 해상초계와 함포사격으로 공산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38도선을 넘어 한중국경까지 북진했던 유엔군이 중공군 참전으로 1950년 11월말부터 철수를 개시하자 12월 4일 호주 구축함들은 유엔 기동단대(TE 95.12)의 일원으로 진남포 철수 엄호작전에 참여하였다.<sup>463)</sup> 2척의 호주 구축함은 진남포에 운집한 피난민과 유엔군 부상병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 과정에서 워라먼가호가 수심이 얕은 진남포로 입항하던 중 좌초되기도 하였으나, 유엔 기동단대는 성공적으로 철수작전을 완수하였다.<sup>464)</sup>

유엔군 철수작전을 수행한 호주 구축함들은 일본에서 정기 정비를 받은 후 2월말 서해안으로 복귀해 인천 해역에서 함포사격으로 유엔군의 재반격 작전을 지원하였다. 7월에는 머치슨(Murchison)호가 압록강 입구에서 진남포에 이르는 연안에서 해상초계 및 해상포격임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적 전차와 수송차량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 머치슨호는 1952년 1월

461)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 p.125.

462)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 p.127.

463) Thor Thorgrimsson & E. C. Russell, *Canadian Naval Operations in Korean Waters 1950-1955*, pp.30-32.

464)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 p.129.

28일부터 한강유역 13개 목표에 포격을 실시한 후 8개월간의 참전임무를 마치고 2월 2일 시드니로 향하였다. 8월 24일 워라먼가호와 임무를 교대한 안작(Anzac)호는 8월말까지 서해안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시실리(Sicily)호를 호위하며 해안을 경비하였고, 9월 6일 포격작전에 가담한 후 사세보와 홍콩을 거쳐 시드니로 돌아갔다.<sup>465)</sup>



호주군의 6·25전쟁 참전사를 기록한 비석

안작 호의 임무를 인수한 토브릭(Tobruk) 호는 청진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10여 량의 적 철도 화물차를 파괴하였다. 토브릭호는 12일에 걸쳐 실시된 이 작전에서 총 116개 목표를 포격하였다.<sup>466)</sup> 토브릭호는 1952년 1월 26일에 제1차 참전근무를

끝내고 사세보 항을 출항하여 호주로 향하였다.

한편 1951년 8월말 호주 해군은 3개 항공대대를 탑재한 경항공모함 시드니(Sydney)호를 한국해역에 투입하였는데,<sup>467)</sup> 이는 영연방국 항공모함 중 최초 참전이였다. 시드니호 함재기들은 10월초부터 폭격작전에 돌입하여 11일 성진 외곽의 진지구축 작업현장을 폭격하였고, 21일 압록강 하구 대화도를 탈취하기 위해 집결한 대규모 적을 폭격하였다. 호주 함재기들은 약 3주에 걸친 작전에서 총 472회를 출격하여 주로 공산군 군수보급소와

465)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 p.131.

466)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123쪽.

467)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 p.134.

부대집결지 및 해상선박을 공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3대가 격추되고 28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sup>468)</sup>

1952년 초 지상전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동·서 연해에서 해안초계 및 적의 병참선 차단임무를 수행하던 항공모함 시드니호는 귀국길에 올랐다. 이로써 호주 구축함 2척은 서해지원전대에 배속되어 워라먼가호는 주로 동해안의 성진-청진간 해안에서 미 함정들과 해상초계 및 도서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바탄호는 서해에서 영연방에 배속된 함정들과 함동으로 해안봉쇄 및 해안포격, 그리고 유엔군 유격대 활동을 지원하였다.

1952년 후반기에 호주 해군은 함정교대를 실시하여 9월에는 구축함 2척과 프리깃함 1척이 활동하게 되었다. 이 무렵 프리깃함 콘다민(Condamine)호가 새로 참전하여 8월 4일부터 대연평도 북쪽에 있는 적의 대공화기진지와 해안진지를 포격하고 진남포 해안에서 적 진지에 대한 해안포격을 실시하였다.<sup>469)</sup> 이어 수차에 걸쳐 서해 해안봉쇄와 도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1953년 3월 15일에 새로 참전한 구축함 컬고아(Culgoa)호에게 임무를 인계하고 본국으로 향하였다. 호주함정들은 1953년에도 서해지원전대에 배속되어 서해 해주만-석도-초도 근해에서 해상초계와 해안포격, 유엔군 유격대 상륙작전 등을 지원하며 휴전에 임하였다.

#### 라. 호주 공군의 주요 활동

호주 정부가 공군의 참전을 결정한 1950년 7월 1일부로 제77전투비행대(No.77 RAAF)는 미 극동공군 산하인 미 제5공군(US Fifth Air Force)에 배속되었다.<sup>470)</sup> 대대는 이날 7월 1일 함흥 남쪽 연포비행장을 폭격하기

468)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121쪽.

469)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 p.139.

470)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133쪽.

위해 출격한 미 공군의 B-26폭격기 편대를 엄호하는 임무를 시작으로 전쟁 초기에는 주로 근접항공지원으로 지상군 지연전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7월 3일 서울남쪽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호주 무스탕기들이 수원과 오산 사이 도로상에서 한국군에게 기총소사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sup>471)</sup>

호주 비행대대는 아군이 낙동강방어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북한군 집결지 등에 네이팜탄 공격을 통해 적의 최후공세를 저지하는데 기여하였다. 호주 비행대대는 8월 한 달간 40명의 조종사가 812회를 출격하여 북한군 전차 35대, 트럭 182대, 기타 차량 44대, 기관차 4대와 보급 및 연료창고 다수를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다.<sup>472)</sup> 그러나 9월 9일 무스탕기 편대를 지휘하던 대대장 스펜스(L. T. Spence) 중령이 안강 상공에서 북한군 대부대를 네이팜탄으로 공격하던 중 안강 중심가에 추락하여 전사하였다.<sup>473)</sup>

호주 공군 제77비행대대는 38도선 이남 기지들이 긴급 복구되어 10월 13일 이와쿠니 기지로부터 동해안의 포항 기지로 이동하였다.<sup>474)</sup> 이로써 호주 비행대대는 유엔군 북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1월 5일 박천 일대에서 반격작전을 수행하던 호주 제3대대는 호주비행대대의 무스탕기 편대가 박천 상공에 출격하여 공산군이 점령한 능선에 대해 네이팜탄 공격과 기총소사를 가함으로써 사기가 고양되기도 하였다.<sup>475)</sup>

유엔군 북진에 따라 호주 비행대대는 1950년 11월 17일 포항 기지에서 연포비행장으로 이동하여 지상군 작전을 엄호하고 공중초계와 적의 후방을 차단하는 작전을 단행하였다. 대대는 중공군 참전으로 유엔군 철수가 결정되자, 12월 3일에 수영비행장으로 철수하였다. 이 기간 중 대대는 총

471)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305.

472)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310.

473)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p.62;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p.311-312.

474)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313.

475)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210쪽.

868회를 출격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무스탕기 1대가 적의 대공포격으로 격추되었다.<sup>476)</sup>

〈상황도 3-26〉 호주 공군 제77대대의 작전기지 이동 경로



1951년에 접어들어 성능이 우수한 적 미그기 출현과 대공화력이 강화되자 미 극동공군은 호주 비행대대 무스탕기를 영국제 글로스터 메티어

476)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141쪽.



-8(Gloster Meteor-8) 제트기로 대치하기로 결정하였다.<sup>477)</sup> 이에 따라 호주 대대조종사들은 4월부터 메티어 전투기 조종훈련을 개시하고 6월부터 기종을 전환하여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대대는 압록강 부근까지 출격하여 공산군 병참기지를 공격하는 미 F-80 전투기를 엄호하였다.

호주 비행대대는 1951년 8월 29일 정주 상공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하던 중 6대의 미그-15전투기 편대를 만나 첫 번째 공중전을 전개하여 격퇴하였으나, 메티어기 1대가 격추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sup>478)</sup> 이어 대대는 9월 중순에 청천강지구 상공을 초계하던 메티어기 12대가 안주 상공에서 미그기 15대와 대규모 공중전을 벌여 미그-15 전투기 1대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sup>479)</sup>

1952년에 접어들어 미그기들의 남하활동이 잦아지고 유엔공군기와의 공중전도 빈번해졌다. 제77대대는 5월 4일 사리원 상공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하던 중 9대의 미그기와 조우하여 1대를 격추시켰고, 5월 8일에도 사리원 상공에서 미그기 1대를 격추시켰다. 그러나 5월 중 대대는 2명의 조종사가 전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유엔공군은 1952년 6월부터 후방지역 차단작전에서 북한 내 수력발전시설, 산업, 보급시설 등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표적공격으로 전환하였다.<sup>480)</sup> 이에 따라 제77대대의 출격횟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대대는 8월 29일 특수 임무를 위해 420대의 폭격기 및 전투기로 잠정 편성된 전폭기 부대에 배속되어 평양공습을 감행한데 이어 서해안에서 공산군 부대 집결지와 보급창을 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대는 가장 많은 조종사를 잃었다.

대대는 1953년 3월 16일 원산 남쪽에서 150여대로 추정되는 공산군 보

477)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325.

478)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357.

479) 공군역사기록관리단, 『호주공군 6·25전쟁 참전사: MIG기와 싸운 조종사들』, 2015, 98쪽.

480)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p.382.

급차량을 공격하여 파괴하고 적의 병사건물 5동을 완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어 3월 27일 2대의 전투기가 평양 서남방 상공에서 미그기와 또 한 차례 격돌을 벌였다.<sup>481)</sup> 대대는 휴전회담을 앞두고 연일 북한상공을 누비며 공산군의 군사 및 산업시설을 공격하였으며,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조인되어 참전임무를 종료하였다.

#### 마. 참전의 결과와 의의

호주는 유엔 참전국 중에서 세 번째로 전투부대를 6·25전쟁에 파병한 국가이며,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을 모두 파견하였다. 호주의 병력 파견은 전쟁기간 내내 꾸준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6·25전쟁 발발 1주년 시점인 1951년 6월 30일의 파병인원은 912명이었으나, 1952년 6월 30일에는 2배로 늘어나 1,844명을 기록하였다. 정전협정 체결직후인 1953년 7월 31일에는 2,282명으로 증가하였다.<sup>482)</sup> 또한 호주는 6·25전쟁 기간 중 2개 보병대대와 항공모함을 포함한 4척의 함정, 그리고 1개 비행대대와 1개 수송기편대를 파견하는 등 연인원 17,164명을 참전시켰다.<sup>483)</sup>

〈표 3-50〉 호주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지상군	해 군	공 군
17,164명	보병대대 : 2 병력 : 2,282명	항공모함 : 1척 구 축 함 : 2척 프리깃함 : 1척	전투비행대대 : 1 수송기편대 : 1

481)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153쪽.

48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483)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21쪽.

호주군은 지상은 물론 해상 및 공중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투와 작전에 참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340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1,2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8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sup>484)</sup>

〈표 3-51〉 호주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포로	합계
340명	1,216명	28명	1,584명

호주는 유엔참전 21개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한 국가이다. 국제평화를 추구하고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호주의 의지는 병력의 파견에 앞서 호주 수상이 행한 “우리의 참전결정은 결코 유엔현장의 구정에 얽매어서가 아니라 그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라는 연설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호주는 6·25전쟁의 참전을 통해 미국과 영국, 호주를 연결하는 동맹관계와 공동목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호주의 참전결정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를 수호하겠다는 호주의 확고한 신념에서 표출된 의지였다. 자유와 평화수호의 십자군으로써 이역만리 한국의 전장에서 헌신한 호주군의 희생정신은 한국국민의 가슴 속에 남아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한국과 호주는 6·25전쟁 참전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 외교,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실질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84)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22쪽.

## 2. 뉴질랜드(New Zealand)군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뉴질랜드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북한의 전면남침에 충격을 받은 뉴질랜드는 1950년 6월 27일 유엔안보리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6월 29일 홀랜드(S. G. Holland) 수상은 의회에서 “정부는 영·미 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하면 즉각 우리 해군의 프리깃함을 한국에 파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sup>485)</sup>

의회 동의로 얻은 정부는 즉각 출동이 가능한 2척의 프리깃함을 선정하여 출동준비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출동준비를 완료한 프리깃함 푸카기(Pukaki)호와 투티라(Tutira)호는 1950년 7월 3일 오클랜드 군항을 출발한 후 7월 30일 한국 해역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유엔군 해상작전에 참가하였다.<sup>486)</sup> 이로써 뉴질랜드 해군은 전쟁기간 동안 8척의 함정이 임무를 교대하면서 유수송선단 엄호, 해상초계, 기뢰 제거작업 지원, 지상군 함포 사격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군 함정을 파견한 뉴질랜드 정부는 7월 14일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지상군 파견을 요청받았다.<sup>487)</sup> 이때 뉴질랜드 육군은 제한된 정규군만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파병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국방위원회 토의를 통해 7월 26일 1개 포병부대를 새로 창설하여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의회 승인까지 획득하였다.<sup>488)</sup>

485)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 Politics and Diplomacy*(Auckland: Oxford Univ. Press, 1992), p.80.

486)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00.

487)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 p.88.

488)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 pp.95-96.

7월 27일 뉴질랜드 육군당국은 새로 창설할 포병부대를 “Korean Force (Kayforce)”라 명명하고 모병을 시작하였다. 모집을 시작한지 9일 만에 5,982명의 지원자가 쇄도하자 당국은 1,000명을 엄선하여 11월 26일까지 포병교육 등 모든 훈련을 완료하였다.<sup>489)</sup> 이들 중 성적이 우수한 장교 38명과 사병 640명으로 포병부대를 편성하면서 뉴질랜드 제16야전포병연대가 창설되었다. 이 부대는 무디(J. W. Moodie) 중령을 연대장으로 하여 본부 및 근무포대와 4개 포대로 편성되었으며, 25파운드포 24문을 장비한 사실상 대대에 준하는 규모였다.

1950년 12월 10일 무디 중령 지휘 하에 영국 순양함 오몬드(Ormonde)호 편으로 윌링턴항을 출발한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12월 31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연대는 부산과 밀양에서 장비수령과 현지적응훈련을 마친 후 장호원으로 이동하여 영국군 제27여단에 배속되었다. 당시 영국군 제27여단은 자체 포병부대가 없어 미군 포병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가 배속되어 영국군 제27여단은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받게 되었다.<sup>490)</sup>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는 1951년 4월 가평전투에서 영국군 미들섹스(Middlesex)연대 제1대대와 아길(Argyll)연대 제1대대, 호주연대 제3대대에 대한 화력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중공군 공세를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마량산 전투, 제임스타운선 방어 작전 등에서 영연방 제28여단을 화력으로 지원하면서 큰 전공을 세웠다.<sup>491)</sup> 전쟁기간 중 참전한 뉴질랜드 제16야전포병연대의 주요 지휘관은 다음 <표 3-52>와 같다.

489)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00.

490)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38쪽.

491)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238-249쪽.

〈표 3-52〉 뉴질랜드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비 고
	계급	성 명	참전기간	
제16포병연대	중령	J.W. Moodie	1950.12.~1951.9.	1951.4.26. 이전에는 영국군 제27여단에, 이후에는 제28여단에 배속
	중령	R.J.H. Webb	1951.9.~1952.3.	
	중령	Mck. Paterson	1952.3.~1953.2.	
	중령	J. Burns	1953.2.~1954.3.	
	중령	J.A. Pountney	1954.8.~1954.11.	

한편 뉴질랜드 해군 프리깃함은 1950년 7월 27일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하여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작전지휘 하에 들어갔다. 다음날 호위기동부대에 배속되어 사세보와 부산을 왕래하며 병력 및 탄약 등 군 보급물자를 수송하는 수송선단 호위임무를 시작으로 전쟁기간 동안 한국 해역에서 유엔 해군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6·25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해군 함정 및 지휘관은 다음 〈표 3-53〉과 같다.

〈표 3-53〉 뉴질랜드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구분	함정명	작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 명
프리깃함 (6척)	Pukaki	1950.7.~1950.12.	소령	L. E. Herrick
	Tutira	1950.7.~1951.5.	소령	P. J. H. Hoare
	Rotoiti	1950.10.~1951.11.	중령	B. E. Turner
		1952.1.~1953.3.	소령	G. O. Graham
	Hawea	1951.3.~1952.3.	소령	F. N. F. Johnston
		1952.8.~1953.8.	대령	G. R. Davis-Goff
	Taupo	1951.8.~1952.10.	소령	K. A. Cradock
Kaniere	1953.3.~1954.3.	중령	L. G. Carr	

## 나. 뉴질랜드 지상군의 작전활동

### 1) 가평 전투(1951. 4. 23. ~ 4. 25.)

가평전투는 영연방 제27여단이 4월 19일 사창리 4km 서쪽에서 한국군 제6사단 제19연대에 전선을 인계한 다음 군단 예비로 가평으로 남하한지 만 3일째인 23일에 이른바 중공군 제1차 춘계공세로 발단된 전투로 영연방 제27여단 특히 주 전투대대인 호주와 캐나다대대에 영광을 안겨준 격전이 었으나 지원부대인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에게도 영광과 시련을 동시에 안겨준 전투이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691-1에 건립된  
뉴질랜드군 참전 기념비(1988년 9월 23일 재건립)

한국군 제6사단은 1951년 4월 21일 야간 사창리 방향으로 급속 남하하 는 중공군의 대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사창리 일대에서 전방으로부터 계속 철수하는 한국군을 엄호하고 있던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24시가 조 금 지나 가평 부근 사리대에 위치한 영연방 제27여단 지휘소로부터 “곧 현

장에 도착하게 될 미들섹스대대의 엄호 하에 한국군의 철수를 지원하면서 축차 철수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sup>492)</sup>

그러나 전방의 전황은 급격히 악화되어 얼마 후 사창리에 도착한 미들섹스대대가 뉴질랜드 포병들을 엄호하기 위하여 그 전방 고지를 점령하였을 때는 이미 중공군이 미들섹스대대 진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따라서 엄호를 받기로 되었던 연대는 오히려 미들섹스대대 고지철수를 지원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25파운드 포구를 미들섹스대대 진지로 돌려 공격해오는 적에게 직접사격을 집중하였고, 이에 힘입어 고지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한 미들섹스대대 장병들은 속속 연대 포진지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뉴질랜드 연대장 무디 중령은 이때 우선 A포대에 대해 사격을 중지시키고 철수명령을 내렸다.<sup>493)</sup> 그러자 미들섹스대대 장병들은 앞을 다투어 견인차, 트레일러, 그리고 차량 등에 올라타기 시작하였고, 얼마 안가서 한 견인차에는 무려 20여 명의 장병들이 매달리는 혼잡을 이루었으나 철수는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A포대가 출발한 지 얼마 후 C포대가 그 뒤를 따랐고 약 20분 후에는 B포대의 4문만 남고 모두 축차 철수하였다. 남은 4문은 점차로 사정을 줄여가면서 사격을 계속하던 중 미들섹스대대가 고지로부터 철수한 것을 확인하자 대기하고 있던 마지막 보병들을 탑승시켜 철수를 개시하였다.

한편 군단예비로 가평 부근에 있던 영연방 제27여단은 이때 캐나다대대와 호주대대를 가평 북방 가평천 좌우고지에 배치하여 제2방어선을 편성, 북으로부터 철수하는 한국군 제6사단을 엄호하는 동시에 중공군의 가평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4월 23일 22시 철수하는 한국군을 추격해온 중공군이 여단 우측의 호주대대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492)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41쪽.

493)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I*, p.110.





뉴질랜드 포병의 동계작전 지원 모습

가평평야에서는 피아간 혈전이 전개되었다.<sup>494)</sup>

이에 앞서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23일 저녁 가평 1.5km 동북쪽 북한강 북안 기슭에 전개하였다. 연대는 우측 호주대대에 파상공격을 가해오는 중공군에게 25파운드탄을 계속 집중하였다. 포수들의 얼굴은 얼마안가서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계속된 사격으로 포신의 페인트가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중공군은 이와 같은 뉴질랜드 포병의 집중사격과 용감한 호주대대의 결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병력으로 파상공격을 계속하였다. 중공군은 결국 뉴질랜드 포병연대의 탄막을 뚫고 최전방에 배치된 B중대 진지를 유린한 후 그 후방 D중대 진내로 침투하였다. 그 일부는 어느덧 504고지 남단에 위치한 대대 CP까지 침투하여 여단 전체를 크게 위협하였다.

이에 여단장 버크(Burke) 준장은 교전을 계속하면 할수록 사상자만 속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4월 24일 17시에 호주 대대장에 철수명령을 내렸다.<sup>495)</sup> 대대 철수가 시작되자 중공군은 그 기회를 포착하여 맹렬한 추격을 해왔으나 대기하고 있던 뉴질랜드 포병의 집중 저지사격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중공군은 일시에 가평으로 남하하려 했으나 뉴질랜드 포병의 저지사

494)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43쪽.

495)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I*, p.129.

격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날 야간에 좌측의 캐나다대대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격도 철야로 계속되었으나 뉴질랜드 포병과 증원 나온 미 포병대의 협조된 지원사격으로 100구가 넘는 시체를 남기고 도주하였다.<sup>496)</sup>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3일간에 걸친 가평전투에서 3,000~10,000m 사정권내에 드는 각종 표적에 약 10,000발의 25파운드 탄을 발사하여 중공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공군은 호주대대 진지에서만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연대장 무디 중령은 사창리에서 중공군 대부대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단 1문의 포도 잃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철수시킨 전투지휘 능력을 인정받아 무공훈장(Distinguished Service Order)을 수여받았다.

## 2) 코만도작전(1951. 10. 3. ~ 10. 8.)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전곡 서측 15km 지점 세골에서 영연방 제1사단이 실시한 코만도작전 시 영연방 제28여단의 고왕산, 마량산 공격작전을 지원하였다. 이 연대는 6일간의 전투에서 72,000발의 포탄을 발사하여 6·25 전쟁에 참전한 이래 단일작전으로서는 가장 많은 포탄을 사격하였다.

코만도작전은 1951년 10월 3일 미 제1군단이 현 방어선인 캔사스-와이오밍선을 제임스타운(Jamestown) 선으로 추진시키는 군단작전이였다.<sup>497)</sup> 이때 사단장 카젤스(Cassels) 소장은 사단 공격을 위하여 군단 포병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뉴질랜드 포병연대로 하여금 우일선 영연방 제28여단의 공격 대대들을 직접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sup>498)</sup>

이에 따라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작전 개시 하루 전인 10월 2일 일몰시까지 217고지와 마량산(315) 등을 공격하는 영연방 제28여단을 위한 지원사격

496)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43쪽.

497)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I*, p.205.

498)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48쪽.

준비를 완료하였다. 3일 새벽 뉴질랜드 포병연대 지원사격 아래 일제히 공격을 개시한 3개 보병대대는 오전 중 비교적 순조로운 공격 진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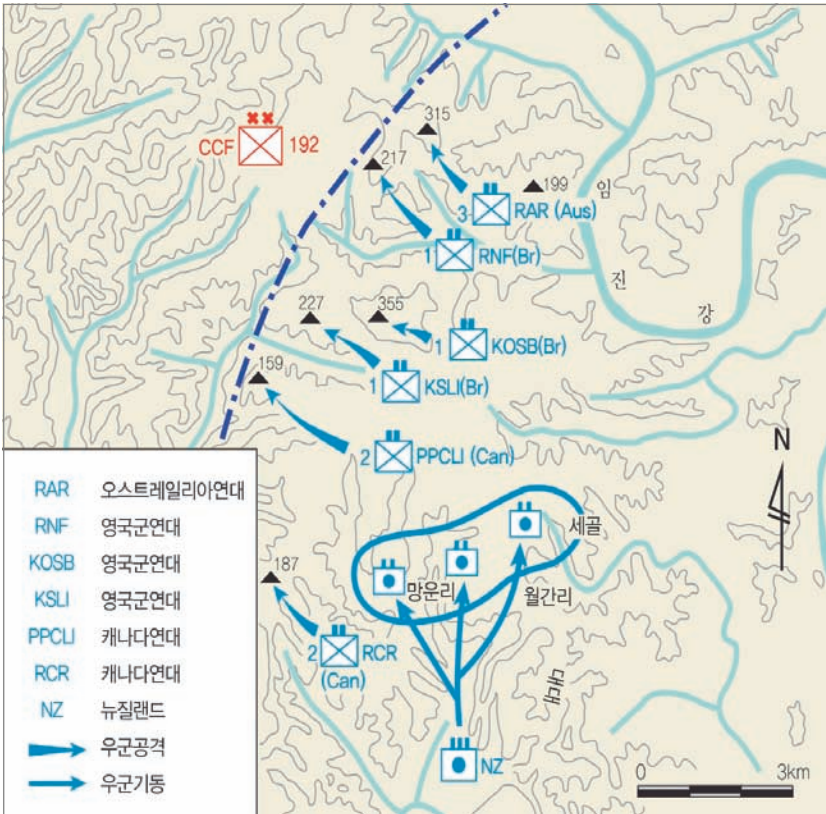
뉴질랜드 포병의 사열 모습

특히 맨 우측에서 마량산을 목표로 공격한 호주 대대는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를 뚫고 진격한 끝에 적의 큰 저항 없이 10시에 중간목표인 199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오후부터 3개 대대가 모두 중공군의 치열한 저항에 부딪치기 시작하자 공격을 중단하고 야전전투에 대비하였다. 이날 밤 뉴질랜드 포병은 각 목표지역 일대와 예상되는 적의 집결지 등에 계속 포격을 집중하였다.

다음날 이른 아침 3개 대대의 공격은 다시 계속되어 12시경 좌측 영국대대가 중공군 저항을 물리치고 고왕산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우측 217고지 및 마량산을 공격하던 대대는 일진일퇴 격전을 거듭하였다. 그러자 여단장은 뉴질랜드 3개 포대 전 화력을 217고지로 집중시키며 마침내 적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sup>499)</sup>

499)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50쪽.

〈상황도 3-27〉 뉴질랜드 포병연대의 코만도 작전(1951. 10. 3. ~ 10. 8.)



이처럼 우일선 영연방 제28여단은 마지막 목표인 217고지 및 마량산 공격에서 3일간이나 혈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 10월 8일 217고지 점령을 마지막으로 마량산을 포함하여 여단에 부여된 제임스타운 선상의 전 목표를 점령하였다.<sup>500)</sup> 이 작전에서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무려 7만 2,000발의 포탄을 적 표적에 집중하여 6·25전쟁에 참가한 이래 단일작전으로는 가장 많은 포탄소모량을 기록하였다.

500)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I*, p.216.

## 3) 후크고지 전투(1953. 5. 2. ~ 5. 28.)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영연방 제1사단이 1953년 4월 9일 전선으로 복귀하자, 우일선에 배속된 영연방 제28여단을 직접지원하게 되었다. 중공군은 고왕산에 대한 거듭된 공격 실패에 재공격을 완전히 포기한듯 이후부터는 공격 방향을 좌측 여단 지역인 사미천 서안의 이른바 후크(Hook) 고지로 전환하였다.

1953년 5월 2일 중공군은 2개 중대로 후크 고지의 캐나다군을 공격하여 진지 일각을 점령하였으나, 뉴질랜드 포병연대 등 사단포병부대의 강력한 진내사격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물러났다. 그리고 5월 28일 21시 중공군은 2개 대대로 후크 고지를 다시 공격하였다.

중공군은 이 공격에 앞서 후크 고지 일대에 1만여 발의 포격을 집중하였다. 당시 이를 지켜본 한 목격자는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적의 포격이었다.”고 술회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지를 방어하던 영국군 제29여단 대대는 군단 포병 일부를 포함한 전 사단 포병부대의 화력집중에 힘입어 수차례에 걸쳐 역습을 반복하였고, 마침내 다음날 새벽 적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단은 도합 2만 4,000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는데 그중 4,500발은 뉴질랜드 포병연대의 포탄이었다.<sup>501)</sup>

## 다. 뉴질랜드 해군의 주요 활동

## 1) 푸카기호와 투티라호의 호위작전

뉴질랜드 해군 당국이 최초로 유엔군 해상작전에 파견한 푸카기호와 투티

501)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56쪽.

라호는 1950년 7월 3일 뉴질랜드 노스 아일랜드 북부 오크랜드(Auckland)를 떠난 후 도중에 홍콩에 기항하여 약 2주간에 걸쳐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어 7월 27일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한 뉴질랜드 함정은 미 극동해군사령부 작전지휘 하에 들어갔다.<sup>502)</sup>

뉴질랜드 푸카기호와 투티라호는 1950년 8월 1일 아침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영국 블랙스완(Black Swan)호의 함장 제이(Jay) 대령이 지휘하는 호위기동분대(TE-96.50)에 배속되었다. 이 기동분대 임무는 일본 사세보와 부산 간을 왕래하면서 병력과 탄약을 비롯한 보급물자를 수송하는 수송선단을 호위하는 것이었다.<sup>503)</sup>

당시 유엔 지상군은 낙동강 선으로 철수하여 마지막 방어선을 편성하고 일대 결전을 겨룰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유엔 지상군의 운명은 오직 유엔 해군이 얼마나 신속하게 병력과 물자를 수송해 주느냐에 달려 있었다.

푸카기호와 투티라호의 호위임무는 9월 초까지 약 4주 동안 계속되었다. 이들은 이른 오후 수송선단과 함께 사세보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이른 아침 부산항에 도착하는 것을 반복하여 지원하였다. 이들은 수송선단이 안전하게 항만에 진입할 때까지 항만 외곽에서 초계하다가 다시 사세보항으로 되돌아오는 작전을 반복하였다.

한편 뉴질랜드 프리깃함 푸카기호와 투티라호는 1950년 9월 12일 명령에 따라 인천상륙작전을 위하여 특별히 편성한 제7함동기동부대의 예하부대인 초계 및 엄호전대(TG-96.7)에 배속되었다. 이들은 상륙작전 D-day인 9월 15일을 전후하여 초계엄호전대의 일부로써 인천항 입구까지 약 64km 해상을 왕래하면서 유엔해군 대형함정들을 엄호하였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다는데 큰 보람을 갖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502)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00.

503)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58쪽.

다. 이어 푸카기호와 투티라호는 10월 초 유엔군의 원산상륙작전을 지원하였고, 10월 하순 서해안지원전대(TG-95.1)에 배속되었다. 이때부터 뉴질랜드 함정들은 계속 영연방 해군과 함께 작전을 전개하였다.<sup>504)</sup>

한편 뉴질랜드 해군은 1950년 11월 4일 로토이티(Rotoiti)호를 한국전선에 투입하고 푸카기호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였다. 푸카기호의 귀국으로 한 조를 이루게 된 투티아호와 로토이티호는 서해안 지원전대에 배속되어 인천-진남포 간을 왕래하는 유엔함정들을 호위하였다. 당시 가장 중요한 보급기지인 진남포항과 그 접근로에는 공산군 기뢰가 도처에 매설되어 있어 유엔해군 함정들에 큰 장애가 되었다. 투티라호와 로토이티호는 유엔함정 호위에 앞서 우선 소해상황을 파악하고 적의 기뢰부설 작업을 감시하였다. 그러나 중공군 참전으로 유엔군이 전면 철수하게 되자 12월 초 진남포는 다시 공산군에게 넘어갔다.

유엔군 서해안지원전대는 공산군 기뢰부설을 비롯한 해상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해안초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수심이 얕은 내륙해안까지의 접근이 가능한 프리깃함들을 소해작업 엄호임무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해군의 투티라호와 로토이티호도 1951년 3월 백령도 근해에서 소해작업 중인 2척의 한국해군 소해정을 엄호하였다.<sup>505)</sup> 이 소해작업은 격심한 조수간만과 기상불순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이 기간 중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해군장병들은 언어상의 장애를 극복해가면서 합동작전을 수행하였다.

## 2) 로토이티호와 화이어호의 초계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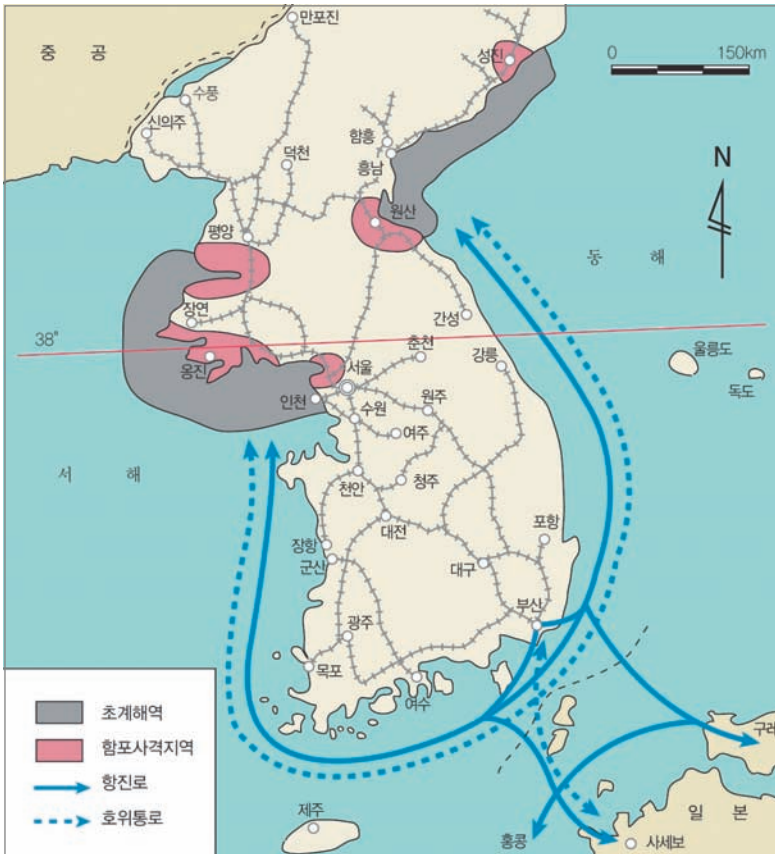
뉴질랜드 해군은 1951년 4월 26일 화이어(Hawea)호를 한국전선에 투입

504)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 p.125.

505)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I*, p.169.

하여 투티라호와 임무를 교대시켰다.<sup>506)</sup> 이로써 제1차로 참전한 푸카키 호와 투티라 호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무렵 유엔군 해상작전은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즉, 전선이 교착되면서 유엔해군은 호위임무보다 해안초계, 함포사격, 요란사격, 해안기습작전 엄호 등 공격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상황도 3-28〉 뉴질랜드 프리깃함 작전해역



506)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I*, p.169.



화이아호는 1951년 4월 하순 서해안지원전대(TE-95.12)에 배속되어 5월 18일 속도-석도 간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속도 건너편 내륙해안에 적의 포진지를 발견하고 포격으로 완전히 파괴하였다. 이것이 뉴질랜드 해군 참전 이후 최초의 함포사격이었다.<sup>507)</sup>

이어 로토이티호는 계속하여 1951년 8월 25일 야간 영국 해병 특공대와 합동하여 서곶리(속도 남쪽 내륙해안)의 공산군 포병진지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sup>508)</sup> 특공대는 로토이티호 수병 7명과 영국 해병 11명으로 편성되었다. 특공대는 로토이티호에서 하선한 다음 보트에 분승하여 목표지점에서 약 150m되는 해변까지 진출했으나, 공산군에게 발각되어 역습을 받았다. 이들은 부득이 기관총 사격을 가하면서 철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로토이티호 수병 1명이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이것이 6·25전쟁 기간 중 뉴질랜드 해군의 유일한 인원손실이었다.

### 3) 타우포호와 로토이티호의 작전

뉴질랜드 해군은 1951년 10월 타우포(Taupo)호를 한국전선에 투입하여 로토이티호의 임무를 인수토록 하여 한국해역에는 타우포호와 화이아호가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로토이티호가 1952년 2월 초 다시 한국해역으로 복귀하여 화이아호와 임무를 교대하였다.<sup>509)</sup>

타우포호는 1951년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서해안 주요 도서 초계임무를 계속하던 중 1952년 2월 중순 뉴질랜드 함정으로는 최초로 동해안 양도에 파견되어 열차파괴 작전에 참가하였다. 이 열차파괴 작전은 한 번의 포격이나 폭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차보급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는

507)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I*, p.172.

508)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I*, p.174.

509)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62쪽.

장기작전이였다.

타우포호는 1952년 2월 19일 아침 처음으로 열차파괴 작전에 참가하여 양도-성진 간 해역을 초계하였다.<sup>510)</sup> 이때 타우포호는 양도가 치열한 적의 포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적이 범선 15척에 분승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타우포호는 미국 엔디코트(Endicott)호와 셸톤(Shelton)호의 엄호 하에 적의 범선들을 향해 포사격을 집중하였다.

공산군 선박들도 자동화기 사격으로 맞서며 사격전을 전개해 지상전을 방불케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선 10여 척이 아군 함포사격에 침몰하자 나머지 5척은 서둘러 도주하였다. 타우포호는 적선을 추격하였으나 적의 해안포로부터 포격을 받아 기계실 일부가 파손되어 어쩔 수 없이 철수하였다.

이처럼 공산군의 양도점령 기도는 타우포호를 포함한 유엔 해군의 반격으로 완전히 좌절되었다. 이 전투에서 타우포호는 적선 10척과 이에 탑승한 공격부대를 함께 수장시켜 큰 전과를 올렸고, 이어 양도에 의무대원들을 상륙시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sup>511)</sup>

한편 로토이티호는 1952년 2월 초 제2차로 투입되어 서해안 지원전대 소형함정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한강 북안의 공산군 진지에 함포사격을 가하거나 속도와 석도를 비롯한 주요 도서 초계임무를 수행하였다. 로토이티호는 5월 3일 웅진군 기린도 연안을 초계하던 중 적 해안포대를 발견하고 함포사격을 집중하여 완전히 제압하였다.<sup>512)</sup> 로토이티호는 연안초계 등을 수행하면서 속도와 백령도에서 작전하는 유엔군 유격부대 작전을 지원하였다.

510)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63쪽.

511)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I*, pp.282-283.

512)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64쪽.

## 4) 화이아호와 카니어호의 작전

타우포호가 1952년 10월 뉴질랜드로 귀항하자 화이아호가 다시 한국 해역에 투입되어 제2차 참전에 들어갔고, 1953년 2월 하순에는 제2차 참전을 끝으로 귀항한 로토이티호를 이어 새로 카니어(Kanierie)호가 한국해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뉴질랜드 프리깃함 화이아호와 카니어호는 휴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유엔군 해상작전에 참가하여 마지막 작전을 수행하였다.

화이아호는 1953년 1월 7일 서해안 지원전대로 복귀하여 해안초계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장산곶 남쪽 월내도 연안을 초계하던 중 적의 해안포로부터 사격을 받아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화이아호는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포격을 집중하여 적의 포병진지를 완전히 제압하는 전과를 올렸다.

화이아호는 2월 말 동해안 양도 기동분대에 파견되어 미 해군 함정들과 같이 초계임무를 수행하였고, 열차파괴 작전에도 참가하였다. 화이아호는 3월 4일 150명의 공산군 유격부대가 양도에 상륙했다는 보고에 접하였다. 그러나 화이아호는 적이 사정거리 밖에 있어 미 공군기에게 표적지시를 제공하여 적을 제압하는데 기여하였다.<sup>513)</sup>

한편 카니어호는 1953년 4월 25일 첫 임무로 미 소해정 엄호임무를 맡았다. 이는 이날 미 소해정들에 사격을 가하는 적의 해안포 진지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여 완전히 제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어 카니어호는 서해안 도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다가 영국 엘리자베드(Elizabeth) 여왕 대관식 날인 6월 2일 화이아호와 함께 일본 구레항에서 수일을 보낸 후 서해안 지원전대로 복귀하였다. 며칠 후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유엔군 유격부대 철수를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513)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65쪽.

### 라. 참전의 결과와 의의

참전기간 동안 뉴질랜드의 병력파견은 약 1,0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1951년 6월 30일에는 797명을 그리고 1년 후인 1952년 6월 30일에는 1,111명을 기록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의 병력 현황은 1,389명이었다. 1개 포병연대와 프리깃함 2척을 파견한 뉴질랜드는 기간 중 연인원 3,794명을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sup>514)</sup>

〈표 3-54〉 뉴질랜드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지 상 군	해 군
3,794명	포병대대 : 1 병력 : 1,389명	프리깃함 : 1척

뉴질랜드군은 가평전투를 비롯하여 마량산과 고왕산, 그리고 후크고지 전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3명이 전사 및 사망하고 7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sup>515)</sup>

〈표 3-55〉 뉴질랜드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23명	79명	1명	-	103명

뉴질랜드 제16야전포병연대는 외국훈장 4회를 비롯하여 83회의 훈장을 수여받았고, 뉴질랜드 해군 역시 18회의 훈장수상을 기록하였다.

514)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39쪽.

515)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40쪽.

뉴질랜드는 수교 이전부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해온 우방국이었다. 뉴질랜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캐나다·호주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방위체제를 갖추고 ANZUS를 체결하는 등 반공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북한이 자유 대한민국을 침략하자 유엔의 대북한제재에 호응하여 한국전선으로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뉴질랜드군이 참전과정에서 보여준 용맹성과 자유수호의지는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나아가 자유세계를 결속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 제6절 아프리카지역 참전국

### 1. 에티오피아(Ethiopia)군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에티오피아군의 참전 배경과 전개

에티오피아는 유엔참전국 중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상군을 파견한 유일한 나라였다. 1950년 6월 북한군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에티오피아는 이를 무력으로 응징하기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즉각 지지하고 나섰다. 1950년 7월 2일 에티오피아 정부는 “한국의 위기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유엔의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요지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유엔의 물자지원과 파병을 요청받은 에티오피아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1,200명 수준의 1개 보병대대를 파견하고 1년간 복무한 후 교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8월 중순에 파병부대를 창설하고 구체적인 파병준비에 착수하였다.<sup>516)</sup> 파병대대는 황실근위대에서 지원자를 엄선하여 편성하였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무솔리니군에 의한 무장 해제로 군사장비가 낙후되어 있었다. 1950년 영국 지원으로 10개 대대를 창설하였으나, 이들은 황실근위대에 불과하였다.<sup>517)</sup>

이런 상황에서 파병을 결정한 배경에는 1935년 10월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로부터 침공을 받고 국제연맹에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국제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집단안보라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1945년 10월 유엔이 창설될 때 그 이념을 적극 지지하면서 창립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전선으로 출발에 앞서 사열중인 에티오피아군

참전 1진으로 편성된 대대는 약 8개월간 영국군 교관 지도하에 전투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을 마친 에티오피아대대는 1951년 4월 13일 아디스아바바 궁정에서 출정신고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셀라시에(Haile Selassie)

516) Kimon Skordiles, *KAGNEW : The Story of the Ethiopian Fighter in Korea*, 송인엽 옮김, 『강뉴 :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이야기』(서울: 오늘의 책, 2010), 76쪽.

517)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2.

황제는 “국제평화와 인류의 자유수호를 위해 침략자에 대항하여 용전하라”고 격려하며 ‘강뉴(Kagnew)대대’라는 호칭을 부여하였다.<sup>518)</sup>

출국보고를 마친 제1강뉴대대 장병 1,153명과 파한 에티오피아군 사령부 요원 32명은 다음날 지부티항으로 이동하여 사령관 퀘브레(Kebbede Guebre) 대령 지휘 하에 미군 수송선 제너럴 매크리어(General Macrea) 호에 승선하였다. 4월 16일 지부티항을 떠난 에티오피아군은 20일간 항해 끝에 5월 6일 부산항에 도착하여 미 제8군에 배속되며 동래의 유엔군수용대로 이동하였다.<sup>519)</sup>

8주간의 현지적응 훈련을 마친 강뉴대대는 7월 11일 가평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 제4대대에 배속되었으며,<sup>520)</sup> 이후 1952년 3월 28일 강뉴대대 제2진과 임무를 교대할 때까지 중동부전선의 적근산-삼현 부근과 양구 북쪽 단장의 능선 및 문동리, 편치불 부근 만대리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2진인 제2강뉴대대는 1952년 3월 29일 한국에 도착한 이래 다음해 4월 30일 귀국할 때까지 철의 삼각지대와 역곡천 유역에서 활동하였다.<sup>521)</sup> 1953년 4월 16일 내한한 제3강뉴대대 또한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역곡천 유역에서 요크-잉클고지 작전 등을 수행한 후 1965년 3월 1일 본국으로 완전 철수하였다.

에티오피아대대는 참전기간 동안 화천지구 전투, 양구부근 전투, 삼각고지 부근 전투, 요크 및 잉클고지 전투 등 무려 250여 차례에 달하는 전투를 수행하여 대부분 승리하는 전과를 이루었다.<sup>522)</sup> 6·25전쟁에 참전한 에티

518) 셀라시에 황제가 파한부대에 친히 내린 ‘강뉴’라는 단어는 에티오피아어로 ‘혼돈에서 질서를 정립하다’와 ‘초전박살’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송인엽 옮김, 『강뉴 :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이야기』, 10쪽.

519)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4.

520) 송인엽 옮김, 『강뉴 :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이야기』, 83쪽.

521)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4.

522) 국가보훈처,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군 6·25전쟁 참전사』, 2012, 51~53쪽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394~405쪽.

오피아대대는 3개 보병중대와 본부중대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지휘관은 다음 <표 3-56>과 같다.

〈표 3-56〉 에티오피아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 대 명	참 전 기 간	지 휘 관	
		계급	성 명
강뉴 제1대대	1951.5.6.~1952.3.28.	중령	Teshome Irgetu
강뉴 제2대대	1952.3.29.~1953.4.30.	중령	Asfaw Andargue
강뉴 제3대대	1953.4.16.~1954.7.10.	중령	Wolde Yohannis Shitta

#### 나. 에티오피아 지상군의 주요 전투

##### 1) 적근산-삼현 전투(1951. 8. 12. ~ 9. 22.)

적근산-삼현 전투는 에티오피아대대가 적근산 동쪽에 주저항선을 방어하고 있던 중 1951년 8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치하고 있던 중공군 제200사단의 전초진지인 700고지와 602고지를 공격하여 2차에 걸친 격전 끝에 거지를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에티오피아대대는 1951년 8월 9일 화천 북쪽 노동리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 예비 일부가 되었다. 이 무렵 사단 정면에는 중공 제67군 예하 제199사단과 제200사단이 대치하고 있었다. 이날 미 제7사단장 페렌바흐(Claudes B. Ferenbaugh) 소장은 제32연대장에게 “대대병력으로 제31연대 전방에 있는 제19연대의 대대병력과 교대하여 정찰기지선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제32연대장은 8월 10일 에티오피아대대장에게 1개 중대를 제3대대에 파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2연대 제3대대에 배속된 에티오피아대대 제2중대는 적근산 전방 전초진지인 797고지를 점령하며 대



대는 처음으로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sup>523)</sup> 전방에 배치된 지 3일 만인 8월 12일 정오 무렵 증강된 분대규모 정찰대가 봉당덕리 부근에서 10여 분간 적과 교전하여 대대는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처음으로 적과 교전을 실시하였다. 이어 8월 15일 대대는 제1소대가 579고지 기슭에서 적과 4시간에 걸친 격전을 벌여 3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려 차후전투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1951년 9월로 접어들어 중동부전선 미 제9군단은 금성 공격의 발판이 되는 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백암산-적근산-계웅산 선 북쪽에 구축된 적 전초진지에 공격을 계획하였다. 군단 작전명령에 따라 대대는 중공군 제 27군 제200사단 예하 제598연대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삼현 부근 700고지와 602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sup>524)</sup> 이들 고지들은 적근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악능선 상에 위치하고 사방이 험준한 고지들로 둘러싸여 지형 기복이 심하고 기동공간마저 협소하였다.



강원도 화천군에 건립된 에티오피아군의 적근산지구 전적비

523)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408쪽.

52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157쪽.

대대는 그동안의 정찰작전을 통해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공격계획을 준비하였다. 8월 21일 04시에 예정된 각종 지원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되자 공격선봉에 나선 제2중대는 700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가 고지로 접근하자 2개 중대규모 중공군이 수류탄을 투척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포병 화력지원에 힘입어 공격을 개시한 지 1시간 30분 만에 700고지를 점령하였다.<sup>525)</sup>

11시 30분경 대대장은 제1중대장에게 “12시 30분을 기해 602고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중대는 정오 무렵 제2중대 엄호를 받으며 602고지로 접근하였으나, 대대규모로 추정되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중단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대장은 적진에 포병사격을 요청하였다. 중대는 이 틈을 이용하여 고지로 진출하였으나, 적의 증원으로 다시 밀려나고 말았다. 중대는 3시간 30분에 걸쳐 사투를 펼쳤으나, 중대장이 총상을 입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어 대대장 명령에 따라 철수를 단행하였다.

602고지 탈환에 실패한 대대는 9월 22일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가랑비가 내려 화력지원에 차질을 빚는 등 공격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정오부터 비가 멈추어 날씨도 쾌청해지자 13시 40분경 602고지에 포병화력을 집중하였다. 이에 적도 가용 화력을 총동원하여 대응사격으로 저항하였으며, 제1중대는 적의 집중사격을 뚫고 고지 정상으로 진출하여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아군기 편대가 적진을 강타하자 혼란에 빠진 적은 앞을 다투며 분산 철수하였다. 고지를 확보한 중대는 602고지에 구축된 모든 적의 방어시설을 파괴한 다음 16시를 기해 대대장 철수명령에 따라 복귀하였다.<sup>526)</sup>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적이 유기한 시체 179구를 확인하고 1명을 포로로

525)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423쪽.

526)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C489쪽.



1953년 5월 요크고지 전투의 전공으로  
대한민국 부대표창을 받는 에티오피아군

획득하는 전과를 올려 참전 이래 가장 치열한 격전을 승리로 장식하였다.<sup>527)</sup> 이로 인해 대대는 후일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전분투한 다수의 장병들은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대대는 이 일대에서 수색정찰활동을 계속하다가 10월 7일 가평으로 이동하여 사단예비가 되었다.

## 2) 삼각고지 부근 전투(1952. 10. 21. ~ 10. 25.)

삼각고지 부근 전투는 전 전선에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 김화 북쪽에 위치한 삼각고지의 서측 지역과 그 후방에 배치되어 있던 에티오피아대대가 1952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공군 제45사단으로부터 역습을 받고 이를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에티오피아 두 번째 부대로 1952년 3월 29일 부산에 도착한 제2강뉴대대는 미 제7사단 제32연대에 배속되어 부대정비와 전술훈련 등을 마치고 철원 일대에서 정찰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10월 3일 사단 전선조정에 따라 한탄강과 남대천이 합류하는 개활지 부근 도창리로 이동하였다.

527)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426쪽.

10월로 접어들면서 전략적 고지인 김화 북쪽 삼각고지(598고지)와 저격능선, 상감령 일대에서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 제9군단은 주저항선 안전도를 높이고 적의 침투기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아군 주저항선을 감제관측하고 있는 삼각고지와 저격능선 일대를 목표로 제한된 공격작전(Operation Showdown)을 준비하였다.

10월 14일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이 작전에서 미 제7사단은 589고지-상감령-무명고지로 이어지는 삼각고지에 대한 공격을 담당하였다. 삼각고지에는 중공 제15군 제45사단 예하 제135연대가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군단장 켄킨슨(Reuben E. Jenkins) 소장은 포병과 전폭기 지원 아래 2개 대대가 5일만 공격하면 고지를 탈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sup>528)</sup>

1952년 10월 14일 06시에 계획대로 미 제31연대 2개 대대가 병진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유리한 지형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 적은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방어하기 위해 집요하게 저항하였다. 삼각고지 일대에서 일진일퇴 공방전이 전개되자 제2강능대대는 10월 20일 계룡산을 경유하여 삼각고지 서쪽으로 진출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대대가 배치되면서 전선은 소강국면이 유지되었으나, 10월 23일 중공군은 일몰과 동시에 연대 주력이 배치된 우측에 인접한 삼각고지와 상감령 일대를 집중 포격한 후 19시를 기해 공격을 재개하여 삼각고지 일대는 화염에 휩싸였다.<sup>529)</sup> 그리고 19시 30분경에는 제32연대 좌측을 방어중인 제2강능대대 지역으로 공격을 확대하였다. 이때 최전방에 배치된 제4중대는 대대장의 진지고수 명령에 따라 2개 중대규모 중공군을 맞아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결국 진지 일부가 돌파되어 위기에 봉착하였다.<sup>530)</sup>

52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11.

52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16.

530)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C493.

이에 대대장이 진내사격을 요청하자 중공군 공세는 주춤하였고, 대대는 이 틈을 이용하여 직후방에 배치된 제2중대를 증원시켜 22시경 중공군 공격을 격퇴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인점 미 제32연대 주력부대들도 10월 24일 03시경 중공군 공격을 격퇴하고 삼각고지와 상감령 일대를 재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sup>531)</sup>

이후 미 제7사단이 삼각고지 일대를 한국군 제2사단에 인계하고 철수하면서 대대는 지난 9월말에 점령하였던 유곡리 부근 주저항선 진지를 편성하였다. 대대는 유곡리 일대에서 정찰전을 수행한 후 11월 13일 군단예비가 되어 가평 북쪽 소법리로 이동하여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에 주력하였다.

### 3) 요크 · 영클고지 전투(1953. 5. 19. ~ 5. 20.)

요크 · 영클고지 전투는 에티오피아대대가 연천 북방 천덕산 전방의 주저항선을 방어하고 있던 중 그 전초진지인 요크 · 영클고지에서 중공군 제23사단의 공격을 받고 1953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개한 공방전이다.

에티오피아 제3강능대대는 휴전협정 조인을 목전에 둔 1953년 4월 16일 부산에 도착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에 배속되었다.<sup>532)</sup> 대대는 앞서 참전한 제1대대 및 제2대대와는 달리 참전한 지 26일만 인 5월 11일 제2대대가 점령했던 요크(York) 및 영클(Uncle)고지가 있는 갈화동-덕산리 일대 주저항선에 배치되어 티본(T-Bone)고지 중공군 제23군 예하 제69사단과 마주하게 되었다.<sup>533)</sup>

대대 정면의 중앙 전방에 있는 요크 및 영클고지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협소하고 짙막한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높이가 220m인 자그마한 구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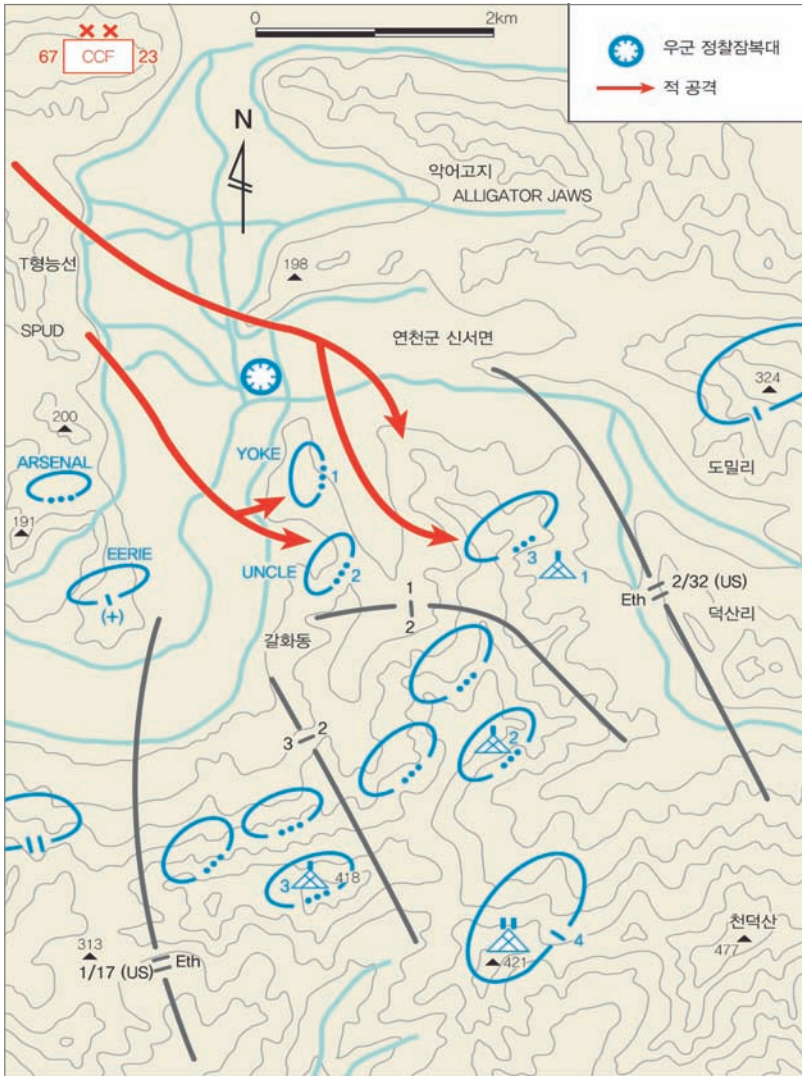
53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16.

532)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4.

533)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469쪽.

다. 이들 고지에는 제3강뉴대대 제1중대 2개 소대가 견고하게 축조된 전진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상황도 3-29〉 요크-영글고지 방어전투(1953. 5. 19. ~ 5. 20.)



5월 19일 대대장은 좌일선인 제3중대에 요크고지 전방 벌판에 정찰대를 파견하여 포로를 획득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중대장은 가랑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23시경 요크고지 전방 개활지에 15명의 정찰대를 매복시켰다. 자정 직전 매복대는 전방에서 접근중인 소대 규모의 적을 발견하였는데, 자정이 조금 지날 무렵 적은 중대규모로 증강되어 있었다. 15명의 인원으로 100여 명의 적을 공격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소대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격명령을 내릴 때까지 침묵을 지켜라”라고 지시하였다.<sup>534)</sup>

자정이 지난 0시 20분경 매복대를 우회한 각각 1개 중대규모 중공군이 요크 및 잉글고지에 대한 포위공격을 기도하여 매복대는 완전 적중에 고립되었다.<sup>535)</sup> 이때 적의 침병이 10m 거리까지 접근해오자 매복대는 소대장 사격명령에 따라 집중사격을 실시하였고,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탄막사격을 요청하였다.

이때 중공군도 요크고지로 각종 포격을 집중하여 요크고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이 포격에 구축된 장애물이 파괴되고 유선마저 두절되었다. 5월 20일 02시경 요크고지를 공격한 중공군 일부는 고지로 기어오르기 시작하였고, 진내에서는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매복대 정면에서 공격중인 1개 중대규모 중공군도 매복대를 포위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요크고지가 위기상황에 처하자 중대장은 요크고지에 VT신관 사격을 요구하였고, 이 포격에 물러난 중공군이 매복대 정면을 공격중인 적을 증원하여 이번에는 매복대가 위기에 처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정면은 축소되고 탄약마저 바닥나자 매복 소대장은 탄막사격을 요청하였고, 잠시 후 아군 포탄은 매복대 주변에 정확하게 떨어졌다. 이 포격에 혼비백산한 중공군이 티본고

534)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478쪽.

535)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C385쪽.

지 쪽으로 철수하자 아군 포병은 사격을 연신하여 이들을 격퇴하였다. 중공군이 물러난 04시경 전선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매복대는 2시간 동안 주변을 정찰하여 적이 유기한 사체 110구를 확인하고 주진지로 복귀하였다.<sup>536)</sup>

이 전투에서 제3대대는 비록 전투경험은 일천하였지만, 증강된 1개 대대 규모 중공군을 맞아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을 발휘하여 중공군을 격퇴시킨 공로가 인정되어 한국정부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다. 이후 대대는 6월 30일까지 이 일대에서 수색 및 매복 작전을 수행한 후 7월 15일 요크 및 영클고지 좌인접의 선벽 일대 주저항선에 배치되어 휴전을 맞게 되었다.



1968년 5월 7일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 건립된  
에티오피아군 참전기념비

#### 다. 참전의 결과 및 의의

에티오피아대대는 참전기간 동안 1,170명 규모의 1개 보병대대를 매년 교체하며 파견하여 금성 남쪽 적근산-삼현 부근, 사태리 및 펀치볼 일대, 철원 및 김화지구, 역곡천 일대에서 활약하여 유엔군 작전수행에 기여하였

536)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483쪽.



다. 이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군의 병력파전은 1,100~1,2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1951년 6월 30일에는 1,153명을 그리고 1년 후인 1952년 6월 30일에는 1,094명을 기록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의 병력현황은 1,271명이었다.<sup>537)</sup> 1개 보병대대를 파견한 에티오피아는 기간 중 연인원 3,518명을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sup>538)</sup>

〈표 3-57〉 에티오피아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지 상 군
3,518명	보병대대 : 1 병력 : 1,271명

에티오피아대대는 적근산-삼현 부근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22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sup>539)</sup> 대대는 여러 전투에서 올린 전공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표창 2회와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 1회를 수여받았고, 대한민국 태극무공훈장 2회를 포함한 무공훈장 58회와 미국 은성훈장 1회를 포함한 각종 훈장 20회를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sup>540)</sup>

〈표 3-58〉 에티오피아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122명	536명	-	-	658명

537)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3.

538)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82쪽.

539)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82쪽.

540)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492쪽.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지상군 전투 병력을 파견한 유일한 국가였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군 사령부와 연락장교단, 그리고 적십자사 소속의 간호요원을 유엔군병원에 파견하였다. 에티오피아대대는 황실근위대에서 엄선되었다는 것을 명예와 긍지로 삼아 용맹성과 단결력을 과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참전기간 내내 단 한명의 포로도 발생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나라가 고통을 받고, 그런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외부에 도움을 호소하였던 아픈 기억을 지닌 에티오피아는 “부당한 공격을 받은 나라를 지키고, 집단안보정신으로 세계평화를 지키며, 자유와 문명을 지킨다”는 신념 아래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신념을 떠나면 한국 전선에서 승화시켰다.



## 2.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군의 참전과 작전활동

### 가. 남아프리카공화국군의 참전 결정과 전개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6월 27일 유엔안보리가 대한군사원조 결의안을 가결하자, 아프리카 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1950년 7월 1일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한 남아공 정부는 8월 초 전투비행대대 파병을 결정하였다. 또한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긴급법안을 통과시키자 정부는 8월 4일 전투부대 파견을 선언하였다.<sup>541)</sup>

남아공 군당국은 지원자 모집에서 예상외로 많은 지원자가 응모하자 본래 계획을 바꿔 제2전투비행대대(No. 2 SAAF Squadron)를 파견하기로 결

541)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8.

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동부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및 중동지구 전선에서 용맹을 떨쳐 ‘나르는 치타(Flying Cheetah)’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남아공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는 본격적으로 참전준비에 들어갔다. 206명으로 편성된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는 참전준비를 완료하고 9월 26일 더반(Durban)항을 출발해 긴 항해 끝에 11월 5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sup>542)</sup>

다음날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는 미군으로부터 F-51 전투기 16대를 인수한 후 미 제6002전술지원비행단에서 기체교육 및 현지적응훈련에 들어갔다. 11월 15일 남아공 전투비행대대는 장교 13명과 사병 21명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한국의 수영비행장으로 이동하면서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11월 16일 미 제18전폭비행단에 배속된 남아공 비행대대는 다음날 대대장 테론(S. V. B. Theron) 중령을 편대장으로 한 4대의 무스탕기가 청천강 북쪽 북한군 병력집결지 및 야전보급소를 폭격하였다.<sup>543)</sup> 이는 남아공 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이래 최초의 출격이었다.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는 실질적으로 전투임무를 개시한 1950년 11월 12일부터 정전협정이 조인되던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2년 8개월 8일 동안 수영, 평양, 수원, 진해, 여의도, 횡성 및 오산 비행장 등 최전방기지에 배치되어 후방차단과 지상군 근접지원은 물론 스트랭글 및 새츄레이트작전 등과 같은 전략폭격작전을 수행하였다.

전쟁기간 중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는 미 제18전투비행단에 배속되어 작전에 참가하였는데, 초대 대대장인 테론(S. V. B. Theron) 중령을 비롯해 그 후임인 암스트롱(R. F. Armstrong) 중령 등이 부대를 지휘하였다.

542)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165쪽.

543)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8.

〈표 3-59〉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참전기간	지휘관		비 고
		계급	성 명	
제2전투 비행대대	1950.8.~1951.3.	중령	S. V. B. Theron	미 제18전투비행단 배속(1950.11.)
	1951.3.~1951.7.	중령	R. F. Armstrong	
	1951.7.~1951.9.	중령	J. P. D. Blaauw	
	1951.9.~1952.1.	중령	B. A. A. Wigget	
	1952.1.~1952.6.	중령	R. Clifton	
	1952.6.~1952.9.	중령	H. J. P. Berger	
	1952.9.~1953.4.	중령	R. A. Gerneke	
	1953.5.~1953.9.	중령	J. S. R. Wells	

## 나. 남아공 공군의 주요 활동

### 1) 전반기 작전

1950년 11월 19일 미 제18전투비행전대(18th US Fighter Group)에 배속되어 북한지역에 대한 폭격임무를 수행한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는 11월 20일 밤 북한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11월 24일로 계획된 유엔군의 최후 공세, 일명 ‘크리스마스 공세’를 위한 조치 일환이었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11월 24일을 기해 대규모 공세를 계획하였다.<sup>544)</sup> ‘크리스마스 공세’로 불린 최후 공세가 결정되자 미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Earl E. Partridge) 소장은 제공권을 계속 유지하여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1월 19일까지 제6150전술지원비행단을 포항에서 연포비행장(K-27)으로 이동시켰다.<sup>545)</sup>

544)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1988, p.278.

545)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8.

이에 따라 제6002전술지원비행단에 소속된 남아공 제2대대도 11월 22일 평양 미림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11월 23일부터 남아공 제2대대는 한중국 경선의 공중초계와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였다. 대대장 테론 중령은 즉시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간이막사와 격납고를 건설하여 F-51 무스탕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를 임시로 복구하였으나, 활주로 상태는 여전히 최악이었다. 11월 26일 대대 오덴달(H. O. M. Odendaal) 대위는 출격임무를 마치고 기지에 착륙하던 중 고장 난 무스탕기를 견인하던 견인차와 충돌하여 한꺼번에 2대의 전투기가 파손되었다.<sup>546)</sup>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남아공 제2대대는 연일 청천강 북쪽 군우리와 개천 상공으로 출격하여 유엔 지상군의 '크리스마스 공세'를 지원하는 한편 신의주-신안주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공산군 보급차량 대열을 폭격하였다. 11월 24일에 개시된 크리스마스 공세는 작전 개시 3일 만에 중공군의 거센 반격에 직면하였다. 맥아더 사령관은 12월 1일 국군과 유엔군에 대해 38도선 이남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sup>547)</sup> 유엔 지상군 후퇴가 공식화되면서 38도선 북단에 있던 공군 전술부대들이 시차를 두고 남쪽으로 철수하는 동시에 제5공군도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제18전투폭격비행단에 소속된 남아공 제2대대는 12월 2일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철수를 개시하여 4일 정오를 조금 지나 수원비행장(K-13)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수원비행장으로 이동한 남아공 제2대대는 지상군 철수작전 엄호와 유엔군이 유기한 각종 장비 폭파임무를 수행하였다. 12월 5일 아침 남아공 제2대대 데이비스(J. F. O. Davis) 대위와 리파우스키(G. B. Lipawsky) 대위는 청천강 북쪽 안주 상공을 향해 수원비행장을 출발하였다. 현지 상공에 도착한 이들은 리파우스키 대위가 1,700m 상공에서 엄호하는 가운데 데이

546)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168-169쪽.

547)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279.

비스 대위가 저공비행으로 화차를 폭격하였다. 이때 마지막 로켓탄이 화차에 명중하여 큰 폭발음을 내는 순간 날아든 파편이 기체를 강타하여 데이비스 대위는 안주 동북방 한 야산에 추락하였다.

이때 조종사 로렌스(Lawrence) 대위와 관측장교 밀렛(Lewis Millett) 대위가 탑승한 미 제25사단 헬기 1대가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작업에 나섰다. 로렌스 대위가 현장에 헬기를 착륙시키자 밀렛 대위가 데이비스 대위를 부축하여 헬기 좌석에 앉히는 대신 자신은 적지에 남았다. 다행히 밀렛 대위는 일몰직전에 무사히 구출되었다. 이와 같이 국적을 초월한 전우에는 모든 유엔군 조종사들의 귀감이 되었다.<sup>548)</sup>

남아공 제2대대는 1950년 12월 13일 정식으로 독립전투비행대대로서의 임무가 부여됨에 따라 12월 17일에 일본 존슨기지에 잔류하던 본대가 진해비행장(K-10)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청천강을 넘어 평양을 점령한 중공군이 개성-철원까지 진출하자 남아공 제2대대는 연일 개성-평양 상공으로 출격하여 중공군 부대 집결지와 수송차량을 공격하였다. 특히 12월 20일 남아공 대대는 20회를 출격하여 사리원-수안 지역에서 건물 57동, 트럭 15대, 철도역 1개소를 파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1951년 1월 4일 중공군 신정공세로 수도 서울이 다시 공산군 수중에 넘어가게 되자 수원비행장에 있던 남아공 제2대대 선발대도 본대가 있는 진해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sup>549)</sup> 이로써 남아공 제2대대는 진해비행장을 기지로 하여 1953년 1월까지 약 2년 동안 항공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극동공군사령관은 중공군 공세가 둔화되자 제5공군 및 폭격사령부에 공산군 병참선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1951년 1월 19일부터 시작된 극동공군의 항공차단작전은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북한 서북부와 중부 국

548)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171-172쪽.

549)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8.

경에 이르는 모든 철교와 철도조차장을 파괴하는 것이었다.<sup>550)</sup> 13일 동안 계속된 이 작전에서 남아공 제2대대는 주로 중부전선의 차단작전에 참가하였다.

대대는 북에서 한강 이남 전선으로 이어지는 교량을 비롯한 중공군 부대 집결지 및 보급소 등 172개 목표를 폭격하였다. 특히 대대는 1월 25일 춘천지구에서 적의 야전보급소로 추정되는 건물 12동과 중공군이 집결한 5개 부락 및 교량 1개, 그리고 적 차량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어 대대는 동해안 적 보급로 차단작전에도 참가하여 적의 화차를 공격하였다. 남아공 제2대대는 참전 이후 1951년 1월 말까지 총 출격 868회에 비행시간 총 1,948.20시간을 기록하였다.<sup>551)</sup>

1951년 2월 11일 17시를 기해 중공군이 이른바 ‘2월 공세’를 감행하자 서부전선 유엔군이 고립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미 제8군사령관은 지평리-원주 선을 확보하여 적의 돌파구를 막기 위해 공군의 집중적인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제2대대 소속 F-51편대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 제5공군의 10개 F-51편대와 함께 지평리-원주 일대에 기총소사와 폭격을 가해 중공군 공세를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2월 27일 대대장 테론 중령을 비롯한 5명의 남아공 조종사들이 미국의 공군십자훈장(Distinguished Flying Cross)을 수여받았다.

4월 23일 수영비행장에서 진해비행장으로 복귀한 남아공 제2대대는 중공군의 4월 공세 기간 중 임진강과 한강 상공으로 출격하여 적의 공세를 분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전 후 약 5개월간 ‘나르는 치타’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한 남아공 제2대대는 4월 말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 E. Stratemeyer) 극동공군사령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감사장을 받았다.

55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p.260-261.  
551)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177쪽.

“남아공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는 참전 이후 1951년 2월 12일까지 총 출격회수 1,000회를 돌파하였고, 그 후 불과 2개월 만인 4월 12일을 기하여 총 출격회수 2,000회라는 놀라운 기록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경이적인 출격률로 유엔군 지원에 크게 공헌한 귀 대대 대대장 이하 장병 여러분들에게 본인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sup>552)</sup>

〈상황도 3-30〉 남아공 공군 제2대대의 기지 이동 경로



552)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181쪽.



남아공 제2대대는 유엔군이 38도선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원거리로 출격하는 유엔공군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7일 수원비행장에 전진기지요원을 파견하였다. 이로써 남아공 대대는 진해비행장에서 출격하던 F-51기들이 수원비행장에서 탄약과 연료를 중간 보급 받게 되어 일일 평균 2회의 출격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

중공군의 춘계공세 기간 동안 남아공 제2대대는 5월 9일 신의주비행장 폭격을 제외하고 5월 한 달간 차단작전에 전념하였다. 신의주비행장 폭격은 중국 단둥에 있던 MIG-15기가 4월에 신의주비행장으로 이동했다는 설과 관련이 있었다.<sup>553)</sup> 이에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사전에 신의주비행장을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5월 9일 신의주비행장 일대에 대규모 폭격을 감행하게 되었다. 이때 남아공 대대도 블라우(J. P. D. Blaauw) 소령 지휘 하에 F-51기 16대가 압록강 유역 상공에서 유엔 해군의 항공모함과 구조함대들을 엄호하였다.

1951년 7월 8일 남아공 제2대대는 6·25전쟁에 참전한 이래 최초로 MIG-15제트기와 공중전을 전개하였다. 대대장 암스트롱(R. F. Armstrong) 중령은 2개 F-51기 편대를 이끌고 강동비행장 폭격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하려던 중 갑자기 나타난 4대의 미그 15기들과 마주하였다. 적기는 남아공 무스탕 편대에 공격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얻지 못하자 기수를 북쪽으로 돌렸다. 때마침 출격하던 35대의 미 F-80제트기가 미그기와 공중전을 전개하여 미그 15기 3대를 격추하였다.<sup>554)</sup>

1951년 7월 23일은 남아공 제2대대에게는 최악의 불운의 날이었다. 이날 15시 50분 베이커(F. M. Bekker) 대위를 편대장으로 무스탕기 편대는 서해안 정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진기지를 출발하였다. 한강을 따라 서

553)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353쪽.

554)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188쪽.

북쪽으로 향하던 편대는 기상이 악화되자 기지로 복귀하면서 지상 목표물을 찾던 중 시변리 상공에서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편대장을 포함한 3명의 조종사가 행방불명되었다. 이들 중 1명은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었고, 나머지 2명은 행방불명자 명단에 남게 되었다.

## 2) 후반기 작전

남아공 제2대대는 유엔공군의 새츄레이트 차단작전에 호응하여 청천강 북쪽 철로 및 교량폭격을 실시하면서 미그기와 두 번째 공중전을 벌였다. 대대는 압록강 남쪽 미그회랑에서 공중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미그기 5대와 만나 공중전 끝에 1대를 격추시켰으나, 무스탕기 1대도 피해를 입었다.

유엔공군은 6월 23일 새츄레이트 작전을 적의 산업시설이나 군수공장, 보급품집적소 등을 중점적으로 폭격하는 프레스(Pressure) 작전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부전호와 장진호를 포격한데 이어 7월 11일 평양을 폭격하였다.<sup>555)</sup> 8월 11일 길주의 텅스텐 광산을 폭격한데 이어 14일 함흥 인근의 화학공장, 그리고 29일 제2차 평양폭격에 참가하였다. 9월에도 북한지역 철로폭격을 실시한 대대는 10월에 미 제9군단의 쇼다운 작전을 지원하여 저격능선 일대에 네이팜탄을 투하하였다.

1953년 1월 2일 횡성 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이동한 남아공 제2대대는 3월 11일 F-86F Sabre기로 기종변경한 후 처음으로 압록강 남쪽으로 초계정찰을 실시하였다.<sup>556)</sup> 그리고 5월 1일 유엔공군이 평양을 대대적으로 폭격할 때 남아공 대대도 함께 출격하였다.

공산군 7월 공세를 격퇴하고 휴전에 임하게 된 유엔군사령관은 이후 공산군이 북한내 비행장을 이용해 공군력 건설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휴전이

555)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9.

556)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8.

발효되기 이전 북한 내 모든 비행장을 파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공군은 7월 18일부터 10일간 북한의 의주, 평양, 사리원, 원산, 회령, 함흥비행장 등을 폭격하였고, 남아공 제2대대도 신의주비행장 폭격에 참가하여 6대의 항공기를 파괴시켰다.<sup>557)</sup>

남아공 제2대대는 7월 27일 밤 출격을 끝으로 항공작전을 종료하였다.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는 비상대기와 교육훈련에 주력하다가 9월 7일부터 수차에 걸쳐 항공기를 미국에 반납하고 10월 29일 오산기지를 떠나 공군작전은 일단락되었다.

다. 참전의 결과와 의의

남아공은 1950년 9월 26일부터 1953년 12월 29일까지 참전기간 동안 남아공은 1개 전투비행대대 연인원 총 826명 병력과 F-51 Mustang기 95대 및 F-86 Sabre Jet기 20대를 파견하여 유엔 작전을 지원하였다.<sup>558)</sup>

〈표 3-60〉 남아프리카공화국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참 전 규 모
	공 군
826명	전투비행대대 : 1 전투기 : 115대

남아공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는 1950년 11월 19일부터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주요 공군작전에 연 95대의 F-51기와 20대의 F-86제트기가 참여하여 총 12,405회라는 놀라운 출격기록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러한 출격을

557)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208-209쪽.  
558)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365쪽.

통해 남아공 제2대대는 공산군 전차 44대와 야포 221문, 대공포 147문 및 보급품보급소 500여개소 등을 파괴 및 파손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남아공 제2대대는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무공훈장 11회와 미국의 은성 훈장 2회를 비롯한 각종 훈장 1,109회, 남아프리카 전쟁기장 7979회, 유엔 훈장 797회를 수여받았다. 그러나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는 36명이 전사하고 8명이 포로가 되었으며,<sup>559)</sup> F-51기 74대와 F-86 제트기 4대를 잃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표 3-61〉 남아프리카공화국군 인명피해 현황

전사/사망	부상	포로	계
36명		8명	44명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한민국과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였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인 불리함과 지상군 파견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군 1개 전투비행대대를 파견하였다. 이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투병력 파견은 오직 자유 수호와 국제질서 확립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의 결의와 신념의 표현으로 유엔의 집단안보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55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4;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9.



## 제 4 장

# 유엔의 의료 및 물자 지원 활동

제1절 의료지원국의 활동

제2절 유엔 전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





## 제4장 유엔의 의료 및 물자 지원 활동

### 제1절 의료지원국의 활동

북한의 남침 직후 유엔이 채택한 ‘6·25 및 6·27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남진이 계속되어 한국군 및 유엔군의 막대한 전·사상자 발생과 함께 민간인의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 7월 31일 ‘한국 민간인에 대한 구호’를 결의하였다. 이러한 유엔결의를 토대로 유엔 및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자, 우방국은 전투부대를 파병하거나 의료 및 물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엔군의 군사작전 및 전·사상자 처리는 물론이고 한국의 전재민 구호와 전후 복구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1950년 7월 14일 스웨덴이 유엔에 의료 지원 의사를 알린 것을 시작으로 8월에는 덴마크와 이탈리아, 11월에는 인도, 이듬해 3월에 노르웨이가 동참하였다. 이들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진료도 많이 하였다. “한국전쟁 시 유엔의 결의와 적십자 정신에 의거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유엔군과 한국군의 전상자 치료 및 난민구호에 공헌한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다섯 나라의 숭고한 업적을 찬양하고 길이 기념하기 위하여” 부산 태종대에 ‘5개국 유엔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가 건립되었다.





5개국 유엔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부산 태종대)

물론 군 전상자를 대상으로 한 미군과 영국군 등의 야전병원 의료진 역할도 컸다. 미 육군제8085이동외과병원은 이미 1950년 7월 5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미 육군이동외과병원(MASH: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은 미군을 비롯한 프랑스군, 영국군, 캐나다군 등의 유엔군과 한국군, 민간인, 포로 등을 치료하였다. 그들의 의료기술은 한국군에게 수혈, 흉부외과, 마취 기술, 예방의학, 환자 후송체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보살폈던 용기있는 간호사들은 드러나지 않은 영웅이었다.<sup>1)</sup>

이외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엔 비회원국이었던 서독도 1953년 5월초에 유엔군을 위한 야전병원 파견 의사를 유엔 본부에 전달한 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듬해 1954년 적십자사를 통해 의료진을 파견하였

1) 문태준, 「한국전쟁이 한국의료에 미친 영향」, 『의사학』 9-2, 2000.12, 254쪽; “319.1 (Medic) Special”, RG 338, 국립도서관; Mil Hist Det, 8086 AU, “The Surgical Hospital in Korea” April 1953, 군사편찬연구소, 「미 육군 6·25전쟁 연구분석 프로젝트」 1-7, 2015, 9쪽; “Nurses in the Korean War: New Roles for a Traditional Profession”, <http://www.koreanwar60.com/nurses-korean-war-new-roles-traditional-profession>); Frances Omori, *Quiet Heroes*, Smith House Press, 2000; E J McNair, *British Army Nurse In the Korean War*, The History Press, 2007.

다. 독일 정부는 후버(Huwer) 박사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80명을 파견하여 1954년 5월 17일 적십자병원을 부산여고 건물에 개설하였다. 이 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방사선과, 약국 등을 갖추어 1958년 12월 말까지 외래 환자 227,250명, 입원환자 21,562명 등을 진료하였다. 이 가운데 6,025명의 신생아 출산도 포함되어 있다. 진료진에는 최하진 의사를 비롯한 한국인 21명도 참여하였다. 이들의 인류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옛 부산여고 부지에 ‘독일 적십자병원터 기념비’를 건립하였다.<sup>2)</sup>

## 1. 스웨덴(Sweden)

### 가. 참전 경과

6·25전쟁 중 첫 의료지원국이며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던 나라는 스웨덴이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서방국가와 긴밀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자국(自國)의 지리적 및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립정책을 표방하는 영세중립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50년 6월 27일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공격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자 7월 14일 1개 야전병원단의 파견의사를 유엔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8월 10일 야전병원단의 파견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스웨덴 정부는 적십자사에 이 임무를 위임하였다.

2) “Offer by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f an Army Field Hospital for US Troops Fighting in Korea” May 8, 1953, 국사편찬위원회; *Korea JoongAng Daily*, May 4, 2010. 2010년에 기념비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동대신역 화단으로 이전했다 (『조선일보』 2010.10.7.).

이때부터 스웨덴 적십자사는 한국에 파견될 의료단을 3~6개월마다 교대 시킨다는 방침 아래 야전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는 동시에 의료 장비 및 의약품 확보하는 등 파견준비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적십자사는 보름도 채 못 된 단기간에 각지에서 자원한 600명 가운데 의사, 간호사, 기타 지원요원 등 176명을 선발하여 야전병원단을 편성하였고, 또 병원 설치에 필요한 다수의 의료기재와 의약품도 확보하였다.<sup>3)</sup>

의료진의 파견 준비가 완료되자 스웨덴 정부는 낙동강방어선에서 병력, 치료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둘러 야전병원단의 출동을 명령하였다. 1950년 8월 24일 스톡홀름을 출발한 스웨덴 의료진들은 대서양과 미국을 경유 태평양을 횡단하여 한 달여 만인 9월 23일<sup>4)</sup> 부산에 도착해 부산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도착과 동시에 미 8군에 배속된 스웨덴 적십자병원(SRCH: The Swedish Red Cross Hospital)은 처음에는 200개 병상 규모의 이동야전병원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상륙 작전과 낙동강방어선에서 총 반격작전으로 부상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자, 미 8군은 후송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스웨덴 적십자병원이 후방병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다.<sup>5)</sup>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부산상업고등학교로 이동하였고, 일반의사 9명, 치과 의사 1명, 간호사 30명, 그리고 기타 기술자 및 행정요원 등 92명으로 병원 개소 준비를 서둘렀다. 이때 한국군의무행정 파견대가 배속되어 이들을 지원하여, 10월 초에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안과, 방사선과와 수술실, 연구실, 조제실을 둔 400개 병상 규모의 시설을 갖춘 병원을 열었다.

3) 의료지원국의 활동에 대해서는 『UN군지원사(국방군사연구소, 1998)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추가로 발굴하여 서술했다.

4) 기존 연구에는 28일에 정리되어 있으나, 초대 병원장 그루트의 기록에 따라 23일에 수정했다 (박지옥,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 활동』, 대한의사학회, 『의사학』 91-1, 2010.6, 201쪽).

5)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쟁 2년지』, C500쪽.

이후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환자수가 급증하자 450개 병상으로 확장되었고, 또 1952년 5월 초에는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독립된 부속시설을 갖추기도 하였다. 의료진의 교대도 치료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최소 단위로 교대를 하였으며, 본국에서 새로 도착한 요원들에게는 충분한 현지 적응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할 때,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전선에 가까운 함경남도 흥남과 원산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현지답사까지 마쳤으나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의 후퇴로 부산에 남게 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 병원을 이동 야전병원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후송병원으로서 역할하기를 희망했다.<sup>6)</sup>

#### 나. 주요 활동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1950년 9월부터 1957년 4월 철수할 때까지 6년 6개월 동안 참전함으로써 6·25전쟁에 파견된 의료지원부대 중 가장 오랫동안 한국에서 활동하였다. 그동안 그루트(Carl-Erik Groth) 초대 병원장을 비롯해 칼 그루네발트, 엘사 라르손 등 연인원 1,124명의 의료진이 유엔군 및 한국 민간인 25,0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았다.<sup>7)</sup>

1950년 9월 25일 진료를 개시하여 첫 날에만 68명을 치료하였다. 당시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과 총반격으로 전상자들이 급증하였고, 적십자병원은 이들에 대한 치료와 수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중상자들을 응급조치 후 이용 가능한 항공 및 선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으로 후송하는 중간기지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였다.

6) 원태재, 『6·25전쟁 의료지원국 참전사』(보훈처, 2014), 50-51쪽.

7) "Proposed Scandinavian Hospital for Korea" Sep. 12, 1955, Korea SMU 60-1-9500 (R/P 1220), 국사편찬위원회; Roger Lipsey, *Hammar skjold : A Life*,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2013, p.173.



한국을 방문한 전쟁 시기 스웨덴 의료진(2014.9, 주한 스웨덴대사관)

이후 유엔군의 북진으로 환자들의 증가는 잠시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1950년 11월 말 중공군의 공세에 밀린 유엔군이 철수하면서 환자의 수효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전쟁발발 이후 첫 동절기를 맞아 동상환자가 급증하자, 외과 의사들은 매일 반복적인 수술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당시 입원환자 중에는 유엔군 및 한국군 전상자는 물론이고 유격대, 노무자와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환자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군병원의 의료기술이 부족하여 이 병원에 정형외과 수술을 의뢰한 중환자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표 4-1〉 스웨덴 적십자병원 주요 활동 연표

연도	주요 내용
1950. 9. 23	스웨덴 적십자병원 부산 도착
1950. 10월 초	적십자병원 개소
1951. 6	민간진료 개시
1952. 5	민간인 진료소 개소
1953. 4	결핵병상 신설
1954. 12	민간인 치료로 전환
1957. 4	적십자병원 철수

출처 : 손문식, 『UN군지원사』, 426쪽.

이후 1951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휴전협상이 개시되고 전선의 소강상태로 환자 수가 크게 줄어들자, 스웨덴 적십자병원도 다소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적십자병원은 주 임무인 유엔군 전상자의 치료와 동시에 민간인들을 무료로 진료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때 민간 환자의 입원 치료는 물론이고 다른 민간병원에서 의뢰해 오는 방사선 촬영도 지원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당시 부산에 있는 민간병원들이 시설과 장비 및 의약품의 부족은 물론 전문의마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유일한 민간인 구호병원인 철도병원과 적기병원(赤崎病院)에 스웨덴 간호사를 고정 배치시켜 상주근무를 하도록 하였다.<sup>8)</sup> 그리고 가을부터는 적십자병원의 내과, 외과 의사들은 이들 병원을 정기적으로 매주 1회씩 순방하여 한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에 힘쓰는 한편 직접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였다. 이때 현지 치료가 불가능한 중환자는 적십자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기도 하였다. 1952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 병실을 따로 만들어 아동진료에 나섰다.<sup>9)</sup>

스웨덴 적십자병원이 1951년 6월부터 1952년 6월까지 1년 동안 치료한 민간인은 입원 환자수만 900여 명이었고, 특히 방사선과에서 검진한 환자 수는 7,800명에 달하였다. 이때 촬영된 방사선 사진만 10,000매 이상이나 되었다.<sup>10)</sup> 민간인 환자수가 날로 증가하자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1952년 5월 초에 민간인 환자를 위한 진료소를 개소하여 5~6월 동안에



스웨덴 적십자병원 입구  
(주한 스웨덴 대사관)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818쪽.

9) 『경향신문』 1952.2.19.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819쪽.

2,1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들 민간인 환자들은 대부분 중환자이거나 일반병원에서는 치료가 힘들어 이송된 환자들이었다.

1953년 4월에는 결핵 환자를 위한 병상을 신설해, 당시 만연한 결핵 퇴치에 기여하였다. 10월부터는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막사 1개 동을 결핵 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으로 사용하였다. 이곳에는 항상 만원이었다. 이외에도 적십자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총동원하여 부산 시내 전역에 걸쳐 BCG 접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sup>11)</sup>

스웨덴 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병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신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으며, 또 스웨덴의 저명한 내·외과 의사들도 자진 방한하여 적십자병원에서 봉사활동에 참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복무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보통 1~2년 이상 장기근무를 자원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부산스웨덴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상자와 피난민은 물론 극빈자를 무료로 치료하였다. 스웨덴 적십자사가 한국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및 민간 구호 업무에 참여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스웨덴병원은 1954년 말부터 순전히 민간인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 재편되었다. 스웨덴병원은 1955년 5월에 국립부산수산대학교로 이전하였으며, 종합병원 체제를 갖추고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를 총원하여 연간 5,30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한국 의료진이 진료하기 어려운 중환자들을 거의 도맡아 치료하였고, 또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스웨덴은 덴마크, 노르웨이 정부와의 공동 노력으로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함께 1958년 서울에 국립의료

11) 박지옥,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 활동」, 198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820쪽.

원을 설립, 10년간 공동 운영하여 선진 의료기술을 한국의료진에게 전수하여 의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 2. 인 도(India)

### 가. 참전 경과

인도는 1947년 8월 신생독립국으로 출발한 이후 줄곧 중립노선을 표방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한국에 의료지원을 하였다. 전쟁 이전에도 인도 대표는 한국의 조속한 통일을 위하여 구성된 유엔 한국위원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전쟁 직후인 1950년 8월 인도 대표단 가운데 나야르(Unni Nayar) 대령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 지역을 시찰하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여 사망하였다.<sup>12)</sup>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인 인도는 1950년 6월 27일 안보리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의하였을 때는 기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결의안을 수락하는 것도 그들의 중립외교정책에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혀 군사지원에 미온적이었다.<sup>13)</sup>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가 7월 31일 한국 민간인에 대한 구호를 결의하자, 한국 지원안에 동의해 1950년 11월 초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당시 영국은 전투부대의 파병을 희망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중 미얀마 전선에 영국군과 함께 참전했던 제60야전병원(the 60th Field Ambulance)은 외과 의사 4명, 마취

12) 원태재, 『6·25전쟁 의료지원국 참전사』, 97-98쪽.

13) 전사편찬위원회 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 상, 1990, 118쪽.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 정부가 북한의 남침이 조사없이도 명백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중립노선과 신생 독립국으로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Skand R. Tayal, *India and Republic of Korea*, p.27).



의사 2명, 일반의사 8명, 치과 의사 1명, 보급관 1명 등 총 331명의 장병으로 2개의 외과반과 1개의 치과반으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아삼(Assam), 편잡, 벵갈, 남부 인도 등 전국에서 선발되었다. 란가라지(A. G. Rangaraj) 중령이 지휘한 제60야전병원은 미 해군수송 편으로 뭄바이항을 떠나 1950년 11월 20일 부산에 상륙하여 시민들의 환영을 받은 후 미 8군에 배속되어 대구로 이동하였다.

이후 제60야전병원은 10일 동안에 걸쳐 부대를 재정비한 다음 의료지원 부대도 없이 한중국경선을 향해 진출 중인 영국군 제27여단을 직접 지원할 목적으로 1950년 12월 4일 6개월분의 의약품과 장비를 휴대하고 평양으로 이동하였다.<sup>14)</sup> 이로써 제60야전병원은 6·25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였다.

## 나. 주요 활동

### 1) 야전병원 운용 및 재편

인도는 1950년 11월부터 1954년 2월까지 의료지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의료진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제60야전병원은 전쟁기간 중 외래수술 약 2,300여 건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인을 포함하여 입원 환자 약 2만여 명을 치료하였다.

〈표 4-2〉 인도 제60야전병원 주요 활동 연표

연도	월일	주요 내용
1950	11. 20	제60야전병원 부산 도착
	12. 4	대구에서 평양으로 이동
	12. 5	평양에서 철수
	12. 14	제60야전병원(-), 영 제27여단 배속
	12월 말	제60야전병원 대구파견대, 병원 개소

14)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C494쪽.

연도	월일	주요 내용
1951	1. 4	제60야전병원(-), 수원으로 철수
	1. 6	수원에서 장호원으로 이동
	2. 19	남한강 도하 새말로 이동
	3. 23	이동외과반, 문산 공수투하작전 지원
	4월 말	제60야전병원(-), 영 제28여단으로 배속 전환
	5. 21	임진강 부근에서 영 제28여단 지원
	10. 3	영 제28여단의 코만도작전 지원
1952	1월	영 제28여단의 임진강 부근 전투 지원
	6월	대구파견대, 민간병원 순회진료 개시
1953	4. 8	제60야전병원(-), 임진강 전선으로 복귀
	7. 28	제60야전병원(-), 임진강 남쪽으로 철수
	9월	인도 포로송환관리단(Custodian Force)과 합류
1954	2월	귀국

출처 : 손문식, 『UN군지원사』, 435-436쪽.

인도군 제60야전병원이 평양으로 진출할 무렵 중공군의 11월 공세에 밀린 유엔군이 평양철수를 결정함으로써 제60야전병원은 처음부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당시 평양은 공산군의 포위망이 압축되는 가운데 제60야전병원이 정상적으로 철수를 하는데 필요한 수송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때 우연하게도 요원 중 수 명이 평양역 구내를 정찰 중에 방치된 기관차와 몇 대의 유개화차를 발견했고, 위생병 가운데 과거 기관차 조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요원이 있어 이 기관차를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제60야전병원은 1950년 12월 5일 이 기관차에 병력은 물론 장비와 의약품을 싣고 미 공병대가 대동강 철교를 폭파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평양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sup>15)</sup>

서울로 철수한 제60야전병원은 영국군 제27여단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15)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C494쪽.

얼마 후 미 8군사령부는 제60야전병원의 지원임무가 영 제27여단을 지원하는 데 초과된다고 판단하고 2개 제대로 분할 운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란가라지 중령이 지휘하는 주력은 영 제27여단을 계속 지원하고, 배너지(N. B. Banerjee) 소령이 지휘하는 분견대는 예비의약품을 가지고 대구로 이동하여 영연방부대들을 위한 후방병원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때 대구로 이동한 후방병원은 의무요원들의 교육훈련은 물론 전방제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2개월마다 전후방 부대를 교대시킨다는 방침도 결정하였다.

이후 제60야전병원 본대는 1950년 12월 14일 의정부에서 영 제27여단과 합류함으로써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선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한동안 한산하던 야전병원은 중공군이 신정공세를 개시하자 의정부 북쪽 10km에 추진 배치되었고, 이때 전상자의 수는 병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 야전병원은 들것과 지프로 후송되어 오는 환자들로 초만원에 이르렀으나 의사들은 숙련된 기술과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이들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환자들을 응급조치 후 후방병원으로 후송하는 데 진력하였다. 이후 제60야전병원은 다시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여 부상자의 치료와 후송임무를 수행한 후 유엔군의 철수계획에 따라 1951년 1월 4일 한강을 건너 수원을 경유 6일 장호원으로 철수하였다.<sup>16)</sup>

한편 대구로 내려온 제60야전병원 파견대도 12월 말경 영 연방군을 지원하기 위한 후방병원을 개소하고 의무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과 함께 전방의 본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이 2월공세를 개시하자 영 제27여단은 지평리에 고립된 미 제23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785쪽; Skand R. Tayal, *India and Republic of Korea*, pp.34-35.

연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월 14일 남한강을 도하해, 지평리-문막 사이의 산악지대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제60야전병원도 전방부대를 근접지원하기 위하여 2월 19일 남한강을 도하, 새말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전방부대들이 협준한 고지군으로 진출하면서부터 환자를 구호소까지 후송하는 데 3~4시간이나 소요되어 환자후송은 물론 응급조치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대대가 주암리 북쪽에서 격전을 벌이는 동안 위생병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방 고지까지 나아가 중상자를 들것으로 실어 오기도 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중상자들을 응급조치 후 군단에서 지원된 환자후송용 헬리콥터로 후방지역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6·25전쟁은 야전병원에서 헬리콥터가 널리 활용된 첫 전쟁이었다.

미 8군이 3월 23일 문산 지역에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과 함께 공정작전을 계획하자, 6·25전쟁에 참전하기 이전에 전원이 본국에서 공수낙하 훈련을 받은 제60야전병원은 군의관 5명과 7명의 사병으로 편성된 외과반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문산리 일대에서 6일 동안 헬리콥터가 후송활동을 할 수 없는 악천후와 야간에 긴급한 수술을 하고 환자를 간호하는 등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지원하였다.<sup>17)</sup>

이후 영 제27여단 주력이 중공군을 추격하여 38도선 부근으로 진출하자 제60야전병원도 중공군이 4월공세를 개시하기 직전에 가평 북쪽 중촌리로 이동하였다. 이때 영 제27여단이 영 제28여단으로 개칭됨에 따라 제60야전병원도 영 제28여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었다. 그리고 1951년 7월 28일 영연방 제1사단이 창설된 이후에도 제60야전병원은 계속 영 제28여단을 직접 지원하였다. 이후 휴전협상이 개시되면서부터 전투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자 제60야전병원의 의무 활동도 다소 여유를 갖는 듯하였다. 그러나 9월 초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789쪽.

영연방 제1사단의 주력부대들이 임진강 북쪽으로 진출하자 제60야전병원도 9월 8일 임진강 북쪽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적의 소화기 사격 및 포격으로 인한 입원환자들이 늘기 시작하였다.



야전병원 진료 모습(출처 : Imperial War Museum)

이후 1951년 10월 3일 영연방 제1사단이 특공작전(Operation Commando)을 개시함으로써 제60야전병원도 눈코 뜰 사이 없이 환자 후송작전에 투입되었다. 이 작전에서 의무 요원들은 총검과 수류탄 대신에 의약품과 수술도구를 휴대하고 공격부대를 후속하면서 전상자들의 응급조치는 물론 험한 지형과 적의 저지사격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후송 활동을 계속하였다. 영연방 제1사단은 이 작전에서 전사 58명, 부상 262명이 발생하였고, 이들 중 150여 명은 제60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후송되었다. 이 작전에서 불행하게도 부상자를 후송 중에 적의 사격과 포격을 받아 의료요원 2명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대구파견대는 1951년 2월 유엔민사원조사령부의 민간인 전상자에 대한 구호요청을 받게 되자 장비와 예비의약품을 휴대한 1개 외과반을 대구 서부시립병원에 파견하였다. 당시 서부시립병원은 140개 병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환자는 화상, 총상 등 250명이 수용되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

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파견된 외과반은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의 지원을 받아 많은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대구파견대는 5월 한국군의 요청으로 대구에 있는 국군 제1육군 병원에서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수술업무를 담당하였고, 일부 의료진을 유엔민사원조사령부가 운용하는 동부시립병원과 서부시립병원에 파견하였다. 이때 인도 의료진은 한국군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마취교육을 실시하여 마취기술자 30명을 양성하였다. 또한 7월에는 대구지역의 민간인 외래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진료소도 개소하였다. 처음에는 이 진료소에 일일평균 10~15명 정도의 환자들이 찾아왔으나 날로 증가하여 연말에는 일일평균 250~300명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8월에는 부대 인근지역에 있는 고아원에서 150명 이상의 트라코마(Trachoma, 안질)환자가 발생하자 이들을 격리 수용하고 일본에서 긴급히 의약품을 획득, 치료에 매진하여 1952년 9월에 이 병을 완전히 퇴치시키기도 하였다.

대구파견대는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한국 의사들에게 수술 기법을 전수하는데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운영 능력도 향상시킴으로써, 1951년 말부터는 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서부시립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는 인도 의료진에 대한 평판이 매우 높았다.<sup>18)</sup>

## 2) 1952년 이후 활동

휴전협상이 전개되면서, 전선은 소강상태가 계속되어 제60야전병원의 환자 수도 크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1952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산군의 야포 및 박격포 사격이 증가하였고, 이 포격의 일부는 후방지역까지 타격을 입혔다. 특히 9월 13~14일 중공군의 포격이 영연방 사단에 배속된 제60야

18) Skand R. Tayal, *India and Republic of Korea*, p.37.

전병원본부 지역에 떨어져 1명이 전사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후방 물품보관소에서 작업 중이던 2명도 파편상을 입었다. 이때 이들은 후송을 거부하고 응급조치만 받은 후 오히려 야군 부상병들의 치료에 전념하기도 하였다.

이후 영 제28사단의 정면에서는 간헐적인 포격전만 있을 뿐 대체로 소강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초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1월 말 영연방사단이 작전지역을 미 제2사단에 인계하고 군단 예비가 되어 동두천으로 이동함으로써 영 제28여단에 배속 중인 제60야전병원도 모처럼 부대정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지난 25개월 동안 직접 수술조를 편성하여 전장을 누비면서 전상자를 수술하는 등 야전병원을 진두지휘하였던 란가라지 중령이 귀국하고, 나이르(M. B. K. Nair) 중령이 후임병원장으로 왔다. 이때 2년 이상 계속 활동했던 260여 명도 교대되었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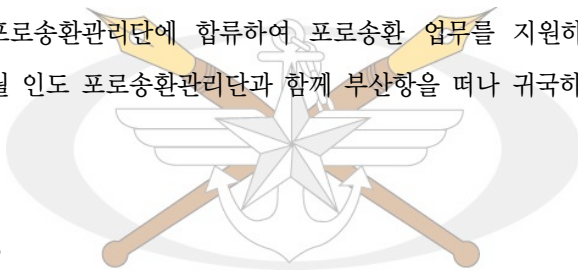
영연방 제1사단이 전선으로 복귀한 1953년 4월 중순 공산군과 유엔군 측 쌍방이 병상포로 교환에 등에 합의함으로써 휴전회담은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전선에서는 쌍방이 모두 눈앞으로 다가온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격작전을 펼침으로써 전투가 다시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에서도 정찰대의 조우전, 주요 고지 쟁탈전 등으로 전사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제60야전병원은 1953년 4월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4개월 동안 230여 명의 전사상자를 치료하는 데,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한편 대구과전대 의료진들은 1952년 6월부터 대구지역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실시하였는데, 한동안 일일평균 300여 명 이상을 진료하기도 하였다. 당시 인도 의료진이 치료한 질병 가운데 가장 효과를 거둔 것은 어린이들이

19) 『동아일보』 1953.5.21.

주로 감염된 안질(Trachoma)이었다. 그리고 대구파견대는 1950년 12월 병원을 연 이후 1953년 2월까지 중상자 또는 그 밖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400여 회에 이르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인도 제 60야전병원은 전쟁터에서 높은 의술과 박애정신을 인정받아 한국 정부, 유엔군사령부 등으로부터 많은 훈장을 수상하였다. 귀국 후인 1955년 3월 10일 인도 정부에서도 한국전쟁에서 수행한 공로로 제60야전병원에 대통령 트로피를 수여하였다.

제60야전병원은 휴전 후 인도 정부가 송환거부포로의 경비를 위한 인도 관리군을 파견하자, 그 동안 함께 했던 영연방 사단을 떠나 1953년 9월부터 인도 포로송환관리단에 합류하여 포로송환 업무를 지원하였다. 이후 1954년 2월 인도 포로송환관리단과 함께 부산항을 떠나 귀국하였다.



### 3. 덴마크

#### 가. 참전 경과

1950년 6월 27일 유엔이 한국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덴마크 정부는 한국에 대한 지원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유엔 회원국 가운데 제일 먼저 지원의사를 통보하였다.<sup>20)</sup> 그리고 자국의 적십자사로 하여금 뉴욕을 왕복하고 있던 상선 유틀란드야(Jutlandia)호를 병원선으로 개조하여 한국에 파견하도록 조치하였다.<sup>21)</sup> 이에 따라 덴마크

20) 전사편찬위원회 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 상, 118쪽.

21) 전쟁 중 유엔 참전국 병원선으로는 미군(USS Repose, USS Consolation, USS Haven), 영국군(HMHS Marine)이 운용했다(Carroll Scgin-Brincefield, "Doc: The Company Aide Man", Victoria College, Univ. of Houston-Victoria Library, "Korean War Conference" June 24-26, 2010).



적십자사는 한국 파견을 자원하는 의사와 간호사 가운데 적격자를 엄선하는 한편 각종 의료장비와 보급품의 준비, 의료진의 교육훈련 등 파견준비를 서둘렀다.

당시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는 의무요원, 행정요원, 선박요원으로 편성되었고, 진료과목은 외과, 내과, 치과, 방사선과를 두고 있었다. 총지휘관은 병원선 내 제반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함은 물론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병원장은 의료업무를 그리고 선장은 항해와 안전을 담당하게 되었다. 필요로 했던 30명의 간호사들은 지원한 200명 가운데 경험을 고려하여 평균 나이 40세로 선발하였다.<sup>22)</sup>

의무요원, 행정요원, 그리고 선박운항요원 등 100명 내외를 승선시킨 8,500톤급의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는 1951년 1월 23일 해머리히(Kai Hammerich) 사령관의 지휘 아래 코펜하겐을 떠나, 5주가 넘는 항해 끝에 3월 7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사령관은 예비역이었는데 자진 현역에 복귀하여 한국전 지원에 참여하였다.<sup>23)</sup>

유틀란디아호는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1회의 참전 기간을 8개월로 정해, 매 8개월마다 근무 요원의 교대는 물론이고 의약품과 기자재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이에 따라 2차례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참전하였다.

## 나. 주요 활동

### 1) 유틀란디아호 파견

덴마크 정부는 1951년 3월부터 1953년 8월까지 해머리히 사령관, 왕게

22) "The Jutlandia Expedition(1951-1953)", <http://www.navalhistory.dk/English/History/1945-1989/Jutlandia-Soomebody.htm>(검색일: 2015.10.10.).

23) 『경향신문』 1952.2.7.

(Mogens Winge) 병원장, 콘드럽(Christen Kondrup) 선장을 비롯해 연 인원 630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였다. 이들이 진료한 환자는 부상 장병 4,981명을 비롯해 민간인이 10,000여 명을 넘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표 4-3〉 병원선 유틀란디아호 주요 활동

연도	월일	주요 내용
1951	3. 7	병원선 유틀란디아호, 부산 도착
	6. 30	유엔군사령관, 휴전회담 장소로 유틀란디아호 제의
	7. 24	유틀란디아호 제1차 파견 임무 마치고 출항
	11. 16	유틀란디아호 2차로 부산 도착
1952	3. 29	유틀란디아호 2차 파견 임무를 마치고 출항
	11. 20	유틀란디아호 3차로 인천 도착
1953	10. 16	유틀란디아호 귀국

출처 : 손문식, 『UN군지원사』, 444쪽.

유틀란디아호가 부산에 입항할 무렵인 1951년 3월초에는 유엔군이 38도선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재반격작전을 전개하고 있어서 유엔군의 전상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틀란디아호는 부산에 정박한 후 병원선을 열었다. 덴마크에서 가장 큰 반도 이름을 딴 병원선 답게 8,500톤 규모였다. 356개 병상, 외과 수술대 3대, 내과, 방사선실, 치과, 식당, 오락실, 매점, 도서실 등을 갖추어 한국인들은 이 병원선을 ‘황홀한 병원 천국’이라고 불렀다.<sup>24)</sup>

전선에서 몰려 온 전상자들은 대개 대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이었지만, 병원선이 최신 의료시설, 장비, 의약품 그리고 탁월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어 빠른 회복이 가능하였다. 또한 의사와 남자간호사는 육지로 나가, 어린이

24) 『경향신문』 1952.2.7.

전용병원 ‘해피마운틴’에서 진료를 돕고 의약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51년 7월부터는 민간인의 입원과 치료도 병행하였다. 이 무렵 휴전협상이 시작되면서, 유엔군 측에서 유틀란디아호를 휴전협상 장소로 정하자고 제안하여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공산 측이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는 않았다.



유틀란디아 병원선

이후 유틀란디아호는 주로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적으로부터의 포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방지역에 위치한 항구로 이동하여 적극적인 의료지원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선은 환자의 치료 못지않게 등화관제 문제로 상당한 고충을 겪었다. 적십자 표시 등을 소등하면 제네바협약에 의한 병원선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점등을 하면 아군 군사작전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선은 이 문제를 유엔군 당국과 협의한 결과 안전한 항구에서는 등화관제를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등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유틀란디아호 제1팀은 의료지원 활동을 계속하다가 6·25전쟁에 참전한지 약 4개월이 경과한 1951년 7월 24일 승무원의 교대와 함께 의약품과 기자재를 수령하기 위하여 부산을 출항하였다. 귀국 길에 태국군, 영국군 등 부상병을 싣고 갔다.

## 2) 유틀란디아호의 활동

유틀란디아호가 로테르담에 입항해 있는 동안 의사, 간호사 등의 의무요원들은 신규 지원자로 전원이 교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요원들은 새로운 의약품과 한국 국민들에게 지원할 각종 구호품을 적재하는 등 2차 참전을 서둘러 준비하였다.

유틀란디아호는 1951년 9월 29일 덴마크를 출항하여 11월 16일 부산항에 두 번째 입항하였고, 이들은 종전과 같이 병원을 개소하여 전상자를 수용하고 진료업무를 시작하였다. 2차 파견 초기 병원선은 전황의 추이에 따라 전방지역으로 정박지를 옮겨 가면서 전상자를 치료하였다. 이때 유틀란디아호는 적의 해안포 사격을 우려하였으나 다행히 다른 전투함정과는 달리 적의 포격을 받지 않았다.

이후 1951년 12월부터는 휴전협상에서 공산군과 유엔군 측 쌍방이 잠정 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전선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어 환자의 발생이 크게 줄어들자, 민간인도 진료하기 시작하였다.<sup>25)</sup> 당시 병원선은 수시로 승선요원들의 휴가와 병원선 정비 및 재보급을 위해 수일 동안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중상자를 일본에 있는 미군병원으로 후송시켰다. 병원선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중 일부는 이 기간 동안 그들의 휴가를 반납하고 전방지역에 있는 야전병원이나 의무부대를 방문하여 외과환자들의 수술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특히 미군 및 노르웨이 야전병원을 긴밀하게 지원하였다.

그 사이 전선이 휴전협상의 영향으로 교착상태에 이르자, 유틀란디아호도 1952년 3월 29일 다시 부산항을 떠나 덴마크로 향하였다. 이때 유틀란디아호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등 참전국 전상자를 태워 도중에 이

25) 『동아일보』 1951.12.31.

들 국가마다 들러 그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병  
원선에 대통령 표창장을, 마비스 치과과장에는 최고문화훈장인 ‘대한민국장’  
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공로에 대해 감사를 나타냈다.<sup>26)</sup>



이승만 대통령의 해머리히 유틀란디아호 병원선장  
표창장 수여(1952, 국가기록원)

유틀란디아호가 1952년 7월부터 9월까지 본국에서 제3차 파견을 준비하  
는 동안 덴마크 정부는 미 병원선과 동일한 규모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선에서 환자 후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갑판에 헬기장을 설치하  
고 헬리콥터 1대를 병원선에 탑재시켰다. 뿐만 아니라 안과의사가 보충되어  
진료과목도 내과, 외과, 안과, 신경외과, 치과로 확대되었고, 의료 요원  
도 선임 장교 1명, 의사 14명, 약제사 1명, 간호사 52명, 의무 및 행정 요  
원 23명 등 91명으로 증원되었다.

유틀란디아호는 3차로 1952년 9월 20일 덴마크를 출발해서, 전선에  
근접하여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11월 20일 인천에 입항하여 진료를

26) 『동아일보』 1952.3.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776-777쪽.

개시하였다. 이때부터 병원선은 열차, 차량 편으로 후송되어 오는 전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선의 헬리콥터가 전방고지까지 나가 응급환자들을 후송함으로써 많은 전상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병원선에서 제일 많이 고생을 한 의료진은 외과반으로서 이들은 전투가 치열하면 밀려드는 중상자들의 수술에 집중하였다.



덴마크 간호사들(1952.7, 유엔 미디어)

유틀란디아호는 정전협정이 될 때까지 9개월 동안 약 2,000여 명을 수술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헬리콥터나 병원 열차로 후송되어 온 부상자들이었다. 병원선의 입원 환자는 미군이 전체 환자의 1/3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한국군, 노무자, 그리고 다수의 민간인도 있었다.

당시 병원선은 정기적으로 인천항에서 6~8주를 근무한 후 2주 동안 정비를 위하여 일본으로 회항하였고, 이때마다 조기에 전선 복귀가 어려운 중환자들을 일본 내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또한 병원선에 입원 중인 한국군 중 해병대 중환자들을 도중에 진해 해군병원으로 후송해 주기도 하였다. 특히 병원선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병원선의 군의관, 간호사 등은 한국에 잔류하여 한국병원, 또는 미군과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에서 외과치료를 도와주었다.

1953년 초에 접어들면서 전선은 휴전회담과 관련하여 쌍방이 보다 양호한 방어선의 확보 그리고 정치적, 심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종결 등 새로운 군사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이때 해머리히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에 민간인 진료를 요청하여, 3월부터 인천항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다. 인천 기독교병원과 협조하

여 내과, 외과 및 방사선 촬영 등으로 민간인들의 진료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후 유틀란디아호는 인천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 및 유엔한국재건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부분의 기간을 민간인을 위한 진료병원으로서 활동하였다. 특히 유틀란디아호는 정전협정 조인이 임박할 무렵에는 수차례에 걸친 적군 기의 인천 폭격으로 육지와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민간인 구호에 지장을 받은 적도 있었다.<sup>27)</sup>

유틀란디아호는 정전협정이 조인되자 귀국에 앞서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약품과 의리기재들을 유엔한국재건단을 통하여 여러 민간병원에 기증하였다. 1953년 8월 16일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인천시민의 뜨거운 환송을 받고 인천항을 떠났다. 이때 병원선은 공산 측으로부터 귀환한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의 포로 651명을 승선시켜 이들이 각자의 본국으로 후송되는 것을 지원하였다.



병원선 유틀란디아호 한국전참전기념비  
(코펜하겐 부두, 비는 부산에서 가져온 화강암임)

27)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3년지』, C383-384쪽; “The Jutlandia Expedition(1951-1953)”, [http://www.navalhistory.dk/English/History/1945\\_1989/Jutlandia\\_Soomebody.htm](http://www.navalhistory.dk/English/History/1945_1989/Jutlandia_Soomebody.htm)(검색일: 2015.10.10).

총 3차에 걸친 참전기간 중 유틀란디아호에 근무한 연인원은 세허(Ole Secher) 박사를 비롯한 630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진료한 환자만도 6,000여 명이 넘었다. 그리고 이들 환자 중에는 대수술이 필요한 중상자가 상당수 있었으나 사망자는 25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유틀란디아호가 최신의 의료장비, 우수한 의료진 및 진료기술을 갖추고 모든 구성원이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덴마크 의료진은 정전 이후에도 노르웨이, 스웨덴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립의료원의 설립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사에 길이 남을 공헌을 하였다.

#### 4. 노르웨이(Norway)

##### 가. 참전 경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50년 6월 25일(뉴욕 시간) 북한군의 공격중지를 결의한 데 이어 6월 27일 한국 군사원조를 결의하였을 당시 노르웨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들 결의안의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였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유엔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 출신인 트리그브 리였다.<sup>28)</sup>

노르웨이 정부는 1950년 7월 초순에 주유엔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지원을 제의하였다. 이어서 7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민간인 구호 및 지원을 결의하자, 적십자사로 하여금 미화 74,600달러와 의류 126톤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엔 한국재건단에도 미화 1,725,523달러를 기부하였다.

28) "Norway honors Korean War veterans", *Korea Herald*, July 28, 2013.



노르웨이 정부는 처음에 적십자사를 통해 민간인을 돕겠다는 뜻을 지원했으나, 유엔이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을 요청하자 적십자사를 통하여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을 계획하였다. 노르웨이 의회가 1951년 3월 2일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에 동의하자 적십자사는 6개월 마다 파견 인원을 교대시킨다는 방침 아래 인원을 선발하는 등 파견 준비를 서둘렀다. 4월 16일에는 노르웨이 대표단을 일본으로 파견해 미 극동군사령부 의무 당국과 노르웨이 의료지원부대의 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

노르웨이 적십자사에서 83명으로 편성한 1차 대원은 1951년 5월 16일 한국을 향해 떠나, 일본에 도착하여 미군으로부터 60개 병상 규모의 이동외과병원 설립에 소요되는 의료기재를 구입하였다.<sup>29)</sup> 이때 노르웨이의 의료진들은 한국으로 이동에 앞서 새로운 의료장비의 취급 및 숙달과 함께 현지 적응 훈련을 받았다. 병원에 대해 처음에는 노르웨이 적십자사가 외교부를 대신해 관리했으나, 1951년 11월부터 육군에서 맡았다.<sup>30)</sup>

〈표 4-4〉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주요 활동 연표

연도	월일	주요 내용
1951	6. 22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한국 도착
	7. 19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개소(의정부 금오동)
	9월	동두천에 외래진료소 개소
1952	8월	치과진료 개시
1954	11.10	이동외과병원 귀국

출처 : 손문식, 『UN군지원사』, 449쪽.

노르웨이 이동외과의료진들은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격퇴한 유엔군이 와 이오밍선으로 진출하고 있을 무렵인 1951년 6월 22일 람스타드(Herman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80, 809쪽.

30) 「노르웨이 육군이동병원」, [http://www.norway.or.kr/News\\_and\\_events/press/--/NORMASH](http://www.norway.or.kr/News_and_events/press/--/NORMASH) (검색일: 2015.9.24.); 노르웨이 한국 참전용사협회, 『NORMASH: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한 한국』, 주한노르웨이대사관, 2013.

Ramstad) 대령의 지휘 아래 한국에 도착해 한국 정부, 유엔군, 시민 등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의료진들은 7월 7일까지 부산에 머물고 있다가, 유엔군사령부 의무 당국과 병원 운영을 협의한 결과 서부전선에서 활약 중이던 미 제1군단을 직접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 북쪽 14km 쯤 떨어진 의정부로 이동하였다. 7월 19일부터 대부분 천막으로 이루어진 임시 건물에서 진료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같은 해 9월 29일 동두천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계속하였다.<sup>31)</sup>

병원을 열 당시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은 자국에서 파견된 인원이 83명에 불과하여 미군의 이동외과병원 편성 수준인 126명을 맞추기 위해 부족한 인원은 한국인으로 보충하였다. 이후 미군의 이동외과병원 정원이 18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도 부족한 인원인 의무요원 40명과 기타 요원 15명 정도를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때 노르웨이 정부는 유엔에 노르웨이가 6·25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추가로 의료요원 110명을 파견하였다. 공식 명칭도 노르웨이 육군 이동외과병원(NORMASH : Norwegian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으로 결정되었고, 통제도 노르웨이 적십자사에서 노르웨이 육군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NORMASH는 한국인 경비요원과 노무자를 지원받아 190명 규모의 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게 되었다.<sup>32)</sup> 그리고 1951년 12월에는 군인과 민간인을 위한 외래환자 진료소도 설치 운영하였다.

## 나. 주요 활동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은 1951년 7월 19일부터 1954년 11월 10일까지

31) 미군 전사파견대 기록에는 의정부에서 진료개시일이 7월 9일로 정리되어 있다(Mil Hist Det, 8086 AU, "The Surgical Hospital in Korea" April 1953, 군사편찬연구소, 『미 육군 6·25전쟁 연구분석 프로젝트』 1-7, 2015, 48쪽).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809쪽; Nigel Thomas · Peter Abbott, *The Korean War 1950-1953*, p.24.

9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였다.<sup>33)</sup> 램스타드(Hermann Ramstad) 대령, 페우스(Bernhard Paus) 박사, 레소우(Peter Lexow) 박사, 슐스타드(Inger Schulstad) 여 의사, 리드 엘리사 셸브 간호장교 등을 비롯해 연인원 623명의 의료진이 전선 바로 후방인 의정부와 동두천에서 매일 4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노르웨이 야전병원 모습(1951.12, 유엔 미디어)

이동외과병원은 수술실, 치과, 방사선실, 시약실, 회복실, 조제실 등의 시설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모든 전상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

33) 노르웨이 한국 참전용사협회, 『NORMASH: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한 한국』, 20쪽.

는 야전병원이었으나 보다 많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하여 수술 후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전상자들은 지체 없이 후방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였다.

NORMASH의 외과 의사들은 1952년 8월을 기준으로 3,000여 회의 수술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51명이 사망하였다. 이것은 동 병원의 사망률로 볼 때 약 1%에 불과한 것이었다. 외과반은 참전기간 중 크고 작은 수술을 합하여 총 9,600여 회를 실시함으로써 1일 평균 8회의 수술을 실시한 결과가 되었는데,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반복될 때에는 1일 64회의 크고 작은 수술을 실시한 기록도 수립하였다.

또한 병원 내에서 가장 분주한 부서는 방사선과였는데, 전방지역의 전투가 치열해지면 촬영업무는 더욱 폭주하였고,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지역 내 장병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흉부방사선 촬영도 지원하였다. 방사선과는 참전기간 중 총 36,593명을 검사함으로써 이는 1일 평균 31명 꼴이며 사용한 필름 매수는 183,000매에 이르렀다.

치과진료는 참전 초기에는 의사가 없어 미군 치과의사 1명을 지원받아 치과를 운용하였으나, 1952년 8월 노르웨이에서 치과 군의관이 파견됨으로써 본격적인 치료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들은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지역 내 민간인들의 치료를 포함하여 참전기간 중 8,000여 명을 진료하였다.

1954년 11월 철수할 때까지 외과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총 14,755명이었는데, 이 중 휴전 전에 입원환자가 12,201명이었고 휴전 후에 입원한 환자는 2,554명이었다. 입원환자의 대부분은 미군, 영연방군, 한국군이었고, 이외에도 여러 참전국 환자들도 수용되어 있었다. 입원환자 중 4,317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남은 환자 10,288명은 후방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외과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150명으로서 전체 환자수의 1.2%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1951년 12월에 동두천에 개설한 외래환자진료소는 월평균

600명 이상을 진료하였는데 당시 입원환자의 15%는 한국 민간인들이었다.<sup>34)</sup> 이러한 공로로 야전병원은 한국 대통령이 수여한 감사장을 받았고, 미 육군으로부터도 공로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의료진의 근무 기간은 6개월로 전쟁 중 7회에 걸쳐 교대되었다. 그 규모는 참전 기간 일반 의사 80명, 치과 의사 5명, 약제사 6명, 군목 7명, 여자 간호사 111명, 남자 간호사 22명, 기타 지원요원 292명 등 모두 623명이었다. 이 가운데 100명 이상의 의료인들은 자발적으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1~2년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가를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민간병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1954년 10월 18일을 기해 의료진이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스웨덴, 덴마크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1958년 9월 국립의료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미 1951년 8월 20일 의정부 노르웨이 야전병원을 대표하는 셈(Semb) 교수와 덴마크 유틀란디아 병원선 마그누스(Von Magnus) 박사가 한국 의료진과 함께 전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의한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논의하였다.<sup>35)</sup>

노르웨이 참전자 중 3명이 전사하였다. 운전병인 크리스티안센(Arne Christiansen) 하사와 라이새터(Birita Reisaeter) 중위는 의료부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피격되거나 교통사고로 희생되었고, 항해기술자 1명도 희생되었다.<sup>36)</sup>

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812쪽; 노르웨이 한국 참전용사협회, 『NORMASH: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한 한국』, 21쪽.

35) 노르웨이 한국 참전용사협회, 『NORMASH: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한 한국』, 20쪽.

36) Defence Staff Norway, Norwegian Armed Forces, “Norwegian KIA during the Korean War”, 2015.3.27(전쟁기념관 유엔지원국 협조 서한).

## 5. 이탈리아(Italy)

### 가. 참전 경과

이탈리아는 유엔회원국이 아닌 나라로서 의료 지원을 했던 첫 나라이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이탈리아는 서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에 적극 참여한 창설국의 일원이었으나, 유엔회원국은 아니었다. 더구나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잦은 내각의 경질로 불안이 계속되는 어려운 국내 정치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950년 8월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위원회가 6·25전쟁에서 발생한 전상자 치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각국 적십자사 기구에 호소하자, 9월 27일 이탈리아 정부는 유엔본부의 읍저버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의료지원 의사를 전달하였다.<sup>37)</sup>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의 적십자사로 하여금 파견할 부대를 편성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탈리아 적십자사는 파견할 의료 요원 선발, 의료장비 및 보급품의 획득, 파견할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파견 준비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적십자사는 의무 장교 6명, 행정관 2명, 약제사 1명, 군목 1명, 간호사 6명, 사병 50명으로 제68적십자병원을 편성하였다. 병사들과 달리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은 대부분 30대 이상의 나이였다.<sup>38)</sup>

출동 준비를 완료한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은 코이아(Luigi Coia) 대위의 지휘 아래, 1950년 10월 16일 관련 의약품과 기자재를 가지고 나폴리

37) 원태재, 『6·25전쟁 의료지원국 참전사』, 180쪽.

38) 「전시 병동 외국의료진의 휴먼스토리」, 『동아일보』 2010.6.14.

항구에서 미국 군함 제너럴랭핏호를 타고 한달 만인 1950년 11월 16일 부산에 입항하였다. 이탈리아는 6·25전쟁에 전투 및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21개 국가 중 마지막 국가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제68적십자병원은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1950년 12월 6일 영등포구 신길동 우신초등학교에 병원을 열었다. 이때 150개 병상 규모로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방사선과를 두고 있었다.



이탈리아 참전 기념우표

#### 나. 주요 활동

제68적십자병원 규모는 1951년 11월 참전 이후 1955년 1월까지 코이아 대위, 파스쿠토(Alma Pascutto) 간호사를 비롯해 모두 189명이었다. 외과 수술 3,297명, 입원환자 7,250명, 외래환자 222,885명, 치과 1,155명, 병리시험 8,444명, 방사선 검사 17,115명 등의 진료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의 제68적십자병원이 개원할 무렵 전선은 쌍방이 잠정휴전선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전선으로부터 후송되어 오는 환자수가 적었고 병원은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적십자병원은 1950년 12월 12일 민간인을 위한 진료소를 영등포에 설치

하였다.<sup>39)</sup> 진료소는 내과, 소아과, 외과, 안과, 간결핵과, 치과 등을 두고 매일 06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었다. 이때 필요한 의약품은 일부 특수품목만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았고 대부분은 이탈리아 적십자가 공급해 주었으며, 이 진료소는 고지쟁탈전이 전개될 무렵인 1952년 5월 31일까지 운영되었다.

〈표 4-5〉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 주요 활동 연표

연도	월일	주요 내용
1951	11. 16	제68적십자병원 부산 도착
	12. 6	서울 우신초등학교에 병원 개소
	12. 12	민간인 진료소 설치
1952	9. 17	경인선 열차충돌사고 발생, 응급조치반 투입
	10. 6	이승만 대통령, 병원방문 부대표창
	11. 30	화재로 병원 소실
1953	2. 23	병원 신축 완료
1955	1. 24)	제68적십자병원 철수

출처 : 손문식, 『UN군지원사』, 454쪽.

이후 1952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선은 소부대에 의한 정찰 활동이 증가하고 또한 치열한 고지쟁탈전으로 점차 가열되었다. 이때부터 적십자병원도 상당수의 전상자들이 몰려들어 치료업무가 폭주하였다. 적십자병원은 1952년 8월까지 8개월 동안 내과(소아과 포함) 19,070명, 외과(수술 포함) 10,475명, 안과 2,239명, 간결핵과 9,369명, 치과 1,123명, 방사선과 7,754명 등의 외래환자를 치료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도 내과 554명, 외과 456명이나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부처가 1952년 10월 11일 이탈리아적십자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진과 치료

39)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2년지』, C496쪽.

40) 우신초등학교 참전비에는 출발일(1951.10.16)부터 귀국일(1955.1.30)로 표기되어 있고, 이탈리아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기념석판에는 1955년 1월 10일까지 활동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를 받고 있는 민간인 환자를 격려하였다.

특히 적십자병원은 1952년 9월 17일 경인선 구로동 부근에서 12명이 사망하고 1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열차 충돌사고가 나자 즉시 응급비상 대기반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기민한 구조 활동으로 161명을 치료하였다. 이 중 수술을 받은 39명의 중환자들은 이탈리아 간호사의 극진한 간호로 수술 후 2개월 이내에 대부분 퇴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도 10월 6일 적십자병원을 방문하여 제68적십자병원의 의료진이 열차 충돌사고에서 보여 준 헌신적인 의료봉사와 노고를 높이 평가하여 부대표장을 수여하였다.<sup>41)</sup>

그러나 제68적십자병원은 1952년 11월 30일 공산주의자의 방화로 추정되는<sup>42)</sup> 화재가 발생하여 병원 건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때 다행히 전 장병들의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환자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귀중한 의료장비가 일부 소실되었다. 이후 이 병원은 이탈리아 정부의 재건 노력과 유엔민사원조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소실된 지 3개월도 채 못 된 1953년 2월 23일 새로운 퀸셋 건물을 완공하였다. 또 의료시설도 종전보다 더 많은 의료장비의 확보는 물론 병상도 평소에는 145개 병상을 운용하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200개 병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260개 병상을 늘어났다.

이때부터 제68적십자병원은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응급실과 외래진료실도 설치하였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민간인들 진료에도 주력하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일일 평균 300여 명을 진료하였고, 이들 외래환자 가운데 중환자들은 입원시켜 치료하였다. 그 결과 제68적십자병원이 1952년 7월부터 1953년 6월까지 1년 동안 치료한 환자의 수는 입원환자 1,639명과 외래환자 35,000명이었으며, 이 중 수술만 15,000건을 실시하였다.

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804쪽.

42)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39.



한국으로 출발 직전 이탈리아 의무진  
(1951.10.13, 유엔 미디어)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제68적십자병원 내에는 많은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어서, 휴전 후 1년간이나 이들의 치료업무는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 병원은 수용되었던 유엔군 장병의 귀국으로 점차 가용한 병상이 늘어나자 병원의 주 임무를 민간인 진료와 구호 업무로 전환하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민간인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장 기생충 환자로 판명되자 본국으로부터 구충제를 신속히 지원받아 기생충 박멸사업에도 공헌하였다.

그들의 헌신적인 의료지원과 구호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54년 12월 30일 적십자 병원에 부대표창장을 수여하는 동시에, 포로니 대위와 로씨 대위에는 충무무공훈장을, 알젠티 중위·사기즈 중위·가르비니 중위·루체티 중위 등에게는 금성화랑훈장을, 보제티 소위에게는 은성화랑훈장을 수여하였다.

1954년 12월 31일에는 보건부 회의실에서 적십자병원 대표 펜낙키 화비오 소령이 참석해 한국 정부에 기증식이 있었다.<sup>43)</sup> 이후 1955년 1월 2일 의료진은 고국으로 돌아갔다.

43) 『경향신문』 1954.12.31; 『동아일보』 1955.1.1.

## 제2절 유엔 전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

### 1. 전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 지원 결의와 요청

북한의 남침 직전 한국경제는 광복 이후 통화량 증발, 재정적자 누적,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었으나, 한미경제협정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경제협조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sup>44)</sup>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 수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막대한 군사비, 전재민구호비, 후방 치안비 등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피난민의 구호는 개전 초기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황, 혼란에 빠진 행정체계, 부족한 물자와 예산 등으로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구호와 재건에 실패한다면 전선에서 희생은 결국 쓸모없는 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3년여에 걸쳐 진행된 6·25전쟁은 군사뿐 아니라 민간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전국적으로 약 34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sup>45)</sup>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호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고, 전국(戰局)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던 미 8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구호문제는 후방지역

44) 손문식, 『유엔군 지원사』(국방군사연구소, 1998), 455쪽.

45) 1952년 3월 15일 현재 전국 656,949세대에서 3,419,996명의 전재민이 발생하였다(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267쪽).

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전선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외교 노력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지원을 요청하자 유엔은 창설된 지 5년에 불과했지만 한국을 적극 지원하였다.

〈표 4-6〉 유엔의 물자지원 관련 결의와 주요 내용

연월일	주체	문서번호	주요 내용
1950. 7. 13	유엔 사무총장		한국에 대한 원조 호소
1950. 7. 31	경제사회이사회		한국 민간인 구호 결의
1950. 9. 8	유엔 사무총장		유엔으로 기부되는 징수금과 기타 모든 현금수입을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한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구제원조자금' 설치
1950. 10. 7	유엔 총회	376-V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설립 결의
1950. 11. 14	유엔 총회		한국구제재건 계획 결의, 경제사회 이사회에 2억 5천만 달러 사용계획안 검토 지시
1950. 12. 1	유엔 총회	410-V	한국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 유엔한국 재건단(UNKRA) 설립 결의
1951. 1. 31	UNCURK		세계 각국 정부와 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요청
1953. 3. 11	유엔 총회	701-V	한국에 대한 구호와 재건 결의

한국의 지원요청을 받은 유엔은 〈표 4-6〉과 같이 1950년 7월 13일 유엔군사령관의 요청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회원국에게 호소하였다. 7월 14일에는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 양면의 원조를 제공하되,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국을 지원하도록 결의하였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도 7월 31일 제479차 회의에서 비군사분야인 전재민을 구호하기 위

한 민간원조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제출한 민간인 구호에 관한 결의안을 유고슬라비아의 기권을 제외한 나머지 9개국의 찬성을 얻어 채택하였다.

이후 1950년 8월 중순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군사령관은 물자의 요청과 공급 절차 등을 협의하여, 유엔군사령부가 구호에 절실한 물품의 원조요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 사무총장은 지원 능력이 있는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을 검토하여 그것을 해당 국가와 기구에 전달하였다. 또 해당 국가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다시 그것을 유엔사에 전달하였다. 유엔사는 지원 신청목록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그 후부터는 유엔사가 해당 정부 및 기관들과 직접 협조하여 물자 명세를 결정 짓고 또 한국으로 수송하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협의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유엔은 한국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물자지원 절차에 따라 긴급 구호물자에 대해 <표 4-7>과 같이 모두 16차례 유엔에 특별히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보건 후생요원 파견을 비롯해 모포, 의료보급품, 목재, 교육용 보급품, 피복 등이었다. 이와 같이 유엔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유엔사무총장은 이들 요청을 충족시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국 정부(미국 제외)와 기관, 국제기구 등에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표 4-7〉 유엔군사령부의 긴급 물자지원 요청 현황(1951.2.7.)

순번	요청일자	요청내용	평가금액 (달러)	대상국가, 기구
1호	1950. 8. 5	의료 보급품 29종	735,000	34개 회원국, WHO, IRO
2호	1950. 8. 5	지방단위 보건반(의료요원: 5명, 후생전문가: 5명, 행정관: 5명)	-	WHO, IRO
3호	1950. 9. 1	국가단위 보건위생요원(단장, 보건관, 보건후생관, 행정관 각 1명)	-	WHO

순번	요청일자	요청내용	평가금액 (달러)	대상국가, 기구
4호	1950. 9. 5	미곡: 40,000톤, 대맥: 4,100톤	6,875,000	12개 회원국
5호	1950. 9. 14	미곡: 20,000톤, 대맥: 27,400톤, 소맥: 20,000톤, 소맥분: 10,000톤, 단백질 식물: 10,000톤	7,912,500	15개 회원국
6호	1950. 9. 16	사탕: 3,000톤	375,000	8개 회원국
7호	1950. 9. 18	식염: 50,000톤	1,250,000	2개 회원국
8호	1950. 9. 20	일반 보급품 13종(천막, 모포, 모직, 면피복, 비누, 우유 등)	14,378,000	54개 회원국, UNICEF
9호	1950.10.12	모포: 1,000,000	2,000,000	11개 회원국, IRO, UNICEF
10호	1950.11. 6	의료 보급품 12종	3,236,830	전회원국, IRO, UNICEF
11호	1950.11. 1	목재: 110,000톤	500,000	13개 회원국
12호	1950.11.11	보건후생요원(보건관: 9명, 보건후생관: 9명, 위생전문가: 9명, 행정관: 1명, 보급관: 1명)	-	WHO, 적십자사연맹
13호	1950.11.28	보건후생원(보건관: 5명, 후생관: 5명, 위생전문가: 5명, 행정관: 4명, 재무관: 3명, 노무관: 2명, 토목기술자: 5명, 보급관: 5명)	-	ILO, WHO, IRO
14호	1950.12. 4	교육용 보급품	4,000,000	UNESCO
15호	1951. 1. 3	의료 보급품	-	제10호와 동일
16호	1951. 1.10	피복	15,000,000	전회원국, UNICEF, 기타 비정부기관

이러한 유엔군사령부의 특별지원 요청 내용은 이후 유엔회원국과 비회원국,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물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즉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은 이 유엔군사령부의 특별 지원요청에 의거하여

자국에 요청된 긴급물자들을 유엔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게 되었다.<sup>46)</sup>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의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 ECA) 뿐만 아니라 유엔 계통의 한국민간구제단(Civil Relief in Korea : CRIK), 주한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 :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유엔한국재건단(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UNKRA) 등을 통해 유엔 회원국은 물론이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비회원국들에게도 지원을 호소하였다.

한편 6·25전쟁은 수 많은 인명 피해 외에도 산업, 생산, 통신,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을 거의 모두 파괴시켰다. 신생 한국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년도 안되어 일어난 전쟁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자생력을 철저히 붕괴시키고 말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전쟁피해의 복구와 경제 재건을 추진하면서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기반은 대체로 우방국의 경제원조에 의지하였다.

## 2. 전재민구호 및 피해 복구 지원

### 가. 한국민간구제단(CRIK)과 유엔민간원조사령부(KCAC) 활동

한국 정부는 피난민구호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피난민 구호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모든 구호물품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피난민 구호는 유엔의 구호물자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재민 구호 및 재건사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유엔은 먼저 유엔군사령관과 유엔 사무총장 간의 협의를 통해 한국에서의 전재

46) 양영조, 「6·25전쟁시 국제사회의 대한 물자지원 활동」, 『군사』 87, 2013.6, 59-60쪽. 물자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연구성과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민 구호와 재건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한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sup>47)</sup>와 유엔한국재건단(UNKRA)을 설치한 다음, 전쟁기간 중 전재민 구호는 유엔민사원조사령부가 전담하고 전쟁 종결 후 재건사업은 유엔한국재건단이 담당하도록 하였다.<sup>48)</sup> 이들 기관 외에도 한국민간구제단(CRIK)<sup>49)</sup>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과 국제기구 등이 동참하였다. 이와는 달리, 1951년 5월 18일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였다.<sup>50)</sup>

유엔 사무총장은 1950년 7월 31일 유엔의 전재민구호 결의에 이어서, 9월 8일 유엔으로 기부되는 징수금과 기타의 모든 현금을 유엔군사령관을 통하여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민간구제단(CRIK)을 설치하였다. 민간구제단을 통한 원조의 책임과 권한은 1950년 9월 29일자로 트루먼 대통령을 거쳐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sup>51)</sup>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1950년 7월 31일의 결의에 따라 한국 민간인에 대한 구호책임을 맡게 된 유엔군사령관은 결의가 채택되자 곧바로 전쟁 이전부터 한국에 주재하고 있어 비교적 한국 정세에 밝은 경제협조처(ECA)를 통하여 구호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약 2주가 경과한 8월 중순에 이르러 유엔군사령관은 사령부에 보건복지처(Public Health and Welfare Section)를 신설하고 이 기관을 한국에서의 민간인 구호활동을 전담할 책임부서로 지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6·25전쟁의 발발로 원조가 중단될 때까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협조처(ECA) 원조는 8,300만 달러였으며,

47) 당시에는 유엔민사처, 혹은 UN민간구호처로 불렸다.

48) 손문식, 『유엔군 지원사』, 459쪽.

49) 한국민간구호계획이라고도 했다(재무부, 『한국외자도입 30년사』, 1993).

50) 박홍순, 『6·25전쟁과 유엔의 역할』, 김영호 외, 『6·25전쟁의 재인식』(기파랑, 2010), 323쪽.

51)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979, 139쪽.



이 중에서 전쟁 발발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분 2,600만 달러는 유엔군사령부로 이양되었다. 이로써 경제협조처는 구호원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유엔군사령부에 넘겼고, 이후 1950년 7월 31일에 경제사회이사회가 한국 민간인 구호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유엔사의 원조관련 문제를 지원하였다.<sup>52)</sup>

이후 유엔군사령관은 민간인에 대한 구호활동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자, 1950년 9월 말 미 8군사령관이 한국 내의 민간인에 대한 구호책임을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야전군은 보급품이 그들에게 인수되면 전투를 할뿐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에서 미 8군은 전투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부대의 병참사령부를 운용하는 동시에 한국군을 훈련, 재편하는 일 외에 한국 피난민에 식량, 의류, 의료 구호품 제공, 남한의 복구 사업 원조, 한국의 철도 복구, 도로 확장 및 개선, 정부의 수개 부처에 기술과 문과 원조 제공으로 농업, 어업, 공업, 광공업 부문 부흥 원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sup>53)</sup>

미 8군사령관은 이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전투지역 내에서의 민간원조는 각 군단 및 사단의 민사원조처에서 제공하고 기타 지역에서의 민간원조는 유엔민사원조사령부가 제공하도록 하였다.<sup>54)</sup> 이때 새로 창설된 유엔민사원조사령부는 미 8군 예하의 주요 사령부로서 그 본부는 한국 정부와 사령부 예하의 지부는 지방의 도청과 각각 구호업무를 협조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고, 이들은 8군사령관이 발표한 정책과 명령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민사원조사령부는 군 내부의 민사기구에서 출발한 조직이었지만, 북한 점령정책이란 보다 포괄적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을 걸고 창설된 조직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민사원조사는 단

52) 김학재,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구원의 신화 : 북한점령시기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창설 과정과 성격」, 『사람』 33, 2009. 20쪽.

53) LT. Col., Melvin B. Voorhees, 「한국전란과 지휘관들」, 군사편찬연구소, HC 325, 47쪽.

54)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 1965, 89쪽.

순히 원조물자의 요청 및 배분을 비롯한 전재민 구호, 전후재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군사점령 지역 내에서의 민간인, 피난민 통제와 관리 업무도 수행하였다.<sup>55)</sup>

유엔민사원조사령부의 조직은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이 있었고 예하에 행정, 보건, 복지, 위생, 보급, 공보교육, 경제부 및 각 도별 지역팀이 있었다. 1951년 9월 현재 75명의 장교, 95명의 민간인, 154명의 사병 등 총 323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56)</sup>

당시 유엔민사원조사령부의 기본 임무는 질병, 소요 및 기아 방지를 통하여 군 작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전선 후방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군이 혼란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유엔민사원조사령부는 1952년 8월 1일부터 제8군 예하의 사령부가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신설된 한국병참사령부(KCZC: Korean Communications Zone Command)에 통합되었다.<sup>57)</sup> 그러나 한국병참사령부는 1953년 7월 1일부터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 Korean Civil Assistance Command)로 다시 바뀌어 유엔군사령관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되었다.

유엔의 한국에 대한 물자지원은 1950년 7월 14일 트리그브 리 사무총장이 유엔회원국에 지원을 요청하자, 전투부대와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지 않은 다수의 국가들이 식량, 의약품, 의류 등 비 군사 분야의 물자를 제공할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국제사회는 서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고,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유엔 요청에 의거하여 자국의 능력

55) 양영조, 「6·25전쟁시 국제사회의 대한 물자지원 활동」, 65-66쪽.

56) 김학재,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구원의 신화 : 북한점령시기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창설 과정과 성격」, 24쪽.

57)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 1965, 226-227쪽.

과 현실에 따라 한국인의 구호와 복구를 위한 물자지원에 동참하였다. 이스라엘에서도 일부에서는 병력을 파견하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신생국으로서 부담스럽다는 반대로 물자지원을 하게 되었다.<sup>58)</sup>

참전국과 의료지원국을 제외하고 1951년 2월까지 지원의사를 밝힌 국가들은 정리하면 다음의 <표 4-8>과 같다.

<표 4-8> 유엔 회원국의 물자지원 제의 현황(1951.2.7)

국 가 명	지원 제의일	물자 품목	수 량	비 고
브라질	1950.9.22	크루제이로(현금)	270만 \$	요청 수락, 국회통과 대기
중국 (타이완)	1950.10.4	석탄	9,900톤	직접 한국정부에 운송
		미곡	1,000톤	
		식염	3,000톤	
		DDT	2,000톤	
쿠바	1950.10.2	사탕	2,000톤	제6호 요청 수락
		혈장	-	제1호 요청 미 결정
		주정	10,000갤런	요청 수락
에콰도르	1950.8.1	의료 물품	-	요청 미 수락
	1950.10.12	미곡	500톤	제5호 요청 수락
아이슬란드	1950.9.14	간유	125톤	요청 수락
이스라엘	1950.8.22	의료 보급품	63,000\$ <sup>59)</sup>	제1호 요청 수락
레바논	1950.7.26	현금	50,000\$	미 결정
라이베리아	1950.7.17	생고무	10톤	제8호 요청 수락
멕시코	1950.9.30	두류, 닭고기	-	제5호 요청 수락
니카라과	1950.11.16	미곡	50톤	미 결정
	1950.12.16	미곡	100톤	
		주정	5,000쿼트	
파키스탄	1950.8.29	소맥	5,000톤	제5호 요청 수락
파라과이	1950.11.3	의료 보급품	-	미 결정
페루	1950.11.21	군화 밀창	-	미 결정
우루과이	1950.9.14	현금	200만 \$	미 결정
	1950.10.26	모포	70,000매	제9호 요청 수락
베네수엘라	1950.9.14	의료 보급품	-	제1호 요청 수락

58) Young Sam Ma, "Israel's Support for South Korea through the UN", *Israel Journal of Foreign Affairs IV*, 2010, p.84.

59) Young Sam Ma, "Israel's Support for South Korea through the UN", p.84.

앞의 표에 의하면, 1950년 7월 17일부터 1951년 2월 7일까지 유엔의 특별 물자지원 요청에 따라 총 15개국이 물자지원 의사를 밝혔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중국(타이완), 쿠바,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베리아, 멕시코, 파키스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이 즉시 요청된 물자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중국에 대해 참으로 고마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평가하였다.<sup>60)</sup>

지원국 중에는 1951년 당시 유엔 비회원국인 자메이카, 헝가리, 일본, 캄보디아 등 4개국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산국인 헝가리가 유엔군사령부의 물자 지원에 동참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렇게 지원받은 원조 금액은 모두 4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사업을 종료한 1956년까지는 4.5억 달러가 넘었다. 지원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이 민간구제단 원조의 97%를 차지하였다.<sup>61)</sup>

이 가운데 민간구제단의 구호원조 총액은 3억 8천만 달러를 넘는 규모였다. 민간구제단은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정부가 설치한 중앙구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구호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내역은 식료품 40%, 옷감 및 의류 24%, 농업용품 13%, 연료 5.6%, 의료 위생용품 3.6% 등으로 소비재 원조를 통해 한국 국민들의 한국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sup>62)</sup>

구체적인 물품을 보면, 이란과 우루과이는 신발, 면직물을 지원하였다. 1951년 8월말 충청북도 영동 피난민수용소에는 노르웨이로부터 받은 면직물, 멕시코에서 받은 면화, 스웨덴으로부터 받은 바늘과 실을 배분받았다.<sup>63)</sup> 의료 보급품을 지원받아 장티푸스, 천연두 등에 대한 활발한 전염병 예방으로

60) 프란체스카 도너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기파랑, 2011), 235쪽.

61) 김정식,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와 한국경제(1945-1960)」,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15, 2007, 40쪽; 예종영, 「한국전쟁과 국제경제기구 : 미국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리북, 2004, 164-165쪽.

62) 양영조, 「6·25전쟁시 국제사회의 대한 물자지원 활동」, 63쪽.

63) “End Use of Welfare Goods”, Sep. 2, 1951, GQ, FEC, Supreme Command, “Letter of Instruction UNCACK” 1951, RG 554, 국립도서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크게 줄였다. 1953년 말경 어린이를 비롯해 500만 명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다.<sup>64)</sup>



미국 구호물자 인수식(1953.8.29, 국가기록원)

#### 나. 유엔한국재건단(UNKRA) 활동

유엔한국재건단은 1950년 12월 1일 제5차 총회결의 제410호(V)에 의해 설치되어,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엔 사무총장의 통제 아래 활동하였다. 유엔한국재건단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복진 시 전쟁이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한국의 전후복구를 위해 조직된 기구였지만, 1958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구호와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미 1950년 10월 12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종전 후의 한국재건 및 부흥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재건단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sup>65)</sup> 유엔한국재건단은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터키 등 7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구제 필요에 대한 한도를 결정하는 일, 각국의 기여품을 입수하는 일, 원조물자의 구입

64) Albert E. Cowdrey, *Medics' War*(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5), p.327, p.361.

65) 『동아일보』 1950.10.19; 『부산일보』 1950.10.24;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39쪽.

수송, 분배 및 이에 대한 이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구제금품의 분배 이용에 관하여 한국정부의 자문에 응하는 일 등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핵심 사업은 구제와 재건사업이었다.<sup>66)</sup>

이에 따라 재건단은 창설 당시 우선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전쟁 전 수준으로 재건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악화됨에 따라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를 지원하여 구호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다. 재건단은 1.4후퇴 시 부산으로 철수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자체 활동이 어려워져 소극적인 활동에 머물렀고 휴전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1950년 10월 중공군 참전 이후 유엔군사령부는 전투물자 수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화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선박을 이용한 물자수송과 화물의 하역은 군사작전 지원에 우선권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재건단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재건단과 유엔군사령부가 합의를 해서 군사 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군에서 구호와 복지서비스, 단기적 경제원조를 책임지고, 재건단은 장기계획과 군사적 상황이 허용한 여건 아래에서 보충적인 경제원조를 하기로 조정하였다.<sup>67)</sup> 결국 구호사업은 군의 통제 하에 민사원조사령부(UNCACK)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였다.

한국재건단의 임무는 전쟁으로 인한 재해를 구호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으로 하여금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술원조, 유엔민사원조사령부에 대한 지원, 군사적 요청에 저촉되지 않는 장기 재건 부흥계획의 수행 등이었다. 한국통일이 미해결 중인 한 북한재건까지 포함하지는 않았다. 그 중에서 700만 명의 피난민 구호사업에 우선하였다.<sup>68)</sup>

66) “UNKRA” Nov. 22, 1951, 국사편찬위원회.

67) “312 UNKRA” June 4, 1951, 국립도서관.

68) 『서울신문』 1952.7.23; 『한국전쟁2년지』, C423-424쪽

중공군의 남진으로 전세가 불안할 때에는 여러 구호계획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물자가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재건단은 창설 이후부터 구호활동, 구호물자 운송, 지원창구의 단일화 등을 두고 민사원조사령부와 마찰을 겪었다. 결국 이 문제로 재건단장인 킹슬리(J. Donald Kingsley)가 1951년 12월 말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여 역할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한국재건단은 한국에서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재건계획만을 수립하고, 전쟁 종식 약 6개월 이후부터는 모든 구호와 재건사업의 책임을 맡는다는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종전 시까지 민사원조사령부의 활동을 보좌하고 각국 정부에 원조 요청과 접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재건단의 1951년과 1952년의 활동은 민사원조사령부의 전제민 구호계획을 지원하면서 이후 직접 실시할 아래와 같은 재건사업을 계획하는 임무에 주력하였다.

〈표 4-9〉 한국재건단의 재건 계획<sup>69)</sup>

부 문	세 부 사 업	할당 금액(\$)
생 필 품	식량, 식염, 콩, 비료 등 수입	1천4백만
주 요 기 계	공업재건용 기계수입	1천1백5십만
교 육	학교 실험기구, 직업교육, 학교 보수 및 재건, 수산학교 설립 등	8백만
전 력	변전 및 송전선 정비, 발전소 재건, 신발전소 설치 등	7백1십만
교 통 및 통 신	항만 확충, 철로 및 침목 수리 등	7백만
식 량 및 농 업	농업연구, 수리사업 확충 등	6백9십만
주 택	전제민용 주택 건축 등	3백만
보건위생 및 후생	병원 재건, 이동진료소 설치 등	2백5십만
지 하 자 원	광물연구소 재건, 광물장려금 등	2백만

69) 국방부, 『한국전란 3년지』, C110쪽.

이후 한국재건단은 역할 조정에 따라 민사원조사령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상당기간 그 역할이 미미하고 침체되어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심각한 양상이었으므로,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휴전이 성립된 후 6개월 후부터 한국의 재건사업에 착수한다.”는 원칙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면서 운크라의 조속한 복구지원을 요망하였다. 차라리 자주적 건설을 위하여 유엔 원조를 직접 한국 정부에 일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70)</sup>

1952년 10월 10일 도쿄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운크라 합동회의를 열고 양기구로부터의 원조물자의 보급을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구재단(CRIK)과의 관계에서 운크라의 책임을 확대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무렵 재건단은 처음으로 한국 구호 및 재건사업비로 7천만 달러를 획득함으로써 한국의 구호와 재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953년 6월에는 콜터(Jon B. Coulter) 장군이 재건단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정전 후부터 재건사업은 본격화되었다. 유엔 총회에서는 1954년 12월 14일 유엔한국부흥재건단 사업성과를 격려하는 동시에 전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동단의 계획을 재정적으로 원조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소련 블록 국가의 반대 속에 41대 5의 다수표로 가결하였다. 이를 토대로 1954년 12월 31일 중앙청 별관 국무총리실에서 ‘한국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한국재건단과의 협약’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백두진 국무총리와 콜터 재건단장이 정식 서명함으로써 협약은 당일 발효되었다.

한국재건단은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 교통, 통신 시설을 복구하고 의료, 교육 시설 등의 재건을 통해 민생 안정에 주력하였다. 미곡·목재 등 물품으로 지원된 경우는 유엔군원조사령부에서 응급 구호에 사용하였다. 한국재건단은 1958년까지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통해 전후 부흥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여 국가는 미국이 전체 70% 수준을 차지했고, 나머지

70) 『서울신문』 1952.9.17.



주요 국가는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었다. 이는 미군이 군사작전을 주도하였듯이 재건활동에서도 미국이 앞장섰음을 의미한다.<sup>71)</sup>



유엔한국재건단(UNKRA) 한국원조 조인식  
(1954.12, 국가기록원)

재건단의 사업은 당초의 목표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멘트 산업이나 섬유 산업 등의 부흥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재건단은 전쟁으로 인한 부상병과 민간 환자의 치료, 그리고 의사 및 의료요원의 양성을 위해 한국의 국립 의료원이 설립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sup>72)</sup>

한국에서는 재건단의 임무가 경제원조를 넘어 경제재건에 의의가 있다며, 산업재건에서 미래의 유일한 활로로 생각하였다.<sup>73)</sup> 실제로 운크라는 긴급구제단이나 ICA 등의 원조와는 달리 전체 1억 4천 6백 50만 달러의 자금 가운데 교육 7.9%, 주택 4.4%, 보건위생 5.7% 등을 제외하고 원자재 29.7%, 공업 22%, 광업 10.5%, 농림수산 6.4%, 통신 운수 4.6%, 전력

71)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52쪽; “Seoul to Secretary of State” Fe.9, 1955, U.S. Army Staff, Korea, UNKRA General, RG 319, 국립도서관; Steven Hugh Lee,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유영익 · 이채진 편, 『한국과 6 · 25전쟁』(연세대출판부, 2002), 3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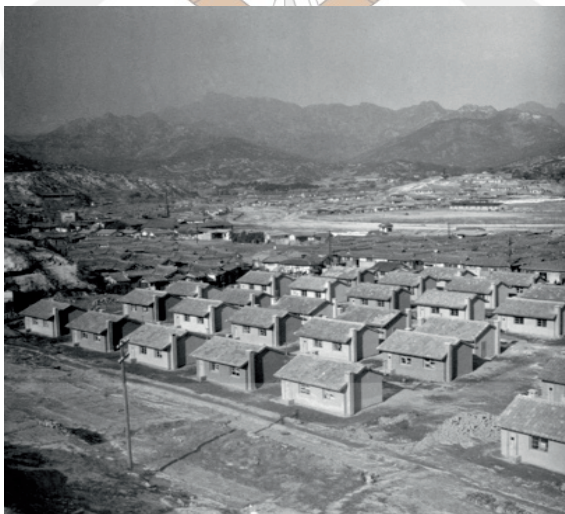
72) 이신화,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국제기구 : 인도적 문제와 구호재건 활동을 중심으로」, 강성화 편, 『유엔과 한국전쟁』, 194쪽.

73) 원용석, 「운크라와 한국경제」, 『신천지』 8-1, 1953.4, 126쪽.

2.8%, 기술원조 6.3% 등이었다.<sup>74)</sup>

재건단은 곡물 지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만 채 이상 주택 신축, 70곳 고아원, 26개소 직업 훈련소, 학교 건설, 국립교과서 인쇄공장, 도서 제공 등을 수행하였다. 국립의료원도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의료진, 약품, 기자재 등의 지원과 운크라에서 병원 건설을 위한 240만 달러의 지원이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sup>75)</sup>

또한 탄광 광업, 수산업, 수리시설, 수원 농사원 등 농업, 방직업, 전력, 통신시설, 운수 등 주요한 국가산업기관을 보수 및 부흥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새로 건설된 대표적인 공업 시설은 문경시멘트, 인천 판유리, 타이어 재생공장 등이었다.<sup>76)</sup>



운크라가 지원한 주택(부산, 1954.1, 유엔 미디어)

74) 김정식,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와 한국경제(1945-1960)」, 42쪽.

75) “Scandinavian-ROK-UNKRA Agreement Concerning Establishment of Hospital in Seoul” Feb. 2, 1956, Korea SMU 60-1-9500(R/P 1220), 국사편찬위원회.

76) J.B. 콜타, 「한국산업에 대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원조」, 『국회보』 9, 1956.12; “UNKRA in Action”, 국가기록원.

이러한 성과로 재건단은 한국인이 전란으로 입은 피해를 부분적으로나마 회복시킬 수 있으며 유엔에 의한 협조적인 노력의 상징이었다. 유엔 총회는 1956년 12월 7일 콜터 유엔한국재건단장에게 한국을 재건하는 데 있어 다대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표창을 수여하였다.<sup>77)</sup>

#### 다. 물자 지원국 규모

전쟁 기간과 한국재건단(UNKRA)이 존속한 1958년까지 전재민 구호 및 전후 복구를 위해, 한국민간구제단(CRIK), 주한유엔민사원조사령부, 한국재건단 등을 통해 유엔 회원국을 비롯해 비회원국들도 지원하였다. 개전 직후부터 1951년까지 한국민간구제단(CRIK)을 통해 라이베리아, 멕시코, 버마(미얀마),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에콰도르, 일본, 자메이카, 중국(타이완), 쿠바,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파키스탄, 헝가리 등 15개국이 물자를 지원하였다. 이후 1952년 5월 22일까지 추가로 아르헨티나, 이란,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등 4개국이 물자를 지원하여, 한국민간구제단을 통해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총 19개국이였다.

전쟁 기간 중 유엔한국재건단을 통해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20개국이었 고, 그 중 한국민간구제단에도 중복하여 지원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과테말라, 도미니카, 레바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스위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칠레, 파나마 등 13개국이다. 마찬가지로 1956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바티칸(교황청), 파라과이 등 4개국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유엔 긴급구제계획(ERP)을 통해 1956년 6월 30일까지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한국민간구제단과 유엔한국재건단을 통해 중복 지원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독일(서독), 아이티, 페루 등 3개국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엔 참전국 16개

77) 『동아일보』 1956.12.9.

국과 의료지원국 5개국을 제외한 물자지원국의 현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4-10>과 같다.<sup>78)</sup>

**<표 4-10> 유엔을 통한 물자지원국 현황(1950. 7~1958.12)**

국가수	국명	제의 시기	지원기관	지원액	지원시기	비고
1	과테말라		UNKRA	7,704	53.12 이전	목재(미산정)
2	도미니카		UNKRA	275,200	53.6	
3	독일(서독)		ERP	47,619(현물)	54.8 이전	
4	라이베리아	50년	CRİK	15,000(현물)	51년	생고무
5	리히텐슈타인		UNKRA	465(현금)	56.6 이전	
6	레바논	50년	UNKRA	50,000(현금)	52.12이전	현금
7	모나코		UNKRA	1,144	54.8이전	현금, 물자
8	멕시코	50년	CRİK	346,821(현물)	51년	두류, 닭고기
9	버마(미얀마)		CRİK	49,934(현물)	51년	식량
10	베네수엘라	50년	CRİK	180,842	51년	현금, 의료품
11	베트남		UNKRA	11,943(현물)	52.12 이전	현금, 물자
12	사우디아라비아		UNKRA	20,000(현금)	52.12 이전	
13	시리아		UNKRA	3,650	53.12	
14	스위스		UNKRA	313,954	53.6 이전	현금, 물자
15	아르헨티나		CRİK	500,000(식량)	52.5 이전	식량, 의약, 비누
16	아이슬란드	50년	CRİK	45,400(현물)	51년	간유
17	아이티		ERP	2,000(현물)	54.8 이전	
18	이스라엘	50년	CRİK	96,600(현물)	51년	미곡, 의약
19	이란		CRİK	3,900(현물)	52.5 이전	미곡, 직물
20	이집트		UNKRA	28,716(현물)	53.12 이전	
21	인도네시아		UNKRA	143,706(현금)	52.12 이전	
22	일본		CRİK	50,000(현물)	51년	
23	에콰도르	50년	CRİK	99,441(현물)	51년	미곡
24	엘살바도르			500(현금)	53.12 이전	
25	오스트리아		CRİK	3,616,446	52.5 이전	현금, 미곡
26	온두라스		UNKRA	2,500(현금)	52.12 이전	
27	우루과이	50년	ERP	250,780(현물)	54.8 이전	모포 등
28	자메이카		CRİK	25,167(현물)	51년	미곡
29	중국(대만)	50년	CRİK	634,782(현물)	52.5 이전	석탄, 미곡, 연료
30	칠레		UNKRA	250,000(현금)	53.12	

78) 양영조, 「6·25전쟁시 국제사회의 대한 물자지원 활동」, 82-84쪽;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8, p.103.

국가수	국명	제의 시기	지원기관	지원액	지원시기	비고
31	쿠바	50년	CRIK	270,962(현물)	51년	미곡, 의약
32	캄보디아		CRIK	27,420(현물)	51년	현금, 미곡
33	코스타리카		CRIK	?	51년	물품
34	파나마		UNKRA	3,000	53.12 이전	
35	파라과이	50년	UNKRA	10,000(현금)	54.8 이전	
36	파키스탄	50년	CRIK	378,285(현물)	51년	소맥, 현금
37	페루	50년	ERP	58,723(현물)	54.8이전	군화밀창
38	헝가리		CRIK	?	51년	물자
39	교황청		UNKRA	10,000(현금)	56.6 이전	
40	니카라과	50년	UNKRA			지원의사표명
41	볼리비아	50년	UNKRA			지원의사표명
42	브라질	50년	UNKRA			지원의사표명

이 통계에는 파병국과 의료지원국을 제외한 것이므로 원조액의 3/2를 규모를 차지하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국가가 빠져 있다.<sup>79)</sup> 이들 국가 중에서 헝가리를 포함하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스위스, 서독, 이스라엘, 일본, 오스트리아, 베트남, 교황청 등 많은 유엔 비회원국들도 한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구호와 재건을 위해 동참하였다.

지원국 가운데 아르헨티나, 칠레, 쿠바, 에콰도르 등 남미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그런데 브라질의 경우는 1950년 9월 유엔의 요청에 따라 270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국내문제로 1958년까지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볼리비아의 경우는 최초 전문장교 30명의 파견을 제의하였으나 유엔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후 유엔연감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 지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니카라과의 경우는 1950년

79) Steven Hugh Lee,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유명익·이재진 편, 『한국과 6·25전쟁』(연세대출판부, 2002), 393-394쪽.

11월 16일 쌀과 주정을 제안했으나 수송문제로 인해 지원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국가도 전란 중에 한국인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다.

한편,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라크의 경우는 유엔의 지원 결의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고,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1955년 한국구호를 위해 물자를 지원해 주도록 설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의 실제 지원 내용이나 지원 의사를 표명한 사실 자체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sup>80)</sup>

따라서 전쟁 중 유엔을 통해 한국을 지원한 국가는 참전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물자지원국 39개국 등 모두 60개국이다.<sup>81)</sup> 이 규모는 전쟁 시기 언급된 47개국이나 53개국 등 보다 크게 늘어났다.<sup>82)</sup> 당시 독립국가 93개국, 유엔 회원국 61개국임을 고려하면, 전 세계국가 가운데 65%가 한국을 지원한 것이다.

#### 라. 국제기구와 비정부 단체 활동

##### 1) 개 요

유엔은 개전 직후 유엔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와 비정부 단체에도 한국의 구호를 위해 물자와 각 분야별 전문가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원이 회원국들로부터 이루어졌지만 전쟁 초기부터 유엔 비회원국과 많은 국제기구 및 단체들도 지원에 동참하였

80) 양영조, 「6·25전쟁시 국제사회의 대한 물자지원 활동」, 83-84쪽.

81) 2010년 9월 월드피스 자유연합에서 기네스북에 지원의사를 표명한 나라들을 포함하여 모두 67개국(참전국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물자지원 39개국, 지원의사 표명국 7개국 등)으로 등재했다.

82) 청계천 문화관, 『보이지 않는 전쟁, 뼈라』, 75쪽, 86쪽.

다.<sup>83)</sup>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은 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 이사회, 그리고 유엔군사령부의 물자 지원요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1951년 1월말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물자지원 및 전재민 구호에 참가하였거나 참가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국제기구 및 비정부 단체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제기구는 주로 전쟁 기간에 전문가 파견 외에 지원 품목을 보면, 피복, 의료보급품, 비누, 분유 등이 나타내듯이 긴급 구호 물품이 많았다.<sup>84)</sup>

<표 4-11> 국제기구의 물자 및 전문가 지원 현황(1951.1.30)

지원기관	일 자	품 목	수 량	비 고
ILO	-	노무관	2명	제13호 요청에 의한 제공
WHO	1950. 8. 8	보건관, 위생관	각 5명	제1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 9. 4	보건후생고문관	3명	제3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1.22	보건관, 위생관	각 5명	제13호 요청에 의한 제공
IRO	1950. 8. 3	피복, 각종 보급품	-	
	1950. 8. 8	의료 보급품	-	제1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 8.19	후생관	5명	제2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1.27	후생관	4명	제13호 요청에 의한 제공
UNICEF	1950. 9.27	모포	300,000매	제8호 요청에 의한 제공
		분유	150톤	
	1950. 9.28	의료 보급품	-	제1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1. 1.26	피복	20만 달러	제16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1. 2. 1	피복	20만 달러	
	1950. 9.28	비누	100,000파운드	제8호 요청에 의한 제공

83) 이 절은 손문식, 『유엔군 지원사』와 박태균, 「6·25전쟁 기간 중 국제기구에 의한 한국원조의 현황과 그 특징」, 「6·25전쟁 60주년 3차년도 포럼 발표 논문집」, 국방부, 2012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음.

84) Steven Hugh Lee,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유명익·이재진 편, 『한국과 6·25전쟁』(연세대출판부, 2002), 390쪽.

지원기관	일 자	품 목	수 량	비 고
미국우호 봉사단	1950.11.16	중고 의류, 신발, 비누	104,000달러 상당	
	1951. 1.23	중고 의류	-	
유럽 구제기관	1950. 9.21	식품 및 의복	100,000달러 상당	
	1950.11.20	모포 및 직물	237,150달러 상당	미결중
세계교회 봉사단	1950. 9.25	중고 의류 및 일반 보급품	104,958달러 상당	
	1950.11.16	비타민 조제	5,600달러 상당	
		중고 의류	100,000달러 상당	
1951. 1.30	중고 의류	60,000달러 상당	미결중	
적십자사 연맹	1950.11.11	보건후생관	13명	제12호 요청에 의한 제공
		보건후생관	14명	제12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1.20	천막, 모포, 의료 보급품, 피복	-	대한적십자에 직접 제공
미국 적십자사	1951. 1.12	후생관	1명	제13호 요청에 의한 제공
아동구조 연맹	1950.12.12	중고 의류	5,033달러 상당	
전쟁구제 봉사단	1950.10.17	중고 의류, 비누	290,749달러 상당	
	1950.10.27	의료반	7명	거절
	1950.11.17	의류, 신발, 비누	99,738달러 상당	
	1950.11.29	중고 의류	100만 달러 상당	
	1950.12. 7	중고 의류	100만 달러 상당	
중고 의류		7만 달러 상당		

출처 : 『한국전란 1년지』, C193-194쪽.

먼저 세계보건기구(WHO)는 1950년 8월 24일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으로 의약품과 의료기자재의 구매를 담당할 사무실을 워싱턴에 설치하였다. 이후에도 세계보건기구는 수차에 걸쳐 의료보급품과 그 대금,



그리고 가장 좋은 구입처에 관하여 조언을 함으로써 유엔사무총장을 보좌하였다. 1951년에는 22명의 의료진을 파견하는 동시에 한국의 의료 보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운크라와 함께 전체적인 한국 재건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sup>85)</sup> 1953년에는 대구 의과대학에 의료관련 자료와 기타 물품 및 장비를 제공하였다.

국제난민기구(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는 1950년 8월 3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의료품 및 보급물자 외에 보건행정관 및 기타 훈련된 인원을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한데 이어 10월 8일에는 제6차 회의에서 유엔이 요청하는 한국 민간인 구호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sup>86)</sup> 이후 국제난민기구는 실제로 1951년 191,177달러 상당의 자금을 한국의 전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했으며, 의료장비, 의류, 재봉틀 등을 제공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Association)는 1950년 8월 2일 유엔에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한 후 사무총장에게 수시로 식량보급 및 대금, 가장 유리한 식량구입처 등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하였다. 1950년 11월 동기구의 아시아태평양삼립생산위원회는 한국에서 임시 주택 건설 및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의 재건을 위하여 제재(製材)된 재목을 비롯해 화목, 목탄 등이 응급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제 국가들이 유엔군사령부가 요청시에는 즉시 반출할 수 있는 제재된 목재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1951년부터는 FAO의 전문가 11명이 한국재건단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FAO/UNKRA 농업계획 파견단이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농업 재건과 기술원조를 위한 보고서 초안을 정리하였다. 이 종합보고서

85) 박태균, 「6·25전쟁 기간 중 국제기구에 의한 한국원조의 현황과 그 특징」, 4쪽.

86) 손문식, 『유엔군 지원사』, 468쪽.

초안을 토대로 작성된 한국의 농업, 임업, 그리고 어업에 대한 보고서가 각 기구에 전달되었고, 한국의 국회 농림위원회와 농림부, 중앙농업실험소, 유엔군원조사령부의 농업지부에도 배포되었다.<sup>87)</sup>

한국 파견단은 1953년 1월 21일 부산 동래에서 농업지도자훈련학교를 개설해 4월 2일까지 1,524명에게 10일간 과정을 ‘한국 농업지도자의 행동 양식’, ‘한국 임업’ 등을 교육시켰다. 또한 1953년 1월 10일에는 ‘토지에 맞는 농작물’을 강조하는 ‘농림업’ 전시회를 열어 21일 동안 농업지도자학교 이수생을 비롯해 25,000명이 참관하도록 하였다.<sup>88)</sup>

국제기구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한 단체가 유엔의 전문기구를 통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한국의 전재민 구호 및 전후 복구를 지원하였다. 민간 기구의 경우에는 적십자사와 종교 기관에 의한 원조가 주목된다. 1952년 9월 15일까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 음식, 의복, 의료장비 등 총 15,033,659달러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 시기 국제적십자위원회(League of Red Cross Societies)와의 연계 속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의 의료진이 한국에 도착하였다. 미국 기독교 재침례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는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물자구제사업, 어린이지원 프로그램, 전쟁 과부를 위한 재봉기술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호주 아동구호기금(Save the Children Fund)이 부산에 지부를 설립해 전쟁 고아와 미망인 구호 활동을 펼쳤다.<sup>89)</sup>

이 외에도 미국의 원조물자발송협회(CARE), 세계교회봉사단체, 전쟁구호봉사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기관 및 단체들이 한국을 지원하거나 유엔 사

87) 박태균, 「6·25전쟁 기간 중 국제기구에 의한 한국원조의 현황과 그 특징」, 4-5쪽.

88) Agriculture & Forestry Section, “Monthly Civil Affairs Summary”, Korea, Jan. 1953, 국사편찬위원회.

89) 「MCC 한국사역」(<http://mcc.kac.or.kr>); 「세이브더칠드런 95년의 기록」, 2014.7.3. (<https://www.sc.or.kr/guide/nanum-detail.do?pageDetail=49315>).

무총장과 한국재건단에 생활용품과 잡화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미국 가톨릭 신자로부터 온 구호물자 배분 모습  
(1954.2, 국가기록원)

국제기구, 민간기구 및 비정부 민간단체들의 지원은 1958년까지 이루어졌고 전쟁이 종료된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1957년의 한국재건단 보고서에 의하면 1952년부터 한국을 도와준 자발적 기관들은 총 156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 전쟁민들의 고통완화는 물론 한국의 재건과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sup>90)</sup>

## 2) 유엔국제아동기금(UNICEF)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전 세계 아동복지를 위한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국제아동긴급기금(UN International Children' Emergency Fund: UNICEF, 이하 유니세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 한국 어린이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결핵퇴치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는 등 유엔 기구로서는

90) 이신화,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국제기구」,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2004, 187-192쪽.

제일 먼저 한국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남한에는 약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결핵환자가 있었고, 사망률을 비교하면 미국인은 1만 명 중 4명인데 비해, 일본 17명인데 한국은 40명에 이르렀다. 1950년 3월 25일에는 아동 영양, 아동질병에 대한 예방주사, 모자건강 개선 등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하였다.<sup>91)</sup>

전쟁이 발발하자, 유니세프는 곧바로 한국의 아동과 여성들을 위한 긴급 구호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38도선을 월남하는 사람들에게 식량뿐 아니라 전염병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민간단체 및 여러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부산 등 피난지에 분유, 담요, 의류 등을 제공하였다. 전쟁 초기에 한국에는 유니세프 대표가 없었으므로 한국민간구제단(CRIK)을 통해서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1953년 10월 유니세프 한국사무소가 설치되어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sup>92)</sup>

유니세프는 1950년 11월 29일 제7차 회의에서 한국의 전제민 구호를 위한 원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함께 우선적인 조치로 모자(母子)에 대한 비상원조로 전용된 원 할당액을 충당시키기 위하여 한국에 대한 50만 달러의 할당을 승인하였다. 1951년 2월 초에는 유엔군사령부의 아동 의류 지원 요청에 따른 2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약속하였다.<sup>93)</sup>

유니세프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1951년까지 150만 달러 상당의 분유가루, 담요, 비누, 의료장비 및 스웨터, 내의, 모자 등 아동의류, 일반인용 면의류 등을 제공하였다. 한국에 대한 긴급 구호 프로그램(Emergency Relief Programme)은 주로 담요를 제공하는 것으로, 1950~1951년 겨울까지 30만 장의 담요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이루어진 담요의 제공은

91) 『서울신문』1950.2.1.

92) 이신화,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국제기구」, 185쪽.

93) 『대구매일』 1951.3.15; "Letter from the Executive Dir. of Unicef" Feb. 2, 1951, 국사편찬위원회.

유엔군사령부 및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국에 있는 유엔 산하의 민간 구호 프로그램(civilian relief programme)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유니세프는 정전 직후인 1953년 10월부터 우유먹이기 프로그램(milk-feeding programme)을 실시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위해 5,500만 톤의 우유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1954년 중반까지 전체 5,500만 톤의 우유 가운데 3,000만 톤이 한국에 전달되었으며, 1954년 9월 1일까지 평균 200만 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아이들과 산모에게 매일 40그램의 분유가 제공되었다.

유니세프는 1955년에서 1956년 사이에 추가로 150만 명이 넘는 아이들과 유모들에게 우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 가운데 75%는 초등학생들이었다. 아울러 15만 명의 유아에게 비타민 A, D가 함유된 생선간유를 100일 분씩 제공하였다. 또한 1955년 6월부터 조산술 교육(midwifery refresher training program)을 실시하여 1957년 5월까지 800명의 조산사를 배출할 예정이었다.<sup>94)</sup> 이후 1959년 가을 태풍피해 구호품으로 쌀과 담요를 제공했고, 1963년 10월 한국에 중학교 과학교육을 비롯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재개하였다.

한편, 한국은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14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유네스코)에 55번째로 가입하였다. 유네스코는 제1,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고자 하는 세계 평화에의 열망을 기존의 방식인 강대국 간의 정치적 협상, 무력을 통한 억지, 단기적 처방 등이 아닌 인류의 지적 변화와 향상, 교육제도의 개선과 확대, 일반인의 국제이해의 증진 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1946년 11월에 창설되었다.

북한이 남침하자, 유네스코는 한국에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94) “UNICEF (1956 and 1957)”, 국사편찬위원회.

불구하고 상관없이 교육, 과학, 문화의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유네스코는 1950년 8월 29일 제23차 회의에서 유엔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유엔군사령부 및 민간구제에 책임이 있는 적절한 국제기구와 연락하여 한국의 민간 소요 물자를 조사하고 교육 보급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특히 동 기구의 상무 위원회는 1951년 12월 31일까지 한국민에 대한 교육과학문화 원조를 위해 10만 달러에 달하는 특별기금을 조성할 것을 결의하였다.<sup>95)</sup>

유네스코는 새로운 회원국을 위해 <표 4-12>와 같이 지원하였다. 1951년 6월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초등학교용 교과서를 인쇄공급하기 위해 대한문교서적 인쇄공장(현 국정교과서 주식회사)을 설립하여 연간 3000만 부의 교과서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한다”라는 목표를 위해서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2년 10월 유네스코 파리 본부를 방문해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했던 ‘자연’ 교과서를 기증하면서, “유네스코가 만들어 준 이 책들로 공부한 덕분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다”라고 회고하였다.<sup>96)</sup>

〈표 4-12〉 유네스코의 주요 지원 활동

연도	내용	금액(US\$)
1951	대한문교서적인쇄공장 건립	100,000
1952	UNESCO 교육조사단 월조	34,000
1952	한국외국어학원 설치(서울대)	224,000
1954	신생활교육원 설립(수원)	300,000

95) 정우탁, 「한국전쟁과 UNESCO」,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2004, 197-210쪽.

96) 반기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동아일보』 2014.2.3; 「유네스코 원조로 교과서 공장 세운 한국 ... 이젠 국민 모금으로 저개발국 문맹 퇴치」, 『중앙일보』 2014.2.3.

1950년 8월 운크라에서 유네스코에 교육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자, 유네스코는 코트렐(Donald Cottrell) 박사를 단장으로 합동 교육계획단(The Joint UNESCO/UNKRA Educational Planning Mission)을 파견하여 1952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한국의 교육실상을 조사해 ‘한국의 교육재건’을 위한 유엔의 5개년 계획 권고안을 포함하는 최종 보고서를 1953년 2월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외국어학원이 설치되어 외국 파견 장학생,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 영어와 기타 필요로 한 외국어를 교육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또한 1956년 11월 수원에 설치된 신생활교육원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과정과 단기·현직 교육과정으로 농촌 지도자 양성을 위한 훈련원이었다. 광주, 목포, 서울, 부산, 대전에 직업고등학교를 세우고 부산에 해운상업학교를 세워 공업기술자 훈련을 시키는 등 교육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전시 한국의 교육재건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sup>97)</sup> 또한 한국재건단 기금으로 인하공과대에 설치된 중앙직업기술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였다. 유네스코는 1955년에 국내 기초 과학교육의 보급 발전을 위해, 교사의 실험 및 지도자료를 소개하는 『과학교육 지도자료』를 번역 출판하였다.<sup>98)</sup>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1954년부터 2년간 유네스코 학생진설대를 4차에 걸쳐 휴전선 부근의 수복지구와 서울시 교외로 파견하여 문맹 퇴치, 생활개선, 영농지도, 의료봉사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sup>99)</sup>

이상과 같이 유네스코는 전쟁을 겪는 한국에 대해 긴급 원조를 제공하고 복구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전시 중에도 중단 없이 교육을 실시할

97) 이신화,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국제기구’,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2004, 185-1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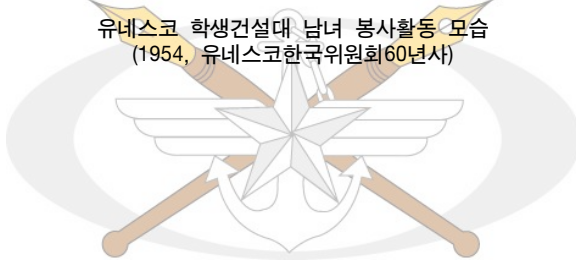
98) 박태균, 「6·25전쟁 기간 중 국제기구에 의한 한국원조의 현황과 그 특징」, 2-3쪽.

9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한국 유네스코 활동 15년사 : 1954-196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9, 36-37쪽.

수 있게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후 한국의 교육 재건 및 복구에 기여함으로써, 197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의 초석을 깔았다고 할 수 있다.<sup>100)</sup>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남녀 봉사활동 모습  
(1954, 유네스코한국위원회60년사)



100) 정우탁, 「한국전쟁과 UNESCO」, 197-210쪽.





## 제 5 장

# 전후 유엔의 역할과 활동

제1절 유엔군의 전후 활동

제2절 전후 처리와 유엔의 역할





## 제5장 전후 유엔의 역할과 활동

### 제1절 유엔군의 전후 활동

#### 1. 정전협정 체결과 유엔군의 철군

북한의 남침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겪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그 화근인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전후 안전보장과 통일이 불가능하다며 휴전에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판문점에서 1953년 7월 27일 10시에 체결되었다. 이날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3년 1개월 2일째,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을 개시한지 2년 18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유엔군 측 수석대표와 남일 공산군 측 수석대표는 09시 57분에 회의장으로 들어와 회의장의 반대쪽에서 각각 자리에 앉았다. 양측 수석대표는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면서 단 한마디의 인사말도 나누지 않았다. 전쟁이 일단락되었지만, 남북한 분단선은 전쟁 이전 ‘38선’이 ‘휴전선’으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sup>1)</sup>

1) 백선엽,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월간아미, 2010), 324쪽; Frank Gosfield·Bernhardt J. Hurwood, *Korea: Land of the 38th Parallel*(New York: Parents's Magazine Press), 1969, p.127.

양측 수석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한 후,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쿄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아니라 문산으로 갔다. 테일러 미 제8군사령관, 클라크 극동해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극동공군사령관, 최덕신 한국군 대표 등이 배석한 가운데, 유엔군 측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는 당시를 “미완성의 역사 한 페이지에 종지부 아닌 종지부를 찍고 있다.”<sup>2)</sup>라며 아쉬워하였다. 이날 22시가 되자 한반도 전역에서 포성이 멎었고, 37개월간의 길고 긴 전쟁은 멈추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유엔군은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를 개시하였다. 이는 정전협정에 명기된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하고 정치회담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인이 조항에 따라 쌍방은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모든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하게 되어 있었다.

1953년 7월 30일 22시 유엔군은 현 접촉선이 군사분계선(MDL)으로 획정됨에 따라 2km 후방의 이남 지역에 주진지를 편성하고 부대 정비와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유엔군 철군은 유엔군사령부 당국이 유엔군 병력 감축 문제에 어느 정도 신축성을 보이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인 한국군의 전력 강화가 계획대로 추진됨에 따라 유엔군은 방어 지역을 한국군에게 인계하고 단계적으로 철군에 착수하였다.<sup>3)</sup>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참전국별 철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미 군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에 이어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2)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p.295-296.

3)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679쪽.

되자 195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지상군 부대에 대한 철군을 단행하였다. 1954년 1월 제3보병사단의 철수를 시작으로 3월에 제40보병사단이 인천항 제2부두를 통해 뉴욕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2개월 후인 5월에 제45보병사단이 해군수송선을 타고 인천항을 출항한데 이어 9월 21일 제2사단이, 10월에 제25사단이 하와이로 향함에 따라 1954년에 5개 사단이 철군을 시작하였다.<sup>4)</sup>

미국의 철군은 1955년에도 이어져 3월 17일과 18일 제1해병사단이 방어 임무를 제24사단에 인계한 후 본국으로 출항함에 따라 주한 미군은 제7사단만이 남게 되었다.<sup>5)</sup> 미국은 주한 미군의 2개 사단 주둔 원칙에 따라 1957년 10월 15일 제1기병사단을 한국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 개입하게 된 미국은 1965년 6월 30일 제1기병사단을 베트남에 투입하기 위해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한편 7월 1일 제2보병사단을 한국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제7사단이 1971년 4월 1일에 철수함으로써 주한 미군은 제2사단만 남게 되었으나, 이마저도 1977년을 전후한 카터 대통령의 철군 계획에 따라 제2사단 병력 중 3,400명이 철수를 단행하였다.<sup>6)</sup>

한편 미 해군은 정전협정이 조인되자 원산항 부근의 각 도서로부터 경비 병력 및 장비철수, 저장 시설 등의 폭파 임무를 7월말까지 수행하였다. 그리고 8월 1일 순양함 브레머톤(Bremerton)호가 구축함 커닝햄(Cunningham)호와 함께 원산 해역을 마지막으로 떠남으로써 한국 해역에서의 참전활동을 완료하였다.<sup>7)</sup> 또한 미 공군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70여 대의 F-16기 등 최신예기를 비롯한 100여 대의 항공기를 한국에 주둔시키며 전천후 공

4)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835쪽.

5) 남정욱, 『한미 군사관계사 1871~2002』, 691-693쪽.

6) 국가보훈처, 『6·25전쟁 미군 참전사』, 2005, 189-190쪽.

7)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705쪽.

격 및 공중 지원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sup>8)</sup>

### 나. 캐나다군

캐나다 제25여단은 정전협정이 발효되자 7월 28일 제임스타운으로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7월 31일까지 2km 남쪽의 캔사스선상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후 부대 교대를 계속하던 캐나다여단은 1954년 9월 13일 랄프 캄니(Ralph Campney) 국방장관의 한국 주둔 병력 감축 성명에 따라 부분적으로 철군을 시작하였다. 그는 한국 주둔 병력을 보병 1개 대대와 1개 야전엔볼런스부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부대로 제한하고 잔여 병력을 1954년 말까지 철수시킨다고 발표하였다.<sup>9)</sup>

이에 따라 캐나다 제25여단은 1954년 11월 8일 캔사스선상의 방어진지를 한국군 제28사단에 인계하고, 11월 하순 The Black Watch연대 제2대대와 Canadian Guard 제4대대를 철수시켰다. 이어 12월 2일 여단사령부를 폐쇄한 캐나다여단이 1955년 4월에 Queens Own Rifles대대를 마지막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캐나다 육군은 제3야전병원부대와 이를 지원하는 통신 및 행정요원 등 약 500명만이 잔류하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병력감축을 단행한 캐나다 육군은 1957년 6월 25일 마지막으로 40명의 의무요원을 철수시킴으로써 한국전선에서 캐나다 지상군의 철수를 완료하였다.<sup>10)</sup>

한편 캐나다 해군은 정전협정이 발효된 직후 백령도 근해에서 공산측의 정전협정 위반감시 활동을 수행하였다. 캐나다 해군함정은 1953년 11월 18일 구축함 아타바스칸(Athabaskan)호가 제3차 복무 기간을 마치고 한

8) 국가보훈처, 『6·25전쟁 미군 참전사』, 191쪽.

9) Directorate of History and Heritag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and the Korean War*, p. 150.

10)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22-323쪽.

국 해역을 떠나 귀국하였다. 그리고 1954년 말 휴런(Huron)호와 이로쿠아(Iroquios)호가 본국으로 귀항함에 따라 시옥스(Sioux)호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1955년 3월 한국 해군이 서해안 작전 임무를 담당하게 되자 캐나다 해군은 미 합참의 승인을 얻어 1955년 9월 7일 시옥스호의 철수를 명령하였다.<sup>11)</sup>

병력과 물자의 공수임무를 담당했던 캐나다 공군의 제426항공수송대대는 1950년 9월 하순 미국의 맥코드기지에서 캐나다의 도발공항으로 복귀하였다. 제426수송대대는 1954년 6월 9일 공수번호 제599호의 왕복 비행을 마지막으로 임무를 종료하였다.<sup>12)</sup>

#### 다. 콜롬비아군

콜롬비아대대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0일 막동-천덕산에 이르는 전선에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8월 하순 콜롬비아대대는 미 제7사단이 새로운 방어진지를 미 제25사단에 인계하고 군단예비가 되자 제17연대와 함께 동두천 서쪽의 경신리 일대로 집결하였다. 이 무렵 콜롬비아대대는 본국으로부터의 병력보충을 중단하고 축차적으로 병력을 감축하였다. 그리고 1954년 10월 29일 마지막 병력이 인천항을 출항함으로써 한국 전선에서의 임무를 종료하였다.<sup>13)</sup>

한편 콜롬비아 해군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사세보항을 활동 기지로 동해안부대를 위한 보급수송단의 호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4년 4월 17일 브리온(Almirante Brion)호는 토노(Capitan Tono)호에 임무를 인계하고 본국으로 회항하였다.<sup>14)</sup> 한국 해역에서의 제2차 근무에 들어간 토

11)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40쪽.

12)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42쪽.

13) 차경미,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전쟁』, 117쪽.



노호는 1955년 1월 12일 제2차로 파견된 파딜라(Almirante Padilla)호와 임무를 교대한 후 귀국하였고, 파딜라호는 1955년 10월 11일 유엔 해군으로서의 공식적인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향하였다.<sup>15)</sup>

#### 라. 영국군

제임스타운 선상의 진지에서 휴전을 맞게 된 영연방 제1사단은 다음날 정전협정에 따라 철수를 개시하여 캔사스 선상의 진지에 집결하였다. 새로운 방어진지에서 경계 임무에 전념하던 영국 지상군은 1954년 11월 담당 진지를 한국군 제28사단에 인계한 후 점진적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1954년 말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군의 병력 감축 문제에 다소 신축성을 보임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사단의 구성국도 미 제8군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단계적인 철군을 단행하였으며, 영국군도 1957년에 철군을 완료하였다.

한편 영국 해군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백령도 일대를 주 해상기지로 삼고 38도선 북방 해역을 초계하면서 유엔군의 철수를 지원하였다. 1954년초 영국 함대는 서해안에서의 작전 지휘권을 미 해군에 인계하고 1955년 3월 한국 해군이 서해안의 작전임무를 전담하자 영연방 함정과 함께 철수를 단행하였다.<sup>16)</sup>

#### 마. 프랑스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프랑스대대는 한탄강 북쪽의 양지리로 이동하여 진지를 편성하였다. 프랑스대대는 전쟁기간 중 이룩한 전공으로 1953년 10월 9일 미 제9군단장으로부터 수훈장(Legion of

14)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1.

15)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397쪽.

16)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537-538쪽.

Merit)을 받았고, 13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다.

1953년 가을 인도차이나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군 프랑스대대를 인도차이나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대대는 1953년 10월 22일 인천항에서 ‘제너럴 블랙(General Black)호’에 승선해 베트남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sup>17)</sup> 이때 프랑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예하의 연락부대로 갈다이루 중위가 지휘하는 50명 정도의 분견대를 잔류시켰으며, 1965년 6월에 분견대 병력 전원을 완전 철수시켰다.<sup>18)</sup>

#### 바. 터키군

정전협정이 발효되자 터키여단은 군단 예비로 의정부 부근의 용현리에 주둔하면서 군사훈련과 경계 임무에 전념하였다. 이후 터키여단은 1960년까지 매년 1개 여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 주기적으로 병력을 교체하였으며, 이어 1966년까지 1개 중대를 파병하였다.<sup>19)</sup>

휴전 이후 후방 지역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터키여단은 1954년 여름에 주력이 철군한데 이어 1966년 7월 6일 1개 분대의 의장대를 유엔군사령부에 상징적으로 남겨둔 채 마지막 1개 중대가 귀국하였다. 그리고 1971년 6월 27일 상징적인 존재였던 의장대원 11명이 귀국함으로써 터키군의 6·25전쟁 참전은 종료되었다.

#### 사. 네덜란드군

네덜란드대대는 정전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3일간 현 주저항선의 방어 시

17)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9.

18) 국가보훈처, 『6·25전쟁 프랑스군 참전사』, 146쪽.

19) 알리 데니즐리(이선미 역), 『터키인이 본 6·25전쟁』, 127쪽.

설물 제거 작업을 실시한 후 7월 30일 22시에 현 진지를 떠나 한탄강 남안의 331고지 부근에 새로운 ‘휴전 후 주전투진지(PAMB P)’를 점령하였다. 이후 대대는 113개의 병커를 구축하고 20km의 전술철조망을 설치하는 새로운 진지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 정부는 1954년 8월 23일 네덜란드대대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대대는 1954년 10월 1일부로 공식적인 작전 임무를 완료하고, 10월 17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대대는 10월 9일에 제1진 170명이 듀네라(Dunera)호에 승선하여 귀국길에 올랐고, 제2진 272명은 11월 9일 캄버지(Cambodge)호로 출항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46명은 12월 6일 항공편으로 한국을 떠났다.<sup>20)</sup>

한편 유엔해군의 일원으로 파견된 네덜란드 해군의 프리깃함 나쏘(Nassau)호는 휴전 이후에도 해상초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나쏘호는 1953년 12월 5일 프리깃함 드부아(Dubois)호와 임무를 교대하고 본국으로 귀항하였다. 이어 1954년 9월 10일 프리깃함 반 지질(Van Jijil)호가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드부아호의 임무를 계승하고 1955년 1월 24일 귀국하였다.<sup>21)</sup>

#### 아. 벨기에-룩셈부르크군

1951년 1월 31일 부산에 상륙한 이래 한국전선을 누빈 벨기에대대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7월 30일 남방한계선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어 8월 9일 미 제40사단에 진지를 인계한 벨기에대대는 군단 예비가 되어 운천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1953년 9월 4일부터 축차적인 철수에 착수하여 잔류 병력을 300명 수준으로 유지하던 벨기에대대는 1955년 2월 7일

20)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832쪽.

21)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6.

327명이 귀국함으로써 상징적인 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1955년 6월 13일 잔류 인원마저 철군을 완료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유엔지원 활동을 종료하였다.<sup>22)</sup>

### 자. 그리스군

휴전과 동시에 그리스대대는 현 진지에서 남쪽으로 철수하여 적근간-삼천봉을 횡축으로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8월 5일 미 제3사단이 제40사단에 임무를 인계하고 군단 예비로 전환됨에 따라 그리스대대도 예비지역으로 이동하였다. 10월 중순에 대대는 일부 병력의 교체가 이루어져 제16차 보충제대 426명이 도착한데 이어 10월 하순에 430명이 귀국하였다.

1953년 가을 그리스 정부는 유엔의 요청으로 프랑스대대를 대체할 1개 대대의 병력을 증파함에 따라 1954년 1월 16일 그리스연대를 창설하여 미 제3사단에 배속하였다.<sup>23)</sup> 4월말 미 제40사단 제224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그리스연대는 9월 중순 운천 부근으로 이동한 후 10월 11일 미 제7사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었다.

1955년 5월 8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1개 대대 규모로 감편된 그리스군은 7월 12일 다시 증강된 중대 규모로 감축되어 동두천 인근에 주둔하였다. 12월 11일 병력의 철수를 단행한 그리스군은 10명으로 편성된 유엔군 사령부 그리스연락장교단을 미 제8군사령부에 두었다. 그리고 1956년 1월 22일 마지막 전투부대가 본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유엔군사령부 연락장교단도 해체되었다.

한편 그리스 공군의 제13수송편대는 정전협정 조인 이후에도 김포기지를

22)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244쪽.

23)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684쪽.

중심으로 병력과 장비, 보급품과 연락병 수송임무를 수행하였다.<sup>24)</sup> 그리스 편대는 1955년 3월 하순 정부로부터 귀국 명령을 받고 4월 1일 제1제대가 수송기편으로, 그리고 제2제대는 4월 28일 보병 제1대대와 함께 선편으로 귀국하였다.

#### 차. 필리핀군

정전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 제14대대는 1953년 7월 30일 양구 인근의 오리계에 집결하였다. 필리핀대대는 8월 5일부터 실시된 포로교환에서 40명의 대대원이 송환됨에 따라 이들을 8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차에 걸쳐 본국으로 후송하였다. 필리핀 제14대대는 1년에 걸친 해외 참전 근무를 마치고 1954년 3월말에 귀국하였다.<sup>25)</sup>

한편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1개 대대를 한국에 계속 주둔시키기로 결정하고 제2대대를 파견부대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5진인 제2대대는 1954년 4월 12일 제14대대와 교대하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sup>26)</sup> 이후 제2대대는 양구 인근의 도미나도 병영에서 13개월간 주둔한 후 유엔군의 상징적인 존재로 소수의 병력만을 남겨둔 채 1955년 5월 13일 귀국하였다.

#### 카. 태국군

태국대대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우구동 일대에 새로운 진지를 편성하고 8월 18일까지 진지 보강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태국군은 책임 지역에

24)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91.

25)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157쪽.

26) Cesar P. Pobre, *Filipinos in the Korean War*,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Philippine Veterans Affairs Office, 2012, pp.297-298.

서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등 전투준비태세와 부대훈련에 주력하다가 1954년 9월 미 제2사단에서 미 제7사단으로 배속 전환되어 운천에 주둔하였다.

휴전 이후 한반도 정세가 점점 안정되어갈 무렵 인도차이나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태국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파한병력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1개 중대를 포천에 남겨놓고 본대가 귀국한 태국군은 1972년 6월 23일 최종 귀국부대인 제23대대가 한국을 떠났다. 이 기간 태국군은 한국에 1개 독립중대만을 주둔시켰으며, 1955년부터 1972년까지 17년간 17개 제대가 순환 근무하였다. 태국군은 연락장교 및 상징적인 소분견대가 유엔군사령부 의장대에 잔류하였다.

태국 해군의 함정 또한 휴전 이후에도 미 제95기동부대에 배속되어 호송 및 초계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런 가운데 1955년 1월 21일 함정들은 사세보항을 떠나 귀국함으로써 유엔해군으로서의 임무를 종료하였다.<sup>27)</sup> 공군은 C-47 수송기 3대를 다치카와 공군기지에 잔류시켜 주요 항로에서 공수임무를 수행한 후 1964년 11월 6일 마지막 부대가 철수함으로써 한국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 타. 호주군

호주군 제2, 제3대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자 후크고지 일대에서 후방의 전투진지로 물러나 방어임무를 계속하였다. 이런 가운데 1954년 3월에 제1대대가 제2차 참전 근무를 위해 한국에 도착하자 제2대대는 임무를 제1대대에 인계하고 귀국하였다. 그리고 3개월 후인 1954년 6월초에 제3대대는 인천항을 출발하여 귀국길에 올랐다.<sup>28)</sup> 1954년 9월

27) 조정구 역, 『태국군 6.25 참전사』, 273쪽, 367쪽.

28) Norman Bartlett, *With the Australians in Korea*, p.161.

14일 호주의 멘지스 수상은 호주군 2개 대대 중 1개 대대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철수시킬 것이라고 의회에 통보하였다.<sup>29)</sup>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1956년 3월 24일 한국에 남아있던 제1대대를 인천항을 통해 철수시켰다.

한편 호주 해군은 휴전 직전인 1953년 6월 29일에 프리깃함 켈고아(Culgoa)호가 서해상에서의 초계활동을 마치고 홍콩을 경유하여 귀국하였다. 켈고아호는 정전협정이 조인되던 당일 한국 해역으로 복귀하여 휴전 후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호주 해군의 구축함 토브럭(Tobruk)호는 1954년 2월까지 서해안에서, 그리고 프리깃함 켈고아호는 이에 앞서 1953년 11월 2일까지 동해안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였다. 호주 해군은 1955년 프리깃함 콘다민(Condamine)호가 일본의 구레항을 출항함으로써 유엔해군으로서의 임무를 종료하였다.<sup>30)</sup> 또한 호주 공군은 휴전 이후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3년 11월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 파. 뉴질랜드군

1953년 6월 25일 뉴질랜드 제16야전포병연대는 한국군 제1사단이 박고지 및 179고지 전투를 전개하자 3개 포대의 모든 25파운드포를 동원하여 약 2,300발의 지원포격을 실시하였다. 한국전선에서의 마지막 전투를 수행한 뉴질랜드 제16야전포병연대는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모든 적대행위가 중지되자 후방 지역으로 철수한 후 휴전 이후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4년 11월 8일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철군하였다.<sup>31)</sup>

29)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Combat Operations*, p.586.

30)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Combat Operations*, p.588.

31)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I, Combat Operations*, p.356.

또한 뉴질랜드 해군함정은 구축함 카니어(Kanier)호가 주요 도서연안의 초계임무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카니어호는 유엔군 유격부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휴전 이후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4년 3월 2일 마지막으로 본국으로 귀항하였다.<sup>32)</sup>

#### 하. 에티오피아군

에티오피아 제3강뉴대대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미 제7사단 제32연대와 함께 사단예비로 천덕산 동남쪽 마전리 인근으로 철수하여 진지구축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8월 15일 연천 동남쪽의 풍혈 부근으로 이동한 대대는 8월 17일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부근에 집결하여 유엔군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sup>33)</sup> 이후 에티오피아대대는 1년마다 새로운 부대를 교체해 파견하면서 병력을 감축하였다. 제3강뉴대대는 1954년 6월 30일 인천항에 도착한 제4강뉴대대와 7월 10일 임무를 교대하고 귀국길에 올랐다.<sup>34)</sup> 이어 1955년 6월 28일 제5강뉴대대가 한국에 도착하여 제4강뉴대대의 임무를 인수함으로써 제4강뉴대대는 본국으로 향하였고, 제5강뉴대대도 1965년 3월 3일 귀국에 오르기까지 유엔군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sup>35)</sup>

#### 거. 남아프리카연방공화국군

남아연방공화국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는 1950년 11월 19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수영, 평양 등 최전방기지를 중심으로 주요 작전에 참여하여 임무를 완수하였다. 1953년 7월 27일의 야간 출격을 끝으로 항공작

32)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65쪽.

33) 국방부, 『한국전쟁사』 10, 489쪽.

34) 키몬 스크르딜스(송인엽 역), 『강뉴: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201쪽.

35)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84.



전을 종료한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는 정전협정이 조인되자 비상 대기과 교육 훈련에 주력하다가 9월 7일부터 수차에 걸쳐 항공기를 미국에 반납하고 1953년 10월 29일 오산기지를 떠남으로써 유엔공군으로서의 지원작전을 종료하였다.<sup>36)</sup>

#### 너. 의료지원국

유엔의 파병요청을 받은 유엔 회원국은 자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사정에 따라 전투 병력보다는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여 유엔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5개국이었다. 의료지원 부대의 주요 임무는 유엔군 산하 각급 부대로부터 후송된 전상환자를 수용 및 치료였고, 전황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한국의 민간인을 치료하였다.

북유럽의 덴마크는 1951년 1월 23일 적십자병원선 유틀란드리아(Jutlandia)호를 한국으로 파견하였다. 유틀란드리아호는 전쟁기간 6,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3차에 걸쳐 한국과 덴마크를 왕복하면서 700명의 전상환자를 벨기에, 프랑스 등 각자의 본국으로 수송하였다. 유틀란드리아호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중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 1953년 8월 16일 본국을 향해 인천항을 출항하였다.

인도는 유엔의 결의에 호응하여 1950년 11월초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제60야전병원을 선정하였다. 11월 20일 부산항에 도착한 인도 제60야전병원은 2개 부대로 분할되어 전선과 후방지역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휴전체결 후 중립국 포로송환관리병단이 한국에 도착하자 이들과 합류한 제60야전병원은 1954년 2월 23일 송환관리병단이 한국

36)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19.

을 떠남에 따라 한국에서의 활동을 종료하였다.<sup>37)</sup>

한편 이탈리아는 6·25전쟁 발발 당시 유엔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전투부대의 파병은 고려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국제적십자사의 요청에 따라 의료지원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1951년 10월 16일 67명으로 구성된 제68적십자병원 요원이 이탈리아를 출발하였고, 12월 6일부터 서울에서 의료지원업무를 개시하였다.<sup>38)</sup> 제68적십자병원은 참전 기간 22만 2천여 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한 후 1955년 1월 2일 한국을 떠나 귀국하였다.<sup>39)</sup>

1951년 6월 22일 83명으로 편성된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은 7월 19일을 기해 서울 북방에서 병원업무를 개시하였다. 노르웨이육군이동외과병원(NORMASH)이라 명명된 이들은 미 제1군단 예하의 각 사단을 의료 지원하였다. NORMASH는 1954년 10월 18일 3년 3개월간의 활동을 뒤로하고 귀국할 때까지 14,755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하였다.<sup>40)</sup>

스웨덴은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호응하여 1950년 7월 14일 1개 야전병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월 24일 160명으로 편성된 스웨덴적십자병원이 한국으로 향하였다.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9월 28일 미 제8군의 통제 하에 부산에서 병원을 개설하였다. 이후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음에도 1년 가까이 진료업무를 계속한 스웨덴적십자병원은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구호품을 수집하여 민간인에게 분배하는 인도주의적인 공헌을 한 후 1957년 4월에 본국으로 귀국하였다.<sup>41)</sup>

37)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799쪽.

38)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39.

39)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805-806쪽.

40) 국방부, 『한국전쟁사』 11, 812쪽.

41)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42.

## 2.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 가. 포로 교환 지원

#### 1) 포로 교환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후 유엔군사령부에서 우선 처리할 사항은 포로송환 문제였다. 대체로 포로 문제는 종전 후 전원 송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아래 일어났던 6·25전쟁에서는 가장 복잡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휴전협상에서 포로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가 많아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 포로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은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의 처리 문제를 놓고 오랜 논의 끝에 포로송환위원회(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를 설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양측은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전쟁포로에 대한 송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포로송환위원회와 그 예하의 공동적십자소조(Joint Red Cross Teams) 및 중립국송환위원회(NNRC :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를 편성해 운용하였다.

포로송환위원회는 양측의 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의 인도 및 인수 장소에 도달하는 시간 협조, 공동적십자소조의 포로송환 업무의 조정, 그리고 포로 송환을 감독하는 공동기구로서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인 지시 및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정전협정 제56항).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송환희망포로 및 송환거부포로에 대한 관리 및 송환 임무를 직접 지도하였다. 특히 송환희망포로에 대한 송환임무가 끝난 후에는 전쟁 이전 자기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송환거부포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담당하였다.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스위스·스웨덴·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및 인도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위원장과 집행 책임은 인도 대표가 맡고, 다른 4개국 대표는 각각 50명 이내의 참모 요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포로송환위원회는 1953년 7월 30일에 첫 회합을 갖고, 포로송환을 8월 5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도 8월 3일 판문점에서 회의를 열고, 정전협정에 따라 포로송환에 앞서 공동적십자소조를 파견하여 양측의 포로수용소 실태를 시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 공동적십자소조의 대표들이 북한 및 만주지역에 설치된 유엔군포로수용소를 방문하기 위해 지프로 개성을 향해 출발하였고, 공산군 측 공동적십자소조의 대표는 비행기 편으로 공산군 포로수용소를 방문하기 위해 부산을 향해 출발하였다.<sup>42)</sup>

정전협정 조인 후 유엔군 측은 송환희망포로를 교환하기 위해 거제도와 제주도에 수용된 송환을 희망하는 공산군 포로를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포로송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해상과 육로를 통해 수송 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공산군에 억류된 북한 지역의 한국군 및 유엔군포로수용소는 전쟁 추세에 따라 수용소가 폐쇄, 이동, 신설 등 위치가 바뀌고 규모가 달라졌다. 초기부터 알려진 수용소는 벽동, 만포진 등으로 압록강변에 위치하였다. 한국군포로는 대부분 의주 인근의 천마, 강계, 만포 등지에 위치해 있었다.

포로송환이 시작되자, 공산군 측에 억류되었던 유엔군포로는 트럭에 실려 먼저 포로수용소에서 가까운 철도역으로 수송된 후 평양을 거쳐 개성으로

4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포로』, 232쪽.

이동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송환 장소로 이동하였다. 개성에 도착한 유엔군 포로들은 수 개의 천막에 분리 수용되어 송환을 기다렸다.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 간에 포로송환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자, 송환희망 포로에 대한 포로송환은 1953년 8월 5일부터 시작되어 9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1953년 8월 5일 9시부터 판문점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 감독 아래 송환희망포로의 송환이 실시되었다. 첫날 유엔군 측에서는 한국군과 유엔군 수뇌부인 손원일 국방부장관과 백선엽 육군총참모장, 그리고 테일러(Maxwell D. Taylor) 미 8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미 극동공군사령관이 판문점에 나와 포로송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장병이 판문점에 나와 있었다.

공산군 측에 억류되었던 유엔군 포로들이 2대의 앰블런스<sup>43)</sup>와 4대의 트럭에 실려 판문점에 도착하였고 양측의 실무 장교들이 송환될 포로명단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8월 5일 12시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국군포로 250명과 유엔군포로(미군 포로 70명 포함) 150명 등 총 400명이 남쪽으로 귀환하였다. 그리고 유엔군 측도 2,758명의 공산군(북한군 포로 2,158명과 중공군포로 600명) 포로들을 북쪽으로 송환하였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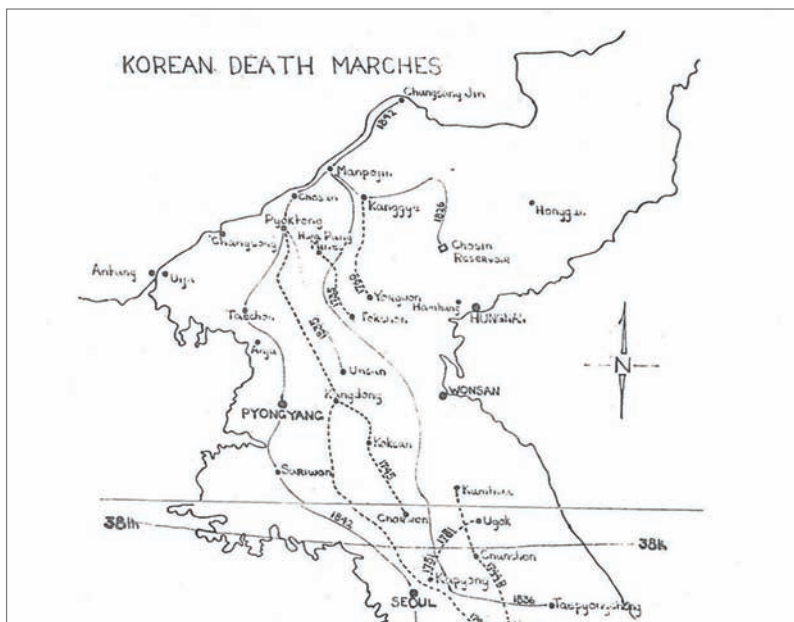
이처럼 포로송환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유엔군 측이 수용하고 있던 병들거나 부상당한 포로와 여성 포로들은 8월 5일부터 15일까지 한 번에 120명씩, 매일 3회에 걸쳐 공산군 측으로 보내졌다. 이후 유엔군 측은 매일 약 2,400명의 포로를 판문점으로 수송하여 공산군 측에게 넘겨주었고, 공산군 측도 그들이 억류하고 있던 유엔군 포로를 매일 약 400명씩 남쪽으로 보냈다.

포로송환 기간 중, 유엔군 측은 75,823명의 공산군포로를 송환하였다. 그 중 북한군이 70,183명이고, 중공군이 5,640명이었다. 이에 반해 공산군

43)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 하, 598쪽;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선인, 2010), 379쪽.

측은 한국군과 유엔군포로 12,773명을 송환하였다. 그 중 미군이 3,597명, 한국군이 7,862명, 나머지는 영국, 터키, 필리핀 등 12개국 유엔참전국 포로들이었다.

〈상황도 5-1〉 ‘죽음의 행군’ 경로(점선: 국군포로, 실선: 유엔군포로)



한국군과 유엔군 포로는 특히 북한군의 가혹한 포로대우로 많이 희생되었다. 1950~1951년 겨울에 붙잡힌 포로들은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도 도보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걷고 또 걷는 과정에서 한국군과 유엔군포로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부상과 질병의 치료를 받지 못해 이질, 폐렴 등으로 죽었으며, 명령 불복종이나 낙오 혹은 탈출을 시도하다 살해되기도 하였다. 포로수용소에서도 포로들이 많이 희생된 주요 원인은 ‘죽음의 행군(Death March)’ 과정에서 얻은 건강 악

화와 이질, 발진티푸스, 결핵 등 질병이나 영양 부족이었다.<sup>44)</sup>

〈표 5-1〉은 전쟁 기간 중에 이루어진 병상포로 교환과 정전협정 조인 후 진행된 송환희망포로 송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군포로의 수는 8,000여 명에 불과하여 오늘날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한국군포로’ 문제가 남아 있다. 북한군총사령부는 1951년 6월 25일 한국군과 유엔군포로 규모를 108,257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나,<sup>45)</sup> 이후 6개월이 안된 같은 해 12월 18일 휴전협상에서 포로명단을 교부할 때 11,559명(한국군포로 7,142명 포함)에 불과한 명단을 제공했었다. 그들은 국군포로를 미리 북한군과 주민으로 편입시킨 후 억류하였다.

〈표 5-1〉 송환희망포로 송환 현황<sup>46)</sup>

구분	상병포로(53.4)	송환희망포로	총계	
유엔군측	한 국	471	7,682	8,333
	미 국	149	3,597	3,746
	영 국	32	945	977
	터 키	15	229	244
	필 리 핀	1	40	41
	캐 나 다	2	30	32
	콜롬비아	6	22	28
	호 주	5	21	26
	프 랑 스	-	12	12
	남 아 공	1	8	9
	그 리 스	1	2	3
	네덜란드	1	2	3
	벨 기 에	1	-	1
	뉴질랜드	1	-	1
일 본	1	-	1	
계	684	12,773	13,457	
공산군측	북 한	5,640	70,183	75,823
	중 국	1,030	5,640	6,670
	계	6,670	75,823	82,493

44)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79-89쪽.

45)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31-32쪽.

4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41.

## 2) 송환거부포로의 처리

송환희망포로에 대한 포로송환이 끝나자, 이제 남은 문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송환거부 포로에 대한 처리만 남게 되었다. 이 문제는 휴전협상을 지연시킨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지만, 유엔군 측이 주장한 포로의 의사를 확인하여 송환하자는 ‘자유송환원칙’의 관철이기도 하였다.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는 공산 포로 중 송환을 거부하였던 포로는 강제로 억류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점이 이전의 다른 전쟁에서 포로를 취급하는 것과 크게 달랐다. 이 점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나 중국이 독일군이나 일본군 포로를 강제로 억류하였던 경우와 구별되며, 1994년 조창호 소위 이래로 양순용·장무환 등의 한국군포로가 탈북하여 오며 따라 그들의 존재가 확실히 나타나듯이 북한에서 다수의 한국군 포로를 강제로 억류한 것과는 다르다. 이들 포로에 대해서는 1953년 6월 8일 조인된 「포로협정」과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협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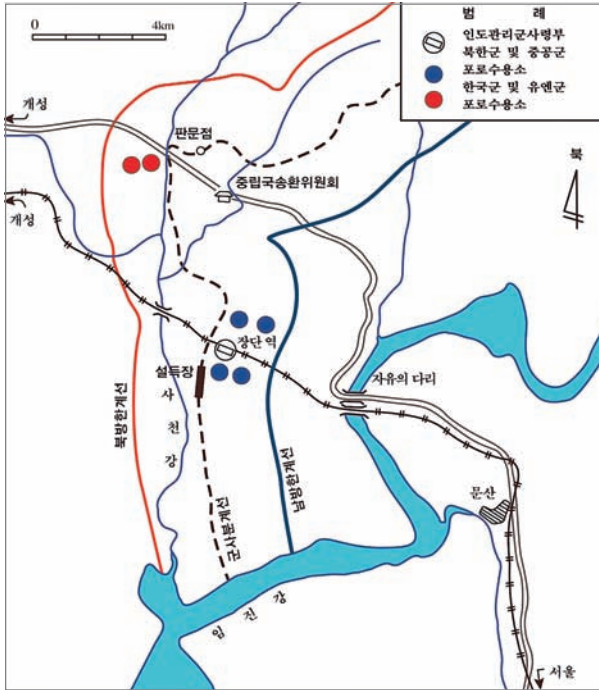
중립국송환위원회(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는 인도·스웨덴·스위스·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인도 대표는 의장, 집행관 및 심판관 등을 겸하였고, 중립국 4개국 대표는 각각 50명 내의 참모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인도는 이들 포로를 인수 및 관리할 부대를 파견하도록 하였다.

인도는 포로관리 및 송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티마야(K. S. Thimayya) 장군을 인도 대표에 임명하였다. 티마야 중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연방군 여단을 지휘했던 유일한 인도 출신이었다. 그는 나중에 인도군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였다. 인도군은 토랏(P. P. Thorat) 장군이 지휘하는 총



병력 5,500명으로 구성되었다.

〈상황도 5-2〉 판문점 비무장지대 송환거부 포로수용소 배치도



유엔군사령부는 8월 한 달 동안, 포로관리 및 송환을 담당할 중립국송환위원회(NNRC)와 인도군이 주둔할 시설들을 설치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9월 초,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인도대표 및 인도군, 스위스 및 스웨덴 대표들이 유엔군사령부의 협조로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친공적(親共的)인 성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인도군에게 한 치의 땅도 밝게 할 수 없다.”며 인천상륙을 거부하였다.<sup>47)</sup> 이에 인도군은 미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27쪽; Skand R. Tayal, *India and Republic of Korea*, p.61.

군이 제공하는 헬리콥터 편으로 함상에서 포로송환 장소인 비무장지대로 이동하였다.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1953년 9월부터 송환불원포로(non-repatriated POWs)의 포로수용시설 및 설득 장소 설치, 포로이송 업무를 시작하였다.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던 공산군의 포로수용소는 장단역 인근에 설치되었고, 공산군이 억류하고 있던 유엔군 포로수용소는 판문점 인근에 설치되었다. 이를 감독할 중립국송환위원회는 판문점 남쪽에 설치하였고, 포로를 설득할 장소는 장단역 북쪽의 군사분계선 상에 설치하였다.

유엔군 측은 1953년 9월 10일부터 송환거부포로들을 인계하기 시작한 이후, 9월 23일까지 총 22,604명을 인도군에 넘겼다. 공산 측은 대상 인원이 적어서 24일 하루 동안 359명을 인도군에 넘겨주었다. 이때부터 이들은 인도군의 관리를 받는 제2의 포로생활을 시작하였다. 송환거부 반공포로들은 중립지대로 이송되는 데에 불안해 하였다. 한 포로는 중립지대로 이송될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포로들이 이에 묵묵히 끌려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원치 않은 심정을 행동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하였다고 일기에 적었다.<sup>48)</sup> 이때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 본토수복협회(the Mainland Relief Association of Taiwan)’와 함께 선물을 수송기로 실고 날아왔다. 타이완 관리들은 중공군포로를 방문해 설득 과정 후 타이완을 선택해 오면 환영한다고 포로들을 안심시켰다.<sup>49)</sup>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포로협정에 따라 90일 동안 포로의 소속 국가 대표로부터 고국으로 복귀할 권리에 대한 ‘해설’을 받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서도 송환을 거부하면 120일이 지나 민간인 신분으로 석방하도록 하였다. 공산군 측은 처음에 설득기간으로 6개월간을 주장하였으나, 유엔군

48) 최봉현, 「판문점 일기」(미발간 수고), 1953. 8. 30.

49) GHQ FEC/UNC, “Command Report” 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563, pp.80-83.

측의 60일간 주장과 타협하여 90일간으로 결정되었다.

송환거부포로들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감독 아래 포로의 모국 정부의 대표로부터 1953년 9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90일 동안 송환에 대한 설득을 들어야 하였다. 설득 팀은 1,000명 당 7명 수준이었다. 포로가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계된 후, 곧 설득이 시작되어야 했으나 설득 장소의 지정문제로 지연되어 1953년 10월 15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설득이 시작된 후에도 반공 포로들의 반대투쟁과 한국과 타이완 측에서 특수요원을 투입하여 포로들이 설득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공산 측의 주장으로 몇 차례 중단되었다.

1953년 10월 15일, 공산군 측은 송환거부포로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포로들에게 공산군 측의 강압적 설득은 별 효과가 없었다. 이는 유엔군 측이 예상하였던 것으로 오히려 역효과만 냈다. 반공 포로들은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15일, 먼저 공산군 측은 중공군 출신 포로 500명에 대해 설득작업을 하였으나, 중국으로 가겠다고 희망한 자는 7명뿐이었다.<sup>50)</sup> 다음날인 10월 16일, 공산군 측은 북한출신 포로에 대해 설득을 하였으나, 이들은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다. 설득에 별 효과가 없게 되자 10월 19일, 공산군 측은 방법을 달리하여 설득을 지연시키면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였다.

10월 31일, 공산군 측은 북한출신 포로들에 대한 설득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출신 포로들은 남한으로 가겠다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공산군 측 설득반은 자기 앞에 앉아 있는 북한출신 포로들에게 상병포로 교환 때 북한으로 가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과 평양 시가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포로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별 효과가 없었다. 반공포로들은 8·15해방 후 북한에서 공산 압제 아래 자유를

50)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95-514.

상실했고 전쟁 시기에는 철조망 안에서 자유를 착취당하는 등 8년이나 부자유한 생활을 해온 그들이 자유를 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sup>51)</sup>

한편 1953년 9월 25일 공산 측으로부터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도된 한국군 및 유엔군 포로에 대한 설득작업은 같은 해 12월 2일부터 개시되었다. 한국군포로는 한국군에 의해, 미군포로는 미군에 의해, 영국군포로는 영국군에 의해 실시되었다. 설득을 위해 유엔군사령부는 8월 31일부터 대구에서 미 극동군 정보교육국의 감독 아래 설득요원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공산군 측의 세뇌와 이에 맞서는 반세뇌공작에 관한 것이었다. 미 극동해군에서도 장교를 파견하였다.<sup>52)</sup> 그러나 송환을 거부하는 한국군 및 유엔군포로들에 대한 설득에는 별 성과가 없었다. 이들 포로들은 설득장소에 나오기 전에 이미 공산군 측으로부터 철저한 세뇌 공작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 포로들은 설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sup>53)</sup>

양측은 10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송환거부포로에 대한 설득작업을 실시하였다. 유엔군 아래 있던 송환거부 반공포로의 85%는 설득에 참석을 거부하였다.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 22,604명 중 10일간의 설득기간을 통해 628명이 송환을 희망하였고, 일부는 중립국을 희망하였다. 공산 측에서 귀환을 거부하였던 유엔군 포로 359명 중 8일간의 설득기간 동안 60여 명에 대해 설득을 해서 미군 2명과 한국군 8명 등 10명이 귀환하였다. 이에 대해 햄블런 유엔군 송환위원단장은 ‘자유송환’ 작전의 성공적 완수라고 평가하였다.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는 포로 내에 강력한 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는 송환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54)</sup>

송환거부포로에 관한 설득은 12월 23일에 종결되었으나, 아직도 송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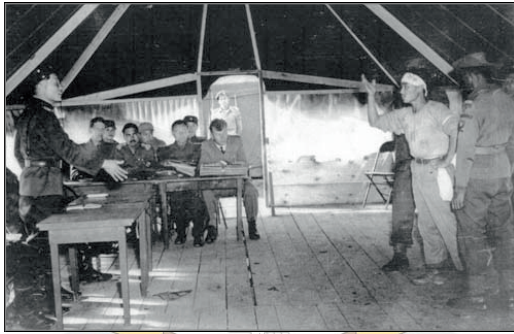
51) 최봉현, 「판문점 일기, 1953.8.25.

52) GHQ FEC/UNC, “Command Report” 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563, p.82.

53)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4년지』, A4쪽.

54)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401쪽.

반대하는 포로가 남아 있었다. 이들 포로의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그 처리는 정치위원회에서 30일 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정치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었다.



송환거부 반공포로의 설득 반대 모습(판문점)

이에 헐(John E. Hull)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12월 23일부로 포로 설득기간이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이후 30일이 경과한 1954년 1월 22일 오후 12시를 기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sup>55)</sup>

이러한 유엔군사령관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공산군 측은 10일 밖에 설득을 하지 못한 책임을 유엔군 측에 돌리면서 설득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포로석방조치는 정치회담에서 최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립국송환위원회는 12월 24일, 공산군 측의 설득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하고 설득작업이 정식으로 종료되었음을 의결하였다. 티마야 위원장도 설득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송환불원포로에 대한 설득이 12월 23일부로 종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31-332쪽.

인도의 결정에 따라 <표 5-2>와 같이 2만 1천여 명의 반공포로들이 1954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중립지대의 포로수용소로부터 유엔군 측에 인도되어 23일 오전 0시를 기해 민간인의 자격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1월 23일에는 한국과 자유중국(타이완) 그리고 유엔군 관계관의 참석 하에 반공포로 인수식이 정식으로 거행되었다.

<표 5-2> 송환거부 공산포로 처리 결과<sup>56)</sup>

구분	북한군	중공군	계
공산군 측으로 귀환	188	440	628
탈출 및 행방불명	11	2	13
인도군 관리 중 사망	23	15	38
인도로 이송	74	12	86
유엔군 측으로 전향	7,604	14,235	21,839
총계	7,900	14,704	22,604

대한민국을 선택한 반공포로들은 1954년 1월 20일 오전 10시 33분에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을 넘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때 반공포로들은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수뇌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그들이 탄 첫 열차는 12시 14분에 자유의 다리를 출발한 후 그 다음날인 21일 새벽 2시 25분, 마지막 열차가 대전에 도착함으로써 끝났다.

한편 자유중국(타이완)으로 돌아가는 반공포로들을 수송하기 위해 15척의 LST가 투입되었다. LST를 호송하기 위해 4척의 구축함이 동원되었고, 경비를 위해 미 제3해병사단 제4해병연대가 군함에 탑승하였다. 중국인 반공포로는 인천에서 타이완으로 송환되어 타이완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

5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15.

을 받았다.<sup>57)</sup> 이에 반발하여 공산군 측은 친공포로(親共捕虜)의 인수를 거부하다가, 1월 28일에 가서야 중국 및 북한 측 적십자사의 이름으로 친공포로를 인수해 갔다.

철 유엔군사령관은 1954년 1월 23일, 반공포로 석방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부터 반공포로들은 민간인으로서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고 또한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한국 외무부장관도 대한민국이 자유진영과 함께 추구한 대공투쟁(對共鬪爭)에서 승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sup>58)</sup>

송환거부포로에 대한 업무가 종결됨에 따라 인도군 5,500명은 1954년 2월 7일부터 철수를 개시하였으며, 2월 18일 남은 억류자들을 미 8군사령관에게 인계한 다음 최종 부대가 2월 23일, 인천항을 출발함으로써 한국에서 철수를 완료하였다. 또한 포로송환임무를 위해 설치된 중립국송환위원회(NNRC)도 2월 16일에 해산되었다. 다만 잔무 처리를 위해 21일까지 판문점에 잔류하였다. 1954년 2월 19일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그리고 타이완 정부 대표자들은 포로와 관련된 모든 작전을 마감하는 절차로서 귀환자에 대한 공식문서에 서명하였다.<sup>59)</sup> 제3국을 선택한 88명의 포로들이 2월 8일 인천항에서 인도의 군용 수송선을 타고 떠나면서 포로 송환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교전 쌍방은 실향민을 그 자유의사에 따라 상호 교환한다.”는 정전협정 제3조 제59항에 따라 2명씩의 영관 장교급으로 구성된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53년 12월 11일 판문점에서 첫 회합을 갖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쌍방은 이 회합에서 교환인원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였다. 유엔군 측이 1일 500명을 주장한데 반해, 공산군 측은 100명을 제시하였다.<sup>60)</sup>

5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포로』, 253쪽.

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34쪽.

5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96.

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35쪽.

12월 29일의 제2차 회합이 열린 가운데 유엔군 측의 양보로 1일 100명씩 교환하기로 결정하고 개시일자를 1954년 3월 1일로 합의하였다.<sup>61)</sup>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남북인사의 귀환을 기대하게 된 데 반해 월남한 북한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송환 일자가 다가오자 북한은 2월 15일 방송을 통해 남한으로 송환을 원하는 피난민은 단 1명도 없다고 발표하였고, 3일 후 외국인만 10여 명이라고 통고하였다.

1954년 3월 1일 공산군 측은 터키인 11명 등 19명의 외국인을 유엔군 측에 인도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유엔군 측은 37명의 한국인을 공산군 측에 넘겨주었다.<sup>62)</sup> 이로써 실항민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된 듯 했으나, 실제로 전쟁 중 공산 측에 의해 피납된 인사의 귀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62년이 지난 현재에도 약 9만 명에 이르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조차 해결되지 않았다.

## 나. 정전체제 유지 및 관리

### 1) 정전협정에 명시된 전쟁 재발방지대책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과 유엔참전국 대표로 정전협정에 조인한 후 오늘날까지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일방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더욱이 1954년 11월 17일 체결된 ‘한·미의사록’에 의해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엔사는 정전 및 전쟁여지를 통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되었다.<sup>63)</sup> 1957년 7월 1일 도쿄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는 서울로 이동하였다.

6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하, 624쪽.

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36쪽.

63) 서주석, 「한반도 정전체제와 유엔군사령부」, 『통일시론』 9, 2001.1, 108쪽.



유엔군은 16개 가입국의 군대로 구성되었으나, 정전 후 점차 미군을 제외하고 전투 병력이 모두 철수한 후에는 미군이 주도하고 있다. 1974년 7월 1일에는 유엔군사령부와 주한 미군사령부, 미 8군의 참모부가 통합돼 단일 참모부가 되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됨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되었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주한 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였다.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은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의 금지를 보장할 것을 다룬 문서이다. 이는 정전을 위해 유엔군 측과 북한·중공군 군사령관 간에 이루어진 군사적인 성격을 띠는 협정이다. 이에 따라 쌍방의 군사령관에게는 정전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이 부여되었다. 전후 정전체제의 유지관리는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되었고, 이러한 임무는 크게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통해 수행되었다.

총 5개조 63개항의 본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정전협정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문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제1조 1-11항), 전투중지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제2조 12-50항),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제3조 51-59항),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쌍방 관계정부들의 건의, 제4조 60항) 그리고 본 협정의 대체방법(제5조 61-62항) 등이다.

정전협정에 명기되어 있는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첫 번째 대책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치였다. 정전협정 제1조(제1항~제11항)는 정전협정

의 본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의 설정과 그 위치, 설치 목적, 비무장지대 내 적대행위 금지와 출입제한 등이다.

두 번째는 정전협정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이다. 제12항에 의하면 쌍방사령관은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군사력에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보장하며,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12시간 이후부터 이러한 명령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한반도 내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명령한 것으로,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12시간이 경과한 7월 27일 오후 10시부터 쌍방은 적대행위를 할 수 없었다.

세 번째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화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쌍방의 군사령관들이 육상에 설치된 비무장지대로부터 그들의 군사역량 등을 철거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전협정은 해상의 군사력 철거와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군사요원 증원 중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수량 증가 금지(정전협정 제13항) 등의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

네 번째 대책으로 정전협정은 협정의 이행·준수 및 비무장지대 감시를 위한 국제적 감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관은 정전협정 제19항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MAC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와 공동감시소조(JOT: Joint Observer Team), 동 협정 제36항에 의해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와 중립국 감시소조(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로 대별된다.

이밖에도 정전협정에서는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정화 및 정전을 위한 조치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 아래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군정위와 공동감시소조, 중감위와 중립국감시소조가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 제공하며, 군사정전위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정전협정 제13항) 등의 내용을 명기해 놓고 있다.

이 중에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정전체제를 감독하고 유지하는 이들 기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이들의 행동이나 활동의 자유는 전쟁 재발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또한 정전협정은 당사자의 일방을 북한과 중국으로 하고 다른 일방을 한국과 유엔으로 하는 국제법상의 조약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에 명기된 상기와 같은 내용의 대책은 남북한의 어느 국내법이 아닌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서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이 모두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였다.

## 2)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 유지

1953년 7월 27일, 양측이 서명한 정전협정에는 “양측의 통제 하에 있는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모든 무장 역량은 양측 수석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한 후 12시간이 되는 시점부터, 즉 한국시간으로 7월 27일 22시부터 한반도 내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중단한다. 또한 양측은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양측이 이 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철수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양측은 72시간 내에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로부터 철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비무장지대를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

대(buffer zone)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7월 28일 아침부터 전선의 한국군과 유엔군 부대들은 현 위치에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유엔군 측은 군사분계선이 북에 위치한 동서 해안의 도서(島嶼, islands)로부터 철수를 개시하였다.

동시에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작업에 들어갔다. 정전협정에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한강하구-임진강하구(문산 서남 8km)-판문점-고양대-유정리(철원북쪽 12km)-하감령-밤성골-문동리-신탄리-수령-동해안 감호(남쪽 1km)를 잇는 선이었다. 군사분계선은 지도상에 표기된 선으로 철책선이 가설되지 않았다. 단지 남북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식물이 군사분계선 155마일(약 248km)을 따라 2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서부전선에서부터 동부전선까지 설치된 표식물의 수는 모두 1,292개였다.<sup>64)</sup>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km 북쪽의 북방한계선과 2km 남쪽의 남방한계선 사이에 설정되었다. 양측은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 아래 군사분계선과 남방 및 북방한계선을 따라 규정된 표식물을 설치하여 경계의 관리는 물론이고 그 책임구역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하였다.

한강하구에 대해서는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으며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양측의 민간선박 항행(航行)을 위해 중립지대로 개방하도록 하였다. 한강하구의 항행 규칙 또한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양측의 민간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강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출입도 통제하였다. 즉,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인원과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conduct of civil

64) 제성호, 「한국휴전협정의 이행실태」, 『한국전쟁과 휴전체제』(집문당, 1998), 201쪽.

administration and relief)'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병력이나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은 유엔군 사령관이 책임을 지며, 그 북쪽 지역은 북한군과 중공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위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병력과 민간인의 수는 양측의 사령관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인원의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와 휴대무기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규정하고,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내의 출입을 허가받은 인원(물자 및 장비 포함)은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을 보장받도록 하였다.

또 후방과 연해제도(沿海諸島), 해면(海面, waters of Korea)으로부터 모든 군사력,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수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양측의 동의 없이 또한 철수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가 있었다(정전협정 제2, 3항).

정전협정에 규정된 연해제도(coastal islands)란, 정전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비록 어느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 이전까지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었던 도서들을 지칭한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공산군 측의 군사통제 하에 두며,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은 유엔군 군사통제 아래 두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정전협정 조인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1953년 7월 28일 군사정전위원회가 판문점에서 최초의 회합을 가졌다. 양측은 정전위원회 위원들을 새

로이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 수석위원에는 미 극동군사령부 참모부장(參謀副長)이던 브라이언(Blackshear M. Bryan) 소장이 임명되었고, 공산군 측 수석위원에는 휴전회담 대표였던 이상조 소장이 임명되었다. 양측은 수석위원, 위원 그리고 비서장을 서로 소개하고 신임장을 교환하였다. 이후 양측은 공동감시소 운영, 비무장지대 관리, 포로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수용시설 설치문제, 그리고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들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후 정전에서는 군의 철수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내에서 양측의 군사력 철수는 최초 예정대로 7월 30일까지 완료되었고, 위험물과 지뢰 등의 제거작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유엔군 측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동해안과 서해안의 도서로부터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서해안에서는 유엔군사령관의 군사적 관할로 남게 된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제외한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계(道界) 북서에 있는 도서로부터 철수하였고, 동해안에서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북에 있는 도서로부터 8월 2일 이전에 철수를 완료하였다.<sup>65)</sup> 이는 정전협정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수하도록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은 이들 도서로부터 가급적 빨리 철수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1945년 8월 15일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연합국에 의해 38도선으로 분단되었던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조인됨에 따라 또다시 ‘군사분계선’ 또는 ‘휴전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분단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해상에서도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북한의 해상도발을 억제하고 있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38도선 이남에 위치해 있었던 서해 5도와 그 주변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권 내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1953년

65) 「한국 정전협정」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3항(ㄴ);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16쪽.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한 쌍방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처럼 해상에서도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합의에 실패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요구 때문이었다. 1952년 1월 말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연해주역과 관련한 양측 간의 협상과정에서 유엔군 측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던 국제적 영해설정 관행에 따라 양측 모두 영해의 범위를 3해리로 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유엔군 측에 의한 해상봉쇄를 우려한 공산군 측은 12해리를 영해의 범위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엔군 측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미 합의한 정전협정의 내용에 해상봉쇄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정전협정 제15항)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산군 측은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영해 설정과 관련된 조항의 전면삭제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군 측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결국 해상경계선에 관한 규정이 정전협정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측은 최종적으로 정전협정을 체결하는데 합의하게 되었다.<sup>66)</sup>

그 결과 정전협정의 부속문서 상에서 서쪽의 군사분계선은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선 끝점(임진강 하구 교동도 인근)’까지만 설정돼 있을 뿐이고,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은 명기되어 있지 않게 되었다. 다만 서해 이북 5개 도서에 대해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을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북한군(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두도록 한다고 명기되었다.

66) 조성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2014, 90쪽.

이처럼 공산군과 유엔군 측 간에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1953년 8월 30일,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 초계활동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동·서해에 각각 일정한 경계선을 공산군 측과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설정하였다.

이때 동해에는 ‘북방경계선’(NBL : Northern Boundary Line)이란 명칭으로 지상의 군사분계선(MDL)을 연장한 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서해에는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sup>67)</sup>이란 명칭으로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3해리(NM) 영해에 입각하여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백령도 서북방까지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의 이러한 조치는 당시 북측에는 사실상 해군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북한 전 해역에서 유엔해군이 해상통제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엔해군을 일정한 선 이남지역으로 남하시키고 그 선 이북으로의 해·공군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위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여 서해에서 경계선을 선정한 이유는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영해원칙(3해리)만을 따를 경우 중간수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측 간에 경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조치였다. 이미 휴전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1952년 9월 27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연안에 대한 공산군 측의 공격 방지, UN군의 보급선 확보, 전시 금지품 수송 및 간첩활동의 차

67) 그 후 1996년 7월 1일 유엔사연합사가 정전시 교전규칙을 개정하면서 동·서해 모두 북방한계선(NLL)으로 명칭을 통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단 등을 위해 이른바 ‘클라크 라인’이라 불리는 ‘한국해상방위수역(The Korean Sea Defense Zone, KSDZ)’을 선포하였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해상방위수역을 해제한 직후인 1953년 8월 30일을 기해 곧 바로 이어서 남북한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서해에 각각 경계선을 설정하여 선포하였다.

그러나 서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은 채 서해5도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관할권만을 인정한 정전협정 부속문서상의 내용과 유엔군사령관이 공산군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단독으로 결정한 서해상의 북방한계선 설정은 추후 남북한 간에 논란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다.

### 3) 정전체제 감시기구

#### (1) 군사정전위원회(MAC)

정전협정의 감시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로 편성되어 전후 정전 조건들의 실행을 담당하였다. 이 가운데 군사정전위원회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비무장지대 외의 남북한 지역에 각각 지정된 5개 항구에서 병력배치와 교대, 장비와 무기의 도착과 퇴거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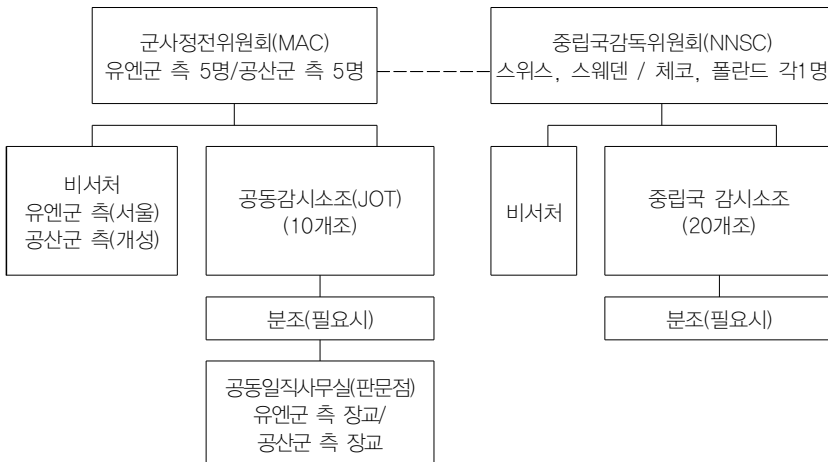
군사정전위원회의 보다 구체적인 운용,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적대 쌍방 간에 공동체로 운용한다. 둘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셋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넷째,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다섯째, 정전협정의 제반 위반사건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여섯째,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한다. 일곱째, 양측 사령관의 연락처로 운용한다. 여덟째, 공동감시소조의 중

명, 문서 및 휘장, 각종 차량과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지를 발급한다(정전협정 제25항).

군사정전위원회는 모두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었다. 양측은 5명의 위원 중 3명은 장군 또는 제독으로, 2명은 대령급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1953년 7월 28일 처음으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 측 대표는 미국의 브라이언(Blackshear M. Bryan) 육군소장이었고, 4명의 위원은 미 해군과 공군, 태국군(T. Kittkhachorn)과 영국군(G. E. R. Bastin) 장성이 맡았다. 정전 직후부터 유엔군 측은 미군 장성이 대개 6개월 단위로 수석대표를 맡았고 대표단으로 영국군, 태국군, 터키군 대표 등이 참여하였다. 한국군도 1954년 3월 9일 제38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이후부터 참석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때 1개의 공동감시소조에는 4~6명의 영관 장교로 구성되었는데, 양측이 각각 반수씩 임명하여 운용하였다. 감시소조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운전병, 서기, 통역 등 부속 인원은 양측이 별도로 제공하였다.

〈표 5-3〉 정전관리기구 편성표



군사정전위원회는 최초 공동감시소조를 통해 비무장지대로부터 부대 철수와 철수 후 45일 이내에 모든 폭발물과 지뢰 그리고 철조망의 제거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정전관리기구로서 전체적인 운영관리권을 보유하며 최고협의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정전위원회는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군사정전위원회는 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권한도 갖고 있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는 판문점 부근에 설치하되, 위원회의 양측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본부를 비무장지대 내의 다른 지점으로 옮길 수도 있었다(정전협정 제13항).

군사정전위원회의는 비무장지대 위반, 공중 및 해상침범, 무력증강, 간첩 침투, 공동경비구역(JSA) 위반행위, 군사훈련, 긴장완화 방안 촉구 등이었다. 그 외에도 공산 측이 도발한 항공기 격추사건, 어선 격침사건 및 피랍선원 송환, 땅굴사건 등을 비롯해 그들이 외국군 철수, 병력 감축, 핵무기 생산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적 충돌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열렸다. 그런데 회의는 몇 시간씩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비난과 반박으로 사실상 '제로섬 게임'으로 일관되었다. 이 때문에 회담장은 항상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상대에 대한 무시와 적의만 있었다. 회의는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 말로 하는 싸움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sup>68)</sup> 정전 후 군사정전위원회 등에서 10년간 참여했던 한 실무자는 공산주의자는 타협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어서, 정전위

68) 김상균, 「판문점」, 『판문점13년』, 대한공론사, 1966, 47쪽;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이템플 코리아, 2008, 533쪽; Gabriel Jonsson, *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p.364.

원회에서 한 일이라고는 “동의하지 않는데 동의했을 뿐”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이미 이러한 소모적인 현상은 휴전 직후부터 나타났다. 1954년 5월 22일 유엔군 측은 공산 측이 정전위원회를 하나의 선전기관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후에도 유엔군 측은 공산 측이 본회의를 공산권과 제3세계 국가에 왜곡하는 선전장으로 변모시켰다고 계속 지적하였다.<sup>69)</sup> 1973년 11월 6일 제345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측은 공산 측이 지난 13차례의 회의에서 75%는 순전한 선전에 전념하는 것이었고, 겨우 25%만 정전위원회의 합법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적절한 선전으로 회의의 잠재력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70)</sup> <표 5-4>에서 나타나듯이 공산 측이 회의를 먼저 제기한 경우가 유엔군 측보다 훨씬 많았다. 비서장회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표 5-4> 본회의(제1-460차) 개최기

(단위 : 횟수)

구분	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	460	113	184	100	55	8
유엔군 측	120	40	49	16	14	1
공산군 측	340	73	135	84	41	7

군사정전위원회가 전후 수많은 도발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장이어야 했지만, 쌍방이 자기 측의 주장만 내세워서 정전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성은 군

69) 합참 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 75쪽; USFK/EUSA, “1974 Annual Historical Report”, p.13.

70) 『제336차 회의록』 1973.2.5.; 『군사정전위원회편람』2, 475쪽; 합참 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4, 310쪽.

71) 조성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241쪽.

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쓸데없는 만남’이라고 기억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협정 위반사실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 남북한 간의 전면적인 무력대결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정세안정에 기여해 왔다. 샤프(Walter L. Sharp) 유엔군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공격 및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맞서기 위해 군정위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군사정전위원회는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 특별조사 활동을 펼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sup>72)</sup> 또한 군사정전위원회는 냉전시대 의사통로의 창구였으며 현안에 대해 공산 측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정전협정 조인 후 한반도에서 새로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활동은 감시위원 및 중립국 감시소조를 통하여 지정된 출입항에서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규제하기 위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하는 것이었다(정전협정 제41항).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이를 위해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지정된 남한과 북한의 5개 출입항인 인천·대구·부산·강릉·군산과 북한의 신의주·청진·홍남·만포·신안주를 통해 교체되는 병력과 군사장비 및 탄약에 대해 감독·시찰·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72) 『국방일보』 2011.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되었다. 그 중 2명은 유엔군 측에서 지명한 스위스와 스웨덴이 임명하고, 다른 2명은 공산군 측에서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임명하였다. 1953년 8월 판문점에서 열린 중립국감독위원회 제1차 회의 대표단의 의장은 체코 부레스(Bures) 장군, 위원으로 스웨덴 그라프스트룀(Grafstrom) 장군, 스위스 봉그로브스키(Mieczysław Wagrowski) 장군, 폴란드 레네르(Friedrich Rihner) 장군 등이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최초 20개의 중립국 감시소조를 설치하되, 이 중 남북한의 지정된 출입항에 각각 5개 조씩, 10개 소조를 주재시키고, 나머지 10개 소조는 이동감시소조로서 중립국 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하도록 하였다. 이동감시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양측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었다. 또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한쪽 수석위원의 요청에 따라 파견되는 이동감시소조는 언제나 전체 소조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 중립국 감시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보고 및 지도를 받았다(정전협정 제42항).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공산군 또는 유엔군측의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을 접수하기 전까지, 군사정전위원회는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 다만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한쪽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소조원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출두하여 제출된 보고에 대해 설명해야 하였다.

이처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간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두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분열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공고화하기 위해 원래 비무장지대 밖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 임무는 위원 및 감시소조를 통해 협정 제43항에 열거된 출입항에서 한국 국경 밖으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제13항 ㄷ), 한국 국경 외부로부

터 증강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제3항 ㄷ) 등에 대해 감독과 시찰을 진행한다. 또한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지점에 대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만큼 감시팀이 중요하였다. 브루거(Gerhard Bruegger) 중감위 스위스 대표는 자신들을 정전의 상징(a symbol of the armistice)으로 본다고 말하였다.<sup>73)</sup> 그러나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 후 곧 공산측의 방해전술로 감시활동을 할 수 없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각각 지정된 5개 항구에서 병력배치와 교대, 장비와 무기의 도착과 퇴거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 감시를 수행하여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즉, 중립국시찰반은 인원, 탄약, 무기 등의 수입을 감시하여 분단된 양측의 연결고리를 깨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며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중감위는 정전협정에 따라 양 휴전 당사자 모두가 그들의 전투능력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의 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가진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제36항에 의해 1953년 8월 1일 성립되어, 첫 회의는 4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러나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서로의 정치이념이 충돌하는 두 개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감시소조의 활동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종종 예상과 다른 효과를 발생시켰다. 감시소조의 일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였다. 감시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소조의 접근을 거부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조원을 공항에서 구금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협정의 협의 내용과 맞지 않는 군사장비와 무기를 한국의 양측에 수입하는데 양 당사자들 간의 비난이 있었다.

73) "NNSC's 53-Year Mission at the DMZ", *The Korea Herald* Feb. 23, 2006.

조사의 통보가 최소한 24시간 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는 까닭에 북한에서의 효과적인 감시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불시 감시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준비된(prepared)’ 시찰만 있을 뿐이었다.<sup>74)</sup> 교체되는 작전물자에 대한 보고는 정전협정 제 13항 ㄹ목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초기부터 감시소조의 활동을 둘러싸고 양측은 대립하였다. 북한으로 파견된 스위스·스웨덴 대표는 공산 측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 1953년 8월 20일 청진항을 감시하러 간 팀은 제대로 접근할 수 없었다. 결국 중립국감독위원회는 1957년 7월 이후에는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에 관한 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겼으므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후에도 북한 측은 유엔군 측에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 대해 항의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중감위의 규모도 크게 축소되었다. 1953년 6월 25일 리이너 대표의 인솔 아래 스위스 장교단 20명이 선발대로 한국에 온 후 1953년 9월까지 약 100명으로 늘었다. 활동 초기에는 스웨덴도 100명 내외의 인원으로 움직였으나, 판문점으로 철수한 후에는 대표단의 인원수도 1956년 6월 중순에 이미 14명으로 줄어들었다. 그후 계속 감축된 결과 2000년에는 다섯 명에 불과하였다.<sup>75)</sup>

공산 측은 초기에 각각 300명 규모였다. 폴란드 대표단의 경우는 봉그로브스키 육군 준장을 비롯해 301명이 왔으나, 1956년 이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의 범위가 감소됨에 따라, 폴란드 대표단의 수도 점차 감소해서 1960년부터 이미 10명밖에 없었으며, 1968년에는 9명이 활동하였다.

74) Gabriel Jonsson, *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pp.27-28.

75) 「국경선 저 너머로」, ASMZ(스위스 일반 군사잡지) 2001.4, 17쪽.



## (3) 정전체제 유지 및 한계

정전협정 조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경우, 정전체제는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 60여 년간은 협정의 준수만으로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 평화체제로 이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협정에 명기된 제도적 규정과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정전체제가 크게 위협을 받아왔다.

정전 이후 유엔군사령부와 북한 측은 ‘정전협정 위반현황 통계’를 매월 판문점에서 상호 통보하고 교환해왔다. 그러나 1991년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무실화를 주장하며 1994년 5월부터 통계교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에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 건수에 대한 공식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시기까지 유엔군 측이 작성한 북한의 위반이 43만 건 정도인데 비해, 북한이 주장한 남측의 협정위반 건수는 1993년 말까지만 해도 832,260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유엔군사령부에서 분류한 주요 위반사건은 <표 5-5>와 같이 200여 건이다.

〈표 5-5〉 북한군 정전협정 주요 위반사건

구분	총계	'53~'60	'61~'70	'71~'80	'81~'90	'91~'00	'01~'03	'04~'06	'07~'09
소계	219	13	82	32	21	40	18	10	3
육상	115	1	37	11	10	32	12	10	2
해상	82	7	40	14	7	8	5	0	1
공중	22	5	5	7	4	0	1	0	0

〈표 5-5〉에 나타난 것처럼 위반사건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 지상침투의 비중이 높았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해상침투의 비중도 늘었다. 북한은 주로 육상에서는 비무장지대 총격, 군사분계선(MDL) 월선 및 침투, DMZ 화기반입 등을,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침범, 선박 포격, 어선과 어부 납치 등을, 공중에서는 항공기 납치 및 폭파와 영공침범 등으로 협정을 위반해왔다.

북한의 중요 위반 사례는 1960년대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70년대(32건)와 '80년대(21건)에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90년대는 40건으로 늘어났다. 2000년대에는 31건이나, 서해교전 등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한반도는 휴전상태가 아니라, 교전상태에 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sup>76)</sup>

이와 같이 잦은 도발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체제를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먼저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였다. 그것은 비무장지대의 원형이 상실된 점,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 등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비무장지대 관련 규정의 위반은 비무장지대가 정전협정의 근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전협정의 파기를 의미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둘째 적대행위 금지의무 위반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을 비롯한 무력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 이와 같은 적대행위는 정전협정 제1조 제6항에 규정된 적대행위 금지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써 정전체제의 유지관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는 북한이 정전감시기구를 무력화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이행 및 준수, 특히 비무장지대의 감시를 위한 핵심기구로 설치되었으

76) 백선엽,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구상』, 군사편찬연구소, 2003, 182쪽; 조성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137-138쪽.

나, 1950년대 중반부터 공동감시소조의 활동이 중단된 이래 조금씩 무실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기능이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북한은 1991년 3월 25일 황원탁 한국군 소장을 처음으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 수석대표로 임명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자 군정위를 보이콧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군정위 본회의는 1992년 5월 29일 제460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은 군정위 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한데 이어 비서장회의의 참가까지도 거부하였으며, 그 결과 1992년 9월 24일 제508차 비서장회의가 열린 이후 공식적인 비서장회의는 북한 측의 불응으로 아직까지 소집되지 않고 있다. 이후 북한은 군정위의 중국군 대표도 철수시킨 다음 1994년 5월 24일부로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판문점에서는 기존의 군정위를 대신하여 유엔사측 군정위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간의 접촉만이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의 중감위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이후 1991년 중감위에 대한 공식 활동 중단 통보와 1993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판문점 철수, 1995년 폴란드 대표단 판문점 철수 조치로 이어졌으며, 같은 해 5월 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명의로 중감위 사무실을 폐쇄하였다.

따라서 전후 유엔군사령부의 정전체제 관리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 핵개발 등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장애이므로 평화 정착을 위해, 해상경계선을 포함한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긴장해소가 중요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상 비무장지대의 무력 충돌보다는 1999년과 2002년 1, 2차 연평 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이 서해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이를 극복하려면, 무력도발 없는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

의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전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현재의 정전협정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한 토대 위에 남북한 사이에 무력 충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하겠다는 평화공존에 대한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 제2절 전후 처리와 유엔의 역할

### 1. 대제재 선언

정전 후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해 유엔 참전국은 ‘대제재 선언(great sanction)’을 추진했고, 한편으로는 제네바 정치회담을 모색하였다. 제네바에서 회담이 결렬되자, 한국문제는 다시 유엔에서 논의되었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 간에 정전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같은 날 22시를 기해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6·25전쟁은 양측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전’이 아닌 ‘정전’의 상태에서 일단 중지되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유엔군의 지상 전력은 한국군을 포함하여 92만 명인데 비해, 공산군 측은 북한군과 중공군을 합쳐 180만 명에 이르렀다. 더욱이 김일성은 전후에도 무력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6·25전쟁의 교훈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그들은 한국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이 점 때문에 이미 1951년 6월 휴전 협상이 본격화될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에 “반드시 한국민에 대한 공산침략이 장차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장을 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7월 10일 무초 대사와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엔군이 철수하여 한국이 무방비상태에 놓여지는 일이라고 말하였다.<sup>77)</sup>

미국 정부는 공산측의 또 다른 무력 사용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미군 주둔과 함께 다른 유엔 참전국과 더불어 ‘대제재 선언’을 구상하였다. ‘대제재 선언’은 한국에서 공산군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유엔 회원국들은 공동으로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이것은 공산군 측에 대한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회원국들의 침략방지를 위한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 선언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에 소극적이었던 요소로 여길 만큼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한 성명만으로는 한국민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상호조약의 체결을 지시하지 않는 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953년 5월까지도 미국은 아직 한국과 동맹관계의 구축이나 한국안보의 단독보장 책임을 떠맡을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대제재 선언문은 참가국 대표들이 서명한 지 20여 일이 지난 1953년 8월 7일에야 워싱턴에서 ‘공동정책선언(Joint Policy Declarati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유엔군사령부가 특별보고서의 일부로서 ‘공동정책선언’을 유엔에 정식으로 전달하기 전까지는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공동정책선언’은 미국의 유엔대표 대리 와스워드(James J. Wadsworth)가 작성한 정전협정문 요약본과 함께 휴전협상 과정을 정리한 유엔군사령부의 특별보고서의 일부로서 유엔 사무총장

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60년사』(군사편찬연구소, 2013), 58쪽.

에게 전달되었다.

이 선언에는 공산군 측에 전쟁을 억제함과 동시에 정전협정 이행을 준수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즉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해, 만일 유엔의 원칙에 재도전하는 무력공격이 재발한다면 다시 단합하여 신속히 저항 할 것을 확인한다. 그와 같은 중대한 정전협정의 위반은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도 적대행위를 한국 국경(frontiers of Korea) 내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sup>78)</sup>라고 경고하였다.

대제재 선언에 서명한 각국의 대표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펀더(Percy C. Spender), 에티오피아의 테세마(A. Tesemma), 네덜란드의 로이젠(H. Van Roijen), 터키의 에르킨(Feidun C. Erkin), 벨기에의 실베르크루스(Silvercruys), 프랑스의 보넷(H. Bonnet), 뉴질랜드의 문로(L. K. Munro), 남아공화국의 주스테(G. P. Jooste), 캐나다의 룡(H. H. Wrong), 그리스의 폴리티스(A. G. Politis), 필리핀의 감보아(Melquiades J. Gamboa), 영국의 매킨스(Roger Makins), 콜롬비아의 레스트레포(Cipriano Restrepo J.), 룩셈부르크의 갈레(Hugues le Gallais), 타이의 사라신(P. Sarasin), 미국의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 등이었다.<sup>79)</sup>

## 2. 제네바 정치회담

### 가. 회담 배경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6·25전쟁

7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92.;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p.2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1945-1980』 제1집, 676-677쪽.

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1945-1980』 제1집, 1981, 676-677쪽.

은 3년간의 열전(hot war)을 치른 끝에 휴전이 되었으나, 유엔군과 공산군 측의 적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단지 군사적으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지 않고 휴전하였을 뿐이었다.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는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 3개 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완전한 정전협정을 보완해서 정치회담을 통해 통일을 모색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러한 구상은 이미 1950년 말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철수한 시점에, 당시 유엔 총회 의장이었던 엔테잠(Nassrollah Entezam) 이란 외상, 라우(Benegal Rau) 인도 대표, 피어슨(Lester Pearson) 캐나다 대표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우선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정치회담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한 데에서 시작되었다.<sup>80)</sup>

정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협정 체결 10일 뒤인 1953년 8월 7일,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회담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총회에 보고하였다. 유엔에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전협정에 규정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회담에 대해 토의를 실시하였다.

정치회담문제와 관련한 협의로 덜레스(John F. Dulles) 미 국무장관이 1953년 8월 4일 한국을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네 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한국통일 방안을 비롯하여 앞으로 개최될 정치회담에서 취할 한미공동 정책문제,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및 군사원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토의하였다. 회담결과 한미 양국은 1953년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는 동시에, 향후 90일간의 정치회담에서 모든

80) 라종일, 『제네바 정치회담에 관한 연구』(서울: 일해연구소, 1988), 6쪽.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국은 정치회담에서 탈퇴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953년 8월 17일 유엔 임시총회에서 다룰 최대의 과제는 한국 문제를 해결할 정치회담 개최였다. 유엔 임시총회에서는 주로 정전협정의 이행과 협정문(제4조 제60항)에 의거한 정치회담 문제를 논의하였다.



유엔 총회, 정치회담 결의 모습(1953.8.28, 유엔 미디어)

정전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협정 조인 후 3개월, 즉 1953년 10월 27일 이전에 정치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회담의 성격이나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유엔 임시총회에서는 개회 첫날부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8월 17일 첫 회의에서 유엔 참전 16개국은 격렬한 논의 끝에 ‘정전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한국에 파병한 유엔회원국 중 원하는 국가는 정치회담에 참석하여야 하며, 유엔의 한국 원조 및 부흥계획에 공헌하도록 호소한다.”는 내용이었다.<sup>81)</sup> “미국 정부는 유엔 참전국 가운데 정치회담 참가를 희망한 국가들과 협의 후 만족하게 여기는 장소

81) 「정전협정 이행에 관하여 유엔에 제출한 유엔한국파병단 결의안」(1953.8.18.),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4년지』, C110쪽.



에서 1953년 10월 27일을 넘지 않는 적절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정치회담을 개최하도록 상대측과 절충하고, 유엔사무총장은 만약 양측이 동의한다면 정치회담 개최에 대해서 가능한 한의 조력과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것이다.

이어서 1953년 8월 28일 제7차 유엔 총회에서 정전협정의 체결을 승인함과 동시에 협정 제4조 60항에 의거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의 개최를 환영하면서 남한과 더불어 16개 참전국가 등의 참여를 권고하였다(711-VII). 이 결의안은 정전협정 제60항의 규정이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소련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를 권고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국과 북한에 이 제안을 전달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 결의안은 정치회담을 1953년 10월 28일 이전에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 나. 제네바 정치회담의 경과 및 결과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양측은 치열한 전쟁을 겪은 직후여서 협상을 통해 어떠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어려웠다. 유엔 참전국은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적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한국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산 측이 남북한 동수로 구성된 전국 선거위원회에 의한 총선거 실시와 유엔군 철수를 주장해,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김일성은 정치회의 소집의 중요한 목적이 조선에서 외국 군대 철거 문제라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승만과 더불어 남한에 미군의 영구 주둔과 정전협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하였다.

유엔 임시총회로부터 한국문제 정치회담 개최를 위한 공산군 측과의 교섭을 위임받은 미국은 9월에 접어들자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정치회담을 서두

르게 되었다. 미국은 먼저 ‘정전협정 제60항과 1953년 8월 28일자 정치회담 추진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제711호’에 따라 관계 각국 정부대표 간의 고위급 정치회담이 개최되기에 앞서 예비회담의 개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9월 19일과 23일, 미국은 2차에 걸쳐 공산군 측에 “정치회담을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또는 제네바 중에서 1953년 10월 15일에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즉시 회담 준비에 착수하자”라고 제의하였다.<sup>82)</sup>

그러나 공산군 측은 2주일이 넘도록 이에 대한 아무런 태도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10월 8일, 다시 공산군 측의 태도 표명을 촉구하는 각서를 공산군 측에 보냈다. 이를 후인 10월 10일, 중국은 정치회담 소집을 토의하기 위해 판문점에 대표를 파견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이후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회담의 의제, 장소, 시기, 참가국 등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1953년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정치회담의 준비회담을 개최하였다. 하지만 예비회담은 인도, 소련, 파키스탄 등 중립국 참가 여부와 회담장소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양측은 끝내 소련의 참가자격 문제에 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문제는 베를린 4상 회의를 거쳐 제네바 극동평화회의로 이관되게 되었다.

판문점 예비회담이 결렬되기 직전인 1954년 1월 25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통일문제에 관하여 토의하기 위해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4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외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다. 동서 베를린을 왕래하면서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국과 인도차이나 문제도 아울러 거론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거의 모든 의제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가까스로 5개국 회의 문제에만 합의를 이루었다. 폐회 전날인 1954년 4월 18일 4개국 외상회의에서 “4월 26일 제네바에서 중국을

82) 「정치회담계획에 공산 측 의향을 재 타진하는 미국의 각서」(1953.9.1.),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쟁 4년지』, C136-C137쪽.

포함한 5개국과 관계 제국이 회합하여 한국 통일 및 인도차이나 휴전 문제를 토의하는 아시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sup>83)</sup>

베를린 회의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제네바 정치회담에 소련이 주최국의 하나로 격상된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제네바 정치회담 참가를 거부하면서, 한국의 동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는 유엔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였다.<sup>84)</sup>

그러나 유엔 참전국들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델레스 국무장관을 미국 대표로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 회담에서 한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참가를 종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3개월 기한부로 변영태 외무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제네바 정치회담은 1954년 4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한국과 유엔군 파병 15개국과 북한, 소련, 중국 등 19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렸다. 회담은 1954년 7월 21일에 폐막되기까지 총 15회의 전원회의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4대 강국과 남북한 그리고 중국이 참가하는 1회의 제한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미 전쟁 중 유엔에서 북한과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했으나, 종전에 이르지 못하고 휴전에 그치는 상황에서 소련이 포함된 회담 진행은 어려웠다. 양측은 정치 회담에서 여전히 이념적 승리나 우위를 획득하려 하였다.<sup>85)</sup>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표면적으로는 자유선거를 위한 의회 구성, 외국

83) 국방부 전편위, 『미합동참모부사 한국전쟁』 하, 450쪽.

84) 국방부, 『한국전란 4년지』, C46쪽, C52-C53쪽.

85) 라종일, 『끝나지 않는 전쟁』, 267쪽; Martin Hart-Landsberg, *Korea: Division, Reunification, and U.S. Foreign Policy*(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98), p.134.

군 철수, 선거공정성을 위한 국제감시 등의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한 제의를 하였으나 유엔 권위와 선거방식 등을 놓고 철저히 대립하였다. 즉 자유진영 측의 기본입장은 한국 문제를 다룰 유엔 권위를 인정하고 통일한국 정부는 유엔감시 아래 자유선거를 기초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공산측은 그동안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모든 결의안이 불법적인 것으로 무효이고 제네바 회의는 유엔과 무관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유엔 밖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sup>86)</sup> 또한 공산측은 한국의 통일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그 논의를 전쟁포로교환, 정전협정의 준수, NATO문제와 유럽집단안보문제, 중국의 유엔 대표권 문제, 아시아 평화문제로까지 확대시키려 하였다.

정치회담에서 남한은 유엔감시 아래 선거 실시와 선거 이전 중공군의 완전 철수를 내세우면서 유엔군 철수는 통일 정부가 전 한국에 대한 완전통치를 달성하고 이를 유엔이 확인할 때 완료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1954년 6월 15일 남일 북한 외상은 정전 상태로부터 공고한 평화에 이행을 위해 외국군대를 철군시키고 남북 군대 규모를 10만 명이 넘지 않도록 축소하며, 쌍방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며 남북조선을 물론하고 다른 국가들 사이에 군사적 의무와 관련되어 조약체결 반대 등 6개항을 제안하였다. 중국 측도 북한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sup>87)</sup> 그러나 휴전 직후 공산군 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있을 때, 북한 측이 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반대 등을 내세워 정치회담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공산 측은 남한 인구가 2,000만 명이 넘는데, 북한의 경우는 800만 여 명에 불과해서 선거 방식에 동의하려 하지 않았다. 이미 회

86) 김영식, 「제네바회의와 냉전체제, 김영작 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서울: 집문당, 1998), 141-145쪽.

87) 「남일 외무상 연설」, 『교원신문 1954.6.21.』; 김해철, 「통일문제의 정책사적 고찰 평양: 평양출판사, 1989, 108쪽; 「在日內瓦會議上關於朝鮮問題最後會議上的發言」 1954. 6.15., 『주은래외교문선』, 76-79쪽.

담 전에 북한 주재 헝가리 대사는 소련 측으로부터 제네바회담에서 특별한 성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암시를 받았다.<sup>88)</sup>

결국 회의에 불참한 남아공화국의 동의 아래 유엔참전 16개국은 1954년 6월 15일, “유엔은 그 현장에 의거하여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공동작전을 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여 한국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높은 과업을 확장할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유엔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대표자가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진정한 자유선거를 한국에서 시행한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1953년 8월 28일의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동안의 회담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유엔 총회에 보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참전 16개국 공동선언에 대해, 중국 대표가 한국의 평화확보에 관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7개국(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북한, 중국, 소련)이 참가하는 비밀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유엔군 측 대표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맞서 공산측도 유엔군 측 16개국의 공동선언을 거부하였다.

결국 1954년 4월 26일에 개최되어 7월 21일에 폐막되기까지 87일간에 걸쳐 양측이 설전으로 일관한 제네바 정치회담은 중심 의제인 한국의 통일 문제에는 아무런 결실 없이 공동합의문도 채택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이제 한국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 3.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활동과 남북한 대결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할 무렵인 1950년 10월 7일 신한국위원단의 보

88)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March 12, 1954(<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net/113393>, 검색일: 2015.6.27.).

고서에 의한 제5차 유엔 총회 결의로 창설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은 전한국의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함에 있어서 유엔을 대표하는 기구였다. 통일부흥위원단은 전쟁 중 일부 지방의 산업경제 실태를 시찰하기도 했지만, 한국재건단과 구분해서 정치면을 다루기로 역할을 분담해서 한국과 유엔을 연결하였다.

통일부흥위원단은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터키 등 7개 국으로 구성되어 이전 한국위원단이 수행해 온 기능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세를 매년 유엔 총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위원단에 연락장교를 임명했고, 1951년 5월 하순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도 부흥위원단과 연락을 위해 미 8군 부사령관을 연락장교로 임명하였다.<sup>89)</sup> 1953년 3월 9일 소련은 부흥위원단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한국인들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전후에도 '한반도를 투시하는 유엔의 눈'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기를 기대하였다. 위원단이 매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한국문제 연례보고서는 유엔 총회의 의제로 자동 상정되었다. 그러나 통일 결의안을 통과시켰어도 그 결의를 실행시키지 못하였다.<sup>90)</sup>

각 회원국 대표는 주한 대사가 겸임하고 초기에는 경제부흥과 피난민구제 사업을 맡는 제1위원회, 북한실태를 조사하는 제2위원회, 시찰단, 특별단 등이 있었으나 정전 후 모두 없어지고 1개의 위원회를 유지하였다. 이들은 38도선 이북을 출입할 수 없어서, 통일 추진 기능은 구조적으로 미진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정·부통령선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참관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89)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국,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1951, 1952, 1953)』, 19쪽.

90) 『유엔 한국 외교와 외교관: 이시영』, 46쪽.



유엔 총회에 참석한 언커크 대표(1953.8, 유엔 미디어)

남북한의 대립은 유엔 총회장에서의 정치적 공방과 세 대결로 이어졌다. 제네바 정치회담이 끝난 직후인 제9차 유엔 총회는 1954년 12월 결의문(제 811(IX)호)에서, 한국에서 유엔의 목적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대의제 정부 형태로 통일, 독립된 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임과 이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듬해부터 유엔에 가입 신청을 했고, 1956년에는 전국적으로 유엔가입 호소 서명운동을 전개해 1,200만 명이 서명하여 한국의 유엔가입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하였다. 이듬해에는 유엔 가입 추진 국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유엔가입안이 대다수 결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가입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의 유엔 가입은 ‘비원(悲願)’이라고 할 만큼 절실하였다. 1961년 군사정변 시에도 6대 공약 가운데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sup>91)</sup>

그러나 북한 김일성이나 공산 측은 6·25전쟁을 치르면서 유엔을 미국과

91) 이재석·김은경 편, 『5·16과 박정희 근대화노선의 비교사적 조명』(선인, 2012), 29쪽.

동일시 하였다.<sup>92)</sup> 김일성은 통일의 기본방침은 “남한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유엔이든 무엇이든 외세의 간섭을 추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군의 남한 주둔과 미국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은 우리 조국 통일의 근본장애이므로,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93)</sup>



유엔가입 추진 국민총결기 대회(1957, 국가기록원)

그러나 1960년대에는 유엔을 서방 진영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에 유리하였다. 당시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제출되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연례보고서가 자동적으로 차기 총회 의제에 포함됨으로써

92) 조한승, 「유엔기구의 대 북한 접근의 시사점」, 『통일문제연구』 26-1, 2014, 38쪽.

93) 「워싱턴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회답서한」 1967.1.4., 『김일성 저작집』 21: 『조국은 반드시 우리 세대에 통일되어야 한다』 조국통일사, 1970, 34쪽.



한국문제를 매년 토의하게 되었다. 이때 대결의 초점은 주로 유엔 감시 아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기본으로 하는 서방 측 결의안에 대한 지지와 공산권과 비동맹그룹의 주한미군철수, 유엔한국위원단 해체, 유엔군 사령부 해체 등에 대한 지지 여부였다. 대부분의 경우, 서방측이 제안한 유엔의 남북통일 원칙과 위원단(UNCURK) 유지안이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유엔 총회 회의장은 매년 한국문제에 관한 지루한 정치공세를 주고받는 장소가 되었다.<sup>94)</sup>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신생 아프리카 국가의 대규모 유엔가입에 따라 유엔 내의 세력 분포가 변화하면서 서방 측의 득표 활동이 상당한 외교력의 소모를 가져오고, 한국문제의 연례 토의가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총회는 1968년 12월 한국문제의 연례 ‘자동상정’을 피하고, 통일부흥위원단은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재량상정’ 방식을 채택(결의문 제2466호)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북한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외국군 철수, 언커크 해체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더욱이 1971년 타이완 대신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서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 결과 1973년 유엔 총회에서는 “언커크의 한국 주재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언커크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북 간의 표대결 없이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을 촉구하고 위원단을 해체하자는 내용에 합의하였다.<sup>95)</sup> 이로써 1973년 12월 28일 23년간 존속해온 위원단은 임무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미 통일부흥위원단 구성국 7개국 가운데 칠레가 1970년 11월 탈퇴했고, 1967년 8월부터 회의에 불참한 파키스탄이 1973년 2월에 탈퇴하였다.

1974년 12월 18일 제29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촉진

94) 김승만, 「언커크 해체건의와 그 업적」, 202쪽; 『유엔 한국 외교와 외교관: 이시영』, 46쪽.

95) 김근식, 「북한의 유엔 외교」, 『국제정치논총』 41-4, 2001, 94-95쪽.

을 위한 남북한 간의 대화 계속'을 촉구하는 서방 측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국 측은 북한을 누른 완벽한 승리라고 주장하였다.<sup>96)</sup> 이듬해 1975년 12월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서방 측이 남북대화 촉구하고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협정개시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제3390호 A)은 142개 회원국 가운데 59 대 51, 기권 29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공산 측이 제안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미군 철수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54 대 43, 기권 42로 통과하였다.

유엔에서 이러한 남북한 '대결외교' 속에 1983년 10월 미얀마 랭군 암살 폭발사건이 발생하자 45개국이 유엔 총회 법률위원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과 1987년의 KAL 858기 사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만 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 초 소련 및 구 동구권이 붕괴되기 전까지 유엔은 냉전 무대화하였다. 북한과 공산 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유엔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쿠르트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평양 방문  
(1979.5.2, 유엔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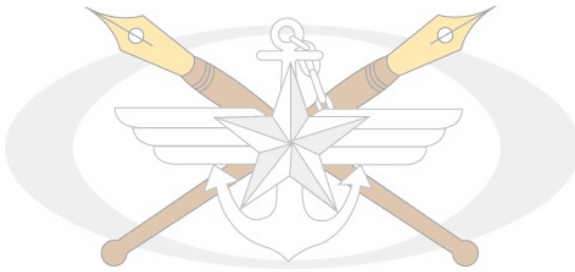
유엔은 전문기구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인권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지만,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 시기에는 유엔이 문제해결 무대보다는 설전장이 되어 분쟁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sup>97)</sup> 이미 1973년 10월 24일 유엔의 날 행사에서 김종필 총리가 대독한 기념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궁극적인 책임은 민족 자신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유엔노선의

96) 『경향신문』 1974.12.18.

97) 『동아일보』 1979.9.18.; 외무부, 『한국외교30년』, 201쪽.

충실만이 조국통일을 가져 온다는 전쟁 직후 입장과는 상당한 변화였다.<sup>98)</sup>

한반도 안보와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문제이면서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1979년 5월 초 발트하임(Kurt Waldheim) 유엔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처음 북한을 방문한 후 이어서 한국을 찾았다. 그는 유엔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최대한 지지할 것을 선언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 재개문제와 제3자로서 유엔의 중재 역할을 모색하였다. 그는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 자신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은 유엔의 중재역할을 거부하였다.<sup>99)</sup>



98) 정일형, 「유엔을 통한 남북통일」, 64쪽; 『동아일보』 1973.10.24.

99) 『경향신문』 1979.5.3., 25; 『동아일보』 1979.8.22.

1. 전쟁 시기 유엔 역할에 대한 평가
2. '끝나지 않는 전쟁' 과 유엔의 역할





## 맺음말

### 1. 전쟁 시기 유엔 역할에 대한 평가

1948년 12월 12일 파리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결정함으로써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 한국인은 유엔(국제연합)이 장래 전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소련과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인은 커다란 충격과 좌절을 겪었다.

다행히 당시 국제사회에서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약소국이었고 유엔 회원국도 아닌 참관국에 불과한 한국에 대해 절대 다수의 국가가 신속하게 개입하는데 동의하였다. 군사적 지원은 물론 전재민 구호 및 전후 복구활동을 지원한 그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재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첫 단계로 1950년 6월 25일(뉴욕 시간)에 미국이 제의한 ‘공산침략행위 정지요청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문은 북한의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로 인정하고 양국 군의 즉각적 정전과 북한군의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남침을 계속하자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7일(현지 시간)에 다시 회의를 개최, 8시간의 논의 끝에 2단계 제재조치인 ‘한국원조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하여 무력공격을 격퇴하기에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제공하도록 가입국에 ‘권고’하였다.

이어 7월 7일에는 6월 27일의 결의에 따라 군대 등의 원조를 제공한 가입국이, 그 원조를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사용에 제공할 것을 권고했고, 미국에 사령관의 지명을 요청했으며, 통합사령부의 유엔기 사용을 인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안보리결의(‘6·25결의,’ ‘6·27결의,’ ‘7·7결의’)는 유엔이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국제평화 파괴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가하여 평화를 회복하려는 최초의 집단안전보장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는 물론 자유진영의 동맹군이라는 성격을 띠었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의 군사지원은 미국의 참전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전쟁 초기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해·공군이 참전하였고, 7월 말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할 무렵에는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의 해·공군도 참전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이 한·중 국경선에 진출하는 동안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터키, 인도, 태국, 그리스도 참전함으로써 12월 말에는 참전국이 14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유엔군의 참전은 해를 넘겨 1951년에도 계속되었는데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노르웨이 등 6개국에 이어 11월 유엔의 비회원국인 이탈리아의 참전으로 일단락되었다. 그야말로 유엔은 한국의 벗이 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자유를 위한 우리의 최고 희망은 유엔(Our best hope for freedom is UN)’이라고 여겼다(1951년 10월 유엔의 날 행사).

유엔군으로 참전한 국가 중 일부 영연방국가의 부대를 제외한 대다수의 부대들은 미군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 참전국의 병력 구성 비율이나, 유엔군의 작전이 미군의 통제 아래 실시되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6·25전쟁 기간 중 유엔군 측의 전쟁 수행은 미국이 주도하여 진행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병력의 규모가 아니라 이 전쟁이 유엔의 단일 깃발 아래 평화 회복을 위해 수행된 최초의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투 및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21개 국가 외에도 39개국이 물자를 지원하여 모두 60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하였다. 이는 당시의 국제사회가 93개국의 독립국가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가운데 유엔 회원국은 61개국<sup>1)</sup>에 불과하였음을 고려하면, 전 세계에서 65%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한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구호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 것이다.

이들 전투부대 파병 및 의료지원국가를 포함한 총 60개국은 전쟁 시기에 전재민 구호 및 전후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제1위권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후에도 정전체제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참전 및 지원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엔군의 참전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고 대한민국을 회생시켜 평화의 수호자가 되었다. 유엔군은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미군의 작전통제 아래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를 오르내리면서 생소한 지형, 상이한 기후조건 등을 극복하고 북한군에 이어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군 141,000여 명과 기타 참전국에서 14,000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전쟁 중 부산 당곡동에 조성된 ‘유엔기념묘지(현 유엔기념공원)’에는 영국군 885기, 터키 462기, 캐나다 378기, 호주 281기 등 모두 11개국 2,300기가 안장되어 있다. 이러한 희

1) 이 숫자는 전후 한국재건단이 존속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던 1958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



생을 토대로 자유진영은 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표 6-1〉 유엔군 전사자 현황

(단위 : 명)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36,574 (비전투 사망 포함)	1,108	891	516	340	269
콜롬비아	그리스	태국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필리핀
213	187	136	124	122	113 (중군기자 1명)
벨기에	뉴질랜드	남아공	룩셈부르크	계	
106	45	37	2	40,787	

비고 : 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imhc.mil.kr>)을 기초로 하여 새로 확인된 내용을 보완하였음.

나. 참전국가의 인명피해는 6·25전쟁 기간 동안(1950. 6. 25~1953. 7. 27)에 한반도 내에서 발생한 피해만을 산정 기준으로 하였음. 터키는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실종인원을 전사/사망에 포함하였음.

다. 전쟁기념관에서 2015년 전사자 명비를 정비하면서 참전국의 협조를 받아 일부 수정했음.



유엔기념공원 모습(부산 대연동, 1953, 주한 스웨덴대사관)

둘째, 유엔군의 참전은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을 통해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를 떠나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유엔이 평화수호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유엔은 북한 공산집단이 불법남침을 개시하자 많은 유엔 비평가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조기에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을 지체 없이 결의하였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해 16개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였고, 또 의료 및 물자지원국, 150개 이상에 이르는 국제기구 및 단체가 각종 비군사적 지원을 하였다. 이는 경이적인 성과이면서,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원칙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셋째, 스웨덴·인도·덴마크·노르웨이·이탈리아 등의 의료지원부대의 활동은 전상자 치료와 민간인 진료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기술 향상은 물론 낙후된 의료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초석이 되었다. 의료지원부대들은 참전기간 의료진의 숙련된 기술과 훌륭한 시설, 희생정신 등으로 6·25전쟁에서 많은 인명을 구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의사, 간호사, 그 외 의료기술자들에게 마취기술, 한국에서는 생소한 분야인 성형외과 수술기술, 방사선 촬영 등 새로운 의술의 전수는 물론 병원 운용에 대해서도 지도해주었다. 동시에 이들은 피난민들의 영양 실조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안질, 결핵 등을 퇴치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결핵 퇴치를 위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BCG 접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3개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은 국립의료원을 개원함으로써 한국의 보건역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의료지원부대는 그들의 선진 의료기술의 전수는 물론 다량의 의약품과 의료기재를 기증함으로써 낙후된 한국의 의료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넷째, 한국은 전쟁으로 국민들의 생활 터전과 사회경제체제의 기반이 황폐화되었으나 유엔의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

었다.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희생되고, 340만의 이재민과 10만여 명의 전쟁고아 그리고 남북한을 합쳐서 1,000만 명에 가까운 이산가족이 생겼으며, 한국에서만 60여만 호의 가옥을 비롯한 도로, 철로, 교량, 항만, 산업시설이 파괴되었다.

전쟁 이재민에 대한 구호정책은 유엔군사령부의 유엔민사원조사령부에 크게 의존하였다. 특히 생필품 공급은 유엔회원국의 전적인 원조를 필요로 할 만큼 긴급문제로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식량, 의류, 연료 및 의약품이었다. 또한 피난민의 문제는 한국경제에 막심한 부담을 지우고 있었으며 민간원조 소요량의 끊임없는 재검토, 재평가를 요구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이에 유엔민사원조사령부는 필요한 원조물자의 도입은 물론 피난민 구호 및 재정착사업, 수용시설·의료시설·교육시설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전쟁 발발 이후 유엔을 통한 공적 원조가 마무리된 1958년까지 한국의 전재민 구호와 전후 재건을 위해 유엔의 전문기구는 물론이고 다양한 비정부 기구와 함께 최소 150개 이상의 자발적인 봉사기관 및 단체가 물자나 현금, 전문 인력을 지원하였다. 한국 정부가 6·25전쟁 기간 중에 미국 및 유엔으로부터 받은 원조의 총액은 약 4억 7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원조는 식료품, 의류, 농업용품 등 소비재가 주종을 이루어 전재민들을 기아와 질병에서 구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섯째,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원조로 북한과 공산군의 침략을 물리치고 지난 60여 년 동안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최근에 한국을 찾는 유엔참전 인사들은 전쟁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totally different) 모습에 감격해 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일어나 2014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내 총생산(GDP) 기

준으로는 세계 13위권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여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려 자유를 수호한 유엔 참전 전몰장병의 고귀한 희생과 의료 및 물자지원을 해 준 44개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 2. ‘끝나지 않는 전쟁’ 과 유엔의 역할

6·25전쟁은 유엔군과 공산군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기까지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로써 유엔은 6·25전쟁에서 ‘침략의 격퇴’에 그쳤고 ‘한반도에서 통일·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이라는 목표는 이룩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전쟁은 남북한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전(終戰)’이 아닌 전투행위의 증지만을 뜻하는 ‘정전(停戰)’의 상태로 마무리함으로써,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국제적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해 전후에 본격화하였던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 간의 양극적인 냉전체제는 6·25전쟁을 계기로 더욱 고착화되었으며,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었다. 6·25전쟁은 한국의 안정 없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전쟁 후 60년이 넘도록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된 채로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전후에도 참전국이 대부분 철수함으로써 유엔군사령부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유지, 관리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

국감독위원회 등이 크게 약화되었다.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의장, 전문기구 등에서 유엔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혹은 침략행위 등에 관한 강제조치 조항(39~50조)에 근거하여 세계 각지의 분쟁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부과해왔다. 특히 1991년 남북한의 유엔 가입 후, 유엔에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 핵개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해결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미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이후 본격화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독자적인 모색과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추진 등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1993년 5월 11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 2004년 결의 1540, 2006년 7월 16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결의 1695, 2006년 10월 15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따른 제재결의 1718호 등을 조치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 6일 의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1996년 4월 11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의무포기 선언에 대한 비무장지대 도발 문제를 긴급 의제로 채택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한 북한 당국에 정전협정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같은 해 9월 21일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유엔 주재 북한 대사에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22일 북한 인민무력부에서는 무장공비 관련 사건은 정상적인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좌초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안보리는 1996년 10월 15일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전협정이 준수될 것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안보리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양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성명에 중국도 동의하였다.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이라크 등에 핵

안전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하였다.

또한 유엔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3년 4월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이 상정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후 2004년 4월 제60차 인권위원회, 2005년 4월 제61차 인권위원회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인권문제 등에 대한 이러한 유엔의 거듭된 결의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중국과의 연계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안보리의 제재에 대한 이행은 다자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달려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은 전쟁 시기 한반도 개입을 자신의 안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이해하면서 여전히 한반도에서 그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 특히 한국 자체가 아닌 미국에 의한 위협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강국에 대해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sup>2)</sup>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를 기대하였다. 1956년 10월 24일 ‘유엔의 날’ 행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유엔은 평화수립의 기관’이라고 외쳤다. 사실 가장 의욕적인 강대국 협조체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 그러나 강대국의 갈등 속에 개별 국가의 국익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단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이 잦아서 그 역할이 해가 석양에 기우는 것처럼 비유되기도 하지만, 유엔은 여전히 세계 평화를 확보하고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중심기구로 활동하고 있다.<sup>3)</sup>

2) 박홍순, 「북한 핵 위기와 유엔의 역할」, 90쪽; 도진순,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당대, 2001), 48-49쪽.

3) 「세계화와 한국의 안보전략」,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나남출판, 1996), 466쪽; Patrick Morgan(민병오 역), 『국제안보 : 쟁점과 해결』(명인문화사, 2011), 185-189쪽; 박수길, 『유엔외교 최전선에서』(오름, 2014), 27쪽; Thomas G. Weiss·David P. Forsythe, Roger A. Coate, Koelly-Kate Pease, *The United Nations and Changing World Politics*, pp.2-3.

따라서 전쟁을 함께 한 혈맹의 참전국을 비롯해 의료 및 물자 지원국가와 함께 유엔의 집단안보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 상태 종결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데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몽골이 넓은 영토와 초원이 공존하는 지형을 활용해 대규모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훈련장을 유치, 운영하는 것처럼,<sup>4)</sup>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화공원 건설과 함께 유엔 관련 기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 나아가서 국제 사회에 기여할 방안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넘어 ‘끝나지 않는 전쟁’ 상태인 정전체제가 끝나,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획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려 자유를 수호한 유엔 참전 16개국 장병, 의료 및 물자 지원을 해 준 44개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에 대한 고귀한 희생, 우정을 기억하고 있다. 1976년까지 유엔 창설일인 10월 24일을 국경일로 삼았다. 전쟁 중 영웅적인 전투정신을 발휘한 유엔 참전 장병에게 훈장과 표창장 등을 수여하고, 전후에도 영구히 기억하기 위해 참전국가의 주요 전투지, 의료지원국의 활동지에 많은 기념비를 세워 그 뜻을 기리고 있다.

2007년부터는 캐나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매년 11월 11일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부산 UN묘지를 향해(Turn Toward Busan) 현지 시간에 맞춰 동시 묵념 및 추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 유엔 장병의 중요성과 그들의 역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군 참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숭고한 뜻을 새기면서 ‘강한 유엔, 더 좋은 세계

4) 설인효, 「강대국 중·러에 둘러싸인 몽골의 외교안보 전략」, 『국방일보』 2015.10.29.

(Strong UN, Better World)’를 건설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유엔 회원국의 참전과 지지로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길목에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거니와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 ‘모범 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일이기도 하다.<sup>5)</sup>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장면(2013.7.27,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직접 무상원조를 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간접 지원하고 환경, 빈곤, 난민 등에 대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원조공여국이 되었다.<sup>6)</sup> 이미 한국은 1995년 2년 임기(1996~1997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였고,

5)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21세기북스, 2015, 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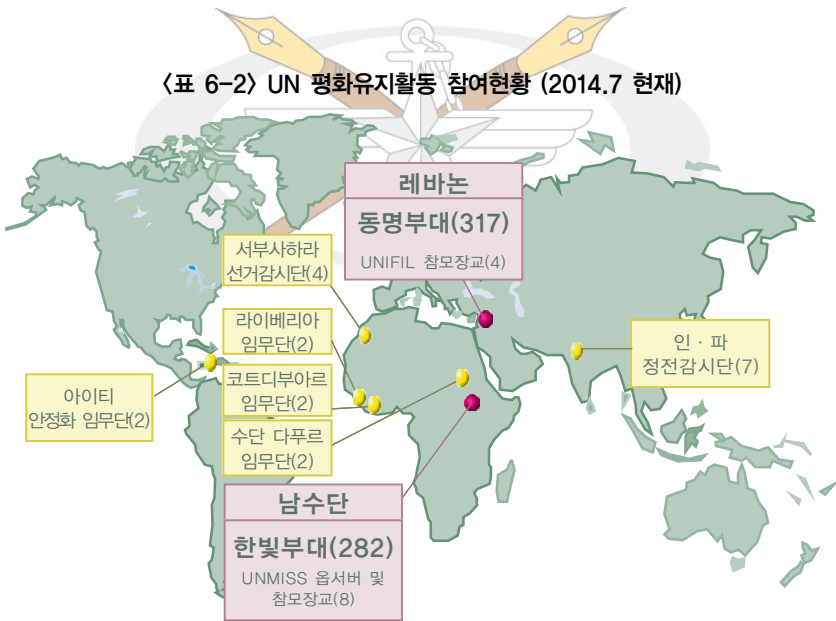
6) 송인엽, 『역사발전과 인류공영』, 지식과 감성, 2015, 453쪽.



2001년에는 제56차 유엔 총회 의장국으로 선출, 활동하였다. 2006년 10월 한국인으로는 처음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연임 중이다. 전쟁시 한국 구호와 재건에 힘썼던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1997~1999, 2001~2006, 2008~2013)을 거쳐, 2015년 7월에는 오준 주 유엔대사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1991년 9월 161번째로 유엔에 가입했지만, 유엔의 요청에 따라 전쟁 등으로 인한 정전 감시 및 치안 유지 등이 필요한 지역에 파병하는 평화 유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유엔은 1990년대 들어 내전, 지역분쟁 등의 증가와 더불어 PKO 활동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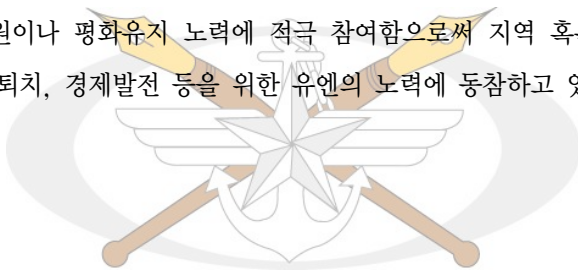
〈표 6-2〉 UN 평화유지활동 참여현황 (2014.7 현재)



1993년 한국은 소말리아에 처음으로 공병부대인 상록수부대를 파병하였다. 그후 한국은 앙골라, 동티모르, 서부 사하라 지역 활동에 참여하였고, 레바논 동명부대, 아이티 단비부대가 단위부대로서 활동에 참여 중이다. 그 밖

에도 한국은 여러 지역에 군사참관단(옵서버)을 파견하여 정전감시, 선거감시 활동 등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계 17개국에 연인원 11,000여 명의 장병을 파견하는 등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PKO 참여는 그간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법적인 근거는 2009년 12월 포괄적인 ‘UN PKO 참여법’으로 제도화했고, 2010년에는 해외파병 상비부대인 ‘온누리부대’를 창설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그 수립에서 6·25전쟁 수행, 전후 재건 활동 등을 통해 유엔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발전을 도모하여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은 한국은 유엔의 인도적 지원이나 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혹은 세계평화 유지, 빈곤퇴치, 경제발전 등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 자료

가. 논문

- 김근식, 「북한의 유엔 외교」, 『국제정치논총』 41-4, 2001.
- 김보영, 『휴전회담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상균, 「판문점」, 『판문점13년』(대한공론사, 1966).
- 김진우, 「6·25전쟁기 터키군 참전에 관한 연구 : 참전 동기와 군우리 전투를 중심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87호, 2013. 6.
- 문태준, 「한국전쟁이 한국의료에 미친 영향」, 『의사학』 9-2, 2000.12.
-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2.
- 박지욱,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 활동」, 대한 의사학회, 『의사학』 91-1, 2010.6.
- 박태균, 「6·25전쟁 기간 중 국제기구에 의한 한국원조의 현황과 그 특징」, 『6·25전쟁 60주년 3차년도 포럼 발표 논문집』, 국방부, 2012.
- 박현욱, 「북한·유엔 관계 분석과 전망」,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15년 여름.
- 양영조, 「6·25전쟁시 국제사회의 대한 물자지원 활동」, 『군사』 87, 2013.6.
- 유나영,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와 한반도 분단의 원인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55-2, 2015.
- 이승만 대통령, 「유엔 기념일을 당하여」 1950.10.24., 국가기록원.
- 제성호, 「한국휴전협정의 이행실태」, 『한국전쟁과 휴전체제』(집문당, 1998).
- 조한승, 「유엔기구의 대 북한 접근의 시사점」, 『통일문제연구』 26-1, 2014.

- 최봉현, 「판문점 일기」(미발간 수고), 1953.
- 홍용표, 「1954년 제네바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1, 2006.8.
- J.B. 콜타, 「한국산업에 대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원조」, 『국회보』 9, 1956.12.

## 나. 단행본

- 강성학, 『유엔과 한국전쟁』(리북, 2004).
- 공군본부, 『스트레이트메이저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 공군본부, 『UN공군사』상, 1975.
- 공군본부, 『UN공군사』하, 1978.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호주공군 6·25전쟁 참전사: MIG기와 싸운 조종사들』, 2015.
- 국가보훈처, 『6·25전쟁 콜롬비아군 참전사』, 2008.
- 국가보훈처, 『6·25전쟁 미군 참전사』, 2005.
- 국가보훈처, 『6·25전쟁 프랑스군 참전사』, 2004.
- 국가보훈처, 『네덜란드군 6.25전쟁 참전사』, 2010.
- 국가보훈처, 『미래를 향한 동반자 한국·벨룩스 : 벨기에·룩셈부르크군 6·25전쟁 참전사』, 2011.
- 국가보훈처, 『아테네의 후예들 : 그리스군 6·25전쟁 참전사』, 2006.
- 국가보훈처,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군 6·25전쟁 참전사』, 2012.
- 국가보훈처,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태국 : 태국군 6·25전쟁 참전사』, 2010.
- 국가보훈처, 『자유의 수호신, 한국과 필리핀 : 필리핀군 6·25전쟁 참전사』, 2009.

- 국가보훈처, 『형제의 나라, 한국과 터키 : 터키군 6·25전쟁 참전사』, 2007.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중, 하, 1995-1997.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1, 2004-2013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3, 20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200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60년사』(군사편찬연구소, 2013).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3, 2002-2005.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미 합참사 한국전쟁』 상-하(서울: 삼아인쇄공사, 1990).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금성전투』, 198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198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상, 하, 1990-199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198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양구전투』, 198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오산·대전전투』, 1993.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1983.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전투』, 199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전투』, 198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1988.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전투』, 1985.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평양탈환작전』, 198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198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휴전사』, 1989.
-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 1-4년지』, 1952-1955.

-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지』 1-5(국방부, 1951~1956).
- 국방부, 『한국전쟁사』 1-11, 1972-1980.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 1965.
- 권태영·노훈·박휘락·문장렬,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북코리아, 2014).
-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나남출판, 1996).
- 김계동, 『한국전쟁 불가피한 선택이었나』(명인문화사, 2014).
-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서울대출판부, 2000).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협상과 도전의 전략적 선택)』(명인문화사, 2012).
- 김명섭, 『전쟁과 평화』(서강대출판부, 2015).
- 김영자 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집문당, 1998).
- 김영호 외, 『6·25전쟁의 재인식』(기파랑, 2010).
-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 과정 휴전 영향)』(박영사, 2010).
- 남시욱, 『6·25전쟁과 미국: 트루먼·애치슨·맥아더의 역할』(칭미디어, 2015).
- 남정욱, 『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수밖에 없었을까』(한국학술정보, 2010).
- 노르웨이 한국 참전용사협회, 『NORMASH: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한 한국』(노르웨이대사관, 2013).
- 도진순,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당대, 2001).
- 라종일, 『끝나지 않는 전쟁』(전예원, 1994).
- 류제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책세상, 2013).
- 린다 파슬로(김형준·이진영 등 역), 『유엔리포트』(21세기북스, 2014).
- 마인섭·차문석·윤철기, 『북한 문제와 남남 갈등 : 기원과 전개』(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미치시타 나루시게(이원경 역),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한울아카데미, 2015).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군사편찬연구소, 2014.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2 (나남출판, 2003).
- 박수길 편, 『21세기 유엔과 한국 : 새로운 도전과 과제』(오름, 2002).
- 박수길, 『유엔외교 최전선에서』(오름, 2014).
- 박홍규 편저, 『UN』(서울: 형성사, 1991).
- 박휘락 · 문장렬 외, 『북한 핵 · 미사일 위협과 대응』(북코리아, 2014).
- 박홍순 · 조한승 · 정우탁 편, 『유엔과 세계평화』(오름, 2013).
- 백선엽,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구상』(군사편찬연구소, 2003).
- 백선엽,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월간아미, 2010).
- 서보혁, 『유엔의 평화정책과 안전보장이사회』(이카넷, 2013).
- 서중석 외, 『전장과 사람들 :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선인, 2010).
- 션즈화, 최만원 옮김,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선인, 2010).
- 손문식, 『UN군지원사』(국방군사연구소, 1998).
- 송인엽, 『역사발전과 인류공영』(지식과 감성, 2015).
-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한울아카데미, 2011).
- 알리 데니즐리 지음, 이선미 옮김, 『터키인이 본 6 · 25전쟁』,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2014.
- 앤드루 새먼 지음, 이동훈 옮김, 『그을린 대지와 검은 눈』(책미래, 2015).
-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선 충돌』(국방군사연구소, 1999).
- 에드완 베르고 저, 김병일 · 이해방 공역, 『6 · 25전란의 프랑스대대』(동아일보사, 1983).
- 온창일, 『안보외교론』 1(지문당, 2012).
- 외무부, 『한국외교 30년』(1979).

- 원태재, 『6·25전쟁 의료지원국 참전사』(보훈처, 2014).
- 윌리엄 스톡, 김형인 외 옮김, 『한국전쟁의 국제사』(푸른역사, 200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한국 유네스코 활동 15년사 : 1954-1969』(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9).
- 유병현, 『유병현회고록』(조갑제닷컴, 2013).
- 유영익·이채진 편, 『한국과 6·25전쟁』(연세대출판부, 2002).
-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푸른역사, 2012).
- 이시영, 『한국 외교와 외교관』(국립외교원, 2015).
- 이재석·김은경 편, 『5·16과 박정희 근대화노선의 비교사적 조명』(선인, 2012).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21세기 북스, 2015).
- 정병준,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돌베개, 2006).
-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정용욱·이길상편, 『해방 후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 13(다락방, 1995).
- 정일형, 『한국문제유엔결의문집』(국제연합협회, 1954).
- 조성렬, 『한반도평화체제』(푸른나무, 2007).
-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군사편찬연구소, 2014).
- 조성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군사편찬연구소, 2011.
-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선인출판사, 2010).
-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군사편찬연구소, 2008).
- 조정구(역), 『태국군 6·25참전사』, 2014(미발간).
- 중국군사과학원(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3, 군사편찬연구소, 2002-2004.
- 중앙정보부,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결의집(1946~1976)』(1977.4).
- 차경미,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전쟁』(한국학술정보, 2006).



- 청계천 문화관, 『보이지 않는 전쟁, 뼈라』(청계문화관, 2010).
-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1년』, 2012.
- 프란체스카 도너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기파랑, 2011).
- 하영선 · 김영호 · 김명섭 편,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성신여대출판부, 2005).
- 한표욱, 『한미외교요람기』(중앙일보사, 1984).
- 해군본부 역,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 해군본부,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 허동현, 『장면』(분도출판사, 1999).
- Kimon Skordiles, KAGNEW : The Story of the Ethiopian Fighter in Korea, 송인엽 옮김, 『강뉴 :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이야기』(오늘의 책, 2010).
- Michael T. Snarr, D. Neil Snarr(민병오 외 역), 『세계화와 글로벌 이슈』(명인문화사, 2014).
- Timothy C. Lim(김계동 역), 『동북아 정치 : 변화와 지속』(명인문화사, 2015).

## 2. 국외 자료

### 가. 사료 및 논문

- Carroll Scgin-Brincefield, “Doc: The Company Aide Man”, Victoria College, Univ. of Houston-Victoria Library, “Korean War Conference” June 24-26, 2010.
- DS, “Special Guidance on Korea, Nos. 3 and 4” June 26, Box 233/RG 330, 군사편찬연구소, HD 1871.
- Eighth Army, G-3 Journal, Summary, 27 January 51.

- “End Use of Welfare Goods”, Sep. 2, 1951, GQ, FEC, Supreme Command, “Letter of Instruction UNCAACK” 1951, RG 554, 국립도서관.
- GHQ, FEC & UNC, Command Report, Aug. 1953.
- GHQ FEC/UNC, “Command Report” 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563.
- GHQ, FEC & UNC, G-3 Operation Report, Jan. ~ Dec. 1952.
- Hqs, X Corps, “Battle of Chipy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Inclosure No. 1, p. 1, RG 407, Entry, No. 429, Box No. 1995.
- Hqs, X Corps, “Historical Summary of the G-3 Section Activities for the Period 0001 to 2400 Hours 14 Feb 51”(1951. 1. 15), Supporting Documents to Command Report: G-3 Daily Journal.
- Hqs, EUSAK, Command Report, Narration, Dec. 50.
- Hqs, US 2nd Inf. Div. Atry., Periodic Operational Report, No. 98, 1 Dec. 1950.
- Hqs. X Corps, Command Report, 1June to 30 July 1951.
- Hqs. X Corps, Command Report, 1June to 30 November 1952.
- Hqs. X Corps, Command Report, June 1953.
- Hqs. EUSAK, Command Report, Jan.~Dec. 1952.
- Hqs. EUSAK, Command Report, Jun. 1951.
- Hqs. EUSAK, Command Report, May 1953.
- Hqs. EUSAK, Command Report, Oct. 1951.
- Hqs.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and Eighth United States Army(Rear).
- LT. Col., Melvin B. Voorhees, 「한국전란과 지휘관들」, 군사편찬연구소, HC 325.

Mil Hist Det, 8086 AU, “The Surgical Hospital in Korea” April 1953, 군사편찬연구소, 「미 육군 6·25전쟁 연구분석 프로젝트」 1-7, 2015

“Program: CRIK-Program: UNKRA” 1958, 국사편찬위원회.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March 12, 1954(<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net/113393>, 검색일: 2015.6.27.).

“South Korea : From Aid Recipient to Doner”, Embassy of the U.S. Seoul Korea(검색일 : 2015.7.13.).

“UNICEF(1956 and 1957)”, 국사편찬위원회.

“UNKRA” Nov. 22, 1951, 국사편찬위원회.

U.S. Army Staff, Korea, UNKRA General, RG 319, 국립도서관.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8.

Young Sam Ma, “Israel's Support for South Korea through the UN”, *Israel Journal of Foreign Affairs* IV, 2010.

## 나. 단행본

Albert E. Cowdrey, *Medics' War*(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5).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50-1951 : they came from the north*,(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 A Distant Obligation*(London: HMSO, 1990).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An Honourable Discharge*(London: HMSO, 1995).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C.: CMH, USA 1990).

Cesar P. Pobre, *Filipinos in the Korean War*, Dept. of National Defense, Philippine Veterans Affairs Office, 2012,

Dept. of the Air Force,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 – 30 June 1952(Historical Division Air University, 1953).

Directorate of History and Heritage(DHH),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and the Korean War(Ottawa: Art Global, 2002).

E J McNair, *British Army Nurse In the Korean War*(The History Press, 2007).

Frances Omori, *Quiet Heroes*(Smith House Press, 2000).

Frank Gosfield · Bernhardt J. Hurwood, *Korea: Land of the 38th Parallel*(New York: Parents's Magazine Press, 1969).

Gabriel Jonsson, *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9).

Graeme S. Mount, *The diplomacy of war : the case of Korea* (Montreal: Black Rose Books, 2004).

Ian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 I, Politics and Diplomacy*(Auckland: Oxford Univ. Press, 1992).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The History and Lesson of Korea*(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9).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Washington D. C.,: U. S. GPO, 1962).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1950-1951, The Korean War Part One*(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CS,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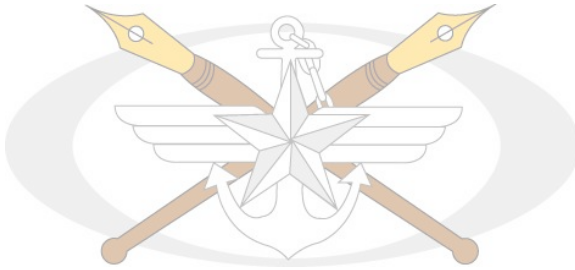
- James F. Schnabel, *Police and Direction*(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72).
-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CMH, USA 1988).
- James I.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N. Y.,: Greenwood Press, 1991).
- John J. Metzler, *Divided Dynamism: The Diplomacy of Separated Nations: Germany, Korea, China*(MD: Univ. Press of America, 2014).
- John M. Taylor, *General Maxwell Taylor*(New York: Doubleday, 1989).
- Les Peate, *The War That Wasn't: Canadian in Korea*(Ottawa: Esprit De Corps Books, 2005).
- Lt. Col., Herbert Fairlie Wood, *Strange Battleground : The Operations in Korea and Their Effects on the Defence Policy of Canada*(Ottawa: Queen's Printer and Controller of Stationery, 1966).
- Malcolm W. Cagle &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M.D.: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57).
- Narushige Michishita, *North Korea's Military-Diplomatic Campaign, 1966-2008*(N.Y.: Routledge, 2010).
- Nigel Thomas · Peter Abbott, *The Korean War 1950-1953*.
- Norman Bartlett, *With Australians in Korea*(Canberra: Australian War Memorial, 1954).
- Office of the Historian Bureau of Public Affair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Korea(Washington, D.C.: U.S. GPO, 1983).
-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The Contributions of 45 Member Countries*(Jeffers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13).

- Robert F. Futrell, Lawson S. Moseley, Albert F. Simpso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N.Y.: Van Rees Press, 1983).
-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 II, Combat Operations*(Canberra: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85).
- Roger Lipsey, *Hammar skjold : A Life*(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2013).
-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Washington, D.C.: U.S. GPO, 1986).
- Skand R. Tayal, *India and Republic of Korea*(N.Y.: Routledge, 2014).
- Stanley Meisler, *United Nations, A History*(New York: Grove Press, 1995).
- Stanley Meisler, *United Nations: A History*(N.Y.,: Grove Press, 1995).
- Thomas G Weiss · David P. Forsythe · Roger A Coate · Kelly-Kate Pease, *The United Nations and Changing World Politics* (Westview Press, 2013).
- Thor Thorgrimsson & E. C. Russell, *Canadian Naval Operations in Korean Waters 1950–1955*(Ottawa: The Naval Historical Section, Canadian Forces Headquarters,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1965).
-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 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2).
-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2005).

William Johnston, *A War of Patrols : Canadian Army Operations in Korea*(Vancouver: UBC Press, 2003).

William L. Newman, *After Victory: Churchill, Roosevelt, Stalin and the Making of the Peace*(New York : Harper & Row, 1967).

William T. Bowers and John T. Greenwood, *Passing the test : combat in Korea, April-June 1951*(Lexington, 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1).



● 찾아보기 ●

6·25결의	32, 33, 36, 59, 60	국가안전보장회의	50, 52, 59, 60, 65, 66
6·27결의	34, 35, 36	국립의료원	372, 389, 394, 415
7.13공세	277	국제난민기구	422
8월 공세	80, 86	국토완정론	23
9월 공세	80, 88	군사분계선	465, 467
Barbula작전	157, 159	군사정전위원회	462, 465, 466, 470, 471, 472, 473, 474
NORMASH	391		475, 479, 480, 505
PPCLI대대	131, 135, 186	군우리	194, 208, 209, 210, 213, 214, 216, 220, 269, 354
R22eR대대	137, 140	그루트	369
UN PKO 참여법	511	그리스대대	253, 255, 256, 257, 259, 260, 261, 262, 263, 267, 441
(ㄱ)		그린	173, 174, 298, 299, 303, 304
가평 전투	126, 128, 135, 167, 184, 187, 299, 324	극동공군	90, 114, 115, 118, 120
각흘봉	137, 138, 139	극동방위선	24
감악산	180, 182	근접항공지원	73, 85, 86, 115, 119, 120, 302, 316, 356
강뉴대대	340	글로스터대대	178, 179, 180, 182, 184
계이	86, 255	금굴산	180, 240, 241, 242, 244, 250, 271
결핵	452	기뢰제거작전	109, 110
경제사회이사회	6, 410, 510	김량장	136, 215, 216, 217, 255, 257
경제협력개발기구	509	김일성	23, 24, 25, 26, 27, 486
경제협조처	400	김종필	495
고왕산	127, 140, 167, 328		
공동감시소조	467, 470, 472		
공동경비구역	472		
공동적십자소조	449		
과테말라	416		
교황청	416, 418		





(ㄴ)

나부리 전투	127, 142, 149
나이르	380
낙동강 돌출부	81, 83, 84, 85, 86
낙동강방어선	81, 83, 84, 85, 86, 87, 88, 167, 188, 269
남아공화국	3, 47, 63, 192, 351, 361, 483, 488, 500
남일	489
납북자	461
네덜란드대대	98, 223, 224, 225, 226, 228, 229, 230, 231, 232, 234, 237, 439
노르웨이	28, 365, 387, 409, 500
노르웨이 육군 이동외과병원	391
뉴질랜드	62, 63, 89, 192, 321, 483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	129, 130, 185
니츠	36
니카라과	418
닉슨 독트린	435

(ㄷ)

다부동	80, 86, 87, 88
단장의 능선	102, 103, 104, 105, 194, 340
대결외교	495
대구파견대	378, 379, 380

대령강	173, 175, 177, 305, 306
대서양헌장	1
대우산	228, 229, 230, 231
대제재 선언	481, 483
대제재선언문	482
대청도	468
딜레스	483, 484, 488
덤바턴 오크스회의	2
덴 오우텐	223, 224, 226, 228
덴마크	46, 365, 500
도라	210, 211, 219, 220
도미니카	416
독일 적십자병원터 기념비	367
동상환자	370

(ㄹ)

란가라지	374
람스타드	390, 392
러스크	36
레바논	416
레바논 동명부대	510
로마넨코	9
로킹햄	124, 127, 135, 137, 139
로토이티호	332, 334, 335, 336
룩펠러 2세	4
루스벨트	2
룩셈부르크	54, 62, 237, 238, 251, 483
리지웨이	69, 178, 199, 215, 491

(口)

마량산 140, 299, 310, 311, 312,  
322, 327, 328, 329

마오쩌둥 24

만포진 449

말리크 30, 37

맥아더 9, 35, 38, 42, 44, 45,  
48, 60, 61, 66, 89, 109,  
115, 173, 353, 354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423

메논 14

모스크바 24

모스크바협정 10

무초 27, 482

무평리 94, 95

문경시멘트 415

문동리 103, 104, 105

뫼바이항 374

미 육군이동외과병원 366

미 육군제8085이동외과병원 366

미 제187공수전투단 177

미·소공동위원회 9, 10, 11

미그희랑 116, 117, 148, 359

미들섹스대대 129, 131, 132, 134,  
166, 173, 174, 175, 185,  
186, 307, 308, 325

민간구제단 413

밀번 69

(ㅂ)

박정희 495

박진나루 84

반공포로 448, 459, 460

반기문 510

발트하임 496

배너지 376

백두진 413

백령도 110, 146, 147, 190, 265,  
332, 335, 467, 468

백선엽 450

밴 플리트 69, 100, 106, 218,  
237, 259, 270

버크 131, 132, 185, 307,  
326

병커고지 67, 97, 98, 99, 100

베트남전쟁 435

벨기에 54, 62, 237, 238, 251,  
483, 500

벨기에대대 180, 182, 183, 238,  
239, 240, 242, 243, 245,  
247, 251, 271, 440

벽동 449

변영태 488

별고지 231, 232, 233, 234

볼리비아 418

봉암리 82, 182, 183

부산교두보 80, 90

부산스웨덴병원 372

북대서양조약기구 62, 395

북방경계선 469

북방한계선 467, 470, 479

북정령 253, 262, 263, 264

북한 인권결의안 507

불모고지 67, 153, 158, 159,  
160, 288

브라이언 467, 471

브라질	418
브로디	166, 169
브리온호	152, 163
비무장지대	459, 465, 467, 470, 480, 505, 506
비정부기구	423, 504

( 人 )

사미천	144, 310, 330
사세보항	109, 144, 152, 162, 187, 293, 323, 331
사창리	128, 129, 185, 309, 324, 325
사태리	103, 278
삼각고지	105, 106, 107, 108, 344, 345, 346
새츄레이트 작전	118, 359
샌프란시스코 회의	3
샤프	474
서독	366
설마리	167, 181, 182, 184
세계보건기구	421
소련	30, 62, 70, 487
소비에트화	26
소청도	468
손원일	450
송환거부포로	449, 453, 456, 457, 460
송환불원포로	455
송환희망포로	449, 450, 453
쇼다운작전	106, 108, 119, 359
수암산	86, 87

슈티코프	24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67, 75, 78, 120
스웨덴	367, 409, 453, 475, 477
스웨덴 적십자병원	368, 369, 371, 447
스웨덴 적십자사	368
스위스	453, 475, 477
스칸디나비아 3국	415, 503
스탈린	23, 24
스트레이트마이어	49, 72, 73, 356
스페인	419
시멘트	414
신둔리	177, 178, 179
신립리	211, 212
신성모	25
신정공세	110, 117, 178, 179, 198, 215, 355
신탁통치	8, 9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	460
썬더볼트작전	215, 255

( 〇 )

아길대대	166, 174, 175, 185, 304
아다바스칸호	123, 144
아스날 · 에리 고지 전투	274
아이젠하워	434, 482
아이티 단비부대	510
아일랜드	419
안전보장이사회	6, 7, 32, 65, 373, 506, 507
알몬드	69, 89, 195
알바니(Albany)	126

에치슨	24, 28	영연방국가	61, 165, 166, 167, 192
앤드류스	70, 172, 188	영유리 전투	302
야즈즈	207, 208	영홍만	72, 110
얼스터대대	178, 179, 241	오스트레일리아	40, 47, 89, 192, 297, 410, 418, 483, 500
에티오피아	3, 46, 47, 63, 338, 339, 351, 352, 445, 483, 500	오스틴	33
에티오피아대대	157, 340, 341, 344, 346, 349, 350, 351	오준	510
엔테잠	484	오키나와	72, 73, 300, 313
엘살바도르	416	온누리부대	511
역곡천	157, 159, 260, 287, 288, 340, 349	와스워드	482
연평도	468	와이오밍선	184, 218, 260, 271, 327
연평도 포격도발	474	요크 및 잉글고지	340, 346, 348
연해수역	468	우도	468
연해제도	466	우루과이	409
영국	35, 61, 62, 89, 165, 483, 500	우신초등학교	396
영국군 제27여단	125, 298, 299, 322, 375	우크라이나	17
영국군 제29여단	177, 178, 241, 330	워커	35, 42, 49, 52, 53, 54, 69, 86, 214
영등포	396	원산	369
영산	83, 84	월미도	90, 91, 92, 109
영양실조	451	웨이랜드	434, 450
영연방 제1사단	127, 140, 142, 143, 166, 327, 330	윙계	382
영연방 제27여단	129, 132, 135, 172, 173, 175, 177, 184, 185, 187, 299, 303, 325	유고슬라비아	30
영연방 제28여단	322, 329, 330	유네스코	427, 428
영연방 제29여단	179, 180, 184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428
		유니세프	425
		유답리	94, 95, 96
		유엔	1, 5, 8, 11, 60, 495, 496
		유엔 현장	4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426
		유엔국제아동긴급기금	424
		유엔군 참전의 날	508

유엔민사원조사령부 378, 388,  
398, 406, 504

유엔신한국위원단 17, 18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9, 60, 108,  
164, 165, 222, 297, 321,  
338, 351

유엔의 날 507

유엔평화유지활동 508

유엔한국위원단 15, 18, 29

유엔한국임시위원단 12, 14

유엔한국재건단 372, 388, 410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20, 39, 491

유틀란디아호 381, 383, 384,  
385, 446

율동 270, 280, 286, 287, 296

의정부 376, 391

이다쓰계 72, 114

이라크 419, 506

이탄 409

이로쿠아호 146

이상조 467

이스라엘 409

이승만 27, 53, 153, 397, 398,  
454, 482, 484

이시영 17

이준 16

이질 451

이탈리아 352, 365

이탈리아적십자병원 397

인도 46, 61, 192, 365, 373,  
449, 453, 487, 500

인천 판유리 415

인천상륙작전 67, 72, 86, 88, 93,  
109, 115, 125, 145, 171,  
188, 192, 234, 313, 331

임병직 19

(스)

자일리 전투 127, 139

жат골 247, 249

장면 27, 29

장승천 208, 217, 218

장진호 67, 93, 94, 95, 96, 97,  
253, 265, 359

장티푸스 409

장호원 376

저격능선 전투 67, 108

적근산 340, 341, 342, 349

적기병원 371

적성 전투 179

전채민 365

전쟁기념관 502

전쟁지도 52

정일형 16

정전체제 505, 508

정전협정 114, 120, 147, 148,  
149, 171, 190, 205, 220,  
236, 240, 250, 266, 280,  
295, 299, 319, 337, 340,  
352, 433, 434, 448, 449,  
453, 464, 466, 467, 470  
474, 479, 485

정치회담 458

제5공군 114, 115, 117, 118, 119,  
120, 253, 315, 354, 355,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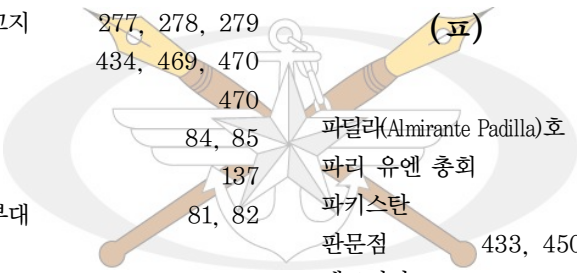
제60야전병원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코이아	395	테일러	69, 161, 434, 450
코트렐	428	토노(Capitan Tono)호	152, 162, 163
콜롬비아	46, 47, 54, 63, 150, 154, 156, 164, 483	토랏	453
콜롬비아대대	152, 153, 154, 156, 157, 158, 159, 160, 162, 437	통합군사령부	41
콜린스	42, 48, 89	투티라호	330, 332, 333
폴터	413, 416	트루먼	28, 34, 35, 42, 43, 48, 50, 59, 60, 65, 70, 108
쿠바	409	트리그브 리	28, 389
크로마이트작전	67, 89	티마야	453, 458
크리스마스 공세	94, 209, 210, 353, 354		
크리스마스고지	277, 278, 279		
클라크	434, 469, 470		
클라크 라인	470		
클로버고지	84, 85	파딜라(Almirante Padilla)호	152, 162
킨	137	파리 유엔 총회	499
킨특수임무부대	81, 82	파키스탄	61, 494
		판문점	433, 450, 455, 487
		패트리지	73, 353
		페이스특수임무부대	95, 96
		평화단결결의	39
		평화체제	478, 508
		폐렴	451
		포로송환	448, 449, 450
		포로송환위원회	448, 449, 472
		포로협정	453
		포르투갈	419
		포크참 고지	159, 283, 288, 289, 290
		폴란드	3, 453, 475, 477
		푸카기호	321, 330, 331
		퓨질리어대대	178, 179, 180
		프랑스	54, 62, 89, 192, 205, 483

(ㄷ)

타우포호	334, 335, 336
타이	483
타이완	61, 456
태국	61, 63, 281, 282, 283, 284
태국대대	283, 285, 287, 288, 290, 291, 442
태종대	365
터키	62, 206, 207, 221, 451, 483, 500
터키여단	207, 210, 211, 217, 218, 219, 220, 271, 273, 439



프랑스대대	98, 102, 104, 105,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4, 206, 438	한미회담	484
피의 능선	100, 101, 102, 103, 105	한중국경선	188, 354
피크봉	107, 108	함포사격	70, 109, 111, 152, 313
필리핀	54, 55, 61, 63, 72, 73, 268, 410, 451, 483, 500	해리슨	433
필리핀대대	182, 219, 269, 271, 272, 273, 275, 277, 279, 280, 442	해설	455
		핵확산금지조약	506
		혈	458
		헬리콥터	377, 386, 387
		호주	61, 62, 63, 297
		호주 아동구호기금	423
		호주대대	131, 132, 133, 135, 174, 175, 177, 185, 186, 306, 307, 310, 311, 312, 325, 326, 327
(ㅎ)		화살머리고지	194, 202, 203, 204
하갈우리	95, 96, 265	화이하호	332, 334, 336
하지	9	황해도	468
학당리 전투	245	황성전투	225, 228, 236
한·미의사록	461	후방차단작전	73, 111, 118, 354
한·중국경	125, 175, 313	후송병원	369
한국민간구제단	416, 425	후크고지	143, 167, 191, 299, 330
한국민간원조사령부	407	휴전선	433
한국해상방위수역	470	휴전회담	484
한미상호방위조약	434, 482, 484, 486, 489	홍남철수작전	67, 72
한미연합사령관	462	히긴스	70, 71
		힐특수임무부대	84,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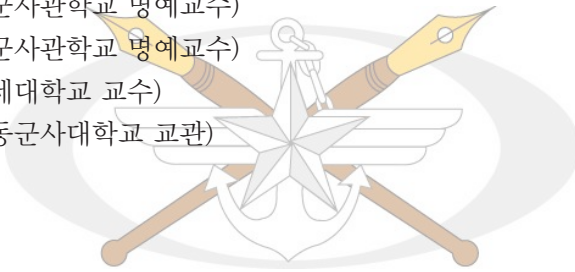


## 저 자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치학박사)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문학박사)  
김상원(군사편찬연구소 전 전쟁사부장, 정치학박사)

## 감 수

온창일(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정도응(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김계동(연세대학교 교수)  
김유석(합동군사대학교 교관)



## 6 · 25전쟁과 유엔군

2015년 12월 22일 인쇄  
2015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09-3191 FAX : 709-3111

발행인 김 철 수  
디자인 · 인쇄처 국군인쇄창(M15110987)

# The Korean War and UN Forces



Military History Institute, MND

